



하나님의 말씀

# 바른성경



한국 성경 공회



## 머 리 말

# THE WORD OF GOD The Old and New Testaments

*Korean Truthful Version*  
of

The Korean Society of the Holy Bible  
Printed in Korea

KTV 003 1st Printing: December 2009  
Copyright © 2008 by  
The Korean Society of the Holy Bible  
All Rights Reserved

ISBN 978-89-960865-8-1-03230  
ISBN 978-89-960865-7-4-03230  
ISBN 978-89-960865-6-7-0323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같이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요 선물입니다. 그런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 3500여 년 전부터 1500여 년 동안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번역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은 처음 번역된 지 거의 일백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역도 하고 개정도 했지만 오늘의 현대인들이 읽고 연구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성경공회는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1999년부터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기 시작하여 약 9년에 걸쳐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른성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번역하였습니다.

첫째로 〈바른성경〉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번역하였습니다. 바른 신학이란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전제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학을 말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성경의 영감과 무오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접근 태도와 방법은 성도들 개인의 경건 생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바른성경〉은 바른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 입각하여, 교회의 설교와 교육, 그리고 개인의 성경연구를 위하여 번역한 책입니다.

둘째로 〈바른성경〉의 번역 위원들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학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개역성경>의 신학과 신앙과 정신을 대물림하는 번역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반영한 성경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 출판되고 있고, 서구 교회에서는 각각 자기의 신학과 신앙과 심성에 맞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들도 자기의 신학과 신앙에 부합하는 성경을 사용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을 누가 번역했느냐 하는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성경>의 번역에는 한국의 복음주의적인 신학대학교의 교수로서 구약학자 20명, 신약학자 15명, 국어국문학자 5명 모두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 원어에 조예가 깊고, 교수 경력과 목회 경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적인 신학 전통과 성도들의 심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며,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바른성경>은 바른 번역 이론과 원칙에 의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일부의 번역자들은 번역은 기본적으로 원문의 뜻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대본과 역본 사이의 문법이나 구문의 형식적 일치보다는 의미가 일치하는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일치론은 전도용이나 어린이용으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예배용이나 성경연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일치론은 성경 원문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경 원 저자의 의도를 오도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문장에 어순이 따로 없어서 저자는 그의 문학적 재능과 역량에 따라 현란한 문예적 기교를 동원하여 글을 쓰기 때문에 성경은 언어의 수사학적 내지 미학적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문의 이러한 언어적, 문법적, 구문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형식일치론을 배격하고 다만 뜻을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하겠다는 의미일치론은 성경의 영감이나 무오성의 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성경>은 형식일치의 번역이론을 따라 가능하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살리면서 성경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넷째로 <바른성경>은 현대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바른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용하여 온 개역성경은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읽고 암송하며 노래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어나 고어가 많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른성경>은 이러한 개역성경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현대 한국 사람으로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말과 표준말로 문어체와 구어체를 혼용하여 문장 흐름의 유연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습니다.

<바른성경>은 이상의 원칙을 가지고 그 대본으로 구약성경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의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였으며, 신약성경은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른 성경>의 고유명사는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음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다만 일부 지명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이집트, 다마스쿠스,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등과 같이 그 음역을 바꾸어 역사적 현실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사용해온 “여호와”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개역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등으로 번역된 부분에 대하여는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등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성경공회에서 <바른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번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적절함을 쓰셔서 스스로 영광받으시리라 믿고 찬양합니다. 이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신 성도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으며 새롭게 번역하여 출판하여 내놓은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앞으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일 러 두 기

1. 성경의 책명, 책의 약자 그리고 순서는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랐다.
2. 성경의 장은 그 장이 시작되는 줄의 본문 앞에 큰 글자의 숫자로 나타냈다.
3. 성경의 절은 그 절이 시작되는 앞에 숫자로 표시하였으며, 매 절은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였다.
4.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 외래어를 음역할 경우 모두 고딕 글자로 표기하였다.
5. 성경 본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경우 난외에 주를 사용하였다. 책의 각 쪽을 단위로 본문에 한글 자모(ㄱ, ㄴ, ㄷ)의 순서를 따라 표시하였으며, 본문 밑 난외에 내용을 적어 넣었다.
6. 난외주에 사용한 약자 ‘히’는 히브리어를, ‘헬’은 헬라어를 가리킨다.
7. 도량형의 단위는 가능한한 원음을 음역하였다.
8. 본문 안의 숫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용하여 사용하였다.
9. ○표는 원문에는 없으나 장이나 단락이 새로 시작할 때 사용하였다.
10. 본문의 작은 글씨는 원문에 없는 것을 뜻이 통하도록 보충한 것이다.
11. 원문에는 없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문단에 소제목을 붙였다.

## 구약성경

The Old Testament



## 구약성경 차례

창세기(창-50장) .....	1
출애굽기(출-40장) .....	68
레위기(레-27장) .....	122
민수기(민-36장) .....	160
신명기(신-34장) .....	215
여호수아(수-24장) .....	264
사사기(삿-21장) .....	295
룻기(룻-4장) .....	328
사무엘상(삼상-31장) .....	333
사무엘하(삼하-24장) .....	377
열왕기상(왕상-22장) .....	414
열왕기하(왕하-25장) .....	456
역대상(대상-29장) .....	496
역대하(대하-36장) .....	534
에스라(스-10장) .....	577
느헤미야(느-13장) .....	590
에스더(에-10장) .....	609
욥기(욥-42장) .....	618
시편(시-150편) .....	664
잠언(잠-31장) .....	780
전도서(전-12장) .....	816
아가(아-8장) .....	827
이사야(사-66장) .....	835
예레미야(렘-52장) .....	921
예레미야애가(애-5장) .....	1005
에스겔(겔-48장) .....	1015
다니엘(단-12장) .....	1080
호세아(호-14장) .....	1100
요엘(욥-3장) .....	1114
아모스(암-9장) .....	1119
오바댜(옵-1장) .....	1130
요나(욘-4장) .....	1132
미가(미-7장) .....	1135
나훔(나-3장) .....	1144
하박국(합-3장) .....	1148
스바냐(습-3장) .....	1152
학개(학-2장) .....	1156
스가랴(스-14장) .....	1158
말라기(말-4장) .....	1170

# 창세기

## 창

###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 1 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 2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 3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 4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 5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 6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 7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 8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 9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다른 곳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 10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 11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 12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 14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 15 또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를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 16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셨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 17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 18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 20 ○하나님께서 “물에 생물의 무리로 가득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여라.” 말씀하셨다.
- 21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 22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물을 채워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라.” 말씀하셨다.
-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 24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므로 그대로 되었다.
- 25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 26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 27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 29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며
-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 31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2 1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2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



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었다.

- 3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 4 ○이것이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 5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오지 않았다.
- 6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 7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 8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 9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 10 강이 에덴에서 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갈랐고
-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거기에는 수정과 호마노도 있었다.
-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감쌌고
- 14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였다.
- 15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 16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나.
- 17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 18 ○또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라고 하셨다.
- 19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

의 이름이 되었다.

-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 21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므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 22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 23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이고 살 중의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 다." 라고 말하였다.
- 24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

- 3 1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다.
- 2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고 말씀하셨다." 하니,
- 4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고 말하였다.
- 6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 8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 아담 부부를 찾아오신 하나님

- 9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 10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 11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 주었느냐? 네가 너에게 먹지 마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니,
- 12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 13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네가 한 이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 14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16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네 육방은 네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 17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 19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 20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 21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축을 만들어 일하게 하셨다.
- 22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보아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를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다.

- 23 여호와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를 취했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 24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 아벨을 죽인 가인

- 4 1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도움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 2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 3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 4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떠르었다.
-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네 얼굴을 떨떠르었느냐?
- 7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 8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2 네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네게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 13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 14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임이니라.” 하니,  
 15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16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쪽 땅에서 살았다.

#### 가인의 자손들

17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불렀다.  
 18 에녹에게서 이라타이 태어났고, 이라타은 므후아엘을 낳았고, 므후아엘은 므드사일을 낳았고, 므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19 라멕이 두 아녀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싸라였다.  
 20 아다는 아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22 싸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낫과 쇠를 연마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바였다.  
 23 오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싸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상제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24 가인에게 별이 칠 배라면,  
 라멕에게는 별이 칠십칠 배이다.”  
 25 오이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발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26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 아담의 자손들

5 1 오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2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

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3 아담은 백삼십 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고  
 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 아담은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다.  
 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 셋은 구백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고  
 10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 에노스는 구백오 년을 살고 죽었다.  
 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13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 게난은 구백십 년을 살고 죽었다.  
 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아렐을 낳았고  
 16 마할랄렐은 아렐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 마할랄렐은 팔백구십오 년을 살고 죽었다.  
 18 ○아렐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19 아렐은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 아렐은 구백육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드셀라를 낳았고  
 22 에녹은 므드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 에녹은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25 ○므드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26 므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 므드셀라는 구백육십구 년을 살고 죽었다.  
 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29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를 삼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였다.  
 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 라멕은 칠백칠십칠 년을 살고 죽었다.  
 32 ○노아는 오백 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 날로 부패해진 땅 위 사람들

6 1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4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에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5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6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마음에서 슬퍼하셨다.  
 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9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10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11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12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히므로 몹시 부패하였다.  
 1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14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여라.  
 15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길이는 삼백 규빗, 그 너비는 오십 규빗, 그 높이는 삼십 규빗이다.  
 16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위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고, 또 방주 옆에 문을 내며, 일층, 이층, 삼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17 보아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를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18 그러나 내가 네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19 너는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20 새도 그 종류대로, 동물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한 쌍씩 네 게로 데리고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21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네게 쌓아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22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 홍수를 내리신 여호와

7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일곱 쌍을, 정결치 못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한 쌍을 데려가고.  
 3 또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 일곱쌍씩을 데려가서 온 땅 위에 그 씨가 살아남게 하여라.  
 4 이제 칠일이면 내가 밤낮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리,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5 노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6 ○노아가 육백 세가 되었을 때에 그 땅 위에 홍수가 났다.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으며,  
 8 정결한 짐승과 정결치 않은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도  
 9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10 칠일이 되자 그 땅 위에 홍수가 났다.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 일, 그 날에 모든 크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12 밤낮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왔다.  
 13 바로 그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14 그들과 더불어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날개 달린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15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16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의 수컷과 암컷이 와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노아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17 ○땅 위에 사십 일 동안 홍수가 있었는데, 물이 불어나 방주가 땅 위로 떠올랐으며,  
18 물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나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19 물이 땅 위에 더욱 넘쳐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덮였는데,  
20 물이 산을 넘쳐서 산 위로 십오 규빗이나 되었고,  
21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며,  
22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다 죽었다.  
23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 있는 것,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쓸려 버리시니, 그것들이 땅에서 쓸려 갔다. 다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24 물이 백오십 일 동안 땅 위에 넘쳤다.

### 홍수가 끝남

8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2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며,  
3 물이 땅 위에서 점점 물러가고 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  
4 일곱째 달 십칠 일에 방주가 아이라트 산들 위에 머물렀고  
5 물이 열째 달까지 점점 빠져서 열째 달 첫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6 ○사십 일이 지나서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7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땅 위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8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이 땅 위에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고려고 하였는데,  
9 물이 온 땅 위에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여 설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오니,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로 들어오게 했다.  
10 그가 칠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으며  
11 그 비둘기가 저녁때에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새로 판 올리브 잎사귀가 있었으므로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빠진 줄 알게 되었다.  
12 그가 칠일을 더 기다렸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3 ○육백일 년 첫째 달 첫날에 땅 위에서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땅바닥이 말랐고  
14 둘째 달 이십칠 일에 땅이 다 말랐다.

### 여호와께 제사 드린 노아

15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있었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 가득 차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셨다.  
18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 모든 생물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여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는데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22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9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었다.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인 피째 먹지 마라.  
5 반드시 내가 너희 생명이 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6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번성하여라.”

8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 “보아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희와 너의 후손과  
10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 곧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운다.  
11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1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대대로 주는 언약의 표이다.”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나와 너희 사이,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16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17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이다.”라고 하셨다.

### 자식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린 노아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19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  
20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21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23 이에 셈과 야벳이 겹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뒤로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드렸다.  
24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26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가나안

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27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으며,  
29 모두 구백오십 년을 살고 죽었다.

### 노아 자손의 계보

10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는 이렇다.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2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3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4 야완의 자손은 엘리스와 달시스와 갓담과 도다님이니,  
5 이들로부터 해변의 민족들이 그들의 땅에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  
6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리임과 붓과 가나안이고  
7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기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며  
8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되었다.  
9 그가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을 하였다.  
10 그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다.  
11 니므롯이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12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센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은 큰 성읍이었다.  
13 미스리임은 루딤과 아나뮘와 르하빔과 납드힘과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여기서 블레셋이 나왔다)과 감도림을 낳았다.  
15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헛과  
16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화  
17 하위와 알가와 신과  
18 아르뮈트와 스말과 하맛을 낳았는데 그 후로 가나안의 종족들이 퍼져 나갔다.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20 이들은 그들의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나라에 따른 함의 자손이다.  
21 ○셈은 아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인데 그에게도 자녀가 태어났으니,

- 22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룯과 이람인데,  
 23 이람의 자손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이고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요단이다.  
 26 욥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실마윳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는데 이들은 다 욥단의 자손이며,  
 30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부터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지였다.  
 31 이들은 그들의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나라에 따른 셈의 자손이다.  
 32 ○이들은 그들의 나라 가운데 계보에 따른 노아 자손의 종족들이니,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그 땅의 민족들이 나뉘었다.

### 바벨탑

- 11 1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2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3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4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여지지 않도록 하자.” 라고 말하였다.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축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며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이것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일을 막지 못할 것이냐.”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 위에 흠여오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다.  
 9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 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흠여셨다.

### 셈의 자손

- 10 ○셈의 계보는 이렇다. 셈이 백세 때, 곧 홍수 후 이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 아르박삿을 낳은 후 오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 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13 셀라를 낳은 후 사백삼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15 에벨을 낳은 후 사백삼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19 르우를 낳은 후 이백구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21 스룩을 낳은 후 이백칠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23 나홀을 낳은 후 이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25 데라를 낳은 후 백십구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26 ○데라는 칠십 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27 ○데라의 계보는 이렇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니 하란의 딸이며,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고 이사가의 아버지였다.  
 30 사래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룯과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 살았다.  
 32 데라가 이백오 세를 살다 하란에서 죽었다.

###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 12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땅, 네 친족, 네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4 ○아브람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람이

### 롯과 헤어진 아브람

- 하란에서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다.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지역 모레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였고, 아브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8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9 그 후 아브람은 점점 이동하여 네게브로 갔다.

###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간 아브람

- 10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하므로 아브람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11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래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인데,  
 12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니,  
 13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오.”  
 14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15 바로의 대신들도 그 여자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졌다.  
 16 바로가 그 여자 때문에 아브람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람이 양 떼와 소 떼와 수나귀들과 낙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들과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들로 치시니,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다. “네가 내게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 여자가 네 아내라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19 왜 그 여자가 네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거라.”  
 20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니, 그들이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냈다.

- 13 1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게브로 올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베델까지 여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그의 장막이 처음 있던 곳까지 갔는데  
 4 그곳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5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와 장막들이 있었다.  
 6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살 곳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7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8 ○그러자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0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와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11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13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14 ○롯이 아브람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15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16 내가 네 후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이다.”  
 18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 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 롯을 구출한 아브람

- 14** 1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랄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2 그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하였다.  
3 이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고, 곧 사해에 모였다.  
4 십이 년 동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십삼 년에 반역하였다.  
5 제 십사 년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함께한 왕들을 데리고 와서 아스돗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족속을, 함에서는 수스 족속을, 시웨 기라다임에서는 엠 족속을 치고,  
6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7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이말렉 사람의 모든 들판과 또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실패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  
9 이들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랄 왕 아리옥, 네 왕과 맞서 싸웠는데  
10 실패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다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빼앗아 갔고  
12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13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 이때 아브람은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삼백십팔 명을 동원하여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서 적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비까지 추격하여  
16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 왔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 왔다.

### 아브람을 축복한 헬기세덱

-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시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18 헬람 왕 헬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 19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20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람이 모든 것 중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게 드렸다.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지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23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24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땀만 받게됩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 15** 1 ○이 일들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2 아브람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 셀입니다.” 하고  
3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4 보아라,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5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7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이다.” 하였다.  
8 아브람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삼년 된 암소와 삼년 된

- 암염소와 삼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네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10 아브람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11 술체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람이 그 것들을 쫓아 버렸다.  
12 ○해질 무렵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려다.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사백 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14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15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16 네 후손은 사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해가 저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헤트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0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람

- 16**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그에게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시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내가 그 여자를 통하여 아이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었다.  
3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십년이 지났을 때,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4 아브람이 하갈에게로 들어갔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멀리하였다.  
5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이 수모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주었더니,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멀리합니다. 여호와

- 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자에게 하시오.” 하므로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래에게서 도망하였다.  
7 ○여호와와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로 향하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 여자를 만나,  
8 묻기를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 하갈이 대답하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래에게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였다.  
9 여호와와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아래에 복종 하라!” 하고  
10 말하기를 “내가 네 후손을 매우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1 여호와와 천사가 또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12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항할 것이며, 그는 그의 모든 형제를 대항하며 살 것이다.”  
13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이시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는 분을 뵈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14 그 우물을 브엘라해로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고,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은 팔십육 세였다.

### 할례를 명하신 여호와

- 17** 1 ○아브람이 구십구 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니,  
3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4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  
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5 더 이상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6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  
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후손 사이에 대  
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  
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9 ○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네 후손도 대대  
로 지켜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  
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11 너희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12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  
난 지 팔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네 후  
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13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지 너희가 돈으로 샀든  
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야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  
이 될 것이다.  
14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15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라는 그 이름을 사래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시라라고 하여라.  
16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  
여 네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  
자에게서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17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속  
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백성 된 사람에게 아  
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구십 세  
나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  
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  
1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라가 네  
게 아들을 꼭 낳아 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  
이다.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로 생육하  
여 지극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그가 열두  
족장을 낳을 것이며,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  
게 할 것이다.  
21 그러나 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  
가 네게 낳아 줄 이삭과 세우겠다.”  
22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기를 마치시  
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23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  
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 모든 남자를 데  
려다가 그들의 포피를 베었는데,  
24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를 베어낸 때는 구십구  
세였고,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포피를 베어낸 때  
는 십삼 세였는데,  
26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  
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모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여호와

18 1 ○ 여호와께서 마르래의 상수리나무 근  
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2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의 맞은편  
에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 나  
가 그들을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3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  
혜를 입었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  
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5 제가 빵을 조금 가져와 테니 여러분의 마  
음에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는 여  
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  
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6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사람에게 급히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  
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하였고  
7 또 소 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그것을 요리하였다.  
8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  
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그들  
이 먹는 동안에 나무 아래 그들 곁에 서 있었

다.  
9 ○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오,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10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  
맘때에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보아  
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 문에  
서 들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  
게는 생리마저 그쳤으므로  
12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  
움이 있겠는가?” 하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  
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  
으로 아이를 낳겠느냐?’ 라고 말했느냐?  
14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겠으니, 사  
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5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제가 웃  
지 않았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구한 아브라함**  
16 ○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 쪽을 내  
려다보았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1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  
을 것이다.  
19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공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와 아브라  
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시고,  
20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  
침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 라고 하셨다.  
22 ○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24 그 성 안에 의인 오십 명이 있는데도 멸하시  
렵니까? 그 의인 오십 명을 위하여 그곳을 용  
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5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되는 일도  
부당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

의를 행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6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 성 안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  
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27 ○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저는 티끌  
이나 재와 같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28 만약 의인 오십 명 중에 다섯이 모자라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  
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고 하였  
다.  
29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말하기를 “만일 거  
기서 사십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  
까?” 하니, “그 사십 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  
겠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30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  
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  
니,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31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감히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이십 명을 찾  
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이십 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고 여호와께  
서 말씀하셨다.  
32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  
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  
서 열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  
니, “내가 그 열 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33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기를 마치자  
즉시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거처로 돌아  
갔다.

### 소돔과 고모라

19 1 ○ 두 천사가 저녁때에 소돔에 도착하였  
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2 그가 말하기를 “내 주여, 보소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머무셨다가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  
기를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냈  
다.” 하였으니,  
3 롯이 그들에게 간청하자 그들이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롯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  
를 베풀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4 ○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  
지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 5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하니,
- 6 롯은 대문 입구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 7 말했다. “네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마시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 8 보시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소. 내가 그 애들을 당신들에게로 데려올 테니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 9 그들이 말하기를 “물려서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와서 머물며 이제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쳐야겠다.” 하며 롯을 세게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다.
- 10 그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이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
- 11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쳐서 그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느라고 지쳤다.
-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네게 딸린 사람이 여기에 또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성을 안에 네게 딸린 이들은 누구든지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
- 14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다.
- 15 ○동들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데리고 나가 이 성읍을 심판하는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하였으니,
- 16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롯에게 공회를 베푸신 것이다.
- 17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 말하기를 “네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네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니,
- 18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19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

- 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공회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히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 20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1 천사가 그에게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 22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네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다.
- 23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에 해가 떠올랐다.
- 24 여호와께서 유향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 25 그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엷어 멸하셨는데,
-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 27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으로 가서
-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골짜기의 온 땅을 보았더니 보아라, 땅의 연기가 마치 웅기 가마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 29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들을 엷으실 때에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롯

- 30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 그의 두 딸들과 함께 골에서 살았는데,
- 31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동침할 남자도 없다.
- 32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자.” 하고,
- 33 그들이 그 밤에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아버지는 딸이 낳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34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

- 자.” 하고,
- 35 그 밤에도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그 아버지는 딸이 낳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36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임신하여
- 37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 38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벳암미라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 20 1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하여 그랄에 살았다.
- 2 아브라함이 아내 사리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리를 데려갔다.
- 3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네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이다.” 하니,
- 4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으므로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과 지도 죽이십니까?
- 5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나의 누이이다.’ 하고, 그 여자도 또한 ‘그는 나의 오라버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까.”
- 6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짓지 않게 하였으니, 네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들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 8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일을 다 말하니,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였소.” 라고 하며

-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보고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소?” 하니,
- 11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12 또 실제로 그 여자는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 되었습니다.
- 13 하나님께서 나로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나에 대하여 내가 오라버니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호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 14 ○아비멜렉이 양 떼와 소 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되돌려 주며,
- 15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머무르시오.” 하였으니,
- 16 사라에게도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은 천 개를 당신 오라버니에게 주어 당신과 당신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신의 수치를 보상하려는 것이니, 이제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소.” 라고 하였다.
-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 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 18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단아 버리셨기 때문이다.

#### 이삭의 출생

- 21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리를 돌려보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 2 사라가 임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 3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고,
- 4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팔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 5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나이가 백 세였다.
- 6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고



7 또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였다.

####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아브라함

8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는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이삭을 종용하였다.

10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였다.

12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와 네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네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였다.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와 함께 내보내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였다.

15 ○하갈이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아이를 한 덩불 아래로 보내어놓고

16 그 여자는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가서 마주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소리 높여 우니,

17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며,

19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20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 아이는 자라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21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하였다.

####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아브라함

22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23 당신이 이제 여기서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

24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소.”라고 말하였다.

25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우물의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26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 또한 오늘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니,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어가다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다.

28 아브라함이 양 떼 중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니,

30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은 내 손에서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받아 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31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으니, 거기서 그 두 사람이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애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34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여호와

22 1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해 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3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4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

을 바라보고

5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6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워 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들었다.

7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8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들었다.

9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10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11 여호와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12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였다.

13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15 ○여호와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17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18 또 네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9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되돌아왔고,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

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 나홀의 자손

20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보시오, 밀기도 또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 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21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고,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 니.

23 이들 여덟 사람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브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24 나홀의 첩의 이름이 르우마였는데, 그 여자는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이가를 낳았다.

####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아브라함

23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해수이다.

2 사라가 가나안 땅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고

3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헛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4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당신들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할 것이요.” 하니,

5 헛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6 “내 주여, 우리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백성, 곧 헛 자손들에게 절하고

8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도록 할 뜻이 당신들에게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하여

9 그의 밭가에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며,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충분한 값으로 매장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기를 바라오.”

10 ○이때 에브론이 헛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헛 사람 에브론이 그의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헛 자손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11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 밭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다. 내가 내 백성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12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절하고

13 그 땅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이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소.” 하였다.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땅은 온 사백 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하였다.

16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헛 자손들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온 사백 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 주었다.

17 오마침내 마르세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 주위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전부

18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헛 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갔다.

19 그런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리를 마르세 앞, 곧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20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매장지로 헛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로 넘어갔다.

### 이삭의 아내

24 1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셨다.

2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인 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4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5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

6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7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

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8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9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10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의 낙타들 중에 열 마리를 이끌고 떠났으니, 그 종은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11 그가 낙타들을 성 밖의 우물 곁에 무릎 꿇게 하였는데, 때는 저녁 무렵, 물 길는 여자들이 나홀을 때었다.

12 그가 말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13 보소서, 제가 여기 샘물 곁에서 서 있겠습니다. 그때 저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제가 어떤 소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가 마시게 하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말하기를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소녀가 주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며, 그 일로써 제가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애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15 ○보이라,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브두엘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여에게 물동이를 메고 나왔는데,

16 그 소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 소녀가 샘으로 내려가서 그의 물동이를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 데,

17 종이 그를 만나려고 달려가 말하기를 “당신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만 마시게 하시오.”라고 하니,

18 그 소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십시오.” 하고 재빠르게 물동이를 그의 손에 내려 그로 마시게 하였다.

19 그가 다 마신 후 소녀가 말하기를 “주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겠습니다.” 하고,

20 재빠르게 그의 물동이의 물을 물통에 붓고, 다시 물을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

21 한편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

하게 하시지는를 알기 위하여 그 소녀를 묵묵히 지켜 보았다.

22 ○낙타들이 다 마신 다음에, 그 종이 무제가 반 세겔인 금고리 하나와 금 열 세겔인 팔찌 두 개를 소녀에게 주며,

23 그 종이 “당신은 누구의 딸이시요? 내게 알려 주시오.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잠잘 곳이 있소?”라고 말하니,

24 소녀가 그 종에게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하고

25 “우리에게는 짐과 여물이 많이 있으며, 주무실 곳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26 그 사람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27 “여호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주님의 인애와 진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28 그 소녀가 달려가서 그의 어머니 집에 이 일들을 알렸다.

29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나갔는데,

30 그는 그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 손의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은 우물이 낙타들 옆에서 있었다.

31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여,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은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집과 낙타들을 위한 장소도 마련하였습니까.”라고 하였다.

32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니,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내리고, 짐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밭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말 썰을 물을 주고,

33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내놓으니, 그 사람이 “제가 저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라반이 말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므로

34 그가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양 떼와 소 떼와 온갖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35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제 주인의 아들을 낳았고, 주인은 그 아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37 제 주인이 제게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38 오직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라.’ 하였습니까.”

39 제가 제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저를 따라서 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라고 하니,

40 주인이 제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다. 그분께서 천사를 나와 함께 보내시어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안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너라.

41 내가 내 친족에게로 갔을 때, 너는 내 맹세와 상관 없이,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와 상관 없이.’

42 ○저는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만일 제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43 제가 여기 우물 곁에서 있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에게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해 달라고 말하였습니까.

44 그때 그 여자가 제게 마시라고 하고 제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겠다고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입니다.’

45 ○보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여에게 물동이를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 좀 마시게 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46 그러자 리브가는 재빠르게 그의 여에서 물동이를 내리며 ‘마시십시오. 제가 또 당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제가 물을 마시니, 그 소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47 제가 리브가에게 ‘당신은 누구의 딸이시요?’라고 물어 보니, 리브가는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인 브두엘의 딸입니다.’라고 말하므로 저는 고리를 그 코에 걸어 주고, 그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48 그리고 저는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까.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동생의 딸을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신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9 자, 이제 당신들이 저의 주인에게 호의와 진실을 행하려면 제게 알려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제게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좌우간 행하게 해 주십시오.”

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거나 싫다고 말할 수 없습



##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

- 25** 1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2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이를 낳아 주었다.  
 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아들들은 아시리아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 되었다.  
 4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5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고  
 6 첩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동쪽, 곧 동방 땅으로 그들을 내보냈다.

## 그의 백성에게 합류한 아브라함

- 7 ○아브라함이 살았던 헷수는 백칠십오 년이다.  
 8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9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근처,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로의 들판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는데,  
 10 이 들판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것으로,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다.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 이 근처에 살았다.

##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의 자손들

- 12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렇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다.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계보를 따라 이렇다. 이스마엘의 딸아들은 느바웃이고 그 다음은 게달과 잇브엘과 밍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니비스와 게드마이다.  
 16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니, 그들의 마을과 거주지에 따른 이름이며, 그들의 지파에 따른 열두 명의 지도자들이다.  
 17 이스마엘의 살았던 헷수는 백삼십칠 년이며 그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18 그의 자손들은 하릴라에서부터 아시리아로 가는 이집트 앞의 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았다.

## 아람과 에서

-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렇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밋단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이며 리반의 누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21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서로 싸우므로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23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24 리브가의 출산 기한이 다 차오니, 보아라, 그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25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몸뚱이 털옷과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26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람이라고 불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육십 세였다.

## 장자권을 판 에서

- 27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아람은 장막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아람을 사랑하였다.  
 29 ○한번은 아람이 죽을 꿇리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피곤하였으므로,  
 30 아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31 아람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라고 하니,  
 32 에서가 “보아라, 내가 죽어 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고 말하였다.  
 33 아람이 “오늘 내게 맹세하십시오.” 라고 말하므로 에서가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아람에게 팔았다.  
 34 아람이 에서에게 빵과 팔죽을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떠났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법게 여겼다.

## 그날 땅에서의 이삭과 리브가

- 26** 1 ○그 땅에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어 이삭이 그날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3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며,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이룰 것이다.  
 4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지시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6 ○그러하여 이삭은 그날에 살았으며  
 7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묻자, 이삭이 “그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삭이 리브가의 용모가 아름다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의 아내”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8 이삭이 거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을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보아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았다.  
 9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아라, 그 여자는 분명 너의 아내인데 왜 너는 ‘그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 아내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10 아비멜렉이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였더라면, 네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뻔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11 이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명령하였다.

## 우물들 양보한 이삭

- 12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백 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14 그에게 양 떼와 소 떼가 있었으며, 종도 많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15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파 놓은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매워 버렸다.

16 이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17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였다.

18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꿔던 우물들을 다시 꿔오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매웠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삭의 종들이 그 계곡을 파서 거기서 생수의 샘을 발견하였는데,

20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하니, 이삭은 그들이 자기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꿔는데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고 불렀다.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꿔는데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3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24 그 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25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꿔다.

#### 이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삭

26 이비멜렉이 그의 친구 이훗삭과 그의 군사령관 비글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왔다.

27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일로 내게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니,

28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당신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라.”

29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시오, 우리 또한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당신에게 오직 선한 일만 하였으며, 당신을 평안히 보내 주

었소,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니, 그들이 먹고 마셨으며

3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에게 맹세하였다. 그 후 이삭은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이삭을 떠나 평안히 돌아갔다.

32 바로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33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이다.

34 에서가 사십 세에 헛 사람 브엘리의 딸 유딧과 헛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35 이 여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 속임수로 축복받은 야곱

27 1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이.” 하고 말하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므로

2 이삭이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나는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3 이제 너는 너의 도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6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겠다.” 고 하였으니,

8 이제 내 아들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말을 들어라.

9 너는 가축 떼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10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그가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12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저는 그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13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였다.

14 그러하여 야곱이 가서 붙잡아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15 리브가는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새끼 염소들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그의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17 리브가가 자신이 만든 별미와 빵을 그의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다.

18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시여.” 하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이, 너는 누구냐?” 하고 말하였다.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자,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였다.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처럼 빨리 잡았느냐?” 말하니, 야곱이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제게 쉽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1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이,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 보겠다.”라고 말하니,

22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지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라고 말하였다.

23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였다.

24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25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가까이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므로, 야곱이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이삭이 먹었고, 또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가니 이삭이 마셨다.

26 그러하여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춰라.” 하므로

27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며 말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28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29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네게 엎드릴 것이니,

너는 네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엎드릴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

30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31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

32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하자.

33 이삭은 심하게 떨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니,

35 이삭이 말하기를 “네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다.

36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저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십시오, 이제 그는 제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보아라, 내가 그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도. 그러므로 내 아들이,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버지의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39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아라, 네 거주지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떨 것이며,  
40 너는 네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힘을 얻게 될 때에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쉬 버릴 것이다.”

#### 야곱을 죽이려고 한 에서

41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준 그 축  
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말  
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 고통할 날이 가까우  
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  
였다.  
42 큰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므로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 형 에서  
가 너를 죽여 네게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니,  
43 내 아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리반에게로 도망하여,  
44 네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  
와 함께 머물러라.  
45 너에 대한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  
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잃을 수 있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헛 사  
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했는데, 만일 야  
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헛 사  
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집을 떠난 야곱

28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  
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2 너는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할아버  
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네 외삼촌 리반의 딸  
들 중에서 네 아내를 얻어라.  
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  
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네가 여러 백성의 무  
리를 이루고,  
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너와 함께  
한 너의 후손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  
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내가 소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5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야곱은 밧단아람의 라  
반에게로 갔다. 리반은 이람 사람 브두엘의 아  
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  
라버니였다.  
6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그의 아내를 얻게 하고, 또 그  
에게 축복하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  
에서 아내를 얻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을 예  
서가 보았다.  
7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갔다.  
8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  
삭의 눈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9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의 딸이며, 느비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  
내들 외에 또 아내로 삼았다.

####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10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1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12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  
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13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  
다. “나는 여호와, 곧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  
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  
겠다.  
14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  
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15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  
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겠고, 너를 이 땅으  
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  
다.”  
16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17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  
이구나.” 라고 말하였다.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  
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  
대기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20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  
시며,

21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  
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라 되실 것이  
며,  
22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  
에서 제가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  
리겠습니다.”

#### 리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

29 1 ○야곱이 그의 말길을 옮겨 동방 사람  
들의 땅으로 갔다.  
2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그 곁에 양  
떼 세 무리가 누워 있었으며 그 우물에서 양  
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우물의 입  
구에는 큰 돌이 있었다.  
3 모든 양 떼들이 거기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우  
물 입구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우물 입구를 그 돌로 다시 덮었  
다.  
4 ○야곱이 그들에게 “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들은 하란에서 왔습니다.”고 대답하였  
다.  
5 야곱이 또 그들에게 “당신들은 니홀의 손자 라  
반을 알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가  
알니다.”라고 대답하였다.  
6 야곱이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은 “평안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7 야곱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아직 한낮이여  
서 가축을 모을 때가 아닙니다. 양들에게 물  
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십시오.” 하니,  
8 그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양 떼가  
다 같이 모이고, 돌을 우물 입구에서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  
고 말하였다.  
9 ○아직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  
이 그의 아버지의 양 떼와 함께 이르렀다. 라  
헬은 양치기였다.  
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리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  
삼촌 리반의 양 떼를 보자, 다가가서 우물 입  
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의 외삼촌 리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11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  
면서  
12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요, 리브가의 아  
들이라고 말했으므로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알렸다.  
13 ○리반이 그의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나와 그를 맞이하여 야곱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리반에게 이야기  
했다.  
14 리반이 그에게 “정말로 너는 나의 혈육이다.”  
말하고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  
15 ○리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  
라고 해서,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  
였다.  
16 리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레아  
이고, 작은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17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생김새가  
예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18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제가 외삼촌  
의 작은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칠년 동안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9 리반이 말하기를 “내가 라헬을 네게 주는 것  
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라.” 하니,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리반을 섬겼  
으나,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칠년이 그  
에게는 며칠과 같았다.  
21 ○야곱이 리반에게 “제 기한이 왔으니, 제 아  
내를 주십시오. 제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  
겠습니다.”라고 말하므로,  
22 리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배풀고  
23 저녁이 되어 리반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 여자에게  
로 들어갔다.  
24 리반이 또 자기의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여  
종으로 주었다.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그 여자는 레아였으므로  
리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제게 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외삼촌은 저를 속이  
셨습니까?” 하니,  
26 리반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만팔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27 그러니 칠일을 채워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딸도 네게 주겠다. 그 대신 너는 칠 년 동안  
더 나를 섬겨라.” 하였다.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니, 리반  
이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29 또 자기의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30 그리하여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으  
며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시  
칠년 동안 리반을 섬겼다.  
레아의 네 아들들  
31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  
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 못하였다.
-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33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도 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다.
- 34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에게 세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은 레위라고 불렀다.
- 35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으며,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 라헬의 여종 빌하의 두 아들들

- 31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함을 보고, 자기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니,
- 2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당신에게 태의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겠소?”라고 말하였다.
- 3 라헬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 종 빌하가 있으니,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십시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둔다면, 나도 한 그를 통하여 자식을 얻게될 것입니다.” 하고
- 4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야곱이 그 여자에게 들어갔으므로
-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 6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 7 라헬의 여종 빌하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니,
- 8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언니와 큰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다.
-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두 아들들
-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의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의 아내로 주니,
- 10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 11 레아가 말하기를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불렀다.

- 12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자,
- 13 레아가 말하기를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다.

### 레아의 나머지 두 아들과 딸

- 14 ○밀을 거두는 철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언니 아들의 합환채를 내게 주시오.” 하였다.
- 15 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내 아들의 합환채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언니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날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잘 것입니다.” 하였다.
- 16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내게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를 주고 당신을 샅습니다.” 하니, 그 밤에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였다.
- 17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레아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 18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준 값을 갚아 주셨다.” 하여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불렀다.
- 19 ○레아가 또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 20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으니, 이번에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하여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다.
- 21 그 후에 레이는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다.

### 라헬의 아들 요셉

- 22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 주시니,
- 23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하고,
- 24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바란다.” 하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다.

### 부자가 된 야곱

-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 제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 26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니, 제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 27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에 좋게 보이거든 머물러라. 내가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하고
- 28 또 말하기를 “네 품삷을 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였다.
- 29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이 저와 함께 있었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 30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으나 늘어나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으나 저는 어느 때에나 제 집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하니,
- 31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내게 주면 좋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했다. “외삼촌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면, 제가 돌이켜 외삼촌의 양 떼를 돌보고 지킵시다.
- 32 오늘 제가 외삼촌의 모든 양 떼 가운데 다니면서, 그 중에 얼룩지거나 점 있는 모든 양과 검은 색의 어린 양과 염소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을 모두 가려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품삷이 될 것입니다.
- 33 훗날 외삼촌이 오셔서 제 품삷을 조사할 때에 저의 의로움이 외삼촌 앞에서 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염소들 중에서 얼룩지지 않거나 점이 없는 모든 것과 양들 중에서 검은 것이 아닌 것이 제게 있으면 다 훗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 34 라반이 말하기를 “좋다. 네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 35 바로 그 날 라반이 줄무늬와 점이 있는 숫염소와 얼룩지고 점 있는 모든 암염소와 하얀 색깔이 조금 있는 모든 숫과 어린 양들 가운데 모든 검은 것들을 가져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기고,
- 36 라반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 거리를 두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돌보았다.
- 37 ○야곱은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들을 줄무늬가 되도록 꺾질을 벗겨 하얀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 38 야곱은 그 꺾질 벗긴 막대기들을 개천의 물구유에 세웠으며 양 떼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짹짹하기를 하였다.
- 39 양 떼들이 그 막대기가 있는 데서 새끼를 배으며 양 떼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 40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고, 라반의 양 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따로 떼어놓아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

- 므로 라반의 양 떼들과 섞이지 않았다.
- 41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뿔 때면 야곱은 그 막대기를 개천, 곧 양들의 눈앞에 두어서 양들이 그 막대기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였으니
- 42 양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 막대기를 두지 않았으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 43 야곱이 점점 번창하여 양 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게 되었다.

###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야곱

- 31 1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이뤘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 2 라반의 얼굴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조상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다.
- 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 5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내게 대하여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소.
- 6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 7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삷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 8 외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열룩진 것들이 네 품삷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 떼가 얼룩진 것들을 낳고, 또 ‘줄무늬 있는 것들이 네 품삷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 떼가 줄무늬 있는 것들을 낳았소.
- 9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족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 10 가족 떼가 새끼 뿔 때였는데, 내가 눈을 들어 꿈속에서 보니, 가족 떼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었소.
- 11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내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 12 천사가 말했소. ‘네 눈을 들어 보아라. 가족 떼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 13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

- 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었습니까?
-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삼켜 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16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 17 ○아굽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 18 그의 모든 가축 떼와 그가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단아림에서 모아서 소유하게 된 모든 가축 떼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했다.
- 19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 20 아굽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자기가 도망하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 21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여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 쪽으로 향하였다.
- 22 ○아굽이 도망한 것이 사흘 만에야 라반에게 알려지니,
- 23 라반이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을 데리고 칠일 길을 뒤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으나,
- 24 하나님께서 그 날 밤 꿈속에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조심하여 아굽에게 선 악간에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다.
- 25 ○라반이 아굽을 따라잡았을 때, 아굽은 산에 장막을 쳐 놓고 있었으며, 라반도 자기 친족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다.
- 26 라반이 아굽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왜 네가 나를 속이고, 사로잡은 자들처럼 내 딸들을 잡아갔느냐?
- 27 왜 너는 도망가는 것을 숨기고, 나를 속여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기쁘게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 28 왜 너는 내가 네 손자들과 딸들과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지금 네가 한 일이 어리석다.
- 29 너희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너는 조심하여 아굽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다.
- 30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이 몹시 그리워 떠날 수는 있으나, 왜 내 신들을 훔쳤느냐?”
- 31 아굽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제게서 강제로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 32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외삼촌의

것을 제가 가졌다면 우리 친족들 앞에서 보여 주시고 가져 가십시오.” 하였으나, 아굽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줄을 모르고 있었다.

- 33 ○라반이 아굽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 34 라헬은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그 장막을 모두 살살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 35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 앞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니, 라반이 뒤져 보았지만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 36 아굽이 회를 내며 라반에게 항변하여 말했다. “제 잘못이 무엇이고, 저의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는 제 뒤를 불같이 쫓아오셨습니까?”

- 37 외삼촌이 제 모든 물건을 살살이 뒤져 보았는데, 외삼촌 집의 모든 물건 중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기 제 친족들과 외삼촌의 친족들 앞에 이 일을 내놓고, 그들이 저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합시다.

- 38 제가 지난 이십 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또 외삼촌의 양 떼 중 숫양들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까.

- 39 물려 찢긴 것은 제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는 제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까.

- 40 저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불일 겨로도 없었습니다.

- 41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십 년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으나 외삼촌은 제 품삯을 별 없이나 바꼈습니다.

- 42 제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이제 저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고생과 제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셨습니까.”

#### 라반과 언약을 맺은 아굽

- 43 ○라반이 대답하기를 “딸들은 내 딸들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며, 양 떼는 내 양 떼고,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 44 이제 오너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하니,

- 45 이에 아굽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 46 또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아라.” 하고 말하니, 그들은 돌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드려고, 거기 그 무더기 곁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라고 불렀고, 아굽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 48 라반이 “이 무더기가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증거이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지켜 보시기를 바란다.”

- 50 내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비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중인이 되실 것이다.”라고 그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 51 ○또 라반이 아굽에게 말하였다. “이 무더기를 보아라. 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세운 기둥을 보아라.

-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지 않을 것이고, 너 역시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53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굽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고,

- 54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의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니, 그들이 빵을 먹고 그 산에서 밤을 보냈다.

-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자기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해 주고 길을 떠나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 에서를 두려워한 아굽

- 32 1 ○아굽이 자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 2 아굽이 그들을 보자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 3 ○아굽이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면서

- 4 그들에게 지시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아굽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습니

- 5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내 주께 은총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알려 드립니다.’ 하라.”

- 6 ○심부름꾼들이 아굽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주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는데, 사백 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

- 7 아굽이 몹시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 8 아굽이 말하기를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남은 한 무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 9 ○아굽이 또 말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전에 제게 ‘너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하신 여호와시여,

- 10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모든 진실하심이 제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무리가 되었습니

- 11 원하오니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형이 와서 저와 처자를 공격할까 두려웁습니

- 12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선대하여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셀 수 없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

#### 에서를 달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한 아굽

- 13 ○아굽은 그 날 밤을 거르지 지낸 뒤, 자기 수중에 있는 것 중에서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고르니,

- 14 암염소가 이백 마리, 숫염소가 이십 마리, 양양이 이백 마리, 숫양이 이십 마리,

- 15 젖을 빨리는 낙타 삼십 마리와 그에 딸린 새끼들, 암소가 사십 마리, 황소가 열 마리, 암나귀가 이십 마리, 수나귀가 열 마리였다.

- 16 아굽이 그것들을 각각의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거라. 한 떼와 다른 떼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 17 또 앞장 선 종에게 지시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문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 18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아굽의 것인데,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라.”

- 19 아굽은 또 그 둘째와 셋째와 가축 떼들을 따라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그에게 이대로



- 말해라.  
 20 또 너희는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서 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 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21 그리하여 그 선물은 야곱보다 앞서 건너가고, 그는 그 날 밤을 그 장막에서 보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22 ○바로 그 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압박 나루를 건넜는데,  
 23 야곱은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기의 소유도 건너게 한 후에  
 24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이 뜨기 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25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으므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 하던 중에 그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다.  
 26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이 뜨니 나를 보내라." 하니,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27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28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29 야곱이 "주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30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3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엉덩이뼈 힘줄을 먹지 않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힘줄이 있는 엉덩이뼈를 쳤기 때문이다.

### 에서를 만난 야곱

- 33**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오고 있는데 사백 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자식들은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으며  
 3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

가가기까지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 4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네게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하나님께서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6 그때에 여종들이 자기들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였고  
 7 레아도 그 여자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였으며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다가와서 절하였다.  
 8 에서가 또 물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내 주께 은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9 에서가 말하기를 "네 동생아, 내게는 충분히 있다. 네 것은 네게 두어라." 하니,  
 10 야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부디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받아 주셨으니,  
 11 부디 제가 형님께 가져온 저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고, 야곱이 그에게 간청하자 에서가 받아들였다.

### 에서를 떠나 세겜에 온 야곱

- 12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같이 가자. 내가 네 앞서 가겠다." 하니,  
 13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 아시듯이 자식들은 연약하고 젖먹이가 딸린 양 떼와 소 떼가 제게 있으므로, 하루만이라도 그 것들을 심하게 몰면 모든 가축 떼가 다 죽을 것입니다.  
 14 내 주께서는 부디 이 중을 앞서 지나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 떼의 걸음걸이와 또 자식들의 걸음걸이대로 천천히 진행하여, 세일에 있는 내 주께로 가겠습니다."  
 15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몇을 네게 남겨 두겠다." 라고 하니, 야곱이 "그렇게 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주 앞에 은총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16 그 날 에서는 세일의 자기 길로 되돌아갔고,  
 17 야곱은 숙곳으로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 떼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그곳의 이름을 숙곳이라 불렀다.  
 18 ○이처럼 야곱은 반디아람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19 그는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 백 개를 주고 구입

- 하여,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 세겜에게 성폭행 당한 디나

- 34** 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려 나갔다.  
 2 하위 사람 하물의 아들이며 그 땅의 통치자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 여자를 붙잡아 동침하고 욕을 보였다.  
 3 세겜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끌려 그 소녀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소녀의 마음을 사려고 친절하게 말했다.  
 4 또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물에게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5 ○한편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그의 가축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 오기까지 조용히 있었다.  
 6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왔다.  
 7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슬퍼하며 분노하였다. 세겜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을 격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8 ○하물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을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부디 그 소녀를 세겜의 아내로 주십시오.  
 9 우리와 함께 통혼하여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10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거기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을 얻으십시오."  
 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서 은총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모두 드리지 않겠습니다."  
 12 신부 값과 예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당신들이 내게 말하는 대로 드리겠으니, 다만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 복수한 야곱의 아들들

- 13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을 속여 대답하였으니,  
 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5 다만 당신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 16 그러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며,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며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17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18 ○하물과 하물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19 이 젊은이는 야곱의 딸을 원하였으므로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였으니, 그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였다.  
 20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성읍 문에 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1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니, 그들이 이 땅에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보십시오,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줍시다.  
 22 다만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백성이 되기를 허락할 것입니다.  
 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24 그의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딸을 듣고, 그의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25 ○셋째 날 그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26 그들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으며,  
 27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들의 시체를 넘어가 그 성읍을 약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28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약탈했다.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으므로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  
 31 그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기처럼 취급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 베델로 올라간 야곱

- 35** 1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 오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 2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
- 3 우리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 4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 5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 6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 오던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니,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

## 다시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 9 ○야곱이 벳단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 10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 11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 13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 14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5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 이

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 베나민을 낳고 죽은 라헬

- 16 ○그들이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라타에 이르거니와 아직 거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 라헬이 출산하게 되었는데 고통이 심하였다.
- 17 라헬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심하니,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 18 라헬이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아버지는 그를 베나민이라고 불렀다.
- 19 라헬이 죽으니, 에브라타 곧 베들레헬 길에 장사되었고,
- 20 야곱이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을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한다.
- 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벨 땅대를 건너서 장막을 쳤다.

##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들 (대상2:1-2)

-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 때에,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었다.
- 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고,
- 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나민이다.
- 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고,
- 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인데, 이들은 벳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그의 아들들이다.

## 이삭을 장사한 에서와 야곱

- 27 ○야곱이 가뒀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가뒀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였던 헤브론이다.
- 28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였다.
- 29 이삭이 늙어 장수하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류하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 에서의 계보 (대상1:34-37)

- 36** 1 ○에서, 곧 에돔의 계보는 이러하다.
- 2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맞이하니,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 3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밧의 누이인 바스맛이다.
- 4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 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태어난 그

의 아들들이다.

- 6 ○에서는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과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 앞에서 떠나 다른 땅으로 갔으니,
- 7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족 때문에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 8 에서는 세일 산지에서 살았는데, 그는 곧 에돔이다.
- 9 ○세일 산지에 거주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계보는 이러하다.
- 10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은 르우엘이다.
- 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 12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엘리바스에게 이말렉을 낳아 주었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 13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인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 14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여자가 에서에게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 15 ○에서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자손들은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 16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이말렉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엘리바스로부터 나온 족장들이며, 아다의 자손들이다.
- 17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들은 나합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 18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 19 이들은 에서의 자손이며, 에돔의 족장들이다.
- 세일의 자손 (대상1:38-41)**
- 20 ○그 땅에 살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 21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고
- 22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마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이며,
- 23 소발의 아들들은 알원과 마나합과 에발과 스

보와 오남이고

- 24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인데, 이 아나는 그가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 25 아나의 아들들은 디손이고, 아나의 딸은 오홀리바마이고
- 26 디손의 아들들은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며
- 27 에셀의 아들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고
- 28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 29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 30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니,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 에돔의 왕들과 종족들 (대상1:43-54)

- 31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이다.
- 32 에돔에서 브울의 아들 벨라가 다스렸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이며
- 33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 34 요밥이 죽으니, 데만 족속 땅의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 35 후삼이 죽으니,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브닷의 아들 하달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는데, 그 성읍 이름은 아뎃이다.
- 36 하달이 죽으니,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 37 삼라가 죽으니, 유포라테스 강가 르호봇의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 38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비알한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 39 악볼의 아들 비알한이 죽자, 하달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는데, 그 성읍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 이름은 므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함의 손녀였다.
- 40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거처와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덫 족장,
- 41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 42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밍살 족장,
- 43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니,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를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서는 이들의 조상이다.

## 꿈을 꾸는 요셉

- 37** 1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 2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다. 요셉이 열일곱 살에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인 그의



-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소년이었으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 3 이스라엘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만들었다.
- 4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 6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곧 이 꿈을 들어 보십시오.
- 7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들을 묶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내 곡식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 단들은 방 둘려서서 내 곡식 단을 향해 절하였습니까?” 하니,
- 8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네가 정말로 우리 위에 왕이 된다는 것이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말하고 그 꿈과 그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 9 요셉이 다른 꿈을 다시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하였습니까?” 라고 하였다.
- 10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곧 이 꿈이 무엇이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정말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였다.
- 11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다.
-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
- 12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 떼를 치러 갔다.
-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거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네 형들이 평안한지 또 양 떼들도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리라.” 하고,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내니,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
- 15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그에게 “너는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니,
- 16 요셉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알려 주십시오.” 하므로,
- 17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하더라.” 하니, 요셉은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도

- 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 18 요셉들이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 19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 20 이제 오나라.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홍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것을
- 21 르우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하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목숨을 빼앗지는 말자.” 라고 하였다.
-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의 이 구덩이에 던지되,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하였으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 23 마침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요셉의 겹옷, 곧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 24 요셉을 붙들고 구덩이에 던져 버렸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 25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으로부터 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다.
- 26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감춘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 27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살붙이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다.
- 28 그때 장사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스무 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으며 그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 29 르우벤이 그 구덩이로 돌아와서 그곳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었고
- 30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하였다.
- 31 그들이 요셉의 겹옷을 가져다가 수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겹옷을 그 피에 적고,
- 32 그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가져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겹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였다.
- 33 아굽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 겉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정말로 찢겼구나.” 하고
-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 35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했으나,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애곡하며 내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하고,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울었다.
- 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 유다와 다말

- 38 1 오그 무렵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그 이름을 히라라고 하는 어떤 아들들 사람에게 내려가 거처를 정하였다.
- 2 유다는 거기서 이름이 수이라고 하는 어떤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와 동침하였더니,
- 3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고
- 4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온난이라 불렀으며
- 5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 그 여자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다.
- 6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 7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 8 유다가 온난에게 말하기를 “네 형수에게 들어가 시동생의 의무를 행하여 네 형의 씨를 잇게 하라.” 하니,
- 9 온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그의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하였다.
- 10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 11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였으니, 그가 말한 것은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거나 열려했기 때문이었다. 다말은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지냈다.
- 12 여러 날이 지나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으며 유다는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을 깎는 일꾼들이 있는 딘나로 올라갔다.
- 13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주기를 “보시오, 당신의 시아버지가 그의 양털을 깎으려고 딘

- 나로 올라가고 있소.” 라고 하였다.
- 14 다말은 자기가 입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가려 몸을 휩싸고 딘나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셀라가 장성한 것을 보았는데, 그가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15 유다가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녀인 줄로 여겼고,
- 16 길 곁의 그 여자에게 몸을 돌이켜 말하기를 “자, 내가 네게로 들어가고자 한다.”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들어올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17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내 가족 때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 주겠다.” 하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것을 보내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 18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슨 담보물을 주어야 하겠느냐?”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하니, 유다가 그 여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그 때 말미암아 임신했다.
- 19 그 여자가 일어나 떠나가서는 자기가 걸쳤던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었다.
- 20 유다가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 21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묻기를 “에나임의 길 곁에 있던 그 창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 그들이 “여기에는 창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 22 유다에게로 돌아와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또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기가 없다.’ 라고 말하더군.” 하니,
- 23 유다가 말하기를 “그 여자가 그것을 갖게 놔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지. 보게나,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하였다.
- 24 오석 달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여 알려 주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 짖을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가 창기 짖을 하여 임신하였습니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하였다.
- 25 다말이 끌려 나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하기를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



- 아보십시오.”라고 하였다.
- 26 유다가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유다가 더 이상 그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 27 ○다말이 해산할 때에 보니, 그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 28 그 여자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자 산파가 그 손을 잡고 그 위에 홍색실을 묶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였는데,
- 29 그 아기가 자기 손을 도로 들이니, 보아라, 그 형제가 나왔다. 그러자 산파가 말하기를 “왜 네가 밀치고 나오느냐?” 하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으며,
- 30 그 후에 손목에 홍색 실을 감고 있는 그 형제가 나왔으므로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 감옥에 갇힌 요셉

- 39 1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려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다.
- 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보았다.
- 4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 5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삼은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와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 6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아무 일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 7 이 일들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 8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안의 어떤 일에도 내게 간섭하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 9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

- 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였다.
- 10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 11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저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 12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 13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 14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를 지르니,
- 15 그는 내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는 것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 16 그 여자는 요셉의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기다리다가,
- 17 이 일들을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내게로 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기에
- 18 내가 소리 높여 외쳤더니,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였다.
- 19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타올라
- 20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으며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니.
-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였다.
- 22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 23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였다.

### 감옥에서 꿈을 해석한 요셉

- 40 1 ○이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말은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이 그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죄를 지었다.
- 2 바로가 그의 두 신하들, 곧 술 말은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에게 분노하여

- 3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 4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시종들게 하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은 여러 날 감옥에 있었다.
- 5 ○감옥에 갇힌 이집트 왕의 술 말은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각자 자기의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달랐다.
- 6 아침에 요셉이 와서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 7 요셉이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왜 오늘 여러분들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하니,
- 8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사람이 없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 9 ○술 말은 시종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였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씩이 트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 11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 12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석이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입니다.
- 13 앞으로 사흘 있으면, 바로가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당신의 직무를 회복시킬 것이니, 시종장께서는 예전에 하던 대로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 14 시종장의 일이 잘되면 저를 기억하시고, 부디 제게 호의를 베풀어서 저를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구해 주십시오.
- 15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힌 만한 일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 16 ○빵 굽는 시종장이 그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 또한 꿈속에서 보니,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세 개가 있었고,
- 17 그 바구니 속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의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다.” 하였다.
- 18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세 개는 사흘입니다.
- 19 앞으로 사흘 있으면 바로가 시종장의 머리를

- 들어 나무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시종장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하였다.
- 20 ○사흘째 되던 날이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시종장의 머리와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 21 바로가 술 맡은 시종장을 복직시켰으므로 그 사람은 술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으나,
- 22 빵 굽는 시종장을 매달았으므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다.
- 23 술 맡은 그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

- 41 1 ○두 해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었는데,
- 2 그가 보니, 나일 강에서 보기 좋고 살찐 일곱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 3 또 보니 다른 일곱 마리의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일 강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흉하고 아위었으며 나일 강 제방 위의 암소들 곁에 섰다.
- 4 그 모습이 흉하고 아위 암소들이 보기 좋고 살찐 일곱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바로가 깨어났다.
- 5 바로가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일곱 이삭들이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 6 또 보라, 그것들 뒤로 동풍에 걸마른 일곱 이삭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 7 그 걸마른 이삭들이 다른 토실토실하고 알찬 일곱 이삭들을 삼켜 버렸다. 바로가 깨어 보니, 꿈이었다.
- 8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변민하여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게 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9 ○그때 술 맡은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오늘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 굽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셨을 때,
- 11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각각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 12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인 한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의 꿈을 그에게 말하니, 그가 그 꿈대로 각자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13 그가 저희에게 해석해 준 그대로 되어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빵 굽는 시종장은 매달렸 습니다.”

14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서 서둘러 끌어올렸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1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하니,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므로,

17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 제방에서 있었는데,

18 나일 강으로부터 살이 찌고 보기 좋은 일곱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19 또 보니, 다른 일곱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따라 올라오는데 앙상하고 매우 흉한 모습으로 아위었으며 그것들처럼 흉측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아직 본 일이 없었다.

20 그 야하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의 살이 찐 일곱 암소들을 먹었다.

21 그것들이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그 모습이 전과 같이 흉측하였으며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22 또 내가 꿈에 보니, 이번에는 일곱 이삭들이 한 줄기로부터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23 그런데 보니, 약하고 동풍에 시들고 걸마른 일곱 이삭들이 그것들의 뒤로 나오고 있었고,

24 그 걸마른 이삭들은 그 충실한 일곱 이삭들을 삼켜 버렸다. 내가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25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26 일곱 마리의 보기 좋은 암소들은 곧 일곱 해이며, 일곱 개의 알찬 이삭들도 일곱 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의 꿈입니다.

27 그들 뒤를 따라 올라온 일곱 마리의 흉하고 야윈 암소들은 일곱 해이며, 동풍에 시들고 걸마른 일곱 개의 이삭들도 일곱 해의 흉년입니다.

28 이것은 제가 바로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29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칠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30 그 후에 칠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흉년으로 모르게 될 것입니다.

31 뒤에 오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이 땅에서 풍년이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32 바로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서 그를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34 바로께서는 이같이 하셔서 이 땅에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칠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이집트 땅 수출의 오분의 일을 거두어들이십시오.

35 그 관리들은 앞으로 올 그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어들여 바로의 권한 아래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 두게 하십시오.

36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있게 될 칠년의 흉년을 대비한 양식이 되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37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

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39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40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좌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하였다.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하고

42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고,

43 자기의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하니,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려라.” 하였다. 이처럼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44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이나 그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45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페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살피러 나갔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

서른이었으며,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

47 그 땅이 칠년 풍년이 드는 동안 많은 소출을 내었다.

48 요셉이 칠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성읍들 안에 비축하였으니, 각 성의 주위에 있는 밭에서 난 곡식을 그 성읍 안에 두었다.

49 요셉이 곡식을 비축한 것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그 수가 끝이 없었으므로 세기를 그쳤다.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식들이었다.

51 요셉이 그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고,

52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다.

53 ○마침내 이집트 땅에 있었던 칠년 동안의 풍년이 그치고,

54 요셉이 말한 것처럼 칠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모든 나라들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에 굶주림이 닥치자, 백성들은 양식을 달라고 바로에게 부르짖으니, 바로가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은 그들의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점점 심하였다.

57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찾아왔다.

#### 식량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

42 1 ○그 무렵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보기만 하느냐?” 하고,

2 또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3 요셉의 형제 열 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4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나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6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였다.

7 요셉이 그들을 보고 자기 형들이 줄 알았으나 모른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8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9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곧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허점을 엿보려고 왔다.” 하니,

10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11 저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였다.

12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의 허점을 엿보러 왔다.” 하니,

13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열두 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인 오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14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이다.

15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밝혀 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막넛동생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가지 못할 것이다.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그 동안 너희는 감옥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 진실이 있는지 너희 말을 증명해 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 정탐꾼들이다.”

17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다.

18 ○사흘째 되던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19 만약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20 너희 막넛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만 너희 말이 사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21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다.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피 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였다.

23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다.

25 요셉이 명하여 그들의 그릇을 곡물로 채우게 하고, 그들의 돈은 각 사람의 부대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필요한 먹은 양식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다.

####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제들

26 ○그들은 자기들의 나귀 위에 양식을 싣고 그 곳에서 떠났다.

27 한 사람이 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자기 돈을 보았다. 그것이 자루의 아귀에 있었다.

28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자, 보아라. 그것이 내 자루 속에 있다.” 하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형제끼리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였다.

29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와서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말했다.

30 “그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들로 여겼습니다.

31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32 우리는 열두 형제이며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

다. 33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내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져라.

34 그러나 너희 막넛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며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

게 내어 주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

다. 35 ○그들이 자기들의 부대를 비우며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자기 부대 속에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36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하니,

37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였다.

38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형들

43 1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니,

3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4 만일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5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동생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6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왜 너희에게 동생이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7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나?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묻는 대로 이 일들을 그에게 알려 준 것입니다.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8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소년을 저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자식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9 제가 그를 보증하겠으니, 아버지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십시오. 그를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저는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10 만일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두 번이나 다녀왔을 것입니다.”

11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의 산을 너희 광주리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가되 약간의 유향과 꿀, 향품과 몰약, 그리고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가지고 가져라.

12 너희 손에 돈을 갑절이나 가지고 가서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너희 손으로 돌려주어라. 아마 그것은 착오였을 것이다.

13 네 동생도 데리고 가져라. 일어나 그 사람에게 가서 돌아가라.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공물을 베푸시고,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15 ○그 사람들이 선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16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준비해라.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정오에 먹을 것이다.” 하니,

17 그 관리인이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18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자, 그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19 그들이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나아가 그 집 문에서 말하기를

20 “내 주여, 전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내려왔습니

다. 21 우리가 여관에 가서 우리 자루를 풀어 보니, 각 사람의 돈이 원래대로 자루 아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

니다.

22 우리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23 관리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보물을 너희 자루에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24 관리인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와 물을 주니, 그들이 자기 발을 씻었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25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요셉이 오기까지 예물을 준비하였다.

26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그에게 절하였다.

27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너희들이 말했던 그 노인,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나? 그가 아직도 살아 계시나?” 하니,

28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중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다.

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묻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넛동생이냐?” 하고, “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30 그때 요셉이 동생 때문에 마음이 복받쳐 서둘러 나가 울 곳을 찾아 골방에 들어가 울었으며,

31 그가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신을 억제하며 말하기를 “음식을 차려라.” 하였다.

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먹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33 그리고 그들의 출생에 따라 장자를 요셉 앞에 앉히고 나이에 따라 막내까지 앉히니, 그 사람들이 서로 놀랐다.

34 요셉이 음식을 자기 앞에서 들어 그들에게 주는데 베냐민의 음식은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많았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 베냐민을 붙잡은 요셉

44 1 ○그 후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하기를 “그 사람들의 자루에 양식

을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아귀에 넣어라.  
 2 그리고 내 잔, 곧 은잔과 양식 값을 그 소년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하니,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3 ○아침이 밝아 오자 사람들이 그들의 나귀를 데리고 출발했다.  
 4 그들이 성읍을 나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쫓아 가서 그들을 붙잡아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그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한 짓은 악하다.”  
 6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가 붙잡고 그대로 말하니,  
 7 그들이 말하였다. “내 주께서 왜 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8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루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9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10 관리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책임을 면할 것이다.”라고 하니,  
 11 그들은 각자 서둘러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 놓고 각자의 자루를 풀었다.  
 12 그는 장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막내에 이르기까지 수색했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13 그러자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나귀에 짐을 싣고 그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14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와 보니,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15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한 일이 무슨 것이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니,  
 16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결백한 것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같이 주의 종들입니다.” 하니,  
 17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

겠다. 그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거라.” 하니,  
 18 유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비로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19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어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0 그때 저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와 노년에 낳은 막내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 혼자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니,  
 21 그때에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내 눈으로 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22 그래서 저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소년은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일 떠난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였으니,  
 23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막내동생과 같이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24 저희가 주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5 저희 아버지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26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막내동생을 데리고 간다면 갈 수 있지만, 그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니,  
 27 주의 종,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너희가 아는 대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  
 28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으며, 그 이후로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  
 29 너희가 또한 이 아들을 내 앞에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그에게 화라도 미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30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과 묶여 있으므로,  
 31 아버지께서 그 소년이 없는 것을 보시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백발이 된 주의 종, 저희 아버지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32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보증하며 말하기를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평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33 이제 주의 종을 그 소년 대신 내 주의 종으로 남게 하고 그 소년은 그의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34 그 소년이 저와 함께 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올라가겠습니까? 제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제가 볼까 두렵습니다.”

### 자신을 알린 요셉

**45** 1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비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하였으니,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4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렸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5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6 이 땅에 두 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는 다섯 해는 팔밭이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7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8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9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10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11 아직도 흉년이 다섯 해나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12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14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15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16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비로의 집에 들리니, 비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하였고,  
 17 비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네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겠으며, 너희가 그 땅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19 이제 너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버지를 태우고 오너라.  
 20 온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물건들을 아끼지 마라.”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이 비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으며  
 22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23 또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와 같이 보냈으니, 곧 이집트의 좋은 것을 실은 수나귀 열 마리와 그의 아버지의 여행길을 위한 곡식과 빵과 양식을 암나귀 열 마리에 실어 보냈다.  
 24 요셉이 형들을 보내며 그들이 떠날 때에 말하기를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25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26 야곱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온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니, 야곱은 그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하였으니,  
 27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말한 그 모든



일들을 말하니, 야곱이 자기를 태워 가려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28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하였다.

### 이집트로 떠난 야곱

46 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

2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4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으며, 내가 참으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자기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라고 하셨다.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에 태웠고,

6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났으니,

7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왔다.

8 ○이것이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9 르우벤의 아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와,

10 시몬의 아들인 여무엘과 아민과 오히와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자의 아들 시울과,

11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므리리와,

12 유다의 아들인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었다.

13 잇사갈의 아들인 돌라와 부와와 옴과 시므론과,

14 스불론의 아들인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15 이들이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그의 딸 디나와 더불어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삼십삼 명이었다.

16 ○갓의 아들인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벨리와

17 아셀의 아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 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18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며, 그 여자는 이들 열여섯을 야곱에게 낳았다.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0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21 베냐민의 아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빔과 흠빔과 아룟이니,

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모두 십사 명이었다.

23 ○단의 아들 후심과,

24 납달리의 아들인 아스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니,

25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로 모두 일곱 명이었다.

26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모두 육십육 명이었으며,

27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었으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칠십 명이었다.

### 고센에 정착하게 된 야곱

28 ○야곱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자기를 인도하게 하여 고센 땅으로 갔다.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어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보이고 그의 목을 숙여 이스라엘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였다.

31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올라가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식구들이 내게로 왔습니다.’

32 그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3 그러면 바로가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나?” 하고 물을 것입니다.

34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혐오하

므로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47 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세히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하고,

2 그 형제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냈다.

3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나?” 하니,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고,

4 또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내게 왔구나.

6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살게 하되,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아 그들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였다.

7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8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니,

9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였다.

10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11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살 곳을 주었는데 바로가 명령한 대로 이집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인 리밋셋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주었고,

12 또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자녀 수대로 양식을 주어 부양하였다.

###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만든 요셉

13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없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14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5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다 떨어졌다.

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총리님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니,

16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다면 내가 너희 가축을 받고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하였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왔으며, 요셉이 말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들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고, 그가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18 그 해가 다 가고 다음해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돈도 다 써 버렸고 가축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땅을 제외하고 주 앞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19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땅과 함께 죽어야 하겠습니까?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토지를 사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며 토지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근이 심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그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으며,

21 요셉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영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22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뭇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다.

23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토지를 샀다. 여기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24 추수 때가 되면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고 오분의 사는 너희 것이니 밭의 씨앗과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하니,

25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므로 바로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26 요셉이 이집트 토지법을 세우되 오분의 일이 바로의 것이 되도록 하였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한 야곱

27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았으며 그들은 거기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매우



번성하였다.

28 아람이 이집트 땅에 십칠 년 동안 살았으며 아람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였다.

29 ○이שראל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만일 이제 내가 네 목전에 은혜를 입었거든, 부디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 호의와 성실로 내게 행하여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마라.

30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여라.”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31 아람이 또 말하기를 “내게 맹세하여라.” 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고,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

####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아람

48 1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총리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하므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갔더니,

2 누군가가 아람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하므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3 아람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4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5 내가 이집트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니,

6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형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7 내가 벱단에서 올 때 라헬이 도중에 가난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임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먼 곳이었어서 내가 라헬을 에브라임 길,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하였다.”

8 ○이שראל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묻기를 “이들은 누구냐?” 하니,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람이 말하기를 “자,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하였다.

10 이스라엘이 늙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니, 아람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 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하였다.

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나 오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13 요셉은 그들 둘을,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는데,

14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의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그가 손을 어긋나게 얹었다.

15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말하였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 일생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 자라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7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여,

18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장자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19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안다, 내 아들이. 내가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많은 민족들이 될 것이다.” 하고,

20 그 날에 아람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이שראל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할 것이다.”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다.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22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으니, 이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하였다.

#### 아들들을 축복한 아람

49 1 ○아람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2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아람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3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난구나.

4 그러나 네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네가 네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7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격노가 잔인하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흠을 것이다.

8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9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내 아들이, 네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옆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10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11 그가 그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구상품 포도나무에 땀 것이다. 그가 포도주로 그의 옷을 빨며 포도즙으로 그 의복을 빨 것이다.

12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흰 것이다.

13 스불론은 바다 연안에 거주할 것이며 그는 선박들의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14 잇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긴 장한 나귀이다.

15 그가 싹터들 좋게 보고 땅을 아름답게 볼 때에, 자기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될 것이다.

16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17 단은 길에 뺨이 되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18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19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겠으나, 그는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20 아셀에게서 나온 그의 양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진미를 생산할 것이다.

21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뿔 것이다.

22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 곧 샘가의 열매 맺는 가지이다. 그 가지들이 답을 넘었다.

23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으나,

24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강해졌으니, 아람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을 인함이다.

25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함이니,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을 인함이니,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26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와 그의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이다. 그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28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다.

#### 숨을 거둔 아굽

- 29 ○아굽이 아들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여라.
- 30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매장지로 산 것이다.
- 31 사람들이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고, 또 거기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장사하였으며, 나도 거기에 레아를 장사하였다.
- 32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자손에게서 산 것이다.”
- 33 아굽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후 침대에서 그의 발을 모으고 숨겨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 51 1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맞추었고
- 2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방부제 향료를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은 그대로 하였는데,
- 3 사십 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사십 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를 위해 칠십 일을 애곡하였다.
- 4 ○그를 위한 애곡 기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였다. “만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의 귀에 말해 주십시오.
- 5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게 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 놓은 내 무덤에 장사하여라.’ 하였으니, 이제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 6 바로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네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장사하여라.” 하였다.
- 7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궁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 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올라갔으며 다만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는 고센 땅에 남겨 두었다.
- 9 요셉과 함께 병거들과 기마병들도 올라갔으니, 매우 큰 무리였다.
- 10 그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돗의 타작마당

까지 이르러 거기서 심히 크고 슬픈 애가로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위해 칠십 일 동안 애도하였다.

- 11 그 땅의 거주자인 가나안인들이 아돗 타작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으며 그곳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 12 아굽의 아들들은 아굽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
- 13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매장지로 삼으려고 그 밭과 함께 사 놓은 것이다.
- 14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다.

#### 형들을 위로한 요셉

- 15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지나 않을까?” 하여,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 17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네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리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니,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 울었다.
- 18 그의 형제들이 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
- 19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 20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 21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 요셉의 유언

-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며 백십 세를 살았다.
- 23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삼 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 24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니,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 25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

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 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 몸에 방부제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 출애굽기

출

## 이집트에서 학대받은 이스라엘

- 1 1 O아람과 함께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 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 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 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 5 아굽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칠십 명인데,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
- 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 7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다.
- 8 O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서
- 9 그의 백성에게 말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 10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번성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 11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위에 감독관들을 세워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 12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하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 13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더욱 혹독하게 시켜,
- 14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각종 발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으며,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더욱 혹독하였다.
- 15 O그때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심브라 부르는 사람과 부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 16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주어라.” 하였으니,
- 17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 18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일을 이렇게 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었느냐?” 하니,
- 19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라

고 말하였다.

- 20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다.
- 21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 22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두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은 모두 살려 주어라.” 하였다.

##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

- 2 1 O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 2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 3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뭇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 4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 5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 6 열어 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 7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 8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 9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값을 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 10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 동족에게 배반당한 모세

- 11 O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

면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 12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 13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그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네 동포를 때리는 나?” 하니,
- 14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같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참으로 일이 탄로 났구나.”라고 말하였다.
- 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려니, 모세가 바로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 16 O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자,
- 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 18 그들이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물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은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 19 그들이 대답하였다. “한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고 우리를 위해 직접 물까지 길어 양 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 20 그가 그의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하였다.
- 21 모세가 르우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므로 르우엘이 그의 딸 심보리를 모세에게 주었다.
- 22 심보리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낳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숨이라고 불렀다.
- 23 O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므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 24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 25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 3 1 O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가 양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 2 그때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 3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돌아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하니,
-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시고,
- 6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가렸다.
- 7 O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니,
- 8 내가 내리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 9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 10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 11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 12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셨다.
- 13 O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냐고 대답합니까?”

출



- 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 15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약할 나의 이름이다.
-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계속 지켜 보았으니,
- 17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중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하셨다. 하면,
- 18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할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라.
- 19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들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 20 내가 나의 손을 펴서 이집트 가운데 온갖 이적을 행하여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 21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니,
- 22 여자들은 각자 그 이웃 사람과 또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치장하여라. 이렇게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물품을 빼앗아 갈 것이다.”

####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신 여호와

- 4 1 ○모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니,
- 2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하였다.

가)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 히, 표징의 소리.

- 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므로,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므로,
-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 5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음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 6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므로, 모세가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 그의 손이 나뭇잎이 들어 눈처럼 되었다.
- 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너의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시므로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과 같이 되었다.
- 8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처음 기적의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기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 9 그들이 이 두 가지 기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네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 10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하니,
-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 12 이제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며 네가 말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 13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제발 믿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서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아라, 마침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보면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 15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어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여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겠다.
-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 17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적들을 행하여라.”
- 이집트로 돌아간 모세
- 18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보려고 하니,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말했다.
- 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네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하시므로,
- 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므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 22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 23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보아라. 내가 네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여라.”
- 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
- 25 그때 심보라가 날카로운 차돌 칼을 들어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하니,
- 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고, 그때 심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할례 때문이었다.
- 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으며,
- 28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적들을 알려 주었다.
- 29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 3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니,
- 31 그 백성들이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 5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위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2 바로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의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하므로,
- 3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디다. 우리가 광야로 사할 길을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 4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하고,
- 5 또 말했다. “보아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번성하였는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중단시키려 하는구나.”
- 6 바로가 그 날 백성의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 7 ‘백성이 벽돌 만드는 일을 이전처럼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 8 그러나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줄이지 마라. 그들이 게을러서 외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라고 말하니,
- 9 이 사람들에게 일을 더 힘들게 시켜 그 일만 하게 하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여라.”
- 10 ○백성의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워라. 그러나 너희들의 작업량은 조금도 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12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흩어져 짚 대신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 왔다.
- 13 감독관들이 그들을 독촉하며 말하기를 “짚이 주어졌을 때와 같이 너희의 그날 일을 그날 마쳐라.” 하며,
- 14 바로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말했다. “왜 너희들은 어제도 오늘도 너희에게 할당된 벽돌을 이전처럼 채우지 못하느냐?”
- 15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왕의 종들을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 16 왕의 종들에게 짚은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저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왕의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만, 잘못된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니,  
 17 바로가 말했다. “너희는 게으르다. 너희는 정말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라고 한다.  
 18 이제 가서 일해라. 너희에게 짊을 주지 않았지만, 정해진 수량의 벽돌을 바쳐라.”  
 19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야 할 벽돌 수량을 줄이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20 그들이 바로에게서 나올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만났다.  
 21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습니다.” 하였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23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였으나,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전혀 구원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신 여호와

6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2 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5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이 중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 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7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나날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하시니,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하였다.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들겠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 모세와 아론의 계보

14 오 그들 조상들의 집의 두령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고,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아민과 오히와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의 아들인 사울인데,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레위는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에 따라 립니와 시므이며,  
 18 그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인데, 그핫은 백삼십삼 년을 살았다.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미흘리와 무시인데, 이들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 레위 가문에 속했다.  
 20 아르람이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르람은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벵과 시그리이고,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였다.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그를 위해 다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24 고라의 아들들은 갓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의 가문이었으며  
 25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며, 그 여자가 그를 위해 비느하스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위 사람의 조상들을 따른 가족의 어른들이다.

26 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라 하신 여호와와 명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고  
 27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부터 내보내라고 말한 자들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28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하여라.” 하셨으나,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하였다. “보소서,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들겠습니까?”

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네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2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 큰 재앙들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5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다.

####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한 모세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바로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이적을 보이려고 하면, 내가 아론에게 말하여 그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11 바로도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부르니, 그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12 그들이 각각 자기 지팡이를 던지므로,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13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신 여호와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15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보아라, 그가 나일 강에 나올 것이니,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나,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16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으나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17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에 있는 고기가 죽을 것이며, 나일 강이 악취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기 싫어할 것이다.”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이집트의 물들, 곧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저수지 위에 펴라.’ 하여라. 그것들이 피가 되어 이집트 온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 물을 치니, 나일 강 물이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었으며, 나일 강 물이 악취를 풍겨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었고 이집트 모든 땅에 피가 있었다.  
 22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23 바로가 돌이켜 그의 궁으로 들어가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24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 강 주위를 왔다.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칠일이 지났다.

####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

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2 만약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아라, 내가



- 너의 모든 영토를 개구리들로 칠 것이다.
- 3 나일 강에 개구리 떼가 우글거리고, 그것들이 올라와서 네 궁궐과 네 침실과 네 침대 위와 네 신하들의 집과 네 백성의 집에 들어가고, 네 화덕들과 네 빵 반죽 그릇들에도 들어갈 것이며,
- 4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들에게도 기어 오를 것이다.”
-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여라.’”라고 하여라.”
- 6 아론이 그의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펴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집트 온 땅을 덮었으니,
- 7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 8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내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 하니,
- 9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의 궁궐들에서 멀어져 나일 강에만 남아 있도록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 10 그가 대답하되 “내일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으신 줄을 왕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시다.
- 11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궁궐들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 나일 강에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나왔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들에 대하여 여호와께 큰 소리로 간구하였더니,
-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 14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이 악취를 풍겼다.
- 15 그러나 바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신 여호와**
-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그의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것이 이집트의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하니,
- 17 그들이 그대로 하여 아론이 손을 들어 그의

- 지팡이로 땅의 먼지를 쳤다.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기고, 그 땅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
- 18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하여 이가 나오게 하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계속 생기므로,
- 19 그때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 넷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게 하신 여호와**
-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물에 나아올 것이니,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 21 내가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과 네 궁궐들에 파리를 보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 22 그 날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겠다.
- 23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으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여라.”
- 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 25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 26 모세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이 몹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몹시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 2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 28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하니,
- 29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왕 앞에서 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겠으니, 내일 파리 떼가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 갈 것입니다. 다만 왕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일에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 30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기도하니,
- 31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셔서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
- 32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 다섯째 재앙, 이집트의 가축을 전염병으로 치신 여호와

- 9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 2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붙잡아 두면,
- 3 여호와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전염병이 들게 할 것이며,
-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과 이집트 사람의 가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 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고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시고,
- 6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 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 중에서 한 마리도 죽지 않았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 여섯째 재앙, 피부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신 여호와

-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덕의 재를 두 손 가득히 가져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 9 재가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하니,
- 10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져가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그것을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악성 종기를 일으켰으며
- 11 악성 종기가 속객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겨, 속객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 일곱째 재앙, 우박을 내리신 여호와

-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 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에게 보내서, 네가 온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 15 내가 너의 손을 내서 너와 너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내가 땅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 16 내가 너를 세워 둔 것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 주어 내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 17 내가 아직도 내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으니,
- 18 보아라, 내일 이맘때에 아주 큰 우박을 내리겠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그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이 없을 것이다.
- 19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들에 있는 네 모든 것들을 대피시켜라.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이 죽을 것이다.”
- 20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와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으니,
- 21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하늘을 향해 펴서, 이집트 모든 땅에서 우박이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들의 모든 식물 위에 내리게 하여라.”
- 23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드니,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을 지나갔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므로
- 24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 25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들의 모든 채소를 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 26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 27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였다.
- 28 여호와께 기도하여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하

- 여라. 너희가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니,
- 29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 성을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께 펴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 땅이 주님의 것임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 30 그러나 나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 31 이때 보리에 이삭이 나오고 삼에 꽃이 피어 삼과 보리가 황폐해져 되었으니,
- 32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 손상되지 않았다.
- 33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그의 손을 여호와께 펴니,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
- 34 바로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 35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 여덟째 재앙, 메뚜기를 보내신 여호와

- 1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들어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내가 나의 이런 기적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며,
- 2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기적들을 내가 네 자녀와 네 자손의 귀에 말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다.
- 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부하겠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려라.’
- 4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네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 5 메뚜기가 땅의 표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메뚜기가 네게 남아 있는 것들, 곧 우박을 면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것들을 먹어 버릴 것이다. 또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란 모든 나무도 먹어 버릴 것이며,
- 6 네 집들과 너의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였던 일이다.’” 그 후 모세가 돌아서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 7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 땅만 줄 모르십니까?” 하고,
- 8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오므로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누구냐?” 하니,
- 9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와 노인과 함께 가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과 양들과 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10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어만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한단 말이나? 보아라, 너희가 악하다.
- 11 그럴 수는 없으니,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다.”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펴서 메뚜기가 이집트 땅 위에 올라와서 땅의 모든 식물, 곧 우박이 남겨 놓은 모든 것들을 먹게 하려라.” 하시니,
- 13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그의 지팡이를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이 불게 하였고,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왔다.
- 14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올라와서 이집트 전 지역에 내려앉으니, 그와 같은 메뚜기 때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 메뚜기 수가 매우 많았는데,
- 15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 놓은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버렸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에 푸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의 식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 16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 17 제발, 이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 18 그가 바로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니,
- 19 여호와께서 아주 강한 서풍이 불게 하시고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셔서, 이집트 전 지역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다.
- 20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 이쯤때 재앙, 흑암을 내리신 여호와
-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

- 을 하늘을 향해 뻗어서 이집트 땅에 흑암이 있게 하려라. 곧 더듬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 22 모세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드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 온 땅에 삼일 동안 있어서,
- 23 삼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 제자리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 24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 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 25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희생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 26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며,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골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27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가 그들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 28 바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서 물러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려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므로,
- 29 모세가 말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뵈지 않을 것입니다.”

#### 열째 재앙,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신 여호와

- 11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때에는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다 쫓아낼 것이니,
- 2 이제 백성의 귀에 말하여 남자는 그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웃 여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을 요구하게 하려라.”
- 3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눈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
- 4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 5 이집트 땅의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맏들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족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 6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율무것음이 있을 것이다.
- 7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

부터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의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8 왕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나가라고 말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매우 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더 행할 것이다.” 하셨다.

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 유월절

- 12 1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달 초월일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하라.
- 4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 6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 7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 8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 9 결코 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 10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 11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네 손이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
- 12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 13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 14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 15 칠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첫날부터 칠일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 16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하여라.
- 17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지키되,
- 18 첫째 달 곧 그 달 십사 일 저녁부터 그 달 이십일 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 19 칠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여라.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외국인 이든지 그 땅에서 난 자든지 누구나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 20 누룩을 넣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 21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 22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 23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24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 25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 26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 27 ‘이것은 여호와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여라.” 그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 28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 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지셨으니,

- 30 그 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 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 32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 33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하므로,
- 34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땀으며,
- 35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 3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미셋을 떠나 숙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육십만 가량이었고
- 38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 39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 나고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40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사백삼십 년이었다.
- 41 사백삼십 년이 마치는 바로 그 날 여호와와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 42 그 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 유월절 규례**
- 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 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 45 주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 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 47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 48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 49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 50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고
- 51 바로 그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 무교절

- 1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 2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 4 이월일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 5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 내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 6 칠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제칠일에는 여호와와의 절기를 지켜라.
- 7 칠일 동안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이 네게 보이지 않게 하고, 너의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네게 보이지 않게 하여라.
- 8 그 날에 너희 자녀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 9 이것으로 네 손의 표적과 네 눈들 사이의 기념물을 삼아 여호와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 10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 처음 태어난 것

- 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 12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와의 것이다.
- 13 너는 나귀의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것의 목을 꺾어라. 너의 아들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 14 장차 너의 아들이 네게 물기를 ‘이것이 무엇 입니까?’ 하거든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으며,
- 15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태에서 처음 난 것의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만 아들을 내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 16 이것이 네 손의 표적과 네 눈들 사이의 표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 17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가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볼 때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 18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에,
- 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가 내 유골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고 하였기 때문이다.
- 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치니,
-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 1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 3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혀서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할 것이다.
- 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다.
- 5 ○이집트 왕이 그 백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 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하였다.
- 6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 7 선별한 병거 육백 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을 탄 장교들을 이끌었다.
- 8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다.
- 9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마병들과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데까지 이르렀다.
- 10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 11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 12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 13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 16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

- 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 17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 19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옮겨 가자, 그들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옮겨 그들 뒤로 가서,
- 20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그곳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 21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다.
- 23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마병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며,
- 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가가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하였다.
-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여라.”
- 27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으며,
- 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 30 ○그 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 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

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 여호와께 노래한 모세와 이스라엘

- 15 1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하였다.
-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 2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 3 여호와와 용사이시며,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이시다.
- 4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고
-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내려갔다.
- 6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 7 주님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자를 없애시고, 주님의 진노를 발하시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 8 주님의 쿡김이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서며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깁니다.
- 9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합니다.
- 10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 그들이 거센 물 속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 11 여호와시여,

- 신들 중에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위엄이 있으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 12 주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펴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 13 주님의 인애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 14 백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 15 에돔의 지배자들이 놀라며,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 16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팔이 크시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였습니다.
- 17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그 처소는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오 주님, 그 성소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 18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 출주며 노래한 미리암
- 19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마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 20 그때 이룬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모든 여자도 소고를 들고 출주며 그 여자를 따라 나왔다.
-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 라고 하였다.
- 22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 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 24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 26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열 두 개와 종려나무 칠십 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여호와

- 16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십오일이었나니
-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 3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그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였다.
-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 6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저녁에 알게 될 것이며,
- 7 아침에는 여호와와 그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

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 8 모세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분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니
-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아라,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하셨다.
- 13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 14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의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나?”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 16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효에 따라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 18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 19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라.” 하였으니
- 20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 21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 버렸다.
- 22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두 배의 양식, 곧 한 사람에게 두 오멜씩 거두었으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니,
- 23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런

- 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이고, 여호와와 기록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으며 남은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 두어라.” 하셨다.
- 24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으나, 냄새도 없었고 거기에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 25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 26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칠일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 27 ○제 칠일에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 28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려느냐?
- 29 보아라, 나 여호와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 제 칠일에는 각자 자기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마라.”
- 30 그리하여 백성이 제 칠일에는 안식하였다.
- 31 ○이스라엘 종족이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고수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 32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만나 한 오멜을 채워 너희 자손 대대로 보존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하셨다.
- 33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관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 35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신 여호와 (민 20:1-13)

- 17 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와 그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를 떠나 그들의 여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2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 3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므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니
- 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건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 6 보아라, 내가 거기 호렙 산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설 것이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 7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 8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 12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 13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기뻐하시

라 부르며  
16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이말레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 모세에게 조언한 이드로

**18** 1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러보았던 모세의 아내 시므와와,  
3 그 여자의 두 아들을 데려왔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인데, 이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4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다.  
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었다.  
6 그가 모세에게 전하기를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자네에게 데리고 왔네.”라고 하였으므로  
7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었으며,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8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9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기뻐하며,  
10 말하였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11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13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었다.  
14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이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만 앉아 일하고 모든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서 있게 하는가?” 하니  
15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 보려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16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오니, 제가 이웃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18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할 수 없으니, 자네와 이 백성들이 정할 지치고 말 것인데,  
19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20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며,  
21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22 그들이 백성들을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이 있으면 모두 자네에게 가져 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지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인데,  
23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자네에게 허락하시면, 자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백성들도 모두 자기 자리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인데.”  
24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하며,  
25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  
26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재판했다.  
2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19**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이 거기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  
3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기를  
4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5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부가 될 것이며,  
6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7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니,  
8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자,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아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네게 온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또한 그들이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드리니,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며,  
11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셋째 날에 여호와가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에 내려올 것이다.  
12 너는 백성들을 위해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 그렇게 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백성을 산 앞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14 모세가 그 산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와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15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하지 마라.”고 하였다.  
16 ○셋째 날 아침에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

17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막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었는데,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19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20 여호와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꼭대기로 부르시므로 모세가 올라갔다.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므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고,  
22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여 나 여호와와 그들을 치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23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만들고 그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여라.’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니,  
24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여, 내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라.” 하시므로,  
25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신 5:1-21)

**20** 1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3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4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삼사 대까지 벌하고,  
6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7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 출애굽기 21장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 9 유일 동안 네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 10 제 칠일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 11 이는 유일 동안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 주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 12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 13 ○살인하지 마라.
- 14 ○간음하지 마라.
- 15 ○도둑질하지 마라.
-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네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 18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 19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던 저희가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 20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 21 백성들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절은 구름으로 가까이 갔다.

## 제단에 관한 법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 23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은 신상이나 금 신상을 만들지 말며,
- 24 나를 위해 흙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수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 25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들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되리라 때문이다.
- 26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너의 하체가 제단 위에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21

1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고, 칠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 3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 4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 5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 6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 7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 8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 9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 10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며,
- 11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폭행에 관한 법

-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3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 14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6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는지 자기 데리고 있는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

- 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 19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잡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받으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 20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 21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 23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 27 사람이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 주인의 책임

-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 받아야 하며,
- 29 소가 전에 들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 30 만일 소의 주인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그는 자기에게 요구된 것들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 31 소가 아들을 만든지 딸을 받으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적용하여라.
-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삼십 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 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되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들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36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갚되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 배상에 관한 법

## 22

-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 3 해가 뜬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 4 도둑질한 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산채로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 5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거나 자기 짐승을 풀어 놓아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번져 난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 7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다면,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 8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이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댄지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모든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양쪽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 10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로잡혀 갔는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면,
- 11 그들 두 사람 가운데 말았던 사람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 짐승의 주인은 받아들일 것이며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12 그러나 말았던 사람이 도둑맞은 것이라면, 그가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 13 만일 그것이 맹수에게 찢겼다면, 그가 그것을 증거물로 가져오되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14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빌려 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면, 그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
- 15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다면 그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면 그것의 셋돈만 받아 가야 한다.

#### 도덕에 관한 법

- 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피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 17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가 처녀를 위한 신부값과 동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 18 ○무당을 살려 두지 마라.
-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21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 22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 23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 24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나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 25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 26 만약 내가 네 이웃의 옷을 저장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 27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온혜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 28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 29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짚난 줍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네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 30 소나 양에 대해서도 이같이 하되, 칠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팔일째에 내게 바쳐라.
-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 소송에 관한 법

- 23 1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옹호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 3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 4 ○만약 내가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 5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그것을 구해 주어라.
- 6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여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 7 거짓된 일을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 8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 9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알 것이다.

####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 10 ○육년 동안은 네 땅에 씨를 뿌려 그 수확을 거두고,
- 11 제 칠년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 두어 네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겨 놓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네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라.
- 12 ○육일 동안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어라. 그리하여 네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게 하고 네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게 하여라.
-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을 통하여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출 34:18-26, 신 16:1-10)

- 14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 15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칠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내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 16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빵추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 17 너희 낱자들은 모두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나아와야 한다.
- 18 ○나의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

- 침까지 남겨 두지 마라.
- 19 ○네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와 집으로 가져와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 악속과 명령

- 20 ○보아라, 내가 네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 21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22 ○내가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중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으며,
- 23 나의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 인도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 24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수며 그들의 우상 기둥들을 깨뜨려 버리고,
- 25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니,
- 26 네 땅에서 유산하거나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와 너의 날 수를 채울 것이다.
- 27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다 앞서 보내어 네가 가는 곳의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 28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 29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일 년 내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 땅이 황폐하여지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0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 31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 32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 33 그들이 너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네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네 울무가 될 것이다.”

#### 신애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 2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칠십 인이 여호와에게 올라와 멀리서 정배되.
- 2 모세 혼자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 3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말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4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해 열두 기둥을 세우고,
- 5 이스라엘 자손들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으며,
- 6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받아 그릇들에 담아 놓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 7 그때,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였고,
- 8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하였다.
- 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 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를 깔아 놓은 듯 하얗치름 맑았다.
- 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다.

#### 신애 산에서 사십 일을 머무른 모세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네게 주겠다.” 하시니,
- 13 모세가 그의 보좌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 14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십시오.”
- 15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고,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구름이 육일 동안 산을 덮었는데, 제 칠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17 여호와와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으며,  
18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 밤낮 사십 일을 거기서 머물렀다.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25 1 O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라.  
3 너희가 그들로부터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銅과,  
4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5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6 등잔용 기름과 붓는 기름을 만드는 향품과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향품과,  
7 호미노와 에봇과 가슴패에 박을 보석들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9 내가 네게 보여 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법계 (출 37:1-9)

10 O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껍을 만들되, 길이는 이 규빗 반, 너비는 일 규빗 반, 높이는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11 내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을 안팎으로 입히고 그 위에 금테를 둘러라.  
12 껍을 위해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것의 네 발에 달되, 한쪽에 두 고리를, 다른 한쪽에 두 고리를 달고,  
13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며,  
14 그 채들을 껍의 양쪽 고리들에 끼워져 껍을 메게 하고  
15 그 채들을 껍의 고리들에 두고 거기에서 빼 내지 마라.  
16 내가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을 껍 속에 두어라.  
17 O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되, 길이는 이 규빗 반, 너비는 일 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18 금을 쳐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판 양 끝에 위치하게 하되,  
19 한 그룹은 속죄판의 한쪽 끝에, 또 한 그룹은 다른 한쪽 끝에 만들어, 이 그룹들이 그 속죄판의 두 끝에서 그 속죄판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게 하여라.

결되게 하여라.  
20 그룹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 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하고,  
21 속죄판을 껍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껍 속에 넣어라.  
22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거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뿔 치림 상 (출 37:10-16)

23 O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이 규빗, 너비는 일 규빗, 높이는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24 그것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되,  
25 그 둘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  
26 그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네 개를 만들어 상의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27 그 고리들을 턱 끝에 달아 상을 운반할 채들을 꿰게 하되  
28 또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그것들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29 그것의 대접들과 술가락들과 병들과 붓는 잔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고,  
30 상 위에 차려 놓는 빵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순금 등잔대

31 O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와 그것의 밑받침과 가지와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고,  
32 가지 여섯 개가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세 가지들을 한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다른 세 가지들은 다른 한쪽에서 나오게 하되,  
33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 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한쪽 가지에도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 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라. 이와 같이 O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들 여섯 개 만들어라.  
34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네 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 등잔대에서 나온 첫 번째 두 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등잔대에서 나온 두 번째 두 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등잔대에서 나온 세 번째 두 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여, 그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에 꽃받침이 있게 하여라.  
36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두 순금으로 쳐서 하나로 만들어라.  
37 등잔 입금 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

아 그 앞을 비추게 하고,  
38 그 부집개들과 불뚱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39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40 산에서 네게 보여 준 모형을 따라 조심해서 만들어라.

성막 (출 36:8-38)

26 1 O 성막을 천 열 폭으로 만들되, 가늘게 뜯 베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것들을 만들어라.  
2 각 폭의 길이는 이십 팔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하고 매 폭의 치수를 같게 하며  
3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연결하여,  
4 그 첫 번째 연결된 폭들의 끝에 있는 휘장의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끝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만들어라.  
5 한쪽 끝 폭에 고리 오십 개를 만들고 연결된 다른 폭들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고리들이 서로 마주 보게 하고,  
6 금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고 그 폭들을 그 갈고리들로 서로 연결시켜 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7 O 그 성막 위에 덮는 천막은 염소 털로 만든 열한 폭의 천으로 만들고,  
8 각 폭의 길이는 삼십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하여, 열한 폭의 치수가 모두 같게 하여라.  
9 다섯 폭을 따로 연결하고 또 여섯 폭을 따로 연결하되, 그 여섯 번째 폭을 천막 앞으로 반을 접어라.  
10 그 첫 번째 연결된 폭들의 끝에 있는 폭의 가장자리에 고리 오십 개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폭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라.  
11 O 늦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을 고리들 속에 꿰어 연결하여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12 그 장막 폭들 가운데 남아 있는 부분, 곧 그 남아 있는 반 폭을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13 그 장막 폭의 길이에서 남은 것을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그 성막 양 옆에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어라.  
14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어라.  
15 O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고  
16 각 널빤지의 길이는 십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며,  
17 각 널빤지에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라. 그리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18 성막을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빤지 이십 개를 만들고,  
19 그 널빤지 이십 개 아래에 은 받침 사십 개를 만들어라. 이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 두 개를 만들어 그 널빤지의 두 축을 끼우게 하고, 저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 두 개를 만들어 그 널빤지의 두 축을 끼우게 하라.  
20 성막의 다른 쪽인 북쪽을 위해서도 널빤지 이십 개를 만들고,  
21 은 받침 사십 개를 만들되, 이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이 두 개가 되도록, 저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이 두 개가 되도록 하여라.  
22 성막의 뒤쪽인 서쪽을 위하여 널빤지 여섯 개를 만들고,  
23 성막 뒤 양쪽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빤지 두 개를 만들어,  
24 그것들이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각각 두 겹이 되어 한 고리에 연결되게 하여라. 그들 두 모퉁이들을 다 이와 같이 하여라.  
25 그러면 거기에 널빤지 여덟 개가 있게 되고, 이 널빤지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빤지 아래에도 두 받침이 있게 되어, 은 받침 열여섯 개가 있게 될 것이다.  
26 O 성막의 한쪽 널빤지들을 위해 아카시아 나무로 빗장 다섯 개를 만들고,  
27 성막의 다른 한쪽 널빤지들을 위해서도 빗장 다섯 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의 뒤쪽인 서쪽 널빤지들을 위해서도 빗장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워질 중간 빗장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29 그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 빗장들을 끼울 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그 빗장들도 금으로 입혀라.  
30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대로 그 성막을 세워라.  
31 O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뜯 베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하게 작업하여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고,  
32 그 휘장을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걸되 그 기둥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개의 은 받침 위에 세워라.  
33 그 휘장을 그 갈고리들 아래 늘어뜨리고 증거판을 거기 그 휘장 안에 들어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것이다.  
34 지성소에 있는 증거판 위에 속죄판을 두고,  
35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성막 남쪽

- 그 상 맞은편에 등대를 놓아라.  
**36**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써서 장막 출입구를 위한 막을 만들고,  
**37** 그 막을 위하여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다섯 개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어라. 또 그 기둥들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놋을 부어 만들어라.

#### 놋 제단 (출 38:1-7)

- 27** **1**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그 길어도 다섯 규빗, 너비도 다섯 규빗이 되게 하여 그 제단이 네모지게 하고, 그 높이는 세 규빗으로 하여라.  
**2**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들을 만들고, 그 뿔들이 제단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입혀라.  
**3**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고,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어라.  
**4**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그 그물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네 개를 만들고,  
**5** 그 그물을 제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에 달아 제단의 중간까지 이르게 하여라.  
**6** 제단을 위해 재를 만들되, 곧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놋으로 입히고  
**7** 그 채들을 제단 양편의 고리에 꿰어 제단을 옮길 수 있게 하여라.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여 준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여라.

#### 성막 뜰과 포장 (출 38:9-20)

- 9** ○또 성막의 뜰을 만들되 남쪽을 향하여 남쪽에 가늘게 꼰 베실로 뜰 포장을 길이 백 규빗이 되게 쳐서 한쪽 편이 뜰이 되게 하고  
**10** 그 기둥 이십 개와 그 받침 이십 개를 놋으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어라.  
**11** 북쪽에도 그렇게 길이 백 규빗 되는 포장을 치고, 그 기둥 이십 개와 그 받침 이십 개는 놋으로,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어라.  
**12** 서쪽 뜰의 넓이를 위해서는 오십 규빗 되는 포장을 치고, 기둥 열 개와 그 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13** 동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를 위해서는 포장이 오십 규빗이 되게 하되,  
**14** 문의 한쪽을 위하여 포장이 십오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기둥 세 개와 받침 세 개를 만들어라.  
**15** 문의 다른 한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기둥 세 개와 받침 세

- 개를 만들고  
**16** 그 뜰의 정문을 위해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를 놓은 이십 규빗 되는 막을 만들고, 그것의 기둥 네 개와 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17** 뜰 사면의 모든 기둥들은 은 가름대와 은 갈고리들로 연결하고 그 받침들은 놋으로 만들어,  
**18** 그 뜰의 길이는 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가늘게 꼰 베실로 높이는 오 규빗이 되게 하고 그 받침들은 놋으로 만들어라.  
**19**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말뚝과 그 뜰의 포장 말뚝들을 모두 놋으로 만들어라.

#### 등불 관리 (레 24:1-4)

- 20**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찼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네게 가져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계속 켜 두어  
**21**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의 밖에 있으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게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 제사장 예복 (출 39:1-7)

- 28**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디말을 함께 네게로 데려와 나를 섬기는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고,  
**2** 네 형 이룬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3**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이룬의 옷을 짓게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여라.  
**4**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다음과 같이 가슴패와 에봇과 긴 겹옷과 바둑판 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나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5**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이다.

#### 에봇

- 6**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정교하게 써서 에봇을 만들고,  
**7** 에봇 두 끝에 연결되도록 뿔뿔들을 달아라.  
**8**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짜고,  
**9** 호마노 두 개를 가져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 10** 그들의 출생 순서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겨라.  
**11** 보석 세쌍이 인장을 새기듯이 그 두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 보석들을 금테에 물리며,  
**12**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뿔뿔 위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의 두 뿔뿔 위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하여라.  
**13** 금으로 테들을 만들고,  
**14**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땅아 그 땅은 사슬을 테에 달아라.

#### 가슴패 (출 39:8-21)

- 15** ○관결 가슴패는 에봇 찌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정교하게 써서 만들되,  
**16**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되게 하여라.  
**17**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로,  
**18** 둘째 줄은 홍수정, 청옥, 다이아몬드로,  
**19**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주정으로,  
**20** 넷째 줄은 녹주석, 호마노, 벽옥으로 하고, 이것들을 모두 금테에 물리라.  
**21**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의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22** 순금으로 끈처럼 땅은 사슬들을 가슴패 위에 붙이고,  
**23** 가슴패에 달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가슴패의 양쪽 끝에 그 두 고리들을 달아라.  
**24** 땅은 두 금 사슬을 그 가슴패의 양쪽 끝 두 고리에 매고,  
**25** 땅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의 두 뿔뿔에 달아라.  
**26** 다른 금 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패 아래의 양쪽 끝 양쪽, 곧 에봇과 닿은 곳에 달고,  
**27** 또 다른 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뿔뿔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그 띠를 매는 자리와 가깝게 달아라.  
**28** 청색 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가슴패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있게 하여 가슴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30** 우리와 돌림을 판결 가슴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그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지녀야 한다.

#### 제사장의 또 다른 옷 (출 39:22-31)

- 31** ○에봇 겹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고,  
**32** 그 겹옷 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되, 구멍 주위에 갑옷 깃 테두리를 잘 써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33** 그 겹옷 가장자리 둘레에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그 석류들 사이에 금 방울을 달되,  
**34** 그 겹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35** 그래서 아론이 섬길 때 그 옷을 입게 하고, 여호와의 앞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리게 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36**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고,  
**37**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어 관 앞면에 있게 하여라.  
**38**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들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 성물들을 받으시게 하여라.  
**39** ○가는 베실로 줄무늬 속옷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들며, 수를 놓아 띠를 만들어라.  
**40** ○이룬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 이것들을 너의 형 이룬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42** 그들을 위해 배로 속바지를 만들고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하체를 가리게 하여라.  
**43** 이룬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나아가 거룩한 곳에서 섬기려 할 때에 이것들을 입어야 하며, 그래야 그들이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와 그의 후손이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 제사장 위임식 (레 8:1-36)

- 29** **1** ○네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니,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쏘는 것으로 선택하고,  
**2**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누룩 넣지 않고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 얹게 구운 과자를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3 이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이것들을 담은 채로 그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숫양과 함께 가져와라.

4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와 그들을 물로 씻기며,

5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예봇 속의 겹옷과 예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예봇 띠를 띠게 하여라.

6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붙이며,

7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8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게 하며 관을 쓰게 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여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내가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여라.

10 O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들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고

11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12 그 수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되 그 남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라.

13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콩팥들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르고,

14 그 우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15 O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고

16 그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17 그 숫양을 조각으로 자르되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 조각낸 고기 및 머리와 함께 두고,

18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19 O 또 다른 숫양을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고,

20 그 숫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과 그들의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라.

21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22 O 그 숫양에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을 덮은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하여라. 이것이 위임식 숫양이다.

23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빵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24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 위에 놓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25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 온 냄새가 되게 하여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26 O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의 몫이다.

27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 중에서 흔들어 바치고 들어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여라.

28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몫이니, 이것이 바로 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들어 바치는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제의 제물들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다.

29 O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는데,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위임을 받을 것이며,

30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 회막에 들어갈 성소에서 섬길 때에 칠일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31 O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고,

32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빵을 회막 문에서 먹어야 한다.

33 위임받은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물을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으니,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34 위임식 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35 O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칠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여라.

36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제단을 깨끗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라.

37 칠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며, 그 제단에 닿는 모든 것도 거룩

하게 될 것이다.

####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 (민 28:1-8)

38 O 내가 제단 위에 바칠 것은 이러하다. 날마다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바치되,

39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40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칠 때,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예화와 짙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더하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더하여라.

41 저녁에 다른 어린 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과 같이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그것과 함께 바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를 위한 화제로 바쳐라.

42 이것이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너희 대대로 늘 드려야 할 번제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네에게 말하겠다.

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며, 그 회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44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될 것이니,

46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 향단 (출 37:25-28)

30 1 O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2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여라. 그 뿔들이 단으로부터 이어지게 하고,

3 그 단의 윗면과 그 옆면 둘레와 그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를 금테로 둘러라.

4 단의 곁에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서 단을 운반할 채들을 끼울 수 있게 하고,

5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6 그 단을 증거께 앞에 있는 휘장 앞, 곧 증거께 위 속죄판 앞에 놓아라.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7 아론이 그 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아침마다 그가 등불들을 손질할 때 향을 피워야 하며,

8 또 저녁에 아론이 등불들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한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피워야 할 향이니,

9 너희가 그 위에 다른 향을 피우거나 번제나

곡식 제물을 드리거나 부어 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10 아론이 분향단의 뿔들 위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속죄하되, 속죄 제물의 피로 일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 단은 나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 생명의 속전

11 O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인구 조사할 때, 조사를 받은 자들은 각자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수를 셀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13 조사받은 모든 사람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내야 하는데,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며, 그 반 세겔은 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다.

14 이십 게라 두 O 이상 된 자로서 조사받은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15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보다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서도 안 된다.

16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속전을 받아 그것을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하여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기쁨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 뿔 물두멍 (출 38:8)

17 O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 거기에 물을 담아라.

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되,

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태워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하여라.

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 붓는 기름

22 O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가장 좋은 향품들을 취하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 그 절반인 향기로온 육계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온 창포 이백오십 세겔,

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힌을 취하여

25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그것들로 향기로온 붓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다.

26 그것을 회막과 증거께에 바르고,

27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대와 그 기구들과 분

- 향단과,  
28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대에 발라서,  
29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들이 매우 거룩하게 되어 그것들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30이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31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있어야 할 거룩한 붓는 기름이니.'  
32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와 똑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라.  
33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과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 향**  
3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향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35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것에 소금을 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36그 향의 일부를 골게 뺏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 그 자리에 두어라. 이 향은 너희에게 매우 거룩한 것이다.'  
37내가 만들 향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너희를 위하여서는 만들지 마라.  
38그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성막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출 35:30-36:1)

- 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흠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6 보아라.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솔리압을 그와 함께 일하도록 지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 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있는 속직판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8 상과 그 기구들과 순금 등대와 그 기구들과 분향단과,  
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0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이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과,  
11 붓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이다.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안식일 (출 35:1-3)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14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15 육일 동안은 일을 하되 제 칠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17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육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 칠일에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 18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신 9:6-29)

- 32 1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론에게 물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2 이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 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3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고리들을 빼서 이론에게 가져오니,  
4 이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

- 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다.  
5 이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와 절기이다." 하니,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이 타락하였으니, 내려가라."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히 벗어나,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였다."  
9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제 내 뜻대로 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다.  
11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12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 버리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13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님 자신으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겠다.' 하였습니까?"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15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판들의 양면, 곧 이편과 저편에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니,  
16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그 판들에 새겨 쓰신 것이었다.  
17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 가운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18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

- 리도 아니고,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이다." 하고,  
19 모세가 전에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여 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20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와 불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21 ○모세가 이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  
22 이론이 대답하였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이 백성들이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기에,  
24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사람은 빼 와라.' 말하였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25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이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26 모세가 진 입구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으므로,  
27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고 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하셨다."  
28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 날 백성 가운데서 삼천 명쯤 죽었다.  
29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하고,  
31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드렸다. "슬프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 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겠다.”
- 34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를 앞서 갈 것이니,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 35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으니, 이는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 3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 2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 3 너희를 쫓고 끌어 호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으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는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희를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4 ○백성들이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에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다.
-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할 것이니, 이제 너희가 장신구들을 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하시니,
- 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 냈다.

### 회막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 7 ○모세가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다. 여호와의 찾으려는 사람은 모두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으며,
- 8 모세가 장막에 나아가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바라보았다.
- 9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와 장막 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으며,
- 10 장막 문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볼 때는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다.
- 11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더라도 논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

인 청년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 12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한 내가 네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 13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 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리시며,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 주겠다.” 하시니,
- 15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를 여기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소서.”
- 16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때에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겠다.” 하시니,
- 18 그때 모세가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하였다.
-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며,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시고,
- 20 다시 말씀하였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 21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내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바위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 23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 두 번째 돌판 (신 10:1-5)

- 3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내가 깎은 돌판 위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돌판 위에 기록할 것이다.”

- 2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 3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며,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여라.
- 4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 7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 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 9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께 은총을 받았으면, 원컨대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지만, 저희의 악과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 주소서.” 하니,
-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내가 온 땅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행할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일을 너와 함께 시는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보아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겠다.
- 12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울무가 될까 염려된다.
- 13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 상들을 찍어라.
- 14 나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 15 삼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을 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너를 초창하면, 내가 그들의 제물을 먹을까 염려된다.
- 16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취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 17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18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칠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아빔월이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 19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내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 가운데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도 내 것이다.
- 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 대속하게 하고,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것의 목을 꺾어라. 네 아들들 가운데 장자는 다 대속해야 하며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아와서는 안 된다.
- 21 ○육일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는 쉬며, 밭 갈 때에나 추수할 때에도 쉬어라.
- 22 밭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 23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
- 24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영토를 넓혀 주겠다.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갈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 25 ○내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라.
- 26 네 땅의 첫 열매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 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들을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 이 말들을 기록하여라.” 하셨다.
- 28 모세가 거기서 여호와와 함께 밤낮 사십 일을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판들 위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

- 29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 손에 증거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얼굴 살결에 광채가 났으니,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 30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아라, 그의 얼굴 살결에 광채가 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 31 모세가 그들을 불러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 돌아오니, 모세가 그들과 말하였다.
- 32 그 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 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서는, 모세가 수권

- 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 34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는 그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다시 가렸다.

#### 안식일 규례 (출 31:12-18)

- 35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 2 육일 동안은 일하되, 제 칠일은 너희에게 거룩하고, 여호와께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이 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한다.
- 3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불을 피우지 마라.”

#### 성막 재료 (출 25:1-9)

-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 5 자기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여호와께의 예물로 드려라. 곧 금과 은과 놋과,
- 6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 7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 8 등잔용 기름과 붓는 기름을 만들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료와,
- 9 호마노와 에봇과 가슴패에 박을 보석들이다.
- 10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모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 11 성막과 그 장막과 덮개와 갈고리들과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밀받침들과,
- 12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판과 가릴 막과,
- 13 상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차려 놓은 빵과,
- 14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들과 등잔들과 등잔 기름과,
- 15 분향단과 그 채들과 붓는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입구의 막과,
- 16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채들과 모든 기구들과 물대야와 그 받침과,
- 17 뜰의 포장과 그 기둥들과 밀받침들과 뜰 정문의 막과,
- 18 성막의 말뚝들과 뜰의 말뚝들과 그것들의 줄과,

- 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짜서 만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이다.”

####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

- 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 나갔고,
- 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과 심령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막의 일과 그곳의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 22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남녀 모두가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와 모든 종류의 금 패물을 가져오고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바쳤으며,
- 23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왔고,
- 24 은과 놋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께 그 예물들을 드렸고, 섬기는 일에 쓰일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다.
- 25 마음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내어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을 가져왔고,
- 26 마음에 감동을 받은 지혜로운 모든 여자는 염소 털로 실을 자아내었으며,
- 27 지도자들은 호마노와 에봇과 가슴패에 박을 보석들과,
- 28 등잔과 바르는 기름과 분향할 향에 사용할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 29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 31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으로,
- 32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고,
- 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여 여러 가지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다.
- 34 또한 여호와께서 그와 단 지파 이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을 감동시켜 가르치게 하시며,
- 35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어 조각하는 일과 정교하게 만드는 일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 1 브살렐과 오홀리암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
- 2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암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불렀으며,
- 3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는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므로,
- 4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작고 하는 일을 멈추고 와서,
- 5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 6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선포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하니,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으며,
- 7 가지고 있는 재료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했다.
-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출 26:1-37)
- 8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 열 폭의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곧 가늘게 켜 베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그물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 9 한 폭의 길이는 이십팔 규빗이며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치수가 같게 하였다.
- 10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였으며, 또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여,
- 11 첫 번째 연결된 폭들의 끝에 있는 폭의 가장 자리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폭들의 끝 폭의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만들었다.
- 12 그 연결된 한 폭에 고리 오십 개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한 폭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그 고리들이 서로 마주 보게 하였고,
- 13 금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로 그 천의 폭들을 서로 연결시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 14 ○그 성막을 덮는 장막을 염소 털로 만들되, 그것을 열한 폭으로 만들었으며,
- 15 각 폭의 길이는 삼십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
- 16 다섯 폭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시켰다.
- 17 연결된 마지막 폭의 가장자리에 고리 오십

- 개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마지막 폭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오십 개를 만들었고,
- 18 놋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이 두 폭의 폭들을 연결하여 한 천막이 되게 했으며,
- 19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천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뚝개를 만들었다.
- 20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에 세울 널빤지들을 만들었는데,
- 21 각 널빤지의 길이를 십 규빗, 너비를 일 규빗 반으로 하고,
- 22 각 널빤지에 두 축을 만들어 서로 잇대어지게 세웠으니, 이와 같이 성막의 모든 널빤지들을 만들었다.
- 23 성막을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으로는 남쪽을 위해 널빤지 이십 개를 만들고,
- 24 그 널빤지 이십 개 밑에는 받침 사십 개를 만들어서 한쪽 널빤지 밑에 두 개의 받침이 그 널빤지의 두 축을 받치게 하고, 다른 한쪽 널빤지 밑에도 두 개의 받침이 그 널빤지의 두 축을 받치게 했다.
- 25 성막의 다른 쪽, 북쪽을 위해서도 널빤지 이십 개를 만들고,
- 26 또 은 받침 사십 개를 만들어서 이 널빤지 밑에도 두 개의 받침이, 그리고 저 널빤지 밑에도 두 개의 받침이 받치게 했다.
- 27 성막의 뒤쪽인 서쪽을 위하여 널빤지 여섯 개를 만들고
- 28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를 위하여 널빤지 둘을 만들되,
- 29 그것들이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되어 윗고리에 연결되게 하였고,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 30 널빤지 여덟 개에, 각 널빤지 아래마다 받침 두 개가 있어, 각 받침이 모두 은받침 십육 개였다.
- 31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의 한쪽 널빤지들을 위해 빗장 다섯 개를 만들고,
- 32 성막의 다른 쪽 널빤지들을 위해서도 빗장 다섯 개를 만들었으며 성막의 뒤쪽인 서쪽 널빤지들을 위해서도 빗장 다섯 개를 만들었고,
- 33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워질 그 중간 빗장을 만들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
- 34 그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빗장들을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빗장들도 금으로 입혔다.
- 35 ○그가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켜 베실로 휘장을 만들고, 정교하게 작업하여 그 위에 그물들을 수놓았다.
- 36 아카시아 나무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입



- 하고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기둥들의 네 받침도 은을 부어 만들고
- 37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를 놓아 짜서 장막 출입구를 위해 막을 만들었다.
- 38 또 기둥 다섯과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 기둥들의 머리와 가름대를 금으로 입혔으며 그 기둥의 다섯 받침은 놋으로 만들었다.

#### 언약궤를 만든 이스라엘 (출 25:10-22)

- 37 1 ○브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이 규빗 반, 너비는 일 규빗 반, 그 높이가 일 규빗 반의 궤를 만들었고,
- 2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만들었으며,
- 3 금 고리 네 개를 만들어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두 고리, 다른 한쪽에 두 고리를 달았다.
- 4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 5 그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들에 끼워서 궤를 메게 했다.
- 6 그가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이 규빗 반, 너비가 일 규빗 반이고,
- 7 금으로 그 둘 두 개를 만들어 그들을 두들겨서 속죄판 양 끝에 만들었다.
- 8 한 그룹은 한쪽 끝에, 다른 한 그룹은 다른 쪽 끝에, 곧 속죄판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어 속죄판과 한 덩이로 연결되게 하였고,
- 9 그룹들은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으며,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했다.

#### 상을 만든 이스라엘 (출 25:23-30)

- 10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이 규빗, 너비가 일 규빗, 높이가 일 규빗 반인 상을 만들었다.
- 11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 금테를 만들었으며,
- 12 상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 금테를 만들었다.
- 13 상을 위해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상의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고,
- 14 그 고리들을 턱 끝에 달아서 그 상을 운반할 채들을 꿰게 하였다.
- 15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 그것들로 상을 운반하게 하고
- 16 상 위의 기구들, 곧 대접들과 송가락들과 잔들과 붓는 병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 등잔대를 만든 이스라엘 (출 25:31-40)

- 17 ○그가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와 그 밑받침과 가지와 잔들과 꽃받침들과

- 꽃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으며,
- 18 등잔대 겉에서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 한쪽에서 등잔대의 세 가지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등잔대의 다른 세 가지가 나오게 했다.
- 19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 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 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그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들을 만들었다.
- 20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네 개와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었고,
- 21 등잔대에서 나온 첫 번째 두 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있었으며, 등잔대에서 나온 두 번째 두 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고 등잔대에서 나온 세 번째 두 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어서 그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들에 꽃받침이 있게 했다.
- 22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두 순금을 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 23 그 등잔 일곱 개와 부집게들과 불뿔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 24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 분향단을 만든 이스라엘 (출 30:1-5: 22-38)
- 25 ○그가 분향할 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일 규빗, 너비가 일 규빗으로 네 모반듯하게 하였고, 높이는 이 규빗으로, 그 뿔들이 단으로부터 이어지게 했으며,
- 26 단의 윗면과 그 네 면과 그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를 금테로 둘렀으며,
- 27 그가 그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단을 운반할 채들을 꿰게 했다.
- 28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 29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거룩한 붓는 기름과 향품으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 반제단을 만든 이스라엘 (출 27:1-8)

- 38 1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반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도 오 규빗, 너비도 오 규빗으로 정사각형이었고 높이는 삼 규빗이었다.
- 2 반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들을 만들어 그 뿔들과 제단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입혔으며,
- 3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그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다.
- 4 그가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가장자리 아래에 놓아 그 중간까지 이르게 하고,
- 5 그 놋 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들을 꿰고 고리 넷

- 을 부어 만들었다.
- 6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놋으로 입히고,
- 7 제단 양옆에 있는 고리들에 꿰어 그것을 운반하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 놋 물두멍을 만든 이스라엘 (출 30:17-21)
- 8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놋으로 그 받침도 만들었는데,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 성막 돌과 포장을 만든 이스라엘 (출 27:1-19)
- 9 ○그가 뜰을 만들었는데, 남을 향하여 뜰의 남쪽에 길이 백 규빗 되게 가는 베실로 잔 포장을 둘렀고
- 10 기둥은 이십 개이며 그 받침도 이십 개인데 놋으로 만들었으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었다.
- 11 북쪽도 백 규빗인데 그 기둥들이 이십 개이고 그 받침도 이십 개이며 놋으로 만들었고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었으며,
- 12 서쪽에는 포장이 오십 규빗인데 그 기둥이 열 개이고 그 받침도 열 개인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으로 만들었다.
- 13 동쪽을 향하여 동쪽도 오십 규빗이었다.
- 14 문 한쪽의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고 그 받침도 셋이며,
- 15 문의 다른 한쪽도 그와 같았는데, 뜰 문의 양쪽의 포장이 십오 규빗씩이었으며 그 기둥도 셋씩이고 그 받침도 셋씩이었다.
- 16 뜰 사면의 모든 포장은 가늘게 꼰 베실로 짰다.
- 17 그 기둥들의 받침들은 놋이었고,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가름대들은 은이었으며 그 기둥머리의 덮개도 은이었다. 그 뜰의 모든 기둥들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 18 뜰의 문에 치는 막은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를 놓아 만든 것으로 길이는 이십 규빗이며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었다.
- 19 그 기둥 네 개와 그 받침 네 개는 놋이었고, 그 기둥머리 덮개와 가름대들은 은이었으며,
- 20 성막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은 놋이었다.

#### 성막 재료를

- 21 ○이것들은 성막, 곧 증거 성막 재료에 대한 품목으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들의 품목이다.
- 22 유다 지파 흠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 23 그와 함께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

- 이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리며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로 수놓는 일을 하였다.
- 24 ○성소 짓는 모든 일을 위해 사용된 금, 곧 예물로 바친 금은 모두 성소의 세겔대로 이십구 달란트 칠백삼십 세겔이었으며,
- 25 인구 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 달란트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 26 이십 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으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대로 일 배가, 곧 반 세겔씩이다.
- 27 성소의 받침들과 휘장의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에 은 백 달란트가 들었으므로, 받침 백 개에 백 달란트, 곧 받침 한 개에 한 달란트가 들었다.
- 28 천칠백칠십오 세겔로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 기둥머리를 싸고 그 기둥들의 가름대들을 만들었으며,
- 29 예물로 드린 놋은 칠십 달란트 이천사백 세겔이었다.
- 30 이것으로 회막 문의 받침들과 놋 제단과 그것의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 31 뜰 사면의 받침들과 뜰 정문의 받침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 제사장의 예복을 만든 이스라엘 (출 28:1-14)

- 39 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되, 이온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 2 ○그가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예복을 만들었으며,
- 3 그들이 금 판을 얹게 두들겨 잘라 실을 만들고 이것을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정교하게 짰다.
- 4 예복을 위해 멜빵들을 만들어 예복의 두 끝에 달아 연결시켰고,
- 5 그 예복 위에 예복을 매는 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복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예복에 붙여 짰다.
- 6 ○그들이 호마도 돌을 깎아 금테에 물리고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겼으며,
-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예복의 멜빵들 위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한 기념 보석으로 삼았다.
- 가슴패를 만든 이스라엘 (출 28:15-30)
- 8 ○그가 가슴패를 예복 찌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만들되,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었고

- 9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되는 가슴패였다.  
 10 또 그들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렸다.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  
 11 둘째 줄은 홍수정, 청옥, 다이아몬드,  
 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주정,  
 13 넷째 줄은 녹주석, 호마노, 벽옥으로, 이것들을 금테에 물렸다.  
 14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었으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의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열두 지파를 나타냈다.  
 15 그들이 가슴패 위에 순금으로 끈처럼 땅은 사슬들을 붙이고,  
 16 금테 두 개와 금 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패의 양쪽 끝에 그 고리 두 개를 달았으며,  
 17 금 사슬 두 개를 가슴패의 양쪽 끝 두 고리에 매었다.  
 18 그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 에봇 벨의 두 금테에 매고,  
 19 다른 금 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패 아래의 양쪽 끝 안쪽, 에봇과 닿은 곳에 달았으며,  
 20 또 다른 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땀땀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그 띠를 매는 자리가 가까이 달았다.  
 21 청색 순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가슴패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있게 하여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제사장의 다른 옷들을 만든 이스라엘**  
 (출 28:31-43)  
 22 ○그가 에봇 반침 겹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으며,  
 23 그 겹옷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주위를 갑옷 것처럼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24 그 겹옷 가장자리 둘레에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로 석류들을 수놓아 만들었으며,  
 25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어 그 겹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사이에 그 방울들을 달았다.  
 26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그 겹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아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27 ○그들이 또 이룬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직조한 가는 베로 속옷을 만들고,  
 28 두건을 만들었으며, 가는 베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늘게 끈 베실로 짜서 가는 베 속바지를 만들었고,  
 29 가늘게 끈 베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수

- 놓아 띠를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30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패를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으며,  
 31 그 패를 끈으로 매어서 관 전면에 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출 35:10-19)  
 32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완성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다.  
 33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곧 천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과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반침들과,  
 34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35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판과,  
 36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차려 놓은 빵과,  
 37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들, 곧 배열된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 기름과,  
 38 금 제단과 바르는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문의 휘장과,  
 39 놋 제단과 그것의 놋 그물과 채들과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 반침과,  
 40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반침들과 뜰 문에 치는 막과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봉사할 때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41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짜서 만든 옷들, 곧 제사장 이룬의 거룩한 옷들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었다.  
 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모든 일을 완수하였다.  
 43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 성막을 봉헌한 이스라엘

- 4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첫째 달 첫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3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4 상을 가져와 그 위에 놓을 것을 차리고 등잔대를 가져와 불을 켜고,  
 5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막을 달며,  
 6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어라.  
 7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담고  
 8 또 주위에 뜰을 만들고 뜰 문에 막을 달아라.  
 9 ○그리고 붓는 기름을 가져와 성막과 그 안에

-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10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지금히 거룩하게 될 것이며  
 11 물두멍과 그 반침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12 이룬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겨라.  
 13 이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14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겹옷을 입히고,  
 15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16 ○모세가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17 제 이년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반침들을 놓고 널빤지들을 세웠으며, 빗장들을 끼우고 기둥들을 세웠고  
 19 성막 위에 천막을 펴고 그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20 그가 또 증거궤를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채들을 궤에 꿰었으며 속죄판을 궤 위에 두었고  
 21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22 그가 회막 안, 곧 성막의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23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빵을 차려 놓았다. 이

-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24 그가 회막 안, 곧 그 상 맞은편,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25 여호와 앞에서 등잔에 불을 켜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26 그가 금 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놓고  
 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28 그가 성막 문에 막을 달고  
 29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으며, 그 위에 번제와 곡물 제사를 드렸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30 그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31 모세와 이룬과 이룬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거기에서 씻되,  
 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33 성막과 단의 뜰 사방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막을 달았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모든 일을 마쳤다.  
**회막을 덮은 주님의 영광** (민 9:15-23)  
 34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35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36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38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 레위기

## 번제

- 1 O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 3 O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 문에서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 4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 5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 6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고,
- 7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을 것이며,
- 8 그 조각낸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여 놓아야 한다.
- 9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 10 O만일 그의 예물이 가축, 곧 양들이나 염소들을 드리는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며,
- 11 그가 북쪽 제단 옆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 12 그가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조각으로 잘라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벌여 놓고,
- 13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 14 O만일 그가 여호와의 위한 예물로 새를 드리는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 15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 그 머리를 비틀어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옆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
- 16 그가 모이주머니를 그 오물과 함께 떼어내어 제단의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 17 또 그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 곡식제사

- 2 1 O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곡식 제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 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그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집어 서 제단 위에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 3 그 곡식 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와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 4 O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사의 예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빵이나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드려야 하고
- 5 만일 너의 예물이 철판에 구운 곡식 제물이면,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 6 조각으로 나누며,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 7 만일 너의 예물이 솥에 요리한 곡식 제물이라면,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넣어 만들어야 한다.
- 8 너는 이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 9 그 곡식 제물 중에서 일부를 기념물로 가져다가 들어올려 제단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 10 그 곡식 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 11 O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화제 가운데 누룩이나 꿀을 불사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 12 그것들을 첫 열매의 예물로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 13 너는 네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곡식 제물에서

- 빼지 못할 것이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 14 O만일 네가 첫 열매의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첫 이삭의 첫 열매를 불에 볶아 짙은 것으로 드리고
- 15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 16 제사장은 짙은 곡식의 일부와 기름의 일부를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라.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화제이다.

## 화목제사

- 3 1 O만일 그의 예물이 화목제의 제물이고, 그 제물이 소이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
- 2 그가 그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 3 그가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하니,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 4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허리 부근의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 낼 것이며,
- 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 6 O만일 그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 7 만일 그가 자기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 8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 9 그가 그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하니, 곧 기름과 엉덩이뼈 가운데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 10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허리 부근의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 낼 것이며,
- 11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 12 O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는 그것을 여호와께 끌고 가서,
- 13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하며,
- 14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 예물, 곧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을 가져올 것이니,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 15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허리 부근의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 낼 것이며,

## 속죄제사

- 4 1 O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와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경우에 관한 것이다.
- 3 만일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죄가 되면, 자신이 범한 그 범죄로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 4 그는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 5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 6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적시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릴 것이며,
- 7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 앞 향단 뿔뿔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쏟고,
- 8 또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 낼 것이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 9 두 콩팥과, 그 위 허리 부근의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 내되,
- 10 화목제의 희생 제물인 소에게서 떼어 낼 때처럼 해야 하며,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살라야 한다.
- 11 그러나 수송아지의 가축과 그 머리와 다리의 모든 고기와 내장과 똥,
- 12 곧 수송아지의 전체를 그는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불로 그것을 태우되 재 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태워야 한다.
- 13 O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중에 잘못하고, 그 일이 회중의 눈에 감추어졌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했다면 그들은 죄가 있으며,
- 14 그들이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소 떼 중에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들은 회막 앞으로 그것을 가져올 것이며,
- 15 회중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 16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조금

- 회막으로 가져가서,  
 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적시어 휘장 앞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리고,  
 18 그 피 조금을 회막 앞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19 그는 수송아지에게서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는데,  
 20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같이 그 수송아지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처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가서 처음 수송아지를 불살랐던 것같이 그것을 불사할 것이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다.  
 22 ○만일 통치자가 죄를 지어,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계명 중 하나를 실수로 행하면 그에게 죄가 있으며,  
 23 그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흠 없는 숫염소 새끼를 자기 예물로 가져와서,  
 24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니, 이것이 속죄제이다.  
 25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일부를 그의 손가락에 적시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26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처럼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며, 제사장이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된다.  
 27 ○만일 백성 중 한 사람이 실수로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 죄를 지었다가,  
 28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흠 없는 암염소 새끼를 예물로 가져와서,  
 29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 장소에서 잡아야 하며,  
 30 제사장은 그 피 조금을 그의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른 후 그 모든 피를 제단 바닥에 쏟고,  
 31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 낸 것처럼 떼어 내야 하며, 제사장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32 ○만일 그가 속죄제를 위한 예물로 어린양을 가져오려면, 흠 없는 암양을 가져와서,  
 33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며,  
 34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른 뒤 그 모든

피는 제단 바닥에 쏟고,  
 35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 내었던 것처럼 그 모든 기름을 떼어 내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여호와와 화제물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 5 1 ○어떤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간청을 받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2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기어 다니는 부정한 것의 사체를 만지면, 그가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는 부정하고 죄가 있다.  
 3 또한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가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가 깨닫게 되면 죄가 된다.  
 4 또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무심코 입술로 맹세하면, 그 사람이 맹세로 무심코 말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가 깨닫게 되면 그는 그것들 중 하나로 죄가 있으니,  
 5 그것들 중 하나를 어겼다면 지은 죄를 자백하고,  
 6 자신이 잘못된 죄과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며, 그가 양 떼 가운데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7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범한 죄과로 인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다.  
 8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하나 몸에서 떼어 내어서는 안 되며,  
 9 속죄 제물의 피를 조금 제단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으로 흘러 보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속죄제이다.  
 10 그는 그 다음 것은 규례를 따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11 ○만일 그의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범한 죄과를 위한 예물로 고운 밀가루 에바 십분의 일을 가져와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한다.  
 12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에서 기념 제물로 한 움큼 집어다가 제단 위 여호와와 화제 위에서 불살라야 하는데, 이것이 속죄제이다.  
 13 제사장은 이것들 중 하나를 범한 그의 죄과로 인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곡식 제물처럼 제사장의 것이다.”

#### 속건제사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여 여호와와 성물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네가 정한 성소의 세겔에 해당하는 은 값만큼의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가운데서 가져와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  
 16 또 그는 성물에 대해 죄지은 것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건제의 숫양으로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된다.  
 17 ○또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와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며,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18 그는 네가 정한 값대로 양 떼 중에서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19 이것이 속건 제사니,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 6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물건을 맡거나 저당을 잡는 일에 그 이웃을 속이든지, 강탈하거나 그 이웃을 착취하든지,  
 3 혹은 잃었던 것을 찾거나 그것에 대하여 속이고 거짓으로 맹세하든지,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죄를 지으면,  
 4 그는 감찰함으로 죄가 있으니, 그가 약탈한 것이나 강탈한 것, 혹은 그에게 맡긴 저당물이나 그가 잃었다가 찾은 것,  
 5 혹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을 온전히 되돌려 주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하고, 그의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그것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6 그는 또 자신의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야 하는데, 곧 네가 정한 값대로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7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 번제 드리는 규례

-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 “이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일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제단 위의 석쇠에 놓여 있어야 하며, 제단의 불은 그곳에서 타게 하여라.  
 10 제사장은 고운 베옷을 입고, 맨살에 고운 베 속옷을 입어야 하며,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야 하며,  
 11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재를 진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하며,  
 12 제단 위의 불은 거기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그 위에서 화목 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하며,  
 13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 곡식제사 드리는 규례

- 14 ○곡식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쪽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15 곡식 제물의 고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곡식 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곧 그 기념물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16 그 나머지는 이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 없는 빵은 거룩한 곳, 곧 회막 뜰에서 먹어야 한다.  
 17 그것은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나의 화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속죄제나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8 이론의 자손 중에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여호와와 화제 가운데 너희 후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이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받은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밀가루 한 에바의 십분의 일을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1 기름에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너는 곡식 제물의 구운 조각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라.  
 22 이론의 자손 중에서 그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영원한 규례로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야 하니,  
 23 제사장의 모든 곡식 제물은 완전히 불태우고 먹지 말아야 한다.”

#### 속죄제사 드리는 규례

- 2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5 "이론과 그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법은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26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7 그 고기를 만지는 자는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요, 그 피의 일부가 옷에 묻으면 그것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28 제물을 삶은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며, 만일 제물을 늦 그릇에 삶았으면 닦고 물로 행귀야 한다. 29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30 그러나 피를 조금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게 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 속건제사 드리는 규례

- 7 1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2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3 그는 그것의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4 두 콩팥과 그 위 허리 쪽에 있는 기름과, 간의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 내고, 5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속건제이다. 6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 중에서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7 속죄제도 속건제와 그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의 것이며, 8 그 제사장, 곧 어떤 사람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가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고, 9 화덕에서 구운 모든 곡식 제물과, 술이나 철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이 가질 것이다. 10 모든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자손이 서로 똑같이 가질 것이다.

#### 화목제사 드리는 규례

- 11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12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튀긴 과자를 그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13 또 과자에 곁들여 누룩 넣은 빵을 화목제사의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14 그는 모든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들어

-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하며, 그것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15 감사를 위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16 그러나 만일 그의 예물의 희생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으나, 17 셋째 날에는 그 희생 제물의 남은 고기를 불로 태워야 한다. 18 만일 그 희생 제물을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주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드린 자는 그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부정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19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고기는 누구든지 깨끗한 자만 먹어야 한다. 20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 희생의 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21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한 모든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혐오스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지고 여호와의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모든 기름을 먹지 마라. 24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마라. 25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26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지 마라. 27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 자기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서 자기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하는데, 30 자기 손으로 여호와와 화제물을 가져와야 하며, 그 가슴의 기름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흔들어야 한다. 31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라야 하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 되어야 한다.

- 32 또 너희는 너희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오른 쪽 넓적다리를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 게 주어야 한다. 33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할 것이다. 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바친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 맺는 말

- 35 이것은 여호와와 화제 가운데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여호와와 제사장 직분을 위해 그들을 드리는 날, 36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후손 대대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37 ○이것은 번제와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 관한 법도이다. 38 곧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같이 명령하셨다.

####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 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누룩 없는 빵 광주리를 가지고, 3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이라." 4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 문에 모였다. 5 ○모세가 회중에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7 또 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그에게 띠우고, 겹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 위에 에봇을 더하였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그에게 둘러서, 에봇을 그에게 매어 주었다. 8 그는 아론에게 가슴패를 달고, 그 가슴패에 우림과 돌림을 넣고, 9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 그 관 위의 앞면에는 금 판을 붙였으니, 곧 거룩한 관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10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11 그가 그 기름의 일부를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그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대아와 그

- 발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12 그가 또 붓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피를 그들에게 두르고 두건을 그들에게 씌웠다. 14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15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제단 주위의 깔들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그 피를 제단 바닥에 부어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고, 16 모세는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을 떼어내어 제단에서 불살랐다. 17 그러나 그 수송아지와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살랐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였다. 18 ○모세가 번제의 숫양을 끌고 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19 모세가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20 숫양의 조각내어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불살랐다. 21 모세가 내장과 다리들을 물로 씻고 숫양 전체를 번제 제단에서 불살랐으니, 이것은 향기로 온 냄새, 곧 여호와를 위한 화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22 ○그가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을 위한 숫양을 끌고 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23 모세가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24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다. 25 그가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 내고, 26 여호와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기름 섞은 빵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았고, 27 그가 모든 것을 아론의 손바닥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놓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었다. 28 모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바닥에서 가져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으니, 이것들은

-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위임식 제물이며, 여호와를 위한 화제이다.
- 29 모세가 그 가슴을 붙들고 흔들며 여호와 앞에서 흔들며 바치는 제사를 삼았으며, 그것이 위임식 숯양 중에서 모세의 몫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 30 오모세가 붓는 기름과 제단 위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였다.
- 31 오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위임식 광주리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거기서 먹어라. 이는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여 이룬 그대로이다.
- 32 그리고 고기와 빵의 나머지는 불살라라.
- 33 너희는 너희의 위임식 기간의 끝날까지 칠일 동안 회막 문에서 나오지 마라. 이는 너희 위임식이 칠일 걸리기 때문이다.
- 34 여호와께서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를 속죄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 35 너희는 밤낮 칠일 동안 회막 문에 머물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 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하였다.

### 첫 제사를 드린 아론

- 9 1 ○제팔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 2 아론에게 말했다. “너는 속죄제를 위해 흠 없는 수송아지와, 번제를 위해 흠 없는 숫양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려라.
- 3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 숫염소와, 번제를 위해 흠 없는 일 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 4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제를 위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곡식 제물도 가져와라.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라.”
- 5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은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니,
- 6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으로, 너희가 행하면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 7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제단으로 나아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

- 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하였다.
- 8 ○아론이 그 제단으로 나아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았으며,
- 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에 자기 손가락을 적시어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 10 그러나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은 그가 제단에서 불살랐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으며,
- 11 또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 12 ○아론이 번제물을 잡았고,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것을 제단 주위에 뿌렸으며,
- 13 또 그들이 조각낸 번제물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 14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제단의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다.
- 15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가져왔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숫염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 전과 같이 속죄제를 드렸으며,
- 16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드리고,
- 17 또 그가 곡식 제물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그 손에 가득 채워서 아침 번제물과 별도로 제단에서 불살랐다.
- 18 ○아론은 백성을 위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와 숫양을 잡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고, 아론은 그것을 제단 주위에 뿌렸다.
- 19 그들이 수소와 숫양의 기름들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담은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가져와
- 20 그 기름들을 그 가슴들 위에 놓으니, 아론이 그 기름들을 제단에서 불살랐다.
- 21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와 흔들며 바치는 제사로 흔드니, 이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였다.
- 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
- 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 24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으므로,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었드렸다.

###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여호와와 불

- 10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 2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므로

-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 3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하니, 아론이 잠잠하였다.
- 4 ○모세가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가라.” 하니,
- 5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갔다.
-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너희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주께서 온 회중에게 분노하시지 않게 하여라. 다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사르신 그 불로 인하여 애도 하여라.
- 7 여호와와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와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였으므로 이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

### 회막에 들어올 때 지킬 규례

-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 10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청한 것을 구별하며,
- 11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을 제물

- 12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여호와와 화제 가운데 곡식 제물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 13 이것은 여호와와 화제 가운데 네 뿔과 네 아들들의 뿔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 14 흔들며 바치는 가슴과 팔이 바치는 넓적다리는 너와 네 아들들과 딸들이 나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서 네 뿔과 네 아들들의 뿔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 15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와 흔들며 바치는 가슴은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며 바치는 제물로 흔들여라. 그것이 여호와와 명령하신 대로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 16 ○모세가 속죄제의 염소를 찾아보고, 그것이 이미 불타 버렸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며 말했다.
- 17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 18 그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 오지 않은 것이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반드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 19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자기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와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하니,
- 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 정한 침수와 부정한 침수

- 11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침수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러하다.
- 3 침수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 4 그러나 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고,
- 5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며,
- 6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 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 8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 9 ○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가운데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 10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 11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를 혐오스럽게 여겨라.
- 12 물에서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 13 ○새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야 할 것



- 은 이러하다. 이것들은 혐오스러우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곧 독수리와 대머리 수리와 물수리와
- 14 검은 수리개와 각종 매와
- 15 각종 까마귀와
- 16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새매와
- 17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 18 흰올빼미와 사막 올빼미와 물수리와
- 19 학과 각종 황새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 20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 21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가운데서 그 발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니,
- 22 그것들 가운데서 각종 메뚜기와 각종 베짖이와 각종 귀뚜라미와 각종 여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 23 그러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 24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며,
- 25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니,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 26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가운데서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부정하다.
- 27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며,
- 28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니,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 29 ○땅에 기어 다니는 기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 30 도마뱀붙이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키멜레온이다.
- 31 모든 기는 짐승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죽은 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 32 그것들 중 어떤 것의 사체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니, 곧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일에 쓰는 무슨 그릇이든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정하게 된다.
- 33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깨뜨려라.
- 34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가운데 그 물이 거기

- 에 스며들면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런 그릇으로 마시는 모든 음료도 부정하다.
- 35 그것들의 사체 중에서 일부가 어떤 것 위에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이 부정하니 너희에게 부정하게 될 것이다.
- 36 그러나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하나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다.
- 37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파종할 어떤 씨앗에 떨어져도 그것은 정결하지만,
- 38 씨앗에 물이 묻어 있을 때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 39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서 어떤 것이 죽었을 때 그것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고,
- 40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 41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짐승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그것은 먹지 마라.
- 42 배로 다니는 모든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모든 것이나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가운데서 여러 발을 가진 것은 모두 혐오스러우니, 너희가 먹지 마라.
- 43 너희는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짐승 때문에 스스로 혐오스럽게 하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되지 마라.
- 44 나는 참으로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 45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 46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니,
- 47 곧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 산모의 정결 예식

- 12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칠일 동안 부정할 것이니, 곧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 3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야 한다.
- 4 그 여자는 삼십삼 일 동안 피를 정하게 해야

- 할 것이며, 그 정결의 날들이 차기까지는 어떤 성물도 만지지 말 것이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 5 만일 그 여자가 딸을 낳으면 두 칠일 동안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 여자는 육십육일 동안 피를 정하게 해야 한다.
- 6 ○그 정결의 날들이 차면 그 여자는 아들이나 딸을 위해 번제물로 그 일 년 된 어린 양과 속죄 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의 제사장에게로 가져 와야 한다.
- 7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자를 위해 속죄하여 그 여자가 그 산혈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들이나 딸을 낳은 여자에 관한 법이다.
- 8 만일 그 여자가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 악성 피부병에 관한 법

- 13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사람이 만일 그의 피부에 돌기나 부스럼이나 반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가 나병 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가야 한다.
- 3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살펴보고, 그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그의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 4 만일 그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지 않고 그 털도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일 동안 가두어야 한다.
- 5 제사장은 제 칠일에 그를 살펴보고,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칠일 동안 다시 가두었다가
- 6 제 칠일에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환부가 없어지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나면 정결하게 된다.
- 7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 8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나병이다.
- 9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 10 제사장이 살펴보고, 피부에 흰 것이 돌고 털이 희어지고 그 돌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 11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고, 그가 이미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를 가두지 않아도 된다.
- 12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부에 퍼져 있으면,
- 13 제사장이 잘 살펴보고, 그 나병이 그의 몸통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전체가 희어졌으므로 그는 정결하다.
- 14 아무 때에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니,
- 15 제사장이 생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생살은 부정하니, 그것은 나병이다.
- 16 그러나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하고,
- 17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 18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 19 그 종기 자리에 흰 돌기나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 20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옅고 그 털이 희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종기로 생긴 나병의 환부이다.
- 21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보아라,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옅지 않으며 그것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칠 일 동안 가두어야 한다.
- 22 만일 그것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환부이다.
- 23 그러나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흔적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 24 ○그의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데인 살에 희고 불그스름하거나 아주 흰 반점이 생기면,
- 25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고, 그 반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나병의 환부이다.
- 26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 반점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옅지 않으며 그것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칠일 동안 가두었다가
- 27 제 칠일에 그를 살펴보아 만일 병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나병의 환부이다.

28 그러나 만일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어 오른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이는 그것이 화상의 자국이기 때문이다.

29 ○남자든 여자든 머리카락이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30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거기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욕이나 머리카락에 생기는 가려움 병이다.

31 만일 제사장이 그 욕의 환부를 살펴보았을 때,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거기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가려움 병 환자를 칠일 동안 가두어야 한다.

32 제사장이 제 칠일에 그 환부를 살펴보고, 그 욕이 퍼지지 않고 거기에 누른 털이 없으며 그 욕의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33 그는 털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고, 제사장은 가려움 병 환자를 칠일 동안 다시 가두어야 한다.

34 제사장이 제 칠일에 그 욕을 살펴보고, 그 욕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가 자기 옷을 빨고 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35 그러나 만일 그가 정결하여진 후에도 그 욕이 피부에 그대로 퍼지면,

36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욕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누른 털을 찾지 않아도 그는 부정하다.

37 그러나 그가 보기에 욕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검은 털이 자라면, 그 욕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결하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38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으면,

39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들의 피부에 반점이 어둡고 희면, 그것은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니, 그는 정결하다.

40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이니, 그는 정결하고,

41 만일 그의 얼굴 앞쪽에서 그의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이니, 그는 정결하다.

42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반점이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나병이니,

43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색점이 희고 불그스레하여 나병과 같으면,

44 그는 나병 환자로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환부가 그의 머리에 있다.

45 ○나병에 감염된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드러내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46 감염된 날 동안 그는 늘 부정하다. 그는 부정하므로 그는 진영 밖의 자기 거처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의복이나 가족에 생기는 색 점**

47 ○털옷이든 배옷이든 의복에 나병의 반점이 발생하거나,

48 그것이 베나 털의 날실이나 씨실에, 혹은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거나,

49 그 감염 자국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게 있으면, 그것은 나병의 반점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50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칠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1 제 칠일에 그 반점을 살펴보고, 그 반점이 의복이나 날실에나 씨실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져 있으면, 그것은 악성의 나병이니, 그 반점은 부정한 것이다.

52 제사장은 그 반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나병이므로 그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53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반점이 의복이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않았으면,

54 제사장은 명령하여 반점이 있는 그것을 빨게 하고, 칠일 동안 다시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55 그 반점을 빨 후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봐야 하며, 그 반점의 색이 변하지 않고 그 반점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겉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의 전염성 질병이다.

56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것을 빨 후 그 반점이 없어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실에서나 씨실에서나 그것을 찢어 버려야 한다.

57 만일 그 의복의 날실에나 씨실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것이 여전히 보이면, 그것은 번지는 것이니, 너는 그 반점 있는 것을 불에 태워라.

58 네가 뵈 의복이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서 그 반점이 없어지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그것이 정결하다.

59 ○이것은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생긴 전염성 반점에 대해 정결하거나 부정하다고 진단하는 법이다."

### 나병환자를 정결케 하는 법

1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니, 곧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3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4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 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한 마리를 질그릇 안의 생수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6 살아 있는 새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서,

7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일곱 번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살아 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8 정결케 되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될 것이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칠일을 머물고,

9 제 칠일에 그는 모든 털, 곧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어야 하며,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고,

10 여덟째 날에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와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베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11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12 또 제사장은 어린 숫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그것을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여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고,

13 제사장은 그 어린 숫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 곧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속죄 제물과 같이 속건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4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며,

15 또 제사장은 그 한 록의 기름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16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조금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7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의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18 또 제사장의 손에 남은 나머지 기름은 정결

하게 될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19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자신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20 그리고 제사장이 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드려라.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니, 그가 정결할 것이다.

21 ○그러나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속죄할 속건 제물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베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가져오고,

22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23 제 팔일에 그는 자기의 정결을 위하여 그것들을 여호와 앞 회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 가고,

24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여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야 한다.

25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며,

26 제사장은 그 기름 일부를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27 또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28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 일부를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르며,

29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그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다.

30 그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

31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려야 하고,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32 이것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위한 규례이다."

### 집을 정결케 하는 법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4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 어느 집에 내가 감염성 반점을 발생하게 하면,

35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의



- 집에 반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 36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볼러 가기 전에 그들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여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하고, 그 후에 제사장은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볼러야 한다.
- 37 제사장이 그 반점을 살펴볼 때에, 그 집 벽에 반점이 푸르스름하거나 물그스름하고 그 모양이 벽보다 우묵하면,
- 38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칠일 동안 잠가 두었다가
- 39 제 칠일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살펴보고, 반점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 40 제사장은 명령하여 반점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그 성을 밖 부정한 곳에 그것들을 버리게 하고,
- 41 또 집 안 주위를 굽어내게 해서 그들이 굽어낸 흙을 성을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해야 한다.
- 42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대신해 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에 발라야 한다.
- 43 ○만일 그가 돌들을 빼내고 그 집을 굽어내고 다른 흙으로 바른 후에도 반점이 그 집에 다시 생기면,
- 44 제사장이 가서 살펴볼러야 한다. 반점이 그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악성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하므로
- 45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들과 그 재목들과 모든 흙을 성을 밖 부정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 46 그 집을 잠가 둔 날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며,
- 47 그 집에서 자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 48 ○그러나 만일 그 집을 다른 흙으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고, 그 집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반점이 치료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 49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 50 그 새 한 마리를 짐그릇 안의 생수 위에서 잡고,
- 51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 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그것들을 적서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다.
- 52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 53 그는 살아 있는 새를 성을 밖 뜰만에 놓아 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것이 정결하

게 될 것이다.

- 54 ○이것은 각종 나병 환부에 관한 규례니, 곧 온갖
- 55 의복 및 가옥의 나병과
- 56 돌기와 부스럼과 반점과
- 57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결한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감염성 질병에 관한 규례이다.”

### 유출에 관한 규정

- 15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룬에게 말씀하셨다.
-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 그는 부정하다.
- 3 그의 유출병으로 인한 그 부정함은 이러하니, 곧 그의 유출병과 함께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의 유출병으로 인해 그의 몸에서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에게 부정하다.
- 4 유출병 있는 사람이 누는 침상은 모두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그의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 5 그의 침상에 닿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6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7 유출병 있는 사람의 몸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8 유출병 있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9 유출병 있는 사람이 탔던 안장은 모두 부정하다.
- 10 그의 몸 아래에 있던 모든 것에 닿는 자는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것들을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11 유출병 있는 사람이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않은 채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12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만진 짐그릇은 모두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 13 ○유출병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유출에서 깨끗하여지면, 그는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칠일을 계산하고 나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정결하게 된다.
- 14 여덟째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짐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 15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그의 유출병으로 인해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

에서 속죄해야 한다.

- 16 ○자기 몸에서 정액을 흘린 사람은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17 정액을 묻은 모든 옷이나 모든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18 남자가 여자와 함께 동침하여 실정하였으면, 그들은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19 ○어떤 여자가 유출을 할 경우, 그 여자의 몸의 유출생리이면, 그 여자는 칠일 동안 불결하며 그 여자를 만지는 사람은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다.
- 20 그 여자가 생리할 동안 그가 누웠던 모든 것은 부정하며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부정하다.
- 21 그 여자의 침상을 만지는 사람은 모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니,
- 22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것을 만지는 사람도 모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며,
- 23 만일 그 여자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사람은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다.
- 24 만일 누구든지 그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그는 칠일 동안 부정하며, 그가 누운 침상도 모두 부정하다.
- 25 ○만일 어떤 여자가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피의 유출이 있다거나 그 여자의 생리 기간을 지나도록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생리 기간과 같이 부정하다.
- 26 그 여자가 자기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누는 침상은 모두 그 여자에게 자기의 생리 때의 침상과 같고, 그 여자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여서 자기의 생리 때의 부정함과 같다.
- 27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모두 부정하므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28 만일 그 여자의 유출이 그치면 그 여자는 자신을 위해 칠일을 계산해야 하며 그 후에 정결하게 되므로
- 29 여덟째 날에 그 여자는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짐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 30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 유출로 인해 부정한 그 여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 31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힘으로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여라.

- 32 ○이것은 유출병 있는 사람과 정액을 흘린 그것으로 부정하게 된 것에 관한 규례이며,
- 33 생리 중의 여자와 유출병 있는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례다.”

### 속죄일

- 16 1 ○이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 3 아론은 성소에 들어올 때,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 4 거룩한 고운 베 속옷을 입으며 고운 베 속바지를 그 몸 위에 입고 고운 베 허리띠를 띠며 고운 베 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 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 6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 7 또 그는 숫염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 8 그 두 숫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야 한다.
- 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숫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 10 아사셀을 위해 제비가 뽑힌 숫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팡야로 그것을 보내야 한다.”
- 11 ○이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잡고,
- 12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가득 채운 향로를 가지고, 또 곱게 다 향기로 온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에 들어가서,
- 13 여호와 앞에서 향을 불 위에 놓고, 그 향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 14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그 피 조금을 자기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며
- 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숫염소를 잡아 그

- 피를 휘장 안에 가져가 그 피로 그가 수송아지의 피로 한 것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
- 16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같이 해야 한다.
- 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 18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수송아지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제단 주위의 뿔들 위에 발라야 한다.
- 19 또 그는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조금 그 위에 일곱 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에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 20 “그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을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숫염소를 가져오고,
- 21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와 그들을 속염소 위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숫염소의 머리에 올려놓아,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 22 그 숫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자기 위에 짊어지고 인적이 없는 땅에 이르면, 아론은 그 숫염소를 광야에 놓아 주어야 한다.”
- 23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고운 베틀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 두고,
- 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하며,
- 25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 26 숫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런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27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염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고,
- 28 그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29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본토인인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인,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 30 이는 이 날에 그가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31 그것은 너희에게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니,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32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제사장은 속죄하고 고운 베틀, 곧 거룩한 옷을 입고,

33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34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속죄해야 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1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 3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 4 그것을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돌아갈 것이며,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들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그것들을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 6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야 한다.
- 7 그들은 자신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들에게 다시는 희생 제물로 제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그들을 위한 영원한 규례이다.
- 8 “너는 또 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 9 회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 10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니,
- 11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피를 먹지 마라

-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 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마라.’ 하였다.
- 13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 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야 한다.
- 14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이며, 그 피에 그의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하였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의 피이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 15 저절로 죽은 것이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누구나, 본토인인든지 거류민인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야 정결하게 될 것이다
- 16 만일 그가 옷을 빨지 않거나 자기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 성 관계에 대한 규례

- 1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 3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 4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들을 따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 5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 6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 7 네 아버지의 하체인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네 어머니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 8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네 아버지의 몸이다.
- 9 너는 네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 10 너는 네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

- 라. 이들은 네 몸이다.
- 11 네 계모가 네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네 누이이니, 너는 그 여자에게 접근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 12 너는 네 아버지의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네 아버지의 친족이다.
- 13 너는 네 어머니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네 어머니의 친족이다.
- 14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네 숙모이다.
- 15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 여자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 16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는 네 형제의 몸이다.
- 17 너는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의 하체를 함께 범하지 마라. 너는 또 그 여자의 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들은 그 여자의 친족이니, 그것은 악행이다.
- 18 너는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자매를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함으로 그 여자가 질투하게 하지 마라.
- 19 “너는 생리로 부정함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 20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 21 너는 네 자녀들 중 누구라도 몰래에게 주지 말며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 22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 23 너는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 것이니, 그것은 타락이다.
- 24 “너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 25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벌하였고,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 내었다.
- 26 너희는 본토인인 너희 중에 거거하는 거류민인 내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고 이 모든 역겨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마라.
- 27 이는 너희 이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 28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 냈던 것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 내지 않게 하여라.
- 29 이 역겨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ㄱ) 히 ‘벌거벗음을 드러내다.’



30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 이전  
에 그들이 하던 역겨운 풍속 중 어느 것도 하  
지 말며,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  
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 19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  
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  
룩하여라.  
3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  
일을 지켜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4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  
해 쇠를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  
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5 ○너희는 여호와께 화목제의 회생 제물을 드  
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것을 드리고,  
6 너희의 회생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어야 하며,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은 불태워라.  
7 만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부정  
한 것이니,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8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  
럽혔으므로 자기의 죄과를 짊어져야 하고, 자  
기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9 ○너희가 너희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일 때  
너는 네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네 소출의 이삭도 줍지 마라.  
10 너는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  
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이웃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네 하나님  
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13 너는 내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며, 품  
꾼의 값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14 너는 들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눈  
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  
난한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고, 공정하게 네 이웃  
을 재판하여라.  
16 너는 네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네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네 이  
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죄  
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18 너는 보복하지 말며, 네 백성의 자녀에게 앙

- 심을 품지 말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  
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19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켜라. 너는 네 가족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류  
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  
짚 옷을 입지 마라.  
20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과 동침하여 실정하였는데, 그 여종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으면, 형벌은 받겠  
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여자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그 남자는 자기의 속건 제물, 곧 속건제의 숫  
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어 와야 하고,  
22 제사장은 그 남자가 범한 죄로 인해 그 속건  
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  
해야 그 남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23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먹을 것을 위해 각종  
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그 열매를 아직 할레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삼년 동안 그  
것을 할레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마라.  
24 그러나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므  
로 여호와께 찬양할 것이며,  
25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된  
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26 ○너희는 무엇이든지 파째로 먹지 말며, 주술  
을 하지 말고 길흉을 말하지 마라.  
27 너희는 너희 옆머리를 등글게 깎지 말며, 네  
옆 수염을 손상시키지 마라.  
28 너희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살을 베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29 ○너는 네 딸을 더럽혀 창기가 되게 하지 마  
라. 그리하여 땅이 음행하여 악행이 땅에 가  
득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30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31 ○너희는 신성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며, 영매  
를 좇아가 그들로 인해 더럽히지 않게 하여  
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32 ○너는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33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너희와 함께 거주할 때  
에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34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본토인같이 여기며 그를 네 자신같이 사랑  
하여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었  
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35 ○너희는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짚 때에 부정하게 하지 마라.  
36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

바와 공평한 한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너  
희 하나님이다.  
37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  
키고 그것들을 행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말씀하신 여호와

- 2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  
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서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사  
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  
로 쳐 죽여야 한다.  
3 나도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끌어지게 하겠다. 이는 그가 자기 자  
식을 몰래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부정하게 하  
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4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땅의 사람이 눈감아 주고 그를 죽이  
지 않으면,  
5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와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  
들의 백성 가운데서 끌어 버리겠다.  
6 ○돌이켜 신성한 자들과 영매들을 따라가 음  
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  
이키겠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끌어 버  
리겠다.  
7 너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8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9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  
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  
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  
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11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하면 그는 자  
기 아버지의 몸을 범한 것이므로 그 둘은 반  
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로 돌아갈 것이다.  
12 어떤 사람이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  
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3 어떤 사람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일을 행하였으  
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  
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4 어떤 사람이 한 여자와 그 어머니를 함께 아

- 내로 삼으면 그것은 악한 일이므로 그와 그  
여자들을 불살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 중에  
악행이 없을 것이다.  
15 어떤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16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  
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일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고, 그들의 피는 자  
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7 ○어떤 사람이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을 데려와서 그 여  
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자기  
백성의 자녀들 앞에서 끌어질 것이다. 그가  
자기 누이의 하체를 범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과를 짊어져야 한다.  
18 어떤 사람이 생리중의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근원  
을 드러낸 것이고 여자는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의 백성 가운  
데서 끌어질 것이다.  
19 너는 네 이모나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  
라. 그가 자기 친족의 하체를 범하였으므로  
자기들의 죄과를 짊어져야 한다.  
20 누구든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숙모의 하체를 드러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  
의 죄를 짊어지고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21 누구든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의 하체를  
드러냈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22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법도를 지키  
고 그것들을 준행하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않을 것이다.  
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  
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  
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  
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삼게 너희에게 주겠  
다.’ 라고 하였다. 나는 너희를 못 백성 중에  
서 구별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25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  
희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  
을 혐오스럽게 하지 마라.  
26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  
여라. 나는 너희를 못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다.  
27 ○신성한 자나 영매는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죽이되 둘로 그들을 쳐 죽여야 할 것이니, 그

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신 여호와

- 21**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룬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하라.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2 그러나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인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3 남편 없이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처녀 누이가 죽은 경우에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 4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어른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그들은 자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며, 자기 옆 수염을 깎지 말고, 자기 살을 절대로 베지 말며, 6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하여야 한다. 7 그들은 창기나 부정한 여자나 자기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8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는 그가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는 네게 거룩하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와 거룩하기 때문이다. 9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기 짓을 하여 자기를 더럽히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더럽힌 것이므로 그 여자를 물로 대위하여 한다. 10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가장 손위로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풀거나 자기 옷을 찢지 말고, 11 어떤 사체에도 가까이하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12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13 그는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14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기 짓을 한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다만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 15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후손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 “너는 이룬에게 말하여라. 네 자손 중에서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위해 나와서는 안 된다. 18 몸에 흠이 있어서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 19 말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이나 20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이나 가려움증 환자나 머짐이 있는 사람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 등이다. 21 제사장 이룬의 자손 중에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와 화제를 드릴 수 없으니, 그는 몸에 흠이 있으므로 음식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안 된다. 22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 곧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것이나 23 휘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며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안 된다. 이는 그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24 이와 같이 모세가 이룬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례를 말씀하신 여호와

**22**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룬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3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대대로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자신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4 이룬의 자손 중에 누구든지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하며 또 사체를 만져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진 자나 사정한 자나 5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벌레나 어떤 부정은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을 만지는 자. 6 곧 이런 것에 닿은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한다. 7 해가 질 때 그는 정결하게 되고 그 후에 거룩한 것들을 먹어야 할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8 너는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9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정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죄 짐을 지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 10 ○일반인은 누구든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11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재산으로 산 자나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12 만일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여자는 들어 바친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없으나, 13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고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젊은 때와 같게 되면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누구라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14 만일 어떤 사람이 모르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것에 대하여 그 여자의 일을 더하여 거룩한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5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들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16 또 그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들은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 제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신 여호와

-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 “너는 이룬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류민 중에서 누구든지 그들의 모든 사원이나 모든 자원하는 제물, 곧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19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20 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지 마라. 이는 주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21 누구든지 사원을 실행하기 위해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여 소나 양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해야 하며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 22 너희는 누런 것이나 상한 것이나 절단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23 너희가 옷차렸거나 발욕이 덜 된 지체를 가진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을 서원 제물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24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너희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25 너희는 외국인의 손에서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이는 그 안에 결함과 흠이 있어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7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너희는 칠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여라. 제 팔일 이후로는 여호와를 위한 화제의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28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지 마라. 29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30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 두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31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32 또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며, 33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다. 나는 여호와이다.”

#### 명절의 규례를 말씀하신 여호와

**23**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성회로 모일 여호와와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은 이러하다. **안식일** 3 ○너희는 육일 동안 일하여라. 그러나 제 칠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로서 성회가 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다.

#### 유월절과 무교절

- 4 ○너희가 그 정한 때에 그들을 소집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와 명절들은 이러하다. 5 첫째 달 십사일 해 질 무렵은 여호와와 유월절이며, 6 이 달 십오일은 여호와와 무교절이니, 너희는 칠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7 그 첫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8 너희는 칠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제 칠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 첫 곡식 단을 바치는 절기

-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11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단을 흔들 것이니,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12 너희가 그 단을 흐드는 날에 너희는 일 년 된 흙 없는 어린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

13 그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바쳐야 한다.

14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 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 이삭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 침침절

15 ○너희는 안식일 다음날, 곧 너희가 흔들여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완전히 일곱 번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16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오십 일을 세어서 새로운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17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와 흔들여라. 그 빵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다.

18 너희는 그 빵과 함께 일 년 된 흙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드려라. 이것들은 그 곡식 제물과 그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다. 이것은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이다.

19 또 너희는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드려라.

20 제사장은 그 어린 양 두 마리를 첫 곡식들의 빵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들여라.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21 이 날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 성회를 소집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22 ○너희는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네가 거두는 그 밭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네 수확물의 이삭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 나팔절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성회이니,

25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 속죄일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7 “또한 이 일곱째 달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

를 위한 성회이다. 너희는 금식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28 이 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이 날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29 이 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30 이 날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키겠다.

31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32 이는 너희를 위해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금식하여, 그 달 구일 저녁, 곧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켜라.”

#### 초막절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4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십요일부터 칠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35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36 칠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 팔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37 이것은 너희가 그들을 성회로 소집한 여호와와 명절들이니, 여호와를 위한 화제, 곧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드려라.

38 이것들은 여호와와 안식일 외에, 너희 예물 외에, 너희 서원 제물 외에, 그리고 너희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39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십요일부터 칠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와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일에도 안식해야 한다.

40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41 너희는 해마다 칠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42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44 ○모세가 여호와와 명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 성소 안의 등불

2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짜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항상 켜 두어라.

3 아론은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4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치림빵

5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빵 열두 개를 굽되 한 개당 십분의 이 에바로 하고,

6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의 정결한 상 위에 그것들을 차려 놓아라.

7 너는 또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아 그것이 여호와와 화제를 위한 기념 제물의 빵이 되게 해야 한다.

8 안식일마다 아론은 그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 놓아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9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며,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와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죄

10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웠다.

11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으로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12 그들은 여호와와 뜻이 밝혀지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 “너는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라.

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16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야 한다.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야 한다.

17 ○만일 어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 가축을 쳐 죽인 자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9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한다.

20 골절은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에게도 그대로 갚아야 한다.

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변상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

22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너희에게 그 법은 하나이어야 한다.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 안식년

25 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3 너는 육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리고, 육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위해 완전히 쉬는 안식, 곧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있게 하여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네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며,

5 네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을 너는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들도 거두지 마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다.

6 그 땅 안식년의 소출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곧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거류민과,

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을 위해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 히년

8 ○너는 일곱 번의 안식년, 곧 칠년을 일곱 번 세어라. 일곱 안식년 기간은 네게 사십구 년이 될 것이다.

9 너는 일곱째 달 십일에 뿔 나팔을 크게 불되, 그 속죄일에 네 온 땅에 뿔 나팔을 불어라.

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가 너희에게 히년이 될 것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 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는 따지 마라.
-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다. 너희는 밭에서 난 그 소출을 먹을 것이다.
-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야 한다.
- 14 너희가 네 이웃에게 팔아야 하거나 네 이웃의 손에서 살 때 너희는 서로 불공정하게 하지 마라.
- 15 너는 희년 후의 햇수를 따라서 네 이웃에게서 사야 하고, 그는 소출의 햇수를 따라서 네게 팔아야 한다.
- 16 햇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이 매기고 햇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매겨야 한다. 이는 소출의 햇수에 따라서 그가 네게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 17 너희는 서로 자기 이웃에게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18 ○너희는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법도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 19 땅이 그 열매를 내고 너희는 배불리 먹을 것이니, 너희가 거기에 안전하게 살 것이다.
- 20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만일 일곱째 해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겠으나,
- 21 내가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 위에 명하여 삼년을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 22 여덟째 해에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니, 곧 일곱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 토지를 무르는 제도

- 23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 24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라.
- 2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서 열매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유업 무를 자가 와서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
- 26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유업 무를 자가 없는데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 그것을 무를 능력이 생기면,
- 27 그것을 판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나머지 값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
- 28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무를 능력이 없다면 그 판 것은 희년까지 사들인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보내져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 가옥을 무르는 제도

- 29 ○어떤 사람이 만일 성벽 있는 성읍 안의 가옥을 팔았다면 그것을 판지 만 일년 안에 무를 수 있다. 그것이 그가 무를 수 있는 날들이다.
- 30 만 일년 이내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성벽 있는 성읍 안의 그 가옥은 그것을 산 자의 것으로 그의 대대로 영원히 확정되어 희년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 31 그러나 주위에 성벽 없는 부락의 가옥들은 그 땅의 들로 간주하여 그에게 무를 수 있고 희년에 돌려주어야 한다.
- 32 레위 사람들의 성읍들, 곧 그들이 소유한 성읍들의 가옥들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나 무를 수 있다.
- 33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않았다 하여도, 그 팔린 가옥과 그가 소유한 성읍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레위 사람 성읍들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 34 그러나 그들의 성읍들 주변의 밭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자세

- 3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고 쇠약하게 되어 네 곁에 있으면 너는 거류민이나 거주자처럼 그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 36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말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형제를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 37 너는 이자를 위해 그에게 네 돈을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네 양식을 주지 마라.
-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어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고 자 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 팔린 사람을 무르는 제도

- 39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팔려 와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 40 품꾼이나 거주민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만 너를 섬게 하여라.
- 41 그런 다음 그와 그 자녀들이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며 그의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 안 된다.
- 43 너는 그를 혹독하게 부리지 말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 44 네 남종과 네 여종은 네 주위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얻어야 한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을 사라.
- 45 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주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사들여야 하며,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사들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종을 삼을 수 있지만,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은 서로 혹독하게 부리지 마라.
- 47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이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 또는 거류민 가족의 자손에게 팔리면,
- 48 그가 팔린 후에도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으나,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 49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가족 중 가까운 친족이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다. 혹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몸값을 치를 수 있다.
- 50 그는 자신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햇수를 따라 자신의 파는 값을 정하되 그가 그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고용된 날수와 같다.
- 51 만일 남은 햇수가 많으면, 그 햇수에 따라 그가 팔린 돈에서 그를 산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햇수에 따라 그를 산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 53 주인은 그를 품꾼같이 여기고, 네 눈앞에서 그를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 54 만일 그가 이렇게 해서도 몸값을 치르지 못하면, 희년에 그는 그의 자녀와 함께 풀려날 수 있으니.
-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 산별 규정

- 26 1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2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 3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 4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 줄 것이니,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 5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

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를 것이니, 너희가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운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서 횡행하지 못할 것이다.
- 7 너희가 너희 대적들을 쫓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 8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 9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많게 할 것이며,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 10 너희는 오래 보관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 11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마련하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 12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 13 나는 너희를 너희가 종 되었던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 땅의 빗장을 부수었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 14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으면,
- 15 나의 규례들을 거절하고, 너희 마음이 나의 법도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어기면
- 16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 내가 갑작스러운 재앙, 곧 페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며,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릴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어 버릴 것이다.
- 17 내가 내 얼굴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 18 만일 이렇게까지 되어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너희를 일곱 배나 더하여 벌하겠다.
- 19 내가 너희 권력을 인한 교만을 꺾겠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놋과 같이 만들겠으니
- 20 너희 힘이 헛되게 소모될 것이며, 너희 땅은 그 소출을 내지 못하고, 그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 21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하고 나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대로 일곱 배나 너희에게 재앙을 더하겠다.



- 22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가겠고, 너희 가족을 죽이며, 너희 수효를 줄일 것이며, 또 너희 도로가 황량하게 될 것이다.
- 23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나의 고침을 받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 24 나 역시 너희를 대항하여 걷고 너희 죄들에 대해서도 일곱 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 25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가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로 모인다 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 26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너희에게 저울에 달아 줄 것이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 27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하면
- 28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들에 대해 칠 배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 29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게 될 것이다.
- 30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어 버리고, 너희 분향 제단들을 찢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 우상들의 부서진 것들 위에 너희 시체들을 놓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 31 내가 너희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며, 또 내가 향기로운 냄새도 맡지 않겠다.
- 32 내가 그 땅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니,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 33 또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 버리고, 칼을 빼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니, 너희 땅은 황량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 34 ○그 땅이 황폐하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 그 때에 그 땅이 쉬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 35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면서 안식할 때 쉬지 못했던 그 안식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 36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그 원수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며, 칼을 피해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고,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 37 그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며,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 38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 39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희 원수들

- 의 땅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해질 것이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처럼 쇠잔해질 것이다.
- 40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러 행했던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 41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 42 내가 아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 43 그러나 그들이 내 법도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 44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45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 46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 서원 예물의 값

27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으로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하였으면,
- 3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 남자의 값이 성소 세겔로는 오십 세겔이며,
- 4 만일 그가 여자이면 그 값은 삼십 세겔이다.
- 5 만일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면 그 값이 남자는 이십 세겔이고, 여자는 십 세겔이다.
- 6 만일 일 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면 그 값이 남자는 다섯 세겔이고, 여자는 네가 정한 값이 세 세겔이다.
- 7 만일 예순 살 이상인 남자이면 그 값이 십오 세겔이고, 여자는 열 세겔이다.
- 8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정한 값보다 가난하면 그는 스스로 제사장 앞에 서야 하며,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 9 ○만일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

- 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거룩하니,
- 10 그는 서약한 것을 변경하지 못하며, 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만일 그가 가축을 가축으로 맞바꾸면 그것과 그 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 11 만일 어떤 가축이라도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면 그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세워 두고,
- 12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그것의 값을 정해야 하며, 제사장이 값을 정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 13 그러나 만일 그가 부득이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정한 값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 14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그 값을 정할 것이니,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면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 15 만일 그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값을 정한 돈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 16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일부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씨앗의 분량에 따라 그 값을 정할 것이니, 보리 씨 한 호멜은 은 오십 세겔로 값을 정해야 한다.
- 17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희년후부터 성별하여 드렸다면 정한 그 값이 유지되지만,
- 18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따라 그 돈을 그에게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감해 주어야 한다.
- 19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그 밭을 무르려면 정한 값의 돈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 20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려 하지 않거나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무르지 못할 것이다.
- 21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면 완전히 바쳐진 밭과 같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고,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 22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것을 구입하여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다면,
- 23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네가 정한 값의 가치를 계산하여야 하고, 그는 그 날로 네가 정한 값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려야 한다.
- 24 희년이 그 밭을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을 소유했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 25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여야 하는데,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쳐야 한다.
- 26 ○오직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을 위하여 하며, 제사장이 값을 정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 27 만일 그것이 부정한 가축이면 그는 그 정한 값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물려야 한다. 그러나 무르지 않으려면, 네가 정한 값으로 팔아야 한다.

#### 무를 수 없는 재물

- 28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자기 소유의 밭이든지, 어떤 것이든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 29 사람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무를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 십일조에 관한 규정

- 30 ○땅의 모든 십일조는 땅의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여호와와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 31 만일 어떤 사람이 부득이 자기의 십일조를 다른 것으로 드리려면 그는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 32 소 떼와 양 떼의 십일조, 곧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열 번째 것은 무엇이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 33 좋고 나쁜 것을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가 그것을 반드시 바꾸었다면 그것과 그 바꾸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무르지 못할 것이다.”
- 34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신 명령들이다.

# 민수기

##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여호와

-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이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인구를 조사하되, 모든 남자의 머릿수대로 명단을 만들어라.
- 3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그들의 부대별로 세어서,
- 4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가문의 지도자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라.
- 5 너희와 함께하며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 6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 7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 8 잇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 9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 10 요셉의 아들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아사,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 11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 12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이히에셀,
- 13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 14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십,
- 15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이히리아다.
- 16 이들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자기 조상 지파들의 우두머리이며 이스라엘 종족들의 지도자이다.”
- 17 ○모세와 아론이 지명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 18 이월 일일에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이십 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들의 머릿수대로 명단에 등록하였다.
-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 20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세니,
- 21 르우벤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사만 육천오백 명이었다.
- 22 ○시므온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세니,

로 세니.

- 23 시므온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오만 구천삼백 명이었다.
- 24 ○갓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25 갓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었다.
- 26 ○유다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27 유다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칠만 사천육백 명이었다.
- 28 ○잇사갈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29 잇사갈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오만 사천사백 명이었다.
- 30 ○스불론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31 스불론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오만 칠천사백 명이었다.
- 32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33 에브라임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사만 오백 명이었다.
- 34 ○므낫세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35 므낫세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삼만 이천이백 명이었다.
- 36 ○베냐민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37 베냐민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삼만 오천사백 명이었다.
- 38 ○단 자손들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39 단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육만 이천칠백 명이었다.
- 40 ○아셀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 41 아셀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사만 천오백 명이었다.
- 42 ○납달리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머릿수대로 세니,
- 43 납달리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오만 삼천사백 명이었다.
- 44 ○이들은 모세와 아론 및 각각 자기 가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들이 수를 센 자들이었다.
- 45 그들은 자기 가문을 따라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였으며,
- 46 그 모든 자들의 수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다.
- 47 ○그러나 레위인은 자기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는데,
- 48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 49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지 마라.
- 50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여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돌보게 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 51 성막을 옮길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견고 성막이 머물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우게 하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 5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부대를 따라 자기의 깃발과 진영 옆에 진을 치겠지만,
- 53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라.” 하셨기 때문이다.
- 5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진의 편성 및 행군 순서

- 2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옆에 진을 치되, 곧 회막을 향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 3 해 돋는 동쪽에 진을 칠 자는 그 부대별로 유다의 진영 깃발에 속한 자들이며,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 4 그의 계수된 군인은 칠만 사천육백 명이다.
- 5 그 옆에 진을 칠 자들은 잇사갈 지파이며,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 6 그의 계수된 군인은 오만 사천사백 명이다.
- 7 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자손의

-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 8 그의 계수된 군인은 오만 칠천사백 명이다.
- 9 유다 진영에서 계수된 부대의 군인은 모두 십팔만 육천사백 명이니, 그들이 첫 번째로 행진해야 한다.
- 10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고,
- 11 그의 계수된 군인은 사만 육천오백 명이다.
- 12 그 옆에 진을 칠 자들은 시므온 지파이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 13 그의 계수된 군인은 오만 구천삼백 명이다.
- 14 또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자손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십이고,
- 15 계수된 군인은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다.
- 16 르우벤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십오만 천사백오십 명이며, 그들이 두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 17 ○그 다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들 가운데서 행진할 것이며, 그들이 진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 18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아십이고,
- 19 그의 계수된 군인은 사만 오백 명이다.
- 20 그 옆에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고,
- 21 계수된 군인은 삼만 이천이백 명이다.
- 22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 23 계수된 군인은 삼만 오천사백 명이다.
- 24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들의 군인 모두는 십만 팔천백 명이니, 그들이 세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 25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삿대의 아들 이히에셀이고,
- 26 그의 계수된 군인은 육만 이천칠백 명이다.
- 27 그 옆에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고,
- 28 그의 계수된 군인은 사만 천오백 명이다.
- 29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이히리아다.
- 30 그의 계수된 군인은 오만 삼천사백 명이다.
- 31 단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십오만 칠천육백 명이니,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 32 ○이들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모든 진영에 소속된 자의 모두는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



- 없으나,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수되지 않았다.  
**3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자기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각자 자기 가족과 가문을 따라 행진하였다.

### 아론의 계보

- 3** **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만아들이 나답이며, 그 다음이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다.  
**3**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겼다.

### 레위 사람들

-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7** 그들이 그를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막 앞에서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며,  
**8** 또한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다.  
**9**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10**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만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13**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에게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 레위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하신 여호와

- 14**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5** “레위 자손 가운데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세어라.”  
**16**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듯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세었다.  
**17**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18**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에 따라 립니와 시므이이고,  
**19** 그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에 따라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며,  
**20**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에 따라 말리와 무시이니, 이들이 그 가문대로 레위의 가족들이다.  
**21** ○게르손에게는 립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게르손 가족들이다.  
**22** 그들을 세니,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칠천오백 명이다.  
**23** 게르손 가족은 성막의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24** 게르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살이다.  
**25** 회막에서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회막 문의 막과,  
**26** 뜰의 포장들과, 성막과 단 둘레에 있는 뜰 문의 막과 그것의 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다.  
**27** ○그핫에게는 아르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웃시엘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그핫의 가족들이다.  
**28**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제수하니 팔천육백 명이며, 성소의 직무를 맡았다.  
**29** 그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30** 그핫 가문의 지도자는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31**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그들의 봉사에 필요한 성소의 기구들과 문의 막,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다.  
**32** 레위의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며, 그는 성소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을 감독한다.  
**33** ○므라리에게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므라리의 가족들이다.  
**34**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를 세니, 육천이백 명이다.  
**35** 므라리 가문의 지도자는 아비히일의 아들 수리엘이며, 그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36** 므라리 자손이 맡아서 감독할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빗장들과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며,

- 37** 뜰의 사면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다.  
**38** ○성막 앞 동쪽, 즉 회막 앞 해 뜨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맡았으니,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39**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가족에 따라 세니,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가 모두 이만 이천 명이었다.

### 레위 사람들이 만아들을 대속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 4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한 달 이상 된 만아들의 수를 모두 세고 그 명수를 기록하여라.  
**41**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만아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택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들 중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족을 택하여라.”  
**4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만아들을 세니,  
**43** 한 달 이상 된 모든 만아들이 이만 이천이백 칠십삼 명이었다.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만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고 그들의 가족 대신에 레위인의 가족을 택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46** 이스라엘 자손의 만아들이 레위인보다 이백 칠십삼 명이 더 많으니, 그들의 속전으로,  
**47** 머릿수에 따라 각각 오 세겔을 받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취하여라. 일 세겔은 이십 게라이다.  
**48** 그 초과한 사람들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49** 모세가 레위인들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50** 이스라엘 자손들의 만아들로부터 성소의 세겔에 따라 천삼백육십오 세겔을 받았다.  
**51**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였다.

### 그핫 자손에게 임무를 주신 여호와

- 4**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레위 자손 중에서 그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수를 세되,  
**3** 삼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세어라.  
**4** 그핫 자손의 일은 회막 안 가장 거룩한 물건

- 을 돌보는 일이니,  
**5**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6**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천을 덮어 놓은 뒤 그 채들을 꿰고,  
**7** 차려 놓는 상 위에 청색 천을 펼치고, 그 위에 대접들과 사발들과 종지들과 붓는 주전자들과 항상 차려 놓는 빵을 그 위에 두도록 하여라.  
**8** 또 그들은 그 위에 진홍색 천을 펼치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것의 채들을 꿰고,  
**9** 그 다음 청색 천을 취하여 등대와 등잔과 등불을 끄는 기구와 불뿔 그릇들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름 용기들을 덮고,  
**10**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을 해달 가죽 덮개에 놓아서 메는 장대 위에 두도록 하여라.  
**11** 또 그들이 금 제단 위에 청색 천을 펼치고, 그것을 다시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들을 꿰고,  
**12** 성소 안의 봉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취하여 청색 천에 놓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메는 장대 위에 두도록 하여라.  
**13**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펼쳐 놓고,  
**14** 그들이 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곧 화로와 갈고리와 부삽과 대야, 그리고 단의 모든 기구들을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것의 채들을 끼우도록 하여라.  
**15**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 그핫 자손이 와서 메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핫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들이다.  
**16**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 기름과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과 붓는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이다.”  
**17**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8** “그핫 가족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라.  
**19**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에 죽지 않고 살도록 너희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하여라.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그들의 일과 그들이 메어야 할 것을 지정해 주어라.  
**20**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것을 보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 게르손 자손에게 임무를 주신 여호와

-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 “게르손 자손들도 역시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 수를 세되,  
23 삼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세어라.  
24 게르손 가족이 섬기고 운반해야 할 일은 이것이니.  
25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것의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 막을 운반할 것이며,  
26 또 뜰의 포장들과,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 입구 문의 막과 출들과 그들의 일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그들이 사용할 모든 것들을 운반할 것이며, 이와 같이 섬길 것이다.  
27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너희는 그들이 운반해야 할 모든 것을 그들의 직무로 정하여라.  
28 이것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이 회막에서 섬겨야 할 일이다. 그들의 직무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디말이 감독할 것이다.”

## 므라리 자손에게 임무를 주신 여호와

- 29 ○므라리 자손들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하되,  
30 삼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계수하여라.  
31 회막에서 그들이 섬겨야 할 모든 것으로 그들이 운반할 것은 이것이니, 곧 성막의 널판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32 뜰 사면의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말뚝들과 출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서 운반하도록 할 기구들의 품목을 그들에게 배정해 주어라.  
33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디말의 수하에서 므라리 가족이 회막에서 섬겨야 할 모든 일이다.”

## 레위 사람들의 수

- 34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한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였다.  
35 이들은 삼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36 그 가족에 따라 사람들의 수가 이천칠백오십 명이었다.  
37 이들은 그한 가족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센 것이다.  
38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들은,

- 39 삼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40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들이 이천육백삼십 명이었다.  
41 이들은 게르손 자손 중에서 계수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계수한 것이다.  
42 ○므라리 자손의 가족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43 삼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44 그들의 가족을 따라 계수된 자들이 삼천이백 명이었다.  
45 이들은 므라리 자손의 가족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다.  
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레위인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한 자들은  
47 삼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회막에서 운반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나오는 모든 자들로서,  
48 그 계수된 자들은 팔천오백팔십 명이었다.  
49 여호와와 그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통해 그들이 각자의 섬기는 일과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다.

## 부정한 사람에 대한 법

- 5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자와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3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진영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라.”  
4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행하였다.

## 피해에 대한 보상

-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 중에 하나라도 저질러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7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 값을 온전히 갚고,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  
8 만일 배상을 받을 친척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죄를 속할 속죄의 숫양에 더하여 그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 9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10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며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 부정한 아내에 대한 법

-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죄를 지어,  
13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여자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가 부정하지만 증인이 없으며,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14 그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자기 아내가 더럽혀졌다고 그 여자를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다면,  
15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보릿가루 한 에바의 십분의 일을 그 여자의 예물로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의심의 곡식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16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17 거룩한 물을 칠그릇에 담은 후에 성막 바다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그 물에 넣은 후,  
18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의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두어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손에 들고서,  
19 그 여자로 맹세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떤 남자와도 동침하지 않았고,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쓴 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20 그러나 만일 네 남편을 두고 네가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도 동침했다면,  
21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가 썩고 네 배가 부어오르게 하 시어, 너를 네 백성 중에 저주와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22 저주를 가져오는 이 물이 너의 내장으로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가 썩게 할 것이다.” 하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 말해야 한다.  
23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에 기록한 뒤, 그 글자를 쓴 물에 씻고,  
24 그 여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그 쓴 물을 마시

- 게 하여라. 저주를 가져오는 그 물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썩게 될 것이다.  
25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의심의 곡식 제물을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그 곡식 제물을 흔든고, 그것을 단으로 가져가서,  
26 그 곡식 제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가져와 단에서 태우고, 그 후에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27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만일 그 여자가 부정을 저질러 자기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그 물이 그 여자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 여자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나,  
28 만일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잉태할 것이다.  
29 ○이것이 의심의 법이니,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30 남편이 의심의 마음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하면, 여호와 앞에 그 여자를 서게 한 뒤 제사장이 이 모든 법에 따라 그 여자에게 시행하여라.  
31 남편은 죄가 없으며 여자는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 나실인의 법

- 6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면,  
3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4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씨나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5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원한 모든 날 동안에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한 날이 끝날 때까지 그가 거룩하므로 그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나도록 두어야 한다.  
6 ○그는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7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이라도 그들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되니,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자기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8 그가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하다.  
9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자신을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가 자신이 정결해지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고, 곧 제 칠일에 밀고

10 제 팔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혹은 새끼 비둘기 두 마리를 회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11 제사장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그가 시체 때문에 죄 지은 것을 속죄하고, 그 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12 그는 여호와께 헌신하여 자신을 구별할 날을 다시 정하고, 일 년 된 숫양을 가져와서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전 날들은 무효가 될 것이니, 이는 자신을 구별한 그의 헌신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13 이것이 나실인의 법이다. 자신을 구별한 날이 끝날 때, 그를 회막 입구에 데려가야 하며

14 그가 여호와께 자기의 예물을 바치되, 일 년 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하고

15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기름을 섞은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전병과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16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 그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리고

17 숫양을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려라.

18 나실인은 회막 입구에서 자신의 구별된 머리를 밀고 구별된 머리의 머리칼을 취하여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 위에 두어야 하며

19 그 나실인이 자신의 구별된 머리를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에 있는 누룩 없는 빵 하나와 누룩 없이 만든 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20 그것들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여 바친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것과 흔들여 바친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친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몫이다.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21 이것을 서원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니,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일과 이 외에도 힘이 미치지 대로 할 것이나 그가 서원한 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의 법을 따라야 한다.

#### 제사장의 축복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이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24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시고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27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 예물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 1 오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고,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그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계수된 자들의 감동들이 나아와서,

3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으니,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로, 지도자 두 명에 수레가 하나씩, 지도자 한 명에 소 한 마리씩이었으며, 그들이 성막 앞으로 그것들을 가져왔다.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회막 섬기는 일에 쓰게 하여라. 그것들을 각자의 일에 따라 레위인 각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6 그러므로 모세가 수레와 소를 가져와 레위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7 그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그들의 하는 일에 따라 나눠 주고,

8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그들의 하는 일에 따라 나눠 주어, 제사장 이론의 아들 이디말의 손아래 두었고,

9 그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맡겨진 성소의 일이 어깨에 메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0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지도자들이 단에 봉헌할 제물을 가져와 단 앞에 예물을 드렸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제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다.

12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니,

13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14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며,

15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

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16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17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를 드렸으니,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18 둘째 날에는 잇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으니,

19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20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21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22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23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예물이었다.

24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으니,

25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26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27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28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29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예물이었다.

30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으니,

31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32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향을 가득 채웠으며,

33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34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35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

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예물이었다.

36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셋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37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38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39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40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41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수리셋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린 예물이었다.

42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렸으니,

43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44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45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46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47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예물이었다.

48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으니,

49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50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51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52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53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예물이었다.

54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브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55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56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57 번째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58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59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예물이었다.  
 60 ○아홉째 날에는 베나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가 예물을 드렸으니,  
 61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62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63 번째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64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65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를 드렸으니,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가 드린 예물이었다.  
 66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임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드렸으니,  
 67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68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69 번째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70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71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임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린 예물이었다.  
 72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73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74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75 번째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76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77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예물이었다.  
 78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드렸으니,  
 79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백삼십 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80 또 열 세겔의 금 숫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81 번째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82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숫염소 한 마리와,  
 83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으니,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예물이었다.  
 84 ○이는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단의 봉헌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로서, 은 쟁반이 열둘이고 은 대접이 열둘이며 금 숫가락이 열둘이었다.  
 85 은 쟁반 하나가 백삼십 세겔이고, 대접 하나가 칠십 세겔이므로, 그 기구들의 모든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이천사백 세겔이었고  
 86 향을 가득 채운 열두 개의 금 숫가락들이 성소의 세겔대로 열 세겔이므로, 그 숫가락들의 모든 금이 백이십 세겔이었다.  
 87 또 번째물로는 드린 가족들은 모두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열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두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드린 숫염소가 열두 마리이며,  
 88 화목제 제물로 드린 가족들은 수소 스물네 마리, 숫양 육십 마리, 숫염소 육십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육십 마리였다. 이것이 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봉헌 예물이었다.  
 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 중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곧 속죄판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등잔과 등불

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켜 때에 일곱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하시니,  
 3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놓았다.  
 4 등잔대를 만든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형에 따라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 레위 사람들의 봉헌과 직무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7 그들을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의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8 그 후에 그들에게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게 하고,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9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며,  
 10 또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12 레위인들이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 그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째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속죄하고  
 13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14 ○너는 이렇게 하여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15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드려라. 그 후에야 레위인이 회막에서 섬기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16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모태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게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7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거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18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

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구별하였다.  
 19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의 일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제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시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21 레위인들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으며,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같이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다.  
 22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 회막에서 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다. 이십오 세 이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25 오십 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26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정한 때에 지켜야 할 유월절

9 1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이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3 이 달 십사일 해 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5 그들이 첫째 달 십사일 해질 무렵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6 그런데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그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 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아와서  
 7 그에게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하니,  
8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 지 내가 들을 것이다.”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라도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길을 여행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11 둘째 달 십사일 해 질 때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되

12 그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켜라.

13 그러나 정결하거나 여행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이 사람은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14 만일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올레와 규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나 외국인에게나 그 땅의 원주민에게나 그 규례가 동일해야 한다.”

#### 성막 위의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15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16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17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18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19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20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지만 있어도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21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였다.

22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 진행하였다.

23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

호와와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다.

#### 나팔신호

1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온 나팔 두 개를 만들되, 쳐서 만들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여라.

3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내게로 와서 회막 입구에 모이게 하고,

4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내게로 모이게 하여라.

5 정보 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6 두 번째 정보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여라. 그들이 출발할 때마다 정보 나팔을 불어야 하나,

7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고 정보 나팔을 불지 마라.

8 이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그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10 또한 너희 기쁨의 날, 곧 정한 절기와 매달 초하룻날에는 반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다.”

#### 시내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11 ○제 이년 이월 이십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떠올랐으므로

12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13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첫 번째로 출발하였다.

14 선두로 유다 자손 진영이 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15 수알의 아들 느다벨이 잇사갈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16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17 ○이에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고,

18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이 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19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시므온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20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21 ○그런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22 다음으로 에브림 자손 진영이 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23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24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과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25 ○다음으로 모든 진영들의 뒤에 있는 단 자손 진영이 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26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27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28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그 부대별로 출발하였다.

29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30 호바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않고, 내 땅 내 친척에게 가겠네.” 라고 하므로

31 모세가 말하였다.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진을 쳐야 할지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32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33 ○그들이 여호와와 산에서부터 사할 길을 진행할 때, 여호와와 언약계가 삼일 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34 그들이 진으로부터 진행할 때,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35 ○제가 출발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시어, 일어나시어 주님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36 그것이 쉴 때에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소서.” 라고 하였다.

#### 원망하는 백성을 불러 태우신 여호와

11 1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와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았고,

2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3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와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 고기를 달라고 우는 이스라엘

4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5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리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6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7 ○만나는 고수 씨와 같았으며 모양이 기브엘 리엄과 같았다.

8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모아, 땀물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

9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10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 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모세가 보기에다 불쾌하였다.

11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왜 주님의 종을 괴롭게 하시며, 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아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제게 지우십니까?”

12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주께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품든 그들을 품은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13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여 이 모든 백성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울며 말하기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14 저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짐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15 만일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시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주님의 눈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어 이 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

엘의 장로들 중에서 네가 백성의 장로와 감독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칠십 명을 모으고,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여라.

17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 위에도 임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며 네가 혼자 지지 않을 것이다.

18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일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셔서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9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닢새나 열흘이나 이십 일만 먹을 뿐 아니라,

20 뉘네가 너희의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시신 여호와를 너희가 거부하고 주 앞에서 울며 '왜 이같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가.'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21 모세가 말하였다.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인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2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으며,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였다.

#### 예언하는 이스라엘 칠십 장로들

24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장로들 중 칠십 명을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서게 하였다.

25 여호와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

26 ○한편 진영에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 위에도 그 영이 머물렀으니, 그들은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으나 장막으로 나가지 않아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27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28 청년들 중에 하나인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인 모

세여,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니,  
29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 선지자가 되게 하였으면 좋겠다."

30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

#### 메추라기를 보내신 여호와

31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 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두 규빗 높이로 쌓였다.

32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또 다음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을 모았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펼쳐 놓았다.

33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잇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34 그곳의 이름을 기브릇 헛다아와라 불렀으니,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35 백성이 기브릇 헛다아와에서 하세롯으로 진행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 비방하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

12 1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2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3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4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명령하여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하시므로, 그 세 사람이 나아왔다.

5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아왔다.

6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만일 너희 중에 여호와와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나

7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8 내가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모세는 여호와와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걷히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었고,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나병에 걸렸으므로,

11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시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자 마십시오.

12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13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 주소서." 하니,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라도 그 여자가 칠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여자를 진 밖에서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여라."라고 하셨다.

15 미리암이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혔고,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백성이 진행하지 않았다.

16 그 후 백성이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하신 여호와

1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3 모세가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4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식물의 아들 삼무아,

5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랏,

6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렐,

7 잇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8 예브라임 지파에서는 노의 아들 호세아,

9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10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11 요셉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12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임디엘,

13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14 납달리 지파에서는 원시의 아들 나비,

15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16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노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17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네게브를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19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20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의 첫 열매들이 익을 무렵이었다.

21 ○그들이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 친 광야에서 하맛 어귀의 르흐까지 갔고,

22 그들이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니,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비와 세세와 탈매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23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들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켜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따다,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배어낸 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25 ○사십 일이 지난 후,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고,

26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와서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27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것과 꼴이 훌륭하였나,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28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29 아말렉 사람은 네게브 땅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 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30 ○갈렐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32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으니,

33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의 하나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 원망한 이스라엘

- 14 1 O은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 2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 3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 4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 6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 8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 9 여호와의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나.

## 백성을 위해 기도한 모세

- 11 O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 12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 13 O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것을 듣고,
- 14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 여호와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께서 이 백성을 앞서 가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 15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님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이 말하기를

- 16 ‘여호와와 이 백성을 자기가 맹세했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 버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 17 이제 간구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 18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애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죄악을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 19 간구하니, 주님의 크신 인애를 따라서,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 20 O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한다.
- 21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고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한,
- 22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열 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은
- 23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 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25 그리고 이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광야로 나아가라.”

##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신 여호와

- 26 O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7 “언제까지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 28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 29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 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31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여, 너희가 거절한 그 땅을 그들이 알 것이니,
- 32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 33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양을 치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 불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 34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각각 일년으로 하여 그들이 사십 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 35 나 여호와와 말한다. 나를 거역하려고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 36 O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 37 곧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니,
- 38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 남았다.

## 이말렉 사람들에게 패한 이스라엘

- 39 O모세가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매우 슬퍼하고,
- 40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허가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니,
- 41 모세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와 명령을 또 어기느냐?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42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들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마라.
- 43 너희 앞에는 이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등지고 돌아섰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 44 그러나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와 언약과 모세는 진영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
- 45 그 산지에 살던 이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며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 15 1 O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 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희생이나 자원하는 제사나 정한 절기제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 되게 하여라.
- 4 여호와께 자기 예물을 드리려 하는 자는 고운 가루 삼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곡식 제물을 드리고,
- 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이면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하고,
- 6 속 향양이면 너는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삼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준비하며
- 7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드려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 8 여호와께 번제나 서원을 하는 제사나 혹은 화목제를 위해 수송아지를 드릴 때에는,
- 9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삼분의 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 10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반 힌을 드려서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 11 O한 마리의 소나 숫양이나 새끼 양이나 염소도 이같이 하되,
- 12 너희가 드리는 수에 따라 그 각각에게 이와 같이 하여라.
- 13 모든 본토인들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기 위해 이와 같이 하고,
- 14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이나 너희 가운데 대대로 살아온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네가 하는 그대로 그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 15 회중, 곧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에게 하나의 규정만 있을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나 타국인에게나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 16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에게 하나의 율법과 하나의 규례만 있을 것이다.”
- 17 O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 19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 20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빵을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며, 타작마당의 들어 바치는 제물같이 들어서 드려라.
- 21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 22 O너희가 실수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되,
- 23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 이

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24 회중이 부지중에 범한 것이라면, 온 회중이 수송이지 한 마리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는 향기가 되도록 번제물로 드리고, 규례대로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리며, 또한 솟음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25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며, 그들이 실수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예물로 화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2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도 용서받을 것이니, 이는 온 백성이 실수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27 ○만일 한 사람이 실수로 죄를 범하면, 그는 속죄 제물로 일 년 된 암염소를 드려야 하며,  
 28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실수로 죄지은 그 사람을 속하기 위해 속죄할 것이니,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29 이스라엘 자손들 중 본토인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이 실수하였을 때, 그들에게 동일한 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30 본토인이나 거류민 가운데서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끌어질 것이다.  
 31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반드시 끌어질 것이며, 그 죄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 안식일에 일한 자에 대한 법

32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하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33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34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가두어 두었더니,  
 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였다.  
 3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니 그가 죽었다.

#### 웃자락에 만들어 단 술

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그들이 자기의 웃자락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 대대로 술을 만들어 달게 하고, 또 그 웃자락 술 위에 청색 끈을 달게 하여라.  
 39 너희에게 이 술이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너희를 음행에 빠지게 하는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40 모든 나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41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 모세를 반역한 고리와 다단과 아비람

16 1 ○레위의 중손 그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리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사람을 모으고,  
 2 이스라엘 자손 중 명성 있는 사람들로서 총회에 부름을 받은 회중의 지도자들 이백오십 명과 함께 모세를 반대하여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모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하니,  
 4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5 고리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6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라. 곧 고리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  
 7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그가 거룩한 자이다.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8 모세가 고리에게 말하였다. “들어라, 너희 레위 자손들이.  
 9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셔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여호와와 성막의 일을 돌보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나?  
 10 하나님께서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니,  
 11 너와 네 모든 무리들이 모여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이다. 이론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너희가 그를 거슬러 불평하느냐?”

12 ○모세가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13 네가 우리를 찢고 끌어 흐르는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서 계속 통치자가 되려고 하느냐?”

14 그뿐만 아니라 너는 우리를 찢고 끌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네가 이 사람들의 눈까지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15 모세가 매우 노하여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들의 제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로 취하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16 ○모세가 고리에게 말하였다. “너와 네 모든 무리는 이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17 너희는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오되 그 위에 향을 놓고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와라. 향로는 모두 이백오십 개이다. 너와 이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18 그들이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위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은 후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다.

19 고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이게 하였더니,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물려서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 버리겠다.” 하시니,  
 22 그들이 엎드려 말하였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인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4 “너는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고리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나라.’ 하여라.” 하였다.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뒤를 따랐다.

26 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렵다.” 하니,  
 27 그들이 고리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났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또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들의 장막 입구에 섰다.

28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게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29 만일 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재앙을 당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30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하

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 채로 스올로 내려간다면,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31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32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켰으며,  
 33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 위로 덮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34 그들의 사방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면서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라고 말하였다.

35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자들 이백오십 명을 삼켜 버렸다.

#### 향로를 쳐서 만든 제단을 씌우는 판

3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7 “너는 제사장 이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하여 불타는 곳으로부터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불을 바깥에 쏟아 버려라. 그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38 사람들은 범죄하여 스스로 생명을 잃었으나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판을 만들어라.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39 제사장 엘리아살이 불에 타 죽은 자들이 바친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망치로 펴고 제단에 씌웠.

40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 이는 이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분향하려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고리와 그의 무리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 여호와께 속죄한 아론

41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다.” 하니,  
 42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여 모였을 때 둘 아서서 회막을 보니, 보아라, 그룹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다.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니,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45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 버리겠다.” 하시므로 그들이 엎드렸다.

46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놓고 서둘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시오, 여



- 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염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오.” 하니.
- 47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모인 무리에게 달려가니, 보아라, 백성 가운데 이미 염병이 시작되었으므로 그가 향을 담아 그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 48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설 때, 염병이 그쳤다.
- 49 고라 사건으로 죽은 자들 외에도 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만 사천칠백 명이었다.
- 50 염병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다.

### 씩이 난 아론의 지팡이

- 1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라. 곧 그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의 가문에 따라 열두 개의 지팡이를 가져와 그 지팡이 위에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고,
- 3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 종족의 우두머리에게 하나의 지팡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4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곧 내가 너희를 만나 있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어라.
- 5 내가 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캄이 날 것이니, 이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 가문에 따라 한 지도자씩 지팡이 하나씩 열두 지팡이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아라, 레위 가족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 캄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다.
- 9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각자의 지팡이를 가져갔다.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가 거기에 보존하여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 11 모세가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시오, 우리가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망할 것입니다.

13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죽게 되는데, 우리가 다 망하여 죽어야 하겠습니까?”

###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 18 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네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악을 짊어지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을 짊어져라.
- 2 또한 네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네 형제들을 데려와 너와 협력하여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어라.
- 3 그들이 너의 직무와 장막 전체에 대한 직무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거룩한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하면 그들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 4 그들이 너와 협력하여 장막의 모든 일들을 위해 회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니,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 5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다시 임하지 않을 것이다.
- 6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선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그들은 회막 섬기는 일을 하도록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다.
- 7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위한 직무를 지켜 섬겨라. 너희의 제사장 직분은 내가 선물로 준 것이므로,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을 것이다.”
- 이스라엘 가운데 아론의 유업이 되신 여호와
-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네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주관하는 직무를 너에게 주고, 또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거룩한 부분, 곧 영원한 몫으로 준다.
- 9 지극히 거룩한 것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드린 모든 예물, 곧 그들의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속건 제물은 너와 네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 10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되 그것이 네게 거룩하니 모든 남자만 먹어야 한다.
- 11 그들의 선물, 곧 헌물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혼들어 바치는 제사와 함께 네 것이니, 내가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으므로, 네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

- 은 다 먹을 것이다.
- 12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 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첫 소산물은 모두 네 것이 될 것이니 네 집의 정결한 자들이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 14 이스라엘 안에서 드리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다.
- 15 여호와께 드린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니 오직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해야 하며, 부정한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도 대속하되,
- 16 생후 한 달부터 대속하여라. 너의 평가에 따라 성소의 세례대로 온 다섯 세례로 대속할 것이니, 한 세례는 이십 게라이다.
- 17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대속하지 마라. 이들이 거룩하니, 그것들의 피는 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온 화제로 드려라.
- 18 혼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나 네 것인 것처럼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 19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을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으니,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 20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어떤 몫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 라고 하셨다.
- 십일조를 유업으로 받은 레위 자손들
- 21 ○“보아라, 내가 레위 자손에게 그들의 일, 곧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십일조를 유업으로 주었다.
- 22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다시는 회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 23 오직 레위인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는 그들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어 올려 바치는 십일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레위인들에게 십일조의 십일조를 드리라고 명하신 여호와

-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 26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준 십일조를 그들로부터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여호와께 들어 올리는 제물로 드려라.’
- 27 너희가 들어 바치는 제물은 너희에게 타작마당의 곡물이니 포도즙 틀에서 나온 풍부한 포도즙처럼 여겨질 것이다.
- 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주어라.
- 29 너희가 받은 여호와와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을 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 30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칠 때에 그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이나 포도즙 틀의 소출처럼 여겨.’
- 31 너희와 너희 가족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기 때문이다.
- 32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쳤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하여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 부정한 자를 씻으라고 명하신 여호와

- 19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규례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명예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 끌어 오게 하고,
- 3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하며,
- 4 제사장 엘리아살이 그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리고,
- 5 그의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며,
- 6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가운데로 던지도록 하여라.
- 7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은 후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 8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9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결케 하는 물에 사용하리라. 이것이 죄를 정결케 한다.
- 10 암송아지의 재를 모으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 11 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에 동안 부정하며,
- 12 그가 제 삼일과 제 칠일에 그 갯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되지만, 만일 제 삼일과 제 칠일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 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와 성막을 더럽힌 것이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니,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부정하며 그 부정함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 14 오 장막 안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율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칠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 15 뚜껑이 없어서 열려 있는 모든 그릇도 부정하다.
- 16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혹은 무덤을 만진 자는 누구나 칠일 동안 부정할 것이니,
- 17 부정한 자를 위해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신선한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 18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뿌리고, 떠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접촉한 사람에게 뿌려야 하며,
- 19 정결한 자가 제 삼일과 제 칠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제 칠일에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니, 그가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면 저녁에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 20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 21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
- 22 부정한 자가 접촉한 것은 모두 부정할 것이며, 그것과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20 브리바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낸 모세

- 20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친 광야에 도착하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으므로 거기에 묻혔다.
- 2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
- 3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 4 너희가 왜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 5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와 아론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8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네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이와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족이 마시게 하리라.”
- 9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 11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가족이 마셨다.
-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브리바 물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 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알고 있으니,
- 15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들

- 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 16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
- 17 우리가 왕의 땅을 통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의 물도 거저 마시지 않을 것이며, 다만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왕의 영토를 벗어나는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 18 에돔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이하겠다.” 라고 하였으므로,
- 19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로로만 가겠고 만일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왕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겠으며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고 다른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20 에돔 왕이 또 대답하기를 “너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았다.
- 21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막아 자기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 2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고,
- 23 여호와께서 에돔 땅의 경계에 있는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4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브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 2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가서,
- 26 아론의 옷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라. 거기서 아론이 죽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 27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으며, 그들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 산으로 올라갔다.
- 28 모세가 아론의 옷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 주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리아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으며,
- 29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을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슬퍼 울었다.
- 30 ○아랫을 전멸시킨 이스라엘
- 21 1 ○네게브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랫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것을

-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 중 일부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 2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이 백성을 저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제가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하겠습니다.” 하였더니,
-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 4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해 호르 산을 떠나 홍해 길로 나아갔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 6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뿔들을 보내어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 7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 9 모세가 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뱀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 10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 11 그들이 오봇에서 다시 출발하여 모압 맞은편, 곧 해 돋는 쪽 광야의 이예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 12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 13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부터 떠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였다.
- 14 그러므로 여호와와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들과
- 15 그 골짜기들의 바탈은 아르 마을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라고 하였다.
- 16 ○그들이 거기서부터 브엘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물이 있는 곳이다.
- 17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몰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 물을 노래하여라.  
18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판 우물을.”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맞다나에,  
19 맞다나에서 떠나 나할리엘에, 나할리엘에서 떠나 바못에,  
20 그리고 바못에서 떠나 모압 평원의 한 골짜기에 이르니, 황무지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산봉우리가 가까이 있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친 이스라엘**  
21 ○이שראל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22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밭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영토를 다 지날 때까지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하였으나,  
23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24 이스라엘이 오히려 칼날로 그들을 쳐서 아르논에서부터 알복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만 차지한 것은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기 때문이었다.  
25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들을 빼앗고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 곧 헤스본과 그 주변의 모든 마을에 살았으니,  
26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성읍이었으나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서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27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풍자하였다.  
“너희는 헤스본으로 와라.  
시혼의 성읍 세워,  
견고하게 하여라.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산당들의 주인들을 멸하였다.  
29 모압아, 네게 화가 미치고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망하였다.  
그가 자기 아들들을  
도망자가 되게 하였고  
자기 딸들을 아모리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30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려

- 헤스본이 디본에 이르기까지 망하였다.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멸하였다.”
- 31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게 되었다.
- 32 모세가 사람을 보내 야셀을 정탐하게 한 뒤 그곳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었다.
- 33 그들이 방향을 돌려 바산 길로 올라가니, 바산 왕 옥이 자기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 에드레이로 나왔다.
- 34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하셨으므로
- 35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살아 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쳐 죽이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 빌람을 부른 모압 왕 발락

- 22 1 ○이שראל 자손이 출발하여 여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 2 심불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3 그 백성이 매우 많으므로 모압이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 4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저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사방의 모든 땅을 먹어 치울 것입니다.” 하니, 그 때에 심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
- 5 그가 비불의 아들 빌람을 부르기 위해 빌람의 고향, 곧 강가의 벳들로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보십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고, 이제 나의 맞은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 6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혹시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치는 값을 가지고 떠나 빌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니,  
8 빌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밤은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빌람과 함께 머물렀

- 다.
- 9 하나님께서 빌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니,  
10 빌람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모압 왕 심불의 아들 발락이 제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 11 그들이 전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온 땅을 덮었으니, 지금 이리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12 하나님께서 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다.
- 13 빌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14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였다. “빌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 15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 16 그들이 빌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심불의 아들 발락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오.”
- 17 내가 진실로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하니,  
18 빌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만일 발락이 자기 집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어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19 이제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 아보겠습니다.” 하니,  
20 하나님께서 밤에 빌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행하여라.” 고 하셨다.

#### 나귀의 입을 여신 여호와

- 21 빌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엮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다.
- 22 ○그가 길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와 천사가 그를 대적하려고 그 길에서 있었다. 그때에 빌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두 명의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 23 나귀가 여호와와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발

- 으로 들어갔다. 이에 빌람이 나귀를 때려서 그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였다.
- 24 여호와와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서 있고, 그 양쪽으로 담이 있었다.
- 25 나귀가 여호와와 천사를 보고 담 쪽으로 바짝 붙자, 빌람의 발이 담에 끼여 짓눌렸으므로 빌람이 나귀를 다시 때리니,  
26 여호와와 천사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서 있었다.
- 27 그 나귀가 여호와와 천사를 보고 빌람을 태운 채 주저앉자, 빌람이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 28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빌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인께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를 세 번이나 때리십니까?” 하니,  
29 빌람이 나귀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저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미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 30 그러자 나귀가 빌람에게 말하기를 “저는 오늘 날까지 주인께서 항상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하니, 빌람이 “없었다.” 라고 대답하였다.
- 31 ○그때 여호와께서 빌람의 눈을 여시니, 여호와와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 32 여호와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왜 네 나귀를 세 번이나 때렸느냐? 네 길이 내 앞에 경솔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내게서 피하였다. 만일 내게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 34 빌람이 여호와와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35 여호와와 천사가 빌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빌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 빌람을 만난 발락

- 36 ○발락은 빌람이 온다는 것을 듣고 영토의 변방인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의 성읍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여,  
37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 당신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내게 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니,  
38 빌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제가 왕께 이렇

- 게 왔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제가 말할 것입니다.”
- 39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랴후술에 이르렀다.
- 40 발람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귀족들을 대접하였다.
- 41 ○아침이 되었을 때, 발람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

###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

- 23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만들어 주시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도 준비해 주십시오.” 하니,
- 2 발람이 발람의 요구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수송아지와 숫양을 제단마다 각각 한 마리씩 바쳤다.
- 3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으니 저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벌거벗은 산으로 갔다.
- 4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제단 일곱 개를 세우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각각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니,
- 5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셨다.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 6 그가 발락에게 돌아가서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다.
- 7 발람이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 “발람이 나를 이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가서 나를 위해 아람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지만
- 8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꾸짖겠느냐?
- 9 내가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 백성은 홀로 살며  
자신들을 민족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 10 누가 아람의 티끌을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같이

- 죽기를 원하며  
나의 최후가 그와 같기를 원한다.”
- 11 ○그러자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보시오, 당신은 정말로 축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
- 12 그가 이렇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주신 말씀을 제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한 발람
- 13 ○발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부디 당신은 나와 함께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갑시다. 당신이 단지 그들의 끝 부분만 보고 그들 전부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위해 거기서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니,
- 14 발람이 비스가산 정상에 있는 소뿔들로 그를 데려갔고 제단 일곱 개를 만들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 한 마리씩 바쳤다.
- 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여기서 왕의 번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저는 여기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16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셨다.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와 같이 말하여라.”
- 17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보니, 발락은 자기 번제물 옆에 서 있고 모압의 고관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 하니
- 18 발람이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 “발람은 일어나 들어라.  
십분의 아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겠으며,  
약속하신 것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 20 보아라.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 21 여호와께서는 아람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니  
왕을 부르는 환호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구나.  
22 하나님께서 그들을

-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의 뿔과 같구나.
- 23 아람을 해칠 주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다.  
이제 사람들이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 24 보아라.  
한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며  
수사자처럼 몸을 일으켜,  
움킨 것을 삼키고  
살육한 피를 마실 때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 25 ○그러자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하니,
- 26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왕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
- 27 ○다시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시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소. 거기서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고,
- 28 발람이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니,
- 29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 30 발람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각각 한 마리씩 바쳤다.
- 24 1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깨닫고, 이전처럼 주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하여
- 2 눈을 들어 지파별로 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 3 그가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남자가 말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고 엎드려졌으나  
눈을 크게 뜬 자가 말한다.  
5 아람아, 네 장막이,  
이스라엘아,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6 그들이 골짜기들처럼 펼쳐 있으니,  
강가의 정원과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으며

-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7 그들의 물통에서 물이 넘쳐흘러서  
그들의 씨앗이  
풍성한 물을 얻을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아람보다 위대하여  
그들의 왕국이 높아질 것이다.
- 8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의 뿔과 같구나.  
그들이 적국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부스러뜨리며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다.
- 9 마치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이 무릎을 꿇고 웅크리니  
누가 그들을 일으키겠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0 ○발람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네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오히려 세 번씩이나 축복하였소.
- 11 이제 당신 땅으로 당장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한다고 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소.”
-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제게 보낸 사신들에게 제가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13 만일 왕께서 은과 금을 자기 집에 가득 채워서 나에게 주실지라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호와와 명령을 거스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 14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가겠으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후일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왕께 말하겠습니다.”
- 네 번째 여러 나라에 대해 예언한 발람
- 15 ○발람이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며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깨달은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엎드린 자가 말한다.  
17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 한 별이 아굽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변방들을 쳐부수고  
셋 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 18 에돔이 그의 소유가 되고  
원수 세일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니,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 19 아굽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그 성읍의 남은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 20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그의 신탁을 받  
들어 말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 으뜸이었으나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 21 또 그가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네 거처가 견고하니,  
너의 보금자리를  
바위 위에 놓았구나.
- 22 그러나 가인이 쇠약해져,  
머지않아 네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 23 또 그가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 24 배들이 키프로스 해안으로부터 와서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니  
그도 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 25 빌람이 일어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빌라  
도 자기 길로 떠나갔다.

####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 여호와

- 25 1 ○이스라엘이 신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  
였다.
- 2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들의 제  
사에 초대하니 백성이 함께 먹고 그 여자들  
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 3 이스라엘이 바알브를과 결합하였으므로 여호  
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  
성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  
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하시  
니.
- 5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  
희는 각각 자기가 관할하는 자들 중에서 바알  
브를과 결합한 자들을 죽여라.”
- 6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

- 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  
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왔다.
- 7 제사장 이룬의 손자이며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함께 꿰뚫어  
서 그 둘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  
에게서 그쳤다.
- 9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만 사천 명이  
었다.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1 “제사장 이룬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  
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  
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나의 분노를 돌이  
켰으므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  
투심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 12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그에  
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었으니,
-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  
기 때문이다.’”
-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실루의 아들이며 시므온인의 가문 중 한 지도  
자이며,
- 15 죽임을 당한 그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  
로서 수르의 딸이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7 “너희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 18 이는 브올의 일과 브올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곧 미  
디안의 한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로 너희  
를 속였기 때문이다.”

#### 두 번째 인구조사

- 26 1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이룬의 아들 엘리아살에  
게 말씀하시기를
-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수를 조사  
하되, 곧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전  
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문별로 조사하여라.” 하시니,
- 3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 4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십 세 이상인 남자들의 수를 세여라.” 이집  
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음과 같

- 다.
- 5 ○이스라엘의 만아들은 르우벤이며, 르우벤의  
자손들은 하느에게서 난 하느 가족과 발루에  
게서 난 발루 가족과
- 6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 7 이들은 르우벤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자들이  
사만 삼천칠백삼십 명이였다.
- 8 발루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 있었고,
- 9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  
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이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고라의 무리에 속하  
여 모세와 이룬에게 대항했던 자들이었으며,
- 10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켰으  
니 그 무리들도 죽었다. 그때 불이 이백오십  
명을 살랐는데, 이것이 경고가 되었으나,
- 11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 12 ○시므온의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느  
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아민에게서 난  
아민 가족과 아진에게서 난 아진 가족과
- 13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  
울 가족이다.
- 14 이들은 시므온 가족들로서 이만 이천이백 명  
이었다.
- 15 ○갓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스본에게  
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가족과
- 16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 17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엘리에게서 난  
아엘리 가족이다.
- 18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수가  
사만 오백 명이였다.
- 19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 20 유다의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셀라에  
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 21 베레스 자손들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  
족과 히물에게서 난 히물 가족이다.
- 22 이들은 유다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자들이 칠  
만 육천오백 명이였다.
- 23 ○잇사갈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돌라  
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가  
족과
- 24 야숨에게서 난 야숨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 25 이들은 잇사갈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자들이  
육만 사천삼백 명이였다.
- 26 ○스불론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세렛  
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  
족과 알르엘에게서 난 알르엘 가족이다.

- 27 이들은 스불론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자들이  
육만 오백 명이였다.
- 28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므낫  
세와 에브라임이며,
- 29 므낫세 자손들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  
다.
- 30 길르앗의 자손들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 31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가족과 세겔에게  
서 난 세겔 가족과
- 32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 33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  
었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  
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 34 므낫세의 가족들은 등록된 자들이 오만 이천  
칠백 명이였다.
- 35 ○이들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니, 그들의 가  
족에 따라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  
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 36 수델라의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  
다.
- 37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자들이 삼만 이천오백 명이다. 이상이 가족  
에 따른 요셉의 자손들이다.
- 38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벨  
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  
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 39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 40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이만으로서 아롯에  
게서 난 아롯 가족과 나이만에게서 난 나이만  
가족이다.
- 41 이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른 베냐민 자손들로  
서 등록된 자들이 사만 오천육백 명이였다.
- 42 ○단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수함에게  
서 난 수함 가족이다. 이상이 가족에 따른  
단의 자손들이다.
- 43 수함의 모든 가족은 등록된 자가 육만 사천사  
백 명이였다.
- 44 ○아셀의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임나  
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  
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 45 브리아 자손들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 46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였다.
- 47 이들은 아셀 자손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자들  
이 오만 삼천사백 명이였다.
- 48 ○납달리의 자손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아셀  
에게서 난 아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

족과  
49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50 이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른 납달리 가족들로 서 등록된 자들이 사만 오천사백 명이었다.  
51 O이상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육십 만 천칠백삼십 명이었다.  
52 O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3 “이들에게 이 땅을 사람 수에 따라 유업으로 나누어 주라.  
54 사람이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 각각 등록된 수대로 유업을 배분하여라.  
55 이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며 자기 조상들의 지파 이름으로 상속해야 한다.  
56 수가 많거나 적거나 제비를 뽑은 결과에 따라 그 유업을 배분해야 한다.”  
57 O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들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그핫에게서 난 그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다.  
58 레위의 가족들은 린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그 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59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으로서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그 여자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60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 달미가 태어났으며,  
61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드려다가 죽었다.  
62 레위인으로서 나이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로 등록된 자들은 이만 삼천 명이었다. 이 삼천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어떤 유업도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의 하나로 계산되지 않았다.  
63 O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전 나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파악하여 등록한 자들이다.  
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파악하여 등록한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으니,  
65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 유업을 요구한 슬로브핫의 딸들

27 1 O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

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2 그들이 회막 입구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하였다.  
3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으나, 고라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를 거역하였고 모인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저희에게도 유업을 주십시오.”  
5 O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에 말씀드리니,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되, 그들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8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딸에게 넘겨주고  
9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10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11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 후계자 여호수아

12 O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13 네가 그것을 바라본 후에,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같이 너도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14 이는 친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면전에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너희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물은 친 광야에 있는 므리바 가데스의 물이다.  
15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지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17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또 그들 앞에서 들어오며,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

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앞에서 그를 임명하여,  
20 그에게 내 권위를 부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21 그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며,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판결을 물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회중이 그의 명령에 따라 나가고 또 그의 명령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  
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를 임명하였다.

#### 정한 때에 바쳐야 할 정한 예물

28 1 O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예물, 곧 내 음식을 내가 기뻐하는 향기의 화제로 정한 때에 반드시 내게 바쳐야 한다.”

####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

3 O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이니, 흠 없는 일년 된 어린 양을 매일 두 마리씩 정기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되,  
4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려라.  
5 또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순전한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곡식 제물로 드려라.  
6 이것이 시내 산에서 제정된 매일 드리는 번제로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도록 드리는 화제이다.  
7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의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리되, 독한 술을 성소에서 여호와께 부어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8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9 O안식일에는 흠 없는 일년 된 어린 양 두 마리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또 부어 드리는 제물을 함께 드려라.  
10 이것이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이다.

####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11 O매달 초하룻날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흠 없는 일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12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숫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13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드려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곧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물이다.  
14 그것들과 함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포도주 반 힌을, 숫양 한 마리마다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어린 양 한 마리마다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드릴 것이다. 이것이 일년 중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이다.  
15 또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따로 드려라.

####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

16 O첫째 달 십사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17 그 달 십오일은 명절이니, 칠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18 첫째 날에는 성화로 모이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19 너희는 화제, 곧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20 그것들 외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와,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곡식 제물로 드리며,  
21 어린 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22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 너희를 속죄하여라.  
23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에 속하는 아침의 번제와는 별도로 드려야 한다.  
24 이와 같은 제물들을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칠 일 동안 매일같이 음식,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하며,  
25 제 칠일에는 너희가 성화를 가지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 칠칠절에 드리는 제물

26 O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여호와께 햇곡식 제물을 드리는 칠칠절에는 성화를 열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27 너희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기쁘게 해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 28 그것들 외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드리  
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를,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를 곡식 제  
물로 드리고,  
29 어린 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  
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30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려서 너희를 속죄하여  
라.  
31 너희는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이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이외에도 이것들을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

- 29 1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성회를  
갖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  
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2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길 향기로운 번제  
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드리고,  
3 그것들과 함께 곡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  
바와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  
며,  
4 어린 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  
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5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너희  
를 속죄하여라.  
6 이것들은 규정에 따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으로서, 초하루의  
번제와 그 곡식 제물과,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곡식 제물 및 부어 드리는 제물들 외에 따로 드  
리는 것들이다.

####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

- 7 ○일곱째 달 십일에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  
라.  
8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  
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  
리고,  
9 그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와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를 드  
리며,  
10 어린 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  
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1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물 및 부어 드리는  
제물들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

- 12 ○너희는 일곱째 달 십오일에 성회로 모이고,

-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13 너희는 번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  
로운 화제로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양 열네 마리를 흠 없  
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14 그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물로서 송아지 열  
세 마리의 경우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기  
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숫양  
두 마리의 경우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고,  
15 어린 양 열네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  
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16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17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열네 마리를  
드리고,  
18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  
정대로 드리며,  
19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 및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20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열네 마리를  
드리고,  
21 그들의 곡식 제물 및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  
정대로 드리며,  
22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23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열네 마리를  
드리고,  
24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  
정대로 드리고,  
2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26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열네 마  
리를 드리고,  
27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

- 정대로 드리고,  
28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29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열네 마  
리를 드려라.  
30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  
정대로 드리고,  
3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32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열네 마  
리를 드려라.  
33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  
정대로 드리고,  
34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35 ○여덟째 날에 너희는 성회를 가지고, 생업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마라.  
36 너희는 번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  
기로운 화제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  
리를 드려라.  
37 그들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숫자에 맞춰 규  
정대로 드리고,  
38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에 속한 곡식 제  
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  
이다.  
39 ○이것들은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들로서 너희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명절 때 여호와께 드  
려야 할 것들이다.”  
40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  
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  
다.

#### 서원과 서약들

- 30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  
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2 만일 어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자신  
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다면, 그는 그의 말

- 을 어기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해  
야 한다.  
3 ○한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자신을 제어하기로  
서약했는데,  
4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서원이나 자  
신을 제어하려고 한 그 여자의 서약에 대해  
듣고도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 그 여자의 서원들은 성립되며 그 여자가  
자기를 제어하려고 한 서약도 성립된다.  
5 그러나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  
는 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모든 서원  
들이나 그 여자가 자기를 제어하기로 한 서  
약들은 성립되지 않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6 ○그 여자가 남편을 맞이할 때에 서원하거나  
자기를 제어하겠다고 경솔하게 자기 입으로  
서약했다고 하자.  
7 그 여자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가 듣는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의 서원  
들이 성립되며 그 여자가 자기를 제어하기로  
한 서약도 성립된다.  
8 그러나 만일 그 여자의 남편이 듣는 날 그 여  
자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한 서  
원이나 자기를 제어하기로 그 여자의 입에서  
경솔하게 나온 말은 무효가 될 것이며, 여호  
와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실 것이다.  
9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곧 여  
자가 자신을 제어하기로 한 모든 것은 그대  
로 지켜야 한다.  
10 만일 여자가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거나 자기  
를 제어하기로 서약하였을 때  
11 그 여자의 남편이 듣고도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말리지 않았다면,  
그 여자의 모든 서원들이 성립되며 자신을  
제어하기로 한 모든 서약들도 성립된다.  
12 만일 그 여자의 남편이 듣는 날 그것들을 무  
효케 하면, 그 여자의 서원이나 자기를 제어  
하기로 한 것에 관하여 그 여자가 입으로 한  
모든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여자의 남편  
이 그것들을 무효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실 것이다.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한 제어  
의 맹세는 그 여자의 남편이 인정할 수도 있  
고 또 무효케 할 수도 있다.  
14 만일 그 여자의 남편이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가 그 여자의 모든  
서원이나 자기를 제어하기로 한 서약들을 인  
정하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듣는 날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5 그런데 만일 남편이 듣고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가 그 여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다.”
- 16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남편과 그의 아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의 관계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들이다.

### 미디안과 전쟁한 이스라엘

- 31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 2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
- 3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와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 4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천 명씩 전쟁에 내보내라.”
- 5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마다 천 명씩 택하니, 전쟁을 위해 무장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였다.
- 6 모세가 각 지파마다 천 명씩 전쟁에 내보냈으며,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탁용 나팔을 손에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냈다.
- 7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 남자들을 쳐서 다 죽였고,
- 8 그 외에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으니, 에워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죽였고, 또 브울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 9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 떼와 재산을 탈취하였으며
- 10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과 촌락들을 불사르고,
- 11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고 노략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
- 12 그들이 여기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포로들과 노략한 것과 약탈한 것을 가져오니,
- 13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진 밖으로 나갔다.
- 14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 곧 전쟁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하하여
- 15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 두었느냐?
- 16 보아라, 그들이 브울의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하

- 게 하여 여호와와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던 여자들이니,
- 17 이제 이들 중에 남자는 모두 죽이고 또 아내와 동침하여 남자를 안 여자도 모두 죽여라.
- 18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두고,
- 19 너희는 칠일 동안 진 밖에 거주하여라. 너희와 너희 포로들 중에서 사람을 죽인 자나 또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깨끗게 하고
- 20 모든 의복과 가죽 물품과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나무 기구들을 깨끗게 하여라.”
- 21 ○제사장 엘리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이다.
- 22 오직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
- 23 곧 불에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나, 부정을 씻는 물로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만 그 물을 지나가게 하여라.
- 24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들을 빨아야 너희가 깨끗하게 되고, 그 후에야 너희가 진에 들어올 수 있다.”
- 전리품을 분배하라 하고 명령하신 여호와
-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6 “너는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로잡아 온 것들의 수를 계산하고
- 27 그 전리품을 절반은 전쟁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 28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의 오백분의 일을 떼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 29 그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서 예물을 가져다가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여호와와 헌물로 주고
- 30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이나 각종 짐승들 중에서 오십분의 일을 떼어 여호와와 성막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 31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32 ○군인들이 제각기 탈취한 노획물 이외의 전리품은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
- 33 소가 칠만 이천 마리,
- 34 나귀가 육만 천 마리,
- 35 사람이 삼만 이천 명이였다. 이들은 모두 아내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였다.
- 36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몫은 양이

-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였고,
- 37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양은 육백칠십오 마리였고,
- 38 소는 삼만 육천 마리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것은 칠십이 마리였고
- 39 나귀는 삼만 오백 마리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것은 육십일 마리였다.
- 40 사람은 만 육천 명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사람은 삼십이 명이였다.
- 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예물을 여호와와 헌물로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었다.
- 42 ○모세가 전쟁에 나간 사람들로부터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절반
- 43 곧 회중이 얻은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
- 44 소가 삼만 육천 마리,
- 45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
- 46 사람이 만 육천 명이였다.
- 47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반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오십분의 일을 떼어 내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와 성막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 48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 49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 휘하에 있는 군인들의 수를 세었는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으므로
- 50 저희가 각자 얻은 금 패물이나 발목걸이나 팔찌나 발찌나 귀고리나 패물들을 여호와 앞에 저희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로 가져왔습니다.”
- 51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들을 받았으니,
- 52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여호와를 위해 헌물로 바친 금이 모두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였다.
- 53 이것은 군사들이 원래 자신을 위해 탈취한 것이였다.
- 54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받은 금을 회막에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물로 삼았다.

###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한 모세 (신 3:12-22)

- 32 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매우 많은 양 떼가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그곳은 가축을 치기에 좋은 장소였다.
- 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 3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론은

-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하고,
- 5 또 말하기를 “만일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서 저희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머물려고 하느냐?
- 7 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 8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그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 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 1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 11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 이십 세 이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12 다만 그나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이니, 이는 그들이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하시고
- 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 전부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
- 14 보아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뒤를 이어서 죄인의 무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와 진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 15 너희가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계속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니, 결국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 16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저희가 여기에 저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짓겠습니다.
- 17 이 땅 거주민들이 있으니 저희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살게 한 후에 저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나가고
- 18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저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으며,
- 19 저희는 요단 건너 저쪽에서는 그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않을 것이니, 요단 이쪽인 동쪽에



- 서 저희의 유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 20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전쟁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 21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모두 쫓아내실 때까지 싸운다면
- 22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된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 23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을 알아라.
- 24 너희가 너희 아이들을 위한 성읍과 양 떼를 위한 우리를 짓고 너희 입으로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
- 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26 저희 아이들과 아내들과 양 떼와 모든 가족들은 저기 길르앗 성읍들에 머물겠으니,
- 27 당신의 종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 28 오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 29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서 정복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소유로 주어야 한다.
- 30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소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 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 32 저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으며 요단강 이쪽에서 저희의 유업을 소유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33 오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절박에게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영토와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주었으며, 그 땅과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땅 사방의 성읍들을 함께 주었다.
- 34 갓 자손들이 디본과 아디렛과 아로엘과
- 35 아다롯소반과 아셀과 욱브하와,
- 36 벳니므라와 벳하란의 견고한 성읍들과 양 떼의 우리들을 세웠다.
- 37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일레와 기라다임

- 과,
- 38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므온과 심마를 세웠다. 그들이 자기들이 세운 성읍에 새 이름을 붙였다.
- 39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 40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어, 그가 거기에 살게 되었고,
- 41 므낫세의 아들 아일은 가서 혼락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하봇아일이라 불렀으며,
- 42 노바도 가서 그대와 그것에 속한 마을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 불렀다.

### 이집트에서 요단강까지 광야의 여정

- 33 1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그들의 부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여정은 이러하다.
- 2 모세가 여호와와 명령에 의해 그들의 여정에 따른 출발지를 기록하였으니, 출발지에 따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 3 그들이 첫째 달에 라암셋에서 출발하였는데, 곧 첫째 달 십오일이었다. 율월절 다음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 4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자기들의 모든 만아들을 장사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다.
- 5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속곳에 진을 쳤고,
- 6 속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으며,
- 7 에담에서 출발하여 바알스본 건너편에 있는 비하히룟으로 돌아가 므딕 앞에 진을 쳤고,
- 8 비하히룟에서 출발하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 에담 광야로 삼 일 길을 가서 마리아에 진을 쳤다.
- 9 그들이 마리아에서 출발하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 샘물 열두 개와 종려나무 칠십 그루가 있어, 거기에 진을 쳤다.
- 10 그들이 엘림에서 출발하여 홍해 가에 진을 쳤고,
- 11 홍해에서 출발하여 신 광야에 진을 쳤으며,
- 12 신 광야에서 출발하여 둑가에 진을 쳤고,
- 13 둑가에서 출발하여 일루스에 진을 쳤으며,
- 14 일루스에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진을 쳤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 15 그들이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 16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기브롯하디아와에 진

- 을 쳤으며,
- 17 기브롯하디아와에서 출발하여 하세룟에 진을 쳤고,
- 18 하세룟에서 출발하여 릿마에 진을 쳤으며,
- 19 릿마에서 출발하여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고,
- 20 림몬베레스에서 출발하여 립나에 진을 쳤으며,
- 21 립나에서 출발하여 릿사에 진을 쳤고,
- 22 릿사에서 출발하여 그헬라디에 진을 쳤으며,
- 23 그헬라디에서 출발하여 세벨 산에 진을 쳤고,
- 24 세벨 산에서 출발하여 히라다에 진을 쳤으며,
- 25 히라다에서 출발하여 막헬롯에 진을 쳤고,
- 26 막헬롯에서 출발하여 다핫에 진을 쳤으며,
- 27 다핫에서 출발하여 데라에 진을 쳤고,
- 28 데라에서 출발하여 밋가에 진을 쳤으며,
- 29 밋가에서 출발하여 하스모나에 진을 쳤고,
- 30 하스모나에서 출발하여 모세룟에 진을 쳤으며,
- 31 모세룟에서 출발하여 브네아야간에 진을 쳤고,
- 32 브네아야간에서 출발하여 흘하깃가에 진을 쳤으며,
- 33 흘하깃가에서 출발하여 옷바디에 진을 쳤고,
- 34 옷바디에서 출발하여 아브로나에 진을 쳤으며,
- 35 아브로나에서 출발하여 예시온게벨에 진을 쳤고,
- 36 예시온게벨에서 출발하여 친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가데스였다.
- 37 그들이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 산에 진을 쳤다.
- 38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이 되는 해 오월 일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 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가 백이십 삼 세였다.
- 40 ○가나안 땅 네게브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인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 41 ○그들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살모나에 진을 쳤고,
- 42 살모나에서 출발하여 부논에 진을 쳤으며,
- 43 부논에서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 44 오봇에서 출발하여 모압 국경에 있는 이예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 45 이예아바림에서 출발하여 디본갓에 진을 쳤고,
- 46 디본갓에서 출발하여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쳤으며,
- 47 알몬디블라다임에서 출발하여 느보 앞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고,

- 48 아바림 산지에서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며,
- 49 요단가 모압 평지에 있는 벳여시룟에서 아벨시팀까지 진을 쳤다.

###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 50 ○여호와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5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 52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내고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 그들의 산당들도 다 허물어라.
- 53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여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으니,
- 54 너희가 가족별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되, 사람이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야 한다. 제비가 뽑히는 대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라.
- 55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 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정착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 56 또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 약속의 땅 경계를 말씀하신 여호와

- 3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에게 유업이 될 것이니,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 3 너희의 남쪽 끝은 에돔과 인접한 친 광야로부터 시작되고, 너희 남쪽 경계의 동쪽은 사해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 4 너희의 남쪽 경계는 아그랍빔의 언덕에서 방향을 바꿔 친을 지나 가데스바니아의 남방에 이르고 하살아달을 지나 야스몬까지 이르며,
- 5 또 야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강을 지나 바다 끝까지 이를 것이다.
- 6 ○너희의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안선이며, 이것이 너희에게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 7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큰 바다에서 호르 산까지 경계선을 긋고
- 8 호르 산에서 하맛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을 그어라. 그 경계의 끝은 스닷이 될 것이다.
- 9 그 경계는 시브론을 지나고 하살에난의 끝에

이를 것이며,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가 될 것이다.

10 너희는 너희의 동쪽 경계를 하실에난에서 스밤까지 그어라.

11 그 경계가 스밤에서 아인 동쪽의 리블라로 내려가고 또 계속 내려가서 긴네렛 바다의 동쪽 해안에 맞닿을 것이며,

12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 그 끝이 사해에 이를 것이며,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될 것이다.”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얻을 땅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지파의 절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14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자신들의 가문에 따라 그 유업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자신들의 유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15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여리고 맞은편, 즉 요단 건너편 해 뜨는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다.”

#### 각 지파에 땅을 나눠 줄 책임자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 “너희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눠 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18 또 너희는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도자를 택하여라.

19 다음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20 시므온 자손들의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므엘이고,

21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고,

22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인 지도자 북기이고,

23 요셉 자손들 중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인 지도자 한니엘이고,

24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인 지도자 그므엘이고,

25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인 지도자 엘리사반이고,

26 잇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잇산의 아들인 지도자 발디엘이고,

27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인 지도자 아히훗이고,

28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인 지도자 브다헬이다.

29 아들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업을 나눠 주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이다.”

####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35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소유한 유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살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성읍들 주위에 있는 초장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3 그 성읍들이 그들에게 거주지가 되고, 그들의 초장이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과 모든 짐승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4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의 초장들은 성벽에서 바깥으로 사방 천 규빗이 되어야 하며,

5 성읍 밖에서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하고 성읍은 중앙에 있도록 하여라. 이것이 그들에게 성읍의 초장이 될 것이다.

6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여섯 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을 더 주어라.

7 레위 사람들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과 그에 딸린 초장들을 주고,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떼어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주어라. 각자가 분배받을 유업의 크기에 따라 자기 성읍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 주어라.”

####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신 19:1-13, 수 20:1-9)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에게 도피성이 될 성읍들을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도피할 수 있게 하여라.

12 그 성읍들은 너희에게 복수하려는 자를 피할 도피처가 되어, 살인자가 재판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3 너희가 줄 성읍들 중에서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게 하되,

14 너희가 세 성읍은 요단 건너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15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타국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사는 거류민에게나 이 여섯 성읍이 도피처가 될 것이며,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거기로 도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살인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16 ○만일 죄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서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고,

18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서,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 피를 복수하려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여도 좋으나, 그가 살인자를 만날 때 그를 죽일 수 있다.

20 만일 미워하여 사람을 밀쳐 죽이거나 혹은 숨어 있다가 무언가 던져 죽이거나

21 혹은 적대감 때문에 손으로 그를 쳐서 죽였으면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그는 살인자니,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날 때 죽일 수 있다.

#### 그의 없는 살인죄

22 ○그러나 만일 그가 적대감 없이 순간적인 실수로 사람을 밀쳤거나 악의가 없이 그에게 무엇을 던졌거나

23 혹은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죽게 했다면, 그는 원한도 없고 악을 행하려 한 것도 아니니,

24 회중이 쳐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려는 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규례에 따라 판결하여라.

25 회중은 살인자를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라.

26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자기가 도피한 그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나면,

27 피를 복수하려는 자가 그 도피성 경계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될 때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는 그 흘린 죄가 없을 것이다.

28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9 이것이 너희가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30 ○누구든지 사람을 쳐 죽이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으나, 그 사람에게 대하여 증인이 한 명뿐이면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31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그 살인자의 목숨을 위해 속전을 받지 마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32 또 너희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위해 속

전을 받아서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고향에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하지 마라.

33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그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34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곧 내가 머무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주하기 때문이다.”

#### 슬로브핫의 딸들의 결혼과 유업 문제

36 1 ○요셉 자손의 가족들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의 가족에 속한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였다.

2 “여호와께서 내 주께 명령하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눠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 주께서는 여호와와 명령을 받아서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셨습니다.

3 그런데 그의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아내가 되면, 우리 조상의 유업에서 그 여자들의 유업이 떨어져 나가, 그 여자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유업에 더해지게 되어, 결국 우리가 제비 뽑아 얻은 유업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년이 돌아와도 그 여자들의 유업이 그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유업에 더해져, 우리 조상의 지파 유업 중에서 그 여자들의 유업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5 ○이에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6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다. 그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지만,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

7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 지파의 유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 중에서 유업을 상속 받는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 결혼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자기 조상의 유업을 다 보존하게 되고,

9 유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자 자기 유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슬로브



- 11 핫의 딸들이 따랐고, 솔로브핫의 딸들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삼촌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다.  
12 그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의 가족들

안에서 결혼하였으므로, 그들의 유업이 자기 조상의 가족 지파에 남아 있게 되었다.  
13 이것들은 여리고 근처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들이다.

## 신명기

### 서론

- 1 10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2 호렘에서 세일 산지를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열하룻 길이었다.  
3 제 사십 년 십일 월 일일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으니,  
4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살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쳐부수고 난 다음이었다.  
5 모세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 명하기 시작하였다.  
6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호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7 이제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되, 그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쉼엘라와 네게브와 해변과 가나안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거라.  
8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라.”

### 지도자를 세운 모세 (출 18:13-17)

- 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10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였으므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으니,  
11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보다 천 배나 더하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12 어떻게 내가 혼자서 너희의 피로운 문제와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13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골라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다.’  
14 그러자 너희는 내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5 내가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지혜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 곧 너희 각 지파대로 천부장과 백 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관리를 세우고,  
16 그때에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너희 동족 사이에서 송사를 잘 듣고 공정하게 판결하되, 동족들뿐만 아니라 동족과 거류민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여라.  
17 너희는 재판할 때에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작은 자든 큰 자든 송사를 들어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어려운 문제이거든,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18 그때에 나는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민 13:1-33)

- 19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호렘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고,  
20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까지 이르렀다.  
21 보아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그 땅을 주셨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였다.  
22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라고 하였다.  
23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둘을 뽑았으며,  
24 그들이 나아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 그들이 그 땅의 과일들 손에 들고 우리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았다.’ 라고 그 일을 보고하였다.  
26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 하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며,  
27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므로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28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 형제

- 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서 우리가 또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라고 하였다.
- 2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 30 너희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토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 31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은 것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케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나
- 32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 33 그분께서 너희 앞서 길을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아 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다.
- 이스라엘을 벌하신 여호와 (민 14:20-45)**
- 34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 35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니,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시고,
- 37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여 말씀하셨다.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 38 네 앞에서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곳으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39 오히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 어린이들과 그 날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40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 41 ○그러자 너희가 내게 대답하기를, '저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너희 각자가 병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니,
- 42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

- 므로, 너희가 너희 적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43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거만하게 산지로 올라갔으므로
- 44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대항하여 벌 떼처럼 나와 너희를 추격하여 세일에서 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 45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으므로
- 46 너희가 머물렀던 많은 날 동안 가데스에서 머물게 되었다."

###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절

- 2 1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였고,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지 주변을 떠돌아다녔다.
- 2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 3 '너희가 이 산지를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으니,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라.
- 4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너희가 세일에 살고 있는 예서의 자손, 곧 너희 형제의 경계를 지나게 될 때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각별히 조심하여라.
- 5 내가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마라. 내가 세일 산지를 예서에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 6 너희는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어야 하며 물도 돈을 주고 사 마셔야 한다.
- 7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또한 네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알고 사십 년 동안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셨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세일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예서의 자손을 버쳐 지나가 엘랏과 에시몬게벨에서 시작하는 아라바 길을 따라갔다.
-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 길로 들어섰을 때,
- 9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 10 옛적에 그 땅에 에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다.
- 11 그들도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미 사람들라고 불렀다.

- 12 전에는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살고 있었으나 예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 대신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에 거주한 것과 같았다.
- 13 '너희는 이제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다.
- 14 우리가 가데스바리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삼십팔 년이었다. 그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은 진 가운데서 다 죽었으니,
- 15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 가운데서 멸하였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 16 ○모든 군인들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뒤에
- 17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 18 '오늘 너는 모압 경계인 아르를 지나
- 19 암몬 자손 가까이 이르러서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나는 암몬 자손의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 20 그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니, 옛적에 르바임이 그 땅에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섬숨밌이라고 불렀고
- 21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하였으므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았으니,
- 22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예서의 자손에게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예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였으므로 예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오늘날까지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으며,
- 23 또 크레타에서 온 크레타 사람이 가사까지 이른 자 동네에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다.
- 24 너는 일어나 길을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와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여라.
- 25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네 소문을 듣고 떨며 너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 이스라엘이 물리친 시혼 (민 21:21-30)**
- 26 ○내가 그대똥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화평의 말을 전하기를
- 27 '내가 왕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다만

- 큰 길만 따라 가겠습니다.
- 28 나는 왕께서 돈을 받고 파는 양식만을 먹겠으며, 왕께서 돈을 받고 주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 29 세일에 살고 있는 예서의 자손과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이 내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으나,
- 30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들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그들 네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31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다.
- 32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하스로 나왔으나
- 33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 죽였다.
- 34 그때에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모든 성읍과 함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이를 모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 35 오직 그 가축과 우리가 점령한 그 성읍들의 노획물만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
- 36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으므로,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르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길르앗까지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 37 다만 암몬 자손의 땅과 압뱌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곳은 우리가 어디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스라엘

(민 21:31-35)

- 3 1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바산 길로 올라가니 바산 왕 옥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함께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에드 레이로 나왔다.
- 2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하시고,
- 3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쳐 죽였다.



- 4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여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곧 바산에서 옥이 다스리던 아르곱 전 지역 옥십 개의 성읍이었고,
- 5 이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창으로 방비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매우 많았다.
- 6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여 모든 성읍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 7 모든 가축과 성읍들의 노획물은 우리 소유로 삼았다.
- 8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르는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으니,
- 9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돈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발이라고 불렀다.
- 10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의 온 땅, 곧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의 성읍 들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다.
- 11 르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바산 왕 옥뿐이었으니, 철로 만든 그의 침대가 지금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랍바에 있지 않느냐? 일반 사람 기준으로 길이가 구 굽잇고 그 너비는 사 굽잇이었나”
- 요단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 (민 32:1-42)**
- 12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그때에 나는 아르는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곳에 있는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 13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는 내가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바산의 모든 땅을 주었으니, 바산의 모든 지역, 곧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렀다.
- 14 므낫세의 아들 아일은 그술 족속과 마야가 족속의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바산을 하봇아일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 15 내가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고,
- 16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으로부터 골짜기 중앙을 그 경계로 정한 아르는 골짜기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압목 강까지 주었으며,
- 17 또한 이리바와 요단과 그 경계 지역까지, 긴네렛으로부터 이리바 바다인 사해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주었다.
- 18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너희 모든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가거라.

- 19 내가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다만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의 성읍에 머물러라.
- 20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실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후에야, 너희가 각자 내가 너희에게 준 유업으로 돌아올 것이다.’
- 21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므로
- 22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 요단을 건너지 못할 모세

- 23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 24 ‘나의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손의 강하심을 주님의 종에게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능력처럼 행할 수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 25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니
- 26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듣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내게 죽하다.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 27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가 이 백성 앞에서 건너가,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셨다.
- 29 그때에 우리는 벳브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고 있었다.”

####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들

- 4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 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 3 여호와께서 바일브를에게 하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바

- 일브를을 따라간 사람들을 모두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키셨으니
- 4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는 모두 오늘까지 살아 있다.
- 5 보아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 6 너희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그 민족들의 눈에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규례를 들은 그들은 과연 이 위대한 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 7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올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 9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네 마음을 힘써 지켜서 네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며, 네가 사는 날 동안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려 주어라.
- 10 내가 호렘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 11 너희가 가까이 나와와 산 아래에 섰을 때에 산에는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았고, 어둠과 같은 구름도 있었으며,
- 12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는 오직 말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 13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분께서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이다.
- 14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너희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여호와

- 15 ○“여호와께서 호렘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을 깊이 명심하여라.
- 16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어떤 형태로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 17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나,

- 18 땅 위에 기어 다니는 것의 어떤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 19 하늘을 향하여 네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 20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쇠 풀무, 곧 이 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셔서 오늘과 같이 자신의 유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 21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내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한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 22 나는 이 땅에서 죽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 2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 24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25 ○네가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얻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 때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노를 일으키게 되면,
- 26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으로 세우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곧 망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며,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 27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흠오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많지 않겠고,
- 28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 29 거기에서 너희가 여호와 네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내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 30 내가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 31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는 공허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므로, 너를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네 조상과 맹세하여 맺으신 언약을 잊지

- 도 알으실 것이다.
- 32 ○네가 있거니와,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께 물어 보아라.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 33 어떤 민족이 너희가 들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 남았느냐?
- 34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어느 신이 가서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두려움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그의 민족을 선택한 적이 있느냐?
- 35 그러나 네가 이것을 보여 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니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 36 여호와께서는 너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분의 큰 불을 보여 주셨으니, 네가 그 불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 37 여호와께서 네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을 택하시고,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며,
- 38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것을 유업으로 네게 주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 39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니서 다른 이가 없음을 알고 마음에 새겨라.
- 40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 요단강 동편의 도파성**
- 41 ○그때에 모세가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 세 성읍을 구별하였는데,
- 42 그것은 과거에 미워한 일이 없이 실수로 그 이웃을 죽인 자가 피신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느니라.
- 43 르우벤 지파에 속한 광야의 고원 평지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 하나님 율법의 소개**
- 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
- 45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증거들과 규례들과 법도들이며,
- 46 선포한 그곳은 요단 동쪽 벳브를 맞은편 골짜기로서, 헤스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었으나, 시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망시키고,

- 47 이스라엘 백성이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이 두 아모리 왕은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 살았었다.
- 48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는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 곧 헤르몬까지와,
- 49 요단 건너편, 곧 동쪽의 온 아라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 십계명 (출 20:1-17)

- 5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여라.
- 2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 3 이 언약은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 있는 우리들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 4 여호와께서는 그 산 불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말씀하시니,
- 5 그때에 너희가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서 너희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전해 주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 6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네 하나님이다.
- 7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 8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벌하고
- 10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 11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 12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 13 육일 동안 네 모든 일을 힘써 하고,
- 14 제 칠일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네 남종이나 여종도 너처럼 쉬게 하

- 여라.
- 15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였으나 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 16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며 네가 잘될 것이다.
- 17 ○살인하지 마라.
- 18 ○간음하지 마라.
- 19 ○도둑질하지 마라.
-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21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집이나 말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네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 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큰 소리로 너희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더 보태지 않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다.”
-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 (출 20:18-21)**
- 23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서
- 24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우리가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셨으나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 25 이 거대한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 26 어떤 유책을 가진 자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 처럼 살아 있는 자가 누구이었습니까?’
- 27 당신께서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 28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 옳다.
- 29 그들이 항상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잘되기를 바란다.

- 30 너는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 31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네게 전해 주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차지하고 준 그 땅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
- 32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 33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잘될 것이며 너희가 얻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 6 1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 2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 3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 4 ○들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 이시고, 여호와와 한 분이니시니,
- 5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 6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있게 하고,
-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 8 또 너는 이것들을 네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 9 그리고 이것들을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 불순종에 대한 경고**
- 10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네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네게 주실 것이다.
- 11 네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고도 네가 파지 않은 우물들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 12 그때에 너는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13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 15 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타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지 않게 하여라.
- 16 ○너희가 밋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 17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 18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네 앞에서 네 원수를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 20 ○나중에 네 아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옛적에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 22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표적과 큰 기적을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온 집안에 내리셔서
- 23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오셔서
- 24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살게 하실 것이다.
- 25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출 34:11-16)

- 7 1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꾼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 2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

- 겨주어, 네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 3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네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 4 그들이 네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와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 5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 6 ○너는 참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 7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 8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셨으며, 종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 9 그러므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야 한다.
- 10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 11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 순종함으로 얻는 복 (신 28:1-14)

- 12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 13 또 너를 사랑하고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네게 주시겠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태의 열매와 네 토지의 열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복을 주시고, 네 송아지와 양 떼가 불어나게 하실 것이다.
- 14 네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가 없을 것이고, 네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도 없을 것이다.

- 15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 16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옳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7 ○네가 마음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수도 있으나,
- 18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
- 19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내실 때에 네 눈으로 본 그 큰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여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 20 또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벌을 보내시어,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과 너를 피하여 숨어 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 21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
- 22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차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지도 모른다.
- 23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고 큰 혼란에 빠지게 하여 마침내 그들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 24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 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네 앞에서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 25 너희는 그들의 조카한 신상들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일한 은이나 금을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마라. 네가 그것 때문에 옳마가 걸리지 않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 26 너는 그 역겨운 것을 너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고 역겨워하여라. 이는 진멸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기억해야 할 여호와와 복

- 8 1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

- 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2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사실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낫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 3 너를 낫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4 이 사실 년 동안 네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지지 않았다.
- 5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 6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 7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 8 밭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 9 네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 수 있는 땅이다.
- 10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경고

- 11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 12 네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네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 14 네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 15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 16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사를 네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낫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17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 18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 시려는 것이었다.
- 19 내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 20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 백성의 불순종

- 9 1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 크고 성벽이 하늘까지 닿은 성읍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2 야나 자손은 강대하고 키가 큰 자손이니, ‘누가 야나 자손 앞에서 맞설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내가 들어 알고 있을 것이나
- 3 오늘 너는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로 네 앞에서 건너 가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네 앞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속히 쫓아내며 멸할 것이다.
- 4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네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 5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네 마음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내쫓으셨으니,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 6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 7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던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 8 너희가 호렙에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다.
- 9 그때에 나는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밤낮 사십 일을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 10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두 개를 주셨으니, 그 두 돌 판에는 총회로 모인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 11 밤낮 사십 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판 두 개, 곧 언약의 돌판들을 주시고,
- 12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네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그들이 빨리 돌아서서,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었다.’
- 13 오히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 14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 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다.
- 15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내 두 손에 있었다.
- 16 그때에 내가 보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어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녹여 만들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빨리 떠났으므로
- 17 내가 그 두 돌판을 잡아 내 두 손으로 던져서 그것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다.
- 18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사십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 악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노엽게 한 너희 모든 죄 때문이었다.
- 1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크게 분노하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내 말을 들어주셨고,
- 20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던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 21 너희가 지은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내가 가져다가 불에 태워 녹이고 작은 먼지가 될 때까지 잘 갈아서 그것을 산에서 흘러 내리는 개울물에 뿌렸다.
- 22 너희는 다베라와 미스와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 23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 24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 25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 하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밤낮 사십 일 동안을 엎드려 있으면서
- 26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었다.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크신 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 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유업을 멸하지 마시고
- 27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 28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 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 29 그들은 주께서 큰 힘과 편 팔로 이끌어 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유업입니다.”

### 다시 받은 십계명 (출 34:1-10)

- 10 1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그 산으로 내게 올라와라. 그리고 너를 위해 나무 궤도 만들어라.
- 2 내가 깨뜨린 처음 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으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 3 그래서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그것을 손에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 4 총회로 모이는 날에 그 산 위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처음 것과 같은 돌판에 쓰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 5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이 거기에 있다.
- 6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아간을 떠나 모세에게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7 그들이 그곳을 떠나 곳고다에 이르렀고, 다시 곳고다를 떠나 여러 개울이 있는 땅인 윗바다에 이르렀다.
- 8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와 언약계를 맺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서 그분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 9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다. 다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업이시다.)
- 10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사십 일 동안 산에

-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멸하지 않고,
- 11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12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과 네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 13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 14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것이지만
- 15 여호와께서는 오직 네 조상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마라.
- 17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니, 그분은 크고 능력이 많고 두려운 하나님이니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 18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분이시다.
-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 20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 21 그분은 너의 찬양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네 눈으로 본 대로 그분은 너를 위해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니시니,
- 22 너의 조상이 칠십 명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지금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 여호와의 위대하심

- 11 1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 2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 팔과,
- 3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표적과 행적과,
- 4 이집트의 군대와 그의 말들과 병거들에게 행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고 있을 때  
홍해의 물로 그들을 삼키고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일과,

5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  
게 배부신 일과,

6 르우벤의 손자이고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장막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따르는 생  
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 버리게 하신 일  
이다.

7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가 너  
희 눈으로 보았다.”

#### 약속의 땅

8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  
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  
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  
할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  
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서 오래 살 것이다.

10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  
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네 밭  
로 물을 대주었으나,

11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  
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2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  
는 땅이고,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  
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하시는 땅이다.

13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심으로 순종하여 여호와와 너희 하나  
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  
숨을 다하여 섬기면,

14 “그가 때를 따라 너의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을 거두게 될 것이며,

15 또 그가 네 들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16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희를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17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  
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  
히 망할 것이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네 마음과  
혼에 두고, 또 그것을 네 손에 매어 기호를 삼

고 네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19 너는 이 말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  
고

20 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기록하여라.

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셨다  
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아  
들들의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  
처럼 많아질 것이다.

22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하면

23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  
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4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가 될 것이다.

25 너희를 대항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와 너  
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  
이 네가 밟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것이다.

26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27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면 복  
이 될 것이며,

28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  
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  
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  
가 될 것이다.

29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  
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  
를 선포하여라.

30 이 두 산이 요단 건너편 해 지는 쪽, 길갈 맞은  
편, 모래의 상수리나무 곁, 아라바에 살던 가  
나안 사람의 땅에 있지 않느냐?

31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  
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  
을 차지하려고 하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  
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32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장소

12 1 ○“여호와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너희가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  
와 법도는 이러하다.

2 너희는 높은 산이든지 언덕 위든지 푸른 나  
무 아래든지, 너희가 쫓아내야 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든 장소를 완전히 허  
물고

3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기둥 우  
상을 부수고, 그들의 이새라 상을 불에 태우  
며 그들의 새긴 신상을 깨뜨려서 그들의 이  
름을 완전히 없애라.

4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고,  
5 오히려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  
처를 삼으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

6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 제물과 너희 십일조  
와 너희 손의 들어 바치는 제물과 너희 서원  
제물과 너희 자헌 제물과 너희 소나 양의 처  
음 난 것을 그곳에 가져와 드려야 한다.

7 또 너희는 그곳, 곧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 앞  
에서 먹으며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  
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너와 네 가  
족이 함께 즐거워하여라.

8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것처럼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지 마라.

9 너희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  
시는 안식과 유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으  
나,

10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와 너희 하나  
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족  
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  
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11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 제물과 너희 십  
일조와 너희 손의 들어 바치는 제물과 여호와  
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 제물  
을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  
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러  
라.

12 너희는 너희 아들과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  
들과, 너희 성 안에 있거나 너희와 함께 할 몫  
이나 유업이 없는 레위 사람과 함께 여호와  
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13 너는 조심하여 내가 보는 아무 데서나 네 번  
제를 드리지 말고

14 오직 너는 너희 한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네 번제를 드리며, 내가 네  
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여라.

15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모든 성문  
안에서 짐승을 잡아, 부정한 사람이든지 정  
한 사람이든지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고기를 먹을 것이나  
16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라.

17 네가 십일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여 드린 모든  
서원 제물과 네 손의 들어 바친 제물을 네 성  
문 안에서 먹지 말고

18 너는 오직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곳, 곧 여호와와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아들과 딸  
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  
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네 손으로 수  
고한 모든 일로 여호와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  
거워하여라.

19 너는 네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20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실 때에, 네 마음이 고  
기를 먹고 싶어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고기를 먹  
을 수 있나

21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  
고 택하신 곳이 네가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네 성  
문 안에서 먹어라.

22 부정한 사람이든지 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노루와 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을 수 있으  
나

23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지 마라. 피는 곧 생  
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마라.

24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  
려라.

25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네가 이와 같이 여호와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여야 너와 네 후손  
이 잘될 것이다.

26 그러나 네가 바칠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  
물만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

27 네가 고기와 피를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제단  
에 번제로 드릴 때, 제물의 피는 여호와와 네 하  
나님의 제단에 붓고 고기는 네가 먹어라.

28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잘  
듣고 지켜라. 네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보시  
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함으로써 너와 네 후손  
이 영원히 잘될 것이다.”

####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29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  
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전멸하셔서, 네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때  
에

30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네가 그들을  
따라 스스로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라. 또한 ‘이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해 보아야겠다.’ 하면  
31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하는 것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운 것이  
며,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이나 딸들마저도  
자기들의 신들을 위하여 불사르기 때문이다.  
32 ○네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  
지도 마라.”

13 1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네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2 그가 네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  
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  
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  
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아시려고 너희  
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4 너희는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하  
여라.  
5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고 종살이하  
던 집에서 너를 속량하신 여호와와 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말하며,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를 떠나게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 가운데서 악  
을 소멸하여라.  
6 ○네 어머니의 아들인 네 형제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품의 아내나 네 목숨과 같은 네  
친구가 너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 곧 네게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주변에 있는 신들에게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여도,  
8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  
며, 네 눈으로 볼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  
지도 말고, 덮어 주지도 말고,  
9 너는 그를 반드시 죽여라. 그를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네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게 하여라.  
10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는 그가 이  
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와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너를 유  
혹하려 했기 때문이다.  
11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네  
가운데에 악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못할 것  
이다.

12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13 네 가운데 불랑배가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  
민들을 유혹하여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고 하면,  
14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 보아 참으  
로 이런 역겨운 일이 네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 사실로 판명되면,  
15 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반드시 모두 쳐 죽이고, 온 성읍과 그 가  
축을 칼날로 진멸할 것이며,  
16 또 너는 그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거리 한가운데 모아 놓고, 온 성읍과 그 빼앗  
은 물건을 모두 불에 태워, 여호와와 네 하나님  
께 바쳐라.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고, 다  
시는 거기에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17 너는 이 진멸하여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  
를 푸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네게 긍휼  
을 베푸셔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수효를 많게 하실 것이다.  
18 네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와 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와 같  
이 될 것이다.”

#### 금지된 애도 풍습

14 1 ○“너희는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  
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  
거나 너희 눈들 사이의 털을 밀지 마라.  
2 이는 네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  
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3 ○너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4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  
와 양과 염소와  
5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들양과 산  
양과 같이  
6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족발이면서 새김질을  
하는 모든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7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도 이  
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마라. 곧 낙타와 토끼  
와 오소리 같은 짐승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  
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8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  
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도  
만지지 마라.  
9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  
는 것은 이러하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으나,  
10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  
희에게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먹지 마라.  
11 ○정결한 새는 어느 것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12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독수리와 대머리수리  
와 물수리와  
13 솔개와 매와 각종 매 종류와  
14 각종 까마귀 종류와  
15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새매 종류와  
16 부엉이와 파오기와 백조와  
17 꿩리꾼과 흰머리독수리와 가마우지와  
18 학과 각종 황새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19 기면서 나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  
이니, 너희는 먹지 마라.  
20 그러나 정결한 날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21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그런  
것은 네 성읍 안에 있는 나그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아라.  
○너는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삶지 마  
라.”

#### 십일조 규정

22 ○“너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두어 들  
인 모든 소출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라.  
23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 앞, 곧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항상  
여호와와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24 그러나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많  
이 주셨는데도,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  
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네가 있는 곳  
에서 멀고 또한 가기 힘들면,  
25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네 손에  
쥐고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26 그 돈으로 네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 곧 소든  
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술이든지 네 마음에  
드는 것을 사서, 여호와와 네 하나님 앞에서 너  
와 네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여  
라.  
27 너는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은 밭도 없고 너와 나눌 유업도  
없는 사람들이다.  
28 ○너는 매 삼년 끝에 그 해에 거둔 소출의 십  
일조를 모두 모아서 네 성 안에 저장하여 두  
었다가,  
29 너와 나눌 밭과 유업도 없는 레위인을 오게  
하고 네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

부들도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을 주실 것이다.”

#### 면제년 규례 (레 25:1-7)

15 1 ○“매 칠년 끝에는 면제하여라.  
2 면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이  
웃에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면제해 주고, 그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와 면제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3 이방 사람에게는 네가 독촉할 수 있으나, 네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은 네 손으로 면제해 주  
여라.  
4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에게 참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5 네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6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게 복을 주실 것이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  
어 줄지라도 네가 꾸지는 않을 것이고, 네가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네가 다스림  
을 받지 않을 것이다.  
7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어  
느 성문 안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살  
고 있거든, 너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  
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마  
라.  
8 너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넓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 주어  
라.  
9 너는 삼가서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  
도록 조심하여라. ‘면제년인 제 칠년이 가까  
이 왔다.’ 하면서 가난한 네 형제에게 네 마음  
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음  
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호소하여 네가  
죄를 언개 될 것이다.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꾸어 주고, 꾸어 줄 때에  
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 일 때문에 여  
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11 네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네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네 형제에게 네 손을 넓게 펴라.’”

#### 종에 대한 규례 (출 21:1-11)

12 ○“네 친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  
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너  
는 일곱째 해에 그를 내보내어 네게서 자유  
롭게 하여라.



- 13 그를 네게서 내보내어 자유롭게 할 때에 빈 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 14 너는 네 양 떼와 네 타작마당과 네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 15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네게 명령한다.
- 16 그러나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네게 말하기를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
- 17 송곳을 가지고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네 종이 될 것이다. 네 여종도 그렇게 하여라.
- 18 그가 여섯 해 동안 품꾼 샅의 두 배만큼이나 너를 섬겼으니, 네가 그를 내보내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 19 "너는 네 소와 네 양의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라. 네 소의 첫 새끼는 일을 시키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마라.
- 20 해마다 너와 네 가족은 여호와 네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라.
- 21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보지 못하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 22 너는 그것들을 네 성문 안에서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 다 같이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먹을 수 있으나
- 23 그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라."

#### 유월절 (출 12:1-20)

- 16 1 "너는 아빔월을 지키고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라. 이는 아빔월 밤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 2 너는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라.
- 3 너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너는 칠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네 평생 동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 4 칠일 동안은 네가 사는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저녁에 제물

로 드린 고기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라.

5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아무 성읍 안에서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6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유월절 제사를 드려도 네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 곧 해 질 무렵의 초저녁에 드리고.

7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8 너는 육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제칠일에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한 성회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 칠칠절 (출 34:22, 레 23:15-21)

- 9 "너는 칠 주를 세되,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시작하여 칠 주를 세게.
- 10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손의 자원 제물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켜라.
- 11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 12 너는 이집트에서 네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 초막절 (레 23:33-43)

- 13 "너는 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칠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 14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 15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 16 "너의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어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와 얼굴을 뵈지 말고
- 17 각 사람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 공정한 재판

- 18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문 안에서 재판관과 관리를 두어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여라.
- 19 너는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얼굴을 보아주지 말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사

- 람들의 말을 왜곡하니.
- 20 오직 너는 공의만 따라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21 "너는 네가 만든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 22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둥우상을 너를 위해 세우지 마라."

- 17 1 "너는 흠이 있거나 병든 소와 양을 여호와 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
- 2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 3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엎드려 절하고,
- 4 그 일이 네게 보고되어 네가 듣게 되거든, 너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니, 만일 그 일이 확실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 5 너는 그 악한 일을 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서 죽여야 한다.
- 6 그러나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
- 7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그렇게 하여 네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
- 8 "네 성문 안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폭행하는 일이 생겨 네가 판결하기 어렵거든 너는 일어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 9 레위인 제사장과 그대에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사건의 판결을 네게 알려 줄 것이니,
- 10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네게 알려 준 사건의 그 판결대로 시행하고 그들이 네게 가르쳐 준 대로 모두 지켜 행하여라.
- 11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판결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결정대로 시행하여라. 그들이 네게 알려 준 말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 12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따르지 않으면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악을 없애야 한다.
- 13 그러면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 왕에 대한 규정

- 14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 때에, 네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같이 내가 내 위에 왕을 세우겠다.' 하고 말하지는 마라.
- 15 너는 반드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우되, 네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며, 네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네 왕으로 세워서서는 안 된다.
- 16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17 왕은 또 그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서,
- 19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 20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그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랫동안 그의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 제사장의 몫

- 18 1 "레위인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몫이나 유업이 없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와 화제물과 그분의 유업을 먹을 것이다.
- 2 그들이 자기 형제를 가운데 유업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업이시기 때문이다.
- 3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의 몫은 이러하니, 백성은 제사장에게 앞다리 하나와 두 볼과 위를 주어야 하며,
- 4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처음 것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 5 이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와 그의 자손이 평생 동안 여호와와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6 "레위인이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살던 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오게 되면,

7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의 모든 레위인 형제와 똑같이 그곳에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8 제사장들이 받는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판 돈도 가질 수 있다.”

#### 이교 풍습의 역겨운 행위

- 9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라.  
10 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주술하는 자나 술객이나  
11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자나 영매나 혼을 부르는 자가 있어서 안 된다.  
12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데, 이러한 역겨운 일 때문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신다.  
13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라.”  
14 “네가 쫓아낼 이런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 15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네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16 이것은 호렘 산에서 총회로 모이던 날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 네가 청했던 일로, ‘다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오, 이 큰 불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대로이다.  
17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한 것이 옳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러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19 내 이름으로 그가 말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 어떤 선지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제멋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어야 한다.’  
21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22 그 선지자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 도피성 (민 35:9-28, 수 20:1-9)

- 19 1 ○“네게 주시는 땅의 민족들을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성읍과 집에서 살 때에,  
2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성읍 셋을 너를 위해 따로 구별하고,  
3 너는 너를 위해 길을 내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네 땅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여라.  
4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데, 곧 어떤 사람이 전에 그에게 원한을 품은 일이 없이 뜻하지 않게 그의 이웃을 죽이는 경우이니,  
5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려고 숲 속으로 들어가 그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친구를 쳐서 죽였을 경우, 누구든지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6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에 대해 보복하는 자가 그 마음에 화가 일어나서 살인자의 뒤를 추적할 때에, 그 거리가 멀어서 붙잡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7 내가 너를 위하여 성읍 셋을 구별하라고 네게 명령한다.  
8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시고, 네 조상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네게 주실 때에,  
9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을 갈 때에, 너는 이 셋에다가 성읍 셋을 더 하여야 한다.  
10 그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네 땅 가운데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피 흘리는 죄가 네게 있지 않을 것이다.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일어나 그를 쳐서 죽이고,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면,  
12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붙잡아다가 피에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라.  
13 네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 흘림이 없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될 것이다.”

#### 율기지 말아야 할 이웃의 경계표

- 14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 곧 네가 받은 네 유업의 땅에서 조상들이 청해 놓은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 증인에 대한 규정

- 15 ○“사람이 법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16 만일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그가 죄가 있다고 증언을 하면,  
17 소송하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아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하고,  
18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거짓 증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것으로 판명하면,  
19 너는 그 증인이 형제에게 하려고 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 네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제거하여라.  
20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네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것이다.  
21 네 눈으로 불쌍히 보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 전쟁에 관한 규정

- 20 1 ○“적과 싸우려고 나가서 너보다 많은 말과 병자와 병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2 너희가 전쟁터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 백성에게 말하되,  
3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적들과 싸우러 나간다. 너희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4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5 사령관들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새 짐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가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6 포도를 심어 놓고 그것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가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7 한 여자와 약혼하고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가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 8 사령관들은 병사들에게 또 말하여라. ‘두려워해서 마음에 겁이 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라.’  
9 사령관들은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끝마치고, 병사들을 이끌 군 지휘관들을 임명하여라.  
10 네가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할 때에,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제의하여라.  
11 만일 그 성읍 사람이 너와 화평하겠다고 회답하고 너에게 성문을 열어 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를 위해 노역을 하고 너를 섬기게 하며,  
12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절하고 너와 싸우러 나오거든,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하되  
13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날로 쳐 죽이고,  
14 오직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탈취물은 전리품으로 네가 가지고, 네 대적의 탈취물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이니, 먹어라.  
15 너는 가까이 있는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 곧 네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모든 성읍들에게 이와 같이 하되  
16 다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라도 살려 두지 말 것이니,  
17 곧 헛 사람들과 이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여라.  
18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하여라.  
19 ○네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여 그것을 쳐서 공격할 때에 거기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지 마라. 그것은 네가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나무를 베지 마라. 발의 나무가 사람이냐? 들판의 나무가 나무가 포위하려는 사람이냐?  
20 다만 먹을 수 없는 나무는 네가 알고 있으니, 그 나무는 네가 찍어 베어서 너와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그 성읍을 대항하는 기구로 사용하여라.”

####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

- 21 1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누가 쳐서 죽였



- 는지 알 수 없는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 2 네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 주위에 있는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측량하고,
- 3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일한 적이 없고 땅에 메어 보지 않은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 4 물이 항상 흐르며 갈지도 않고 식물을 심지도 않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 그곳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켜어라.
- 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에 갈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을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논쟁과 분쟁이 그들의 입에 달려 있다.
- 6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 7 말하기를 '저희들의 손은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도 못하였습시다.'
- 8 여호와시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지 마소서.' 하면 그 피로 그들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 9 너는 이렇게 하여 무죄한 피를 네 가운데서 없애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게 행하여라."
- 포로 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규정**
- 10 "네가 너의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적군을 네 손에 넘겨주셔서 네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에,
- 11 그 포로들 가운데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아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아도 된다.
- 12 너는 그 여자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 13 그 여자가 입고 있는 포로의 옷을 벗게 하고, 네 집에 살면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한 후에 네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 그 여자는 네 아내가 될 것이다.
- 14 그 후에 그 여자가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 여자를 팔지 마라. 네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 여자를 돈 받고 팔아서도 안 되고 종처럼 취급해서도 안 된다."
- 만아들 상속권**
- 15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다 같이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때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만아들이면,

- 16 남편이 자기 재산을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 놓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만아들로 삼을 수 없으며,
- 17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반드시 만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기력의 시작이므로, 만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 불효자식에 관한 규정**
- 18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 19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 20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
- 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네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 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 기타 규정

- 22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러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 때에는,
- 23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날 장사를 지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22 1 "너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마라. 네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 2 네 형제가 네 가까이 있지 않거나 네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네 집에 끌고 와서 네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 3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네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네가 찾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숨기지 마라.
-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마라. 반드시 네가 형제를 도와 일으켜 주어라.
- 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역겨워하신다.
- 6 네가 길을 가다가 네 앞의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나 알들을 보

- 거나 혹은 어미 새가 새끼들이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를 품은 그 어미 새를 잡지 마라.
- 7 새끼 새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라. 그래야만 네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 8 너는 집을 새로 지을 때, 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9 너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 10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고,
- 11 양털과 베실로 함께 짠 옷을 입지 마라.
- 12 네가 입은 겹옷 자락 네 귀퉁이에 너를 위해 술을 만들어라."

### 순결에 관한 법

- 13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를 미워하여
- 14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동침하였는데 이 여자에게서 처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 15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순처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 성읍의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 16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제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 사람이 제 딸을 미워하고'
- 17 보십시오, 비방하여 말하기를 제 딸이 순처녀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딸이 순처녀라는 증거입니다.' 하고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옷을 펴 보여야 한다.
- 18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징벌하고,
- 19 이스라엘 순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으므로 그 남자에게 은 백 세겔의 벌금을 물려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하고,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 20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그 처녀의 처녀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 21 그 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네 가운데서 악을 없애 버려라.
- 22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두 사람 다

- 죽여서,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애 버려라.
- 23 어떤 사람이 성 안에서 다른 남자와 약혼한 순처녀를 만나 그 여자와 동침했다면,
- 24 두 사람을 모두 그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너는 네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 버려라.
- 25 어떤 사람이 들에서 약혼한 처녀를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여자를 강간한 그 남자만 죽여라.
- 26 그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그 이웃을 해하려고 일어나 그 목숨을 실해한 것과 같으니.
-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그 여자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 28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순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잡아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 29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으므로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 30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며,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 23 1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 2 사생아도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의 십 대까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 3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은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 4 그들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를 사람 브를의 아들 발람에게 되물을 주어 너를 저주하게 하였으니,
- 5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 6 너는 너의 평생 동안 영원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마라.
- 7 에돔 사람은 네 형제이니, 미워하지 말고, 이집트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의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이다.

8 그들의 삶 대 자손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 올 수 있다.”

#### 진을 성결케 하는 법

- 9 ○“네가 진을 치고 네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조심하여라.  
10 ○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정하여 부정해졌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하며 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11 날이 저물 때에 그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서, 해가 진 다음에야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12 ○너는 진 밖에 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나가되,  
13 네 연장 가운데 삼을 가지고 나가, 네가 밖에서 앉을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서서 너의 배설물을 뒹어라.  
14 이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네 적군을 네게 남기시려고 네 진 안을 두루 다니시므로 네 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네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고 네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여라.”

#### 기타 규정

- 15 ○“어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해 오거든, 너는 그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16 그가 너의 성읍 가운데서 원하는 곳을 하나 택하게 하여, 너와 함께 네 가운데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17 ○이스라엘 딸 가운데에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18 창녀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 제물로도 여호와 네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 둘은 모두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19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 돈의 이자든지 곡식의 이자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지 마라.  
20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21 ○여호와 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미루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실 것이므로, 미루는 것은 네게 죄가 된다.  
22 서원하지 않은 것은 네게 죄가 되지 않으나  
23 네 입으로 서원한 것은 지켜라.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 네 입으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시행해야 한다.  
24 ○네가 네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는 있으나, 네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25 네가 네 이웃 사람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네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으나, 네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 이혼과 재혼

- 24 1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게 된, 그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2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3 이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그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여호와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여라.”

#### 기타 규정

- 5 ○“한 남자가 새로 아내를 얻으면, 군대에 가거나 어떤 일도 말지 말고 그는 일 년 동안 자유롭게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6 ○사람이 빗돌의 두 쪽 모두나 혹은 그 위쪽 만이라도 저당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저당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괴하여 그를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 버린 것이 발견되거나, 그 유괴한 사람을 죽여, 네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 버려라.  
8 ○너는 문둥병을 주의하여 레위인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 행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여라.  
9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10 ○너는 네 이웃에게 무엇이든 빌려 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11 밖에 서서 네게서 빌리는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여라.  
12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의 담보물을 잡아 둔 채 잡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며,  
13 해가 질 때에 너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자기의 옷

을 덮고 잘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니, 그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네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 14 ○네 형제 가운데나 네 땅 네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15 너는 그의 품삯을 당일 해 지기 전에 주어야 할 것이니, 그가 가난하여 그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너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죄가 네게 돌아갈 것이다.  
16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7 ○너는 나그네나 고아의 재판을 굽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잡지 마라.  
18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네게 명령한다.  
19 ○네가 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20 너는 네 올리브 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21 너는 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 후에 남은 것을 다시 줍지 마라. 그것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22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네게 명령한다.”

- 25 1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악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서는 유죄를 선고하여라.  
2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없들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3 사십 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많이 매를 때려 네 형제가 네 눈에 천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4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 5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의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

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6 그 여자가 낳은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있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7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잇기를 거절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8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그때에 그가 서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9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한다.  
10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신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 기타 규정

- 11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음경을 잡거든,  
12 너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 버리고, 네 눈으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13 ○너는 네 주머니에 크고 작은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지 마라.  
14 너는 네 집에 큰 것과 작은 것, 곧 서로 다른 에바를 가지고 있지 마라.  
15 너는 정확하고 바른 저울추를 가져야 하며, 정확하고 바른 에바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  
16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곧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 여호와 네 하나님께 역겨운 사람이다.”

#### 아말렉 사람에 대한 명령

- 17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네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18 네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네 뒤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 그러므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네 대적들을 물리치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 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



하여라.”

### 첫 열매와 십일조

- 26** 1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네가 살 때에,  
2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3 그때에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오게 되었음을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오늘 알립니다.’ 하면  
4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  
5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말하여라.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살면서,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억압을 보셨으며,  
8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9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놓고,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라.  
11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으로 레위인과 네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여라.  
12 십일조를 드리는 해인 첫 삼년에 너는 네 소산의 모든 십일조 내는 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네가 사는 네 성문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13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여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내가 집에서 성물을 내어다가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 주님의 명령들을 어기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14 나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함으로 그것을 떼어 내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 15 주님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 16 ○“오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이것들을 지켜 행하여라.  
17 오늘 내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네가 그의 길을 걸으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하였고,  
18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오늘 선포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19 여호와께서 너를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네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 돌 위에 기록한 율법

- 27** 1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2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를 위해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3 너는 건너가는 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여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5 또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만들되 철 연장을 대지 말며,  
6 자연석들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7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라.’

- 9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10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라.’”

### 에발 산에서 선포한 저주

- 11 ○그 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12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스 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이며  
13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이다.  
14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여라.  
15 ○‘대장장이의 손으로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여호와께 혐오스러우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응답하여라.  
16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17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18 ○‘누런 사람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19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20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21 ○‘어떤 짐승이든 그것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22 ○‘자매,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23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24 ○‘그 이웃을 은밀히 쳐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 순종에 대한 복

- 28** 1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2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3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 네 태의 열매들과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5 네 광주리와 네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 네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7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네 원수를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8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네게 복 주실 것이다.  
9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듣고 그분의 길로 네가 걸으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10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겠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태의 열매에서 난 자식들과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로 그분께서 너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물 창고, 곧 하늘을 여시고 네 땅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13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14 너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 불순종에 대한 저주

15 ○“내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다가와 너를 덮칠 것이니.

16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17 네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8 네 태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 내가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0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를 망하게 하되, 속히 파멸할 때까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21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를 멸하실 그때까지 네게 전염병이 달라붙게 하실 것이며,

22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극심한 폭염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실 것이니, 네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를 뒤따를 것이다.

23 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낯이 되고, 네 아래에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이다.

24 여호와께서 네 땅에 비 대신 먼지와 티끌을 내리실 것이니, 네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25 ○여호와께서 네 대적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니, 네가 한 길로 그를 치러 나갔다가 그 길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그 땅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26 네 시체는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7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움과 가려움으로 너를 치실 것이니, 네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며,

28 여호와께서 또 너를 쳐서,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29 내가 눈먼 사람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네 길에서 네가 평탄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착취를 당하겠지만 너를 구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며,

30 네가 한 여자와 약혼을 하더라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누울 것이고, 네가 집을 건축하더라도 네가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가꾸더라도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31 네 소를 내가 보는 앞에서 잡아도 네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고, 네 나귀가 네 앞에서 뺄아도 그것이 네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네 양 떼가 네 대적에게 넘겨져도 너를 구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32 네 아들과 딸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네가 바라보며 그들을 종일 기다릴 것이니, 네 손은 힘이 없게 될 것이다.

33 네 땅의 열매와 네 소고로 얻은 모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고, 너는 항상 착취와 학대만을 받을 것이니,

34 너는 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미치게 될 것이다.

35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악성 종기로 치시어 그것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36 ○여호와께서 네가 네 위에 세울 너의 왕을 너와 함께 끌고 가시되,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며, 너는 거기에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길 것이다.

37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그곳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네가 두려움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38 네가 많은 씨앗을 밭에 뿌리더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 버려 네가 적게 거둘 것이며,

39 네가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더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어 버려 네가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포도를 따지도 못할 것이며,

40 네 모든 지역 안에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도 네 올리브 열매가 떨어져 네가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고,

41 네가 아들과 딸들을 낳더라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너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며,

42 네 모든 나무와 네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43 네 가운데 있는 겨루민은 네 위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너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44 그가 네게 꾸어 주더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할 것이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45 ○이 모든 저주들이 네게 내리고 그것들이 너를 추격하고 너를 따라잡아, 결국은 네가 망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네게 명하신 그

분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46 이 모든 저주들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놀라움이 될 것이다.

47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48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보내신 네 원수들을 내가 섬기게 될 것이며 그는 네 목에 쇠 굴레를 씌우고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49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려고 땅 끝 먼 곳에서 한 민족, 곧 네가 그 언어를 들어 보지도 못한 민족을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데려올 것이니,

50 그들은 노인을 존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용모가 사나운 민족이다.

51 그가 네 가족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네가 망할 때까지 먹을 것이며,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네 소의 새끼나 네 양의 새끼를 네가 멸망할 때까지 네게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52 ○그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여 결국은 네가 믿었던 높고 튼튼한 네 성벽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온 땅의 모든 성문에서 그가 너를 포위할 것이다.

53 네 원수가 너를 포위하고 큰 곤경에 몰아넣어,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태의 열매, 곧 네 아들과 네 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54 네 가운데서 아무리 부드럽고 고상한 사람이 라도 그가 그의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식들을 향해 살기를 띠고

55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네 원수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고 곤경에 몰아넣어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56 네 가운데 부드럽고 고상한 여자, 곧 고상하고 우아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 않은 여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여자의 눈이 살기를 떨 것 이니,

57 네 원수가 네 성문들 안에서 너를 포위하고 곤경에 몰아넣을 때 그 여자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남 몰래 먹을 것이다.

58 ○네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59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재앙들과 네 자손에 대한 재앙들을 매우 심하게 하셔서, 그 재앙들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60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그것들이 네게 붙어 있게 하실 것이며,

61 여호와께서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망할 때까지 네게 내리실 것이므로,

62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더라도 적은 수만 남을 것이니,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음성 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63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번성케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너희가 뿔뿔히 될 것이다.

64 ○여호와께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를 흠으셔서,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게 될 것이고,

65 네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혼미한 정신을 주실 것이다.

66 네 목숨이 염려되어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67 네가 느끼게 될 마음의 공포와 네 눈으로 보게 될 광경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저녁이었더라면 좋을 것을’ 하며,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좋을 것을’ 할 것이다.

68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태우고 ‘네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한다.’ 하셨던 그 길을 통해 이집트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네 원수들에게 너희 자신을 납종이나 여중으로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

29 1 ○이것은 여호와께서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이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다.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니,

3 곧 너희 눈으로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이다.



- 4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 5 내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걸친 옷이 낡지 않았고 네 발의 신이 닳지 않았으며
- 6 내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한 것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 7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고,
- 8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 10 ○오늘 너희 모두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 곧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사령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 11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내게 장작을 패어 주는 자로부터 내게 물을 길어다 주는 자에 이르기까지 네 진 가운데 있는 네 거류민이 서 있는 것은
- 12 내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 13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니.
- 14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 15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자와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 16 ○참으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너희가 알고,
- 17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다.
- 18 오늘 너희 중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족이든지 지파든지 마음이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 19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가 비

- 록 내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여 젖은 것을 마른 것과 함께 파멸시켜도 내게 평안이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 20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호와와 진노와 질투를 얻기처럼 그 사람에게 일으킬 것이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실 것이며,
- 21 여호와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 22 너희의 뒤를 이어 일어나는 너희 자손들의 다음 세대와 먼 땅에서 온 외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 23 '그 온 땅이 유향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노여움과 진노로 뒤집어 엮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것과 같다.' 고 말하며
- 24 모든 민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는가? 이같이 큰 노여움이 타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말할 것이다.
- 25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실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 26 가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였으므로
- 27 여호와와 노여움이 이 땅에 타오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불러들이고
- 28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진노와 큰 격분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 오늘날과 같이 다른 땅에 던져 버리셨다.' 고 할 것이다.
- 29 ○은밀한 것들은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드러난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들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 복 받는 길

- 30 1 ○내가 네 앞에 둔 복과 저주의 이 모든 일들이 네게 이루어져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 마음에 생기가 나거든,
- 2 너와 네 자손은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음

- 성에 복종하면
- 3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흠으셨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니,
- 4 너의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고 거기에서 너를 데려오실 것이다.
- 5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네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너를 네 조상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 6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네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 7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네 원수들과 너를 박해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 8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와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라.
- 9 그러면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의 모든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족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에 복을 주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같이 너희를 기뻐하여서 복을 주실 것이다.
- 10 내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 11 ○참으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 12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며,
- 13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 14 참으로 그 말씀이 네게 아주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 15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죽음과 재앙을 네 앞에 두었으니,
- 16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여호와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 계명들과 규례들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 17 그러나 네가 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빠져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 1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네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다.
- 19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 20 여호와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하여라.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며 네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네가 살 것이다."

###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 31 1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였다.
- 2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백이십 세나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내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서 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 3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네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 4 여호와께서 자신이 말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하신 것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 5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 6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데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8 여호와께서 네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

지도 마라.”

### 일곱 해마다 백성에게 낭독한 율법

- 9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와 언약  
궤를 맺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10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네 칠년의 마지막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뵈  
려고 그분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올 때에,  
네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12 백성, 곧 남녀와 어린아이와 네 성문 안에 있  
는 거류민을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13 또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듣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경외하기  
를 배우게 하여라.”

###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여호와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  
라,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  
아를 불러다가 회막으로 나아와라. 내가 그에  
게 명령을 내리겠다.” 하시자 모세와 여호수  
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15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회막에 나타나  
시니 구름기둥은 회막 문 위에서 있었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  
은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음행을 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내 언약을 깨뜨  
릴 것이다.  
17 그 날에 그들을 향한 나의 진노가 타오를 것  
이며,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  
게서 숨길 것이니,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많  
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  
날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  
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할 것이다.  
18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행하는 그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그 날에 반드시 내 얼  
굴을 숨길 것이다.  
19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위  
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20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  
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오게 한  
뒤에 그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다  
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섬기고 나를

- 멸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21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거로 나타날 것이니, 이  
는 이 노래가 그들 자손의 입에서 잊혀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 내가 맹세  
한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전이지만,  
나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  
고 있다.”  
22 그러므로 그 날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23 ○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  
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다.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끝까지 기  
록하기를 마쳤을 때,  
25 여호와와 언약궤를 맺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  
령하여 말씀하였다.  
26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여호와 너희 하  
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  
거가 되게 하여라.  
27 내가 너의 반역과 너의 곧은 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아라, 오늘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데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  
였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하겠  
느냐?  
28 너희 각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사령관  
들을 내 앞에 모이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들  
을 그들의 귀에 말하여, 하늘과 땅에 그들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29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  
가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  
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노엽게 하  
여, 훗날에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 모세의 노래

- 30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끝까지 들려주었다.

32

-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할 것이다.  
2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의 가랑비 같고  
채소 위의 소나기 같다.  
3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를 때에,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 4 그분은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그분의 모든 길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5 그들은 그분께 악을 행하니,  
흥이 있어 그분의 자녀가 아니며,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이다.  
6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7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햇수를  
생각해 보아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 보아라.  
그가 네게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들이 네게 말해 줄 것이다.  
8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유업을 나눠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9 여호와와 맺은 그분의 백성이니,  
아름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10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 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11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업는 것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은 없었다.  
13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의 소산을 먹게 하고,  
바위에서 꿀을,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 14 소젖의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비산에서 기르는 숫양들과  
염소들과 잘 익은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15 그러나 예수론은  
살이 찌면서 걸어서 버렸다.  
네가 살이 찌 통통해지고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엾게 여겼다.  
16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역겨운 것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다.  
17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근래에 생겨난 새 신들,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이다.  
18 너는 너를 낳은 반석에게  
무관심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19 여호와께서 보시고 무시하셨으니,  
그 아들과 딸들이  
격노하게 한 까닭이다.  
20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비뚤어진 세대이고,  
상상치 못한 자식들이다.  
21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자신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22 내 진노로 불이 붙어서,  
저 아래 스올까지 타들어 가며  
땅과 그 소산을 삼켜 버리고  
산들의 기초도 불붙게 할 것이다.  
23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쏟고,  
내 화살들을 그들에게



- 모두 쓸 것이다.
- 24 그들이 굶주려 파리하게 되고  
불 같은 열기와 혹독한 파멸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  
내가 또한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과  
터꿀 속을 기어 다니는 것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 25 바깥에서는 칼로,  
방 안에서는 공포로,  
총각과 처녀와  
젖먹이와 백발 노인까지도  
죽을 것이다.
- 26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27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이 오해하고,  
'우리의 손이 높이 들렸으니,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 28 그들은 지각이 없는 민족이니,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다.
- 29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자신들의 마지막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 31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도 판단하고 있다.
- 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리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라서  
포도송이들이 그들에게 쓰다.
- 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 34 그것이 내게 쌓여 있으며,  
내 공간 속에 봉해져 있지 않은가?
- 35 복수와 보응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들의 발이 실족할 때가 있다.

- 재난의 날이 가까우며,  
그들에게 당할 일들이 빠른 것이다.
- 3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고,  
자기 종들 때문에 회회하실 것이니,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간헐 사람도 놓인 사람도  
하나도 없음을  
그분께서 보았기 때문이다.
- 37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피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는가?'
- 38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의 기름을 먹은 것으로,  
그들의 부어 드린 제사의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의 숨을 곳이 되게 하여라.
- 39 이제 너희는 내가 곧 그인 줄 알아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 40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나는 영원히 산다고 말한다.
- 41 내가 번쩍이는 나의 갑옷 갈고  
내 손으로 심판을 잡으면,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 42 내가 내 화살들을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할 것이니,  
이는 곧 피살자와 포로 된 자의 피와  
적장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 43 모든 나라들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값으며,  
그 대적들에게는 복수하시지만,  
자기 땅과 백성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 모세의 마지막 권고**
- 44 ○모세와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이 노래  
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다.
- 45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  
기를 마치고
- 46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  
언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  
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  
켜 행하게 하여라.
- 47 참으로 율법은 너희에게 헛것이 아니다. 그  
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 때문에 너희

- 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의 날들이 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
- 48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49 "너는 여기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  
림 산에 올라 느보 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  
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  
보아라.
- 50 네 형 이룬이 호르 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  
게 합류한 것같이, 너도 내가 올라가는 그 산  
에서 죽어 네 백성에게 합류할 것이다.
- 51 이는 너희가 친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죄를 지었으며,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52 너는 앞에 있는 그 땅을 보기만 할 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는 못할 것이다."
- 이스라엘을 축복한 모세**
- 33 1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  
라엘 자손을 축복한 복이 이러하다.
- 2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비란 산에서 비추시며,  
수만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 3 참으로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들이 주님의 발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들을 받는다.
- 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것은 곧 야곱 총회의 소유이다.
- 5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인 가운데  
그분께서는 여수론의 왕이셨다.
- 6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아,  
그들의 수가 적게 되지 않기를  
바라다."
- 7 다음은 유다에게 준 말씀이다. 그가 말하였  
다.  
"여호와시여,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 인도해 주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대적들로부터  
그를 도와주소서."
- 8 레위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주님의 돌림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그와 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습니다.
- 9 그가 자기의 부모에게  
'제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돌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 10 그들이 주님의 법도들을 야곱에게,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주님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 11 여호와시여,  
그에게 복을 베풀어  
부요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받으소서.  
그를 맞서 일어나는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어,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 12 베냐민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와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분께서 온종일  
그를 감싸 보호하실 것이며,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살 것이다."
- 13 요셉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그의 땅이 여호와와 복을  
받을 것이다.  
곧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밑에 저장되어 있는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 14 옛 산들의 특상품과  
영원한 작은 산들의 보물과
- 15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다.  
가시덤불 안에 계시는 분의 호의로,

17 복이 요셉의 머리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그의 위엄은 수소의 첫 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으니,  
그 뿔들로 백성들을 땅 끝까지  
모두 밀어 버린다.  
그들 에브라임은 만만하요,  
그들 므낫세는 천천이다.”

18 스불론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스불론아,  
네가 밖으로 진출함을 기뻐하여라.  
잇사갈아,  
네가 네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여라.  
19 그들이 백성들을 산으로 부르며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바다의 풍요와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20 갓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분을  
송축하여라.  
갓은 암사자처럼 누워 있다가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21 그가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몫으로  
배정될 것이다.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와 공의를 행하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분의 법도들을  
행하였다.”

22 단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23 납달리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은총으로 만족하고  
여호와와 의로 가득 찬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여라.”

24 아셀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아셀은 자녀들 가운데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는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은 기름에 잠긴다.  
25 철과 못이 네 발이 될 것이며,  
네 힘도 네가 사는 날들처럼

될 것이다.”

26 “여수론아,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27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28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29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네 도움의 방패이며,  
네 영광의 칼이시니,  
네 원수들이 네게 복종할 것이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 모세의 죽음

34 1 오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  
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에게 길  
르앗에서 단까지 온 땅을 보여 주시고,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와 서해  
에 이르는 유다 온 땅과,  
3 네게브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 주셨다.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  
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그 땅을  
보게는 하였으나, 네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  
5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 벳브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  
고,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7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백이십 세였으  
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도하는 기  
간이 찰 때까지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다.  
9 오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  
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  
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듣고 행하였다.  
10 그 뒤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마주하여 그를 아셨으며,  
11 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  
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모든 표적과 놀라  
운 일들을 하게 하셨으며,  
12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든 큰 권  
능과 큰 위엄을 행하였다.



# 여 호 수 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와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4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헛 족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5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네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6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막을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9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단 건널 준비를 명령한 여호수아

10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11 “너희는 진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12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13 “너희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14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족들은 모세가 너

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15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17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18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 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리고 정탐꾼과 라합

2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밈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3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4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 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라드립니다.”

5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 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6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 놓은 뒤였다.

7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 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8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9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

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10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11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13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14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이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5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 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16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17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어 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19 누구든지 너의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20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21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22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되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든 길을 두루 찾아 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23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24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3 1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싯밈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2 사흘이 지난 후 관원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3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4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이천 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6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8 이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로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10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난한 사람과 헛 사람과 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 내실 것이다.”

11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 12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아라.
- 13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14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 15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독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 16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을 이듬에 물무더기가 생기고, 이리바 바다, 곧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 보고 건너갔다.
- 17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 길갈에 열두 돌을 세운 이스라엘

- 4 1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 2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라.
- 3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 4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 5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메라.
- 6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 7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라.”
-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열두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있었다.
-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 11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 13 곧 무장한 군사 사만 명과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 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 1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 16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시므로,
-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 18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독 위로 흘러 넘쳤다.
- 19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 20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까운 돌 열두 개를 길갈에 세우고,
- 2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물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 22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 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으니,
- 23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으므로,
- 24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여라.”

- 5 1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한 여호수아

- 2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식들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 3 여호수아가 부식들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 4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네.
- 5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6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뜻, 곧 젃과 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 견제하셨다.
- 7 그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 8 ○백성 모두가 할례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 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러 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 10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 달 십사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 11 유월절 다음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 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 12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 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 여호수아를 찾아온 여호와와 군대장관
- 13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 14 그가 말했다. “아니나. 나는 지금 여호와와 군 사령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 15 여호와와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 6 1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 3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육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 4 제사장 일곱은 궤 앞에서 숫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 칠일에 너희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불어라.
- 5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와 궤 앞에서 숫양 뿔 나팔 일곱 개를 들어라.” 하고
- 7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와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였다.
-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 앞에서 숫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 9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 가고, 후진은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 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 11 여호와와 궤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 12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궤를 메었다.
- 13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와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숫양 뿔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진은 여호와와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 14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육일 동안 그렇게



- 하였다.
- 15 ○제 칠일,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았는데,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 16 일곱 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 17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 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 18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 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인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19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놋 그릇과 철 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와 창고에 들이도록 하여라.”
- 20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 21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 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 23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 24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놋 그릇과 철 그릇은 여호와와 그의 집 창고에 두었다.
- 25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 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 26 ○그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만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2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정복 실패

- 7 1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삼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엘 동쪽 벳아엘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 3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행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 4 백성 가운데서 삼천 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 5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서른여섯 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 6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그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녁때까지 있다가,
- 7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 8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9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 11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 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 13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 14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뽐내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뽐내는 족속은 그 가 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뽐내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와라.
- 15 진멸할 것 때문에 뽐낸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것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 16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뽐냈고,
- 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뽐냈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삼디가 뽐냈다.
- 18 삼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뽐냈다.
-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 21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냇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 22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 23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 2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 25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

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26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 8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 2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족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 3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들 준비하고 있이라.
- 5 나와 내게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에 가까이 갈 것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 6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 내면,
- 7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 8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 9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곧 베벨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 10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 11 그에게 있던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 그 성 앞에 가까이 가서 아이 뒤편에 진을 쳤는데, 그들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 하나가 있었다.
- 12 여호수아가 오천 명가량을 택하여 성 서쪽, 곧 베벨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 13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 날 밤

- 꿀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 14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아왔으나,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하니,
- 16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추격하려고 성에서 멀리 나아왔을 때,
- 17 아이와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성문을 열어 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 1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이를 향하여 네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겨 줄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 19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 20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까지 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 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 22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을 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이편에, 얼마는 저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 23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어 왔다.
- 24 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들판에서 다 죽였고, 그들이 칼 날에 쓰러져 전멸하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니,
- 25 그 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만 이천 명이었다.
- 26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 27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28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오늘날까지 영원한 폐허 더미가 되게 하였으며,
- 29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 에발 산에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

- 30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 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 31 그것은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 32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 33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와 언약제를 맺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 보며 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스 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다.
- 34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 35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사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 9 1 ○요단 서쪽 산지와 셰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안 온 지역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 2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 3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 4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낚은 자루와 낚고 찢어 저 께뻬 포도주 부대를 싣고,
- 5 그들의 발에는 낚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곁에는 낚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 6 길가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 7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 라고 하였으나,
-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 9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 10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 11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 12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파듯했었으니, 보십시오, 이제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 13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 14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 15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 16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 17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타여아림이었다.
- 18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 19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 20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 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 21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가 되었다.

-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라고 하였느냐?”
- 23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로부터 종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 25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 26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 27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 남방 도시들을 정복한 이스라엘

- 10 1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예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 2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 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렘과 야르뭇 왕 비람과 리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비엘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 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 5 아모리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리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니다.”라

가) 히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전멸시키는 것’



고 하였다.

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네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어닥치니,

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벧호르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러까지 그들을 죽였다.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르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러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1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인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말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노라.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아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들어 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1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16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었다.

17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그 다섯 왕이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니,

18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라.”

19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적하여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니,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살육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

들로 들어갔다.

21 모든 백성이 막게다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돌아왔고, 자기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2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어라.” 하니,

23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이르므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그에게로 왔다.

24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2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26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다섯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27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 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28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갈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 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립나로 나아가, 립나와 싸웠는데,

30 여호와께서 립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갈날로 립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 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립나 왕에게도 하였다.

31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립나에서 라기스로 진격하여, 라기스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32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립나에 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갈날로 쳤다.

33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3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워,

35 그 날에 에글론을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안

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갈날로 쳤으며, 라기사에 한 것과 같이 그 날에 그들을 진멸하였다.

36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37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과 그 속한 모든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에글론에 한 것과 같이 갈날로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 두지 않았으니,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다.

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싸워,

39 드빌과 그 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갈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 두지 않았으니, 그가 헤브론에 한 것과 같이 그리고 립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하였다.

40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브와 쉘렐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 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호홉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41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42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 북방 도시들을 정복한 이스라엘

11 1 ○하술 왕 아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 왕 오밧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 북쪽 산지와 긴네르 남쪽 아라바와 쉘렐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4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고 병자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5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어닥쳐 그들을 덮쳤고,

8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

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뫼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9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10 ○그때 여호수아가 돌이아 하술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술이 이 모든 왕국의 으뜸이었다.

11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갈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홉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술을 불로 태워 버렸다.

12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갈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와 중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13 하술만을 불살랐고, 이스라엘이 언덕들 위에서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14 이 성읍들을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차지했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갈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홉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으니,

15 여호와께서 그 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6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점령했으나, 산지와 모든 네게브와 고센의 모든 땅과 쉘렐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이며,

17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비알갓까지이다. 그가 그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18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19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20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21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을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22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 있었다.

23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 모세가 정복한 땅들

12 1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는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2 시혼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는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압록 강까지이며,

3 아라바에서 긴네롯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동쪽과 아라바 바다, 곧 사해의 동쪽 벧여시뭇길목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4 욱은 르바 사람의 남은 자로서, 자기 지역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았던 바산 왕이었다.

5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기와 바산 온 지역과, 그술 사람과 마이갓 사람의 지역과 길르앗 절반과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스렸다.

6 여호와와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와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인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 이르기까지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니,

8 산지와 쉘렐라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브, 곧 헛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다.)

9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엘 곁의 아이 왕이며,

10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는 헤브론 왕이다.

11 하나는 아르뭇 왕이고, 하나는 라기스 왕이며,

12 하나는 에글론 왕이고, 하나는 게셀 왕이다.

13 하나는 드빌 왕이고, 하나는 게멜 왕이며,

14 하나는 호르마 왕이고, 하나는 이랏 왕이다.

15 하나는 립나 왕이고, 하나는 아들람 왕이며,

16 하나는 막게다 왕이고, 하나는 베멜 왕이다.

17 하나는 답부아 왕이고, 하나는 헤벨 왕이며,

18 하나는 아벡 왕이고, 하나는 릿사론 왕이다.

19 하나는 마돈 왕이고, 하나는 하솔 왕이며,

20 하나는 시르온 므론 왕이고, 하나는 악삽 왕이다.

21 하나는 다이나 왕이고, 하나는 므깃도 왕이며,

22 하나는 게데스 왕이고, 하나는 길멜의 욱느암 왕이다.

23 하나는 돌 언덕의 돌 왕이고,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며,

24 하나는 디르사 왕이니, 모두 삼십일 명의 왕이었다.

#### 땅들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13 1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2 남아 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3 곧 이집트 맞은편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다섯 군주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사람의 지역과 아위 사람의 지역과,

4 또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므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벡까지와,

5 그발 사람의 땅과 해 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이며,

6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브 마암까지의 산지 모든 주변,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7 이제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8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눠 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와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였으니,

9 곧 아르는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10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11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이갓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 산과 살르기에 이르는 모든 바산,

12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욱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니,

13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이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이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14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

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15 ○모세가 르우벤 자손에게 그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16 그들의 지역은 아르는 골짜기 입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모든 평원과,

17 헤스본과 그 평원에 있는 주변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툼 바알과 벧바알므론과,

18 아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19 가라디임과 십마와 골짜기 산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20 벧비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벧여시뭇과,

21 그 평원에 있는 모든 성읍과 아모리 왕 시혼의 모든 나라이니, 이 시혼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인데, 모세가 그 땅에 살았던 시혼의 방백들이 미디안 지도자 에워와 레겐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그를 죽였다.

22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그들을 살육하는 가운데, 브울의 아들 접술가 빌람도 죽었다.

23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이다. 이것은 르우벤 자손이 족속을 따라 유업으로 받은 자기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24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25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맞은편의 아로엘까지와,

26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와,

27 골짜기에 있는 벧하람과 벧니므라와 숙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 왕국의 남은 땅인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건너 동쪽 긴네롯 바다 어귀까지였다.

28 이것이 갓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유업으로 받은 그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29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곧 므낫세 자손의 지파 절반에게도 그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30 그들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곧 바산 왕 욱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아일리의 모든 거주지 육십 성읍과,

31 길르앗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곧 바산에 있는 욱의 왕국에 속한 성읍이다. 이것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을 위한 것이니, 곧 그들의 족속별로 마길 자손의 절반을 위한 것이다.

32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니,

33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

문이다.

#### 요단 서쪽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지파들

14 1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리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2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아홉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3 이는 모세가 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4 요셀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 갈렙이 얻은 유업

6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까.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9 그 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

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 온 그 사십오 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팔십오 세이지만,

11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이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하므로,

12 이제 여호와께서 그 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 날에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13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렘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14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럿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 유다 지파의 경계

- 15 1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은 땅의 최남단은, 친 광야가 있는 에돔 경계까지이니,  
 2 그들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 곧 남쪽을 향한 하구에서 시작하여,  
 3 아그랍빔 비탈 남쪽에서부터 나와 친을 지나고, 남쪽에서 가데스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며, 잇달로 올라가서 갈가로 돌아가고,  
 4 또 아스몬을 지나서 이집트 강에 미치며, 그 경계의 끝은 바다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남쪽 경계가 될 것이다.  
 5 그 동쪽 경계는 사해이니, 요단 끝까지이며, 그 북쪽 지역의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바다의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6 벧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이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올라가고,  
 7 또 이글 골짜기로부터 드빌로 올라가, 강 남쪽에 있는 아돔빔 비탈 맞은편 북쪽의 길갈로 향하고, 엔세메스 물 결을 지나, 엔로겔로 나오며,  
 8 또 한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등성이를 향하고, 한놈 골짜기 맞은편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곳은 르비임 골짜기 최북단이다.  
 9 또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벧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의 성읍들로 나와, 또 바알라, 곧 기럿여아림에 이르고,  
 10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을 향하고, 여아림 산, 곧 그실론의 북쪽 등성이를 지나 벧세메스로 내려가 딘나를 지나며,  
 11 또 에그론 북쪽 등성이로 식그론에 이르러 바알라 산을 지나 압느엘에 미쳐 바다로 나오게 되니,  
 12 그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인데, 이것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이다.  
 1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여분네의 아들 갈렘에게 유다 자손 가운데서 기럿아브라, 곧 헤브론 성읍을 분깃으로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아낙의 아버지였다.  
 14 갈렘이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15 거기에서 드빌 주민을 치려고 올라갔으니,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럿세벨이었다.

- 16 갈렘이 말하기를 “기럿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17 갈렘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렘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18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청하라고 재촉하였고,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렘이 자기 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다.  
 19 악사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지께서 제게 네게브 땅을 주셨으니, 샘물들도 주십시오.”라고 하므로, 갈렘이 그 딸에게 위의 샘들과 아래의 샘들을 주었다.  
 20 ○이것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 유다 지파의 성읍들

- 21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에돔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네게브 최남단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글과,  
 22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23 게데스와 하술과 잇난과,  
 24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25 하술하닷과 그리웃헤스론, 곧 하술과,  
 26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27 하살기다와 헤스몬과 벳베렛과,  
 28 하살수일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29 바알라와 이임과 에셀과,  
 30 엘몰랏과 그실과 홀마와,  
 31 시글락과 밋안나와 산스나와,  
 32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이십구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33 ○쉐멜라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34 사노아와 엔간림과 담바와 에남과,  
 35 아르뫼트와 아들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36 사이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십사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37 ○스난과 하다사와 므달갓과,  
 38 델린과 미스베와 욥드엘과,  
 39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40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사와,  
 41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야마와 막게다니, 모두 십육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42 ○또한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43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44 그릴라와 악십과 마레시니, 모두 아홉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45 ○에그론과 그 딸린 향리들과 촌락들과  
 46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47 ○아스돗과 그 딸린 향리들과 촌락들과, 가사와 그 딸린 향리들과 촌락들이니, 이집트 강

- 과 지중해 연안까지이다.  
 48 ○산지에 있는 것은 사밀과 잇딜과 소고와,  
 49 단나와 기럿산나, 곧 드빌과,  
 50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납과,  
 51 고센과 홀론과 기로니, 모두 열한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52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53 아납과 벳담바와 아베가와  
 54 홀다와 기럿아브라, 곧 헤브론과 시울이니, 모두 아홉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55 ○또한 마온과 갈멜과 십과 웃다와,  
 56 이스라엘과 욥드암과 사노아와,  
 57 가인과 기브아와 딘나니, 모두 열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58 ○홀론과 벳셀과 그들과,  
 59 마아렛과 벳아닛과 엘드곤이니, 모두 여섯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60 ○기럿바알, 곧 기럿여아림과 림바니, 모두 두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61 ○광야에 있는 것은 벳이라바와 밋딘과 스가와,  
 62 납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이니, 모두 여섯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63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 요셉 지파의 남쪽 경계

- 16 1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지역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샘 동쪽으로 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고,  
 2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이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 서쪽으로는 아블렛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래로는 벳호론 경계와 게셀까지 내려가며, 그 끝은 바다이다.  
 4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 5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 이들이 받은 유업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잇달에서 위로는 벳호론까지 이르며,  
 6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므크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난실로에 이르며, 그곳에서 아노아 동쪽을 지난다.  
 7 아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야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으로 나오고,  
 8 담바에서 그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개울에 이르며, 그 끝은 바다이니,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9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한 성읍들과 그 촌락들도 있었다.  
 10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종으로 노역하였다.

### 서쪽 므낫세 지파의 경계

- 17 1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의 영을 얻었고,  
 2 므낫세의 남은 자손도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예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이들이 각각 족속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3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시이다.  
 4 이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므로,  
 5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열 몫이 돌아갔으니,  
 6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다.  
 7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세겜 앞 므크다까지이고, 남쪽으로 내려가 엔담바 주민의 땅까지이며,  
 8 담바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성읍 담바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9 그 경계는 가나 개울로 내려가는데, 개울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 가운데 있었으나 에브라임에게 속했다. 므낫세의 경계는 가나 개울 북쪽에 있고 그 끝은 바다이며,  
 10 그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하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했는데, 그 경계는 바다이니, 북쪽은 아셀과 맞닿고 동쪽은 잇사갈과 맞닿았다.  
 11 잇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에 속한 지역이 있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딸린 마을들과 들의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또 엔들 주민과 그 딸린 마을과 다아나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므크다 주민과

그 팔린 마을들, 곧 세 개의 언덕 지역이다.  
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13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 불평한 요셉 지파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뭇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려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네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비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16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넘겨지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벳스안과 그 팔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 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17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18 참으로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골짜기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 나머지 땅의 분배

18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었다.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4 너희는 각 지파마다 세 사십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5 그들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6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7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

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8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10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 베냐민 지파의 유업

11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으니,  
12 그들의 북쪽 지방 경계는 요단에서 여기고 북쪽 등성이로 올라가다가 서쪽 산지로 올라가서 벳아웬 광야에 이르고,  
13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 루스 곁을 지나 루스 남쪽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다.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앞길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을 지나고,  
14 벳호론 맞은편 남쪽 산지에서 서쪽 지방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랴트 바알, 곧 기랴트여림에 이르러 그 끝이 되니, 이것이 서쪽 지방 경계이다.  
15 남쪽 지방은 기랴트여림 끝에서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아가 빙다아 샘 근원에 다다르고,  
16 그 경계는 르비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 산지 끝으로 내려가며,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 등성이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17 북쪽으로 뻗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뎀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간다.  
18 연이어 북쪽으로 아리바 맞은편 등성을 지나, 아리바로 내려가고,  
19 그 경계는 북쪽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있는 사해의 북쪽 하구를 향한 경계가 그 끝이니, 이것이 남쪽 경계이며,  
20 동쪽 지방의 경계는 요단인데,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의 사면 경계이다.  
21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기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22 벳아리바와 스마리임과 베델과  
23 아웬과 바라와 오브라와  
24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

과 그 촌락들이며,  
25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26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27 레겜과 이브르엘과 다랄라와  
28 셀라와 엘렘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앗이니, 십사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 시므온 지파가 얻은 유업

19 1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다.  
2 그들이 얻은 유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3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셀과,  
4 엘몰랏과 비둘과 호르마와  
5 시글라와 벳가갓과 하살수사와  
6 벳트바웃과 사루헨이니, 십삼 성읍과 그 촌락들이며,  
7 또 이인와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과 그 촌락들이며,  
8 또 비일랏 브엘, 곧 네게브의 라마까지 그 성읍들 사방의 모든 촌락이니, 이것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9 시므온 자손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유업 가운데서 자기들의 유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 스불론 지파가 얻은 유업

10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이 얻은 유업의 경계는 사랏까지였다.  
11 그들의 경계는 서쪽으로 마랄라로 올라가서 담베셋에 닿았고, 욱노암 맞은편에 있는 개울에 닿았으며,  
12 사랏에서부터 동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 기슬롯다를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며,  
13 또 거기서부터 해 돋는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가신에 이르고, 네이로 이어지는 림몬으로 나아가서,  
14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 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나며,  
15 또 갓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있으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16 이 성읍들과 촌락들은 스불론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 잇사갈 지파가 얻은 유업

17 ○네 번째로 잇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18 그들의 경계는 이스라엘과 그솔롯과 수넬과,

19 하바리임과 시몬과 아니하랏과,  
20 랍밋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21 레멧과 언간넬과 엔한다와 벳바세스며,  
22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닿았고 그 지역의 끝은 요단이었는 데 모두 십육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23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잇사갈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 아셀 지파가 얻은 유업

24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25 그들의 경계는 헬깃과 할리와 베덴과 악산과,  
26 알람멜렉과 아맛과 마실이며, 서쪽으로 갈멜과 시홀 림넛에 닿았고,  
27 해 돋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미치고, 북쪽으로는 입다 엘 골짜기에 닿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며, 가돌 왼쪽으로 나아가서,  
28 에브론과 르흠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며,  
29 그 경계는 라마로 돌아 견고한 성읍 두로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 악십 지방 곁 바다가 그 끝이 되며,  
30 또 울마와 아벳과 르흠이 있으니, 모두 이십이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31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 납달리 지파가 얻은 유업

32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33 그들의 경계는 헬림과 사아난넬의 상수리나무로부터 아다미 네게브와 압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이다.  
34 그 경계는 서쪽으로 돌아 야스돗 다불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닿았고 서쪽은 아셀에 닿았으며, 해 돋는 쪽은 유다에 있는 요단에 이르고,  
35 견고한 성읍들로는 싯딤과 세르와 함밋과 락깃과 긴네랏과,  
36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37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38 이룬과 므다렐과 호렘과 벳 아난과 벳세메스이니, 모두 십구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39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은 납달리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 단 지파가 얻은 유업

40 ○일곱 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41 그 유업의 경계는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42 사일라빔과 아얄론과 이들과와,  
43 엘론과 딘나와 에그론과,



- 44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45 여호와 브네브라과 가드 림몬과,  
46 메알곤과 락곤과 올바 막은편 지역까지이다.  
47 그러나 단 자손의 지역이 좁으므로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들을 사로잡아 칼날로 치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살았으며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불렀다.  
48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단 자손 지파가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 여호수아가 얻은 유업

- 49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난 후,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50 곧 여호와와 맹령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리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51 ○이것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분배를 끝마쳤다.

#### 도피성을 구별한 이스라엘 (민 35:9-15, 신 19:1-13)

- 20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3 부지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4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5 피의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6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7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트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과

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9 이 성읍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레위사람에게 목초지를 분배한 이스라엘

- 21 1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2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 성읍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니,  
3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4 ○그것 족속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이룬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십삼 성읍을 얻었다.  
5 ○그들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과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열 성읍을 얻었다.  
6 ○게르손 자손들은 잇사갈 지파의 족속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십삼 성읍을 얻었다.  
7 ○므라리 자손들은 그 족속별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얻었다.  
8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 그런 자손의 유업

- 9 ○그들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이름들은 이러하였다.  
10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 족속에 속한 이룬 자손에게 첫 번째 제비가 뽑혔으므로,  
11 아낙의 아버지 아브라가 살았던 기랴트바, 곧 유다 산지의 헤브론과 그 사방 목초지를 주었고,  
12 그 성읍의 발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  
13 ○제사장 이룬 자손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과 그 목초지와 림나와 그 목초지와,  
14 앓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15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들과,  
16 아인과 그 목초지들과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벧

- 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는데, 이 두 지파에게는 아홉 성읍이었다.  
17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18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일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곧 네 성읍이었다.  
19 제사장 이룬 자손의 성읍은 모두 십삼 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20 ○나머지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의 족속 곧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성읍들을 얻었다.  
21 살인자의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 목초지와 게셀과 그 목초지와,  
22 김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고,  
23 단 지파 가운데서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24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으며,  
25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는 다아브와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었다.  
26 그런 자손의 나머지 족속에게는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 게르손 자손의 유업

- 27 ○레위 족속인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와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었다.  
28 잇사갈 지파 중에서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29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언 갓넵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며,  
30 아셀 지파 중에서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31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흐와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고,  
32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와 함므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니, 세 성읍이며,  
33 게르손 사람이 그들의 족속별로 모두 십삼 성읍과 그 목초지를 얻었다.

#### 므라리 자손의 유업

- 34 ○나머지 레위 사람인 므라리 자손의 족속들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욱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35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헬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고,  
36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아히스와 그 목초지와,  
37 그데뭇과 그 목초지와 므비앗과 그 목초지이

니, 네 성읍이었으며,  
38 갓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과 그 목초지와 미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39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었다.  
40 레위 족속 중 남은 자들인 므라리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은, 그들이 제비 뽑은 것으로 모두 십이 성읍이었다.

#### 레위 자손이 얻은 성읍

- 41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 가운데서 얻은 것은 모두 사십팔 성읍이었고 그 목초지였으니,  
42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사방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러했다.  
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고,  
44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을 당해 낸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 요단 동쪽 지파들을 보낸 여호수아

- 22 1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2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와 중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했고,  
3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 왔다.  
4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와 중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거라.  
5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와 중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6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7 ○모세는 바산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절반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8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곧 매우 많은 가축과 은, 금, 옷, 철과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하였다.

#### 요단 정경에 제단을 쌓은 동족 지파들

9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갔다.

10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정경에 이르러, 그들이 거기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도 큰 제단이었다.

11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 앞쪽 요단 지역, 곧 이스라엘 자손 이편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

12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보냈는데,

14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운데서 각각 한 명씩 열 명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15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아가 말했다.

16 “이는 여호와와 온 회중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반하여 오는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

17 브울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와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이나?

18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거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19 만일 너희 소유지가 정말로 부정하다면 여호와와 성막이 있는 여호와와 소유지로 스스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취하여라.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스스로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20 진멸할 것에 대하여 세라의 아들 이간이 죄를 지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의 죄악 때문에 패망한 자가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었다.”

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했다.

22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나 죄를 짓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23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는 것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거나, 혹은 그 위에 화목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십시오.

24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주의 하고 이같이 하였습시다. 곧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에 있느냐?’

25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간이 없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까 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26 우리가 ‘이제 이 제단을 쌓자.’라고 말한 것은 번제를 위하거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닙니다.

27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와 우리의 후손들 사이에 증거가 되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 주어, 후일에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분간이 없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8 우리가 말한 대로 만일 여러분의 후손이 훗날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 열조가 만든 여호와와 제단 모형을 보십시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될 뿐입니다.

29 오늘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워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떠나려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30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31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

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였다.

32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다.

33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좋게 여겨 하나님을 송축하고, 더 이상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올라가 싸워 그들을 멸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옛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니시라는 우리사이의 증거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23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3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4 보아라, 이 남아 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주었으니, 곧 요단에서 해 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다.

5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탈출하지 마라.

7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 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8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지금까지 한 것같이 하라.

9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서지 못했다.

10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아낼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11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12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 있는 이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13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14 ○보아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고 있다.

15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재앙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16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 세집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24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 겹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이브라함의 아버지며 너희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6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니, 이집트 사람이 병거와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을 그 홍해까지 쫓아왔다.



7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다.

8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9 그때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발라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빌람을 불러왔으나,

10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2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13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16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고, 우리 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

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 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 시키실 것입니다.”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였다.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여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23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라.”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25 그 날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세웠다.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27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는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28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 자기 유업으로 돌려 보냈다.

**여호수아를 장사한 이스라엘**

29 ○이 일들 후에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는 백십 세였으며,

30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업으로 받은 지역인 딘 뉘트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었다.

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 금 백 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된 곳이다.

33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으니,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 사 사 기

### 아도니 베섹을 친 유다와 시므온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3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비 뿔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예비 뿔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4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였고,

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 버렸다.

7 아도니 베섹이 말했다.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웠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며,

9 그 후 유다 자손이 산지와 네게브와 쉘렐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10 또 유다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랴트아브라였다.

11 ○그가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갔는데,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랴트 세벨이었다.

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트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13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웃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14 출가할 때에 악사가 웃니엘을 설득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자고 하여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으니,

15 그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브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므로, 갈렙이 그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16 ○모세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이랴트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17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밈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18 또 유다가 가시와 그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 지경과, 에그론과 그 지경을 점령하였고,

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20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21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 베델을 친 에브라임과 므낫세

22 ○요셀 족속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셨다.

23 요셀 족속이 베델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24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하였다.

25 그가 그들에게 그 성읍 입구를 보여 주니, 그들이 그 성읍을 칼로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친족은 내보냈으므로,

26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

###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

27 ○므낫세와 베스안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다이냐와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돌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이블림과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 딸린 촌락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28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부역을 시켰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29 ○에브라임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

- 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
- 30 ○소블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할볼 주민을 쫓아 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부역꾼이 되었다.
- 31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일랍과 악십과 헬바와 이비과 르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 32 아셀 사람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33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살았으며,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을 자신들을 위한 부역꾼으로 삼았다.
- 34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단 자손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35 아모리 사람이 헤레스 산과 이알론과 시알빔에서 살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요셉 족속의 힘이 강해지자 그들은 부역꾼이 되었다.
- 36 아모리 사람의 지경은 아그랍빔 비탈에 있는 바위로부터 그 위쪽이었다.

#### 보깁에 나타난 여호와와 천사

- 2 1 ○여호와와 천사가 길갈에서 보깁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 3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사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옮기미가 될 것이다.”
- 4 여호와와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 5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보깁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 여호수아의 죽음

- 6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7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 8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니, 9 백성들이 가아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딘 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10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비알들을 섬기며, 12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좇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13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비알과 아스다룟을 섬겼으므로,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15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므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16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17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하시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을 따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21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22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

엘이 여호와와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2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 그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

- 3 1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으니, 2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3 블레셋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비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히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 4 이 민족들을 남겨 두신 것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와 그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5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살면서, 6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 사사 웃니엘

-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 버리고 비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8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린 동안 섬겼다.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릴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었다. 10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고, 11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 사사 에훗

- 12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13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아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

령하였다.

- 14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팔 년 동안 섬겼다.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나민 자손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빌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6 에훗이 양쪽에 날이 선 한 구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17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풍성한 사람이었다. 18 에훗이 조공 바치기를 마친 후,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19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여라.” 하고 명령하자, 그 곁에 모셔 섰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물러갔다. 20 에훗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마련된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에훗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 21 에훗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22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 23 에훗이 환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24 그가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께서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자기 발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5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보니, 그들의 주가 땅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26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훗은 빠져나가서 채석장을 지나 스이리로 도망하였다. 27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에훗이 그들 앞에 가며, 28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전진지 못하게 하였다. 29 그들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고 웅망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으니, 30 그 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으며,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 사사 삼갈

31 ○오히려 후에는 아낏의 아들 삼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 사사 드보라

- 4 1 ○오히려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아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교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3 아빈이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4 ○그때에 랍비돔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5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6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만 명을 뽑아 거느리고 디블 산으로 가거라.  
7 내가 아빈의 군 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8 바락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9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만 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근처 시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쳤다.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디블 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시스라에게 전해지니,  
13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를 하로셋 학교임에서 기손 강으로 불러 모았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하니, 바락이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디블 산에서 내려갔는데,

- 15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16 바락이 그 병거와 군대를 하로셋 학교임까지 추격하였으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17 ○시스라가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아엘의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하술 왕 아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가 평화로웠기 때문이다.  
18 아엘이 나가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여, 들어오십시오. 제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니, 그가 그 여자의 장막으로 들어오므로, 그 여자가 이불로 그를 덮어 주었다.  
19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마시게 하여라.” 하자, 그 여자가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 주었는데,  
20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말하여라.” 하였다.  
21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자, 헤벨의 아내 아엘이 장막 막걸을 가지고,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땅에까지 꿰뚫고 들어가 박혔고, 그가 혼절하여 죽었다.  
22 마침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오자, 아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어서 오십시오, 당신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있었다.  
23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아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으니,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아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그를 진멸하였다.

##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 5 1 ○그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2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 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3 들어라, 너희 왕들이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이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4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 에돔 들뜬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5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시내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6 아낏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아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7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8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10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여라.  
11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걷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와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추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그때에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12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아, 네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암의 아들아.  
13 그때에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와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  
14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이말렉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다. 베나민은 네 백성들 가운데서

- 너를 따랐으며, 마길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왔다.  
15 잇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잇사갈처럼 비라도 그 말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 시냇가에서는 큰 결단이 있었다.  
16 네가 어찌하여 양 우리 가운데 머물며, 양 떼들을 부르는 파리 소리나 듣고 있느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단이 있었다.  
17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단은 어찌하여 배에 남아 있느냐? 아셀은 해변에 한가로이 앉아 자기 부둣가에 머물러 있다.  
18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이며, 납달리도 들의 고지에서 그리하였다.  
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어도 은을 노략물로 가져가지 못하였다.  
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21 기손 강은 옛 강이니,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22 그때에 말발굽이 땅을 박차고 군마들이 빨리 달려갔다.  
23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와 천사가 말하였다.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아엘은 여자들이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장막에 거하는 여자들이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니, 그 여자가 우유를 주었는데 값진 그릇에 얻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26 그 여자가 손으로 장막 막걸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이의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박살 내었다.  
27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지고 엎드려져 누웠구나.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져 엎어졌고,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죽어 엎어졌구나.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사이로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더디 오느냐? 그 병거의 말굽이 더디 달리느냐?' 하므로.

29 그 여자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30 그 여자도 혼잣말로 거듭 중얼거린다. '그들이 노략물을 찾아 나누지 않겠느냐? 용사마다 처녀 하나나 둘씩이며,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물로, 수놓은 채색옷을 노략물로 얻을 것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두를 것으로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다.'

31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돋는 것같이 되게 하소서."  
그 후로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 사사 기드온

6 1 O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칠년 동안 넘겨주셨다.  
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에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으며,  
3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4 그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며, 이스라엘에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 놓지 않았다.  
5 그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떼뭉개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 놓았다.  
6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 O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므로,  
8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9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10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1 O 여호와와 천사가 와서 아비예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12 여호와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헛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13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하였다.  
14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15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 것 없습니다." 하였다.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하시니,  
17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제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18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놓을 때까지 부디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하였다.  
19 O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든 후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단지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가져다 드리니,  
20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그 국물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다.  
21 여호와와 천사가 자신의 손에 권 지팡이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그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켰고, 여호와와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22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와 천사인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롭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와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24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다. 그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예셀 사람이 소유한 오브라에 있다.  
25 O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수소, 곧 칠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네 아버지의 비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26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은 다음, 네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이 자기 종 열 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28 O 그 성을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비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곁에 섰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세운 제단 위에는 그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었다.  
29 그 아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것을 하였느냐?" 하며 깨물어 조사하니,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30 그 성을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비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므로,  
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비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비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비알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비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

이다."라고 하였다.  
32 그 날에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비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비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3 O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34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이비예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35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36 O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37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38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39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게 노하지 마소서. 이제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40 그 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곧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 미디안을 친 기드온

7 1 O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히트 샘 곁에 진치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곧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2 O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3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O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



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5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핏빛이 자기 혀로 물을 핏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6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핏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끓어 먹은 삼백 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8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삼백 명만 남겨 두었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9 O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10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아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15 O기드온이 꿈 이야기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햇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17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

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하였다.

19 O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20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햇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다.

21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로 칼로 치게 하시므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뱃 사다까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답한 가까운 이벨 므홀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23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24 O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전하기를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 가서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을 점령하여라." 하니,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을 점령하였다.

25 또 미디안의 두 지도자들인 오렐과 스옌을 사로잡아 오렐은 오렐 바위에서 죽이고, 스옌은 스옌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며,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오렐과 스옌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기드온

8 1 O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니,

2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을 어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아비셀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3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렐과 스옌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4 O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삼백 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하였는데, 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요." 하였다.

6 숙곳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 빵을 주다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더라도 한 것이오?" 하므로

7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내가 들의 가시와 쐼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 버릴 것이다." 하고

8 거기서 그가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숙곳 사람들처럼 대답하였다.

9 그래서 그가 브누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 버리겠다." 하였다.

10 O이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길굴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가운데 칼을 든 십이만 명은 죽었고, 남은 만 오천 명 가량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11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노브와 욱브하 동쪽의 천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진을 치주

12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였다.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온 군대를 섬멸하였다.

13 O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에서 있었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14 숙곳 사람 가운데 한 소년을 잡아 심문하였더니, 그가 숙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칠십칠 명을 그에게 적어 주었다.

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를 보아라. 너희가 전에 '우리더러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하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더라도 한 것이오?' 라고 하면서 나를 비웃었다." 하고

16 기드온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숙곳 사람들을 들 가시와 쐼레로 징벌하였으며,

17 또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18 O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다 불에서 너희가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과 비슷하였는데, 하나같이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였다.

19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20 자기 장자 여렘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나, 그 소년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하였다.

21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다.

22 O이때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놓으십시오." 하니, 적군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25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겹옷을 찢어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지니,

26 그가 부락하였던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 칠백 세겔이었나, 그 밖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복 의복들과 그들의 낙타 목에 둘러댄 사슬들도 있었다.

27 기드온이 그것으로 애브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 기드온의 죽음

29 O요아스의 아들 여렘발이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30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31 세겔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세열 사람들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33 O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35 또한 여렘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배운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 왕이 된 아비멜렉

- 9 1 ○여름비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의 과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 2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름비발의 아들 칠십 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골육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나.
- 3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 4 그들이 비발브리의 전에서 온 칠십 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 5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름비발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여름비발의 막내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 6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 7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스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시길 것입니다.
- 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 9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시다.
- 10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 11 무화과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시다.
- 12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시다.
- 14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하였습시다.
- 16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여름비발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며 그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입니까?
- 17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여러분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 18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그의 아들 칠십 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이므로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습시다.
- 19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름비발과 그 집안에 행한 일이 진실하고 순전하다면,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시오.
- 20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 21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브엘로가 그곳에서 살았다.
- 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삼년 동안 다스렸을 때,
- 23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므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 24 하나님께서 여름비발의 아들 칠십 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 25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니, 그 일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 26 ○에벳의 아들 가말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건너왔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였나.
- 27 그들이 밤에 나가 포도를 거두어 밭아 짜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으니,
- 28 에벳의 아들 가말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여름비발의 아들이며 그의 심복은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어찌 우리

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 29 이 백성이 내 손안에 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 30 ○그 성읍의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말의 말을 듣고 격노하여,
- 31 사신들을 아비멜렉에게 몰래 보내어 전하기를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말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성읍을 충동질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 32 이제 당신은 함께 있는 백성을 데리고 밤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였나.
- 33 아침 일찍 동틀 때에 일어나 그 성읍을 기습하십시오. 이제 가말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당신에게 나을 것이니, 기회를 얻는 대로 그를 치십시오.” 하였다.
- 3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세겜 근처에서 내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는데,
- 35 에벳의 아들 가말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났다.
- 36 가말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산꼭대기에서 백성이 내려오고 있소.” 하니,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산 그림자를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하였다.
- 37 가말이 다시 말하기를 “보시오,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모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고 있소.” 하니,
- 38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한 그대의 입은 이제 어디에 있소? 이 백성들이 바로 그대가 저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요? 이제 나가서 저들과 싸워 보시오.” 하니,
- 39 가말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 40 아비멜렉이 자기를 추격하므로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부상자들이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쓰러져 있었다.
- 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살았고, 스불은 가말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 42 ○다음날 백성이 들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 43 아비멜렉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켰다가 그 성에서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죽였으니,
- 44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무리가 달려들어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들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 45 아비멜렉이 종일도록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을 헐고 소근을 뿌렸다.
- 46 ○세겜 땅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 동굴로 들어갔더니,
- 47 세겜 땅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 48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같이 살몬 산에 올라가서, 자기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한 것을 본 그대로 나처럼 속히 행하여라.” 하니,
- 49 모든 백성이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갔다. 그들이 그 지하 동굴 앞에 나뭇가지를 쌓아 놓고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으므로 세겜 땅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남면 약 천 명 정도였다.

### 아비멜렉의 죽음

- 50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더니,
- 51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성읍 사람 남면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 안에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 52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싸우는데, 그곳에 불을 질러려고 망대 입구 가까이 접근하니,
- 53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위쪽을 내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 54 그가 자기 병기를 던진 젊은이를 급히 불러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 사람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하므로, 그 청년이 그를 찌르니, 그가 죽었다.
- 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제 곳으로 돌아갔다.
- 56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칠십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이같이 갚으셨고,
- 57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여름비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 사사 올라

- 10 1 ○아비멜렉 후에는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아의 아들인 올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시일에 살며,
- 2 이십삼 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 시일에 장사되었다.
- 3 ○그 후에는 길르앗 사람 아일이 일어나 이십이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 사사기 12장

4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었고, 그들은 삼십 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길르앗 땅에서 서른 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성읍들은 오늘까지 히트아일이라 불리고 있으며,  
5 아일이 죽어 가문에 장사되었다.

## 이스라엘의 배교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이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므로,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8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고 학대하고,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팔 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9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우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하였다.

10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12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14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다만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소서.” 하고,

16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17 ○그때에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였다.

## 1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는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2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였다.

3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돌 땅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4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돌 땅으로 가서,

6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요,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수 있겠소.” 하니,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이제 당신들이 환난에 처하였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였다.

8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주길 바라기 때문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하므로,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하였고,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요.” 하였다.

11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와서 내 땅을 치려 하느냐?” 하니,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는에서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다시 돌려라.” 하므로,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15 그에게 말하였다. “입다가 이같이 말한다. 이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와서는

17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내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 주시요.”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으며, 또 모압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었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18 ○그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헤뜨는 쪽으로 가서 아르는 건너편에 진을 쳤고, 모압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아르는이 모압 땅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19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곧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에 이르게 해 주시요.” 하였으나,

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으며 자기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가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합스에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므로,

21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차지하되,

22 아른에서 압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였다.

23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네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냐?

24 너는 나의 신 그모스가 네게 준 것이나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빌락보다 더 나냐?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는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살게 된 지 삼백 년이 되었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동안 되찾지 않았느냐?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않았으나 내가 나를 공격하여 내게 악을 행하려 하니,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결해 주실 것이다.”

28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그에게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29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와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

베를 지나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며,  
30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시면,

31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와 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32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33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뎀까지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34 ○입다가 미스바 자기 집에 왔을 때, 보아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무남독녀이었다.

35 그가 딸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니,

36 딸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므로 아버지의 임의로 말씀하신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37 그 딸이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달 동안 제게 자유를 주신다면, 산에 올라가서 제가 처녀인 것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이 실컷 울겠습니다.” 하니,

38 그가 말하기를 “가거라.” 하고, 두 달 동안 딸을 보냈다. 그 딸이 자신이 처녀인 것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산 위에서 슬퍼 울었다.

39 두 달이 끝날 때,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며,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하였는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관습이 되어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 12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하니,

2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

## 삼손의 출생

- 렸으니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 3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건너가 임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는데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 4 임몬과 길르앗 사람을 모두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여 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 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 나루들을 점령하였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를 건너가게 해 주시오.”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 6 그들이 그에게 심불렛을 말해 보라고 하고, 그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고 심불렛이라 하면, 요단 나루에서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사만 이천 명이나 되었다.
- 7 ○길르앗 사람 임몬이 육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으니,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 사사 입산

- 8 ○그 후에는 베들레헬 사람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9 그에게 삼십 명의 아들과 삼십 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삼십 명의 처녀를 데려왔다. 그가 칠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 10 입산이 죽으니 베들레헬에 장사되었다.

## 사사 엘론

- 11 ○그 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그가 십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니, 스불론 땅 이엘론에 장사되었다.

## 사사 압돈

- 13 ○그 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4 그에게 사십 명의 아들과 삼십 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타고 다녔고, 그가 팔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니, 에브라임 땅 이말렉 사람들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 삼손의 출생

- 지켜야 한다.
- 14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산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 15 ○마노아가 여호와와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 16 여호와와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머물게 하여도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와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 17 여호와와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 18 여호와와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하다.” 하였다.
- 19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 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 20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와 사자도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었드렸다.
- 21 ○여호와와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와 천사인 줄 알고,
- 22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뵈었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니,
- 23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 24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 25 소라와 에스다를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그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 삼손과 딘나 여자

- 14 1 ○삼손이 딘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 2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제가 딘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아 두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게 해 주십시오.” 하니,

## 삼손의 출생

- 3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였으니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 4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 5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딘나로 내려가서 딘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니, 젊은 사자인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 6 여호와와 그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리지 않았다.
- 7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 보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 8 ○얼마 후에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그 사자를 보니, 그 사자의 주검에 벌레와 풀이 있었다.
- 9 삼손이 자기 손으로 풀을 떼어내 걸어가면서 먹었고, 또 자기 부모에게 가서 드러 하니,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풀을 사자의 몸에서 떼 내었다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10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 11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그와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 12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칠일 동안 그것을 잘 풀어서 내게 알려 주면, 내가 배운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주고
- 13 만일 너희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운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주어야 한다.”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네가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므로,
- 14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 15 ○제 칠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하므로,



- 16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답을 내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알려 주겠소?” 하였다.
- 17 잔치하는 칠일 동안 그 여자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를 괴롭히므로, 그가 칠일째 되는 날 그 여자에게 알려 주었고, 그 여자는 자기 동족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 주었다.
- 18 제 칠일 해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꿈보다 더하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을 깔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 19 여호와와 그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가운데 삼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겹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곧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 20 삼손의 아내의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 블레셋을 친 삼손

- 15 1 O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2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그 애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하니,
- 3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 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화를 하나씩 달았다.
- 5 그가 그 화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내몰아서 곡식 단뿐 아니라 아직 베지 않은 곡식과 동원고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 버렸다.
- 6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

- 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몰래 쳤다.
- 7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 8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 애담 바위틈에 머물렀다.
- 9 O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퍼져 있었다.
- 10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 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애담 바위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오.” 하였다.
- 12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하였다.
- 13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고 새로 끈 밧줄 둘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 14 O 삼손이 레히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맞서 나가는데, 그때 여호와와 그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팔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갈이 되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 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 16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다.” 하였다.
- 17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던져 버리고, 그곳을 “리맛 레히라” 불렀다.
- 18 O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게

- 되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니,
- 19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지게 하시므로 거기서 물이 솟아났고, 그가 물을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니, 그곳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다.
- 20 블레셋 시대에 삼손이 이십 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삼손과 들릴라

- 16 1 O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고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 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였다.
- 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 4 O 이후에 그가 소액 골짜기의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 5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꺾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네게 은 천백을 주겠다.” 하니,
- 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하였다.
- 7 O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칠 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하였다.
- 8 블레셋의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칠 줄 일곱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니, 그 여자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였다.
- 9 그 여자가 내실에 사람을 매복시켜 앉아 있게 한 뒤,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실을 끊든 그 칠 줄을 끊었으니, 그의 힘은 알려지지 않았다.
- 10 O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 주세요.” 하니,
- 11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묶으면,

-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하였다.
- 12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밧줄을 마치 실처럼 끊어 버렸는데, 그 때, 내실에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 13 O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 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낄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오.” 하였다.
- 14 그 여자가 베를 바디로 그것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베를 바디와 낄실을 뽑아 버렸다.
- 15 O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세 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알려 주지 않았어요.” 하고,
- 16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조르므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 17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 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테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 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하였다.
- 18 O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 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군주들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내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니, 블레셋의 군주들이 손에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 19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 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 20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 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뿔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늦출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멍들을 돌리게 하였으니,  
22 밀어 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 삼손의 죽음

23 ○블레셋의 군주들이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24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살육하고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다오. 그것에 내가 기대고 싶다.” 하였다.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거기 있었고, 지붕에는 삼천 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29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30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로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31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삼손이 이십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미가 집 제사장

17 1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2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천백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었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

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돌려주겠다.” 하였다.

4 그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이백을 가져다가 은 세공인에게 주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으므로 그 우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5 미가라는 사람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6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7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헬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8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헬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9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시오?”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헬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10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달은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11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12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13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였다.

### 미가와 단 지파

18 1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에 용감한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

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묵게 되었다.  
3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은 것은 무엇이나?” 하니,  
4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리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5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알게 해다오.” 하니,  
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였다.

7 ○그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도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오니,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9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10 여러분이 가만 평온하게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는 땅도 만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였다.

11 ○단 가족 가운데 육백 명이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12 올라가서 유다 기랴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미하네단이라 부르는데, 그곳은 기랴여아림 뒤편에 있다.”

13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14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15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16 무장한 단 자손 육백 명은 문 입구에 섰다.

17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올라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할 때 그 제사장은 무장한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하므로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  
19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네 손을 입에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므로,  
20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21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갔다.  
22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집 인근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바짝 뒤쫓아 가서,  
23 단 자손을 붙들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하니,  
24 미가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나?’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였다.

25 단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네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하고,  
26 단 자손은 자기 길로 갔고, 미가도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7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사는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니,  
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를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으니,  
29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30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



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 레위 사람의 첩

- 19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머물러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헬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는데,  
2 그의 첩이 음행하고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저녁 동안 거기에 있었다.  
3 그 여자의 남편이 일어나 그 여자를 설득하여 데려오려고 자기 하인과 나귀 두 마리와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므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4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불드니, 그가 장인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다.  
5 넷째 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뺨을 조금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떠나게.” 하였다.  
6 그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부디 이 밤을 여기서 묵으며 자네 마음을 즐겁게 하게.” 하고 말하였다.  
7 그 사람이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간청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묵었다.  
8 다섯째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부디 기운을 돋우어 한낮이 지날 때까지 쉬도록 하게.”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9 그 사람이 그의 첩과 하인과 함께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으니, 부디 이 밤도 묵도록 하게. 여보게, 날이 기울었네. 여기서 묵고 마음을 즐겁게 한 뒤,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하였다.  
10 ○그러나 그 사람이 묵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일어나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을 데리고 떠나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11 그들이 여부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시지요.” 하였다.  
12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 들어가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하고,  
13 그가 또 하인에게 말하기를 “기브아나 라마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어야겠다.” 하였다.  
14 그들이 계속 나아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15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 묵으려고 그곳으로 돌이켜 들어가 그 성읍 큰길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16 ○그 저녁에 밭에서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머물러 살고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17 그 노인이 눈을 들어 어떤 나그네가 성읍 큰길에 있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오는지 물자.  
18 그가 그 노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헬에서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헬에 들렀다가, 이제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데려가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과 여물도 있고, 소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한 소년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도 있으니,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 그 노인이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겠으니, 길에서는 묵지 마시오.” 하고,  
21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으며, 그들이 밭을 씻고 먹고 마셨다.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세게 두드리며 집주인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노인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소.” 하니,  
23 집주인인 그 사람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말게나.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말게.”  
24 보시게, 내 처녀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네. 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자네들 보기에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게.” 하였다.  
25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어주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놓아 주었다.  
26 동틀 때에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에 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쓰러져

- 있었다.  
27 ○그 여자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고 나서는데,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손을 문지방 위에 올려놓고 그 집의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28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사람이 그 여자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사는 곳으로 갔는데,  
29 그가 자기 집에 오자마자 칼을 들고 자기 첩의 시신을 잡고 그 마디를 잘라서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30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이 일을 잘 생각하고 의논한 다음 의견을 말하도록 하자.” 하였다.

### 이스라엘과 베냐민지파의 전쟁

- 20 1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도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니,  
2 모든 백성 중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고, 칼을 찬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고,  
3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해 보라.” 하니,  
4 죽임을 당한 그 여자의 남편 레위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첩과 함께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에 묵으러 갔는데,  
5 기브아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일어나서, 밤중에 제가 묵은 집을 에워싸고 저를 죽이려 하다가, 제 첩을 능욕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6 제가 제 첩을 거두어서 조각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에 보냈으니,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7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자손이여,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과 방책을 내주십시오.” 하니,  
8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마시다.  
9 이제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백 명마다 열 사람을, 천 명마다 백 사람을, 만 명마다 천 사람을 뽑아 백성을 위해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베냐

- 민이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 대로 갚도록 합시다.” 하였다.  
11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같이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일어나 이 악한 일은 어찌된 것이냐?”  
13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듣지 않고,  
14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나가기 위해 각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15 그 날에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 찬 자가 이만 육천 명이었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가운데 선발된 사람의 수는 칠백 명이었는데,  
16 이 모든 백성 가운데 선발된 칠백 명은 왼손잡이였고, 그들 모두가 무릎땀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  
17 베냐민 자손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찬 자의 수가 사십만 명이었고, 이들 모두가 전사들이었다.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유다가 앞장서야 한다.” 하셨다.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20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나가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려 하였다.  
21 그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 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니,  
22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쭙기를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하셨다.  
24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오고,  
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26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 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

- 목제를 드리며,  
**27** 여호와께 여주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으며,  
**28** 아론의 손자이며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였다.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30** 셋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31** 베냐민 자손이 그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나와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편은 기브아 들판으로 가는 길에서 전과 같이 그 백성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사람 약 삼십 명이 죽었다.  
**32**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 떼어내어 큰길로 나오게 하자.” 하였다.  
**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자기 자리,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쏘아쳐 나왔다.  
**34**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35**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시므로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었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36** 그때에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에게서 물러선 것은 기브아 주위에 매복시킨 복병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37** 복병이 급히 기브아로 돌격하였고, 나아가 온 성읍을 칼날로 쳤다.  
**38**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신호를 정해 두었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큰 연기를 피워 올리면,  
**39**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다가 물러나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약 삼십 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첫 싸움에서처럼 그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없이 패하

- 고 있다.” 하였으나,  
**40** 연기가 구름기둥같이 성읍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41**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이 재앙이 자기에게 닥친 것을 알고 겁에 질려,  
**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돌이켜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들이 바짝 뒤쫓고 각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진멸시켰다.  
**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쉬지 않고 추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44** 베냐민 가운데 만 팔천 명이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45** 그들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큰길에서 오천 명을 이삭 죽듯 죽였으며, 기뭇에 이르기까지 바짝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46** 그 날에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자들이 모두 이만 오천 명이었는데, 칼을 빼는 자들로 모두가 용사였다.  
**47** 그러나 베냐민의 육백 명은 돌아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48**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족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 이스라엘과 베냐민지파와의 화해

- 2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2**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부짖으며,  
**3**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고,  
**4**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5**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 올라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굳게 맹세하기를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6**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7**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들

- 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8** ○그들이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아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진영으로 오지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9** 백성을 헤아려 보니, 거기에 아베스 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10** 회중이 용맹한 자 가운데 만 이천 명을 그곳에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아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칼날로 쳐라.  
**11**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모든 남자와,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진멸하여라.” 하였다.  
**12** 그들이 아베스 길르앗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사백 명을 찾아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13** ○온 회중이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언하였으며,  
**14**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베스 길르앗 여자들 가운데 살려 둔 이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여전히 부족하였다.  
**15**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뉘우쳤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를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16**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여자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 주겠는가?” 하고  
**17** 그들이 또 말하기를 “베냐민 가운데 피하여

- 살아남은 자들에게 유업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8**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19** 그들이 또 말하기를 “보아라,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와의 절기가 있다.” 하고,  
**20** 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 망을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들 가운데 각각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22**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우리와 다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에서 각 사람에게 아내를 얻어 주지도 못하였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여자들을 줄 때에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를 보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하겠다.”  
**23**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자기들의 수효대로 사로잡아 아내를 삼았으며,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다.  
**24**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 지파와 가족에게로 갔으니, 곧 그들이 거기서 나와 각자 자기 유업으로 돌아갔다.  
**25**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 룻기

## 모압으로 이민 간 엘리멜렉 가족

- 1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가논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 4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십 년쯤 살다가,
- 5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 6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 7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 8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 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초리를 높여 울며,
- 10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 11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이,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 12 내 딸들이,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하더라도,
-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나, 내 딸들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 14 그 여자들이 목초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가) 기쁨이나 환희 나) 괴로움

- 15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셨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 16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게 지어 주었다.
- 19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 20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옴이라 부르지 마시오.”
- 21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찌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라고 하였다.
- 22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 보아스를 만난 룻

- 2 1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 2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줌에 해 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딸아,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 3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데, 뜻밖에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 4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 5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도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나?” 하니,

- 6 추수하는 자들을 감도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 7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쉬고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8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내 여종들을 바짝 따라다니며,
- 9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내가 종들에게 너를 전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곳에 가서 종들이 길어 온 것을 마셔라.”
- 10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 11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 12 여호와께서 네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풍성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
- 13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네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추수하는 자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전대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 16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 다발 중에서 일부를 뽑아 두어 그 여자가 줌에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 17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줌과,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베쯤 되었다.
- 18 그 여자가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 주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린다.
- 19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 받기를 바란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 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하였다.

-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그의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바란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려 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다.
- 21 모압 여자 룻이 말하기를 “그분이 제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니며, 말씀하셨습니까?” 하므로,
- 22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23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과 바짝 따라 다니며 이삭을 주워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온 룻

- 3 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 2 네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마침 그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 3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겹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 4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 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네 할 일을 그가 알려 줄 것이다.”
- 5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6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 7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더미 끝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웠다.
- 8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깽깽 놀라 몸을 돌이켜 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 9 그가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의 유업을 물려 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므로,
- 10 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구나.
- 11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한 것을 모두 해 주겠으니, 이는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 12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어 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어 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 13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네 유업을 물어 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어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어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와 그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어 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 14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 15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네가 걸치고 있는 겹옷을 가져와 펴서 잡아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 여자에게 이워 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 16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 주고
- 17 또 말하기를 “그분이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제게 주며,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시다.”라고 하니,
- 18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룻과 결혼한 보아스

- 4 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유업을 물어 줄 사람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시오.”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고,
- 2 또 보아스가 그 성을 장로들 가운데서 열 사람을 모셔 와서 말하기를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니, 그들이 앉았다.
- 3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어 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소.
- 4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하니, 여기 앉아 있는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만일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 주려 하면 물어 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 주려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알려 주시오. 이는 당신 외에 그 유업을 물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당신 다음이기 때문이요”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유업을 물어 주겠소.”라고 하였다.
- 5 보아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할 것이요.” 하니,

- 6 그 유업을 물어 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유업을 물어 주지 못하겠소. 내가 유업을 물어 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어 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하였다.
- 7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어주거나 맞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명하는 방법이였다.
- 8 그래서 그 유업을 물어 줄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라고 말하고 자기 신을 벗으니,
-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론과 밀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 10 또 밀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 11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헬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 1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우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 하였다.

#### 다윗의 족보

- 13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시므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 14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 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15 그는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일곱 아들보다도 더 나은 당신의 머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 16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니,
- 17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 18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실몬을 낳았고,
- 21 실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 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 사무엘상

## 엘가나의 가정

- 1 1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빌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 2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으며,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 3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훌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서 있었다.
-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 5 한나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 6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 7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 8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하였다.

## 울며 기도하는 한나

-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 11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12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 보고 있었는데,
- 13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14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것이니,

16 당신의 여종을 불쌍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7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하니,

18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19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친 한나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21 ○남편 엘가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올라갔으나,

22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니, 그가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23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하여 아이가 젖을 떼 때까지 집에 머무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젖을 떼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24 그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수소 세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와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는 어렸다.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님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

니다.  
28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  
호와께 경배했다.

### 기도하는 한나

2 1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3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와 지식의 하나님이며,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4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던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5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해 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일곱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6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7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와 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9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 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10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쁨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11 ○엘리나는 라미의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  
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3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도 무시  
하여,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  
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  
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14 냄비나 솥이나 큰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  
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  
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  
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15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  
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  
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  
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16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나서 당  
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오,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라고 하였  
다.  
17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  
문이다.  
**한나에게 아들과 딸을 더 주신 여호와**  
18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  
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행하였다.  
19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  
은 걸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20 엘리가 엘기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  
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  
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 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  
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  
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22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

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제들과 동침했다는 것  
을 듣고,  
23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  
행을 듣고 있다.  
24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와 백  
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25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  
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26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엘리의 집에 저주를 선언하신 여호와**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  
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나  
여호와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  
타내지 않았느냐?’  
28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내 제단 위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  
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화제  
를 네 조상의 집에 주었는데,  
29 왜 너는 내가 네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  
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  
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들을 살찌게 하느냐?’  
30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  
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  
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  
와께서 분명히 말씀 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  
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31 보아라, 내가 네 팔과 네 아버지의 팔을 꺾겠  
으니, 네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32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  
너는 환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네 집에 늙  
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다.  
33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않고 남겨 둘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네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  
창 나누어 먹을 것이다.  
34 네 두 아들 홀니와 비느하스에게 다칠 일이 네  
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35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  
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36 네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는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  
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 사무엘을 부르신 여호와

3 1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2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  
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누  
워 있었다.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므로 그가 말  
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5 엘리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  
워라.” 하였으므로,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  
6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므로 사무  
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  
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다.  
7 그 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의 알지 못했  
고, 여호와와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8 ○여호와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  
므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9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워라. 만일 그  
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  
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  
하여라.” 하므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10 ○그 후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시고 “사무엘  
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므로 사무엘이 대  
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  
습니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니,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  
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13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



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와 그의 아내에게, 엘리와 그의 아내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할 수 없을 것이다.”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와의 집 문을 열었으니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17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나?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18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않으니,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19 사무엘이 성장해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어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마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21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4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크에 진을 쳤다.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갖추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사천 명가량 죽였다.

3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호와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 가운데 두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하니,

4 백성들이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어 그들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5 여호와와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

라엘이 큰 환호성을 지르니, 땅이 진동하였다. 6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나오는 이 큰 환호성이 무엇이나?” 하다가 여호와와 궤가 진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7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신이 그 진에 들어왔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미쳤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8 우리에게 화가 미쳤으니, 누가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다.

9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대장 부답게 싸워라.” 하였다.

10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으며, 매우 큰 살육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 중에 보병 삼만 명이 쓰러졌으며,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 엘리의 죽음

12 그 날에 베나민의 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가 실로에 도착했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그의 머리는 흙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13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살펴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를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읍에 도착하여 보고하니 온 성읍이 울부짖었다.

14 엘리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게 무슨 소란이나?” 하니,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고하였다.

15 그때에 엘리는 구십팔 세여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다.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진영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하니, 엘리와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였다.

17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며,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라고 하니,

18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할 때, 엘리와 문 옆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늙었고 몸이 비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사십 년간 다스렸다.

19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

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진영이 시작되어 주저앉아 해산하며, 20 죽어 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자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마음을 쓰지도 않았으며,

21 아이 이름을 이가뵤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빼앗긴 하나님의 궤와 또 그 여자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다.

22 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였다.

####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신 여호와

5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 신당으로 가져가 다곤 곁에 두었는데,

3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쓰러진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다.

4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5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오늘날까지 밟지 않는다.

6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엄중히 쳐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악성 종기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7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 놓고 묻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겨 갔다.

9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와 그의 손이 성읍을 치시니,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났으므로

10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기를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하고

11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 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냈으니, 그것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그곳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에 죽음의 환난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냈으니, 그것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그곳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에 죽음의 환난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12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 그 성읍의 비명 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온 여호와와 그의 궤

6 1 여호와와 그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서 머문 지 일곱 달이 되었을 때,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놓고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사사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3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드리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도 낫고, 왜 그분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이요.”라고 하였다.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드릴 속건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군주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악성 종기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 다섯 개이니, 이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군주들에게 같은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요.

5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악성 종기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땅으로부터 그의 손을 가뱌게 하실 것이요.

6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7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아직 멍에를 매어 보지 아니한 젖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은 그것들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 여호와와 그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분께 속건 제물로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그 옆에 놓은 후 수레를 보내도록 하시오.

9 여러분이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그 궤의 본래의 지역, 곧 벡테마스의 길에 따라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 10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젓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가 수레를 메게 하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게 가두었으며,
- 11 여호와와 궤와 함께 금 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 12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갔으니 큰길을 따라 갔으며, 울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블레셋의 군주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 13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밭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기뻐하였다.
- 14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 15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와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놓으니, 그 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도 드렸다.
- 16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 17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중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고,
- 18 금 쥐는 요새화된 성읍으로부터 성벽이 없는 마을까지 다섯 군주들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 수와 같았다. 여호와와 궤를 올려놓았던 큰 돌은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된 여호와와 궤

- 19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 안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서 "오만 칠십 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 20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 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 하고,
- 21 기럃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 가져라." 하였다.

- 7 1 기럃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 어떤 사본에는 '오만'이 없음.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했다.

####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무엘

- 2 궤가 기럃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이십 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
- 3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 4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 5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 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 8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 9 사무엘이 젓 먹은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 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 12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 13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와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 15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 16 해마다 베일과 길갈과 미스비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 왕을 구한 이스라엘

- 8 1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 2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아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 3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 5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6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네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8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 9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 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 알려 주어라."
- 10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전하여,
- 11 말하였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를 관리하고 기마병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고,
- 12 또한 그를 위하여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고 그의 밭을 갈게 하며 그의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그의 전쟁 도구와 병거 장비들을 만들게 할 것이며,
- 13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 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 14 또한 그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거두어 자기 종들에게 주고,
- 15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원 소출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자기 궁정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 16 또한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빼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가 그의 일을 시키고,
- 17 그가 너희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가져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 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끄러움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 20 우리도 모든 민족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와 귀에 말씀드렸다.
-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워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

- 9 1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으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를의 손자이며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아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 2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아껴 위는 더 컸다.
-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라." 하므로,
- 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실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으며,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 5 ○그들이 숲 땅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암나귀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된다."라고 하니,
- 6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분이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 봅시다.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7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8 그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 손에 은 사본의 일 세겔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9 옛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할 때에는 “선전자에게 가자.”라고 하였으니, 오늘날의 선지자가 옛날에는 선전자로 불렸다.

10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네 말이 좋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갔다.

11 그들이 그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기를 “여기에 선전자가 계십니까?”라고 하니,

12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들 앞에 가셨으니, 이제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13 당신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식사 하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초대 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14 그들이 그 성읍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 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15 사무엘이 오기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1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였는데,

17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관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8 사울이 성문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선전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

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선전자니.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 가시오. 당신들이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내며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 주겠소.

20 사울 전에 있는 당신의 암나귀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이요,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요?”

21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라고 하였다.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그들은 약 삼십 명 정도였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주며 잘 간수하라고 하였던 그 부분을 가져오너라.” 하자,

24 요리사가 넓적다리과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보시오, 따로 남겨 둔 것이니, 당신 앞에 놓고 드시오. 이것은 내가 백성을 초대했소.”라고 말한 이후로 이때까지 당신을 위해 보관해 온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 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 위에서 말하였다.

26 그들이 일찍 일어나니, 동틀 무렵이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말하기를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보내겠소.”라고 하므로 사울이 일어나자,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 종은 우리보다 앞서 지나가도록 하시오.” 하므로 종이 앞서 가니, “당신은 잠깐 서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소.”라고 하였다.

####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10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2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는데, 베냐민 정계 쉼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이 찾으려 했던 암나귀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

게 해야 하나? 라고 말한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 줄 것이요.

3 또 당신이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팔고 가고, 한 사람은 동근 빵 세 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잔을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4 그들이 당신에게 문안하고 빵 두 개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 손에서 건네받으시오.

5 그 후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니, 당신이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작은북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그 산당으로 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6 그때 여호와와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판 사람이 될 것이요.

7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기 때문이요.

8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 줄 때까지 칠일 동안 기다리시오.

9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10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보니,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다.

11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하고,

12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13 그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14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묻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암나귀들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니,

15 사울의 숙부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 다오.” 하였다.

16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실히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잡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였으니,

19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너라.”

20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나아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별로 나아오게 하니, 마디스 족속이 뽑혔으며,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22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짐작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하시므로,

23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을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께 위는 더 컸다.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 하며 소리쳤다.

25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보관하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니,

26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는데,

27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 암몬 사람을 친 사울

11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아베스 길르앗을 포위하였으므로 아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2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편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3 아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칠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

- 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와겠습니다.” 하고,
- 4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이에 가서 백성의 귀에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올었다.
- 5 ○마침 사울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다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는가?” 하니, 그들이 아베스 사람들의 말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
-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 7 소 두 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시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니, 두려움이 여호와와 더불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아왔다.
-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 있었다.
- 9 그들이 아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베스 길르앗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아베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기뻐하였다.
- 10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 11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돌도 함께 있지 못했다.
- 12 ○백성이 시무엘에게 나아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13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 14 시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나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
- 12**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2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늘

- 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 3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쁨 부음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 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 4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 5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쁨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
- 6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라.
- 7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변론할 것이다.
- 8 아굽이 이집트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로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 9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하술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서서 그들과 싸우게 하시므로
- 10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비밀과 이스다룻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1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시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사방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너희가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내게 말하였다.
- 13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 14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

- 다면 족지만,
- 15 너희가 여호와와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와 그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 16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아라.
- 17 오늘은 밀 수확기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 18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 날 천둥과 비를 보내시므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 19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하니,
-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 21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 22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 23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 24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 25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

- 13** 1 ○사울이 “사십 세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년이였다.”
- 2 ○이스라엘 사람 중 삼천 명을 뽑아 이천 명은 므미스와 베엘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천 명은 베냐민의 기브이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야, 들어라.” 하니,

- 4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 5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삼만과 기마병이 육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벳이엘 동쪽 므미스에 진을 치므로,
- 6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 7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칠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 9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나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 10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 11 사무엘이 물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므미스에 모였으므로,
- 12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와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니다.”
-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 14 이제 왕의 왕국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니다.”
-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이로 올라갔다.
-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 보니, 육백 명과량 되었으며,
-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고, 블레셋 사람들은 므미스에 진 쳤는데,
- 17 블레셋 진영에서 돌격대나 켄으로 나누어 나아가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길로 돌아가고,
- 18 한 부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

\*) 히, 나이를 알려 주는 단어가 없고, 칠십인역(헬라이어 구역)에는 삼십 세로 되어 있다.



- 는 경제선 길로 향했다.
- 19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20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쟁이를 버리려면 각자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었는데,
- 21 보습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를 버리고 쇠파대기를 만드는 가락은 한 ‘핍’이었다.
- 22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시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시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게만 있었다.
- 23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므마스 어귀로 나아왔다.

### 블레셋을 습격한 요나단

- 14 1 ○하루는 시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 2 시울은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육백 명가량이며,
- 3 아히아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기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 4 요나단이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 5 암벽 하나는 므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게바를 마주하여 솟아 있었다.
- 6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구원은 손자의 땅과 적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니,
- 7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8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 9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ㄱ) 한 핏은 삼분의 이 세겔

- 10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 11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에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 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 주겠다.”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며,
- 13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었는데,
- 14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같이 넓은 땅에서 무찌른 자가 스무 명가량 되었다.
- 15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자기들끼리 칼로 친 블레셋 군인들
- 16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시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 17 시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수를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아라.” 하므로 그들이 수를 점검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 18 시울이 아히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 19 시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진 가운데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시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멈추도록 하시오.” 하고,
- 20 시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 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들을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 21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시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하였고,
-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 23 그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벳아넌 너머에까지 번졌다.
- 24 ○그 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시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25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수풀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풀이 있었다.
- 26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가 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 27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내밀어 풀을 찍어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다.
- 28 그때 백성 중 한 병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께서 백성에게 엄히 맹세시키면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라고 하니,
- 29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아라, 내가 이 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 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발견한 그 원수들의 노략물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 31 ○그 날 그들이 므마스로부터 이말론에 이르러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백성이 매우 지쳤다.
- 32 백성이 노략물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으니,
- 33 사람들이 시울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이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므로, 시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없이 행했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러와라.” 하고,
- 34 또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고 그것을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마라.’ 하라.” 하였다. 그 밤에 온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의 소를 끌어들여 거기서 도살했다.
- 35 시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 36 ○시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 때에 제사장이

-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 37 시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 38 시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으나 모든 백성 중에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 40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설 것이다.” 하니, 백성이 시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였다.
- 41 시울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 주소서.” 하고 말하니, 백성이 빠지고 요나단과 시울이 뽑혔으므로
- 42 시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게바를 뽑아라.” 하니, 마침내 요나단이 뽑혔다.
- 43 ○시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고하여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제 손에 있던 막대기 끝으로 제가 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보십시오, 제가 죽었습니다.” 하였다.
- 44 시울이 말하기를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것이며 또 더하실 것이다.” 하였다.
- 45 백성이 시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니, 그가 죽지 않았다.
- 46 시울이 블레셋 사람들 쫓기를 그치고 올라갔으므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지역으로 갔다.
-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시울
- 47 ○시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방의 모든 적들, 곧 모압과 압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과 전쟁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정벌하였으니,
- 48 용맹을 떨치며 이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을 그의 약탈자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 49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 아이며, 두 딸의 이름은 맏딸이 메랍이고 작은딸이 미갈이며,  
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고, 그의 군사령관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이며,  
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며, 넬은 아비멜의 아들이었다.  
52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 아말렉과 전쟁한 사울

- 15 1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3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였습시다.  
4 ○사울이 병사들을 조직하여 들리만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이십만이고 유다 사람이 만 명이었다.  
5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면서,  
6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을 떠나 내려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겐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7 사울이 하일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8 아말렉 왕 아각을 산 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9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진 것의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지 않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10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

- 나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 왕께서 갈멜에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와 말씀을 이행하였습시다.” 라고 하자,  
14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 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 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  
15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 떼와 소 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시다.” 하였다.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17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18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하였는데,  
19 왕은 왜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고 노략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와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신 대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으며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으나,  
21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떼와 소떼, 곧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 왔습시다.” 하니,  
22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와 음성을 듣는 것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명령, 곧 당신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소리를

- 들었기 때문입니다.  
25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니,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27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겹옷 자락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다.  
28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29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이나 후회 없이 계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였다.  
30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나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놓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31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32 ○사무엘이 내게로 나오게 하여라.” 고 하니, 아각이 즐거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참으로 사망의 고통이 지나갔구나.” 라고 하였다.  
33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 같이 여자들에게서 아이를 빼앗는 것같이 그 같이 여자를 가운데 하나인 네 어머니에게서도 아이를 빼앗는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잘라 조각냈다.  
34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갔다.  
35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으니,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 16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시므로,  
2 사무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왔다.’ 하고,  
3 제사에 이새를 초청하여라. 네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칠 것이니,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셨다.  
4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펴며 그를 영접하여 말하기를 “평안을 위하여 오십니까?” 하니,  
5 사무엘이 말하기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왔으니, 당신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십시오.”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다.  
6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기를 “ 과연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구나.” 하였으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도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고,  
9 이새가 또 삼마를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으며,  
10 이새가 그의 일곱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들이 전 부임입니까?” 하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를 때까지는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 생겼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므로,  
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 날부터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14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 15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 16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시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 17 사울이 그의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니,
- 18 젊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베들레헨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니, 그는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힘센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며 준수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십니다.”라고 하였다.
- 19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양떼와 함께 있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 20 이새가 락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의 손에 들려 사울에게 보냈다.
- 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무기들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
- 22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서 섬기게 하여라. 그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였다.
- 23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해하며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 이스라엘을 모욕한 골리앗

- 17 1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인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뱃에 진을 쳤고,
-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 3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 4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고,
- 5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으며, 무개가 놋 오천 세겔 되는 비늘갑옷을 입었고,
- 6 그의 다리에는 놋 겹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 7 그의 창 자루는 베를채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 8 그가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 보내라.”
- 9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 10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므로,
-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싸여 매우 두려워했다.

### 사울의 진영에 나타난 다윗

- 12 ○다윗은 유다 베들레헨 에브라타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였다.
- 13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남 엘리압, 둘째 아비나단, 그리고 셋째 삼마이며,
- 14 다윗은 막내였다.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
- 15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헨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 16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사십 일 동안 자신을 과시하였다.
- 17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네 형들을 위해 이 북은 곡식 한 에비와 빵 열 덩이를 가지고 네 형들의 진영으로 빨리 가서,
- 18 이 치즈 열 덩이를 천부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네 형들이 평안한지 살펴본 후 증표를 받아 오너라.”
- 19 ○그때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있었다.
- 20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 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이새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짐을 가지고 떠나 진영에 이르렀는데, 그때 용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나아가 싸우려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 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어 서로 맞섰다.
- 22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 23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올라와 이

- 전에 말한 것처럼 말하니, 다윗이 들었다.
- 24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 서 매우 두려워하여 도망쳤으며,
- 25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 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 집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 26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 줄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라고 하니,
- 27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대답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리이러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 28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너는 여기에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나는 네 오만과 네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니,
- 29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 30 형의 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으니, 백성이 전과 같이 그대로 대답했다.
- 31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 33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므로,
-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 가면,
- 35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 36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 37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 38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놋 투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 39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 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 40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때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릎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 41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 골리앗을 이긴 다윗

- 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 43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 44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 45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네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 47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와 그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 48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아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 49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릎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 50 ○다윗이 무릎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 51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 쳤다.

-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이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주검이 사야림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엮여져 있었다.
- 53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 54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 사울 앞에 선 다윗

- 55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맞서기 위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이브넬에게 말하기를 “이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니, 이브넬이 말하기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 56 왕이 말하기를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 보아라.” 하였다.
- 5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는데,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 58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였다.

- 18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 2 사울이 그 날 다윗을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 3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 4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겹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 5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에게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 다윗을 시기한 사울

- 6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무리와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자들이 작은북과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는데,
- 7 춤추는 여자들이 화답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하구나.” 하였으므로,

-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매우 화를 내며 속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 9 그 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 10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집 안에서 헛소리를 해댔으며,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 11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라고 하였으니, 다윗은 그 앞에서 두 번이나 피했다.
- 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 13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니,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다.
- 14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 15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 16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니, 이는 그가 그들 안에서 출입했기 때문이다.

###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

- 17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큰 딸 메말이 있으니, 내가 네게 아내로 줄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용사가 되어 여호와와 싸움을 싸워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이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 18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며 제 생명이 무엇이며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인가에 제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 19 사울이 자기 딸 메말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자 모를락 사람 이드르엘의 아내로 주었다.
-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였다.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 21 생각하기를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다시 사위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22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은밀하게 말하되 ‘보아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는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하여라.” 하였다.

- 23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이 말들을 전해 주니, 다윗이 말하기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 24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다윗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므로
- 25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되 ‘왕은 신부 값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를 원하신다.’ 하여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 26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기한이 되기도 전에,
- 27 다윗이 일어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 그 수효대로 왕께 바쳐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으므로 사울은 그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 28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그를 사랑하므로,
- 29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평생 동안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 30 ○블레셋의 회회관들이 출전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매우 높아졌다.

###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 19 1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 2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 3 그러면 내가 숨어 있는 들로 나도 나가서 내 부친 곁에서 있다가, 내가 내 부친께 너에 대해 말해 본 후, 내가 본 것을 네게 알려 주겠다.”라고 하였다.
- 4 요나단이 자기 부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였다. “왕은 종 다윗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 5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 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

- 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 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 준 후,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다.
- 8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다윗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므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 9 사울이 자기 집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 10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다윗이 피하여 그 밤에 도망하였다.
- 11 ○사울이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 주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 12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내려 보내니,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 13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고, 염소 털로 그 머리를 만들어 옷으로 덮었는데,
- 14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붙잡으려 하자 미갈은 그가 병들어 있다고 말했다.
- 15 사울이 다윗을 살펴보게 하며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하므로,
- 16 부하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드라빔과 염소 털로 만든 그 머리가 있었다.
- 17 사울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원수를 보내 도망하게 했느냐?” 하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제게 말하되 ‘나를 보내라. 왜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 18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 후, 라마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뭇에 머물렀다.
- 19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의 나뭇에 있습니다.”라고 하니,
- 20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
- 21 사람들이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하니, 그가 다른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 역시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예언을 하였다.
- 22 그러므로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굴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라마의 나뭇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23 사울이 거기서 라마의 나뭇으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라마의 나뭇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며 걸어갔다.

24 또한 그가 자기 옷을 벗어 버렸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으며, 그 날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다.

### 언약을 맺은 다윗과 요나단

20 1 ○다윗이 라마의 나뭇으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형의 부친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하니,

2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알려 주지 않고는 하지 않으신다. 내 아버지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숨기시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3 다윗이 다시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형에게는 해를 받은 줄을 형의 부친께서 분명히 알고 생각하기를 ‘요나단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 일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 살아 계신 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와 죽을 사이는 한 발짝차입니다.”라고 하니,

4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라고 하자,

5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내가 마땅히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야 할 것이나, 내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삼일 저녁까지는 들에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만일 형의 부친께서 나를 찾으시면, 형은 ‘온 가족을 위한 대내제가 있기에 때문에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7 만일 그분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형의 종이 평안하겠지만, 만일 그분이 심히 노하시면 그분이 나를 해하시길 원하니, 형은 종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이는 형이 종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허물이 있다면 나를 형의 부친께 데려갈 이유가 없으니, 형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9 요나단이 말하기를 “결코 그러한 일이 네게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고 결심한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니,

10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혹시 형의 부친께서 형에게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내게 알려 주겠습니까?” 하자,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나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나갔다.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를 살피서 다윗 너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시면 그때에 내가 네게 사람을 보내 너에게 알려 주지 않겠느냐?”

13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시는데, 내가 평안히 가도록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해하시고 또 더 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14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너는 내게 여호와와 인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여라.

15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 버릴 때에도 너는 영원히 내 집에서 네 인애를 끊지 마라.”

16 그리하여 요나단이 다윗의 짐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17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다시 맹세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만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18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루날이니 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너를 찾으실 것이다.”

19 네가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 네가 숨으려고 했던 그 장소로 가서 예셀바워 곁에 머물러라.

20 내가 과녁을 향해 쏘는 것처럼 하여 화살 세 개를 그 곁에 쏘고,

21 소년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아라.’ 하고 만일 내가 소년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면 너는 돌아와라. 여호와와 살아 계신으로 맹세하니, 내가 평안할 것이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22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이 너보다 멀리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게 하신 것이니 가지라.

23 보아라, 나와 네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24 ○다윗이 들에 숨었다. 초하루날이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25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 곧 벽쪽의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일어섰으며,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26 ○사울이 그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가 정결치 못하구나. 그가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7 다음날, 곧 그 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왜 여제와 오늘 식사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제게 간청하여,

29 말하기를 ‘부디 나를 보내 주십시오. 고향에서 우리 집안의 제사가 있으므로 내 형이 내게 오라고 명령했으니, 이제 만일 내가 형의 호의를 입었다면 내가 가서 내 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오지 못했습니다.”

30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네 수치이며 벌거벗은 네 어미의 수치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31 이새의 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네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참으로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32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가 왜 죽어야 하나?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하자,

33 사울이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하니, 요나단은 자기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다.

34 요나단이 몸서리가 나서 그 식탁에서 일어났고, 그는 그 달 초이튿날에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므로 그를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다.

35 ○아침이 되어 요나단은 다윗과 정한 시간에 소년을 데리고 들로 나가,

36 자기 소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라.” 하니, 그 소년이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그의 위로 지나가도록 화살을 쏘았다.

37 그 소년이 요나단이 쏘 화살이 있는 곳까지 갔을 때, 요나단이 그 소년 뒤에서 소리쳐 말하기를 “화살이 너보다 멀리 있지 않느냐?” 하고,

38 그 소년 뒤에서 외치기를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여라.” 하니, 요나단의 소년이 화살을 주워서 그 주인의 곁에 돌아왔다.

39 그러나 그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40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소년에게 주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져

라.” 하고

41 그 소년이 떠나자 다윗이 바위 남쪽에 서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올랐으니 다윗이 더 심하였다.

42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친히 맹세하였다.”라고 한 후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다윗

21 1 ○다윗이 놋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라고 하였다.

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일을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였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3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다섯 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4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오직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출발한 이후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여행 길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6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 놓은 빵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빵은 따뜻한 빵을 차려 놓기 위해 식은 빵을 치우는 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7 그 날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거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엑이니, 에돔 사람들이 사울의 목장이었다.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하여 제가 칼이나 무기를 손에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9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처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천으로 싸여서 에돔 뒤에 있으니,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 여기는 그것 외

- 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10 ○그 날 다윗이 일어나 시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그를 추며 노래하기를  
‘시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하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였다.
- 12 다윗이 이 말을 자기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 13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어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미친 채하고 성의 문턱을 급격히 뛰어넘어, 그의 침을 수염에 흘렸다.
- 14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듯이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왜 너희가 이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 15 내게 미치광이들이 부족하여 이 사람을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와야 하느냐?” 하였다.

#### 놈의 제사장들을 죽인 시울

- 22 1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 2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사백 명가량 되었다.
- 3 ○다윗이 거기서부터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 4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 왕과 함께 머물게 하니, 다윗이 요새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 5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하니, 다윗이 가서 헤트 수풀에 이르렀다.
- 6 ○시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 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울은 기브아에 있는 라마의 애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서 있었다.
- 7 시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배나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 8 참으로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공모하

- 였느냐? 내 아들과 이새의 아들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내게 알려 주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서 오늘처럼 매복하여 나를 치려 하는데도 너희 중에 나에 대해 염려하거나 내게 알려 주는 자가 없구나.” 하니,
- 9 그때 애틀 사람 도엑이 시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대답하였다. “이새의 아들이 눈에 와서 이히돔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 10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 11 ○왕이 아히돔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곧 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 나왔다.
- 12 시울이 말하기를 “아히돔의 아들아, 들어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 13 시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왜 내가 나를 대적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고, 빵과 칼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가 오늘처럼 매복하였다가 일어나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 14 아히멜렉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이 충성스럽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고, 왕의 경호대장이며 왕의 집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 15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코 아니합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제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 일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크든 작든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 16 왕이 말하기를 “아히멜렉아, 너와 네 아버지의 온 가족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 17 그의 곁에 서 있는 경호원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여호와와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손을 잡았고,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자기의 손을 들어 여호와와 제사장들을 치려 하지 않았다.
- 18 왕이 도엑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라.” 하니, 애틀 사람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치고 그날 가는 배 에봇을 입은 사람 팔십오 명을 죽였고,
- 19 또한 제사장들의 성을 놈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에 이르기까지 칼날로 쳤다.
- 20 ○아히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달이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하여,

- 21 시울이 여호와와 제사장들을 살육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 주니,
- 22 다윗이 아비달에게 말하기를 “그 날 애틀 사람 도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울에게 반드시 알려 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네 아버지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으니,
- 23 나와 함께 머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고 있으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하였다.

####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

- 23 1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면서 타작마당을 약탈했습니다.” 하였다.
- 2 그러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제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하였다.
- 3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려고 그일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 4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 5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그들의 가족을 끌어 왔으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했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 7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시울이 알게 되자, 시울이 말하기를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하고,
- 8 시울이 싸우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하였다.
- 9 다윗은 자신에 대한 시울의 악한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달에게 에봇을 가져 오라 하고,
- 10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시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그일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주님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 11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들은 대로 시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부디 주님의 종에게 알려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

- 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시므로,
- 12 다윗이 다시 말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시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하였다.
- 13 다윗과 그 부하 육백 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에서 나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으니, 시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 14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머무르고 심 광야의 산에도 머물렀는데, 시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시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 다윗을 추격한 시울

- 15 ○다윗은 시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고 심 광야에 있는 호르세에 있었는데,
- 16 시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르세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으니,
- 17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시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시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 18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호르세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다.
- 19 ○심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시울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있는 호르세의 요새에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않습니까?”
- 20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원하시는 때 언제라도 내려오시면,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
- 21 시울이 말했다. “너희가 내게 공물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 22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교활하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다시 확인하고 살펴서 그가 숨은 곳과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아라.
- 23 너희는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알아보고 증거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의 어느 족속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 24 ○그들이 일어나 시울보다 앞서 심으로 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아라바의 마온 광야에 있었다.
- 25 시울과 그의 부하들이 찾은 온 것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니,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있었으므로 시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였다.
- 26 시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



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황급히 떠났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여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27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하니,

28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갔으므로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 하마스곳이라” 불렀다.

29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 사울을 살려준 다윗

24 1 O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2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난 사람 삼천 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 앞으로 가서,

3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밭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숙이 앉아 있었다.

4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라고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5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가책을 받아,

6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8 O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라고 부르자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9 사울에게 말했다.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10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는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었습니다.

11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겹옷 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의 겹옷 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제 손에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12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3 옛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라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으며 누구를 추격하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 O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소리로 대하니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니,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18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 네가 나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오늘 보여 주었다.

19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20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네 손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21 그러나 이제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와 내게 맹세하여라.”

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자, 그 후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다윗

25 1 O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라미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 다윗이 일어나 비란 광야로 내려갔다.

2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목장은 갈멜에 있었고, 매우 부자였다. 그는 양 삼천 마

리, 염소 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멜에서 자기 양의 떼를 깔고 있었다.

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였으므로 갈멜 족속이었다.

4 다윗은 나발이 그의 양떼를 깔고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5 부하 열 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그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6 그 부하에게 그의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집도 평안하고, 당신께 속한 모든 자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7 당신에게 양떼 깎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은 갈멜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8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 보면 당신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주십시오.’”

9 O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하고 기다리니,

10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11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떼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

12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의 길로 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보고했다.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찢으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찢다. 그리고 사백 명과 함께 다윗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14 O 종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다. “다윗이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에게 인사하러 했는데, 주인님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15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잘해 주었고, 우리가 들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16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17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나 주인님은 불쌍한 사람이라 그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18 O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이백 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요리된 양 다섯 마리, 붉은 곡식 다섯 세아, 건포도 백 통치, 그리고 무화과 이백 통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싣고,

19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안소 가져라. 보아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의 으스스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여자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여자가 그들을 만났다.

21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일이였다. 그는 선을 악으로 내게 갚는구나.

22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 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23 O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4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겠으니, 여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25 내 주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으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여종인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6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당신도 살아 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죄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27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28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만드실 새우실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9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추격하여 목숨을 노린다면,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보자기에 싸여 있겠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무엇때로 던지듯이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 다시 사울을 살려준 다윗

- 26** 1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여기서 있는 편 하길 라 산에 숨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  
2 사울이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  
3 여기서 맞은편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을 쳤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4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벨의 아들 아브넬이 자는 곳을 살피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 주위로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다.  
6 ○다윗이 헛사람 이히엘과 요압의 아우이며 스루아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묻기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와서 보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그의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이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8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제가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9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10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11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자.”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지만, 이를 보거나 눈치채거나 깨는 사람이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다윗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가 멀었다.  
14 다윗이 벨의 아들 아브넬과 그 백성에게 외쳐 말하기를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누구에게 왕을 부르느냐?” 하므로,  
15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너는 대장부가 아

- 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어쩌하여 네가 네 주 왕을 지키지 않느냐? 참으로 백성 중 하나가 네 주 왕을 없애려고 들어갔었다.”  
16 네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다. 너희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너희 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하고,  
18 또 말했다. “내 주께서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며 추격하십니까? 참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19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하셨다면 그분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유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말했기 때문이다.  
20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 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께서는 산의 매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21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며 대단히 잘못했다.” 하니,  
22 다윗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창입니다. 종들 중 하나를 건너오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23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 값어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기셨으나 저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에게 제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시다.  
24 보십시오,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역경 중에서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25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 받기를 바란다. 너는 분명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니, 다윗은 자기가 갈 길로 갔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 27** 1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제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녕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2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육백 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3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각자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으며,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이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기일과 함께 하였다.  
4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사울에게 알려진 후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5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들에 있는 성읍들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라고 하니,  
6 그 날 아기스가 시글라를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라가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다.  
8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사 사람과 이말레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옛적부터 술을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비를 살려 두지 않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갔다.  
10 아기스가 묻기를 “오늘은 누구를 침략했느냐?” 하면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의 남방과 여러무열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라고 하였다.  
11 다윗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드로 데려가려고 살려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와 같이 하니, 블레셋 사람의 들에 사는 동안 내내 그의 습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다.  
12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하였다.

## 신성한 여자를 찾아간 사울

- 28** 1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아기



- 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와 네 부하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라.” 하니,
- 2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 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의 성을 라미에 장사 지냈고, 시울은 그 땅에서 신성한 자와 영매를 쫓아내었다.
-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벰에 이르러 진을 치니, 시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 5 시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으므로,
- 6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 7 시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성한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묻겠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신성한 여자가 엔들에 있습니다.” 하였다.
- 8 ○시울이 변장하여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두 명의 부하와 함께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 점을 치는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 9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시울이 행한 일, 즉 그가 신성한 자와 영매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당신도 아실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 목숨에 올무를 놓아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니,
- 10 시울이 그 여자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로 인해 내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11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누구를 불러올까요?”라고 하니, 시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 12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시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시울입니다.”라고 하니,
- 13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여자가 시울에게 말하기를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니,
- 14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의 모양이 어떠한가?”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시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 15 ○사무엘이 시울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불러 올려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 시울이 말했다. “저는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다시는 제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 16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으며,
- 17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시어 여호와께서 왕국을 네 손에서 찢어 내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 18 네가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 19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 20 ○시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쓰러지니, 그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또한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여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21 그 여자가 시울에게 와서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왕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따라, 내 목숨을 걸고 왕께서 제게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 22 이제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약간의 음식을 차리겠습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려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 23 시울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그의 신하들과 그 여자도 간청하므로, 그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 24 그 여자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가 반죽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워,
- 25 시울과 그 부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날 밤에 떠났다.

####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된 다윗

- 29 1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크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
- 2 블레셋 군주들이 수백 혹은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따라 나아가니,
- 3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

- 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라고 하므로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시울의 신하가 아니냐?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내게도 피해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 하였다.
- 4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게 분노하여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그의 거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는 전쟁에 우리와 함께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 5 사람들이 춤추면서 “시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구나.”라고 칭송했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닙니까?” 하였다.
-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며,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나와 함께 진영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장군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 7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장군들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 8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했으며 제가 왕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왕께서 왕의 종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제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라고 하니,
- 9 아기스가 대답하여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장군들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려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
- 10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으면 떠나라.”
- 11 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 아말렉을 무찌른 다윗

- 30 1 ○제 삼일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브와 시글락을 침략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 2 여자들과 그 성에 있던 자들을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로잡아 갔으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갔었다.

- 3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으므로,
- 4 다윗과 그의 함께한 병사들이 울 함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 5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렐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기일로 사로잡혀 갔다.
- 6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내게로 가져 오너라.” 하니, 아비야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 8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이 무리들을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거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녕 도로 찾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 9 다윗과 그의 함께한 부하 육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까지 이르러서는 뒤쳐진 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으니,
- 10 곧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이백 명은 그곳에 머물게 했고 다윗과 사백 명은 계속 추격하였다.
- 11 ○부하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 12 그에게 무기와 한 덩이와 전포도 두 송이를 주므로 그가 먹고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그가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13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니, 젊은이가 말하기를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제가 병들자 삼일 전에 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 14 우리가 글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렐의 남방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하였다.
- 15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무리들에게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저를 죽이지도 않고 저를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제게 맹세하시면 제가 당신을 그 무리들에게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였다.
- 16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는데, 보라,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그 엄청난 노략물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 사 무 엘 하

- 17 다윗이 동틀 때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죽였으니,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백 명의 젊은 사람들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 18 다윗이 아말렉이 탈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았으며, 또 자기 두 아내도 구출했고,
- 19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노략물이나 그들이 탈취한 어떤 것도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 20 또 다윗이 모든 양 떼와 소 떼를 되찾았으니, 그들이 가축 떼를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노략물이다.”라고 말했다.
- 21 ○다윗이 전에 너무 피곤하여 자신의 뒤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이백 명의 부하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오므로 다윗이 그 병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문안하였다.
- 22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중 약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다만 그들 각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라.” 하므로,
- 23 다윗이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치려 온 무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24 누가 이 일에 관해 너희 말을 들겠느냐? 싸우러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을 똑같이 나눠야 할 것이다.”
- 25 그 날 이후로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자기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노략물 중에서 일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은 여호와와 원수들에게서 노략한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고,
- 27 베델에 있는 자들과 리못 남방에 있는 자들과 잇달에 있는 자들과,
- 28 아로엘 사람들과 심못 사람들과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들과,
- 29 라갈 사람들과 여러므엘 성읍에 있는 자들과 겐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들과,
- 30 홀마에 있는 자들과 고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닥의 사람들과,
- 31 헤브론에 있는 자들, 곧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다녔던 모든 곳에 그 선물을 보냈다.

## 사울의 죽음 (대상 10:1-14)

- 31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 2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쫓아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넛과 말기수이를 죽였다.
- 3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니,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으므로,
- 4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칼을 빼어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 5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역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그와 함께 죽었으니,
-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 날 함께 죽었다.
- 7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았다.
-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장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 10 그들이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벧산 성벽에 매달았는데,
- 11 길르앗 아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 12 모든 용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벧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아베스로 와서 거기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 13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아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묻고 칠일 동안 금식하였다.

##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

- 1 1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들을 머물렸다.
- 2 사울째 되던 날, 보아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 3 다윗이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다.
- 4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도망쳤고,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5 다윗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니,
- 6 다윗에게 알려주는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계셨고,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 7 사울 왕이 뒤돌아 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니,
- 8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므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9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시므로,
- 10 그분이 엎드린 후에는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와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 13 다윗이 자기에게 알게한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거류민으로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였다.
- 14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네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 15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하였으므로 그 병사가 치니, 그가 바로 죽었다.
- 16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네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였다.

##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한 다윗

-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고,
- 18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명했는데, 곧 할 노래였으니, 보아라, 그것이 아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 19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져 있는가.
- 20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 21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제물을 낼 말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었다.
- 22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 23 사울과 요나단이며,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 24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 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 금 장식을 달아 주었다.

- 25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려졌는가?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26 내 형, 요나단아,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 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 하였습니다.

- 27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

- 2 1 O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라고 하셨다.  
2 다윗이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기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으며,  
3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서 살았다.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O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니,  
5 다윗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6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7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윗 집과 사울 집 사이의 전쟁**

- 8 O 사울의 군사령관 벨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니임으로 건너가,  
9 그를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및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십 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년 동안 다스렸으며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는데,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던 해수는 칠년 육 개월이었다.  
12 O 벨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니임에서 기브온으로 갔고,  
13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도 나아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과 서로 마주쳤으니,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다른 편은 연못의 저쪽에 머물렀다.  
14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병사들끼리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고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였으므로  
15 그들이 일어나 수효대로 건너갔는데,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열두 명이고, 다윗의 신하들 중에 열두 명이었다.  
16 그들이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그들이 함께 쓰러졌으므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깃앗수림이라 불렀다.  
17 그 날 싸움이 매우 치열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하였다.  
18 O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시헬이 있었는데, 아시헬의 발은 들판의 노루처럼 빨랐다.  
19 아시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되, 아브넬을 뒤쫓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20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네가 아시헬이냐?”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그래, 나다.” 하였다.  
21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병사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이나 빼앗아 가져라.” 하고 말했으나, 아시헬이 그를 뒤쫓는 데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  
22 다시 아브넬이 아시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뒤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여 땅에 쓰러지게 해야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하였으나,  
23 그가 돌아가기를 거절하므로, 아브넬이 자기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아시헬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멈추어 섰다.  
24 O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다 보니, 해가 졌는데, 그때 그들은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도달해 있었다.

- 25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자손은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어 언덕 꼭대기에 섰다.  
26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하기를 “칼이 계속해서 사람을 삼키도록 해야 하겠느냐? 결국은 비참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백성에게 자기 형제들을 쫓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겠느냐?” 하니,  
27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이 되어서야 백성이 자기 형제 쫓기를 그쳤을 것이다.” 하였다.  
28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다.  
29 O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아라바로 가서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니임에 이르렀다.  
30 요압이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 십구 명과 아시헬이 없었으니,  
31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의 부하들을 쳐서 삼백육십 명을 죽였다.  
32 그들이 아시헬을 때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밝아 왔다.

**다윗의 아들들 (대상 3:1-4)**

- 3 1 O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2 O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말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났고,  
3 둘째는 길르암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기일에게서 났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4 넷째는 아도니야로 학깃의 아들이며, 다섯째는 스바다로 아비달의 아들이었고,  
5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의 아내 예글라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간 아브넬**  
6 O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잡게 되었다.  
7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느냐?”라고 하니,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로 보입니까? 내가 오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이 여자로 인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하십니까?”

- 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며,  
10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11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12 O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값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13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보리 올 때에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내 앞에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 다윗이 전령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 일백을 주고 청혼했던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넘겨주시오.”라고 하므로,  
15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에,  
16 그 여자의 남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오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거라.” 하므로 그가 돌아갔다.  
17 O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요구해 왔으니,  
18 이제 그렇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들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19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20 O 아브넬이 부하 이십 명과 함께 헤브론의 다윗에게 이르렀으므로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21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 모으고 그들로 왕과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십시오.”라고 하였고,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평안히 떠나게 했다.

####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

22 ○요압아,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으니, 다윗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갔기 때문이었다.

23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돌아오자 사람들이 요압에게 보고하기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평안히 갑니다.”라고 하였다.

24 요압이 왕께 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か?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가게 하였습니다か?”

25 왕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는 대로 그는 왕을 죽이고, 왕께서 출입하시는 것과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6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하니, 그들이 시라 우물 근처에서 그를 데려왔으나,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다.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으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 때문이었다.

28 그 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왕국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29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요압의 집에서는 출혈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는 자와 칼에 맞아 죽는 자와 양식이 모자라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30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31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여라.” 하고, 다윗 왕이 상여 뒤를 따라갔다.

32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왕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므로 모든 백성도 울었다.

33 왕이 아브넬을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죽는 것같이 아브넬이 죽다니,

34 네 손이 묶이지 않았고, 네 발이 족쇄를 차지도 않았는데, 악인을 앞에 쓰러지듯이 네가 쓰러졌구나.”

라고 하니, 온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었다.

35 아직 낮일 때, 모든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기를 “해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어떤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36 온 백성이 이를 알고 좋게 여겼으니, 온 백성이 보기에 왕이 하는 모든 일이 좋았으므로,

37 그 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38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군이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 날 약하여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행하는 자에게 그의 악행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 살해 당한 이스보셋

4 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손에서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2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으로서, 그들은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 역시 베냐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니,

3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 날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었다.

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는 다섯 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었다.

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그 날 햇볕이 뜨거울 즈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6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밭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7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자기 침실의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그 머리를 들고 아리바 길로 밭새도록 갔다.

8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라고 하니,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속하신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10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의 소식에 대한 보응을 삼았다.

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의 피를 너희의 손에서 찾지 않겠으며, 너희를 땅에서 없애 버리지 않겠느냐?” 하였다.

12 다윗이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으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대상 11:1-3)

5 1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2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3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오자, 헤브론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쁨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4 다윗이 삼십 세에 왕이 되어,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니,

5 헤브론에서 칠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 시온을 점령한 다윗 (대상 11:4-9; 14:1-2)

6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였으니, 그들은 다윗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했으니, 그곳이 곧 다윗 성이다.

8 그 날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하게 되었다.

9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요새에 거주하며 그곳을 다윗 성이라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돌아가며 성을 쌓았다.

10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므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11 ○그때에 두로 왕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으니,

12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 다윗의 자녀들 (대상 14:3-7)

13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 후예 예루살렘에서 다시 첩과 아내들을 얻었고, 다윗에게 또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으니,

14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바, 나단, 솔로몬,

15 인할, 엘리수아, 네벵, 아비아,

16 엘리사마, 엘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 블레셋에게 승리한 다윗 (대상 14:8-17)

17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쁨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라오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18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으므로,

19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 시겠습니까?”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셨다.

20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흠으실같이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흘리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치었다.

22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23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뿔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24 뿔나무 숲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곧 진격해라. 그때 나 여호와가 너보



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죽일 것이다.” 하시니,  
**25**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긴 다윗

(대상 13:1-14; 15:25-16:6, 43)

- 6**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2**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바일레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니, 그 궤는 그를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다.  
**4**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작은 북과 양금과 제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6**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소들이 뛰자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으므로,  
**7**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시므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일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었으므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리스웃이라고 부른다.  
**9** 그 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여호와와 궤가 내게로 올 수 있겠는가?” 하고,  
**10** 다윗이 여호와와 궤를 다윗 성, 자기에게로 옮기려 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달 동안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12**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우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다윗이 기뻐하며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13** 여호와와 궤를 댄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이 소와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 드리며,  
**14** 베로 만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1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16** ○여호와와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7** 그들이 여호와와 궤를 운반하여, 다윗이 궤를 위해 쳐 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19**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집에 복을 빌어 주기 위해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마치 방탕한 자가 부끄럼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께서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을 눈앞에서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이요.”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내 눈에게까지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이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였다.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 다윗의 집에 대해 예언한 나단

(대상 17:1-15)

- 7** **1**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3**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4**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 5**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6**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니  
**7**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절하였고,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10**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11**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심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네게 선포하니, 여호와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12** 네 날들이 다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후손을 네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혼계할 것이나,  
**15**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에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16** 네 집과 네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기도한 다윗** (대상 17:16-27)  
**18**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19**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

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20**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었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21**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22** 그러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23**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므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24**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25**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26**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 하고 말할 것이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8**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29**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

(대상 18:1-17)

- 8**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암 마를 빼앗았다.  
**2** ○또 다윗은 모압을 친 후 그들을 땅에 눕게 하

고 줄로 재어, 두 줄을 재어 죽이고, 한줄 가득 하는 살리니,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3 ○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출전했을 때 다윗이 그를 쳤고,  
4 그들로부터 기마병, 전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백 대의 말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5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였으며,  
6 다마스쿠스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7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 왔고,  
8 하닷에셀의 성읍인, 베다와 베로대에서 다윗 왕이 매우 많은 노획을 빼앗았다.

9 ○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10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그가 하닷에셀과 싸워 격파한 것을 축하하게 하니, 이는 도이가 하닷에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람은 온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11 다윗 왕은 이것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얻은 것들 중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으니,  
12 그것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들이었다.

13 ○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명성을 얻었으며,  
14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으므로,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15 ○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었으며,  
16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ئ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었으며,  
17 아히독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는 서기관이 되었으며,  
18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

었다.

### 므비모셋을 선대한 다윗

9 1 ○ 다윗이 말하기를 “시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하였다.

2 시울의 집에 시바라는 이름의 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오므로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가 “제가 왕의 종입니다.”라고 대답했다.

3 왕이 “시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입니다.” 하였다.

4 왕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에게 물으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 시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모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므로, 다윗이 그에게 “므비모셋아” 하고 부르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왕의 종입니다.”라고 하였다.

7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네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네 할아버지 시울의 발을 전부 네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  
8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하였다.

9 ○ 왕이 시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하기를 “시울과 그의 온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10 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소산을 가져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네 주인의 손자 므비모셋은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하였다. 시바에게는 아들 십오 명과 종 이십 명이 있었다.

11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종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므비모셋은 왕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12 므비모셋에게 미기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들이 있었고,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므비모셋의 종이 되었으며,

13 므비모셋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 암몬을 쳐서 승리한 다윗

(대상 19:1-19)

10 1 ○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다.

2 다윗이 말하기를 “그의 부친이 내게 은총을 베풀 것처럼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부친에 대해 조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했을 때,  
3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 것이 그가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4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절반 곧 볼기까지 자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니,  
5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기고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하였다.

6 ○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 사람과 소바 사람과 아람의 보병 이만 명과, 마이가 왕과 함께 그의 부하 일천 명과 돌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했다.

7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내니,  
8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전투 대열을 벌였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과 마이가와 돌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었다.

9 ○ 요압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전선이 앞뒤로 형성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정예병을 뽑아 아람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10 또 남은 병사들은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게 하고,  
11 말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12 강하여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13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과 싸우러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14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으므로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

15 ○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다 함께 모였다.

16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헬람으로 왔는데,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의 선두에 섰다.

17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갔으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다윗이 아람 사람 중에서 병거 칠백 대의 병사와 기마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군사령관 소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19 하닷에셀에게 속한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암몬 자손들을 더 이상 돕지 않았다.

### 밋세바와 동침한 다윗

11 1 ○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2 ○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3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관해 알아보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로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닙니까?”라고 했다.

4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니, 그 여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였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6 ○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7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묻고,  
8 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네 집으로 내려가 네 발을 씻어라.”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왕궁



- 에서 나갔고,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랐다.
- 9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 10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 길에서 방금 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였다.
-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연약제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 다음날
- 13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으나, 그는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 14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 15 기록하기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하였다.
- 16 요압이 그 성을 살피다가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 17 그 성을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병사들 중 다윗의 부하들의 일부도 쓰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 18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의 모든 상황을 보고할 때,
- 19 그 전령에게 명령하기를 “네가 전쟁의 모든 상황을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 20 만일 왕이 진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가까이 나아가 싸웠느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 위에서 쏜 줄을 물랐느냐?’
- 21 여루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맷돌 위쪽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데벳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으로 가까이 나갔었느냐?’ 하시면, 너는 ‘왕의 종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말해라.” 하였다.
- 22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자기를 보내 전하라는 모든 것을 보고하여,
- 23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 더 강하여 들에 있는 우리를 공격했으나, 우리는 성문 어귀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 24 활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으므로 왕의 부하들 중 몇이 죽고, 왕의 부하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니,
- 25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니, 너는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너는 더욱 힘써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라.”고 하여 그를 격려하여라.” 하였다.
- 26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해 애곡했다.
- 27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 다윗을 책망하신 여호와

- 12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므로,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 2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 3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양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 4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 5 다윗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 6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7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 8 또한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 저것을 네게 더해 주었을 것

- 이다.
- 9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와 말씀은 업신 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헛 사람 우리아를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느냐?
- 10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 11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네 집에서부터 네게 재앙을 일으키고, 네 눈앞에서 네 처들을 붙잡아 네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네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 13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 14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와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신 여호와
- 15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가서 밤을 새우며 땅에 엎드렸다.
- 17 다윗 왕궁의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 18 제 칠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나, 이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시지 않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다.
- 19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20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를 바른 후,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

- 21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슬퍼나 음식들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하니,
- 22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 24 ○다윗이 자기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 25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 랍바를 점령한 다윗 (대상 20:1-3)
- 26 ○요압이 암논 자손의 랍바를 공격하여, 그 왕국의 수도를 점령하였다.
- 27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제가 물들의 성을 랍바와 싸워 점령했습니다.
- 28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남은 백성을 모아서 이 성을 대항하여 진을 치시고 이것을 점령하시어, 제가 이 성을 점령하여 이 성읍이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니,
- 29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다.
- 30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였으며,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고, 또 그 성읍에서 매우 많은 노략물을 가져왔으며,
- 31 그 성에 사는 백성을 데려와서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암논 자손의 모든 성읍에 이와 같이 한 뒤에, 다윗과 모든 병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다말을 욕보인 암논

- 13 1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다윗의 아들 암실론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저를 사랑하니,
- 2 다말이 처녀이어서 암논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 병이 났다.
- 3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심히 간교한 자이었다.

- 4 그가 압논에게 말하기를 “왕자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날이 이렇게 수척해지십니까? 내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자, 압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5 요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병든 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부친께서 왕신을 보러 오실 때,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음식을 준비하되,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누이 손에서 받아먹고 싶습니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 6 압논이 누워서 병든 채하므로, 왕이 그를 보러 오니, 압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제 눈앞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제가 누이의 손에서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 7 ○다윗이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 압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라.” 하였다.
- 8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압논의 집으로 가니, 그때 그는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와 반죽하고 그의 눈앞에서 빚어 과자를 구운 뒤,
- 9 냄비와 그것을 담은 그릇을 그 앞에 가져왔으니, 먹기를 거절하고 압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내보내라.” 하니, 모든 사람이 나갔다.
- 10 압논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내가 네 손에서 받아먹겠다.” 하므로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있는 그의 오라비 압논에게로 가서,
- 11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니, 압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므로
- 12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오라비니, 안 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 13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라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는 나를 오라비에게 주기를 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14 그러나 압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강제로 동침했다.
- 15 ○그 후 압논이 저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는데 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저를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컸으므로, 저에게 “일어나 가라.” 하였다.
- 16 다말이 그에게 말하기를 “안 됩니다. 오라비

- 니가 나를 욕보인 악행보다 나를 쫓아내는 이 악행이 더 큼니다.”라고 하였으나, 그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 17 그가 시종드는 종을 불러 말하기를 “자, 너희는 이 여자를 밖으로 쫓아내고, 그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다.
- 18 처녀인 왕의 딸들은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말은 소매 있는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압논의 종이 다말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다.
- 19 다말이 자기 머리 위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던 소매 있는 긴 옷을 찢으며 자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는 동안 내내 울었다.
- 20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니 압논이 나와 함께 있었느냐? 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이라. 그는 네 오라비이니, 이 일로 마음 쓰지 마라.” 하였으므로, 다말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 21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매우 노했다.
- 22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압논을 미워하였으나 그에게 좋은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23 ○이년 후에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술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다.
- 24 압살롬이 왕께 나아와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왕의 종이 양털을 깎으려 합니다.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 25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같이 갈 것이 없으니,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간청했으나 다윗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게 복을 빌었다.
- 26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부디 내 형 압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왕이 그에게 “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고 물었으나,
- 27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므로, 왕은 압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 28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압논이 술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때를 살피다가, 내가 압논을 쳐 죽이라고 너희에게 말하면,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용기를 내라.” 하였다.
- 29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압논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 30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쳐 죽여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

- 문이 다윗에게 들렸으므로,
- 31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모시고 섰던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었다.
- 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 주여, 그들이 젊은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압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33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는 말을 마음에 두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압논 혼자만 죽었을 것입니다.”
- 34 ○한편 압살롬은 도망쳤고, 보초 서는 병사들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산비탈 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 35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자들이 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 되었습니다.” 하였다.
- 36 그가 말을 파쳤을 때,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통곡했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대성 통곡했다.
- 37 ○압살롬이 도망쳐 그술 왕 암미훔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으며,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였다.
- 38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삼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다.
- 39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요압

- 14 1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 2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한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부탁이니, 당신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그러나 기름은 바르지 말고,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나서,
- 3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고 요압은 그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 4 ○드고아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말하기를 “도와 주십시오, 왕이시여.” 하니,
- 5 왕이 그 여자에게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제 남편이 죽어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 6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가 들에서 싸우니, 그들을 팔려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 7 보십시오, 온 집안이 일어나 왕의 여종에게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라. 우리가 그가 죽인 자기 형제의 생명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가 저를 죽여 상속자조차 끊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게 남은 불씨를 꺼서, 제 남편의 이름과 자손도 세상에 남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 8 ○왕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 집으로 가져라. 내가 네 일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하니,
- 9 드고아의 여자가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그 허물은 저와 제 아버의 집에 있을 것이니, 왕과 왕의 보좌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10 왕이 말하기를 “네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데려오너라. 다시는 그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하니,
- 11 그 여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피를 보복하려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을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12 ○그 여자가 또 말하기를, “청하오니, 왕의 여종이 나의 주 왕께 한 말씀만 더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왕이 “말해라.” 하므로,
- 13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는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 14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이고 땅에 쏟아지면 다시 모을 수 없는 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쫓긴 자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백책을 배부십니다.
- 15 그러므로 제가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므로 왕의 여종이, ‘내가 왕께 말씀드리면, 혹 왕께서 여종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나이?’
- 16 곧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으려는 자의 손에서 왕의 여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17 또 왕의 여종은 내 주 왕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악을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



- 게하시기를 원합니다.”
- 18 ○왕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마라.”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 19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했느냐?” 라고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왕의 종 요압, 그가 내게 명령했고, 그가 이 모든 말들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 20 왕의 신하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이 일을 행한 것이나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 21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 일을 시행할 것이니, 가서 그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하므로,
- 22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종이 청한 일을 왕께서 행하시니, 오늘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왕의 종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23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니,
- 24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므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 26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연마다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달아 보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다.
- 27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 그 딸의 이름은 디말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 28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이년 동안 머물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 29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사람을 요압에게 보냈으나 그는 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고 하지 않았다.
- 30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요압의 말이 내 발 옆에 있고, 거기에 그의 보리가 있으니, 가서 그것에 불을 질러라.” 하므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 31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라고 하니,
-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어 ‘이리로 오시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어 ‘왜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내게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려 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뵈고자 하니, 만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께서 나를 죽이도록 해 주시오.” 라고 하였다.
- 33 요압이 왕에게 가서 보고하자 왕이 압살롬을 부르므로, 그가 왕에게 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었다.

###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

- 15 1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오십 명의 전위대를 마련했다.
- 2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옆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관을 청하러 왕에게 나아올 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묻기를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 3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네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 4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소송이나 재판이 있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였다.
- 5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 6 재판 때문에 왕에게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 7 ○사년의 끝이 되어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 8 왕의 종이 이람의 그술에 있을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므로,
- 9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 10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첩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

- 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말해라.” 하였다.
- 11 초청을 받은 이백 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 12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그는 길로 사람이 다윗의 조인자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성읍 길로에서 오게 했다. 모반이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다윗

- 13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니,
- 14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우리를 해하고 도성을 칼날로 찢아 두렵다.” 라고 하였으므로,
- 15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내 주 왕께서 택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16 왕이 나가고 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왕은 후궁 열 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다.
- 17 왕이 나가고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 “벧 메르학에 멈추었다.”
- 18 ○그의 모든 신하가 그의 결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가드에서 왕을 따라온 육백 명의 가드 사람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 19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말하기를 “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외국인이요 또한 너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 20 어제 네가 왔는데, 오늘 내가 너를 우리와 함께 머물러다치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네가 가는 대로 갈 것이니, 너는 돌아가고 너와 함께 네 형제들도 데리고 가라. 인애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니,
- 21 잇대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신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주의 종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 22 다윗이 잇대에게 말하기를 “건너가거라.” 하니,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모든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건너갔다.

가) 먼 집 혹은 ‘먼 궁’

- 23 온 백성이 건너갈 때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모든 백성도 광야 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 24 ○보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그 성읍에서 나와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
- 25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와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 26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 27 또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네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 28 보아라, 나는 너희가 내게 알리는 기별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였으므로,
- 29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 30 ○다윗은 올리브 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 31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알려 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
- 32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이레 사람 후새가 옷을 찢어지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러 나왔으므로,
- 33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 34 그러나 만일 네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락을 깨뜨릴 것이다.
- 35 그곳에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왕궁에서 내가 들은 모든 일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

- 리라.  
36 보아라, 그곳에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이히미아스와 아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들은 모든 일을 그들 편에 내게 전해라.”  
37 다윗의 친구 후새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 다윗을 맞으러 나온 시바

- 16 1 ○다윗이 산곡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는 안장을 얹은 나귀 두 마리에 빵이 백 개, 건포도 백 덩이, 여름 과일 백 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2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소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 는 것입니다.” 하였다.  
3 왕이 말하기를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4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네 것이다.”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제가 절을 올립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5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아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6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7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8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네게 돌리셨다. 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라고 하였다.  
9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10 왕이 말하기를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 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맡겼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11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배반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12 후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모른다.” 하고  
13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14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15 ○그 때 압살롬이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16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 만세, 왕 만세.”라고 하였다.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네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냐? 왜 너는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하니,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그분과 내가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19 내가 다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부친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20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락을 말해 보라.” 하니,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궁을 지키도록 남겨 둔 왕의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왕의 부친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의 손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므로.  
22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지붕 위에 장막을 쳤으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23 그 때에 아히도벨이 내놓는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여겼으니,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모든 계락을 그렇게 여겼다.

### 아히도벨의 계락을 따르지 않은 후새

- 17 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 2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해진 사이에 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왕만 쳐 죽여서,  
3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까.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니,  
4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5 ○그러나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새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 보자.”라고 하였다.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해 보아라.” 하니,  
7 후새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락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8 또 말했다. “왕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의 부친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이며, 들에서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이 마음이 격분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니,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9 보십시오, 이제 그는 어떤 동굴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병사 중에 누군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대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10 그러하면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 일지라도 간담이 녹을 것이니, 이는 왕의 부친은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므로 저의 계락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엄청난 모래처럼 왕께 반드시 모이게 하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12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를 덮치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이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13 만일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가서는 그 성읍을 계곡까지 끌고 갈 것이니, 그 성읍에서는 작은 돌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락보다 아렉 사람 후새의 계락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락을 깨뜨

- 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15 ○후새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고, 나도 이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습니다.”  
16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께 ‘광야의 나귀터에서 밤을 지내지 마시고 반드시 건너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고하여라.”  
17 요나단과 아히미아스가 드러내 놓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엔로겔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알렸고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데,  
18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하자, 그 두 사람은 급히 떠나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들 앞에 우물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으며,  
19 그 집 여자가 덮개를 가져다가 그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었으므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  
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의 여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히미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여자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개울물을 건넜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들이 수색해 보아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일어나서 서둘러 물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이리이러한 계락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하므로,  
22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요단을 건넜고,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23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락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성읍에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목을 매어 죽었으며,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혔다.  
24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였고, 압살롬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25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이드라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과 결혼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었다.  
26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27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에, 임몬 자손 랍



바 사람 니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28 침상과 대아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해 가져와서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 압살롬을 공격한 다윗

**18** 1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2 다윗이 백성의 삼분의 일은 요압의 손에, 삼분의 일은 요압의 동생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손에, 그리고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갈 것이다.”라고 하니,  
 3 백성이 말하기를 “나가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도망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왕께서 우리들 만 명과 같이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성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므로,  
 4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하겠다.” 하고, 왕이 문 곁에 서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나아갔다.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의 일에 관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 백성이 들었다.  
 6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갔으며 전투가 에브라임 숲 속에서 있었는데,  
 7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고, 그 날 거기서 많은 전사자가 생겨 이만 명에 달하였으니,  
 8 전투가 그 땅 사방에서 계속되니, 그 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탔으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다.  
 10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니,  
 11 요압이 자기에게 보고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네가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는 열 개와 허리띠 하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므로,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은 천 개를 제 손에 받는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대로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보호하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13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제가 만일 속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장군께서도 저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4 요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한 후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15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열 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 다윗**  
 16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 군대를 멈추게 하니,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17 그들은 압살롬을 들고 와서 숲 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18 압살롬이 살아 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한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여 불렀으며 그것을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른다.  
 19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이스가 말하기를 “제가 왕께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왕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20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마라.” 하였다.  
 21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네가 본 것을 왕께 보고하라.” 하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22 사독의 아들 아히마이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오.” 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네가 가더라도 이 소식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23 또 그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므로,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니, 아히마이스가 들길로 달려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섰다.  
 24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벽의 성문 지붕에 올라가 눈을 들어 보다가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25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이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26 또 파수꾼이 보니,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소리쳐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온다.” 하고 말하니, 왕이 말하기를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27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앞선 자의 걸음걸이가 마치 사독의 아들 아히마이스의 걸음걸이 같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28 ○아히마이스가 소리쳐서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십시오.”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29 왕이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아히마이스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 요압이 주의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30 왕이 말하기를 “물러나서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섰다.  
 31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32 왕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므로,  
 33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가 가며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다.

### 슬퍼하는 다윗에게 항의한 요압

**19** 1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왕께서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니,  
 2 왕이 그의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이 그 백성에게 들렸으므로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3 그러므로 그 날 백성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자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처럼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4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5 그 때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의 생명과 그리고 왕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6 이는 왕께서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왕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니 왕께서 오늘 일개 하셨으며,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마땅하게 여기셨으리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7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호와로 맹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아무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의 젊은이들로부터 지금까지 왕에게 닥친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8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자 백성이 말하기를 “보라,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아왔다.

### 에루살렘 귀환을 준비한 다윗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도망하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9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논쟁하면서 말하기를 “왕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10 우리가 기쁨 부어 우리 위에 세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여러분은 왜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조용히 계십니까?” 하였다.  
 11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

- 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왕을 궁으로 모셔 오자고 하는 온 이스라엘의 말을 나 왕이 듣고 있다.
- 12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골육인데 너희는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가장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 13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평생 내 앞에서 군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여 버.
- 14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아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했다.
- 15 왕이 돌아와 요단애 도착하니,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여 왕이 요단을 건너도록 하기 위하여 길갈로 나아왔다.
- 16 ○그때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내려왔는데,
- 17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했으며, 사울 집의 하인 시바도 자신의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을 데리고 요단애에 있는 왕 앞으로 서둘러 나왔다.
- 18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갔다.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 19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주의 종이 했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 20 왕의 종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세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제일 먼저 내 주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하니,
- 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했으므로 시므이는 이 일로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 22 다윗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임을 어찌 모르느냐?' 하고,
- 23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고 말하며 그에게 맹세하였다.
-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나

- 왔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염을 다듬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 25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할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므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 26 그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프로 나귀에 안장을 있어 그것을 타고 왕께 가겠다고 종에게 말했는데, 제 종이 저를 속이고,
- 27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 28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지금 제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 29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네 일을 다시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하니,
- 30 므비보셋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가 그 전부를 가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 31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로글렘에서 내려와서 왕을 요단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 32 바르실래는 여든 살로 매우 늙었고,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남에 머무를 때 왕에게 음식을 공급했었다.
- 33 왕이 바르실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음식을 공급하겠소.' 하였으나,
- 34 바르실래가 왕에게 말했다. '제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 35 제 나이가 이제 팔십 세입니다. 왕의 종이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가 여자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왕의 종이 내 주 왕께 짐을 더 지을 수 있겠습니까?
- 36 왕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려진 것뿐인데,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이 제게 보상하려 하십니까?
- 37 청컨대 왕의 종을 돌아가게 해 주셔서 제 성읍,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아 여기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가게 하시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에게 해 주십시오.'
- 38 왕이 말하기를 '김함은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나는 그대가 좋게 여기는 것을 그에게

- 하겠소. 그대가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모두 하겠소.' 라고 하였다.
- 39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니, 그는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 40 왕은 길갈로 건너갔고 김함도 왕과 함께 건너갔으며,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모셔 건너갔다.
- 41 ○그때 보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께 나아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가족과 왕의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겠습니까?' 하니,
- 42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왜 이 일로 분노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먹었느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하므로,
- 43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으며, 또한 다윗에 대하여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관계가 깊은데 왜 너희는 우리를 멸시하느냐? 우리 왕을 모셔오자고 처음 말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 하였으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 반역을 일으킨 세바

- 20 1 ○그때 그곳에 불랑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이며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쾰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우리의 몫이 없으니,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하니,
- 2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다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 올라갔으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 다윗을 떠나지 않고 따라갔다.
- 3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돌아와서, 궁을 지키도록 남겨 둔 열 명의 후궁들을 붙잡아 비길이에 가두고 지키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나 그들과 동침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간직되었다.
- 4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내게로 모아 오고, 너도 여기 있어라.' 하므로,
- 5 아마사가 가서 유다 사람을 소집하였는데, 왕이 정한 시간보다 지체하였다.
- 6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이제 압살롬보

- 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를 더 해할 것이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추격하라. 그가 견고한 성들에 들어가 우리들을 포획할 염려된다.' 하니,
- 7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 8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왔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오니,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으며,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을 빼었다.
- 9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평안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맞추려고 하였을 때,
- 10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알아채지 못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다시 치지 않아도 그가 죽었다.
- 그리고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추격하였다.
- 11 요압의 병사들 중 한 사람이 아마사 곁에서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 왕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요압의 뒤를 따라라.' 할 때에,
- 12 아마사가 큰길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엎어져 있었다. 이에 모든 백성이 멈추어 서는 것을 그 병사가 보고, 아마사를 큰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나 그 옆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멈추어 서자 옷을 그 위에 던져 덮었다.
- 13 아마사를 큰길에서 치우고 나서야 모든 사람이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추격하였다.
- 14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행하여 벳마이가 아벨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뒤를 따랐다.
- 15 그리하여 추격하던 이들이 벳마이가 아벨에 와서 세바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향해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높이 세우니, 요압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성벽을 무너뜨리려 쳐부수려고 했다.
- 16 그때에 그 성읍에서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외치기를 '들으시오, 들으시오. 내가 요압 장군에게 말하고자 하니, 당신들은 그에게 이곳으로 가까이 오시도록 전해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 17 요압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다. 그 여자가 묻기를 '당신이 요압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였다.

18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아벨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19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음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여호와와 유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니,

20 요압이 대답하여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21 일이 그렇지 않다. 에브라임 산지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 사람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에서 떠날 것이다.”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하고,

22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서 지혜롭게 말하므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이에 요압이 뿔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그 성에서 떠나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흩어져 갔으며,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23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사령관이 되었다.

24 아도니람은 노역 감독관이 되었으며, 아힐롯의 아들 여호시밧은 기록관이 되고,

25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26 아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 기브온 사람의 요구를 들어준 다윗

21 1 ○다윗 시대에 삼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2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하였으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질투심에 의해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3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희가 여호와와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하니,

4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사울과 그의 집안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5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의

6 자손 중에서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 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넘겨주겠다.” 하였다.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가 있었으므로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아끼고,

8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므홀랏 사람 비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은 다섯 아들을 붙잡아,

9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으므로 그들 일곱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10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굶은 베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반석 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그들 위로 비가 퍼부을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11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12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이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벧산 광장에서 그들이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13 그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서 가져오자, 사람들이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모아서,

14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 그의 아버지 기브의 묘에 장사하였으니,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모두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15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 블레셋

과 싸우는데, 다윗이 기진하였다.

16 그때에 거인의 후손 가운데 삼백 세겔 무게의 못 창과 새 칼로 무장한 이스비브논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17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맹세하기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18 ○이 일이 있는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골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실브개가 거인의 후손 중 하나인 삼을 쳐 죽였다.

19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골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비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들레헴 같았다.

20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여섯이었으므로, 모두 스물넷이었는데, 이 사람도 거인의 후손이었다.

21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22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었다.

#### 여호와와 구원을 노래한 다윗 (시 18)

22 1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2 말했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3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4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5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6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 마주했습니다.

7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8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9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에 솟이 타올랐다.

10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실 때에

주님의 발아래에는

질은 구름이 있었고

11 주께서 그들을 타고 날으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12 주께서 어둠,

곧 모인 물과 질은 먹구름으로

그분의 주위에 장막을 만드셨고,

13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부터

솟불이 피어 올랐다.

14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셨다.

15 그분이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흠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16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כות감을 내뿜으실 때에

바다 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도 드러났다.

17 주께서 높은 곳에서 보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8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19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적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20 그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출하셨다.

21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이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22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 길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23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4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며,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25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분의 눈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다.

26 주께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28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주님의 눈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29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  
며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아들을 밝혀 주십니다.  
30 내가 주님과 함께 적진 속을 달리며  
내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31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32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33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였고,  
34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35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훈련시키시니,  
내 팔이 못 활을 당깁니다.  
36 주께서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님의 은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37 주께서 내 아래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38 내가 내 원수를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니다.  
39 내가 저희를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내 발아래 넘어졌습니다.  
40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41 주께서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게 하셨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42 그들은 돌러보아도  
구원자가 없었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3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갈아버렸고,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흘렸습니다.

44 주께서 내 백성의 다룸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사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45 이방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은 내 소문을 듣고  
내게 복종합니다.  
46 이방사람들은 낙담하여,  
그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47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송축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48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백성들을 내 아래로  
끌어내리셨습니다.  
49 주께서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보다  
나를 더 높이시며,

폭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십니다.  
50 이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1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분의 왕에게 베푸시며,  
그분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 다윗의 마지막 말

23 1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움을 받은 자이고,  
아람의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으신 자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잘 부르는 자가  
말한다.

2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셨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4 태양이 떠오를 때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온 후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5 “내 집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6 그러나 사악한 자는 모두  
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7 사악한 자를 만지려는 사람은  
쇠와 창 자루를 가져야 할 것이니,  
사악한 자는 그 있는 곳에서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 다윗의 용사들 (대상 11:10-47)

8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다, 요셉밧넬벧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로 한  
번에 팔백 명을 죽였다.  
9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  
살이며, 세 용사들 중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

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  
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그가 다윗과 함  
께 있었다.  
10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  
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있을 때까지 쳤으며,  
그 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력  
할 뿐이었다.  
11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이  
니, 블레셋 부대가 팔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12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  
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  
다.  
13 ○그 후 추수기에 삼십 명의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내려가서 이돌람 동굴의 다윗에게 갔  
는데, 때에 블레셋 부대가 르비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14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  
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15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하니,  
16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베들레  
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  
윗에게 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 드리면서,  
17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결코 마실 수 없  
습니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갇힌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그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세 용사가 한 일이  
였다.  
18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세 사  
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는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찔러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하나  
로 이름을 얻었다.  
19 그가 세 사람 가운데 명성이 높은 자였고 그  
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  
는 미치지 못하였다.  
20 ○또 갑스엘 용사의 아들, 여호아다의 아들 브  
니아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으며, 또  
그는 눈 오는 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21 또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사  
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브니아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22 여호아다의 아들 브니아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므로, 세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  
니,  
23 그가 삼십 명 가운데서 명성이 높았으나, 처



- 을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  
를 자기의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24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삼십 명 가운데 들었  
으며,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5 하돗 사람 삼훗과, 하돗 사람 엘리가와,  
26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  
들 이라와,  
27 아나돗 사람 아비예셀과, 후사 사람 브분내와,  
28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29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렘과, 베냐민 자  
손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잇대와,  
30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냇가에 사는  
히대와,  
31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훗 사람 아스  
마헨과,  
32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  
과,  
33 하랄 사람 삼마와, 이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  
압과,  
34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하스배의 아들 엘리벨  
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과,  
35 갈멜 사람 헤스래와, 이람 사람 바아래와,  
36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  
와,  
37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를 드는 자인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38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렘과,  
39 헛 사람 우리아이니, 모두 삼십칠 명이었다.

#### 인구 조사를 한 다윗 (대상 21:1-27)

- 24 1 ○여호와와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  
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겨서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였다.  
2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  
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  
라.” 하니,  
3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와 왕의 하나님께  
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많게 하서  
서, 내 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4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보다 강경하  
였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  
러났다.  
5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의 오른쪽 아로엘에, 곧 야셀을 향해 진을  
쳤고,  
6 또 길르앗과 댃딤함시 땅으로 갔으며, 다나안

- 으로 갔고, 시돈을 돌아서,  
7 두로의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  
든 성읍으로 갔으며, 유다의 네게브에 있는 브  
엘세바로 나아갔으니,  
8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서 구 개월 이십 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9 요압이 백성의 인구조사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는 칼을 뽑 수 있는 용사가 팔십만  
명이었고, 유다는 오십만 명이였다.  
10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  
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와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12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제  
시할 것이니, 네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여  
라.” 하셨다.  
13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땅에 칠 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겠습  
니까? 혹은 왕의 원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이  
왕의 원수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  
겠습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이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내  
신 분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내  
십시오.” 라고 하였다.  
14 그때에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괴롭다. 여호와께서는 궁핍이 많으시니, 우  
리는 그분의 손에 떨어지고, 내가 사람의 손  
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였다.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  
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칠만 명의 백성이 죽었  
다.  
16 그때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  
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백성을 죽이는 천사  
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충분하니, 네 손  
을 거두어라.” 하셨고, 그때 여호와와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  
다.  
17 다윗이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  
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  
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  
의 집을 치소서.” 라고 하였다.  
18 ○갓이 그 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올라  
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니,

- 19 다윗이 여호와와 명령한 것에 따라 갓이 말한  
대로, 곧 여호와와 명령대로 올라갔다.  
20 아라우나가 내다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며,  
21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  
십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너의 타  
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십시오.  
보십시오, 번제를 위한 소가 있으며, 뿔나무  
로는 타작 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 23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  
다.” 하고 또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  
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였으나,  
24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값을 내고 그것을 너에게서 사겠다. 내  
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고, 은 오십 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25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 위  
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 열 왕 기 상

## 다윗의 후계자 싸움

- 1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 2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해 한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 여자로 왕을 섬기고 보살피게 하십시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내 주 왕께서 따뜻하실 것입니다.” 하고,
- 3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벳 여자 아비삭을 발견하여 왕에게 데려오니,
- 4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가 왕을 보살피고 섬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 5 ○하킴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병자와 기마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였다.
- 6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며,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었다.
- 7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도왔으나,
- 8 제사장 사독과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 9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처의 소렐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이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유다 사람들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으나,
- 10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 11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킴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주 다윗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 12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계책을 내겠으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 13 당신은 바로 다윗 왕께 가서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께서 여중에게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 14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는 동안에 제가 뒤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습니다.

니다.”

- 15 ○밋세바가 침실에 있는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벳 여자 아비삭이 왕을 시중들고 있었다.
- 16 밋세바가 엎드려 왕에게 절하니, 왕이 “무슨 일이나?” 하고 물었다.
- 17 밋세바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왕께서는 여중에게 여호와 왕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시기를 ‘분명히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18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나 내 주 왕께서는 아직 알지 못하십니다.
- 19 그가 소와 살진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 20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공포하셨는지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21 그렇게 아니하시고 내 주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놀게 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 22 ○밋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니,
- 23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였고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 24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25 그가 오늘 내려와 소와 살진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달을 초청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 26 그러나 그가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 27 참으로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이라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의 종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까?”
- 28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밋세바를 내

## 후계자로 정해진 솔로몬

- 게 불러오너라.” 하니, 밋세바가 왕 앞으로 와서 섰다.
- 29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 30 내가 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네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므로,
- 31 밋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 다윗 왕이시여, 만수 무강하십시오.” 하였다.
- 32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게 불러 오너라.” 하니, 그들이 왕 앞으로 들어왔다.
- 33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던 암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 34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 라고 외치고,
- 35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로 임명하였다.”
- 36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젠, 여호와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 37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하셔서,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 왕위에 오른 솔로몬

- 38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불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새에 태우고, 그를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 39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부으니, 모든 백성이 뿔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 라고 외쳤다.
- 40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다.
- 41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미끼를 마지못해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성읍에서 나는 이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하였다.
- 42 그가 아직 말할 때, 제사장 아비달의 아들

- 요나단이 들어왔으므로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니,
- 43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 44 왕께서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들과 불렛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왕께서 타시던 암노새에 솔로몬을 태웠으며,
- 45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즐거워하며 올라오므로 성읍이 진동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 46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았으며,
- 47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복하여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께서 침상 위에서 몸을 굽혀,
- 48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시어 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49 ○이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자들이 모두 놀라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고,
- 50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 51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단 뿔들을 움켜잡고 ‘솔로몬 왕께서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하니,
- 52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 53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하였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그에게 “네 집으로 가라.” 하고 말하였다.

##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의 죽음

- 2 1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 2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 3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



든지 형통할 것이다.

4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5 너는 또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지휘관, 빌의 아들 아브넬과 에멜의 아들 아미사에게 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두른 피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으니,

6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가 백발이 되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7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네 형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8 보아라, 바후림에서 온 베나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마하남임으로 갈 때에 그가 심한 독살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가 나를 맞아러 요단으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9 그러나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가 백발이 되어 피 흘리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여라.

10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11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사십 년이었는데, 헤브론에서 칠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다스렸다.

12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니, 그의 왕권이 매우 견고해졌다.

13 ○하킴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에게 나아오니, 밋세바가 '네가 온 것은 화평을 위함이나?' 하고 물었다. 그가 '예, 화평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14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밋세바가 말하기를 '말하여라.' 하였다.

15 그가 말하기를 '왕권이 제게 속하였었고,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제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한 것을 당신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제 아우에게 돌아갔으니,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

입니다.

16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므로 밋세바가 '말해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17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왕께서 당신의 얼굴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수넬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시도록 부디 솔로몬 왕께 부탁해 주십시오.' 하자,

18 밋세바가 대답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부탁해 보겠다.' 라고 하였다.

19 ○밋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로 나아갈 때 왕이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급히 절하고 자기 보좌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20 밋세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시오.' 하니, 왕이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21 밋세바가 말하기를 '수넬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시지요.' 하니,

22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넬 여자 아비삭을 부탁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왕위를 구하십시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23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살려 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24 그러므로 나를 세우셔서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집을 지어 주신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오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25 솔로몬 왕이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므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26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 네 땅으로 가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법례를 내었고, 또 네가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27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여호와와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28 ○그 소식이 요압에게까지 전해지니,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에 섰으므로, 그가 여호와와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29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와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옆에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자, 솔로몬이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쳐라.' 하고 말하였다.

30 브나이가 여호와와 장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싫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브나이가 왕에게 '요압이 제게 이리 이리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31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그가 말한 대로 하여, 그를 쳐 죽여 묻어라. 그래서 요압이 뿌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없애라.'

32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빌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인 에멜의 아들 아미시를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피를 그의 머리에 돌리실 것이니,

33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34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이가 올라가 그를 쳐서 죽이고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매장하였다.

35 왕이 요압 대신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로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에게 임명하였다.

36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너를 위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결코 나가지 마라.'

37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38 그러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기를 '그 말씀이 좋으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 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39 ○삼 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미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는데,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 주었다.

40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으니, 시므이가 가서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41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돌

아왔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자,

42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또 경고하기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밖으로 나가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그 말씀이 좋습니다.' 말하였다.'

43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로 맹세한 것과, 내가 네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44 왕이 시므이에게 또 말하였다. '내가 네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악행을 네 스스로 알 것이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네 악행을 네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45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46 왕이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 결혼한 솔로몬

3 1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되어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고, 자기 궁전과 여호와와 전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다윗 성에 데려다 두었다.

2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3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니,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4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물을 드렸다.

#### 지혜를 구한 솔로몬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6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7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

- 을 모릅니다.  
 8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9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까?  
 10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11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네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해 줄 것이다. 이제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네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13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네게 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14 만일 내가 네 길로 행하여,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궐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 솔로몬의 판결

- 16 ○그 때에 창기 두 명이 왕을 찾아와 그 앞에 서고,  
 17 그들 중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내 주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니다.  
 18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삼일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고, 저희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외부인도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오직 저희 둘만 그 집에 있었습니니다.  
 19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니다.  
 20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왕의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눕히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눕혔습니니다.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 죽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니다.”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살아

- 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다.” 하니, 먼저 말한 여자가 “아니다.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고 살아 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같이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23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 있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저 여자는 ‘아니다.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은 살아 있다.’ 말하는구나.” 하고  
 24 “내게 칼을 가져와라.” 하고 말하니, 사람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오자,  
 25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뉘라. 그래서 한 여자에게 반쪽을 주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하였나,  
 26 그러자 살아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 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않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27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살아 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다.”라고 하였나,  
 28 왕이 재판한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 솔로몬의 신하들과 관리들

- 4 1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대,  
 2 그의 고관들은 이러하였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3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렘과 아히아는 서기관이며, 아히룟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고,  
 4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며,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고,  
 5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들의 책임자이고, 나단의 아들 시밧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친구이며,  
 6 아히살은 궁내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역 감독관이었나,  
 7 ○솔로몬에게는 온 이스라엘을 맡아 주관하는 열두 명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과 왕실에 식량을 공급하였으며, 각각 일 년에 한 달씩 식량을 공급하였다.  
 8 그들의 명단은 이러하였으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은 벤훤이 맡았고,  
 9 마가스와 사일뿐과 벳세메스와 엘론벳한은 벤대겔이 맡았고,

#### 솔로몬의 지혜

- 10 아룻본은 벵헤셋이 맡았는데, 소고와 헤벨의은 땅이 그에게 속하였다.  
 11 들의 모든 고지대는 벤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12 다아브과 므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스안 전체는 아히룟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는데, 그곳은 벳스안에서부터 아벨 므홀라를 지나 욱다의 건너까지 이르렀다.  
 13 길랴트 라못은 벵게벨이 맡았는데, 길랴트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아일야의 아들들이 그에게 속하였고, 또 바산에 있는 아르킴의 지역, 즉 성벽과 늦 밭짓을 갖춘 육십 개의 큰 성읍이 그에게 속하였다.  
 14 마하나임은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고,  
 15 납달리는 아히마이스가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16 아셀과 이룬은 후새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고,  
 17 잇사갈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으며,  
 18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고,  
 19 길랴트 땅, 즉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는데, 그가 그 땅의 유일한 관리였다.  
 20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21 솔로몬은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땅을 거쳐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이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다.”  
 22 ○하루에 필요한 솔로몬의 식량은 삼십 ‘코르’의 고운 밀가루와 육십 코르의 보통 밀가루와,  
 23 살진 소 열 마리와 초장의 소 이십 마리, 양 백 마리와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그리고 살진 새들이었다.  
 24 그가 그 강 이쪽 모든 지역, 즉 유다로부터 가사까지 다스리고, 강 이쪽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사방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25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솔로몬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26 솔로몬에게는 병거를 끄는 말을 위한 마구간 사만 채와 만 이천 명의 기마병들이 있었다.  
 27 그 관리들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각자 자기가 맡은 달에 식량을 공급하여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고,  
 28 말과 준마를 위한 보리와 짚을 자기가 맡은 책임에 따라 각자 지정된 곳으로 가져왔다.

가) 유프라테스 강 나) 코르는 약 350-400리터

- 29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30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31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  
 32 그가 삼천 개의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가 천다섯 편이었다.  
 33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에 대하여 논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34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또 그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 성전 건축 준비 (대하 2:1-18)

- 5 1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2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3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사방의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말바다 밀에 굴복시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4 그러나 이제 여호와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네 뒤를 이어 네 보좌에 앉힐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6 그러니 당신이 이제 명령하셔서,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베게 하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종들의 품삯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베어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분께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다.” 하고,



- 8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내게 보낸 전갈을 들었습니다.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 9 내 종들이 레바논 산지에서 바다로 나무들을 운반할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당신이 내게 지정하는 곳까지 뗏목을 띄워서 바다에 띄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운반할 수 있도록 내가 나무들을 풀어 놓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실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양식을 보내 주십시오." 하였다.
- 10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주었고,
- 11 그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왕실을 위한 식량으로 밀 이만 코르와 순도 높은 기름 이십 코르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매년 히람에게 갚아 주었다.
- 12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조약을 맺었다.
- 13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부역자들을 올라오게 하니, 부역자들의 수가 삼만 명이었는데,
- 14 그가 그들을 레바논 산지로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보내서, 그들을 한 달은 레바논에서 있게 하고, 두 달은 자기 고향에 있게 하였다. 아도니람이 부역자들을 감독하였다.
- 15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가 칠만 명, 산에서 돌을 캐는 자가 팔만 명 있었고,
- 16 그 외에도 솔로몬에게 작업을 지휘하는 삼천 삼백 명의 책임관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작업하는 백성들을 감독하였으며,
- 17 왕이 명령하여, 다들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크고 값진 돌들을 캐게 하였으므로,
- 18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밖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을 목재와 돌들을 다듬어 준비하였다.

####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 6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사년 7월 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으며,
- 3 전의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전 너비에 맞춰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인데, 그 너비는 전 앞으로 십 규빗 더 나왔다.

가) 양력 4월 중순-5월 중순

- 4 그리고 그가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전에 내었고,
- 5 또 전의 벽을 돌아가며 다락을 지었으니, 곧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전의 벽에 붙은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 6 이 골방들의 맨 아래층은 그 너비가 오 규빗이고, 가운데 층은 그 너비가 육 규빗이며, 삼층은 그 너비가 칠 규빗인데, 그가 전의 벽 바깥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들보가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 7 ○그리고 전을 지을 때에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로 건축하였으며, 전에서는 땅치나 정이나 어떤 철 연장의 소리도 건축하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다.
- 8 ○가운데 층 골방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나선형의 층계를 타고 가운데 층으로, 또 가운데 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갔다.
- 9 그가 전 건축을 마치고, 전을 백향목 서까래와 널빤지로 덮었으며,
- 10 전 전체에 덧붙여 높이가 오 규빗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들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 11 ○여호와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 12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네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네게 이루어 줄 것이며,
- 13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 14 ○솔로몬이 전 건축을 마치고,
- 15 전의 내부 벽들을 백향목 널빤지로 대었으니, 전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 내부를 나무로 덧입혔고, 전 바닥은 잣나무 널빤지로 깔았으며,
- 16 전의 뒤쪽으로부터 이십 규빗 떨어진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칸을 막고, 전 내부의 그곳을 내실, 곧 지성소로 만들었다.
- 17 내실 앞에 있는 외실, 곧 성소는 길이가 사십 규빗이었으며,
- 18 성전의 내부는 백향목에 박 모양과 활짝 핀 꽃 모양이 새겨졌고 모두 백향목이어서 돌이 보이지 않았다.
- 19 그리고 여호와와 언약케를 두기 위해 성전 가장 안쪽에 내실을 세웠으니,
- 20 그 내실은 길이가 이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 높이가 이십 규빗이었으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백향목 제단도 순금으로 입혔다.

- 21 그리고 솔로몬이 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혔으며, 내실 앞에 금 사슬을 가로로 걸어 놓고, 그 내실을 금으로 입혔으니,
- 22 그가 전 전체를 완벽하게 금으로 입혔으며, 내실에 속한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 23 ○그리고 내실 안에 높이가 십 규빗 되는 두 개의 그룹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 24 그들의 한 날개도 오 규빗이고 다른 날개도 오 규빗이므로 한 날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었고,
- 25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었으며, 두 그룹이 다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졌으니,
- 26 한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었으며,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 27 그룹들을 내전 가운데 두었는데, 그룹들은 날개를 활짝 폈으며,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다른 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날개가 전 중앙에서 날개끼리 서로 닿았다.
- 28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 29 ○그가 전의 모든 벽을 돌아가며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새긴 조각들을 내전과 외전에 새겼으며,
- 30 내전과 외전의 전 바닥을 모두 금으로 입혔다.
- 31 ○내실의 입구에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이었다.
- 32 그리고 그가 올리브 나무로 된 두 문짝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의 조각을 새기게 하고 금을 입혔는데, 곧 그룹들과 종려나무 조각들 위에 금을 입혔다.
- 33 ○또 그는 성소 입구에 올리브 나무로 된 사각형의 문설주들을 만들었고,
- 34 잣나무로 된 문짝을 두 개 만들었는데, 문 하나는 두 쪽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두 쪽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 35 그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새기고, 조각들 위에 금을 고루 입혔으며,
- 36 또 다들은 돌 세 층과 백향목 판자 한 층으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
- 37 ○제 사년 시브 월에 여호와와 전의 기초가 놓였고,
- 38 제 십이년 7월 월, 곧 팔월에 성전이 그 모든 부속물과 함께 설계도대로 완공되었으니, 그가 칠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다.

####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

- 7 1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모든 궁전을 준공하였다.
- 2 ○그가 레바논 나무로 궁전을 지었는데, 그

가) 양력 10월 중순-11월 중순

- 길이가 백 규빗, 그 너비가 오십 규빗, 그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다. 네 줄의 백향목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 위에 백향목 서까래를 얹었다.
- 3 기둥들 위에 있는 대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대들보는 사십오 개였으며, 한 줄에 십오 개씩이었다.
- 4 그리고 창틀이 세 줄로 되어 있고, 창문들은 세 줄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 5 모든 문들과 문설주들은 사각형 틀이었으며, 창문들은 세 줄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 6 ○기둥들로 낭실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오십 규빗, 너비가 삼십 규빗이었으며, 그 기둥들 앞에 현관이 있었고, 또 그 앞에 기둥들과 섬돌이 있었다.
- 7 ○또 재판하는 보좌가 있는 방, 곧 재판정을 만들고, 마루를 전부 백향목으로 덮었다.
- 8 ○그가 거주할 궁전은 재판정 안쪽의 다른 뜰에 있었으며, 같은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내 재판정과 같은 궁전을 지었다.
- 9 ○이 모든 궁전은 기초석에서 처마까지, 밖에서 큰 마당까지, 안팎을 톱으로 잘라 치수에 맞춰 다듬은 값비싼 돌들로 지어졌으니,
- 10 기초는 귀하고 큰 돌들, 곧 십 규빗 되는 돌들과 팔 규빗 되는 돌들로 놓았고,
- 11 그 위에는 치수에 맞춰 다듬은 귀한 돌들과 백향목 들보를 얹었다.
- 12 그리고 큰 마당은 다들은 돌들 세 층과 잘라낸 백향목 한 층으로 사람을 들었는데, 여호와와 전 안뜰과 그 전의 현관에 맞춘 것이었다.

#### 성전 설비 (대하 3:15-17)

- 13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 14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돛을 다루는 대장장이였다. 그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하여, 돛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를 위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
- 15 ○그가 돛 기둥 돌을 만들었는데, 두 기둥의 높이가 각각 십팔 규빗이었고, 십이 규빗 되는 줄이 돌레를 감쌀 수 있었다.
- 16 그리고 두 기둥머리를 돛을 녹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들 위에 두었는데, 한 기둥머리의 높이가 오 규빗이었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오 규빗이었다.
- 17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에 바둑판 모양으로 얹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만든

- 사슬 장식들이 있었는데, 한 기둥머리에 일곱 개, 또 다른 기둥머리에 일곱 개가 있었다.
- 18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도록 한 기둥머리에 석류 열매 두 줄을 만들어 두르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똑같이 하였다.
- 19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들은 백합꽃 모양이었는데, 너비가 사 규빗이었다.
- 20 두 기둥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은 그물 장식 가까이 있는 둥근 돌출 부분 위에 얹혀 있었고, 석류 열매 이백 개가 줄을 지어 각 기둥머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 21 그가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오른 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 22 기둥들 꼭대기에 백합꽃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기둥들의 작업이 끝났다.
- 23 O그리고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그 지름이 열 규빗이고, 둘레는 둥근 모양이었으며, 그 높이가 오 규빗이고 삼십 규빗 되는 줄이 그 둘레를 두를 수 있었다.
- 24 그 가장자리 아래로 박 모양의 장식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것들이 매 규빗마다 열 개씩 바다를 둘러 두 줄로 감싸고 있었는데, 그 박 장식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같이 부어 만들었으며,
- 25 바다는 열두 마리의 소 위에 얹혀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바다는 소들 위에 얹혀 있었으며, 소들의 엉덩이는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 26 바다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 정도이고, 그가 장자리는 백합꽃 봉오리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천 '뱃을 담을 수 있었다.
- 27 O그리고 받침대 열 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한 받침대의 길이가 사 규빗, 너비가 사 규빗, 높이가 삼 규빗이었다.
- 28 그 받침대의 구조는 이러하니, 받침대에는 판자들이 있었고, 그 판자들은 틀 사이에 있었다.
- 29 틀 사이의 판자들 위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가로대 위에도 마찬가지로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사자와 소의 위 아래로 화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 30 각 받침대에는 네 개의 놋 바퀴와 놋 축이 있었고, 그것의 네 개의 발에는 굽이 달려

- 있었는데, 그 굽은 물두멍 아래에 부어 만들어졌으며, 화환 무늬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 31 그 받침대의 돌출 부분은 굽들 안쪽에 있었는데, 일 규빗 위로 나와 있었다. 그 돌출 부분은 둥글었고, 받침 모양으로 일 규빗 반이 있었으며, 그 돌출 부분 위에도 조각품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틀들은 사각형으로서 둥글지 않았고,
- 32 네 바퀴들은 틀 밑에 있었다. 바퀴들의 고정 축은 받침대에 붙어 있었고, 한 바퀴의 높이는 일 규빗 반이었다.
- 33 바퀴들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았으며, 고정축과 바퀴 테와 바퀴 살과 바퀴 통은 모두 부어 만들었다.
- 34 그리고 네 개의 굽들은 각 받침대의 네 귀퉁이에 붙어 있어서, 받침대와 그 굽들이 하나였다.
- 35 받침대의 머리에는 테두리가 있었는데, 그 높이는 반 규빗이고, 둘레는 둥근 모양이었다. 받침대의 머리 위에 있는 고정 축은 틀에 연결되어 있었다.
- 36 그리고 판들과 고정 축들과 틀들 위의 각 빈 곳마다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새기고, 빙 둘러 화환도 새겼다.
- 37 이같이 받침대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들 모두 한 치수와 한 모양으로 똑같이 부어 만들었다.
- 38 O그리고 물두멍 열 개를 놋으로 만들었다. 한 물두멍은 사십 뱃을 담을 수 있었고, 물두멍의 너비는 사 규빗이었다. 물두멍은 열 개의 받침대 위에 각각 놓았는데,
- 39 받침대 다섯 개는 전 오른쪽에, 다섯 개는 전 왼쪽에 놓았고, 바다는 전의 오른쪽에 동남쪽을 향하여 두었다.
- 40 O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각종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들어야 할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작업을 끝냈으니,
- 41 곧 두 기둥과 그 두 기둥 위에 있는 공 모양의 기둥머리들과 기둥 꼭대기 위에 있는 공 모양의 두 기둥머리들을 덮을 그물 장식들과,
- 42 두 그물 장식들을 위한 석류 열매 사백 개와, 기둥들 윗면에 있는 공 모양의 두 기둥머리들을 덮을 각 그물 장식들을 위한 두 줄의 석류 열매들과,
- 43 받침대 열 개와, 그 받침대들 위에 있는 물두멍 열 개와,
- 44 바다 한 개와, 그 바다 밑에 있는 소 열두 마리였다.

가) 네 손가락 너비 나) 뱃은 40-45리터

- 45 O솔과 부삽과 각종 그릇들 곧, 히람이 여호와와의 전에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이 모든 기구들은 광택 나는 놋으로 만들어졌다.
- 46 왕이 그것들을 속곳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르단 지역에서 흙 틀로 부어 만들었다.
- 47 이 모든 기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솔로몬이 달지 않고 그냥 두었으므로 놋의 무게를 알 수 없었다.
- 48 O솔로몬이 또한 여호와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였으니, 곧 금 제단과 차려놓는 빵을 놓을 금상과,
- 49 오른쪽에 다섯, 왼쪽에 다섯씩 내실 앞에 돌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꽃봉오리와 등잔과 부집개와,
- 50 순금으로 된 큰 그릇들과 심지 자르는 가위들과 수발들과 손가락들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전 내부, 곧 지성소 문과 성소 문을 위한 금 돌쩌귀들이었다.
- 51 O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와의 전을 만드는 모든 작업이 완성되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드린 성물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와의 전 창고들에 두었다.

#### 언약궐을 올려온 솔로몬 (대하 5:2-6:2)

- 8 1 O그때에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언약궐을 다윗 성, 곧 시온에서 올려 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대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 2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에다니 월, 곧 칠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으며,
- 3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궐을 메었다.
- 4 그들이 여호와와의 궐과 회막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 왔으니,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 5 솔로몬 왕과 그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궐 앞에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었다.
- 6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와의 언약궐을 전 내실의 제자리, 곧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 7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궐에 있는 곳에 펼쳐서, 그 그룹들이 궐과 그 채들을 위로부터 덮고 있었는데,
- 8 그 채들이 길어서 그 끝이 내실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놓여 있다.

- 9 궐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 두었던 것이다.
- 10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와의 전을 가득 채웠다.
- 11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 여호와를 송축하는 솔로몬

- 12 O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감감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13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기실 전을 성심껏 건축하였으니, 곧 주께서 영원히 기실 처소입니다." 라고 하였다.
- 14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복을 빌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다.
- 15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 1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세웠다." 라고 하셨습니다.
- 17 제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 18 여호와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 19 그러나 너는 전을 짓지 못하고,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 20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었습니다.
- 21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이 들어 있는 궐을 둘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였으니."

#### 봉헌기도 (대하 6:12-24)

- 22 O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제단 앞에서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 팔을 벌리고,

가) 양력 9월 중순-10월 중순



- 23 기도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여,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없습디나.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디나.
- 24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디나. 곧 주께서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디나.
- 25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주께서는 만일 내 아들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이가 네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디나.
- 26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실로 나타내 주소서.
- 27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28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 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 29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곳, 곧 이 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 30 이곳을 향해 드리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소서.
- 31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이웃이 그 사람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 32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여 주소서.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하다 하시오 그가 행한 것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오 그의 의를 따라 그에게 갚아 주소서.
- 33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 앞에서 패하게 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 34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되돌아오게 해

- 주소서.
- 35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 36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 37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기가 나거나 매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이 그 땅의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 38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 그의 팔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 39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의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 40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 41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도
- 42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피신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 43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 전에서 불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44 ○주님의 백성이 자기의 적과 싸우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선택한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 45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 46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멸하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 47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간구하기를

-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디나.’ 하고
- 48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 49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 50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이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자기들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공물을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공물을 배물게 하소서.
- 51 그들은 주께서 철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 52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 53 주 여호와시여,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을 주님의 유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 솔로몬의 축복**
- 54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여호와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 55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 56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단 한 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 57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 58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 59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 60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 61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 봉헌식을 마친 (대하 7:4-10)**
- 62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렸으니
- 63 솔로몬이 여호와께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드렸다. 이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전을 봉헌하였으니
- 64 그 날에 왕이 여호와와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와 전 앞에 있는 모든 제단이 작아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65 ○그때에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과 함께 모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레와 또 이레, 곧 십사 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 66 제 팔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왕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 성전에 대한 약속**
- 9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 2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 3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네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 4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 6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진정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 7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

를 거리가 될 것이다.

- 8 이 전이 지금은 높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 가는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할 것이다.
- 9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솔로몬 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대하 8:1-2)

- 10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와 전과 왕궁을 짓는 데 이십 년이 걸렸다.
- 11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였고, 그때에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이십 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 12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 13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라고 말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기불 땅이라 부르니, 오늘 날까지 이르고 있다.
- 14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를 보냈다.
- 15 솔로몬 왕이 부역자들을 동원한 이유는 여호와와 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술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 16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고 불사하며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예물로 주었으므로,
- 17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아래 벧호론과,
- 18 바일랏과 그 땅의 광야에 있는 다드몰과,
- 19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식량을 저장할 성들과 병거를 둘 성들과 기마병들을 둘 성과, 그 외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 짓고 싶은 것들을 다 지었다.
- 20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은 모든 백성들과,
- 21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부역할 노예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 2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오직 군병들과 신하들과 고관들과 병거대장들과 병거나 기마병의 장교들이 되었다.
- 23 솔로몬의 작업을 지휘하던 책임관리가 오백오십 명이었었는데, 그들이 작업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 24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 솔로몬이 그 여자를 위해 건축한 궁으로 올라오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 25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께 건축한 제단 위에서 일 년에 세 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다.
- 26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 27 히람이 자기의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을 배로 보내어, 솔로몬의 일꾼들과 일하게 하였는데,
- 28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사백이십 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 스바의 여왕 (대하 9:1-12)

- 10 1 스바 여왕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
- 2 여왕이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어 보았다.
- 3 솔로몬이 여왕의 모든 말에 대해 그 여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왕이 몰라서 그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 4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 5 또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종들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술관원들과 그가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는 충계를 보고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 6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듣는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 7 내가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보고 된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나다.

- 8 왕의 사람들이 복이 있고 왕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항상 왕 앞에서 왕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 9 여호와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 행하게 하셨습니다."
- 10 그리고 스바 여왕이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유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유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 11 또한 금을 실은 히람의 선박이 오빌로부터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 오니,
- 12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와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백단목이 이같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본 자가 없었다.
- 13 솔로몬 왕이 관례에 따라 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스바 여왕이 자기 소원대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 솔로몬의 부

- 14 10 일 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 15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업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
- 16 솔로몬 왕이 두드려 편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을 입혔고,
- 17 두드려 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세 "마네를 입혔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 18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는데,
- 19 그 보좌에는 계단이 여섯 개 있었고 보좌 뒤 쪽으로 둥근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팔걸이가 앉는 자리 양면에 달려 있었고 사자 두 마리가 팔걸이들 옆에 서 있었으며,
- 20 또 사자 열두 마리가 여섯 개의 계단 양편에서 있었는데, 이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 21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 22 왕이 히람의 배와 함께 다시스의 배를 바다에 두었으므로, 삼 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

- 23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 24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 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 25 각자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유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으니,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 26 솔로몬이 병거와 기마병들을 모으니, 그에게 병거 천사백 대와 기마병 만 이천 명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병거 성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하고, 또 백향목을 셰펠라의 시카모어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다.
- 28 솔로몬을 위해 이집트와 구에서 말을 들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 29 병거는 은 육백 세겔, 말은 백오십 세겔을 주고 이집트로부터 수입하여 가져와서, 헷 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무역상들을 통해 수출하였다.

#### 죄를 지은 솔로몬

- 11 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헷 여자들이었다.
- 2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 3 그에게는 칠백 명의 왕비들과 삼백 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 4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 5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험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따랐다.
- 6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7 그 때에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 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물록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고,

8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 주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위해 분향하고 번제를 드렸다.

#### 십만의 선언

9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10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네게 맹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네 종에게 줄 것이다.

12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13 또 내가 왕국 전체를 찢지는 않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킨 여호와

14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켰으니,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서 에돔에 사는 왕족이었다.

15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이 전사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가서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는데,

16 요압과 온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17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종들 중 에돔 남자들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가기 위해 도망하였는데, 그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18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남자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니 바로가 그에게 집과 식량을 주고, 또 땅도 그에게 주었다.

19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어 크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바로가 그에게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고,

20 다브네스의 동생이 그에게 아들 그누밋을 낳았는데, 다브네스가 바로의 궁전에서 그를 키웠으므로 그누밋이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21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놓고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것을 듣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제가 고국으로 가도록 보

내 주십시오.” 하자,

22 바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네 나라로 가려 하느냐?” 하니, 하닷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23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곧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다. 그는 자기 조인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24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칠 때에 그가 자기에게 장정들을 모아 그 무리의 지휘관이 되어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

25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르손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어 하닷과 같은 악행을 자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였고 아람의 왕이 되었다.

26 ○나밋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는데, 그는 스레다 출신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스루아이고, 과부였다.

27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이유는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였는데,

28 이 사람 예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으므로 솔로몬이 그 젊은이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로 하여금 요셉 가문의 모든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29 그 무렵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아를 그를 길에서 만나니, 아히아는 새 겹옷을 입고 있었으며 두 사람만 따로 들에 있게 되었다.

30 아히아가 자기가 입은 새 겹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31 예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너는 열 조각을 취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내어, 네게 열 지파를 줄 것이다.’

32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곧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그 성읍을 위해 그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33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내 길로 가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다윗같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 곧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4 그래도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의 손에서 모든 왕국을 단번에 빼앗지는 않고,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지도자로 놓아 둘 것이다.

35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것을 열 지파와 함께 네게 줄 것이다.

36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37 내가 너를 취하여 네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38 내가 만일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에게 세워 준 것같이 네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 주고, 네가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39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40 솔로몬이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 솔로몬의 죽음 (대하 9:29-31)

41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4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사십 년이었다.

43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북쪽 열 지파의 반역 (대하 10:1-19)

12 ○르호보암이 세겔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겔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 느밋의 아들 예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었다. 예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3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다.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4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시킨 힘든 부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5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갔다가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하므로 백성들이 물러갔다.

6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존하였을 때에 그를 섬겼던 원로들과 함께 의

논하며 묻기를 “여러분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려고 조언하겠습니까?” 하니,

7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8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 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 앞에서 받들고 있는 젊은이들과 의논하며,

9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변하도록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10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백성에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웠으니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십시오.”

12 ○왕이 말하기를 “삼일 후에 내게 다시 와라.” 하였으므로 삼일 후에 예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오니,

13 왕이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여 원로들이 그에게 해 준 조언을 저버리고,

14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였다.

15 이같이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아를 통해 느밋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16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가진 몫이 무엇이나? 이새의 아들에게는 어떤 유업도 없다.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네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들로 돌아갔다.

17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18 르호보암 왕이 부역자들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예루

살렘으로 도망하였다.  
19 이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대하 11:1-4)

20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충화로 불러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았다.

21 한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십 팔만 명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집과 싸워 왕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려 하니,

22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사마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 하여라.

24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 브느엘을 건축하였다.

####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26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28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다.” 하고,

29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려 단까지 갔다.

31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32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팔월 십오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33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팔월 십오일로 이

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 순종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

13 1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에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2 그가 제단을 향해 여호와와 말씀으로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태울 것이다.” 하고,

3 그 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였다.

4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을 왕이 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 “그를 잡아라.” 하고 말하니, 왕이 그를 향해 뻗은 손이 말라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없게 되었고,

5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기름 재가 쏟아졌다.

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부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고 말하였으니,

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제게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9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 제게 명령하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10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11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날에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가 왕에게 한 말도 자기 아버지에게 설명하였다.

12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그 아들

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13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해 안장을 얹으니, 그가 타고,

14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다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15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하니,

16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17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였기 때문이다.”

18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너를 그를 데리고 네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라.” 하였습니

다.” 하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19 이에 그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다.

20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와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21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여호와와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22 되돌아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3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24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이니,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25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옆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이야기하였다.

26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와 말씀을 거역

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어 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다.” 하고,

27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었다.

28 그가 가서 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옆에 서 있는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29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장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오,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울었다.

31 늙은 선지자가 그를 장사한 후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묻고, 그의 뼈 옆에 내 뼈를 놓아 두어라.”

32 참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해, 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33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므로,

34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14 1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으므로,

2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서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서 아히아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곤 내게 말한 사람입니다.”

3 땀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당신 손에 들고 그에게 가시오. 그가 당신에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 줄 것이요.”

4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아의 집으로 들어가니, 아히아는 나이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잘 볼 수 없었다.

5 여호와께서 아히아에게 말씀하기를 “보아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와 그 여자의 병든 아들에 관한 일을 내게 물을 것이니, 너는 그 여자에게 이러저러하게 말해라.”



- 하셨다.  
 ○여자는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했다.  
 6 여자가 문에 들어서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이히야가 말하였다. “들어오시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인 체합니까? 내가 받은 명령대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7 당신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8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니,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좇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9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부어 만들어 나를 격노케 하였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10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매일 지나 놓인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 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 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 버릴 것이다.  
 11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당신은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발을 성읍에 들여놓을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니,  
 13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장사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이 아이 혼자만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그에게서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섰던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릴 것입니다. 그 때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1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과 같게 하실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세라 상들을 만들어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16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 곧 그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17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가서 디르사에 이르렀는데, 그 여자가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18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장사 지냈다.

#### 여로보암의 죽음

19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들, 곧 그가 전쟁하고 다스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0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이십이 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르호보암

2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사십일 세에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 성읍, 곧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야미이며 암몬 여자였다.  
 22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죄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욱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23 그들도 자신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들을 만들었다.  
 24 또한 그 땅에는 남창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죄악을 똑같이 행하였다.  
 25 ○르호보암 왕 제 오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26 여호와 전의 보물과 궁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빼앗았으므로,  
 27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 궁전 문을 지키는 친위대 장교들에게 맡기니,  
 28 왕이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친위대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왔다가 다시 그것들을 경호실에 갖다 두곤 하였다.  
 29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0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으니,  
 31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야미이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아비람 (대하 13:1-14:1)

15 ○다윗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십팔 년에 아비람이 유다 왕이 되어,  
 2 예루살렘에서 삼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이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3 아비람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니,  
 4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람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5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7 아비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람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8 아비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 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아사 (대하 15:18-16:6)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이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11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12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13 그의 어머니 마이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찢어 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다.  
 14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15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와 성전에 들여놓았다.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

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므로,  
 18 아사가 여호와 전의 보물 창고에 남아 있는 모든 은과 금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하들의 손에 맡기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람 왕, 곧 헤시온의 손자며 다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을 전하기를,  
 19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께 예물로 은과 금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여 그가 내게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20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들어,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도록 보내며, 이온과 단과 이벳벳미아가와 기네렛 전역과 남달리의 모든 땅을 치게 하니,  
 21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에 거주하였다.  
 22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들을 운반해 오게 하여 그것들로 베냐민인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23 아사의 남은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늙었을 때 발에 병이 났다.  
 24 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밋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이스라엘 왕 나답

25 ○유다 왕 아사 제 이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6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27 ○잇사갈 족속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바아사가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쳐 죽였는데,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던 중이었다.  
 28 바아사가 유다 왕 아사 제 삼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9 그가 왕이 되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을 잃은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는데,  
 30 이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

로 죄를 짓게 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31 ○나답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2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 이스라엘 왕 바아사

33 ○유다 왕 아사 제 삼년에 아하야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이십사 년 동안 다스렸다.

34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16 1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2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격노케 하였으므로

3 보아라, 내가 바아사와 그의 집을 쓸어 버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니

4 바아사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였다.

5 ○바아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6 바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7 또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와 그의 집에 임했으나,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격노케 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 왕 엘라

8 ○유다 왕 아사 제 이십육 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이년 동안 다스렸다.

9 왕이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의 궁내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신하, 곧 병자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10 들어와서 그를 쳐 죽였다. 시므리가 유다 왕 아사 제 이십칠 년에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

11 ○그가 왕이 되어 보좌에 앉게 되자, 바아사의 온 집을 쳐 죽였으며 남자는 그의 친척이든 친구이든 한 명도 남겨 두지 않았다.

12 시므리가 바아사의 온 집을 전멸시키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13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14 엘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 이스라엘 왕 시므리

15 ○유다 왕 아사 제 이십칠 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이레 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길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16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 날 진영에서 군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17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길브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18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으니,

19 이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20 시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반란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 이스라엘 왕 오므리

21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 그를 왕으로 삼았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22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23 유다 왕 아사 제 삼십일 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십이 년 동안 다스렸는데, 디르사에서는 육년 동안 다스렸다.

24 그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온 두 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25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으니,

26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다.

27 오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사한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8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이스라엘 왕 아합

29 ○유다 왕 아사 제 삼십팔 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31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엠티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비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32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비알 사당에 비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33 아세라 상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시므리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다.

34 그의 시대에 베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조를 놓을 때 만 아들 이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

17 1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2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3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4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네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5 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더니,

6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7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 버렸다.

#### 사르밧의 엘리야

8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9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라고 하셨다.

10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 주시오.” 하였다.

11 그 여자가 가지려 갈 때에 그가 그 여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12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두어 개 주어도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13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14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소.”

15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16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17 ○이 일들이 있는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 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니,

19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시오.”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20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 “여호와 내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파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 21 아이 위에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지요.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 22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므로 그가 살아났다.
- 23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하니
- 24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였다.

###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 18 1 O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삼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 2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 3 아합이 궁내대신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 4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백 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한 굴에 각각 오십 명씩 숨겨 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 5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 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 6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 7 O 오바다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 8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께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오.”
- 9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 10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

- 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 11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께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지만,
- 12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와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 13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와 선지자들 중에서 백 명을 한 굴에 각각 오십 명씩 숨겨 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 14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께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 15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요.” 하였다.
- 16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갔다.
- 17 O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 18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19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사백오십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사백 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 20 O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았다.
-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 22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사백오십 명이 되었다.
- 23 우리에게 수소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

- 지 마라. 나도 수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다.
- 24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으니.” 라고 하였다.
- 25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 26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 27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 28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 29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적도 없었다.
- 30 O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이게 말하였대.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고치고,
- 31 아람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열두 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아람은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 32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 세아의 씨앗을 담은 만곡 도랑을 만들었고,
- 33 또 장작을 벌여 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 34 그가 말하기를 “동네 개에 물을 채워다가 제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세 번째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렇게 하였다.
- 35 그다지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 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 36 O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

- 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지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 37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 38 그러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할아 버렸다.
- 39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 40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슭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 비를 내리신 여호와

- 41 O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 42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 43 자기 사환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에 사환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 왕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해라.”
- 45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데,
- 46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므로 그가 허리를 동어매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갔다.

### 호렘의 엘리야

- 19 1 O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 2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갈게 하지 않으면 신들

- 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 두었다.
- 4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를 것이 없습니다.” 하고
- 5 그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 6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 7 여호와와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 8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사십일을 걸어 갔다.
- 9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 10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 12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 13 엘리야가 듣고서 겹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였다.
- 14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

- 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 16 남자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므홀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 18 그러나 내가 칠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 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 부름받은 엘리사

- 19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번째 겨리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 겹옷을 지나가며 그에게 자기 겹옷을 던지자,
- 20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서 말하기를 “제 부모님께 먼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다.
- 21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 겨리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 후 그가 일어나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 섬겼다.

### 아람과 싸운 아합

- 20 1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의 모든 군대, 곧 그와 함께하는 삼십이 명의 왕들과 말과 병거를 모았다. 그가 올라와 사미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였다.
- 2 그가 사신들을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 3 그에게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렇게 말한다. 네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네 귀한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하니
- 4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하였는데
- 5 사신들이 다시 돌아와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전에 사신을 네게 보내어 네 은과 금과 네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하였다.
- 6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네 집과 신하들의

- 집을 살살이 뒤져서, 네 눈에 귀한 것은 모두 그 손으로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7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내 은과 금을 취하려고 내게 사신들을 보냈으나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하니,
- 8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마시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하였다.
- 9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왕께 ‘왕이 처음에 요구한 모든 것은 내가 행하겠지만, 이 일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해라.” 하므로, 사신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 10 벤하닷이 그에게 사신을 다시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미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빈손을 충분히 채우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니,
- 11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해라.” 하였다.
- 12 벤하닷이 막사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공격 대열을 갖추라.” 하니, 그들이 성을 공격할 대열을 갖추었다.
- 13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므로
- 14 아합이 문기를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아합이 또 문기를 “누가 전투를 시작해야 할니까?”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십니다.”라고 하였다.
- 15 아합이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소집하여 보니, 그들이 이백삼십이 명이었고, 그 후 그가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을 점검하여 보니, 칠천 명이었다.
- 16 ○정오에 아합의 군대가 출정하였는데, 그때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삼십이 명의 왕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 17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 먼저 출정하였다. 벤하닷이 정찰병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사미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에게 보고 하니,
- 18 벤하닷이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화친을 하려

- 나왔더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싸우러 나왔더라도 생포하라.” 하였다.
- 19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었으며, 군대는 그 뒤를 따랐다.
- 20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를 쳐 죽이니, 아람 사람들이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아람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마병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 21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들을 많이 살육하였다.
- 22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말하기를 “가서 힘을 기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 두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 23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 24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왕들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지휘관들을 세우십시오.
- 25 왕께서는 군대는 군대로,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줄어든 수만큼 보충하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 26 ○해가 바뀌자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가니,
- 27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식량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마주 보고 진을 쳤는데, 그들은 두 떼의 작은 염소 무리 같았으나 아람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메웠다.
- 28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모두 네 손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 29 서로 대치하여 칠일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칠일째에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을 쳐서 하루에 보병 십만 명을 죽이니,
- 30 살아 남은 자들이 아벡 성으로 도망하였는데, 성벽이 그 살아 남은 이만 칠천 명 위로 무너졌다.
- 31 ○벤하닷도 성으로 도망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다.
- 32 그때 벤하닷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



로운 왕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허리에 배를 두르고, 우리 머리에 끈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혹시 그가 왕의 목숨을 살려 줄지 모릅니다.” 하고

32 그들이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벤하닷이 간청합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하였다.

33 그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조짐으로 여기고, 서둘러 그의 말을 받아 말하기를 “벤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를 데려와라.” 하였다. 벤하닷이 나오자 아합이 그를 마차에 올라타게 하였다.

34 벤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께서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같이, 왕께서 다마스쿠스에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약조를 맺고 당신을 보내 주겠소.”라고 하며, 그와 약조를 맺고 그를 보내 주었다.

#### 아합을 책망한 한 선지자

35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하기를 “나를 쳐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였다.

36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였고, 그가 그 선지자의 결을 떠나니, 사자가 그를 덮쳐 죽였다.

37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하기를 “나를 쳐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치고 또 쳐서 상처를 입혔다.

38 그 선지자가 가서 눈을 수건으로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

39 왕이 지나갈 때에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을 돌려 한 사람을 제게로 데리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그를 놓치면, 그의 목숨 대신에 네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려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40 왕의 종이 여기저기 일을 하다 보니, 그가 없애지고 말았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결정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41 그가 서둘러 자기 눈에서 수건을 풀었고, 이스라엘 왕은 그가 선지자들 중 하나인 것을 알았다.

42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내가 손에서 놓아 주었으므로, 그의 목숨 대신에 네 목숨을, 그의 백성 대신에 네 백성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43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 나봇의 포도원

21 1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2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네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네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3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4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5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왕의 마음이 상하여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까?” 하니,

6 그가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돈 받고 내게 팔아라. 혹시 네가 원한다면, 그 대신에 네게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제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요.”

7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8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편지들을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9 이세벨이 편지들에 쓰기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10 불랑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게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

가 돌로 쳐 죽여라.” 하였다.

11 그의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니,

13 불랑배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14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15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 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니,

16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갔다.

17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18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19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너의 것도 핏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0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야, 내가 너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찾았습니다. 왕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 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 자나 놓인 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 버릴 것이다.’

22 네 집을 느밋의 아들 예르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네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23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24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5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26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

아낸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같이 우상들을 파르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27 ○아합은 이 말들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28 그러자 여호와와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29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셨다.

#### 아람과의 전쟁과 미가야 (대하 18:2-27)

22 1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삼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2 삼년째 유다 왕 여호사밋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3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었느냐?” 하였고,

4 여호사밋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사밋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5 ○여호사밋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와 말씀을 알아보십시오.” 하자,

6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사백 명쯤 모아 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7 여호사밋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밋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쭙 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밋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자,

9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하였다.

10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밋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왕복을 입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

- 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 11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찢러 멸할 것이다.’” 하자.
- 12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13 오미가야를 데리러 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십시오.” 하니,
- 14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하고,
- 15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16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네가 나에게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 17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 1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 19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을 좌우 주위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피어, 그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자.’ 하나는 ‘저렇게 하자.’ 하는데,
- 21 그때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피어 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므로,
- 22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피어 보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 23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제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24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뿔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와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네게 말씀하셨느냐?” 하니,
- 25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 26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 27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라고 하여라.” 하였다.
- 28 미가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또 “모든 백성들이 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 아합의 죽음 (대하 18:28-34)

- 2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 3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나갔다.
- 31 한편 아람 왕이 자기의 삼십이 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하였다.
- 32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기를 “저 자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자 그 때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 33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 34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에 맞았다. 그가 병거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를 싸움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 35 그 날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꼼짝 못하고 서서 아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 36 해가 지자 진영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나기를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였다.
- 37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지니, 사람들이 왕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 38 사람들이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으므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그곳은 창기들이 묵욕하는 곳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 39 아합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가 지은 성곽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 40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여호사밧(대하 20:31-21:1)
- 41 ○이스라엘 왕 아합 제 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 42 여호사밧이 삼십오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을 다스렸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히의 딸이었다.
- 43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 44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 화평하였다.
- 45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사한 권세와 전쟁에서 행한 것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 46 그는 아버지 아사 때까지 남아 있던 신전 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

- 47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대신하였다.
- 48 여호사밧이 금을 가지러 오벨로 가는 다시스 배들을 만들었으나 가지 못하였으니,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기 때문이다.
- 49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 종들을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원치 않았다.
- 50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기 조상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 51 ○유다 왕 여호사밧 제 십칠 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년 동안 다스렸다.
- 5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 53 그가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다.



## 엘리아와 아하시야

- 1 1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었는지 물어 보아라.” 하였다.
- 3 그때 여호와와 천사가 디셋 사람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 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므로 이에 엘리아가 떠났다.
- 5 ○전령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돌아왔느냐?” 하니,
- 6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 이르되, 너희는 돌아가 너희를 보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7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하니,
- 8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아다.’” 라고 하였다.
- 9 ○엘리아에게 오십부장을 부하 오십 명과 함께 보냈다. 그가 올라가 보니, 엘리아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다.
- 10 엘리아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오십 명을 태워 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오십 명을 태워 버렸다.
- 11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을 부하 오십 명과

- 함께 보내므로 그가 올라가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 12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오십 명을 태워 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오십 명을 태워 버렸다.
- 13 ○왕이 다시 세 번째 오십부장과 부하 오십 명을 보내니, 세 번째 오십부장이 올라가 엘리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오십 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 14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전의 오십부장 두 명과 그 부하들 각각 오십 명을 태웠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 15 그때 여호와와 천사가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엘리아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 16 엘리아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 물어 볼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17 ○엘리아가 전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밋의 아들인 여호람 제 이년이었다.
- 18 아하시야가 행한 나머지 행적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 하늘로 올라간 엘리아

- 2 1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아와 엘리아사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 2 엘리아가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아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선생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 3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아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 4 ○엘리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아사,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아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선생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 5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아에게 가까이 나아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 6 ○엘리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아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선생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 7 선지자의 제자들 중 오십 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 8 엘리아가 자기 겹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 9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아가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아가 대답하기를 “선생님께 일한 영을 차에게 감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 10 엘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 11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아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 12 엘리아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아는 엘리아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 13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겹옷을 집어 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 14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겹옷을 잡고 물을 내리

-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아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아가 건너갔다.
- 15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아에게 임한 영이 엘리아에게 내렸다.” 하고, 그들이 엘리아를 맞으러 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 16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전장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여호와와 영이 그분을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 거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엘리아는 말하기를 “보내지 마라.” 하였다.
- 17 그러나 그들이 엘리아가 망망해할 정도로 간청하니 엘리아가 “보내라.” 하고 허락했다. 그들이 오십 명을 보내어 삼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엘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 18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아에게 돌아오자, 엘리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 기적을 행한 엘리아

- 19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아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좋지않지만 물이 나빠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자,
- 20 엘리아가 말하기를 “새 대전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와라.” 하니, 그들이 가져왔다.
- 21 엘리아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 22 그 물이 엘리아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 23 ○엘리아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 말하기를 “대머리아 올라가라, 대머리아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대므로,
- 24 엘리아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 속에서 아람 두 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사십이 명을 찢어 죽였다.
- 25 엘리아는 거기서 갈멜 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 이스라엘 왕 여호람

- 3 1 ○유다 왕 여호사밋 제 십팔 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 2 그가 여호와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가) ‘털의 주인’, 혹은 ‘털옷을 입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3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반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 4 오모압 왕 메사는 양 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 5 아합이 죽은 후 오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 6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 7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 8 여호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애돔 광야 길로 갑시다.”라고 하였다.
- 9 O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애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칠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
- 10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자,
- 11 여호사밧이 물기를 “여기에 여호와와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 봅시다.”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부어 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였다.
- 12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애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 13 O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 14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15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 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 16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 17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하셨으니,
- 18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 19 왕들이 모든 요새와 모든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 20 아침이 되어 곡식제를 드릴 무렵에 보니, 물이 애돔 길을 따라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 21 O 온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되는 자들이 모두 모여 국경에 섰다.
- 22 아침 일찍 모압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해가 물 위에 떠오르면서 건너편의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고,
- 23 외쳤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약탈하러 가자.”
- 24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모압 사람들을 계속 치고
- 25 성들을 허물고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져 채우고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다. 마침내 길례레셋에 도달한 남았는데 무엇때문들이 두루 다니며 그곳을 공격했다.
- 26 모압 왕이 전세가 매우 불리한 것을 보고, 칼 가진 자 칠백 명을 친히 이끌고 애돔 왕이 있는 쪽을 돌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 27 그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쳤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 과부의 기름

- 4 1 O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저의 두 자식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 2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 주면 좋겠소? 당신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 보시오.” 하니,

-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므로,
- 3 엘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 오되 적게 빌려 오지 마시오.
- 4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 5 여자가 엘리사를 떠나,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들이 그릇을 가져다 주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 6 그릇에 다 채워지자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기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그쳤다.
- 7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과 생활하십시오.” 하였다.
- 죽은 자를 살린 엘리사
- 8 O 하루는 엘리사가 수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 9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 10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11 O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 12 그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면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 13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금이나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 14 O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 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시다.”라고 하였다.
- 15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 16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 17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 18 O 그 아이가 자라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에 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 19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가 내 머리아.” 하니,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였으므로,
- 20 하인이 아이를 안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다.
- 21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 22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안아귀 한 마리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른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 23 남편이 말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고 하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 24 그 여자가 안아귀에 안장을 얹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물고 가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늦추지 마라.”
- 25 그 여자가 가서 갈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 O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면 여자가 있으니,
- 26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남편과 당신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하여라.’ 하니, 그 여자가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27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밭을 꼭 겨냥하므로, 게하시가 나서서 그 여자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였다.
- 28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
- 29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네 허리를 동여매고, 내 지팡이를 네 손에 들고 떠나라. 네



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네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30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신과 선생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다.

31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질러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와 께어 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32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33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34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었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바닥을 그의 손바닥에 서로 마주 대고 그의 위에 었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35 엘리사가 내려가 집 안을 한 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의 위에 었드리니, 그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36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불렀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니,

37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었드려 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 엘리사가 행한 다른 기적들

38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의 앞에 앉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하기를 “큰 술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하였다.

39 그때 한 사람이 나물을 캐려고 들로 나갔다가 들덩굴 풀을 발견하고 거기서 들호박을 그의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왔다. 그가 그것을 국술에 썰어 넣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40 그들이 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사람들이 국을 떠먹다가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술 안에 죽을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므로,

41 엘리사가 말하기를 “밀가루를 가져와라.” 하고 그가 그것을 술에 뿌리며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하니 술 안에서 독이 없어졌다.

42 어떤 사람이 비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햇곡식으로 만든 빵, 곧 보리 빵 이십 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 왔으므로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 먹게 해라.” 하였다.

43 그를 시종드는 자가 말하기를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 줄까요?” 하였으니,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 먹게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므로,

44 그가 그들에게 나눠 주어 먹게 했더니, 여호와와 말씀대로 음식이 남았다.

5 1 O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2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종들고 있었다.

3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제 주인님이 사미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을 나병에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4 나아만이 들어가서 자기 주인에게 보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5 그러자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하였다.

6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7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8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나?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 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하였다.

9 O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

사의 집 문 앞에 서니,

10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기를 “거기 요단에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다.

11 나아만이 화를 내고 물러가며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그가 먼저 밖에 나와 서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환부에 이리저리 갖다 대어,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2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 아미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질지 않겠느냐? 하고, 격분하여 발길을 돌려 떠났다.

13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나아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14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15 O나아만이 그의 모든 부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였으니,

16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받지 않겠소.” 하였다. 나아만이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였다.

17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당신의 종에게 나귀 두 마리에 실을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8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인께서 림몬의 신전에서 가서 절할 때 제 팔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저도 림몬의 신전에서 절해야 합니다. 제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 엘리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하였다. O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을 때,

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의 사환 게하시가 생가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이랴도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고,

21 나아만을 뒤쫓아갔다. 나아만이 자기 뒤를 쫓아오는 사람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맞으면서 묻기를 “평안하냐?” 하니,

22 게하시가 대답했다. “평안합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 청년 두 명이 내게 왔으니, 그들을 위해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만 주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23 그러자 나아만이 말하기를 “부디 두 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과 함께 사환 두 명에게 메도록 하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갔다.

24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집에 들여놓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

25 들어가 자기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좋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26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을 모르느냐? 지금은 은을 받고, 옷이나 올리브 나무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 떼나 소 떼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뎡나?”

27 그러므로 나아만이 사람이 네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나오니,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다.

#### 떠오른 쇠도끼

6 1 O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협소합니다.”

2 저희가 요단으로 가서, 각자 재목을 하나씩 가져다가 거기에 저희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가 “가라.” 하였다.

3 한 제자가 말하기를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과 함께 동행해주십시오.” 하였다.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 하였으므로,

4 그들이 함께 떠나 요단에 도착하여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5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아, 내 주여, 그것은 빌려 온 것입니다.” 하였다.

6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곳을 엘리사에게 보여 주므로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곳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7 엘리사가 말하기를 “집어 올려라.” 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했다.

### 선지자의 포로들

- 8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신하들과 작전을 짜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치겠다.” 하면
-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10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경고해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지켰으니, 이렇게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11 ○이 때문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니,
- 12 그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 13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자를 잡아 오겠다.” 하니,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십시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 14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다.
- 15 ○하나님의 사람을 시종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라고 하자,
- 16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 17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 말과 불 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 18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 무리를 쳐서 눈이 멀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셨다.
- 19 엘리사가 그들에게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또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성이 아니니, 내 뒤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당

- 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라고 말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 20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시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므로 그들이 보니, 그들이 사마리아 한 가운데 있었다.
- 2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하자,
- 22 엘리사가 말하기를 “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죽이십니까? 이 사람들 앞에 빵과 물을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후, 자기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였으므로,
- 23 왕이 많은 음식을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자기 주인에게 가게 하니, 아람 군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게 되었다.
- 기근이 든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왕**
- 24 ○그러한 일이 있는 지 얼마 후, 아람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 25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 나귀 머리는 은 팔십 세겔, 비둘기 포 사분의 일 “기브는 은 다섯 세겔까지 오르게 되었다.
- 26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그에게 외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도와주소십시오.” 하니,
- 27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는다는 말이냐?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줄 것이 있겠느냐?” 하고,
- 28 또 왕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들은 내일 잡아먹자.” 하였습니
- 29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 말하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
- 30 왕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보니, 그가 속삭 위에 붉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 31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탄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것이다.” 하였다.

- 32 ○한편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니, 그 전령이 엘리사에게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전령이 도착하면 문을 닫고, 그 사람을 문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뒤에서 그의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였다.
- 33 엘리사가 아직도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에, 정말 전령이 그에게 내려와서 왕의 말을 전하기를 “보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 7** 1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와 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이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이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하였습니
- 2 왕을 자기 손으로 부축하는 한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였다.

### 아람 군대의 도주

- 3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이 성문 입구에 있다가 그들이 서로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 4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없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또한 죽게 될 것이니, 이제 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 5 그들이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그들이 아람 진영의 끝까지 갔으나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 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동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스라엘 왕이 헛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다.” 하고,
- 7 일어나 황혼 무렵에 도망하되,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과 진영을 있는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 8 이들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끝까지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들고 나가 그것을 숨기고,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

가 숨겼다.

- 9 ○그러다가 그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구나. 만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니, 이제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하고,
- 10 그들이 돌아가 성의 문지기들을 불러 보고하기를 “우리가 아람의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은커녕 사람의 기척조차 없고, 단지 말과 나귀만 묶여 있었으며 장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라고 하니,
- 11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이 사실을 알렸다.
- 12 왕이 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분명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진을 떠나서 들에 대박하며 말하기를 ‘그들이 성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으로 들어가자.’ 했을 것이다.” 하니,
- 13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했다. “성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도록 해 주소서. 보십시오, 이 말들도 이 성 안에 남아 있어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은 운명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차피 모두 죽을 것이니, 그들을 보내어 정탐이나 해 보게 합시다.”
- 14 그들이 말이 끄는 병거 두 대와 그 말들을 끌어내니, 왕이 아람 진영 뒤로 보내며 명령하기를 “가서 정탐하라.” 하였다.
- 15 그들이 요단까지 따라갔는데,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며 버리고 간 옷과 기구들이 길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전령들이 돌아와 왕에게 알렸다.
- 16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의 진영을 약탈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이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이가 한 세겔이 되었다.
- 17 왕이 자기를 부축하는 지휘관에게 성문을 감독하도록 시켰는데, 그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밧혀 죽었으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였다.
- 1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이가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이가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하니,
- 19 그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하였

ㄱ) ‘미른것과 액체를 측정하는 도량형’



20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므로 그가 죽었다.

### 귀향한 수벤 여인

8 1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 주었던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 머물만한 곳에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므로, 이 땅에 칠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기 때문이요.” 하였다.

2 그 여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 블레셋 땅에서 칠년 동안 머물렀다가,

3 칠년이 지나 그 여자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로 나아갔다.

4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에 대해 내게 모두 얘기해 봐라.” 하고 말했다.

5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에, 마침 아들을 살려 준 바로 그 여자가 왕에게 자기 집과 자기 밭에 대해 호소하였으므로,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이며, 이 아이가 바로 그 여자의 아들 곧 엘리사가 살려 준 아이입니다.” 하므로

6 왕이 그 여자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물으니, 그 여자가 사실대로 말하였다. 왕이 그 여자를 위해 한 관리를 지정하며 말하기를 “이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여자가 이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생산된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하였다.

### 다마스쿠스의 엘리사

7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하니,

8 왕이 히사엘에게 말하기를 “네 손에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 보아라.” 하였으므로,

9 히사엘이 그를 만나러 갔는데, 낙타 사십 마리에 실은 다마스쿠스의 모든 귀한 예물들이 그의 손에 있었다. 그가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께서 저를 당신께 보내어,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물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10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왕께서 반드시 나오실 것이라고 왕께 전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왕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도 내게 보여 주셨소.” 하고,

11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민망해질 정도로 쏘아 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12 히사엘이 “내 주여, 왜 우십니까?” 하고 물으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을 행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이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며,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아이들을 내 동맹이치며,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요.” 라고 하였다.

13 히사엘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중, 곧 개와 같은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 주셨소.” 하였다.

14 히사엘이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에게로 돌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기를 “엘리사가 네게 뭐라고 말하였느냐?” 하므로 히사엘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틀림없이 나오실 것이다.’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였다.

15 그 이튿날 히사엘이 이불을 가져다가 물에 적서 왕의 얼굴에 덮으니, 그가 죽었고, 히사엘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여호람 (대하 21:1-20)

16 ○이스라엘 왕 이합의 아들 요람 제 오년, 여호사밋이 아직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밋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

17 그가 삼십이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팔년 동안 다스렸다.

18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9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니, 주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20 ○여호람의 시대에 애들이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으므로

21 여호람이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사일로 건너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포위한 애들 사람들과 병거 지휘관들을 치니, 그 백성이 자기 진영으로 도망하였다.

22 이와 같이 애들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때 린나도 역시 반역하였다.

23 ○여호람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4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이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히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이히시아

25 ○이스라엘 왕 이합의 아들 요람 제 십이 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이히시아가 왕이 되었으니,

26 이히시아가 이십이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로서 이름은 아달라였다.

27 그가 이합의 집 길로 행하여 이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 이는 그가 이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28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우려 길르앗 라못으로 갔을 때,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29 라미에서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 아람 사람들이 입힌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요람 왕이 이스르엘로 돌아왔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이히시아가 이스르엘로 내려가 그를 문병하였다.

###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

9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네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 거기에 도착하면, 먼저 남시의 손자인 여호사밋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들어가 그를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3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부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마라.”

4 ○이에 그 청년, 곧 청년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떠났다.

5 그가 도착하여 보니, 군대의 장군들이 앉아 있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장군님, 제가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를 가운데 누구에게냐?” 하므로 그가 “바로 장군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6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7 내가 네 주 이합의 집을 쳐라.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 세벨에게 갚을 것이니,

8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내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 자나 놓인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 버릴 것이다.

9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밋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리고 아히아아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10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르엘 땅에서 먹으며, 아무도 그 여자를 장사 지내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가 문을 열고 곧바로 도망하였다.

11 ○예후가 자기 주의 신하들에게로 나아가니, 사람들이 그에게 물기를 “평안입니까? 무슨 일로 그 미친놈이 당신에게 왔습니까?”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가 한 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12 그들이 말하기를 “당치 않은 말입니다. 제발 우리들에게 말해 주시오.”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리이러하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소.”

13 그들이 급히 자기 옷을 취하여 섬돌 위, 곧 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입니다.” 하고 외쳤다.

### 이스라엘 왕 요람의 최후

14 ○이렇게 하여 남시의 손자인 여호사밋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때 요람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왕 하시엘에 대항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15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 아람 사람들이 그에게 입힌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르엘에 돌아와 있었다. 예후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뜻을 같이한다면, 아무도 이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하고,

16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갔으니, 이는 요람이 병들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이히시아도 요람을 문병하러 와 있었다.

17 ○이스라엘의 땅에 위에 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외치기를 “한 무리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니, 요람이 말하기를 “기마병을 차출해 그들을 맞이하러 보내어 ‘평안이나?’ 하고 묻게 해라.” 하였다.

18 기마병이 그를 맞이하러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평안이나?’ 하고 물으십니다.”라고 하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평안인 너와 무슨 상관 있느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하였다. 파수병이 “전령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19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므로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평안이나?’ 하고 물으십니다.”라고 하니, 예후가 또 대답하여 “‘평안인 너와 무슨 상관 있느냐?’ 돌이켜

- 나를 따라라.” 하였다.
- 20 파수병이 다시 보고하기를 “전령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자의 손자 예후가 말을 타는 것처럼 미친 듯이 말을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 21 요람이 말하기를 “병거를 준비해라.” 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병거를 준비하였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떠나, 예후를 만나러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 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이나?” 하고 물으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하므로,
- 23 요람이 그의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외치기를 “아하시야여, 반역입니다.” 하였다.
- 24 예후가 팔로 화살을 힘껏 던져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찢니, 화살이 그의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어 그가 병거에서 쓰러졌다.
- 25 예후가 그의 지휘관 빗갈에게 말하기를 “그 시체를 거두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나와 내가 나란히 짝이 되어 병거를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경고를 떠올려봐라.”
-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밭에서 네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를 끌고 가 밭에다 던져라.” 하였다.
- 유다 왕 아하시야의 최후**
- 27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였는데, 예후가 그 뒤를 추격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이 블르암에 있는 구르의 오르막길에서 병거를 공격해 그에게 상처를 입히니, 그가 미지근도로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 28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 다윗 성에 있는 그의 묘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 29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십일 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었다.
- 이세벨의 최후**
- 30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 31 예후가 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하기를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아, 평안하냐?” 하였다.
- 32 예후가 창문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하니, 내시 두세

- 명이 내다보았다.
- 33 예후가 소리치기를 “그 여자를 내던져라.” 하니, 그들이 그 여자를 내던지므로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갔다.
- 34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신 후 말하기를 “이 저주받은 여자가 왕의 딸이니, 찾아서 장사 지내 주어라.” 하였으므로,
- 35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려고 갔으나 해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 36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며, 37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의 거름 같이 되어, 사람들이 보고도 이세벨의 것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 아합 집의 최후

- 10 1 ○아합에게는 칠십 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그런데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보냈다.
- 2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들과 견고한 성과 무기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는 대로,
- 3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 보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 주의 집을 위해 싸우도록 해라.”
- 4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보아라,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감당하겠느냐?” 하고,
- 5 궁궐의 책임자와 성의 책임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보내어, “저희는 장군의 종들입니다. 장군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든지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니,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 6 그러자 예후가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내 말을 듣는다면, 내일 이맘때에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와라.” 하니, 그때 칠십 명의 왕자들은 각자 자기들을 교육하는 성읍의 높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
- 7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왕자들을 잡아 칠십 명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 보냈다.
- 8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명령하기를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 두어라.” 하였다.
- 9 아침에 예후가 나가 서서 온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의롭다. 보아라, 내가 내 주께 반역하여 그를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죽인 것이냐?”
- 10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다.”
- 11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과 그의 모든 고관들과 친척들과 제사장들을 죽여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최후**
- 12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다가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 13 거기서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물기를 “당신들은 누구시오?”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인데, 왕의 아들들과 왕비의 아들들에게 문안드리러 내려가는 중이요.” 하였다.
- 14 그러자 예후가 “저 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하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구덩이 곁에서 죽였는데, 모두 사십이 명이니, 예후가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았다.
- 아합의 남은 자들의 최후**
- 15 ○예후가 거기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당신을 향한 내 마음과 같이 당신 마음도 진실하시오?” 하고 말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므로, “그렇다면 당신 손을 내미시오.” 하였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자기 병거로 끌어올리고,
- 16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대한 내 열심을 살펴보시오.” 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갔다.
- 17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게 남은 자들을 거기서 모두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 바알의 종들의 최후**
- 18 ○예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훨씬 많이 섬길 것이다.”
- 19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 하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

- 다.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예후가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속임수를 쓴 것이다.
- 20 예후가 명령하여 “바알을 위해 집회를 거룩하게 준비해라.” 하므로, 사람들이 집회를 선포하였다.
- 21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모든 종들이 왔는데, 오지 않고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지, 바알의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찼다.
- 22 예후가 예복을 담당하는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알의 모든 종들을 위해 예복을 내와라.” 하자, 그가 그들을 위해 예복을 내왔다.
- 23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잘 살펴보아 여호와께 섬기는 자는 없게 하고, 단지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어야 한다.” 하였으며,
- 24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 그때 예후가 밖에 팔십 명의 사람을 배치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넘긴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는 자는 그 사람의 목숨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 25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하니,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그들을 칼로 죽여 내던지고 바알 신전의 내실까지 쫓아 들어가,
- 26 바알 신전의 기둥 우상들을 끌어내 태워 버렸다.
- 27 그들이 바알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 28 ○이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근절하였다.
- 29 다만 예후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밋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 30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네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네 자손들이 사 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 31 예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예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 예후의 죽음**
- 32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기 시



작하였다. 히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쳤으니,  
**33**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는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였다.  
**34** 예후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35**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햇수는 이십팔 년이었다.

#### 유다의 아달라 (대하 22:10-23:15)

**11** 1 O아히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2** 그런데 요람 왕의 딸인 아히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죽게 된 왕자들을 가운데서 아히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기므로 그가 아달라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3** 요아스가 여호와와 전에서 유모와 함께 육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라가 그 땅을 다스렸다.  
**4** O제 칠년에 여호아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와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여호아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여호와와 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 주었고  
**5**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렇다. 너희 중에서 안식일에 당번을 맡은 자 중 삼분의 일은 왕궁 경비를 서고,  
**6** 삼분의 일은 수르 성문 경비를 서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호위병들 뒤에 있는 성문 경비를 서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7** 안식일에 비변인 너희 두 부대는 모두 왕을 위해 여호와와 전 경비를 서라.  
**8** 너희는 각자 손에 자기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누구든지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여라. 너희는 왕이 나가시든지 들어오시든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  
**9** O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아다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 각자 자기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과 안식일에 비변인 자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아다에게 가니,  
**10** 제사장이 여호와와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넘겨주었고  
**11** 호위병들이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왼쪽까지 경호하되, 제단과 성전 곁에서 왕을 호위하였다.  
**12** 여호아다가 왕자를 모시고 나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문서를 넘겨주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손뼉을 치며 “왕 만세.” 하고 외쳤다.  
**13** O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14** 보니, 왕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서 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은 왕과 함께 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으므로 아달라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15** 제사장 여호아다가 부대를 관장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저 여자를 대열에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여라.” 하였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와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16** 그들이 아달라를 끌어내니, 아달라가 말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여호아다의 개혁 (대하 23:16-21)**  
**17** O여호아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18**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아다는 여호와와 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웠다.  
**19** 여호아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와 전으로부터 왕을 모시고 내려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으니,  
**20** 나라의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성음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라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21** O요아스가 칠세에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요아스 (대하 24:1-16)

**12** 1 O예후 제 칠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으로서 이름은 시비아였다.  
**2**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아다가 가르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나,  
**3**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4** O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각자에게 부

과된 헌금과, 각 사람의 몸값으로 매겨진 헌금과, 또 자발적으로 여호와와 전에 바치는 모든 헌금,  
**5** 제사장들이 각자 담당 회계에게 받아서, 전의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든지 수리하도록 하시오.” 하였는데,  
**6**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이십삼 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전의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다.  
**7**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아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직도 전의 균열을 수리하지 않고 있소?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이 담당 회계에게서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전의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그것을 내놓으시오.” 하니,  
**8** 제사장들도 동의하여, 그들이 직접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직접 전의 균열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하였다.  
**9** O제사장 여호아다가 궤를 하나 가져다가 두께에 구멍을 만들고, 그것을 제단 옆, 곧 사람이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놓아두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전에 드려지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도록 했다.  
**10** 그들이 궤 속에 돈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 여호와와 전에 있는 돈을 따로 모아 계산하였고,  
**11** 계산된 돈을 여호와와 전에서 일하는 감독자들의 손에 전달하면, 그들이 여호와와 전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12**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 지불하였으며 여호와와 전의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는 데 쓰거나, 여호와와 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로 지불하였다.  
**13** 그러나 여호와와 전에 필요한 은 대접이나 부집거나 각종 주발이나 나팔이나 어떤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여호와와 전에 바쳐진 돈으로는 만들지 않았으며,  
**14** 그 은을 오직 일꾼들에게만 지불하여, 여호와와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15**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지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 속건제의 돈과 속죄제의 돈은 여호와와 전의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다.  
**17** O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 하였으므로,  
**18** 유다 왕 요아스가 자기 선대의 유다 왕들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히시아가 거룩하게 바친 모든 성물들과, 자기가 바친 성물들, 그리고

여호와와 전의 보물 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19** O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20**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켜,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는데,  
**21** 그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마사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13** 1 O유다 왕 아히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 이십삼 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렸다.  
**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또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4**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이는 아람 왕이 그들을 학대하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처럼 자기 장막에서 살게 되었으나,  
**6** 그들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행하였으며, 아세라도 사마리아에 계속 세워두었다.  
**7** 아람 왕이 그들을 전멸시켜 타작마당의 먼지 같이 되게 하고, 여호아하스에게 단지 기마병 오십 명과 병거 열 대와 보병 만 명만 남겨두었다.  
**8** 여호아하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9**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10** O유다 왕 요아스 제 삼십칠 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11**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서 떠나지 않고 그 악을 따라 행했다.  
12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요아 왕 아미사와의 싸움에서 보여 준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3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여로보암이 그의 보좌에 앉았고,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 병이 들어 죽은 엘리사

14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자와 기마병이여” 하였다.

15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16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라고 하여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17 그가 말하기를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와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18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니, 왕이 화살들을 잡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니, 왕이 땅을 세 번 치고 멈췄다.

19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대여섯 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세 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0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으며, 해가 바뀌었을 때, 모압의 일당이 그 땅에 쳐들어왔다.

21 마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다가 그 일당을 보고 놀라,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 아람에 대한 승리

22 ○여호아스 때에 아람 왕 하시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압박하였으나,

2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보살피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24 ○아람 왕 하시엘이 죽으니,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5 그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시엘의 아

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에게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가 그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 유다 왕 아마사 (대하 25:1-24)

14 1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스의 아들 요아스 제 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었으니,

2 그가 이십오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호앗단이었다.

3 아마사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4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5 아마사가 자기 손에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후,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으나,

6 살인자들의 자식들은 처형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명한 모세의 율법책에 “아버들이 자식들 때문에, 또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며,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7 ○아마사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빼앗아 그 이름을 욥드엘이라고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8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와라, 우리가 서로 맞서보자.” 하니,

9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통보하여 말하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려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넘어가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10 네가 애돔을 쳐서 무찌르더니, 네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 영에나 즐기며 네 집에 머물러 있이라. 어찌하여 네가 재앙을 자초하여 너와 네 백성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11 ○아마사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쳐들어 올라왔다.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사가 유다에 속한 벧세메스에서 서로 맞섰는데,

1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1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히사야의 손자이며 요

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사를 벧세메스에서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에브라임 성문에 서부터 모두가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을 허물었다.

14 그가 또 여호와와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던 모든 금과 모든 그릇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15 ○요아스가 행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6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7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 십오 년을 다 살았다.

18 아마사의 남은 행적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9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사를 반역하자, 그가 라기스로 도망갔으나 그들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20 사람들이 그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21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라를 데려오니, 그는 심옥 세었다. 사람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22 아사라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운 후에 아사라가 엘탈을 재건하여 유다에 돌렸다.

#### 이스라엘 왕 슬로몬

23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 십오 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사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24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5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드 헤벨 사람이며 미밋대의 아들인 자신의 종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던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회복하였으니,

26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난이 매우 심하여 매인 자나 놓인 자가 끊어졌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것을 보셨고,

2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28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싸움에서 보여 준 그의 권세와 그가 유다에 속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 복귀시킨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

록되어 있지 않느냐?

29 여로보암이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스가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아사라 (대하 26:1-23)

15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이십칠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었으니,

2 그가 십육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올리아였다.

3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4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5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통치했다.

6 아사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7 아사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이스라엘 왕 스가라

8 ○유다 왕 아사라 제 삼십팔 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9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0 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1 스가라의 남은 행적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12 이로써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 자손들이 사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 이스라엘 왕 살롬

13 ○아베스의 아들 살롬이 유다 왕 우시야 제 삼십구 년에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14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아베스의 아들 살롬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 살롬의 남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16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답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주변을 쳤는데,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 주지 않으므로 성을 쳐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을 갈랐다.

#### 이스라엘 왕 므나헨

17 ○유다 왕 아사랴 제 삼십구 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십년 동안 다스렸다.

18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9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치려고 오니, 므나헨이 불에게 은 천 달란트를 주어 불이 자기를 돕게 하고, 그의 손 안에서 왕국을 견고케 하려 하였다.

20 므나헨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각각 은 오십 세겔의 세금을 부과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주니, 아시리아 왕이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21 ○므나헨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2 므나헨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23 ○유다 왕 아사랴 제 오십 년에 므나헨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년 동안 다스렸다.

24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5 브가히야의 보좌관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그를 반역하여, 아르굽과 아리에와 자기와 함께 한 길르앗 자손 오십 명과 더불어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경비소에서 왕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6 브가히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이스라엘 왕 베가

27 ○유다 왕 아사랴 제 오십이 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십 년 동안 다스렸다.

28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9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공하여, 이온과 이벨벳마야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남달리 전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30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였다. 호세아가 웃시아의 아들 요담 제 이십 년에 베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1 베가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유다 왕 요담

32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이년에 웃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33 그가 이십오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서 이름은 여루사였다.

34 그가 자기 아버지 웃시아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35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가 여호와와 전 율법을 세웠다.

36 요담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일들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7 그때 여호와께서 이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38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유다 왕 아하스 (대하 28:1-27)

16 1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십칠 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으니,

2 아하스가 이십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3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4 그가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5 ○그때 이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아하스를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6 당시 이람 왕 르신이 엘랏을 이람에게 되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몰아냈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7 아하스가 사신들을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저는 왕의 종이며 왕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저를 치려고 일어난 이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8 아하스가 여호와와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9 아시리아 왕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마스쿠스로 올라와 그곳을 함락시킨 후, 그 주민들은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을 죽였다.

10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는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본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니,

11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 준 도본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12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는데,

13 번제와 곡식제를 드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14 그가 또 여호와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옮겼으니, 새 제단과 여호와와 전 사이에서 옮겨다 가 새 제단 북쪽 편에 두었다.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기를 “이 큰 제단 위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리게 하고, 번제물의 모든 피와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려라. 놋 제단은 오직 내가 여호와께 여쭙 볼 때에만 쓸 것이다.” 하니,

16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17 ○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의 테두리를 뜯은 뒤 받침대 위에서 물두멍을 떼어 내었고, 놋 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다를 끌어내려 그것을 돌바닥 위에 놓았으며,

18 또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 성전에 만든 통로와 왕이 밖에서 들어갈 때 사용하는 입구를 아시리아 왕 때문에 여호와와 전에서 옮겨 놓았다.

19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0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이스라엘 왕 호세아

17 1 ○유다 왕 아하스 제 십이 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년 동안 다스렸다.

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3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4 호세아가 사신들을 이집트 왕 소에게 보내고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올려 보내지 않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의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 이스라엘의 멸망

5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 다녔으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삼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다.

6 ○호세아 제 구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7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9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은밀히 불의를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10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11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다.

12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13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선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며 경고하였다.

14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뺏뺏하게 하였다.

15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 허망하게 되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따르지 마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이방 사람을 따라 행동했다.

16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17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

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다.

18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19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했다.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버려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2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들이 왕으로 삼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여 그들로 큰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22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23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

#### 민족들의 이주

24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25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 그들 중 몇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였다.

26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옮겨와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이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도를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27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기를 “너희가 거기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그곳으로 가게 해라. 그가 가서 거기서 살며 그들에게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게 하여라.” 하니,

28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 베벨에 와서 살며,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각 민족들의 종교

29 ○그러나 각 민족들은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산당에 두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30 바빌론 사람들은 수곳 브נות, 구 사람들은 네르갈을, 하맛 사람들은 아시미를,

31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락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인 아르람멜렉과 이남멜렉에게 바치려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랐다.

32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했는데, 자기들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산당에서 제사하게 했다.

33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로잡혀 오기 전의 그곳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신도 섬겼다.

34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전의 관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지 않고 있으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

35 예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제사하지도 마라.”

36 오직 크신 능력과 퍼신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제사하여라.

37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평생 지켜 행하여, 다른 신들은 결코 경외하지 마라.

38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은 결코 경외하지 마라.

39 오직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40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전의 관습대로 행했는데,

41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다.

#### 유다 왕 히스기야

(대하 29:1-2; 31:1)

18 1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2 그가 이십오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기랴의 딸로서 이름은 아비였다.

3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4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

라 우상을 잘라 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렸으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며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5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6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

7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행동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8 그가 가사와 그 주변에 이르까까지, 또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까까지 불레셋을 모두 쳐부숴서,

9 ○히스기야 왕 제 사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칠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10 삼년 만에 함락시키니, 히스기야 왕 제 육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 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11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매대의 여러 성읍에 정착시켰으니,

12 이는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와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 산헤립의 유다 침공

(대하 32:1-19; 사 36:1-22)

13 ○히스기야 왕 제 십사 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14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부과하는 것을 다 갚았겠으니, 저희에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하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부과했다.

15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주었고,

16 이때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전의 문과 기둥에서 자신이 입혔던 금을 벗겨 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17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팔레티의 큰 길가에 있는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섰다.

18 그들이 왕을 부르자, 궁내대신이며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기록관이며 아산의 아들인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갔다.

19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20 내가 전쟁을 위한 전략과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이제 네가 누구를 믿기에 내게 반기를 들었느냐?

21 이제 보아라, 네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나 그 나라에 기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해 손바닥을 찢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다.

22 혹시 너희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느냐?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명령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23 그러나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과 한번 내기를 해 보아라. 만약 말 이천 마리를 탈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네게 주겠다.

24 내가 어떻게 내 주의 하찮은 종들 중 지방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병거와 기마병들을 얻기 위해 네가 이집트를 의지하겠다는 말이나?

25 이제 내가 여호와와 허락 없이 이곳을 멀리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치러 올라가 멸망시켜라.’ 말씀하셨다.”

26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27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너희와 함께 자신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다.

28 ○랍사게가 나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29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30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니,



- 31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와라. 그러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 32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고 있으나, 그의 말을 듣지 마라.
- 33 여러 나라의 신들 중에서 누가 자기 나라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일이 있느냐?
- 34 하맛과 아르밋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 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 35 모든 나라의 신들 중에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겠느냐?”
- 36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그에게 아무런 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 37 궁내대신이며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셸나와 기록관이며 아삽의 아들인 요아 가 옷을 찢은 채로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랍사게가 한 말들을 전했다.

#### 이사야의 도움을 구한 히스기야 왕 (사 37:1-7)

- 19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 2 왕이 궁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셸나와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한 뒤, 그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니,
- 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 4 랍사게는 그의 주 아시리아 왕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보낸 자입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모든 말을 아마도 들으셨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 5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 6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 7 보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 산헤립의 두 번째 사신 (사 37:8-20)

- 8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립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다.
- 9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보십시오, 그가 왕과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신들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말했다.
- 10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의지하는 네 신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그에게 속지 마라.’
- 11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 건짐을 받겠느냐?
- 12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셀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의 자손들을 그들의 신이 구해냈느냐?
- 13 하맛 왕과 아르밋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 히스기야 왕의 기도

- 14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고,
- 15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들 위에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 16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산헤립이 전한 말을 들어 보소서.
- 17 여호와시여,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키고
- 18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니다.
- 19 그러나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시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알게 하소서.”

#### 이사야를 통한 구원의 말씀 (사 37:21-38)

- 20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 21 그리고 산헤립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를 팔 시온이 너를 비웃고 경멸한다. 팔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 22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이다.
- 23 네가 사신들을 통해 나 주를 모독하여 말했다. ‘내가 수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높은 산들과 레바논의 구석까지 올라가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울창한 숲 속의 그 끝까지 들어갔다. 내가 우물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셔 버렸으며, 발바닥으로 짓밟아 이집트의 모든 강들을 말려 버렸다.’
- 25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이전에 내가 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오래 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너로 하여금 견고한 성들을 파괴하여 돌무더기로 만들게 한 것이다.
- 26 그래서 주민들이 손에 힘이 빠지고 공포에 질려 부끄러움을 당했으나, 그들은 들판과 풀밭의 잡초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지붕 위 풀과 같았다.
- 27 그러나 나는 네가 앉아 쉬는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으며, 또 네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 28 나를 향한 네 분노는 네 고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네 코에 고리를 끼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 29 ○히스기야야, 이것이 네게 징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올해에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야생으로 자란 곡식을 먹고,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 30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 31 이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도피한 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경사로도 쏘지 못할 것이다.
- 33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 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34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 산헤립의 최후

- 35 ○그 날 밤에 여호와와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뿐이었다.
- 36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 37 그가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리리트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살헛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병이 든 히스기야

(대하 32:24-26; 사 38:1-8; 21-22)

- 20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네 집을 정리 하여라.’ 하셨습니다.”
- 2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 3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 4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 5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 줄 것이다.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6 내가 또 네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시켜 주고, 나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 줄 것이다.”

7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와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이사야가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 주시고, 내가 사흘째에 여호와와 전으로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

9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왕께 보여 주시는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헤시게의 그림자가 십 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하므로,

10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림자가 십 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헤시게에서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돌리어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절단 (사 39:1-8)**

12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13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유와 좋은 기름과, 또 무기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 주었으니, 자기 궁궐과 나라 안 모든 곳 중에서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5 이사야가 또 묻기를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내가 내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16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보아라, 그 날이 올 것이니, 네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 둔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니라.

18 ‘네게서 나올 네 자손들 중에서 더러는 잡혀가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선지자에게서 전해 준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와 안정이 있더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히스기야의 죽음 (대하 32:32-33)**

20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 일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1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이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므낫세 (대하 38:1-20)**

21 1 ○므낫세가 십이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스바였다.

2 므낫세는 여호와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풍속을 따랐다.

3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처럼 아세라를 만드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섬겼다.

4 그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셨던 여호와와 전에도 제단들을 쌓고,

5 또한 여호와와 전의 두 마당에도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6 그가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길흉을 말하고 주술을 행했으며, 신성한 자와 영매를 신임하였고, 여호와와 보시기에 수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격노케 했다.

7 그가 자기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성전에 두었는데, 이 성전에 대하여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8 만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그들이 지킨다면,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떠돌아다니지 않게 할 것이다.”

9 그러나 백성이 듣지 않았으며 므낫세는 그들을 미혹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하신 이방인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게 하였다.

1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행한 것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며, 또 자기의 우상들을 통해 유다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12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13 내가 사미리아를 쟁 다림줄과 아합 집을 단 저울로 예루살렘을 재어, 마치 사람이 그릇을 닦고 그것을 뒤집어 놓듯이 예루살렘을 쓸어 내며,

14 또한 내가 내 유업의 남은 자들을 뽑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모든 대적에게 약탈과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니,

15 이는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를 격노케 했기 때문이다.’

16 더욱이 므낫세는 무죄한 피를 매우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다로 죄를 짓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17 ○므낫세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죄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8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이니, 자기 궁의 정원, 곧 웃사의 정원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몬 (대하 33:21-25)**

19 ○아몬이 이십이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음바 사람인 하루스의 딸로서 이름은 므슬레미였다.

20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21 자기 아버지가 행하던 모든 길로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며 경배했고,

22 여호와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와 그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23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궁궐에서 그를 살해했다.

24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25 ○아몬이 행한 나머지 행적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6 사람들이 아몬을 웃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무덤에 장사 지내니,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시야 (대하 34:1-2)**

22 1 ○요시야가 팔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는 보스갓 사람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예디다였다.

2 요시야가 여호와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율법책의 발견 (대하 34:8-28)**

3 ○요시야 왕 제 십팔 년에 왕이 므슬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와 전으로 보내며 말했다.

4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모아 여호와와 전에 바친 돈을 결산하게 하고,

5 그것을 여호와와 전 감독을 맡은 일꾼들의 손에 전달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와 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불하게 하여 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도록 하되,

6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들에게 주어 전의 수리를 위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게 하라.

7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겨진 돈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것을 읽어 보았다.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로 들어가서 보고하기를 “왕의 종들이 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여호와와 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전달했습니다.” 하였으며,

10 서기관 사반이 또 보고하기를 “대제사장 힐기야가 제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했다.

11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으며,

12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블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13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쭙보아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와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하였다.

14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블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 갔는데, 그 여자는 의복을 관리하는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인 실룰의 아내이며, 예루살렘의 제이구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왕의



말을 전하니,  
 15 출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낸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17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격노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18 여호와께 여쭙어 보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 ‘이곳이 황폐해지고 그 주민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네가 들었을 때, 네 마음이 약하여져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고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20 그러므로 보아라, 네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함께 묻힐 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왕에게 전달했다.

#### 요시아의 개혁 (대하 34:3-7; 29-33)

**23** 1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니,  
 2 왕이 여호와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남자와 유다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왕이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고,  
 3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겠다고 맹세하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했다.  
 4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온갖 별들을 위해 만든 기구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는 베델로 가져갔다.  
 5 요시아가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그들은 유다의 왕들이 세워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만물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다.  
 6 또한 그가 아세라를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예루

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끌어내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가루로 뿜은 후 그 가루를 공동묘지에 뿌렸으며  
 7 여호와와의 성전에 있는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헐어 버렸으니, 그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우상을 위해 휘장을 짜던 곳이었다.  
 8 그가 유다의 성읍들로부터 모든 제사장들을 오게 하여, 계부터 브엘세바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고, 성문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그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대문 입구 곧 성문의 왼쪽에 있었다.  
 9 산당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무교병을 먹을 수 있었다.  
 10 그가 또한 한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여 아무도 물레를 위해 아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11 유다 왕들이 태양신 숭배를 위해 만들어 여호와와의 성전 입구에 있는 환관 나단 멜렉의 방 근처에 놓아 두었던 말 동상을 부수었으며, 태양 수레들도 태워 버렸다.  
 12 요시아가 유다 왕들이 아합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고 그것들을 쌓아서 그 가루는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13 왕이 예루살렘 정면 평양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아스다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그모스, 암몬 자손들의 역겨운 밀곰을 위해 세운 것이었다.  
 14 그가 기둥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 내고, 그곳을 사람의 찰로 채웠다.  
 15 ○또한 베델에 있는 산당의 제단, 즉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 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사른 뒤 뿜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 버렸다.  
 16 요시아가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으니, 이 일들을 하 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었는데, 그가 선포한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17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인가?” 하니, 그 성읍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라고 하였다.  
 18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19 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여호와를 격노케 했던 모든 산당들도 요시아가 없애 버렸으니, 베델에서 했던 것과 똑 같아 했으며,  
 20 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의 뼈들을 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켜라.” 하였는데,  
 22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 이스라엘 왕들과 자기 왕들의 어떤 시대에도 이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23 요시아 왕 제 십팔 년에 비로소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유월절을 지켰다.  
 24 ○또한 요시아가 신성한 자들과 영매들과 드라빔과 우상들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니,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25 그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준행한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26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서 타오르는 큰 진노의 불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격노케 했기 때문이었다.  
 2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 버렸듯이 유다도 내 앞에서 없어 버릴 것이니, 이 성 곧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 곧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라고 하셨다.  
 28 요시아의 죽음 (대하 35:20-36:1)  
 28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9 그 시대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에게 가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시아 왕이 그를 막으려고 나가자 바로가 요시아를 대면하여 므깃도에서 그를 죽였다.  
 30 그러자 요시아의 신하들이 그 시신을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와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31 ○여호아하스가 이십삼 세에 왕이 되어 예루

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린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은 하무라였다.  
 32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3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는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34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 대신에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꾸었으며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으니,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  
 35 여호아김이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쳤는데 그가 바로의 요구대로 돈을 바치기 위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부과시켰고, 각 사람에게 배정된 액수를 억지로 거둬 들여 바로 느고에게 바쳤다.  
 36 ○여호아김이 이십오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사람인 브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스비다였다.  
 37 여호아김이 자기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4** 1 ○여호아김 시대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으므로 여호아김이 삼년 동안 그를 섬겼고, 그 후 돌아서서 그에게 반역하였다.  
 2 여호와께서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여호아김에게로 보내셨는데, 이는 자기 종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다.  
 3 참으로 이 일이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4 또한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무죄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5 여호아김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6 여호아김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이니, 그의 아들 여호아히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7 이집트 왕이 더 이상 자기 땅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 유다 왕 여호아킨 (대하 36:9-10)

- 8 ○여호아킨이 십팔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다였다.
- 9 여호아킨이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 10 ○그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으며,
- 11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부하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 도착하였다.
- 12 유다 왕 여호아킨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에게 나아가니,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때가 그의 통치 제 팔년이었다.
- 13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 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금 기구들을 잘라 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 14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대신들과 힘센 용사 만 명을 비롯하여, 모든 금속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으니, 그 땅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 15 느부갓네살이 여호아킨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으며, 그 외에도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궁중관리들과 그 땅의 권세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고,
- 16 또 바빌로니아 왕이 용사 칠천 명과, 금속 기술자와 대장장이 천 명과, 전쟁에 능한 모든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다.
- 17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아킨의 삼촌 맛다니아를 그 대신에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다.

### 유다 왕 시드기야

(대하 36:11-12, 렘 52:1-3)

- 18 ○시드기야가 이십일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립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은 하무달이었다.
- 19 시드기야가 여호아김이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면전에서 쫓아내셨다.
-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 유다의 멸망

(대하 36:13-21, 렘 39:1-10, 렘 52:3-11)

- 25 1 ○시드기야 통치 제 구년 시월 십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그 성 둘레에 포위 담을 쌓으니,
- 2 시드기야 왕 십일 년까지 성이 포위되어 있었으며,
- 3 사월 구일이 되자 그 성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식량이 떨어져 없었다.
- 4 성벽이 풀리자 모든 병사들이 밤중에 왕의 정원 옆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도망하였는데 성을 에워싼 갈대아 사람들의 포위망을 피하여 아라바 길로 달아났다.
- 5 갈대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 6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올라가니,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 7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늦 사슬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 예루살렘의 파괴 (렘 52:12-33)

- 8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 십구년 오월 칠일에,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 9 그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모든 건물을 불태웠고,
- 10 경호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들을 헐어 버렸다.
- 11 그리고 성 안에 있던 남은 백성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남은 무리들을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가 사로잡아 갔으니,
- 12 경호대장이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 일부를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경작게 하였다.
- 13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와 전에 속한 늦 기둥들과 여호와와 전에 있던 이동용 받침대들과 늦 바다를 부수고, 그 늦을 바빌로니아로 가져갔으며,
- 14 술과 삼과 부집계와 점시와 전 봉사에 사용하는 모든 늦 기구들을 가져갔다.
- 15 경호대장이 순금과 순은으로 만든 재 담는 그릇과 각종 주발을 가져갔고,
- 16 두 기둥들과 바다와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에 위해 만들었던 이동용 받침대들도 가져갔으니, 이 모든 기물들의 늦 무게는 달 수가 없을 정도였다.
- 17 한 기둥의 높이는 십팔 규빗이었고, 그 위에는 구리 머리가 있었는데, 한 머리의 높이는 세 규빗이었으며, 머리들 주변에 있는 그물과 석류 열매는 모두가 늦이었다. 두 번째 기둥도 이와 같았으며,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 플려간 포로들 (렘 52:24-27)

- 18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세 명을 사로잡고,
- 19 또 성 중에서 사로잡은 사람은 군사들을 거느린 궁중관리 한 명과, 왕을 시종들던 남자 다섯 명과, 백성들을 징집하던 군대장관의 서기관과, 성에서 찾아낸 백성 육십 명이였다.
- 20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의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려가니,
- 21 바빌로니아 왕이 히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와 같이 유다가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다.
- 유다의 관할자 그달라 (렘 40:7-9; 41:1-3)
- 22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 둔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을 관할하기 위해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라를 임명하였다.
- 23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라를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라에게 왔으니, 이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례아의 아들 요한과 느도바 사람 단후렛의 아들 스라야와 마이가 사람의 아들 야아 사니아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 24 그달라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의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요.”라고 하였다.
- 25 일곱째 달에 왕손 중의 하나인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과 함께 와서 그달라를 쳐서 죽이고,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도 함께 죽였다.
- 26 이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으니, 이는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여호아킨의 사변 (렘 52:31-34)
- 27 ○유다 왕 여호아킨이 포로로 잡혀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빌로니아 왕 에일 므르다크의 즉위 원년 십이월 이십칠일에,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왕 여호아킨의 머리를 들게 하여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 28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므로,
- 29 여호아킨이 죄수복을 벗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왕 앞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 30 왕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나 매일 쓸 것을 그에게 공급하였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  
(창 5:1-23; 10:1-32; 11:10-26)

- 1 1 ○아담, 셋, 에노스,  
2 게난, 마할랄렐, 아렐,  
3 에녹, 므두셀라, 라멕,  
4 노아, 셈, 함과 야벳,  
5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6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이  
며,  
7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  
남이다.  
8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고,  
9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야마  
와 삽드가이고, 라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  
이다.  
10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용사였다.  
11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  
힘과,  
12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가  
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  
13 ○가나안은 팔아들 시돈과 헛을 낳고,  
14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  
속과,  
15 히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16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  
다.  
17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  
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말과 메섹이다.  
18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  
았고,  
19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  
름은 벨렉이니, 그때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  
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다.  
20 욥단이 알모닷과 셀렌과 하실마렛과 예라와,  
21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2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3 오빌과 하월라와 요발을 낳았으니, 이들이 모  
두 욥단의 아들들이다.  
24 ○셈, 아르박삿, 셀라,  
25 에벨, 벨렉, 르우,  
26 스룩, 나홀, 데라,  
27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창 25:1-16)  
28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니,  
29 그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만아

- 들은 느바웃이고, 그 다음은 게달과 잇브엘과  
밋삼과,  
30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31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이들이 곧 이스  
마엘의 아들들이다.  
32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욥  
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33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  
와 엘다아이니, 이들 모두는 그두라의 아들들  
이다.  
34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니,  
35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  
36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  
과 그나스와 딤나와 이말렐이다.  
37 르우엘의 아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이  
다.  
38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  
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고,  
39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로단의 누이  
는 딤나이다.  
40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나합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야나이다.  
41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므  
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며,  
42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이완과 야아간이고,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이란이다.  
43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브울의  
아들은 벨라이니, 그의 성읍 이름은 단하버였  
으며,  
44 벨라가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보스라 사람 세  
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으며,  
45 요밥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데만 사람 후삼  
이 왕이 되었으며,  
46 후삼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브닷의 아들 하  
닷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들판에서 미  
디안을 친 자로서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  
었으며,  
47 하닷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마스레가 사람  
사물라가 왕이 되었으며,  
48 사물라가 죽으니, 그 뒤를 이어 강변 르호봇  
사람 사울이 왕이 되었으며,  
49 사울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악볼의 아들 바  
알하난이 왕이 되었다.  
50 바알하난이 죽으니, 그 뒤를 이어 하닷이 왕이

- 되었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바이였으며, 그  
의 아내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함의 손녀로  
서 이름은 므헤다벨이었다.  
51 하닷이 죽었다.  
○에돔 족장은 다음과 같다. 딤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벳 족장과,  
52 오히리버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53 그나스 족장과 데만 족장과 밋삼 족장과  
54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족  
장들이다.

## 유다의 자손들

- 2 1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음과 같으니, 르  
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 단과 요셉과 베나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  
다.  
3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니, 이  
세 명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은 아들이다. 유다의 딸아들 에르가 여호  
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를 죽이셨다.  
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  
를 낳았으므로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이  
다.  
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6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 명이며,  
7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진멸해야  
할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이며,  
8 에단의 아들은 아시라이다.  
헤스론의 자손들  
9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  
배이다.  
10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  
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였다.  
11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  
으며,  
12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  
으며,  
13 이새는 팔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  
째 시므아와,  
14 넷째 느다벨과 다섯째 랏대와,  
15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16 그들의 누이는 스루아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아  
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시헬 세 명이며,  
17 아비가일은 아바사를 낳았으니, 아바사의 아بة  
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멜이었다.  
18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

- 리웃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예  
셀과 소밤과 아르돈이며,  
19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을 아내  
로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훌을 낳았  
다.  
20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다.  
21 ○그 후에 헤스론이 욱십 세에 길르앗의 아بة  
지 마길의 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  
이하였으며, 그 여자가 헤스론에게 스굽을 낳  
았고,  
22 스굽은 야일을 낳았으며, 야일은 길르앗 땅에  
서 성읍 스물세 개를 차지하였다.  
23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과, 그넛과 그 주  
변 마을 욱십 개를 빼앗았고, 그들이 다 길르  
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24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카가 그에게 아스룰을 낳았는데, 아  
스룰은 드고아의 아버지이다.  
25 ○헤스론의 딸아들인 여라므엘의 아들은 팔아  
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  
이다.  
26 여라므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  
은 아다라로서 오남의 어머니였다.  
27 여라므엘의 딸아들인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아민과 에벨이며,  
28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아다이고, 삼매의 아들  
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29 아비술의 아내는 이름이 아비히일인데, 아비술  
에게 아반과 몰랏을 낳았다.  
30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임비임인데, 셀렛은 아  
들이 없이 죽었으며,  
31 임비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  
산이며, 세산의 아들은 일래이다.  
32 삼매의 동생인 아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  
인데,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3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시이니, 이들은 여  
라므엘의 자손이다.  
34 세산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세산에  
게 이집트 사람 종ی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35 세산이 자기 딸을 종 야르하에게 아내로 주니,  
그 여자가 야르하에게 잇대를 낳았다.  
36 잇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37 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  
으며,  
38 오벳은 에후를 낳고, 에후는 아시라를 낳았  
으며,  
39 아시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으며,  
40 엘르아사는 시스매를 낳고, 시스매는 살룸을

났으며,  
41 실론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 갈렙의 자손들

- 42 ○여라므엘의 동생 갈렙의 아들들 중 맏아들은 십의 아버지 메사이고, 그 아들은 헤브론의 아버지 마레사이다.  
43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담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44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45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고,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46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다.  
47 아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48 갈렙의 첩 마야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다.  
49 또 그 여자가 밋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이다.  
50 갈렙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은 기랴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51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렘이다.  
52 기랴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므누훗 사람의 절반이다.  
53 기랴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니, 이들에게서 소라 족속과 에스다울 족속이 나왔다.  
54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벳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이다.  
55 아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들은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들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

#### 다윗의 아들들

- 3 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렙 여자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이며,  
2 셋째는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야가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이며,  
3 다섯째는 이비달이 낳은 스바다이고, 여섯째는 그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암이다.  
4 이 여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다윗이 거기서 칠년 육 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다.  
5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시므아와 소발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밋수아가 낳았으며,  
6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7 노가와 네벳과 아비아와,  
8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 있으니, 이 아홉 명도  
9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며, 그 외에도 그들의 누이 디말과 침들의 아들들이 있었다.

#### 솔로몬의 자손들

- 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며, 그 아들은 아비아이고, 그 아들은 아사이며, 그 아들은 여호사반이고,  
11 그 아들은 요람이며, 그 아들은 아하시아이고, 그 아들은 요아시이며,  
12 그 아들은 아말리아고, 그 아들은 아사라이며, 그 아들은 요담이고,  
13 그 아들은 아하시이며, 그 아들은 히스기야이고, 그 아들은 므낫세이며,  
14 그 아들은 아몬이고,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15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아김과 셋째 시드기아와 넷째 실론이다.  
16 여호아김의 아들은 "여고냐와 시드기아이다.

#### 여호아김의 자손들

- 17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18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이다.  
19 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고,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그들의 누이 솔로밋이며,  
20 그 외에도 다섯 명이 있으니,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헤셋이다.  
21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이며,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 있었다.  
22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며, 스마야의 아들은 여섯 명으로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라와 사밧이다.  
23 느아라의 아들은 세 명으로, 엘로에나와 히스기아와 아스리감이며,  
24 엘로에나의 아들은 일곱 명으로, 호다위아와 엘리아신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이다.

#### 유다의 다른 자손들

- 4 1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다.  
2 소발의 아들 르아이는 아합을 낳았고, 아합은

아후매와 라합을 낳았으니, 이들은 소라 족속이다.  
3 에담 조상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이며, 그들의 누이 이름은 하술렐보니아다.  
4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 있으니, 이들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들이며, 홀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5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6 나아라가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이라사다리를 낳았으니,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며,  
7 헬라의 아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다.  
8 고스는 아눌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이히엘 족속도 낳았다.  
9 아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아베스라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10 아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께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11 수하의 형제 클롬이 므힐을 낳았으니, 므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이며,  
12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야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가 사람이다.  
13 그나스의 아들은 웃니엘과 스라야이며, 웃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다.  
14 므으노대는 오브리를 낳고,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조상인 요압을 낳았는데, 그들은 기술공이었다.  
15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들과 그나스가 있었으며,  
16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17 에스라의 아들은 에델과 메렛과 에벨과 알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18 이들은 메렛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었다. 또 그 아내 여후디아가 그들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19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고일라의 아버지와 마야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다.  
20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들은 쇼렛과 벤소렛이다.

21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아들들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이다와 고온 베를 짜는 자의 집 족속, 곧 아스베아의 집과,  
22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헴이니 이것은 옛 기록에 의한 것이다.  
23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 사는 웅기장이였으며, 왕의 일을 위해 거기서 왕과 함께 살았다.  
시므온의 자손들  
24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아민과 아립과 세라와 시울이며,  
25 시울의 아들은 실론이고, 그 아들은 밍삼이며, 그 아들은 미스마이고,  
26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며, 그 아들은 사굴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27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28 시므온 자손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일과,  
29 빌하와 에셀과 돌락과,  
30 브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31 뱃발기룻과 하살수심과 뱃비리와 사아리임이니, 이곳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의 성읍이었다.  
32 또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젠과 아산, 다섯 성읍도 그들의 것이었다.  
33 이 성읍들 주변에 마을들이 바알까지 뻗어 있었으니, 이곳들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각각 그들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34 ○그리고 메소뱃과 아블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35 요엘과 예후가 있으니, 예후는 요시비야의 아들이고 스라야의 손자이며 아시엘의 증손이다.  
36 또 엘로에나와 아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니아와,  
37 시사가 있으니, 시사는 시바의 아들이고 알론의 손자이며 여다야의 증손이고 시므리의 현손이며 스마야의 오 대손이니,  
38 이들이 그 족속의 지도자로 등록된 사람들인데, 그 가문들이 크게 번성하였다.  
39 그들이 자신들의 양 떼를 위해 목장을 구하려 골짜기의 동쪽 그들 어귀까지 옮겨 가서,  
40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은 매우 넓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이전부터 함의 자손이 살고 있었다.  
41 명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과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날까지 거기서 살고 있으니, 이는 거기

ㄱ) '여고냐'의 다른 이름은 '여호아김'이다.



- 에 그들의 양 떼를 위한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 42 또 시므온 자손 중에서 오백 명이 이시와 아들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비아와 웃시엘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 43 파하여 남아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오늘 날까지 거기서 살고 있다.

### 르우벤의 자손들

- 5 1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 음과 같다. (그는 맏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으므로, 족보에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 2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 3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 4 요엘의 아들은 스바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며,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 5 그 아들은 미가이다.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비알이며,
- 6 그 아들은 브에라인데,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로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갔다.
- 7 그들의 족속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우두머리 여이엘과 스가라와,
- 8 벨라인데, 벨라는 이시와 아들이고 세마의 손자이며 요엘의 증손이다. 그가 아로엘에 살며 느보와 비알므온에게서 이르렀으며,
- 9 또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광야 어귀에 걸쳐 살았는데, 이는 그들의 가족이 길르앗 땅에서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 10 시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들과 싸워 물리치고 길르앗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 갓 자손들

- 11 ○갓 자손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살며 살르가에게까지 이르렀으니,
- 12 우두머리는 요엘이었고, 그 다음은 사뱌와 야네, 그리고 바산에 사는 사뱌이였으며,
- 13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므술람과 세바와 요래와 아간과 시아와 에벨로 일곱 명이었으니,
- 14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로서 야로아의 손자이며, 길르앗의 증손, 미가엘의 현손, 여시새의 오 대손, 아도의

- 육 대손, 부스의 칠 대손이었다.
- 15 또 구니의 손자이며 압디엘의 아들인 아히가 이들 가문의 족장이었다.
- 16 이들은 바산 길르앗과 그 주변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목초지에 살며 그 사방 접경에까지 이르렀다.
- 17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다.

### 동쪽 지파들의 군대

- 18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절반 지파의 용사들 중에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 곧 싸움에 익숙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사만 사천칠백육십 명이였다.
- 19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 20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갈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 21 그들이 적의 가족들, 곧 낙타 오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와 나귀 이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은 십만 명을 사로잡았으며,
- 22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포로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 므낫세 절반 지파의 자손들

- 23 ○므낫세 절반 지파의 자손이 변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비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았다.
- 24 그 가문의 우두머리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아디엘이였으니, 이들은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며, 그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 25 그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 26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불의 마음과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부추기시니, 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히불과 하리와 고산 강가로 옮겨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였다.

### 레위 지파의 족보

- 6 1 ○레위의 아들들은 7)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 2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고,
- 3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며,

-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다.
- 4 엘리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으며,
- 5 아비수아는 복기를 낳고, 복기는 웃시를 낳았으며,
- 6 웃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못을 낳았으며,
- 7 므라못은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둡을 낳았으며,
- 8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으며,
- 9 아히마아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한을 낳았으며,
- 10 요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이다.
- 11 아사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둡을 낳았으며,
- 12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으며,
- 13 살룸은 할기아를 낳고, 할기아는 아사라를 낳았으며,
- 14 아사라는 스라아를 낳고, 스라아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 15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잡혀갔다.
- 16 게르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 17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린나와 시므이이고,
- 18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다.
-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이니, 이들이 그 조상에 따른 레위의 족속들이다.
- 20 게르손에게 아들 린나가 있었으니, 그 아들은 야핫이고, 그 아들은 심마이며,
- 21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잇도이며,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래이다.
- 22 그핫의 아들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며, 그 아들은 잇살이고,
- 23 그 아들은 엘가니이며,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잇살이며,
- 24 그 아들은 다핫이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며, 그 아들은 웃시야이고, 그 아들은 시울이다.
- 25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하뭇이다.
- 26 엘가나의 자손은 다음과 같으니, 그의 아들은 소배이고, 그 아들은 나핫이며,
- 27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며, 그 아들은 엘가나이다.
- 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이다.
- 29 므라리의 아들은 말리이고, 그 아들은 린니

며,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웃사이며,

30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학기아이며, 그 아들은 아시아이다.

### 성전의 성가대

- 31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 여호와와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위해 다윗이 세운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 32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와 전에 세울 때까지 성막, 곧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봉사하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 33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아들은 이와 같다. 그핫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로서 요엘의 아들이며, 사무엘의 손자이다.
- 34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다.
- 35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며, 엘가나는 마합의 아들이고, 마합은 아마새의 아들이다.
- 36 아마새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며,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고, 아사라는 스바나의 아들이다.
- 37 스바나는 다합의 아들이고, 다합은 잇살의 아들이며, 잇살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 38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며,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할의 아들이다.
- 39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다.
- 40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며, 바아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다.
- 41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다.
- 42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며,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다.
- 43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며,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 44 므라리의 자손 중 왼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들의 형제 에단이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록의 아들이다.
- 45 말록은 하사바의 아들이고,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할기아의 아들이다.
- 46 할기아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다.
- 47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며,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고,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7) 히, '게르손' 6:16, 6:17, 6:20, 6:43 등에도 같이 나타난다.

48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 아론의 자손들

49 ○아론과 그 자손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제사 드리며 분향하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50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며,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51 그 아들은 북기이며, 그 아들은 웃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하이며,

52 그 아들은 므라못이고, 그 아들은 아마랴이며, 그 아들은 아히둡이고,

53 그 아들은 사독이며,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다.

#### 레위 사람들의 주거지

54 ○그들이 차지하여 거주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그핫 족속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55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주변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으니,

56 그 성읍에 딸린 밭과 주변 마을을 여분네의 아들 갈렐에게 주었다.

57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는데, 헤브론과 립나와 그 목초지와 잇달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58 힐렌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59 아산과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다.

60 또 베냐민 지파로부터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알레멧과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으니, 그 족속이 얻은 성읍들이 모두 열세 개이다.

61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곧 므낫세 절반 지파의 족속들의 성읍 열 개를 제비 뽑아 주었다.

62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에 따라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 열세 개를 주었다.

63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에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성읍 열두 개를 제비 뽑아 주었다.

64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으며,

65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로부터 위에서 이름을 언급한 이 성읍들을 제비 뽑아 주었다.

66 ○그핫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읍들을 얻어 그들의 거주지로 삼았다.

67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그 목초지와 게셀과 그

목초지와,

68 욥암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와,

69 아일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온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70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절반 지파로부터 아셀과 그 목초지와 빌립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71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절반 지파로부터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와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72 또 잇사갈 지파로부터 게데스와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73 라못과 그 목초지와 아넴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74 아셀 지파로부터 마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75 후곡과 그 목초지와 르흠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며,

76 납달리 지파로부터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와 함돈과 그 목초지와 기라디뎨와 그 목초지를 주었다.

77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목초지와 다볼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78 또 예리고의 요단 건너편, 곧 요단 동쪽의 르우벤 지파로부터 광야의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아사과 그 목초지와,

79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메비앗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80 또 갓 지파로부터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81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아셀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 잇사갈의 자손들

7 1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아숨과 시므론 이 네 사람이며,

2 돌라의 아들들은 웃시와 르비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인삼과 스므엘이니, 이들은 그 아버지 돌라 가문의 우두머리며 대대로 용사들이었는데, 그들의 수가 다섯 때에는 이만 이천육백 명이었다.

3 웃시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아이며, 이스라엘이의 아들들은 미기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잇시야이며, 이 다섯 사람이 모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4 그들과 함께한 자는 그 족보와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삼만 육천 명이나 되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5 잇사갈의 모든 족속에 속한 그들의 형제들은 큰 용사들이었으며,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은 모

두 팔만 칠천 명이었다.

#### 베냐민의 자손들

6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 세 사람이며,

7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웃시엘과 여리못과 이리이며, 이 다섯 사람이 모두 그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큰 용사들이었다.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은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였다.

8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예셀과 엘로에나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이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이들이 모두 베겔의 아들이며,

9 또 모두 가문의 우두머리이고 큰 용사들이었다.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은 이만 이백 명이였다.

10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11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들로서 가문의 우두머리로 큰 용사들이었으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만 칠천이백 명이였다.

12 일의 아들은 습빔과 흠빔이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 납달리의 자손들

13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빌한의 손자이다.

#### 므낫세의 자손들

14 ○므낫세의 아들은 그 처가 낳은 아스리엘과 그의 첩 이람 여자가 낳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15 마길은 마야가라는 이름을 가진, 빔과 습빔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솔로브핫인데, 솔로브핫은 딸들만 낳았다.

16 마길의 아내 마야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으며, 그 동생의 이름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들은 올람과 라겔이다.

17 올람의 아들은 바단이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자손인데,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손자이다.

18 그의 누이 함물레갯은 이스훗과 아비예셀과 딸들을 낳았고,

19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립히와 아니암이다.

#### 에브라임의 자손들

20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며,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며, 그 아들은 다한이고,

21 그 아들은 사밧이며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의 원주민 가드 사람이 이들을 죽였는데, 이는 그들이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22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자, 그의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였다.

23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고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에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름을 브리이라 하고 불렀다.

24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이 여자가 아래와 위의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세웠다.

25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비와 레셀이고, 레셀의 아들은 델라이며, 그 아들은 다한이고,

26 그 아들은 라단이며, 그 아들은 암미훗이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며,

27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28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겔과 그 마을들과, 동쪽의 나이온과, 서쪽의 게셀과 그 마을들과, 또 세겜과 그 마을들과, 아사와 그 마을까지였으며,

29 또 므낫세 자손의 경계 근처의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다아과 그 마을들과, 므깃도와 그 마을들과, 돌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러한 곳들에 살았다.

#### 아셀의 자손들

30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브리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31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일의 아버지이고,

32 헤벨은 아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으며,

33 아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인데, 이들은 아블렛의 아들들이다.

34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이람이며,

35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며,

36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37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이며,

38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며,

39 율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야이니,

40 이들은 모두 아셀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며, 선별된 큰 용사들이었고, 으뜸가는 지도자들이었다. 전쟁에 나갈 군사로서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이만 육천 명이였다.

#### 베냐민의 자손들

8 1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란과,

2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 3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잇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4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5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6 에훗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마나합으로 사로잡혀 간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들이니,  
7 곧 나아만과 아히아와 게라이다. 게라가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다.  
8 사하람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9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갑과,  
10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미이니, 이들은 우두머리들이며 그의 아들들이다.  
11 또 그가 후심에게서 아비훗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12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인데, 그가 오노와 롯과 그 마을들을 세웠고,  
13 또 브리아와 세마가 있으니, 이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들로서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  
14 아히요와 사삭과 여러못과,  
15 스바다와 아랏과 에벨과,  
16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브리아의 아들들이다.  
17 스바다와 므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18 이스므래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들이다.  
19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20 엘리애와 실르대와 엘리엘과,  
21 아다야와 브리아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22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23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24 하나나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25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사삭의 아들들이다.  
26 삼스래와 스하람과 아달라와,  
27 아아레스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28 이들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29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이가이고,  
30 장자는 압돈이며,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31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다.  
32 미글롯은 시므이를 낳았으니, 이들은 그 형제들과 이웃하여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

#### 사울의 가문

- 33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 34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다.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으며,  
35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36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았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렛과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37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시이며, 그 아들은 아셀이고,  
38 아셀에게는 아들이 여섯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랏와 오바다와 하난이다. 이들이 모두 아셀의 아들들이다.  
39 그 아우 에셀의 아들은 만아들이 올림이며, 둘째는 여우스이고, 셋째는 엘리벨렛이다.  
40 올림의 아들들은 큰 용사들이며 활을 잘 쏘는 자들이니,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백오십 명이니, 이들은 모두 베냐민 자손이다.

####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 9 1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족보에 올랐으며,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었다.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 갔다.  
2 제일 먼저 자기 성읍에 있던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4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가 있었으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이며, 이므리의 증손이고, 바니의 현손이다.  
5 실로 사람 중에는 만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며,  
6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육백구십 명이 있었다.  
7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핫스누아의 증손이고 호다위아의 손자이며 므술람의 아들인 살루가 있었다.  
8 또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웃시의 아들 엘라와 이브느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솔람과,  
9 그의 형제들이 있다. 그 족보에 오른 자가 구백오십육 명이며, 모두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

- 10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 아시라가 있었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므술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므라못의 현손이며, 아히훗의 오 대손으로, 하나님

- 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12 또 아다야가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바스홀의 손자이며, 말기야의 증손이다. 또 마아새도 있었으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야세라의 손자이며, 므술람의 증손이고, 므실레밋의 현손이며, 임멜의 오 대손이다.  
13 또 그들의 친족이 있었으니, 그들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유능한 사람이 모두 천칠백육십 명이였다.  
14 ○레위 사람 중에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가 있었으니, 그는 핫숨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의 손자이며, 하사바의 증손이다.  
15 벳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맛다냐도 있었으니, 맛다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시그리의 손자이며, 아삽의 증손이다.  
16 또 오바다가 있었으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둔의 증손이다. 또 베레가도 있었으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고, 엘가나의 손자이며, 느도바 사람의 마음에 살았다.

####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문지기

- 17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었으니, 살룸이 우두머리였다.  
18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다.  
19 고라의 증손이고,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고라의 아들인 살룸과, 그 가문의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은 성막에서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 조상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 그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20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전에 그들의 책임자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21 므셀레마의 아들 스기라는 회막 문의 문지기였다.  
22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이백열두 명이니, 그들은 마을별로 그 족보에 기록되었으며, 다윗과 선전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  
23 그리하여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문지기들로서 여호와와 그의 집, 곧 성막 문을 지켰다.  
24 이 문지기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으며,  
25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이 칠일마다 와서 함께하였다.  
26 레위 사람인 수문장 네 명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전의 방들과 창고들을 맡았는데,  
27 그들에게 경비의 임무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천 주위에서 유숙하였다.

#### 나머지 레위 사람들

- 28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데 사용

- 할 기구들을 맡았으니, 이는 그것들을 수호대로 들여오고 수호대로 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29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구들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료를 맡았으며,  
30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서 어떤 이는 향료로 향 기구들을 만들었고,  
31 레위 사람 가운데 맛디다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만아들로서 첩판에 굽는 일을 맡았으며,  
32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빵차리는 일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33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로서, 골방에 살면서 밤낮 그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34 이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 살았다.

#### 사울의 족보 (대상 8:29-38)

- 35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이가이다.  
36 그 만아들은 압돈이고,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37 그들과 아히오와 스기리와 미글롯이며,  
38 미글롯은 시므임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형제들을 마루 보며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  
39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40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며, 므립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41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42 아하스는 아리를 낳았고, 아리는 알레멧과 아스마렛과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43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시이며, 그 아들은 아셀이다.  
44 아셀에게는 아들 여섯 명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곧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랏와 오바다와 하난인데, 이들이 아셀의 아들들이다.

#### 사울의 죽음 (삼상 31:1-13)

- 10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3 사울을 향한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활 쏘는

- 자들이 사울을 발견하였고, 그 활 쏘는 자들이 사울에게 충성을 입혔다.
- 4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사울이 자신의 칼을 잡고 그 위에 엎어졌다.
-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 6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 7 그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살았다.
- 8 오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 9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그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 10 그들이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
- 11 길르앗 아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 12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아베스로 가져다가, 그들의 뼈를 그곳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사 지내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 13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 14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삼하 5:1-3)

- 11 1 O는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희는 왕의 골육입니다.
- 2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셨습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3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와 말씀대로 되었다.
- 예루살렘 정복 (삼하 5:6-10)
- 4 O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는데, 그 땅의 주민은 여부스 사람들이었다.
- 5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 성이라 하였다.
- 6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들을 먼저 치는 자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이다.” 하니,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 7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 8 다윗이 밀로로부터 그 둘레 모든 곳에 성을 쌓았고, 요압이 성의 나머지 부분을 복구하였다.
-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 다윗의 용사들 (삼하 23:8-39)
- 10 O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용맹을 발휘하여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웠다.
- 11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스브암은 삼십명의 우두머리니, 그가 자기의 창을 들어서 단번에 삼백 명을 죽였다.
- 12 O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그는 세 명의 용사 중 하나였으며,
- 13 그가 바스다임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할 때,
- 14 그들이 그 밭 한가운데 서서 그곳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 15 O삼십 명의 우두머리들 중 세 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갈 때,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 16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 17 다윗이 간절히 소원하며 말하기를 “누가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느냐?” 하니,
- 18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

- 게 가져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 19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지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다.
- 20 O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세 명 중 우두머리였다. 그가 자기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중에서 명성을 얻었다.
- 21 그가 두 번째 세 명 중에서 가장 존귀하여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첫 번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 22 O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의 용사로서 많은 공을 세웠으니,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 23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오 굽터이나 되는 거인이었고, 손에 있는 창은 베를 채 같았다. 브나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 24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그 용사 세 명 중에서 명성을 얻었다.
- 25 그는 그 삼십 명보다 존귀하였으나, 처음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시위대를 맡겼다.
- 26 O도 군사를 가운데 용사들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 27 하림 사람 심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 28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니돗 사람 아비엘과,
- 29 후사 사람 심브개와 아호아 사람 일래와,
- 30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느도바 사람 바나나의 아들 헬렛과,
- 31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 32 가아스 시냇가에 사는 후래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 33 바히룬 사람 아스마렛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 34 가손 사람 하셀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개의 아들 요나단과,
- 35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 36 르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아와,
- 37 갈릴 사람 헤스로와 에스배의 아들 나야와,
- 38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밍할과,
- 39 임몬 사람 셀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든 자 베틀 사람 나하래와,

- 40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렘과,
- 41 헛 사람 우리아와 알래의 아들 사벳과,
- 42 르우벤 족속 시사의 아들로서 르우벤 족속의 우두머리인 아디나와 그와 함께한 삼십 명과,
- 43 마아기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벳과,
- 44 아스드랏 사람 웃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예이엘과,
- 45 시므리의 아들 예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 46 마히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예리배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 47 엘리엘과 오벳과 므소바 사람 야시엘이다.

###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 12 1 O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시골 락에 숨어 있는 동안 그에게 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으니, 그들은 용사로서 전쟁을 돕는 자들이었다.
- 2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무릎뎛들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들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 3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기브아 사람 스마이의 아들들이다. 또 아스마렛의 아들 예시엘과 벨렛과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 4 삼십 명 가운데 용사이며 삼십 명을 이끄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와 예레미야와 아히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벳과,
- 5 엘루새와 여러못과 브리안과 스마라와 하림 사람 스바다와,
- 6 고라 사람들인 엘가나와 잇시아와 아사렐과 요엘과 야스브암과,
- 7 그들 사람 예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다가 있었다.
- 갓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 8 O갓 사람들 가운데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용사들이며 전쟁에 능숙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사슴과 같았다.
- 9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다이며, 셋째는 엘리압이고,
- 10 넷째는 미스만나이며,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 11 여섯째는 잇대이며,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 12 여덟째는 요한나며,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 13 열째는 예레미야이며, 열한째는 막반내였다.
- 14 이 갓 자손들이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장 작은 자는 백 명을 거느리고, 가장 큰 자는 천 명을 거느렸다.
- 15 이들은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치는 첫째



- 달에 강물을 건너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 16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요새로 다윗을 찾아오니,
- 17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하려고 왔다면 내 마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겠지만 내 손에 불의함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속여 내 원수들에게 넘기려 한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바라오.”라고 하였다.
- 18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인 아매새를 두르시니, 그가 말하기를
- “다윗이여, 저희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여, 저희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니, 당신도 평안하시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 라고 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여 군대의 우두머리들로 삼았다.
- 19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전쟁을 하려 했으나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니, 이는 블레셋 군주들이 의논한 다음 “그가 자기 주인인 사울에게로 넘어가면 우리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 20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넘어온 사람들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기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대였으니, 그들은 므낫세의 천부장들이었고,
- 21 모두 능력 있는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으며, 그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되었다.
- 22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그에게 모여들어 마치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온 군사들**
- 23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와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려고 전쟁을 준비한 군대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 24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 육천팔백 명이었으며,
- 25 시므온 자손 중에서 전쟁에 나갈 힘센 용사가 칠천백 명이었다.

- 26 레위 자손 중에서는 사천육백 명이었으며,
- 27 아론의 집 지도자인 여호아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삼천칠백 명이었고,
- 28 또 젊고 힘센 용사 사독과 그 가문의 사령관들이 이십이 명이었다.
- 29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아직도 다수가 사울의 집을 따랐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사람이 삼천 명이었다.
- 30 에브라임 자손 중 그 가문에서 잘 알려진 힘센 용사가 이만 팔백 명이었으며,
- 31 므낫세 절반 지파 중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이름이 지명된 자들이 만 팔천 명이었다.
- 32 잇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이백 명이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 33 스불론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준비하여 출전할 수 있는 자가 오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열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다.
- 34 납달리 중에서는 사령관이 천 명이고 방패와 창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한 자가 삼만 칠천 명이었는데,
- 35 단 중에서 전투를 준비한 자가 이만 팔천육백 명이었는데,
- 36 아셀 중에서 전투를 준비하여 출전할 수 있는 자가 사만 명이었고,
- 37 요단 저쪽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로 무장한 자가 십이만 명이었다.
- 38 ○전열을 가다듬은 이 모든 군사들이 전심으로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모두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 39 그들의 형제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 40 또한 그들의 근처에 있던 잇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음식을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빵과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 왔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 기랴트여아림에서 옮겨온 언약궤 (삼하 6:1-11)

- 13 1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 2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

- 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들만이 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 3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시들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물어 본 적이 없었다.”
- 4 온 백성의 눈에 이 일이 옳으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 5 ○다윗이 기랴트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이집트의 시나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 6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트여아림으로 올라갔으니, 그 궤는 그들을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 7 그들이 아비네탄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세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웃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끌었으며,
- 8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심벌즈와 나팔로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 9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는데,
- 10 웃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 11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 12 그 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하고,
- 13 다윗이 궤를 그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겨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니,
- 14 하나님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 에루살렘에 정착한 다윗 (삼하 5:11-16)

- 14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 2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 3 ○다윗이 에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얻어 자녀를 더 낳았는데,

- 4 에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과,
-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 6 노가와 네벳과 아비야와,
- 7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다.
- 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아 올라오니, 다윗이 이를 듣고 그들에게 대항하러 나갔다.
- 9 블레셋 사람들이 물려와서 르비임 골짜기를 침략하니,
-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으므로,
- 11 그들이 바일브라심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물을 흘으신 것같이 내 손을 통해 내 대적을 흘으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일브라심이라 불렀다.
- 12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그것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였다.
- 13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략하였다.
- 14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들을 쫓아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우회하여 뿔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라.
- 15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겠다.” 하셨으므로,
- 16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쳤다.
- 17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 에루살렘으로 옮겨진 언약궤 (삼하 6:12-22)

- 15 1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장막을 치고
- 2 말하기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뭘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궤를 메며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다.
- 3 다윗이 여호와와 궤를 그가 마련한 곳으로 올리려고 온 이스라엘을 에루살렘으로 소집하였으며,

- 4 또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  
 5 그릇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우리엘과 그 형제 백이십 명이고,  
 6 므라리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아사야와 그 형제 이백이십 명이며,  
 7 게르손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요엘과 그 형제 백삼십 명이었다.  
 8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스마야와 그 형제 이백 명이고,  
 9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엘리엘과 그 형제 팔십 명이며,  
 10 웃시엘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암미나답과 그 형제 백십이 명이었다.  
 11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12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너희와 너희 형제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곳으로 올려라.  
 13 전에는 너희가 메시 않아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법도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니,  
 1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올리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15 모세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채로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16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악기를, 곧 비파와 수금과 심벌즈를 크게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였다.  
 17 레위 사람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들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18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벳과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므네야와 문지기 오벧에돔과 여이엘을 세웠으니,  
 19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늦 심벌즈를 치는 자들이었다.  
 20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뭇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하였고,  
 21 맛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므네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수금을 연주하였으며,  
 22 레위 사람의 지휘관 그나나는 노래에 소질이

- 있었으므로 찬양을 지도하였다.  
 23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으며,  
 24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벨과 아마새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였고, 오벧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25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벧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올리려고 기쁘게 그리로 갔고,  
 26 하나님께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일곱과 숫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다.  
 27 다윗과 궤를 멘 모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 지휘자 그나나가 가는 벳로 만은 겔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베 에봇을 입었고,  
 28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뿔 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29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 16** 1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 다윗이 그 궤를 위하여 쳐 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3 모든 이스라엘 사람 남녀에게 각각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4 ○다윗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는데,  
 5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맛디디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이었으니,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아삽은 심벌즈로 소리를 냈으며,  
 6 제사장 브나야와 아히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7 그 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의 손으로 먼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였다.

감사 찬양  
 (시 105:1-15; 96:1-13; 106:17-18)

- 8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신 일을 백성들 가운데 알려라.  
 9 그분께 노래하고

-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여라.  
 10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11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12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13 그분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분께서 택하신 아람의 자손아,  
 14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그분의 판결이 온 땅에 있다.  
 15 너희는 그분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아람에게 세우신 규례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18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유업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19 그때 너희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땅에서 나그네였으며,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으니,  
 21 여호와께서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시기를  
 22 ‘나의 기를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셨다.  
 23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여라.  
 24 그분의 영광을 민족들 중에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25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하여라.  
 26 백성들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27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권능과 기쁨이 그 초소에 있다.  
 28 백성들의 족속들이,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 29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30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구나.  
 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민족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여라.  
 32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외쳐라.  
 밭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여라.  
 33 그대에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34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35 너희는 말하여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36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소서.’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멘으로 응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드린 예배  
 37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그곳 여호와  
 의 언약궤 앞에 머무르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임무를 따라 항상 섬기게 하였고,  
 38 오벧에돔과 그의 형제 욱실팔 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벧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세웠다.  
 39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와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고,  
 40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  
 신 여호와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였  
 다.  
 41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



- 를이 명부에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도 여호와  
의 인애가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고,  
42 O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실벌  
즈와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한 악기들을 큰 소  
리로 연주하게 하였으며,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43 O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 언약을 맺은 다윗

- 17 1 O다윗이 그의 궁전에 살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전  
에서 사는데, 여호와와 언약케는 휘장 아래  
있다.” 하니,  
2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 하였다.  
3 O그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  
였다.  
4 “가서 내 중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마라.  
5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  
지 어떤 집에서 살지 않고 이 장막과 저 장  
막에, 또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6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  
에게라도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  
나?  
7 너는 이제 내 중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양 떼  
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며,  
네 모든 적들을 내가 네 앞에서 끌어 버렸다.  
이제 내가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9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  
를 정하고 그들을 심을 것이며, 그들이 자기  
초소에서 살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고, 악  
한 자들이 이전처럼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10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  
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네 모든 적들이 네게 굴복하게 하겠다. 이제  
내가 네게 선언한다. 여호와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11 네 날들이 다하여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  
아갈 때가 되면, 내가 네 아들 중에서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  
주겠다.  
12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 줄 것이다.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인애를 네 앞에 있던 자  
에게서는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  
을 것이다.  
14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울  
것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다.”  
15 이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  
하였다.

### 삼사의 기도를 드린 다윗 (삼하 7:18-29)

- 16 O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말하  
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  
습니까?  
17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부족  
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  
나님이지요, 주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보셨  
습니까.  
18 주께서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  
다윗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19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을 위하여 주  
님의 뜻대로 이 큰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큰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 여호와시여, 저희 귀로 들은 대로 주님과 같  
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  
다.  
21 세상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쫓  
아내시어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을 얻으셨  
습니다.  
22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의 하  
나님이 되셨습니다.  
23 여호와시여,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확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24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고 영원히 높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니, 곧 주께서 이스  
라엘에게 하나님이지다.’ 라고 말하게 하시  
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하소서.  
25 나의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  
을 세우실 것을 종의 귀에 들려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  
겼습니다.

- 26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  
셨습니까.  
27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어, 주님 앞  
에서 영원히 이어 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 나라들을 정복한 다윗 (삼하 8:1-18)

- 18 1 O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  
드와 그 마을들을 빼앗았다.  
2 O또 모압을 쳤으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  
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3 O소바 왕 히타에셀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자  
기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히타까지  
이르러 그를 치고,  
4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마병 칠천 명과 보  
병 이만 명을 빼앗고, 그 병거 백 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  
을 끊어 버렸다.  
5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히타에셀을  
도우러 오니, 다윗이 그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6 다마스쿠스의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으며, 아  
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  
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7 다윗이 히타에셀의 신하들이 갖고 있던 금 방  
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 왔으며,  
8 히타에셀의 성읍 디브랴와 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왔으며,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바다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다.  
9 O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히타에셀의  
운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10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  
안하게 하고, 그가 히타에셀과 싸워 쳐부순  
것을 축하하게 하였으니, 이는 히타에셀과  
도우가 자주 전장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금과 은과 놋으로 된 온갖 그릇들이 있  
으니,  
11 다윗 왕이 그것들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  
말렉 등 여러 종족들로부터 가져 온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12 O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이므로,  
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으며, 에돔 사람  
이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4 O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  
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었다.

### 암몬과 아람을 친 다윗 (삼하 10:1-19)

- 19 1 O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가 죽고  
그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나  
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하고, 사신  
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조문하게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  
르러 하논에게 가서 조문하였다.  
3 암몬 자손의 장관들이 하논에게 말하기를 “다  
윗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엿보고 탐  
지하여 함락시키려고 그 신하들이 왕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니,  
4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  
염을 깔고, 그들의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  
른 다음 돌려보냈다.  
5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신들이 당한  
일을 보고하였다. 그 사신들이 매우 부끄러  
워하였으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여 사  
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수염이 자랄 때까  
지 여기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하였  
다.  
6 O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줄 깨달았다. 하논과 암몬 자손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이임과 아람 마아가  
와 소바에게 보내어 병거와 기마병을 샀 내  
었으니,  
7 그들이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  
의 백성을 고용하였다.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고, 암몬 자손도 싸우려고 그들  
의 성읍에서 모여들었다.  
8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  
내니,  
9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투를 준  
비하고, 도우러 온 왕들은 각자 들에 있었  
다.  
10 O요압이 자기 앞뒤로 적이 진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선발하여 아람 사람들과 맞서서 진을 치게 하  
였다.  
11 또 그가 백성의 나머지를 그의 아우 아비새의

-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암몬 자손과 맞서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 12 요압이 말하기를 “만일 아람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라. 암몬 자손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 13 강하여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 14 요압과 그 백성이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 15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니,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16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자신들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니, 히타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 앞에 나아왔다.
- 17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쳤으며, 다윗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진을 치자,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웠다.
- 18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고,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죽였는데, 병거 칠천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 19 히타에셀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후 그를 섬기니,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 람바를 점령한 다윗 (삼하 12:26-31)

- 20 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가서 람바를 포위하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람바를 쳐서 함락시키니,
- 2 다윗이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그것을 달아 보았는데,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였으며,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썼고, 또 그 성읍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으며,
- 3 그 성에 있던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였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서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4 ○이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 벌어졌을 때, 후사 사람 십브개가 거인의 아들 중에서 십배를 쳐 죽이자 그들이 항복하였다.
- 5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를재 같았다.
- 6 또 가드에서 전쟁이 있을 때 그곳에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었으며, 그도 거인의 아들이었다.
- 7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니 다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 8 이들은 가드에 있는 거인에게서 태어났으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멸망하였다.

####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 (삼하 24:1-25)

- 21 1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내게 돌아와서 그 수를 보고하여라.” 하였다.
- 3 요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이시여, 그들이 모두 내 주님의 종들이 아십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 4 요압을 향한 왕의 명령이 완강하였으므로, 요압이 나가서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 5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뿜 만한 자가 백십만 명이었고, 유다 중에서 칼을 뿜 만한 자가 사십칠만 명이었고.
- 6 그러나 요압이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조사하지 않았다.
- 7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으므로,
- 8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이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간구하니,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시다.” 하였다.
- 9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시기를

- 10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니, 네가 스스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네게 시행하겠다.” 하였으므로,
- 11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택하여라.’
- 12 삼년간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네가 석 달간 네 대적에게 패하여 그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와 갈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돌아서 여호와와 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역을 멸하게 할 것 인지를 선택하여라.’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제 결정하십시오.” 하니,
- 13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곤경에 처하였다. 여호와와 궁홀이 매우 크시니, 내가 주님의 손에 떨어지더라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다.
-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칠만 명이 죽었다.
- 15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멸망시키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네 손을 거두어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와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 16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와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 17 하나님께 말하기를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것은 제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죄를 짓고 큰 악을 행한 자입니다. 이 양 무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요, 제발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였다.
- 18 ○여호와와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 19 갓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전한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갔다.
- 20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아서서 천사를 보고는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는데,
-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내다 보고 있다가 다윗인 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

- 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을 쌓을 것이니, 충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다.” 하므로,
-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 땅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맷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 모두 모두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네 물건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값 없는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 25 그 마당을 위하여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 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니,
- 27 천사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 28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 29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와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 30 다윗이 여호와와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 22 1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였다.

####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 2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모으게 하고, 석공을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하였으며,
- 3 다윗이 또 대문의 문턱에 쓸 못과 꺾쇠를 만들 철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또 도 무개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 4 또 그가 백향목을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운반해 왔기 때문이다.
- 5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매우 웅장하여 온 세상에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므로,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가) 혹은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과 썰레와 도끼로 잘랐다.’로 번역할 수 있음.



준비하겠다.” 하고,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다.

6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7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이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9 보아라. 한 아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로 사망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여라. 내가 그의 생전에 평화와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10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워 주겠다.” 라고 하였다.

11 ○이제 내 아들이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행동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12 부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란다.

13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행동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14 보아라.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와 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너무 많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놋과 철을 준비하고, 또 목재와 석재도 준비하였으나 네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15 또 네게는 일꾼들, 곧 채석공과 석공과 목수와 각종 일에 능숙한 모든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

16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셀 수도 없이 많으니, 일이나 일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

17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기를

18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주께서 사망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

민들을 내 손에 붙여서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19 너희는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구하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며, 여호와와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와서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들어놓아라.” 하였다.

**23** 1 ○다윗이 늙고 나이 많아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 레위인들의 직무들

2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3 삼십 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세니, 남자의 수가 모두 삼만 팔천 명이었다.

4 그 중에서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와 성전 일을 맡은 자이고,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며,

5 사천 명은 문지기이고, 사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6 다윗이 레위의 자손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의 반열로 나누었다.

7 ○게르손에게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다.

8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셋이며,

9 시므이의 아들들은 솔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셋이니, 이들은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10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로서,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11 야핫은 우두머리였고, 그 다음은 시사였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종족으로 간주되었다.

12 ○그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네 명이었다.

13 아르람의 아들들은 아르온과 모세였다. 아르온은 가장 거룩한 일을 맡도록 구별되었으니, 그와 그의 후손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1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15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으니,

16 게르솜의 아들 중에서는 스브엘이 우두머리였고,

17 엘리에셀의 아들 중에서는 르하바가 우두머리였으며,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

나 르하바에게는 아들이 매우 많았다.

18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는 솔로밋이 우두머리였으며,

19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미라와 셋째 아히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었다.

20 웃시엘의 아들들은 족장 미가와 둘째 잇시아였다.

21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였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였으며,

22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었으므로, 그 딸들에게 그 형제 기스의 아들들이 장가들었다.

23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돗, 세 명이었다.

24 ○이들은 그 가문별로 수를 세어 이름이 기록된 레위 자손으로서, 여호와와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 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었다.

25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시므로,

26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땄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27 다윗의 유언대로 이십 세 이상 된 레위 자손의 수를 세었으니,

28 그들의 직분은 아르온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와 전과 뜰과 방들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으며,

29 차려 놓는 빵과 곡식제를 위한 고운 가루와 누룩 없는 전병을 준비하고 철판에 굽는 것과 튀기는 것과 저울에 달고 치수를 재는 모든 일이었다.

30 또 아침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31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법도에 따라 정한 수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으며,

32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르온 자손들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와 전에서 섬겼다.

#### 제사장의 직무들

**24** 1 ○아론 자손의 반열은 다음과 같았다. 아르온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2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다.

3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에게 섬기는 직무를 나누어 맡겼다.

4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들이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보다 많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열여섯 우두머리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여덟 우두머리로 나누었다.

5 성소의 일을 지휘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지휘하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공평하게 나누었다.

6 레위 사람 중에서 서기관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가, 왕과 지휘관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엘르아살의 자손을 위해 한 집안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을 위해 또 한 집안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7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아람이고, 둘째는 여다이며,

8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며,

9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며,

10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며,

11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며,

12 열한째는 엘리아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며,

13 열셋째는 흠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브암이며,

14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며,

15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흠비세스이며,

16 열아홉째는 브다하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이며,

17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며,

18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야시아였다.

19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르온에게 명령하신 법도에 따라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봉사한 직무가 이와 같았다.

#### 다른 레위인들의 직무들

20 ○레위 자손 중에서 나머지는 다음과 같았다. 아르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고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아이며,

21 르하바에게는 그 아들 중에서 잇시아가 우두머리였다.

- 22 이스할에게는 슬로못이 있었고,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아합이 있었고,  
 23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미라와 셋째 아히시멜과 넷째 여가므일이었고,  
 24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였고,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밧이 있었으며,  
 25 미가의 아우는 잇시아였고, 잇시아의 아들 중에는 스기라가 있었으며,  
 26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였고, 아미아의 아들들은 브노였고,  
 27 므라리의 자손 아미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였고,  
 28 마홀리에게는 엘리아살이니 엘리아살은 아들이 없었다.  
 29 기스에게는 그의 아들 여라므엘이 있었다.  
 30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멜과 여러모이니, 이들은 그 가문에 따른 레위 자손이었다.  
 31 이들도 역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말의 가문 이든지 막내의 가문이든지 공평하게 뽑았다.

#### 찬양을 맡은 사람들

- 25 1 ○다윗과 군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심벌즈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로 봉사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2 아삽의 아들 중에서는 삭굴과 요셉과 느다나와 아시켈라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도를 받아 왕의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3 여두둔에게는 그의 아들들은 그달라와 스리와 여시아와 하사바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이들이 수금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지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4 헤만에게는 그의 아들들은 북기야와 맛다냐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여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히시웃이니,  
 5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전자 헤만의 아들들로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아들 열넷과 딸 셋을 주셨으니,  
 6 이들이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여호와와 성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있었다.  
 7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와 노래를 배워 능숙한 사람의 수가 모두 이백팔십팔 명이었

- 으며,  
 8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아 책임을 맡았다.  
 9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 가문의 요셉이었고, 두 번째는 그달라이니, 그와 그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이 열두 명이었고,  
 10 세 번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11 네 번째는 이스리야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12 다섯 번째는 느다나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13 여섯 번째는 북기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14 일곱 번째는 여시켈라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15 여덟 번째는 여시아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16 아홉 번째는 맛다나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17 열 번째는 시므이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18 열한 번째는 아시켈라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19 열두 번째는 하사바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20 열세 번째는 스브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21 열네 번째는 맛디디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22 열다섯 번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23 열여섯 번째는 하나냐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24 열일곱 번째는 요스브가사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25 열여덟 번째는 하나니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26 열아홉 번째는 말로디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27 스무 번째는 엘리아다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28 스물한 번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29 스물두 번째는 깃달디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며,  
 30 스물세 번째는 마히시웃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고,  
 31 스물네 번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고.

#### 성전문지기를 맡은 사람들

- 26 1 ○문지기의 반열은 다음과 같았다. 그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들은 므셀라마이고,  
 2 므셀라마의 아들들은 만아들 스기라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3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나였고,  
 4 오벧에돔의 아들들은 만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닐과,  
 5 여섯째 임미엘과 일곱째 잇사갈과 여덟째 브올래대이니, 하나님께서 오벧에돔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다.  
 6 그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며 그들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였다.  
 7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비엘과 오벧과 엘사밧이었으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8 이들은 모두 오벧에돔의 자손이며,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유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직무에 능하였으니, 오벧에돔에게서 난 사람은 육십이 명이었고,  
 9 또 므셀라마의 아들과 형제 열여덟 명도 유능한 자들이었다.  
 10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만아들은 시므리였고, 시므리는 본래 첫째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만아들로 삼았다.  
 11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아이며, 넷째는 스기라이니, 호사의 아들과 그 형제들은 모두 열세 사람이었다.  
 12 ○이들은 문지기 반열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와 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얻은 자들이다.  
 13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 구별 없이 동등하게 가문에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대문을 지켰으니,  
 14 셀레마는 동쪽의 제비를 뽑았고, 그의 아들 스기라는 명철한 조연자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의 제비가 북쪽에 뽑혔고,  
 15 오벧에돔은 남쪽에 뽑혔으며, 그의 아들들은 창고에 뽑혔다.  
 16 솔빔과 호사는 서쪽에 뽑혀, 올라가는 큰길가에 있는 살래트 문 앞에서 서로 마주보며 지켰으니,  
 17 동쪽에 레위 사람 여섯 명, 북쪽에 매일 네 명, 남쪽에 매일 네 명, 창고에 두 명씩이며,  
 18 서쪽 회랑 큰길에 네 명, 뜰에 두 명이 배치되었다.

- 19 이들은 고라 자손과 므라리 자손 중 문지기의 반열이었다.

#### 성전 창고를 맡은 사람들

- 20 ○레위 사람 중에서 아히아는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고,  
 21 라단의 자손은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고,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야다.  
 22 ○여히엘리의 아들 스담과 그의 형제 요엘이 여호와와 성전 창고를 맡았다.  
 23 이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웃시엘 자손 중에서는,  
 24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자손 스브엘이 창고를 맡았으며,  
 25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는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아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 있었으며,  
 26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모든 성물을 맡았으니, 이 성물들은 다윗 왕과 우두머리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령관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었다.  
 27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와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28 선전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벨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형제가 관리하였다.

#### 다른 레위인들의 직무

- 29 ○이스할 자손 중에서는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다.  
 30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하사바를 비롯한 유능한 그의 형제 천칠백 명이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되어 여호와와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으며,  
 31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가문에 따라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왕위에 있는 지 제 사십년에 길르앗 아셀에서 유능한 용사들을 찾아내었다.  
 32 그의 형제 이천칠백 명은 유능한 사람들이며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감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 이스라엘의 군대 편성

- 27 1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수대로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반열에 부과된 모든



- 일을 위해 일 년 내내 매달 들어가고 나왔는데, 각 반월에 든 사람이 이만 사천 명씩이었다.
- 2 ○첫째 달 첫 반월의 책임자는 삼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었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3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을 맡은 모든 군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4 둘째 달 반월의 책임자는 아호아 사람 도대였고, 그의 반월 중에서 미글롯이 지휘관이 되었으니, 그의 반월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5 셋째 달 세 번째 군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였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6 이 브나야는 삼십 명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그 삼십 명을 거느렸고, 그의 반월에 아들 암미사밧이 있었다.
- 7 넷째 달 네 번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시헬이었고,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였으니,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8 다섯째 달 다섯 번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이었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9 여섯째 달 여섯 번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의게스의 아들 이라였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0 일곱째 달 일곱 번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였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1 여덟째 달 여덟 번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심브개였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2 아홉째 달 아홉 번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예셀이었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3 열째 달 열 번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미하래였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4 열한째 달 열한 번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였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5 열두째 달 열두 번째 지휘관은 웃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대였고, 그의 반월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6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은 다 음과 같았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는 마야가의 아들 스바다이며,
- 17 레위 지파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지파는 사독이며,

- 18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잇사갈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 19 스불론 지파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었고,
- 20 에브라임 지파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이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며,
- 21 길앗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스가라의 아들 잇도이고,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며,
- 22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시엘이니,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다.
- 23 다윗이 이십 세 이하는 그들의 명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24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일 때문에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였으므로 마치지 못하였고, 조사한 숫자를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 왕실의 재산 관리자들**
- 25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뻬는 왕의 창고를 맡았고, 웃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의 창고를 맡았고,
- 26 글룸의 아들 에스리는 땅을 경작하여 밭일하는 농부를 관리하였으며,
- 27 라마 사람 시드리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살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창고들을 맡았다.
- 28 게델 사람 바일하난은 쉼벨라의 올리브 나무와 시카모어 나무를 관리하였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들을 관리하였다.
- 29 시론 사람 시드라는 시론에서 기르는 소 떼를 관리하였고, 아들래의 아들 사밧은 꿀짜기에 있는 소 떼를 맡았으며,
- 30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돗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으며,
- 31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 떼를 맡았으니, 이들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 32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사리에 밝은 인물로서 조언자이자 서기관이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을 수행했다.
- 33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이고, 이렉 사람 후새는 왕의 친구이며,
- 34 브나야의 아들 여호아다와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이 되었다.

### 성전건축을 지시한 다윗

- 28 1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 곧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왕을 섬기는 반월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그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관리하는 자들과 궁중관리들과 무사들과 모든 유능한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 2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하였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대를 위하여 평안의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으니,
- 3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의 사람이어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4 그러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유다를 택하여 주권자로 삼으시고 유다 지파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 5 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어 여호와와의 나라 보좌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 6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과 나의 뜰들을 건축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로 택하였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7 그가 만일 오늘날과 같이 나의 명령과 법도를 힘써 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 8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땅을 차지하여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의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니, 네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 10 그러므로 너는 이제 조심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를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

셨으니,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 11 ○다윗이 전의 현관과 그 집들과 그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 12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설계도, 곧 여호와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전의 창고들과 성물 창고들의 모든 설계도를 건네주었으며,
- 13 또 제사장장과 레위 사람의 반월과 여호와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그리고 여호와와의 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14 또 모든 봉사에 사용할 금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금의 무게와, 모든 봉사에 사용할 은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은의 무게를 정해 주고,
- 15 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 곧 각 금 등잔대와 각 금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정해 주었다.
- 16 그가 빵을 차려 놓는 상들을 만들 금의 무게와 그리고 은 상들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여 주었고,
- 17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주전자들을 만들 순금과 금 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여 주었다.
- 18 그가 또 향단에 사용할 순금의 무게를 정해 주고,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금 그룹들의 설계도도 주었다.
- 19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곧 이 모든 설계도에 관한 일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 주셨다.” 하였다.
- 20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여라. 여호와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여호와와 전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끝낼 때까지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 21 보아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월이 있으니, 그들이 여호와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돕고,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또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것이다.”

### 성전건축에 쓴 예물들

- 29 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가 매우 크니,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2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 기구들을 위한 금과, 은 기구들을 위한 은과, 놋 기구들을 위한 놋과, 철 기구들을 위한 철과, 목재 기구들을 위한 목재와, 또 마노와 박아 넣을 보석들과 장식 보석들과 다양한 빛깔을 내는 보석들과 각종 보석들과 대리석을 온 힘을 다해 넘치도록 준비하였다.

3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쳤으니,

4 곧 오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이니, 이것들로 전의 벽을 입히고,

5 금 기구와 은 기구를 만드는 일과 기술공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도록 하였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바치겠느냐?”

6 ○이에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사무 책임자들이 즐거이 바쳤으니,

7 하나님 전의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 놋 만 팔천 달란트, 철 십만 달란트를 바쳤고,

8 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을 통해 여호와 전의 창고에 바쳤으며,

9 백성들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바치고, 자원하여 바쳤으므로 그들이 즐거워하였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 다윗의 감사기도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11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12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13 우리 하나님이지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4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

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15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거류민이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 같으니, 머무름이 없습니다.

16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17 나의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참석하신 주님의 백성이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18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백성이 이 일을 마음에 품어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소서.

19 제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준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20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니, 회중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와 왕에게 절하였다.

21 그 다음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으니, 수송아지 천 마리, 숫양 천 마리, 어린 양 천 마리와 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 그들이 이 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 앞에서 기름을 부어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23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여호와와 보좌에 앉아 번영을 가져왔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니,

24 모든 지휘관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까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25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크게 높이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 다윗 왕의 통치 요약

26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

어.

27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인데, 헤브론에서 칠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다.

28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9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었으니,

30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당대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 역대하

##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상 3:1-15)

-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권을 굳건하게 했으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크게 번성케 하셨다.
- 2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부르코,
- 3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 4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그 궤를 이미 기럇여이림에서부터 그 예비한 곳으로 올려다 두었으나,
- 5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은 여호와와 성막 앞에 있었으므로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그곳에 가서
- 6 회막에 있는 여호와 앞의 놋 제단을 향해 올라가서 그 위에 일친 번제물을 드렸다.
- 7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니 구하여라.” 하니,
-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주께서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 9 여호와 하나님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소서. 주께서 저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 10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 1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네 마음에 있어,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네 수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강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 12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네게 주고,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네게 줄 것이니, 이와 같은 왕이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 13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4 ○솔로몬의 부귀 (왕상 10:26-29)
-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모으니, 병거가 천사백 대이고, 기마병이 만 이천 명이

었다. 솔로몬이 이들을 병거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15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셰멜라에 있는 시키모어 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

16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에서 들어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에서 값을 주고 사왔다.

17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백오십 세겔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이람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들 손으로 가져왔다.

##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왕상 5:1-18)

-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이름의 위한 전과 자기 왕국을 위한 궁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
- 2 솔로몬이 짐꾼 칠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팔만 명과, 그들을 감독할 사람 삼천육백 명을 뽑았으니,
- 3 ○또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왕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아버지가 거할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 4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항상 드리는 빵을 차려 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하니,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 5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니,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도 큼니다.
- 6 누가 감히 그분을 위해 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분을 위해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봉헌할 곳을 지으려고 할 뿐입니다.
- 7 이제 왕께서는 금, 은, 놋, 철과 자주색, 홍색, 청색 실로 작업할 수 있고 조각품도 새길 줄 아는 기술자 한 사람을 내게 보내 주셔서,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 주십시오. 왕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는 줄 내가 압니다. 보십시오, 나의 종들도 왕의 종들을 도울 것입니다.

9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니,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10 보십시오, 내가 벌목하는 왕의 종들에게 빵은 밀 이만 섬, 보리 이만 섬, 포도주 이만 말, 기름 이만 말을 주겠습니다.”

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왕을 그들 위에 세우셨습니다.”라고,

12 후람이 또 말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소서.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갖춘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한 전과 그의 왕국을 위한 궁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 13 ○내가 이제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총명한 기술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14 그는 단의 딸들 중 한 여자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 은, 놋, 철, 돌, 나무와 자주색, 청색, 홍색, 가는 베와 실로 하는 작업에 능숙하며, 온갖 조각품을 잘 새기고, 어떤 기구라도 고안하는 자이니,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 나의 주 다윗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 15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 16 우리가 레바논에서 왕께서 필요로 하는 만큼 벌목하여,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띄워 옵바로 보내겠으니, 왕께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십시오.”

## 성전건축을 시작한 솔로몬 (왕상 6:1-38)

- 1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니, 모두 십오만 삼천육백 명이었습니다.
- 2 그 중에서 칠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팔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으며, 삼천육백 명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3 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성전 터로 정해 둔 것이었다.

2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제 사년 이월 이일에 건축을 시작하였다.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놓은 기초는 다음과 같으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는 육십 규빗이고, 너비는 이십 규빗이었다.

4 전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의 너비와 같은 이십 규빗이고, 높이는 백이십 규빗이니, 안쪽은 순금으로 입혔다.

5 대전 안은 잣나무로 대고 순금으로 입혀,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을 새겼으며,

6 보석으로 그 전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었다.

7 또 전의 대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을 입혔으며, 벽에는 그들을 새겼다.

8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길이가 전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고, 너비도 이십 규빗이었으며, 그것에 육백 달란트 되는 순금을 입혔고,

9 못의 무게는 금 오십 세겔이고, 다락에도 금을 입혔다.

10 지성소 안에 그릇 형상 두 개를 새겨 만들고 금을 입혔다.

11 두 그룹의 날개 길이는 모두 이십 규빗인데,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오 규빗으로 전의 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도 오 규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2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도 오 규빗으로 전 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도 오 규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므로,

13 이 두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었다. 그들이 발로 서 있었으며, 그 얼굴은 대전을 향해 있었으며,

14 솔로몬이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베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들을 수놓았다.

15 ○또 성전 앞에 높이가 삼십오 규빗 되는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각 기둥 꼭대기에 놓인 기둥머리가 오 규빗이었다.

16 내전에서와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하나는 왼편에, 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웠으며, 오른편 것은 아긴이라 부르고, 왼편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

## 성전의 기둥들 (왕상 7:23-51)

- 4 1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고, 너비가 이십 규빗이며, 높이가 십 규빗이었다.
- 2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

- 이고, 그 모양은 둥글었으며, 그 높이는 오 규빗이고, 줄로 둘레를 한 번 돌리면 삼십 규빗이 되었다.
- 3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의 형상이 있었으니, 바다 주위를 돌아가며 매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었으며,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소들을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 4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는데,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그리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를 그것들 위에 놓았으니, 소들의 엉덩이는 안쪽으로 향하였다.
- 5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 정도 되었고, 그 테 두리는 잔의 테두리처럼 백합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 그 바다에 삼천 빛을 담을 수 있었다.
- 6 또 대야 열 개를 만들어 다섯은 오른쪽에 두고 다섯은 왼쪽에 두어 씻게 하였다. 번제에 쓸 것은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 7 또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규격대로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으니, 다섯은 오른쪽에, 그리고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 8 또 상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으니, 다섯은 오른쪽에, 그리고 다섯은 왼쪽에 두었으며, 또 금 대접 백 개를 만들었다.
- 9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들을 만들고, 그 문짝들에 놋을 입혔으며,
- 10 그 바다는 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 11 ○후람이 술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 12 곧 기둥 둘과,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같은 머리 둘과,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머리를 덮는 그물 둘과,
- 13 그 두 그물들을 위하여 각각의 그물에 두 줄씩 달아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덮게 한 석류 사백 개와,
- 14 받침과, 받침 위의 대야들과,
- 15 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 16 술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구들이었다.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 17 왕이 요단 평원 속곳과 스레다 사이에서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 18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
- 19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 제단과 빵 차림 상들과,
- 20 내전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 순금 등잔대

- 와 등잔들과,
- 21 순금으로 된 꽃장식과 등잔과 부절가락과,
- 22 순금으로 만든 부절계와 대접과 술가락과 붙 옮기는 그릇과 전의 문, 곧 지성소의 안쪽 문과 성전의 문이었다. 이 문들에도 금을 입혔다.

5 1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친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창고에 두었다.

#### 성전으로 옮겨진 언약궤 (왕상 8:1-9)

- 2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떼어 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 3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칠월 절기에 왕에게 모이고,
- 4 이스라엘의 장로가 다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
- 5 그들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 6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 7 ○제사장들이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에 있는 그물들의 날개 아래로 메어 들었다.
- 8 그물들이 궤가 있는 곳 위에서 날개를 펴 궤와 그 채를 덮었으며,
- 9 궤에서 나온 채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에서 보였으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 10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다.

#### 여호와와의 영광

- 11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은 반열과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있었으니,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 12 노래하는 레위 사람,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가는 배운을 입고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의 동편에서 있었으며,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 13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면서, 나팔과 심벌즈와 모든 악기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애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였다. 그때 그 전, 곧 여호와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찼으므로,
- 14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처럼 여호와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 (왕상 8:12-21)

- 6 1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감감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2 제가 주께서 계시 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시 처소를 건축하였습디다.” 하고,
- 3 왕이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서 있었다.
- 4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5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돌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았으니, 6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라고 하셨다. 7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8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니, 9 내가 그 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것이고, 네 허리에서 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10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고, 11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궤를 이곳에 두었다.”
- 12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양손을 폈다.
- 13 솔로몬이 놋으로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길이가 오 규빗이고 너비가 오 규빗이며 높이가 삼 규빗이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보고 무릎을 꿇고

-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고,
- 14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행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 십니다.
- 15 주께서 주님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 16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지켜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약속을 지키소서.
- 17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증하십시오.
- 18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9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소서.
- 20 주님의 눈을 뜨셔서 이 전, 곧 주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신 이곳을 향하여 밤낮으로 살피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 21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십시오.
- 22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죄를 지어 이곳에서 맹세하기를 요구받고, 와서 이 전에 있는 주님의 단 앞에서 행세하면,
- 23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어 그 의로운 대로 그에게 갚으소서.
- 24 ○만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짓고 원수 앞에서 패하므로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면,
- 25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셔서, 주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 26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으므로 하늘이 단혀 비가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 27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 28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꺾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풀무치가 득실거리거나, 원수가 이 땅 성읍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 29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양손을 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 30 주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되,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으소서. 주께서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 31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위에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 32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가 주님의 큰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피신 팔로 인하여 먼 땅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 33 주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모두 행하셔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제가 건축한 이 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소서.
- 34 ○주님의 백성이 적들과 싸우려고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면,
- 35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소서.
- 36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만일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시므로 그들이 멀거니 가까운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 37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로잡혀 간 땅에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면,
- 38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면,
- 39 주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시며,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 40 ○나의 하나님이지요,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 41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 42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인애를 기억하소서.”

#### 성전 봉헌 (왕상 8:62-66)

- 7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으며, 여호와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으니,
- 2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 3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와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애가 영원하십니다.” 하였다.
- 4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
- 5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은 소 이만 이천 마리, 양 십이만 마리였다. 이같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였다.
- 6 그때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분에 따라 섰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와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들어 레위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인애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던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
- 7 ○솔로몬이 또 여호와와 전 앞뜰 가운데를 성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돛 단이 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8 ○그때 솔로몬이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매우 큰 회중이 그와 함께하여,
- 9 제단의 봉헌식을 칠일 동안 지키고, 또 절기를 칠일 동안 지키고, 제 팔일에 그들이 성회로 모였다.
- 10 칠일 이십삼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왕상 9:1-9)
- 11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자신의 궁전에 대하여 그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을 행동하게 이루었다.
- 12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선택하였다.
- 13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낼 때에,
- 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 주겠다.
- 15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는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겠다.
- 16 이제 내가 이 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 17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며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 18 내가 네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한 대로 해 주겠다.
- 19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것들을 숭배하면,
- 20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니,
- 21 이 전이 비록 높더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

- 와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하셨느냐?’ 하면,
- 22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백성이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숭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할 것이나.
- 8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그의 궁전을 이십 년 동안 건축하여 완공하고,
- 2 솔로몬이 후람이 자신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하여,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하였다.
- 3 ○솔로몬이 하맛소바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였으며,
- 4 또 광야에 다드물을 건축하고, 하맛에 모든 국고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며,
- 5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였으니 성벽들과 성문들과 문지방들이 있는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 6 또 솔로몬이 바일랏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국고 성읍들과, 모든 병거 성읍들과, 기마병 성읍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려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건축하였다.
- 7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 8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 둔 자들의 자손으로서, 솔로몬이 노역을 부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 9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역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군인들과 장교들의 지휘관과 왕의 병거와 기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
- 10 솔로몬 왕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이백 오십 명이며,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다.
- 11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데려와 그 여자를 위하여 건축한 궁전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와 궤가 이르렀던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12 ○그때 솔로몬이 현관 앞에 세운 여호와와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 13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 정해진 분량을 드렸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세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번제를 드렸다.
- 14 ○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도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섬기는 일을 위하여 반열을 정해주고, 레위인들에게도 직분을 맡

져 매일 정해진 입무에 따라 찬양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보좌하게 하였으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15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았다.

16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끝마칠 때까지 모든 일을 준비하였으므로, 여호와와의 전이 순조롭게 완공되었다.

17 ○그때 솔로몬이 애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게벨과 엘랏에 갔는데,

18 후람이 그의 신하들을 시켜 선박들과 바다를 잘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그들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서 금 사백오십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 스바 여왕의 방문 (왕상 10:1-13)

9 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니,

2 솔로몬이 그 여자의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솔로몬이 몰라서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3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4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아 있는 것과, 그의 종들이 서서 모시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술 관원들과 그들의 의복과, 여호와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5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왕께서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6 내가 와서 내 눈을 확인할 때까지 나는 그 말들을 믿지 못했으나, 보십시오, 내게 보고된 것은 왕의 위대한 지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왕께서는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7 항상 왕 앞에 서서 왕의 지혜를 듣는 왕의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왕의 이 신하들은 복이 있습니다.

8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그분의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

의 왕으로 세우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9 그리고 나서 여왕이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은 향료가 전에는 없었다.

10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11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와의 전과 왕궁의 계단들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12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그 여자의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그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 솔로몬의 부와 영화 (왕상 10:14-25)

13 ○일 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14 그 외에도 상인들과 행상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으며,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지방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15 솔로몬 왕이 두드려 편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두드려 편 금 육백 세겔을 입혔다.

16 또 두드려 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삼백 세겔을 입혔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17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는데,

18 그 보좌에는 층계가 여섯 개 있었고, 금 발판이 보좌에 붙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들 곁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서 있었다.

19 또 사자 열두 마리가 여섯 층계 양쪽에 서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20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수풀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1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에 다녔는데, 다시스의 배들이 삼 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기 때문이다.

22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나다.

23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만나 보려고 하였으며,

24 그들은 각자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25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위한 마구간 사천과 기마병 만 이천 명이 있었는데, 병거 성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26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쉘렐라의 시키모어 나무 같이 풍부하게 하였다.

28 사람들이 이집트와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가져왔다.

29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이히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잇다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 관하여 쓴 묵시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30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며,

31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반란을 일으킨 북쪽 지파들 (왕상 12:1-20)

10 1 ○르호보암이 세겔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겔에 모였기 때문이다.

2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에 도망하여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으므로,

3 사람들이 예로보암을 불러내었다.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4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을 무겁게 하셨으나,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노동과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명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자,

5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돌아갔다.

6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앞에서 섬겼던 원로들과 상의하여 “당신들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소?” 하니,

7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8 왕은 원로들이 하는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 자기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젊은이들과 상의하여,

9 묻기를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느냐?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운 명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니,

10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을 무겁게 했으므로 왕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 주십시오.’ 했으나 왕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므로’

11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명을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명을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전갈로 징계하겠다.”라고 대답하십시오.”

12 ○왕이 “삼일 만에 내게로 다시 와라.” 하고 말했던 대로 예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삼 일 만에 르호보암에게 나오니,

13 르호보암 왕이 포착한 말로 대답하였는데,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14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명을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그 위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전갈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15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곧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이히야의 손을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16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말을 왕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은 뭇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17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18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마차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19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 스마야의 예언 (왕상 12:21-24)

11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을 모았는데, 이스라엘



과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로 돌리기 위해 뽑힌 용사가 십팔만 명이였다.  
 2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4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길에서 돌아섰다.

#### 성읍들을 요새화한 르호보암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에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6 그가 세운 성읍은 베들레헴과 예담과 드고아와,  
 7 벳셀과 소고와 아들람과,  
 8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 아도람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 소라와 아일론과 헤브론이니,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었다.  
 11 르호보암이 이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주권자들을 거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였으며,  
 12 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읍들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다.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

#### 유다로 넘어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13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으니,  
 14 레위인들이 그들의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였기 때문이다.  
 15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숯연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으므로,  
 16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여호와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17 그들이 삼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 기간 동안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다.

#### 르호보암의 가족들

18 ○르호보암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은 다윗의 아들 여러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였으며,  
 19 마할랏이 그에게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스마라와 사할이었다.  
 20 그 후에 그가 또 압살롬의 딸 마이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마이가가 그에게 낳은 아들은 아비아와 잇대와 시사와 솔로밋이었다.  
 21 르호보암이 아내 열여덟 명과 후궁 육십 명을 거느리고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육십 명을 낳았는데, 압살롬의 딸 마이가를 모든 아내와 후궁보다 더 사랑하였다.  
 22 르호보암이 마이가의 아들 아비아를 왕으로 삼기 위해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의 형제 중에서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23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고,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으며, 아내도 많이 얻어주었다.

#### 유다를 침입한 이집트 (왕상 19:25-28)

12 1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게 세우고 그의 세력이 강해지니, 그가 여호와와 올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았다.  
 2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 오 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니,  
 3 그에게 병거 천이백 대와 기마병 육만 명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나온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리비아와 수키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4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5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하니,  
 6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겸손해져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하였다.  
 7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한 것을 보셨을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그들이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가파스로 구원을 얻게 하겠으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8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하였다.  
 9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갔으므로,

10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의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들의 손에 맡겼으니,  
 11 왕이 여호와와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이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가져왔다.  
 12 르호보암이 겸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어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으며, 유다의 형편이 점점 좋아졌다.

#### 르호보암의 통치 요약

13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강화하여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마흔네 살에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서 이름은 나아마였다.  
 14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15 ○르호보암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스마야의 책과 선지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16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왕상 15:1-8)

13 1 ○여로보암 왕 제 십팔 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2 예루살렘에서 삼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로서 이름은 미가야였다.  
 3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4 아비야가 전쟁에 용맹스러운 군인 사십만 명을 뽑아 싸우러 나가니, 여로보암이 그를 대항하여 강한 용사 팔십만 명을 뽑아 전열을 갖추었다.  
 5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6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7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종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인에게 반역하고,  
 8 건달과 불량배들이 그에게 모여오니, 세력을 키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는데,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막아 내지 못하였다.

8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에 있는 여호와와 나라에 대항하려고 한다. 너희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여로보암이 신이라고 하며 너희에게 만들어 준 금송아지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9 너희가 이런 자손인 여호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이 하는 대로 너희를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만 가져오면,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10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고 또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종든다.  
 11 그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깨끗한 상 위에 항상 차리는 빵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켜다. 우리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였다.  
 12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마라. 너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3 ○여로보암이 복병을 보내 유다의 후방을 포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유다 앞에 있고, 복병은 유다 뒤에 있었다.  
 14 유다 사람이 둘러보니 적병이 앞뒤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15 유다 사람이 합성을 지르니, 그들이 합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므로,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17 아비야와 그 백성이 그들을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에서 뽑힌 군사 오십만 명이 쓰러져 죽었다.  
 18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사람들이 승전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19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에게서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그 고을들, 여사나와 그 고을들, 에브론과 그 고을들이었다.  
 20 아비야 생전에 여로보암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므로 그가 죽었다.

- 21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으며, 아내 열네 명을 거느리고, 아들 스물두 명과 딸 열여섯 명을 낳았다.
- 22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행위와 말들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 유다 왕 아사의 통치

- 14 1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니, 그들이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그의 시대에 그 땅이 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 2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 3 그가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기둥우상들을 파괴하며 아세라상들을 찢어 없앴으며,
- 4 그가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며,
- 5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없애니, 나라가 그 안에서 평온하였다.
- 6 그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온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7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빔장을 만들자.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구했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였고, 그들은 성읍을 무사히 잘 건축하였다.
- 8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사람 삼십만 명과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베냐민 사람 이십팔만 명의 군대가 있었으니, 이들은 모두 강한 용사들이었다.
- 9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백만 군대와 병거 삼백 대를 이끌고 마레스아에 이르니,
- 10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여 마레스아의 스비다 골짜기에 진을 쳤다.
- 11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요,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으니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저희의 하나님이지니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 12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 도망하였으며,
- 13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을 그랄까지 추격하였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이 전멸하니, 매우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다.
- 14 여호와께서 그랄 주위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많은 물건을 탈취하였고,
- 15 또 무리들이 가족 지키는 자들의 장막들도 쳐서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아사의 종교개혁

- 15 1 ○하나님의 영이 오렛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니,
- 2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이여,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 3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었으니,
- 4 환난 때에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가서 찾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 5 그때 세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큰 혼란이 있어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평안이 없었으며,
- 6 민족과 민족이, 또 성읍과 성읍이 서로 파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여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라. 너희의 하는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 8 ○아사가 선지자 오렛이 예언한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험오스러운 우상들을 없애 버리고, 또 여호와 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와 제단을 보수하였다.
- 9 또 그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에게로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 10 아사 왕 십오 년 살월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 11 그 날 그들이 가져온 탈취물 중에서 소 칠백

### 투옥된 선전자 하나니

- 마리와 양 칠천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 12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며,
- 13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이기로 하였다.
- 14 아사가 피리와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 15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 16 ○아사 왕의 어머니 마이가가 아세라를 위해 우상을 만드니 아사가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으며, 또 아사가 그 우상을 찢어 내고 뿔아서 기르니 시냇가에서 불사랐다.
- 17 아사가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는 않았으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온전하였다.
- 18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한 물건들과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았다.
- 19 이때부터 아사 왕 삼십오 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 벤하닷에게 도움을 구한 아사 왕

(왕상 15:17-22)

- 16 1 ○아사가 왕이 된 지 세 삼십육 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아무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 2 아사가 여호와와 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 3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내니,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그가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읍들에 보내므로 그들이 이룬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 5 바사사가 이를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 6 아사 왕이 유다 온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사가 건축하던 라미의 석재와 목재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 7 ○그때 선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니다.
- 8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의 군대가 거대하고, 또 병거와 기마병도 매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 9 이는 여호와와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에 왕께서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참으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 10 아사가 그 선전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왕이 이번 일로 그에게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아사가 그때 백성 몇 명을 학대하였다.

### 아사의 죽음 (왕상 15:23-24)

- 11 ○아사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 12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째 되는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니, 그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 13 아사가 왕이 된 지 사십일 년째 되는 해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 14 사람들은 아사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 성에 파두었던 묘실에 그를 장사하되, 향료 제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를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매우 많이 분향하였다.

### 유다의 왕이 된 여호사밋

- 17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밋이 그 뒤를이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국력을 강화하였다.
- 2 그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빼앗은 에브라임 성들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 3 여호와께서 여호사밋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초가에 걸었던 길을 따라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였으며,
- 4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건고하게 하셨고, 온 유다 사람이 여호사밋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 6 그가 용감하게 여호와와 길로 갔으며,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 7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삼년에 그의 장관들인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의 성읍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 8 그가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나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를 보내면서,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함께 보냈다.
- 9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는데, 그의 모든 성읍을 순방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 강대하여진 여호사밧**
- 10 ○여호와께서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시니,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였다.
- 11 블레셋 사람들 일부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오고, 공물로 은을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떼를 가져왔으니, 솜양이 칠천칠백 마리이고 숫염소가 칠천칠백 마리였다.
- 12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 유다에 요새들과 국고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 13 유다 여러 성읍들에 많은 공사를 하였으며, 그가 또 예루살렘에 용맹스런 군사들을 두었으니,
- 14 군사의 수가 가문별로 다음과 같았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들 중에서는 아드나가 지휘관이 되어 용사 삼십만 명을 거느렸고,
- 15 그 다음으로는 지휘관 여호한안이 이십팔만 명을 거느렸다.
- 16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가 여호와를 위해 자원하여 나서, 용사 이십만 명을 거느렸고,
- 17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서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무장한 이십만 명을 거느렸으며,
- 18 그 다음은 여호사밧인데, 무장한 병사 십팔만 명을 거느렸다.
- 19 이들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이 외에도 왕은 유다 전역의 견고한 성들에 군대를 배치하였다.

#### 아합 왕과 연합한 여호사밧 (왕상 22:1-28)

- 18** 1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광이 대단하였는데, 그가 아합과 사돈이 되었다.
- 2 몇 해 후 그가 시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한 백성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을 설득하였다.
-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왕과 같고, 내 백성은 왕의 백성과 같으니, 왕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였다.
- 4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말하기를 “먼저 여호와께 말씀을 여쭙 봅시다.” 하였다.
- 5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사백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겠느냐, 아니면 그만두어야겠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말하였다.
- 6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이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는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하였다.
- 8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므로,
- 8 이스라엘 왕이 신하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와라.” 하였다.
-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시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자의 보좌에 앉아 있었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 10 그나아니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람 사람들이 전멸할 때까지 이것들로 그들을 찔러라.” 하였으며,
- 11 모든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하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 12 ○미가야를 부르러 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께 좋은 것을 말하였으니, 당신도 그들 중 하나처럼 좋은 것을 말하십시오.” 하니,
- 13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이요.” 하였다.
- 14 그가 왕에게 나아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겠느냐, 아니면 그만두어야겠느냐?”

- 하니, 그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그들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였다.
- 15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번이나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말하라고 네게 맹세시켜야 하였느냐?” 하니,
- 16 그가 말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니,
- 18 미가야가 또 말하였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데,
-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피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말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말했습니다.
- 20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피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 21 그가 말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과연 반드시 이를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 22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 23 ○그때 그나아니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 24 미가야가 말하기를 “보아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 보게 될 것이다.” 하였다.
- 25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 26 전하여라.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물을 먹여라.’ 하셨다. 하였다.
- 27 미가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이여, 잘 들어 두시오.” 하였다.

#### 아합의 죽음 (왕상 22:29-36)

-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겠으니, 왕께서는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한 후, 그들이 함께 전쟁터로 갔다.
- 30 이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함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하였으므로,
- 31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 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돌아서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들을 움직여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는데
- 32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추격하기를 멈추고 돌아갔다.
- 33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를 찼다.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여라.” 하였다.
- 34 이 날의 전투가 치열하여,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 버티고 서서 저녁까지 이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 여호사밧을 꾸짖은 선견자 예후

- 19** 1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 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와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 3 그러나 왕께서는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 개혁을 단행한 여호사밧

-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백성들을 순방하고 그들을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 5 또 유다 온 땅의 견고한 성들에 재판관을 세워 성마다 배치하고,
- 6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여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니,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길 것이다.
- 7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행하여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고, 편견도 없으시

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하였다.

8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와 재판과 소송을 맡게 하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9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여라.

10 어느 성읍에 살든지 너희의 형제들 중 어떤 사람이 피 흘림이나 울법과 계명이나 규례와 법도에 관한 일로 너희에게 와서 고소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너희의 형제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11 보아라, 여호와와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주권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너희를 다스리며,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원이 될 것이다. 힘써 행하여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 것이다.”

#### 모압의 침입

20 1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모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다.

2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스돈디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하니.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다.

4 유다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유다 모든 성읍에서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5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7 우리 하나님이지여, 이 땅 주민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8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9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

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전 앞과 주님 앞에서 서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였습니

10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을 침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험락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멀리 돌아가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

11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양값을 주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들어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차지 하라고 주신 주님의 유업에서 우리를 쫓아내 려고 합니

12 우리 하나님이지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 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 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 고 있습니

13 ○어린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포함 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

14 여호와와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아히사멜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이삭 자손 맛 다나의 현손이고 여이엘의 증손이며 브나야의 손자이고 스기라의 아들이었다.

15 아히사멜이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 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 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16 내일 너희가 그들을 대항하여 내려가라. 보 아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 희가 골짜기 입구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

17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다.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의 구원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 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 여 나가라.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하실 것

18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 려 경배하였

19 그해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이 일어나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 님을 찬양하였

20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아 들로 나가니,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전디어 널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고, 21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 하는 자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다.

22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들 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 였

23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을 쳐 서 진멸하였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 들이 서로를 죽

24 ○유다 사람이 들의 땅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아라,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며 살 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

25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그 중에 물건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각각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을 만큼 탈취하였고,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 데 사흘이나 걸렸

26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므로 그 곳을 오늘날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 다.”

27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무찌르는 기쁨 을 주셨으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이 여호사밧을 앞세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

28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 예루살 렘에 와서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갔

29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 군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다.

30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안 식을 주셨으므로, 그의 왕국이 평온하였다.

#### 여호사밧의 행적 (왕상 22:41-50)

31 ○여호사밧이 삼십오 세에 유다 왕이 되어 예 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로서 이름은 아스비였다.

32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

33 다만 그가 산당들을 헐어 버리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였

34 ○보아라,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 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으며, 이스라엘 왕조실록에도 수록되

었다. 35 ○그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 히시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히시야는 사악 하게 행동하는 자였다.

36 두 왕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해 서 로 협력하여 예시온계에서 배를 만들었

37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 사밧을 향해 예언하기를 “왕께서 아히시야와 동맹을 맺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 을 부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배들 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

(왕하 8:17-24)

21 1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 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 이 되었

2 ○여호람에게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시랴와 여히엘과 스기라 와 아시랴와 미가엘과 스바다이니, 이들은 모 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3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주었고, 여호람은 만아 들이었으므로 나라를 물려주었다.

4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힌 후, 그의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장관들 중 몇몇을 칼로 죽

5 여호람이 서른두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서 팔년 동안 다스

6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가 아 합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

7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망시키는 것 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언약 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

8 ○여호람 때에 아들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 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

9 여호람이 그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출정하였는데, 그가 포위를 당하였으 나 밤에 일어나 애도 사람과 그 병거 지휘관 들을 쳤

10 이와 같이 아들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때 립나도 반역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여호람이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 렸기 때문

11 ○여호람이 또 유다의 산에 산당들을 만들어



-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 12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써 보내어 말했다. “여호와,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 13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너보다 선한 네 아버지 집의 아우들을 죽였으니,
- 14 여호와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 15 또 네가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악화되어 창자가 빠져나오기까지 할 것이다.”
- 16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 17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치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니, 막내아들 아하시야 외에는 그에게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 18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시므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었으며,
- 19 여러 날이 지나 이년 만에 그 병 때문에 그의 창자가 빠져나왔다. 그가 중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는 그 조상에게 했던 것같이 분향하지 않았다.
- 20 여호람이 서른두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팔년 동안 다스리다가 애도하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 유다 왕 아하시야의 통치

(왕하 8:25-29; 9:21-28)

- 22 1 ○예루살렘 주민이 그의 뒤를 이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을 쳐 들어온 군대가 그의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 2 아하시야가 “사십이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로서 이름은 아달라였다.
- 3 그의 어머니가 그를 피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므로 아하시야도 역시 아합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 4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

- 는 아합 집의 가르침을 받아 아합의 집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 5 아하시야가 그들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람 왕 하시엘을 대항하여 싸웠으나, 이람 사람들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 6 요람이 이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돌아왔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하러 이스르엘에 내려갔다.
- 7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갔다가 해를 당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아하시야가 문병하던 중 요람과 함께 남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러 나갔는데,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려고 기름 부은 자였다.
- 8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유다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찾아서 죽였다.
- 9 예후가 아하시야를 찾을 때 그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잡아 예후에게로 끌고 와서 그를 죽이고 장사 지내며 말하기를 “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였다. 그리하여 아하시야의 집에는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아달라의 통치 (왕하 11:1-3)

- 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안의 왕족의 씨를 모조리 죽였는데,
- 11 왕의 딸 여호사밧이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다가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야의 누이이고,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내였다.
- 12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 동안 숨어 있었으며,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다.

#### 요아스의 즉위 (왕하 11:4-16)

- 23 1 ○제 칠년에 여호아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을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한년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이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과 언약을 맺었다.
- 2 그들이 유다를 순회하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왔다.

- 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으니, 여호아다가 무리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 4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에 직무 수행을 위해 들어오는 자들의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
- 5 삼분의 일은 왕을 지키며, 삼분의 일은 기초문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전에 모여라.
- 6 제사장들과 직무 중인 레위 사람들은 거룩하므로 여호와와 전에 들어올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
- 7 레위 사람들은 손에 각자의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며, 전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 왕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그와 함께해야 한다.”
- 8 ○레위 사람과 온 유다 사람이 제사장 여호아다가 명령한 것을 모두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들 각 사람이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모두 데리고 있었는데, 이는 제사장 여호아다가 비번인 자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9 제사장 여호아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들과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고,
- 10 모든 백성들은 그 손에 각자의 무기를 들고 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전을 따라 왕을 호위하도록 배치하였다.
- 11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문서를 주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 만세.” 하고 외쳤다.
- 12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어나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전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 13 보니, 왕이 전 입구에 있는 기둥 곁에서 있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은 왕을 모시고 서 있었는데,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고, 찬양대는 악기에 맞추어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라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 14 ○제사장 여호아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령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여라.” 이는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 안에서는 저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였기 때문이다.
- 15 사람들이 아달라를 붙들어 왕궁 말 문 입구로 끌고 가 거기서 그 여자를 죽였다.

- 16 ○여호아다가 자기와 온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들로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였다.
- 17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파괴하고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 18 여호아다가 여호와 전의 관리를 세워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아래에 두었으며, 이 제사장들은 다윗이 임명한 자들로서 여호와와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즐겁게 노래하는 일을 맡았다.
- 19 또 그가 여호와와 전 문에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일든지 부정한 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20 그가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통치자들과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와 전에서 왕을 모시고 내려와서 윗문을 통과하여 왕궁에 들어가 나라의 보좌에 왕을 앉혔다.
- 21 그 후의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며, 사람들이 아달라를 칼로 죽인 후 성읍이 평온해졌다.

#### 성전을 수리한 요아스

(왕하 12:1-16)

- 24 1 ○요아스가 일곱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으로서 이름은 시비아였다.
- 2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아다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 3 여호아다가 왕에게 두 아녀를 얻게 하였더니, 그가 자녀들을 낳았다.
- 4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와 전을 개축하기로 결심하고,
- 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성읍들에 나아가서 해마다 온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서둘러 시행하여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았다.
- 6 왕이 대제사장 여호아다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중저 장막을 위해 여호와와 중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들이도록 레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하였으니,
- 7 이는 악한 여자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부치고 여호와와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 8 ○왕이 명령하자, 그들이 궤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와 전 문 밖에 두고,
- 9 하나님의 중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세금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유다와

- 예루살렘에 공포하였다.
- 10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꺼이 돈을 가져와 궤에 넣어, 궤가 가득 차게 되었다.
- 11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실관리들에게 가져가 돈이 많은 것을 확인하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감독자가 와서 그 궤를 비운 다음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날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많은 돈을 거두어들였다.
- 12 왕과 여호아다가 그 돈을 여호와와 전 공사를 맡은 책임자에게 주었으며, 그가 석공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여호와와 전을 개축하고, 쇠와 놋을 다루는 기능공들을 고용하여 여호와와 전을 보수하였다.
- 13 일을 맡은 자들이 열심히 하여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본래의 모습대로 튼튼하게 세웠다.
- 14 공사를 마친 후에 그들이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아다 앞으로 가져가, 그것으로 여호와와 전에 쓸 기구들, 곧 섬기는 일과 제사드릴 때에 쓸 그릇과 손가락과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만들었다. 그들이 여호아다가 살아 있는 동안 항상 여호와와 전에서 번제를 드렸다.
- 15 여호아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으니, 그가 죽을 때에 백삼십 세였다.
- 16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다윗 성에 왕들과 함께 장사하였다.
-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
- 17 여호아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니,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 18 그들이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겼다. 그들의 이러한 죄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 19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이 경고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 20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 스가랴를 두르시니, 그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제명을 거역하여,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니.
- 21 사람들이 그를 해치기로 공모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 전의 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 22 이처럼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아다가 자기에게 베푼 인애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갚으소서.” 하였다.

### 요아스의 최후

- 23 ○해가 바뀔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들의 지휘관들을 모두 죽이고 전리품을 모두 다마스쿠스 왕에게 보냈다.
- 24 아람 군대가 적은 수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매우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 25 ○그들이 요아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때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 26 왕에 대한 반역을 모의한 자들은 암몬 여자 시므리의 아들 사벳과 모압 여자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벳이었다.
- 27 요아스의 아들에 관한 일과 그가 크게 경고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 일들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왕위에 오른 아마사

(왕하 14:2-6)

- 25 1 ○아마사가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호단단이었다.
- 2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전심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 3 왕권이 튼튼하여지자 그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 4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또 아버지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마라. 오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였다.

### 에돔을 친 아마사 (왕하 14:7)

- 5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여 온 유다와 베냐민에 그들의 가문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이십 세 이상을 세어 보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삼십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6 또 은 백 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험센 용사 십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 7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와서 말하기를

-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8 왕께서 만일 그들과 함께 가신다면 헛된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권세도 있고, 패하게 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였다.
- 9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 10 아마사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구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분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11 아마사가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만 명을 죽였고,
- 12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의 몸이 완전히 부서졌다.
- 13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미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가운데 삼천 명을 죽이고 약탈물을 많이 취하였다.

### 아마사의 타락

- 14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분향하였다.
- 15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시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조차 구해내지 못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 16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왕의 조연자로 세웠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네가 죽으려 하느냐?” 하므로, 선지자가 그쳤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였다.

### 이스라엘과 전쟁한 아마사

(왕하 14:8-20)

- 17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한 다음 예후의 손자 여호아히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너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고 제안하였다.
-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

- 람을 보내어 말했다.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여라.’ 하였는데,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 19 네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에돔을 쳤다.’ 하며, 네 마음이 교만하여 우쭐대는구나. 이제 네 궁전이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네가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 20 ○아마사가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 21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유다에 있는 벳세메스에서 서로 맞섰으나,
- 2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다.
-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을 헐었다.
- 24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던 모든 금과 그릇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미리아로 돌아갔다.

### 아마사의 최후

- 25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십오 년을 더 살았다.
- 26 아마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 27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는데, 반역자들이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그를 죽였다.
- 28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 웃시아의 통치

(왕하 14:21-22; 15:1-7)

- 26 1 ○은 유다 백성이 열성인 살 된 웃시아를 선택하여 그 아버지 아미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 2 부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 후에, 웃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되돌렸다.



- 3 오시야가 열여섯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이름은 여골리아였다.
- 4 오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고, 그는
- 5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기라가 살아 있는 동안 오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 6 오시야가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에 성읍들을 건축하니,
- 7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 8 암몬 사람들이 오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오시야가 매우 강성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이집트 변방에까지 퍼졌다.
- 9 오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성문과 골짜기 성문과 성 굽이에 망대들을 세워 견고하게 하였고,
- 10 그가 광야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우물을 많이 판다. 쉼벨라와 평지에 가축이 많이 있었고, 산지와 갈멜에는 농부와 포도원 가꾸는 자들을 두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 11 오시야에게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가 있었으니, 이들은 서기관 여이엘과 왕의 사령관 중 하나인 하나냐의 지시를 받는 관원 마이세야가 직접 조사하여 숫자에 따라 부대를 편성해 출전하는 자들이었다.
- 12 큰 용사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의 수가 모두 이천육백 명이었고,
- 13 그 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었으니, 그들은 건장하고 강하여 전쟁에서 왕을 도와 적과 싸우는 자들이었다.
- 14 오시야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릎땀들을 준비하였으며,
- 15 또 기술자들이 고안한 장비들을 예루살렘에서 제작하여 망대와 성곽 모서리에 배치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다.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나갔다.
- 16 오시야가 강성하여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 17 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여호와와 제사장들로서 용감한 자 팔십 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 18 오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오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해 성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 19 오시야가 항로를 잡고 분향하려다 화를 내니, 그가 여호와와 전 안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 20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바라보니,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왕을 그곳에서 황급히 쫓아냈으며, 왕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으므로 급히 나갔다.
- 21 오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으니, 그가 나병 환자였으므로 여호와와 전에서 격리되어 별궁에서 살았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 22 오시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 23 오시야가 그 조상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가 나병에 걸렸다.” 하고, 왕들의 묘지에 팔린 땅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요담의 통치 (왕하 15:32-38)

- 27 1 요담이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독의 딸로서 이름은 여루사였다.
- 2 요담이 그의 아버지 오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아버지처럼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으며,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
- 3 그가 여호와와 전 윗문을 세우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하였으며,
- 4 유다 산지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 안에 요새와 망대를 세웠다.
- 5 그가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 이겼으므로, 암몬 자손이 그 해에 큰 백 달란트와 밀 만 석과 보리 만 석을 바쳤고 제 이년과 제 삼년에도 그와 같이 그에게 바쳤다.
- 6 요담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 7 요담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8 요담이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 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 9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디딤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아하스의 통치 (왕하 16:1-5)

- 28 1 오아하스가 스무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디딤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 2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바알들을 위해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고,
- 3 한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으며,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태웠고,
- 4 또 산당과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 복족 사람들을 꾸짖은 오돔
- 5 오그러므로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아하스를 치고 많은 무리를 포로로 잡아 다마스쿠스로 끌고 갔으며, 또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 6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십이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용사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 7 예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자 마아세야와 궁내대신 아시리감과 총리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 8 오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아내와 아들과 딸을 이십만 명이나 사로잡아 갔으며, 그들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탈취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 9 그곳에 여호와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오돔이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으러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는데 너희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어 그들을 죽였다.
- 10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압제하여 너희 노예로 삼으려 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느냐?
- 11 여호와와 격렬한 진노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돌려보내라.”
- 12 그때 예브라임 사람의 우두머리 중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실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래의 아들 아사사가 일어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며,

- 13 말하기를 “포로들을 이리로 끌고 오지 마라. 너희의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하려고 있다. 우리의 허물이 매우 커서 격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하였다.
- 14 이에 무장한 사람들이 포로와 전리품을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내놓았다.
- 15 위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에게 용기를 주고, 전리품 중에서 꺼낸 옷을 벗겨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겼으며,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발라 주었고, 약한 자는 모두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을 아래고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 공경에 처한 아하스

- 16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 17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 18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쉼벨라와 네게브에 있는 성읍들을 침략하여 벳세메스와 이알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주변 마을들과 디나와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다.
- 19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마음대로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죄를 지은 탓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 20 아시리아 왕 디글랴 빌레셀이 그에게 왔으니, 그를 공경에 빠뜨릴 뿐 그를 돕지 않았다.
- 21 아하스가 여호와와 전과 왕궁과 지도자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 22 오아하스 왕이 공경에 처했으나 더욱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 23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신들에게 제사하며 말하기를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 신들이 나를 돕도록 하겠다.” 하였으나,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 24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었으며, 여호와 전의 문들을 폐쇄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자기를 위해 단을 쌓았으며,
- 25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 26 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모든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

로되어 있다.  
 27 이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왕위에 오른 히스기아 (왕하 18:1-3)

- 29 1 ○히스기아가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기라의 딸로서 이름은 아비야였다.  
 2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3 ○그가 즉위한 첫째 첫달에 여호와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4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으고,  
 5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6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와 성소를 등지고,  
 7 또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으므로,  
 8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호와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여 주께서 그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9 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갔으니,  
 10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그분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결심하였다.  
 11 나의 아들들이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수종들며 분향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12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핫 자손 아마새의 아들 마합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렘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야와 요야의 아들 예덴과,  
 13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기라와 맛다냐와,  
 14 헤만과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웃시엘이었다.  
 15 그들이 그 형제들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왕

- 이 명령한 대로 들어가서 여호와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16 제사장들도 여호와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와의 전에서 발견한 더러운 것을 모두 여호와와의 전 뜰로 끌어내니,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 내버렸다.  
 17 첫째 달 첫날에 그들이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팔일에는 여호와와의 전 환관에 이르렀으며, 또 팔일 동안 여호와와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첫째 달 십육일에 끝마쳤다.  
 18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히스기아 왕에게 보고하기를 “저희들이 여호와와의 전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빵 차림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
- 다.  
 19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죄를 지을 때 내버린 모든 기구도 저희들이 정돈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보십시오, 그 기구들이 여호와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하였다.  
 20 ○히스기아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지휘관들을 모아 여호와와의 전으로 올라갔다.  
 21 그들이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고 왕이 이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을 여호와와의 제단에서 드리게 했다.  
 22 그들이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으며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23 그들이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와 그 위에 안수하고,  
 24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25 ○왕이 또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레위인들에게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여호와와의 전에 서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내리신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26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며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가지고 섰다.  
 27 히스기아가 제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여 번제가 시작되자, 여호와와의 노래와 나팔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28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

- 데 이 모든 일이 번제를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29 제사를 마치자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없드려 경배하였다.  
 30 히스기아 왕과 장관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니, 그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없드려 경배하였다.  
 31 ○히스기아가 명령하기를 “이제 너희의 몸을 여호와께 성결하게 드렸으니, 백성들아, 가까이 나아와서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하므로 회중이 제물과 감사 예물을 가져오고,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32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황소 칠십 마리, 숫양 백 마리, 어린 양 이백 마리였으며, 이것들은 모두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었고,  
 33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황소가 육백 마리, 양이 삼천 마리였으니,  
 34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길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왔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욱 성실하였기 때문이다.  
 35 또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번제에 속한 부어드는 제물이 많았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갖추어졌다.  
 36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아와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

#### 유월절 준비

- 30 1 ○히스기아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2 왕이 장관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였으니,  
 3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가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아 유월절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왕과 온 회중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으므로,  
 5 그들이 법령을 제정하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키는 일을 오랫동안 못하였기 때문이다.

- 6 파발꾼들이 왕과 지휘관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왕의 명령에 따라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께서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 남아 있는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7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같이 되지 마라.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어 주셨다.  
 8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굴복하며, 주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격렬한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9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자식들이 사로잡아 간 사람들 앞에서 공홀히 여김을 받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만약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10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들을 두루 다녀 스블론까지 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11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블론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12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왕과 지휘관들이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들이 한마음으로 따르게 하였다.

####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

- 13 ○둘째 달에 많은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매우 큰 무리를 이루었다.  
 14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모든 향단들을 제거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던지고,  
 15 둘째 달 십사 일에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와의 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다.  
 16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도대로 각각 자기 자리에 섰으며,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 손에서 받은 피를 뿌렸다.  
 17 회중 가운데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였다.



- 18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 중에서 백성의 많은 무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겼으므로, 히스기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하신 여호와시여, 용서하소서.”
- 19 누구든지 하나님, 곧 여호와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비록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용서하소서.” 하니,
- 20 여호와께서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다.
- 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하며 칠일 동안 무고절을 지켰는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을 가지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 22 히스기아가 여호와와 섬기는 일을 훌륭하게 해낸 모든 레위 사람을 격려하였다. 칠일의 절기 동안 사람들이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 23 온 회중이 칠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기뻐하며 칠일을 더 지켰다.
- 24 유다 왕 히스기아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지휘관들도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 25 유다 모든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거류민과 유다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함께 기뻐하였으므로,
- 26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 27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와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까지 닿았다.

### 성전 개혁

- 31 1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기둥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었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없앤 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로 돌아갔다.
- 2 ○히스기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되, 각자 그 직무에 따라 그들의 반열을 정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와의 장막 문에서 섬기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

- 3 왕이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정하여, 여호와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드리는 번제에 쓰게 하였다.
- 4 또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여호와와의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명령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첫 수확물을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 6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거룩한 물건의 십일조를 가져와 더미로 쌓아 두니,
- 7 삼월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칠월에 끝마쳤다.
- 8 히스기아와 지휘관들이 와서 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 9 히스기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더미들에 대하여 물자,
- 10 사독의 자손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와 전에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넉넉하게 먹고 남은 것이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11 ○히스기아가 여호와와의 전 안에 방들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그들이 방들을 마련하였다.
- 12 그들이 예물들과 십일조들과 구별된 물건들을 정직하게 가져왔으니, 이 일을 맡은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냐였고 그 다음 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다.
- 13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훔과 아사헬과 예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와 마합과 브나야가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밑에서 감독자가 되었으니, 히스기아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이들을 임명하였다.
- 14 동쪽 문지기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여호와께 드리는 일과 거룩한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 15 그의 밑에는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미란과 스가냐가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장의 성읍들에서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반열에 따라 그들의 형제에게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되,
- 16 그들의 계보에 기록된 세 살 이상 된 남자들 외에, 날마다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

- 열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고,
- 17 그 가운데로 계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으며,
- 18 또 그 계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19 아론의 자손으로서 각 성읍의 바깥 들에 사는 제사장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계보에 기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20 ○히스기아가 온 유다에 이같이 여호와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게 진실한 일을 행하였으니,
- 21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여호와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 산헤립의 침입

(왕하 18:13-37; 19:14-19; 35-37, 사 36:1-22; 37:3-38)

- 32 1 ○이러한 모든 일이 성실하게 이루어진 후였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 견고한 성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그것들을 쳐부수려 하였다.
- 2 히스기아가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려는 것을 보고,
- 3 그의 장관들과 용사들과 함께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아 버리는 것에 대해 의논하니, 그들이 왕을 도왔다.
- 4 많은 백성들이 모여 모든 샘물과 그 지역 한 가운데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으며 말하기를 “어찌 아시리아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겠느냐?” 하였다.
- 5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파손된 성벽을 모두 보수하여 땅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았으며,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과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 6 왕이 백성들 위에 전투지휘관을 세우고 그들을 자기가 있는 성문 광장에 모아 격려하며 말하기를
- 7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온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 8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니, 백성들이 유다

- 왕 히스기아의 말에 안심하였다.
- 9 ○이 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했다.
- 10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 11 히스기아가 너희를 꾀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 12 여호와와 산당들과 제단들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여라.’ 한 자가 바로 히스기아가 아니냐?
- 13 너희는 나와 내 조상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 14 내 조상이 멸망시킨 이 민족들의 모든 신 중에서 누가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 15 이제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고, 꼬임에 빠지지 말고, 그를 믿지도 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 16 ○산헤립의 신하들도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아를 더욱 비방하였다.
- 17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기를 “제상 민족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같이 히스기아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 18 산헤립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다 말로 크게 외쳐 그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읍을 점령하려 하였으니,
- 19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에게 하듯 하였다.
- 20 ○히스기아 왕이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 21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와 주권자와 장관들을 멸하시므로, 아시리아 왕이 수치스런 얼굴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

- 로 그를 죽였다.
- 22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신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출해 내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 23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니,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 병든 히스기야

(왕하 20:1-3; 12-19, 사 38:1-3; 39:1-9)

- 24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 25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 26 마음이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추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 부귀영화를 누린 히스기야

- 27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들과 방패들과 온갖 값진 그릇들을 위하여 보물 창고를 지었으며
- 2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수확물을 위한 창고들을 짓고, 온갖 짐승을 위한 외양간과 양 떼를 위한 우리도 지었다.
- 29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우 많은 재산을 주시어, 그가 성읍들을 더 세우고 많은 양 떼와 소 떼를 기르게 하셨다.
- 30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위쪽의 샘물을 막아 다윗 성 서쪽으로 곧바로 끌어들이었으니, 히스기야의 모든 일이 행통하였다.
- 31 바빌로니아의 장관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고 시험하셨다.

#### 히스기야의 최후 (왕하 20:20-21)

- 32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선행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33 히스기야가 그 조상과 함께 누이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악을 행한 므낫세 (왕하 21:1-9)

- 33 1 ○므낫세가 열두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 2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 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 3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여 섬기며,
- 4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 하신 여호와와 전에도 제단들을 쌓았으며
- 5 여호와와 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 6 한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김홍을 말하는 자와 주술사와 술객과 신점하는 자와 영매를 부렸고, 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 7 또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에도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 8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을 그 조상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 하셨다.
- 9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욱 심하였다.
- 10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 11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장관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 회개한 므낫세

- 12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 13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므낫세가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다.
- 14 ○그 후에 므낫세가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외성을 쌓아 물고기 문 어귀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오벨을 둘러싸 성벽을 매우 높이 쌓아 올렸으며, 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 15 그가 이방 신들과 여호와와의 전에 있던 우상

- 을 제거하고, 여호와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을 성 밖으로 내버렸다.
- 16 그가 여호와와의 제단을 고쳐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에 명령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니,
- 17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였으니,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 18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권면한 선전자들의 말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19 또 보아라,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장소들이 선전자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 20 므낫세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이니, 사람들이 그의 궁전에 그를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아몬의 통치

- 21 ○아몬이 스물두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년 동안 다스렸다.
- 22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 새긴 모든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그것들을 섬겼다.
- 23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죄를 지었으므로
- 24 왕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의 궁전에서 그를 죽였다.
- 25 그 땅 백성들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하 22:1-2)

- 34 1 ○요시야가 여덟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 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 3 그가 왕이 된 지 팔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십이 년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 4 사람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고, 왕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태양상들을 찍어 냈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

- 어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 5 왕이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 6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의 성읍들과 사방이 폐허가 된 납달리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며,
- 7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온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 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성전을 수리한 요시야

(왕하 22:3-20)

- 8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십팔 년째 되는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이살라의 아들 사반과 성구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야를 보냈다.
- 9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돈을 넘겨주었는데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었다.
- 10 그 돈을 여호와와의 전을 감독하는 담당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또 그것을 여호와와의 전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
- 11 그들이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돈을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용 목재와, 유다 왕들이 파괴한 건물들에 대들보를 놓기 위한 목재를 사들였다.
- 12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으니,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은 무리리 자손 중에서는 레위 사람 이히와 오바다였고, 그밖 자손 중에서는 스기랴와 무솔람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악기를 잘 다루었다.
- 13 그들이 또 집금들을 관리하고, 각종 공사의 모든 작업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사령관과 문지기가 되었다.

####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 14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 15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고 그 책을 건네주었다.
- 16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대로 말하기를 “왕께서 종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 17 또 여호와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 18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제사장



- 힐기야가 제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며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 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옷을 찢으며,
- 20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돔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기를
- 21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쭙보아라. 우리 조상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구나.”라고 하였다.
- 22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갔으니, 그 선지자는 하스라의 손자 독합의 아들 살룸의 아내였으며, 살룸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여선지자에게 그 일을 그대로 말하자,
- 23 홀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을 내게 보낸 사람에게 가서 전하시오.
- 24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제앙을 내리겠으니, 곧 그들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 25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를 분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며,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 26 이제 여러분을 보내 여호와께 여쭙게 한 유다 왕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들은 말에 대한 것이 이러하다.’
- 27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말한 그 말을 듣고 네 마음이 부르짖어지고 하나님, 곧 내 앞에 나타나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28 보아라,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 불러질 때 네 조상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할 것이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제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 29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 30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

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 31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 32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다.
- 33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대하 23:21-23)

- 35 1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니, 사람들이 첫달 십사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 2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하여 여호와와의 전에서 섬기게 하였고
- 3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어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겨라.
- 4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따라 너희 가문별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 5 너희 형제, 곧 모든 백성의 가문의 순서대로, 또 레위 족속의 순서대로 성소에 서서,
- 6 유월절 양을 잡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너희 형제들도 준비시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라.” 하였다.
- 7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해 양 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주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양 삼만 마리, 수소 삼천 마리를 왕의 재산에서 내놓았고,
- 8 그의 장관들도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으며, 하나님의 전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יה엘은 양이 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제사장들을 위해 유월절 제물로 내주었다.
- 9 또 레위 사람의 어른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리아와 느다넬과 하스비와 여יה엘과 요사밧은 양 오천 마리와 수소 오백 마리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다.
- 10 ○이와 같이 제사드릴 준비가 되니,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

- 사람들이 그들의 반열대로 섰다.
- 11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으며, 레위 사람들은 양의 가족을 베풀었다.
- 12 그들이 그 번제물을 가져와 가문의 서열에 따라 일반 백성에게 나눠 주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렇게 하였다.
- 13 그들이 법도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들은 솔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곧바로 나눠 주었다.
- 14 그 후에 그들이 자신과 제사장들의 몫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저녁까지 번제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몫을 준비하였다.
- 15 노래하는 사람들이인 아삽의 자손이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든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자리에 있었고, 문지기들도 각 문에 있었으며, 각자 자신들의 직무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 16 ○이와 같이 그 날 여호와를 섬김 일이 다 준비되어,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와 제단에 번제를 드렸으며,
- 17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칠일 동안 지켰는데,
- 18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과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 19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십팔 년째 되는 해였다.
- 요시야의 최후 (왕하 23:28-30)
- 20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기미소에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니, 요시야가 그를 대적하려 나갔다.
- 21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왕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왕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그분께서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22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돌아가지 않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 하였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므깃도 골짜기에 나가 싸울 때,

- 23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니, 왕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하게 다쳤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 하였다.
- 24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려, 왕의 다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가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조상의 묘실에 그를 장사하였으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 25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요시야를 애도하면서 노래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으니, 그 노래가 애가에 기록되어 있다.
- 26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여호와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른 그의 선행과,
- 27 그의 행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여호아하스의 통치 (왕하 23:30-35)

- 36 1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 2 여호아하스가 스물세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 동안 다스렸다.
- 3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또 그 나라에 온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바치게 했다.
- 여호아김의 통치 (왕하 23:36-24:7)
- 4 이집트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아김이라 하였으며,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 5 ○여호아김이 스물다섯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 6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 7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빌로니아로 가져가, 바빌로니아에 있는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다.
- 8 여호아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혐오스러운 일들과 그에게서 발견된 악행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아킨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여호아킨의 통치 (왕하 24:8-7)
- 9 ○여호아킨이 여덟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 10 헤가 바벨 무렵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아킨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니, 이

때 여호와와의 전의 진귀한 기구들도 함께 가져갔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 시드기야의 통치

(왕하 24:18; 25:1-12, 렬 52:1-11)

- 11 ○시드기야가 스물한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 12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 13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였으며,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 14 제사장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하신 그분의 전을 터럽혔다.
- 15 ○여호와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 16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 17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불러오

시니, 그가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남녀 청년과 노인과 백발의 노령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 18 또 갈대아 왕이 하나님의 전의 크고 작은 기구들과, 여호와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장관들의 보물을 모두 바빌로니아로 가져갔으며,
- 19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불태우고 진귀한 모든 기구들을 부수었다.
- 20 그가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때까지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 21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 22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 23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 에 스 라

### 고레스의 칙령 (대하 36:22-23)

- 1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 2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 3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다.
- 4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온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 세스바살과 백성들의 귀환

- 5 ○고레스 왕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 6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그릇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보물들로 그들을 도왔으며,
- 7 고레스 왕도 여호와와의 전의 그릇들을 꺼내 왔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의 신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 8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것들을 꺼내오고,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주니,
- 9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이며, 은 접시가 천 개이고 칼이 스물아홉 자루이며,
- 10 금 대접이 서른 개이며, 은 대접이 사백열 개이고 그 밖에 다른 그릇이 천 개였다.
- 11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모두 오천사백 개였으니, 세스바살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왔다.

### 포로에서 풀려난 자들의 명단 (느 7:4-73)

- 2 1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자들, 곧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가운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나아간 자들

은 이러하다.

- 2 이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아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야나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 3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며,
- 4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고,
- 5 아라 자손이 칠백칠십오 명이며,
- 6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 팔백십이 명이고,
- 7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며,
- 8 샷루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이고,
- 9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며,
- 10 바니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이고,
- 11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이며,
- 12 아스갓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이고,
- 13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이며,
- 14 비그왜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이고,
- 15 아난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이며,
- 16 아벨 곧 시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고,
- 17 배새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이며,
- 18 요라 자손이 백십이 명이고,
- 19 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이며,
- 20 길발 자손이 구십오 명이고,
- 21 베들레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며,
- 22 느도바 사람이 오십육 명이고,
- 23 아니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며,
- 24 야스마렛 자손이 사십이 명이고,
- 25 기라디람과 그브리와 브레웃 자손이 칠백사십삼 명이며,
- 26 라마와 게바 자손이 육백이십일 명이고,
- 27 므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며,
- 28 베델과 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 명이고,
- 29 느보 자손이 오십이 명이며,
- 30 막비스 자손이 백오십육 명이고,
- 31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며,
- 32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고,
- 33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십오 명이며,
- 34 예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고,
- 35 스나이 자손이 삼천육백삼십 명이다.
- 36 ○제사장들은 예수아 가문의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고,
- 37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며,
- 38 바스훌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고,
- 39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다.
- 40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



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며,  
 41 노래하는 자들, 곧 아삽 자손이 백이십팔 명  
 이고,  
 42 문지기 자손, 곧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  
 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  
 손이 모두 백삼십구 명이었다.  
 43 ○노디님 사람들이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  
 과 담바오 자손과,  
 44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45 르비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46 하갑 자손과 시들래 자손과 한난 자손과,  
 47 갓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48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49 옷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50 아스나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51 벱복 자손과 하브바 자손과 할를 자손과,  
 52 비발못 자손과 흐리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3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4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  
 55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벱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56 아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일 자손과,  
 57 스바다 자손과 하릴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  
 손과 이미 자손이었다.  
 58 ○노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모두 삼백구십이 명이었다.  
 59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들과 잇단과 임멜에  
 서 올라온 자들은 그 가문과 후손이 이스라  
 엘에 속하였는지 증명할 수가 없었다.  
 60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은  
 육백오십이 명이었다.  
 61 제사장들의 자손 가운데는 히바야 자손과 학  
 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  
 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므로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불리운 사람이다.  
 62 이들이 기록된 계보에서 자기들의 명단을 찾  
 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하게 여  
 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63 총독이 그들에게 우림과 돌림을 가진 제사장  
 이 일어서기 전에는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마라고 지시하였다.  
 64 ○은 회중을 합한 수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  
 이며,  
 65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  
 칠 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었다.  
 66 그들의 말은 칠백삼십육 마리이고,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이며,  
 67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이고, 나귀가 육천칠  
 백이십 마리였다.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 세우

려고 그 전을 위한 예물을 즐거이 바쳤으니,  
 69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금 육만 천 다릭  
 과 은 오천 마네와 제사장의 예복 백 벌을 공  
 사를 위한 창고에 넣었다.  
 7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  
 의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디님 사  
 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고, 모든 이스  
 라엘 사람도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

### 다시 드리기 시작한 번제

3 1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성에 있는 지 일곱  
 제 달이 되었을 때, 백성이 일제히 예루  
 살렘에 모였다.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하나  
 님의 제단을 쌓았다.  
 3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쌓았고 그 위에 아침 저녁  
 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4 그들이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정해  
 진 매일의 법도를 따라 날마다 규정된 수의  
 번제를 드렸으며,  
 5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초하  
 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여호와께 대한 자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6 칠월 초하루부터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  
 리기 시작했으나, 여호와의 성전 기초는 아  
 직 놓이지 않았다.

###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7 그들이 석공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고, 시  
 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  
 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운반해온 바닷까지 운반하게 하였다.  
 8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도  
 착한 지 이년 이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  
 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다른 형  
 제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  
 를 시작하였으며,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을 세워 여호와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으  
 니,  
 9 예수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  
 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과 함께 일  
 어나 하나님의 전에 서 일꾼들을 감독하였고,  
 헤나단 자손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  
 와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10 ○건축자들이 여호와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심벌즈를 들고 서서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  
 였는데,  
 11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로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여  
 호와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하였다. 여호와와의 전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  
 였다.  
 12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연  
 로한 족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전의 기초가 놓이자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 환호하였다.  
 13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  
 렸기 때문에, 기뻐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  
 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 성전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

4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포로로 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  
 고,  
 2 스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말하기를 “우  
 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여라. 아시리아  
 왕 애살합돈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너희처럼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  
 분께 제사하고 있다.” 하였으니,  
 3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의 상관이  
 없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  
 해 오로지 우리 자신들이 건축하겠다.” 하였  
 다.  
 4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건축을 방해하여 유  
 다 백성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였고,  
 5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관리들을 매수  
 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였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린 모든 시대와 페르시아 왕 다  
 리우스의 통치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6 ○아하수에로의 통치 초기에도 그들이 글을  
 써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  
 7 ○아닥사스다 시대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  
 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이 아람 방언으  
 로 번역되어 아람 문자로 기록되었다.  
 8 지방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새가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는데,  
 9 그때 글을 쓴 사람들은 지방장관 르흠과 서기  
 관 심새와 다른 그들의 동료, 곧 디나 사람들과  
 아비셋 사람들과 다블래 사람들과 아비새  
 사람들과 아렉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수산 사람들과 대해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과,  
 10 또 잘 알려진 귀족 오스넵발이 데리고 와서  
 그때까지 사미리아 성과 강 건너편 다른 지역  
 에 살게 한 백성들이었다.  
 11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강 건너편에 있는 왕의 신하들  
 이  
 12 왕께 보고드립니다.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을  
 일삼던 그 악한 성읍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이미 기초를 보수하고, 성벽을 완공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13 이제 왕께 보고드리니, 만일 이 성읍이 재건  
 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이 조공과 세금과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왕실에 손해를  
 끼칠 것이므로,  
 14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으면서 왕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치  
 않아 사람들을 보내어 왕께 보고드리는 것입  
 니다.  
 15 왕께서 왕의 선조들이 남긴 역사 기록들을  
 살피시면,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는 성읍이  
 었으며, 역대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다는  
 것과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서 반역이 일어났  
 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인데 이 성읍이 파괴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6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그 성벽이 완공되  
 면, 이 때문에 왕께서 강 건너편 지역을 잃게  
 될 것을 우리가 왕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17 ○그러자 왕이 회신을 보냈다. “사미리아와  
 강 건너편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지방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다른 동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18 너희가 내게 보낸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  
 고,  
 19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하니, 그 성읍이  
 오랜 옛날부터 왕들에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  
 켰으며,  
 20 힘 있는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강 건너  
 편 모든 지역을 통치하면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두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1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일을 중단시  
 키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그 성읍  
 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여라.  
 22 너희가 이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태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어찌 피해를 더하여 왕  
 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23 ○아닥사스다 왕의 서신 사본이 르흠과 서기  
 관 심새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니,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에게 가서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켰다.

24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제 이년 까지 중단되었다.

#### 다시 시작된 성전건축

5 1 ○그때에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인 선지자 스가랴가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2 그리고 스달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다.  
3 ○그때 강 건너편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재건하고 이 벽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냐?” 하고 물었으므로  
4 우리가 그들에게 이 전을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말하였으나,  
5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그 일을 다리우스에게 보고하여 회답이 오기까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닷드내의 편지

6 ○이것이 강 건너편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동료인 이바삭 사람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글의 사본이다.  
7 그들이 왕에게 보낸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리우스 왕께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8 왕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는데, 그 전이 큰 돌로 건축되며 목재가 그 벽에 입혀지고, 이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그들의 손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9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묻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벽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냐?’ 하고  
10 또 우리가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왕께 알려 드리려고 그들의 이름을 물었더니,  
11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오래 전에 건축되었던 전을 재건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완성한 것인데,  
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격노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가 이 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왔다.  
13 그 후 바빌로니아 왕 고레스의 즉위 제 일 년에 고레스 왕께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리셨고,

14 또한 고레스 왕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로니아 신전으로 가져간 하나님 전의 금은 그릇들을 바빌로니아 신전에서 꺼내어,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 이름하는 이에게 내어 주시며,  
15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본래 자리에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  
16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17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바빌로니아에 있는 왕실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시어, 과연 고레스 왕께서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왕께서 이 일에 대한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리우스 왕의 칙령

6 1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에서 귀한 보물들을 찾아 두는 서고를 조사하게 하여,  
2 메대 도에 있는 악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였으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3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의 전을 건축하여 희생 제사드리는 장소로 삼도록 하여라. 그 기초를 튼튼히 쌓되, 그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하고 그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라.  
4 큰 돌 세 겹에 새 목재 한 겹을 놓아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지불할 것이다.  
5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로니아로 가져온 하나님의 전의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자리에 다시 가져가 하나님의 전 안에 두어라.”  
6 ○“이제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의 동료 이바삭 사람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여,  
7 이 하나님 전의 공사를 막지 말며, 유다 총독과 유다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재건하게 하여라.  
8 내가 또 명령을 내려서, 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도록 너희가 유다 장로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니, 너희는 왕의 재산, 곧 강 건너편 세금 가운데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지불하여 그들이 공사를 지체하지 않게 하여라.  
9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요청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어,  
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제물을 드리고, 왕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라.  
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든지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 것이며, 그의 집은 그것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가 되게 하여라.  
12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든지 손으로 이 칙령을 변경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신속히 시행하여라.”

#### 성전 준공과 봉헌식

13 ○강 건너편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 동료들이 다리우스 왕이 보낸 칙령대로 신속히 시행하였다.  
14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순조롭게 재건하였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들어 재건하여 공사를 마쳤으니,  
15 다리우스 왕 통치 육년 이달 월 삼일에 완공되었다.  
16 ○이שראל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외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전의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17 하나님의 전의 봉헌식에서 그들이 수송아지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염소 열두 마리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렸다.  
18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그 계열대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그 반열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 유월절을 지키

19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자신들을 정결케 하였으므로 그들 모두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  
21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부정부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

나를 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제물을 먹고,  
22 칠일 동안 무교절을 기쁘게 지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는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돌아온 에스라

7 1 ○이 일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아의 아들이며 아시라의 손자이고, 할기야의 증손이며,  
2 살룸의 현손이고 사독의 오 대손이고 아히둡의 육 대손이며,  
3 아마라의 칠 대손이고 아시라의 팔 대손이며 므라못의 구 대손이고,  
4 스라하의 십 대손이며 웃시엘의 십일 대손이고 북기의 십이 대손이며,  
5 아비수아의 십삼 대손이고 비느하스의 십사 대손이며 엘리아살의 십오 대손이고 대제사장 이룬의 십육 대손이었다.  
6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시므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7 ○아닥사스다 왕 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칠년 오월이었다.  
9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로니아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10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11 ○여호와와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들을 배운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서신의 내용은 이렇다.  
12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13 내가 명령을 내리니,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14 왕의 일곱 자문관이 너를 보내니,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 의 형편을 살펴보니,  
 15 왕과 그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즐거이 바치는 은과 금을 가져가며,  
 16 내가 바빌로니아 각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더불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17 너는 이 돈으로 수송아지들과 소양들과 어린 양들과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신속히 구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전 제단 위에 바치고,  
 18 나머지 은금은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와 네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에 사용하리라.  
 19 또 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네게 준 그릇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 서 네가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왕실 보물 창고에서 가져가 드러라.  
 21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편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히 시행하여라.  
 22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빛까지, 기름은 백 빛까지 하고, 소금은 한도를 정하지 마라.  
 23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어찌 왕과 그 아들들의 나라에 진노가 내리게 하겠느냐?  
 24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누구에게든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25 ○너 에스라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이나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라.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26 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신속하게 그를 재판하여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에스라의 찬양**  
 27 ○여호와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의 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뜻을 왕의 마음에 두시고,  
 28 또 왕과 그의 자문관들과 왕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 여

호와 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시므로 내가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올라갈 지도자들을 모았다.

###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족장들

- 8 1 ○아닥사스다 왕 통치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렇다.  
 2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숨이며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이다.  
 3 스가나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라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백 오십 명이며,  
 4 바합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나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이백 명이다.  
 5 스가나 자손 가운데서는 아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삼백 명이며,  
 6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오십 명이고,  
 7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아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칠십 명이며,  
 8 스비다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팔십 명이고,  
 9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허엘의 아들 오바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이백십팔 명이며,  
 10 슬로밋의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백육십 명이고,  
 11 베배 자손 가운데서는 베배의 아들 스가라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이십팔 명이며,  
 12 아스갓 자손 가운데서는 학기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백십 명이고,  
 13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는 나중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아이니,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육십 명이며,  
 14 비그애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시벳이니,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칠십 명이다.  
**레위 사람들을 찾는 에스라**  
 15 ○내가 그들을 아히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머무르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 그곳에서 레위 자손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16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인 엘리에셀과 이리엘과 스마아와 엘라딘과 아립과 엘라딘과 나단과 스가라와 므슬람을 부르고, 또 지혜로운 자들인 요리압과 엘라딘을 불러와,  
 17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도에게 그들을 보내고, 이도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살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길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 18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이며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명철한 사람 한 명을 우리에게 데려왔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 십팔 명을 데려왔으며,  
 19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아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이십 명을 데려오고,  
 20 또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과 고관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임명한 느디님 사람이백이십 명을 데려왔으니, 그들이 모두 명단에 올라 있었다.  
**에스라의 금식과 기도**  
 21 ○그때 내가 그곳 아히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였으므로, 도중에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23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전에 바친 예물**  
 24 ○그때 내가 제사장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열두 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25 그들에게 왕과 자문관들과 고관들과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린 예물,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서 주었다.  
 26 내가 그들의 손에 달아 준 것은 은 육백오십 달란트와 은 그릇 백 달란트와 금 백 달란트와,  
 27 천 다리의 금 잔 이십 개와 아름답고 빛나서 금처럼 귀한 놋 그릇 두 개였다.  
 28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며, 그 그릇들도 거룩하다. 그 은과 금은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예물이니,  
 29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전 내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들의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주의하여 지켜라.”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 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31 ○우리가 첫째 달 십이일에 아히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므로, 길에 대복한 자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32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33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벳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34 모든 것의 개수를 세고 무게를 달았으며, 그 자리에서 전체 무게를 기록하였다.  
 35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곧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소양 아흔여섯 마리와 어린 양 일흔일곱 마리와, 속죄제의 숫염소 열두 마리와, 이 모두가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다.  
 36 그들이 왕의 칙령을 왕의 행정관들과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 전해 주니, 그들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협조하였다.

###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책망한 에스라

- 9 1 ○이 일을 마친 후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여자를 따라하고,  
 2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이 이 땅 백성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고관과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3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뜸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4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범죄 때문에 내게 모여들었고, 나는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5 저녁 곡식 제사 때에 내가 슬픔에 잠겨 일어나서 찢어진 옷과 외투를 걸친 채 무릎 꿇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말하였다.  
 6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 7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큰 허물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와 왕들과 제사장들이 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당하여 오늘처럼 되었습니다.
- 8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잘 박힌 못처럼 든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 주시고 종살이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이나마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 9 우리가 비록 종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왕폐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 10 ○우리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까지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11 주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기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은 열방 백성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역겨운 일 때문에 더러운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다.
- 12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로 데려오지 말며, 앞으로 다시는 그들의 평안이나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인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 14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남은 자나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에게 진노하시어 진멸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 15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피하여 남게 된 것이 오늘과 같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회개한 백성들

- 10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앞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백할 때 이스라엘

- 가운데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고,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 2 엘람 자손 가운데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 땅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이제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 3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교훈을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 4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당신이 맡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으니,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시행하십시오.”
- 5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였다.
- 6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거기 들어가서도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들의 범죄를 슬퍼하여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 7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포로로 잡혀갔었던 자들의 모든 자손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 8 삼일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관들과 장로들의 결의에 따라 그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들의 회중에서 추방할 것이라 하였다.
- 9 ○유다와 베나민의 모든 사람이 삼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때가 구월 이십일이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비로 인해 떨고 있었다.
-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의 허물을 더하게 하였다.
- 11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여 이 땅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에게서 갈라서라.” 하니,
- 12 온 회중이 대답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다. “웁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13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큰 비가 쏟아지는 때이므로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에 크게 잘못하였으므로 하루나 이틀에 해낼 일도 아니니,
- 14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고관들을 세우고, 우리 성읍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지정된 시간에 각각 자기 성읍 장로들과 그곳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

- 여,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 15 오직 이시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에 반대하였고, 므슬람과 레위 사람 삼브대도 그들을 지지하였다.
- 16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었던 자들의 자손은 그렇게 하였으며, 제사장 에스라가 족장 몇 사람을 그 가문에 따라 지명하여 선별하였다. 그들이 시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여,
- 17 정월 초하루까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조사를 끝마쳤다.
-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
- 18 ○제사장 자손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자들은 예수아의 자손 가운데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아림과 그달랴였는데,
- 19 그들이 손을 내밀어 자기 아내들을 보내기로 서약했고, 속죄하기 위해 양 떼 가운데서 각각 숫양 한 마리씩을 그들의 속건 제물로 드렸다.
- 20 임멜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이며,
- 21 하림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아와 엘리아와 스마아와 여히엘과 웃시아이고,
- 22 바스를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나와 마아세아와 이스미엘과 느다벨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다.
- 23 ○레위 사람 가운데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리아와 브다하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며,
- 24 노래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고,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실툼과 델렘과 우리였다.
- 25 ○이스라엘의 바르스 자손 가운데서는 라마와 잇시아와 말기아와 미아민과 엘리아셀과 말기아와 브나야이며,

- 26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맛다나와 스기라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이고,
- 27 샷두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나와 엘리아십과 맛다나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였다.
- 28 베배 자손 가운데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라이며,
- 29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므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술과 스릴과 여레못이고,
- 30 바합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잇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아와 맛다나와 브살렘과 빈누이와 므낫세였다.
- 31 하림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과 잇시아와 말기아와 스마아와 시므온과,
- 32 베나민과 말룩과 스마라이며,
- 33 하숨 자손 가운데서는 맛드내와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고,
- 34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대과 아르람과 우엘과,
- 35 브나야와 베드아와 글루히와,
- 36 와냐와 므레못과 예라십과,
- 37 맛다나와 맛드내와 야아수와,
- 38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 39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 40 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와,
- 41 아사렘과 셀레마와 스마라와,
- 42 실툼과 아미라와 요셉이고,
- 43 느보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과 맛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였다.
- 44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에는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다.



## 느헤미야의 기도

- 1 ○오가라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 이십 년 기슬르 월에 내가 도성 수선에 있었는데,
- 2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 보았다.
- 3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 5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요.
- 6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버지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 7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 8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 버릴 것이나.
- 9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 10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 11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공물을 얻게 하소서.”
-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 하였다.

## 느헤미야의 귀환

- 2 1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 나산 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

- 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 2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 3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 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 4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 5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 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 6 그때에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말씀하기를 “네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시므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 7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 8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채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들보 재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 나와 함께하므로 왕이 내게 허락 해주었다.
- 9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 주었으므로,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해 주었다.
- 10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변역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 성벽 재건의 결심

- 11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삼 일을 지내고,
- 12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에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 13 그 밤에 내가 ‘계곡 문’으로 나가서 ‘용 샘’ 앞에서 ‘거름 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

- 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 버렸다.
- 14 내가 ‘샘 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 15 그 밤에 나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계곡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니,
- 16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17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제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 18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 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 19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리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변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유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였다.

##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

- 3 1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 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또 그 문에 문짝을 달고, ‘할메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다.
-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스굴이 건축했다.
- 3 ○하스나이의 자손이 ‘물고기 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 4 그들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므세 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므슬람이 중수하고, 또 그들 다음은 바아니의 아들인 사독이 중수하였으며,
- 5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 6 ○바세이의 아들인 요아다와 브스드야의 아들인 므슬람이 ‘옛 문’을 중수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 7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다와 메로논 사람 아둔이 강 건너편 총독의 통치를 받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중수하였으며,
- 8 그 다음은 금장새 할레야의 아들 웃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료기술자 하나나가 중수하니, 그들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복구하였다.
- 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후르의 아들 르비야가 중수하였으며,
- 10 그들 다음은 히르합의 아들인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헛두스가 중수하였으며,
-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숨이 다른 부분과 ‘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할로해스의 아들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 13 ○‘계곡 문’은 하논과 사노아 주민들이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또한 그들이 ‘거름 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다.
- 14 ○‘거름 문’은 벳헨게렐 지역의 관할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 15 ○‘샘 문’은 미스바 지역의 관할자인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왕의 동산 근처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중수하고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총계까지 중수하였다.
- 16 그 뒤에는 벳솔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다윗 무덤의 건너편, 곧 인공 연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였으며,
- 17 그 뒤에는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레후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릴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하사바가 자기 지역을 대표하여 중수하였으며,
- 18 그 뒤에는 그들의 형제, 곧 그릴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헤나닷의 아들 바외가 중수하였으며,
- 19 그 뒤에는 미스바의 관할자인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성의 모퉁이 병기고로 가는 오르막길 맞은편,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으며,
- 20 그 뒤에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또 다른 부분을 부지런히 중수하였는데, 성 모퉁이에서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까지였다.
- 21 그 뒤에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까지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고,
- 22 그 뒤에는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 중수하였으며,  
 23 그 뒤에는 베냐민과 잇숨이 자신들의 집 맞은 편을 중수하였고, 그 뒤에는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신의 집 옆 부분을 중수하였으며,  
 24 그 뒤에는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였는데,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구석까지 하였다.  
 25 우새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에서부터 윗 왕궁에서 튀어나온 땅대 맞은편까지 중수하였으니, 그 땅대는 시위대 뜰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으며,  
 26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봉사자들이 동쪽 '수문' 맞은편과 튀어나온 땅대까지 중수하였고,  
 27 그 뒤에는 드고야 사람들이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는데, 튀어나온 큰 땅대 맞은편에서 오벨 성벽까지였다.  
 28 ○'말 문' 위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으며,  
 29 그 뒤에는 일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 편을 중수하였고, 그 뒤에는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으며,  
 30 그 뒤에는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실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뒤에는 베레가의 아들 모슬람이 자기 방 맞은편을 중수하였으며,  
 31 그 뒤에는 금장색 말기야가 '검열 문' 맞은편에 있는 성전 봉사자들과 상인들의 집과, 또 성 구석 누각까지 중수하였다.  
 32 성 구석 누각에서 '양 문' 사이는 금장색들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 대적들의 조롱

- 4 1 ○산발랴와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폐허 더미 속에서 불타 버린 돌들을 살려 내려 하는가?"  
 3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저들의 조롱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저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5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

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6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일했기 때문이다.

#### 대적들의 방해

- 7 ○산발랴와 도비야와 이리비야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8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10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흠터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11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12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열 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13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14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하지 말고, 크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였다.  
 15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16 그 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17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18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19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 우리가 성벽 위에 흠어져 있고,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20 너희가 나팔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 오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21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22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라고 하였다.  
 23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웃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 백성 가운데 일어난 원망

- 5 1 ○그때에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2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3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읍시다." 하며,  
 4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5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 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니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7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을 열여섯 그들을 책망하여,  
 8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9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0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빛의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11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

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13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기를 "이 말을 행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터에서 털어 버리실 것이니,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하니, 온 회중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 녹을 받지 않는 총독 누헤미야

- 14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부터 삼십이 년까지 십이 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15 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여 그들에게서 온 사십 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들였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16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부하들도 거기에 모여 그 일을 하였다.  
 17 내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백오십 명과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18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선별된 양 여섯 마리와 날짐승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19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 대적들의 모략

- 6 1 ○한편 산발랴와 도비야와 이리비야 사람 게셀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 두지 않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2 산발랴와 게셀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니,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3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일을 남겨 두고 너희에게로



-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 4 그들은 네 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 5 산발랏이 다섯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 6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 7 또 네가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라고 말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 이제 이 소문들이 왕에게 들릴 것이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 8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네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 9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 10 그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이자 들리아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 집이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울 것인데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려 올 것입니다.” 하였다.
- 11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 12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다.
- 13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들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 14 “내 하나님이지요,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 성벽의 완공**
- 15 ○성벽이 오십이 일 만인 열월 월 이십오 일에 완공되니,
- 16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 17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답하였으니,
- 18 이는 도비아와 아리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한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19 그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하였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일러주었으므로,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위협하였다.

### 책임자들을 세움

- 7 1 ○성벽이 완공되고 내가 문짝을 단 후에,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
- 2 나는 내 형제 하니나와 성채 지휘관 하니나에게 예루살렘을 관찰하도록 명명하였으니, 이는 하니나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3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로 보초를 세우되, 일부는 자기 초소에서 또 일부는 자기 집 앞에서 하여라.” 하였다.

### 백성들의 목록 (스 2:1-70)

- 4 그 성읍은 크고 넓었으나 그 안에 사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고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다.
- 5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므로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에 등록하게 하였다. 또 내가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명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 6 ○바비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 해방되어 각자 자기 성읍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된 자들,
- 7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야사랴와 라이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와와 느후과 바이나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다음과 같다.
- 8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며,
- 9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고,
- 10 아라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이며,
- 11 예수아와 요압 자손에 속한 바합모압 자손이 이천팔백십팔 명이고,
- 12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며,
- 13 샤투 자손이 팔백사십오 명이고,
- 14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며,
- 15 빈누이 자손이 육백사십팔 명이고,
- 16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팔 명이며,
- 17 아스갓 자손이 이천삼백이십이 명이고,

- 18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칠 명이며,
- 19 비그와 자손이 이천육십칠 명이고,
- 20 아딘 자손이 육백오십오 명이며,
- 21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고,
- 22 하숨 자손이 삼백이십팔 명이며,
- 23 배새 자손이 삼백이십사 명이고,
- 24 하림 자손이 백십이 명이며,
- 25 기브온 자손이 구십오 명이고,
- 26 베들레헬과 느도바 사람이 백팔십팔 명이며,
- 27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고,
- 28 베다스마셋 사람이 사십이 명이며,
- 29 기타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이고,
- 30 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이십일 명이며,
- 31 리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고,
- 32 베멜과 아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며,
- 33 다른 느브 사람이 오십이 명이고,
- 34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며,
- 35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고,
- 36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며,
- 37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십일 명이고,
- 38 스나아 자손이 삼천구백삼십 명이었다.
-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
- 39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며,
- 40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고,
- 41 바스흠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며,
- 42 하림 자손이 천칠십 명이었다.
- 43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며,
- 44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백사십팔 명이었다.
- 45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이멜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백사십팔 명이었다.
- 46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비우 자손과,
- 47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 48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 49 한난 자손과 갓셀 자손과 가할 자손과,
- 50 리아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 51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 52 배새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 53 박목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흠 자손과,
- 54 바슬릿 자손과 므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 55 바르코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 56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
- 57 ○솔로몬을 섬겼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

- 과 소배렐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 58 아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셀 자손과,
- 59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비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었다.
- 60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을 섬겼던 종들의 자손은 삼백구십이 명이었다.
- 61 ○이 밖에 사람들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들과 잇독과 임멜에서 돌아왔으나, 자기의 가계나 자기의 종족은 물론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 62 그들은 들리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 육백사십이 명이었다.
- 63 제사장들 중에서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있었으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그 집안 이름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 64 이들은 자기 기록을 계보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직에서 제외하고,
- 65 종족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

### 백성의 계수

- 66 ○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며,
- 67 그 밖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었으며,
- 68 말 칠백삼십육 마리와 노새 이백사십오 마리와,
- 69 낙타 사백삼십오 마리와 나귀 육천칠백이십 마리가 있었다.
- 70 ○족장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공사를 위해 기금을 바쳤고, 종족은 기금으로 금 천 다릭과 대접 오십 개와 제사장 예복 오백삼십 벌을 드렸고,
- 71 어떤 족장들은 공사 기금으로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이백 마네를 드렸으며,
- 72 나머지 백성들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 예복 육십칠 벌을 드렸다.
- 73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 일부와 <sup>73</sup>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살게 되었다.

### 율법을 가르침

- 8 1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를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 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

\*) 혹은 ‘성전 봉사자’로도 번역할 수 있다.

- 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 2 제사장 에스라가 칠월 일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아와,
- 3 '수문' 앞 광장에서 종들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 4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입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옆 오른쪽에는 맛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이세아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기라와 므술람이 섰다.
- 5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 6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이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한난과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 채로 있었다.
- 8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 9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올었다. 이에 총독인 2혜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 10 2혜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 12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 초막절을 지킴

- 13 7월째 날에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자

-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 14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칠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 15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돌올리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총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 16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 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 17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 날까지 같이가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 18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팔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 삼희의 예배

- 9 10 그 달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흠뻑지를 뒤집어엎으며,
- 2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 3 그 날의 사분의 일 동안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사분의 일 동안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 4 그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레위 사람이 서는 단 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삼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가 외쳤다.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 회개의 기도

- 6 오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천체가 주께 경배합니다.
- 7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였고,
- 8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

- 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그와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 9 오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 10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업신여긴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며, 주께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 11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였고, 돌을 거친 물 속에 던진 것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셨고,
- 12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주셨습니다.
- 13 주께서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들에게 올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례와 계명을 주셨으며,
- 14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 15 주께서는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6 오그들, 곧 우리 조상이 교만하게 행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
- 17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목을 굳게 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 반역하여, 그들이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시며, 그러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 18 또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말하며 주님을 크게 모독할 때에도,
- 19 주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어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길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 20 주께서는 또 주님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 가르치셨고, 주님의 만민을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
- 21 이같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그들의 옷은 해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짖지 않았습니.
- 22 오주께서는 그들에게 왕국들과 백성들을 주시되 변방까지 나누어주셨으므로, 그들이 시혼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 23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므로,
- 24 그들의 자손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
- 25 주께서 그 땅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또 그들의 왕들과 그 땅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셨으므로,
- 26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였고,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많은 과일 나무들을 차지하였으니,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주님의 크신 복으로 기뻐하였습니.
- 27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으며, 주님의 율법을 그들의 뒤로 던져버렸고, 자기들을 주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므로,
- 28 주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 29 그들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셨고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 30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여 주님의 계명들에 순종치 않았고, 주께서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님의 법도를 주셨으나 그들은 죄를 지었으며, 완고하게 등을 돌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
- 31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땅 백성의 손에



- 넘겨주셨습니다.
-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공화로 인해 그들을 멸하지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공화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 32 ○우리 하나님이지요, 크고 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지요,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당한 온갖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작게 여기지 마소서.
- 33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참으로 신실히 행하셨으나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34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들과 주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증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 35 자신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 36 보소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 37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바쳐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 우리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 38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 율법을 지킨다는 맹세

- 10 1 ○그것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 3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 4 핫두스, 스바냐, 말록,
- 5 하림, 므레못, 오바다,
-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 8 마이시아, 빌개, 스마아이니,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 9 레위인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 갓미엘이며,
- 10 그들의 형제는 스바냐, 호디아, 그리다, 블라

- 야, 하난,
- 11 미가, 르홀, 하사바,
- 12 삭굴, 세레바, 스바냐,
- 13 호디아, 바니, 브니누이다.
- 14 백성의 우두머리로는 바로스, 바합모압, 엘람, 샷두, 바니,
- 15 본니, 아스갓, 베배,
- 16 아도니아, 비그왜, 아딘,
- 17 아델, 히스기야, 잇술,
- 18 호디아, 하숨, 베새,
- 19 하림, 아나돗, 노배,
- 20 막비야스, 므술람, 헤실,
- 21 므세시벨, 사독, 앗두아,
- 22 블라다, 하난, 아나야,
- 23 호세아, 하나냐, 핫숨,
- 24 할르헤스, 빌하, 소벡,
- 25 르홀, 하삼나, 마이세야,
- 26 아히야, 하난, 아난,
- 27 말록, 하림, 바나니아이다.
- 28 ○그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과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
- 29 그 형제 귀인들과 연합하여 저주로 맹세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여호와와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 30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 31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칠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밭을 탐감하겠습시다."
- 32 ○또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우리에게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내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 봉사를 위해 쓰게 하였으니,
- 33 차려 놓는 빵과 정규적인 곡식제와 정규적인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에 쓸 성물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온갖 일을 위한 것이며,
- 34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우리 조상들의 가문별로 매년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 장작을 바치게 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고,
- 35 우리 토지에서 나는 첫 소산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의 첫 열매를 매년 여호와와 성

- 전에 가져오며,
- 36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만아들과 가족들의 첫 새끼, 곧 소 떼와 양 떼의 첫 새끼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 37 우리는 처음 익은 밀가루와 들어 바치는 제물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 성전의 창고 방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의 십일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십일조를 받게 하였다.
-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 아론의 아들 제사장 하나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십일조의 십 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성전의 골방 곧 창고에 둘 것이니,
-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거룩한 기물들이 있는 창고 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 11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열 명 중 한 명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아홉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 2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여 결심한 모든 사람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 3 ○예루살렘에 사는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유다 성읍에 있는 자신들의 소유지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다.
- 4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일 부도 살았다.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웃시아이며 그 윗대는 스기랴이고, 그 윗대는 아미랴이며, 그 윗대는 스바다이고, 그 윗대는 마할발엘이니, 베레스의 자손이다.
- 5 또 마이세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바룩이며 그 윗대는 골호세이고, 그 윗대는 하사야이며 그 윗대는 아다야이고, 그 윗대는 요이림이며 그 윗대는 스기랴이니, 실로 사람의 자손이다.
- 6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의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 7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살루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므술람이며 그 윗대는 요엘이고, 그 윗대는 브다야이며 그 윗대는 골라야이고, 그 윗대는 마아세야이며 그 윗대는 이디엘이고,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 8 그의 형제들로는 갑배와 살래가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구백이십팔 명이였다.
- 9 시므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었으며, 핫스누이의 아들 유다는 그 성읍을 다스리는 이인이였다.
- 10 ○제사장 중에서는 요이림의 아들 여다야와 아근과,
- 11 "스라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힐기야이며 그 윗대는 므술람이고, 그 윗대는 사독이며 그 윗대는 므르웃이고,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 책임자였던 이히들이다.
- 12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그들의 형제들은 팔백이십이 명이였다. 그리고 아다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여로함이며 그 윗대는 블라야이고, 그 윗대는 암시이며 그 윗대는 스기랴이고, 그 윗대는 바스홀이며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 13 가문의 우두머리인 그의 형제들은 이백사십이 명이였다. 또 이만셋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아사렐이며 그 윗대는 아흐새이고, 그 윗대는 므스레못이며 그 윗대는 임멜이다.
- 14 용사들이 그 형제들은 백이십팔 명이였다. 그들의 감독은 하그돌림의 아들 삼디엘이였다.
- 15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스마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핫숨이며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고 그 윗대는 하사바이며 그 윗대는 분니이다.
- 16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중에서 삼브대와 요사벳은 하나님 성전의 바깥일을 돌아보았고,
- 17 맛단나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미기야며 그 윗대는 삼디이고 그 윗대는 아삽이며 기도할 때 찬송을 인도하는 지휘자였다. 그리고 박부가 있었으니, 그의 형제들 중에서 두 번째 위치이고, 또 알다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삼무아이며 그 윗대는 갈랄이고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 18 거룩한 성읍에 살던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이백 팔십사 명이였다.
- 19 ○문지기로는 악굽과 달몬과 성문을 지키던 그의 형제들이 있었으니, 모두 백칠십이 명이였다.
- 20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성읍들에서 살았다.
- 21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살았으며, 시하와 기

가) 대상 9:1에는 '하사랴'로 되어 있다.

- 스바가 그들을 관할했다.
- 22 ○예루살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웃 시였으니, 그 율대는 바니이며 그 율대는 하사 바이고 그 율대는 맛다나이며 그 율대는 미가 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후손이다.
- 23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할 일을 정하여 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
- 24 유다의 아들 세라 자손인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하이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다 스켰다.

#### 유다 성읍들에 정착한 사람들

- 25 ○그들의 밭들과 촌락에 관한 내용이다. 유다 자손 중 일부가 기랴티바와 그것에 속한 동네들과 디분과 그것에 속한 동네들과 또 여갑스엘과 그것에 속한 촌락들에서 살았다.
- 26 또 그들이 살았던 곳은 예수아와 물라다와 벳벨렛과,
-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에 속한 동네들과,
- 28 시글락과 므그나와 그에 속한 동네들과,
- 29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 30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에 속한 동네들과, 라기스와 그에 속한 들판들과, 아세가와 그에 속한 동네들이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한놈 골짜기까지 정착해 살았다.
- 31 베냐민 자손은 게바로부터 므마스아와 아아와 베델과 그에 속한 동네들과,
- 32 아나돗과 놉과 아나나와,
- 33 하술과 라마와 깃다임과,
- 34 하딛과 스보임과 드발랏과,
- 35 로드와 오노와 그리고 대장장이 골짜기에서 살았다.
-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중 일부는 베냐민 지역에 살았다.

####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

- 12 1 ○소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리하다. 곧 스리아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 2 아마라와 말룩과 핫두스와,
- 3 스가냐와 르훔과 드레뭇과,
- 4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 5 미아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 6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 7 실루와 아묵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들은 예수아 당시 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다.
- 8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나이니, 그와 그 형제들은 찬양을 맡았다.
- 9 박부가와 운노와 그들의 형제들은 직무를 행

- 할 때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
- 10 한편,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았으며, 엘리아십은 요아다를 낳고
- 11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았으며, 요나단은 잇두아를 낳았다.
- 12 ○요아김 시대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은 스리아 가문에는 므라야이고, 예레미야 가문에는 하냐이며,
- 13 에스라 가문에는 므슬람이고, 아마라 가문에는 여호한이며,
- 14 말루기 가문에는 요나단이고, 스바냐 가문에는 요셉이며,
- 15 하림 가문에는 아드나이고, 므라뭇 가문에는 헬개며,
- 16 잇도 가문에는 스가리야이고, 긴느돈 가문에는 므슬람이며,
- 17 아비아 가문에는 시그리야이고, 미나민과 모아다 가문에는 빌대며,
- 18 빌가 가문에는 삼무야이고, 스마야 가문에는 여호나단이며,
- 19 요아립 가문에는 맛드내이고, 여다야 가문에는 웃시이며,
- 20 살레 가문에는 갈래이고, 아묵 가문에는 에벨이며,
- 21 힐기야 가문에는 하사바이고, 여다야 가문에는 느다벨이다.
- 22 ○엘리아십과 요아다와 요한과 잇두아 시대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통치 때까지의 제사장들이 책에 기록되었다.
- 23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년의 때까지 역대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24 레위 사람의 어른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하였고, 그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라 차례대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으며,
- 25 맛다나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므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문지기들로서 창고 문들에서 경비를 섰다.
- 26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이며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 당시의 레위 사람들이었다.

#### 예루살렘 성벽 준공

- 27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찬양과 노래,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으로 봉헌식을 거행했다.
- 28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지방 주변과 느도바 사람들의 촌락들과,
- 29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뭇에서 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

- 살렘 주변에 자기들을 위한 촌락들을 지었기 때문이다.
-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 31 ○이에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 문'을 향해 성벽 위로 행진하게 하였고,
- 32 그들 뒤로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따라가며,
- 33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슬람과,
- 34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 35 또 제사장 자손 중 스가랴가 나팔을 들고 따랐는데, 그 율대는 요나단이며 그 율대는 스마야이고, 그 율대는 맛다나이며 그 율대는 미가야이고, 그 율대는 식굴이며 그 율대는 아삽이다.
- 36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 느다벨과 유다와 하나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따랐으며,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섰다.
- 37 그들은 '썸 문'에서 곧바로 다윗 성읍의 계단과 성벽으로 향한 층계 위로 올라가서, 다윗 궁전 위로부터 동쪽의 '수 문'까지 행진했다.
- 38 ○두 번째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했으며, 나와 백성의 절반은 그들을 따라서 성벽 위로 행하여 '폴무 땅대'를 거쳐 '넓은 성벽'까지 이르렀다.
- 39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고,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땅대'와 '함메아 땅대'를 거쳐, '양 문'까지 행진하여 '경비대 문'에 멈춰 섰다.
- 40 그리하여 두 찬양대는 하나님 전에 섰고, 나와 또 나와 함께 있던 백성의 관리들의 절반과,
- 41 제사장, 곧 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예로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니는 나팔을 들었고,
- 42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웃시와 여호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도 함께 섰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하였는데, 에스라 하이가 지휘하였다.
- 43 그 날 그들이 큰 희생을 드리며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으므로, 아내들과 자녀들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 헌물에 대한 규례

- 44 ○그 날에 들어 바치는 제물과 첫 열매와 십일조를 두는 창고 방들을 관장할 남자들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한 몫을 여러 성읍들의 밭에서

- 모으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 45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의식을 수행했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니,
- 46 옛적에 다윗과 아삽 시대에도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하였다.
- 47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매일 필요한 몫을 공급하였고,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으며,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에서 성별한 것을 이룬 자손에게 주었다.

#### 느헤미야의 개혁

- 13 1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백성들의 귀에 읽어 주었는데, 그 책에서 읽은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 2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뺏고 물로 맞아 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다.
- 3 그들이 읍미를 듣고, 섞인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다.
- 4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방들을 관리하고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 5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마련해주었으니, 그 방이 이전에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위한 곡식제물과 향품과 기물들과 곡식의 십일조와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을 위한 헌물을 넣어 두는 곳이었
- 6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없었는데 이는 내가 바빌로니아 왕 이닥사스다 삼십이 년에 왕에게로 갔다가 얼마 후에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 7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 성전 뜰 안에 방을 마련하여 준 악한 일을 내가 알았으므로,
- 8 내가 그 일 때문에 매우 노하여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 버리고,
- 9 또 내가 명하여 그 방들을 정결케 하였으며, 거기에 다시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과 곡식제물과 향품을 갖다 놓았다.
- 10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몫을 받지 못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11 내가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창고 방에 갖다 놓았다.

13 나는 제사장 셀레미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브다아를 창고 관리자로 임명하고, 또 맛다냐의 손자이며 석공의 아들인 한안이 그들을 돌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그들의 업무였고 또 그들의 진실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14 “내 하나님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 버리지 마소서.”

### 안식일 규정

15 ○그 당시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 단을 나귀에 지워 나르고, 심지어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식물을 팔기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16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생선과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성 안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고 있었으므로,

17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않으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어기어 이스라엘에 임할 큰 진노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 하였다.

19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예루살렘 성문에 어둠이 깃들 때, 내가 명령하기를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결코 문들을 열지 마라.” 하고, 내 부하들 중에서 몇을 성문들에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였다.

20 이에 상인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 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잠을 자므로,

21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나? 만일 너희가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잡아들이겠다.” 하니, 그 이후로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22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엄히 일렀다. “내 하나님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크신 인애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3 ○내가 그 당시에 아스돗과 임몬과 모압 여자와 결혼한 유다 사람들을 보니,

24 그들의 자식들이 절반쯤은 아스돗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할 줄 모르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25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였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마라.”

26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그가 자기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자들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다.

27 그런데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려와서 큰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만 있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들 중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를 내게서 쫓아 버렸다.

29 “내 하나님이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더럽힌 자들을 기억하소서.”

30 ○내가 이같이 모든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 각각 자기 일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31 또 정한 시기에 나무와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다.

○“내 하나님이지요,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 에스더

### 잔치를 배설한 아hashue로 왕

1 10이 일은 아hashue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hashue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백이십칠 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2 그때에 아hashue로 왕이 도성인 수산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3 그가 다스린 지 삼 년째 되는 해에 왕이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고관들이 그 앞에 모였다.

4 그가 여러 날, 곧 무려 백팔십 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의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5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도성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에서 이레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6 거기에는 흰색과 초록색과 푸른색 휘장이 자주색 가는 베실에 매여 대리석 기둥의 은 고리에 걸려 있었고, 화반석과 대리석과 진주석과 흑석이 깔린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7 왕이 술을 풍성히 내리고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 술잔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8 마시는 것도 규례를 따랐으며 억지로 하지는 않게 하였으니, 이는 왕이 궁전의 모든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자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9 와스디 왕후도 아hashue로 왕의 궁에서 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 폐위된 왕후 와스디

10 ○일곱째 되는 날에 아hashue로 왕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 곁에서 시종드는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빅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등 일곱 내시에게 명령하여,

11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빼어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와스디 왕후가 내시가 전한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왕이 매우 진노하였고, 분노가 그 속에서 불붙듯 하였

13 ○왕이 관습에 정통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 보았으니, 이는 왕이 규례와 법률에 밝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14 왕의 측근으로는 일곱 고위 관리인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라의 최고 직위에서 왕과 대면하여 일하는 자들이었다.

15 “와스디 왕후가 내시를 통해 전달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16 므무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가 왕께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관들과 아hashue로 왕의 모든 도의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17 왕후의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와스디 왕후는 아hashue로 왕이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어도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18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을 들은 오늘 당장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므로, 업신여김과 분노가 겹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9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20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전역에 공포되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21 왕과 고관들이 므무간의 말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이 그 말대로 시행하였다.

22 왕은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각각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모든 남편이 자신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다.

### 왕후로 선택된 에스더

2 10이 일들 후에 아hashue로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왕은 와스디와 그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였다.

2 이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말하였다. “왕을 위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3 그리고 왕께서는 왕궁 온 도에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성 수산의 여자들을 위한 궁으로 모아들이게 하고, 궁녀를 주관하는 왕의 내시 해개의

- 관리 하에 두어, 그 여자들의 몸을 단장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 4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십시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다.
- 5 도성 수산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개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아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 6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함께 사로잡아 올 때, 그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었다.
- 7 그가 삼촌의 딸인 히닷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으니, 이는 그 여자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개가 그 여자를 자신의 딸로 삼았다.
- 8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여들어 해개의 관리 하에 들어갔으며,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와서 궁녀들을 담당하는 해개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 9 에스더가 해개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서 호의를 얻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에게 몸을 단장하는 물품들과 일용품들을 신속히 주었으며, 왕궁에서 시녀 일곱을 뽑아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였고, 또한 에스더와 그 시녀들을 여자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 10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마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 11 모르드개는 날마다 여자들의 궁 뜰 앞을 오가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피고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 12 ○처녀들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될 때까지 궁녀들의 규례에 따라 열두 달을 시내내, 여섯 달은 물과 기름으로, 여섯 달은 향품과 여성용 물품을 사용하여 몸을 가꾸면서 몸단장의 기한을 채우고,
- 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어 여자들의 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 14 저녁에 들어간 처녀는 아침에 여자들의 다른 궁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담당하는 왕의 내시 시아스가스의 관리 하에 들어갔으며, 왕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
- 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히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는 궁녀를 담당하는 왕의 내시 해개가 지칭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16 아하수어로 왕이 다스린 지 칠년 째의 시월, 곧 네뱃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아하수어로 왕에게 이끌려 나가니,

17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고, 그 여자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으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더 얻었으므로 왕이 그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삼았다.

18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모든 대신과 신하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각 도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선물물을 주었다.

####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개

19 ○처녀들을 다시 보았을 때 모르드개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다.

20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양육받을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개가 일러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지 않았다.

21 모르드개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던 당시에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비다냐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 하였는데,

22 그 일이 모르드개에게 알려지자,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해주었다.

23 사실을 조사하여 진상이 밝혀졌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고, 이 일은 왕 앞에서 실록에 기록되었다.

####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는 하만

3 1 ○이 일들 후에 아하수어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으므로,

2 왕궁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3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권하였으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개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았으니, 이는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5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6 모르드개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개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어로의 온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개의 백성을 전멸시키려 하였다.

7 ○아하수어로 왕 제 십이 년 일월, 곧 니산 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어느 날, 어느 달에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으니, 십이월, 곧 이달 월이었다.

8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나라 각 도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9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만 달란트를 담당자들의 손에 건네주어 왕의 보물창고에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0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11 말하기를 “그 은을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너에게 주겠으니, 너 보기에 좋을 대로 시행하여라.” 하였다.

12 ○정월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왕의 대신들과 각 도의 총독과 각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기록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기록한 다음, 아하수어로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쳤다.

13 그 조서를 전령관으로 왕의 모든 도에 보내어, 십이월, 곧 이달 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 모든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이와 여자를 몰살하고 살육하고 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였는데,

14 모든 도에 전달할 칙령을 기록한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 날을 위해 대비하게 하였다.

15 전령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신속히 나갔고, 그 칙령이 도성인 수산에도 전달되었으니,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으나 수산 성은 술렁거렸다.

#### 에스더와 모르드개

4 1 ○모르드개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을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2 그는 왕궁 문 앞까지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각 도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4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개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5 에스더가 자기 앞에서 시중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으므로,

6 하닥이 왕궁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나아갔다.

7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전멸할 때 왕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의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8 또 유다 사람을 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9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개의 말을 전하니,

10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개에게 말을 전하기를

11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나에게 금 홀을 내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삼십 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12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니,

13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회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4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농림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 에스더의 중재 역할

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다시 대답해 말하기를

16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



면 죽겠습니다.” 하니,  
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요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였다.

### 목숨을 걸고 왕에게로 나아간 에스더

- 5 1 O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안뜰에 섰는데, 왕은 왕궁에서 궁의 대문을 마주 보고 왕좌에 앉아 있었다.
- 2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으므로, 왕이 그의 손에 든 금 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다가가서 금 홀의 끝을 만졌다.
- 3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여,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나?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 4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 5 이에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였다.
- 6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나?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나?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 7 에스더가 대답했다. “저의 간청과 소원은 이렇습니다.
- 8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그리고 왕께서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마련하는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내일은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9 O 그 날 하만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왕궁 문에 있는 모르드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모르드개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다.
- 10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돌아가 사람을 보내어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오라 하고,
- 11 그들에게 자기의 풍부한 재물과 많은 자식과 왕이 자기를 들어 고관과 왕의 신하들 위로 하여 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 12 또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께서 친히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라고 초대받은 사람에 나 외에 없고, 내일도 나는 왕과 함께 왕후에게 초대받았으니,
- 13 내가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왕궁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은 이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였다.
- 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

하기를 “높이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께 모르드개를 그 위에 매달도록 청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게 하였다.

### 존귀하게 된 모르드개

- 6 1 O 그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실록을 가져오게 명하여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는데,
- 2 왕의 내시이자 문지기인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hashue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하고,
- 3 “이 일 때문에 모르드개에게 무슨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고 물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 4 왕이 묻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였는데,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와있었으니, 그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를 매달기를 왕에게 청하려 함이었다.
- 5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만이 뜰에 대령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여라.” 하여,
- 6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다. 하만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왕이 나 외에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고,
- 7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 8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
-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대신들 중 한 사람에게 맡겨,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게 하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게 하십시오.”
- 10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와 왕궁 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하였다.
- 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였다.
- 12 O 모르드개는 왕궁 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비통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었다.

- 13 하만이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전하니, 그 중의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드개가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 14 O 그들이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배운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다.

### 모함한 하만의 몰락

- 7 1 O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후와 함께 잔치에 나아갔다.
- 2 왕이 둘째 날 술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나?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나?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의 간청대로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의 소원대로 저의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 4 참으로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음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만 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5 아hashue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대체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던 자는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하니,
- 6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7 O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 뜰로 나갔으며, 하만은 일어서서 에스더 왕후에게 자기를 살려 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왕이 내릴 화가 자기에게 이른 줄 알았기 때문이다.
- 8 왕이 궁전 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올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 있는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저가 궁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도 겁탈하려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 9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였다.

- 10 하만이 모르드개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더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 유다 사람들을 위한 왕의 새 조서

- 8 1 O 그 날 아hashue로 왕이 유다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아왔다.
- 2 왕이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 3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말하기를 “각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음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간청하였고,
- 4 이에 왕이 금 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서 서서,
- 5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각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음계를 꾸며 쓴 문서를 반복하는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 6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 7 아hashue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말했다. “보아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기에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
- 8 그대들도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봉한 조서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 9 O 삼월, 곧 시한 월 이십삼 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명령한 모든 것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백이십 칠개의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의지도자들에게 보내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었다.
- 10 모르드개가 아hashue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다음 말 탄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들은 왕궁에서 기른 왕실용 준마를 타는 자들이었다.
- 11 왕은 그 조서에서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

- 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각 도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 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십이 월, 곧 아달 월 십삼일 하루 동안 진행하게 하였으며,
- 13 각 도에 발송할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에게 반포하여, 유다 사람들이 그 날을 대비하였다가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였다.
- 14 전령들이 왕실용 준마를 타고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나갔고, 그 칙령은 수산 궁에도 반포되었다.
- 15 오모르드개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도성인 수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고,
- 16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 17 왕의 명령과 칙령이 도달한 각 도와 각 성읍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 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 부림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

- 9 1 ○십이월, 곧 아달 월 십삼일, 왕의 명령과 칙령을 시행할 날이 임박하였다. 그 날은 유다 사람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바빴던 날이었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
- 2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도에 있는 그들의 성읍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였는데, 모든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
- 3 각 도의 모든 고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들을 후원하였으며,
- 4 모르드개의 세력이 갈수록 커졌으므로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실권자가 되었고 그의 명성이 모든 도에 퍼져나갔다.
- 5 유다 사람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죽여 진멸하되,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고,
- 6 도성 수산에서도 오백 명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 7 또한 바산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 8 보라다와 아탈리아와 아리다다와,
- 9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 10 곧 유다 사람의 대적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열 아들들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 11 ○그 날 도성 수산에서 살해당한 자들의 숫자가 왕 앞에 보고되었다.
- 12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으니, 왕의 나머지 도에서는 그들이 어떠한가? 그대의 남은 청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대의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루어주겠다.” 하니,
- 13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오늘의 칙령대로 시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 14 왕이 그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하니, 수산에 칙령이 내려졌고, 그들이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매달았다.
- 15 아달 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모여 수산에서만 삼백 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 16 ○왕의 다른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미워하는 칠만 오천 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 17 이 일이 아달 월 십삼일에 있었고, 그 달 십사일에는 안식하며 그 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으며,
- 18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 달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그 달 십오일에는 안식하며 그 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 19 한편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 월 십사일을 기쁨과 잔치와 경축일로 삼아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
- 20 ○모르드개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원군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글을 보내어,
- 21 그들이 해마다 아달 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도록 확정하였는데,
- 22 이 날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애통의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 날이므로, 그들이 이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게 했다.
- 23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글로 써 준 대로 계속 시행하였으니,
- 24 이는 모든 유다 사람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진멸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부르 즉 제비를 뽑아 그들

- 을 죽이고 진멸하려 하였으나,
- 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써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 사람에게 꾸민 악랄한 흉계가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여, 그와 그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하였기 때문이다.
- 26 그리하여 그들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날들을 부림이라 불렀다. 이 글의 모든 일은 유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 겪은 일이므로,
- 27 유다 사람과 그 후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자가 해마다 그 기록한 대로 그들이 정한 때를 따라 이 두 날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으며,
- 28 이 날들은 온 족속과 각 도와 각 성읍에서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게 하였으므로 이 부림절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중단되지 않았고 그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 29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모든 권한을 갖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 부림절을 확정하였으니,
- 30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국의 백이십칠 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보내어,

- 31 유다 사람 모르드개와 에스더 왕후가 그들에게 확정해 준 대로, 또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과 자기 후손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기로 정한 대로 그 정한 때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다.
- 32 에스더의 명령에 의해 부림절에 관한 것들이 확정되었으며, 그것이 책에 기록되었다.

#### 명성을 얻은 모르드개

- 10 1 ○아하수에로 왕이 육지와 바다의 섬들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 2 왕이 그의 힘과 권세로 행한 모든 일들과, 모르드개를 높여 그를 존귀하게 한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 3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실권자가 되고, 유다 사람 중에서 존귀하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의 백성의 유익을 구하며 화평을 도모하였다.



# 욥기

## 경건한 욥

- 1 10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 2 그는 아들 일곱 명과 딸 세 명을 낳았고,
- 3 그의 소유는 양이 칠천 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소가 오백 겨리, 암나귀가 오백 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 4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세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 5 잔치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는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 여호와와 사탄의 대화

-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였다.
-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족이 땅에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 11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 모든 소유를 잃음

- 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 14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 15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하였다.

16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 떼와 종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하였다.

17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길대아 사람들이 세 떼를 이루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하였다.

18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19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집 네 모퉁이를 치니, 집이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20 욥이 일어나 자기 겹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정배하며,

21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22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 욥의 건강을 친 사탄

- 2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 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시

니,

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으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5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를 네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하셨다.

7 ○사탄이 여호와와 앞에서 나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8 욥이 잣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9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리시오."

10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 세 친구의 방문

11 ○그때에 욥의 세 친구인 데단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야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다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약속을 하고 각각 자기 거처에서 왔다.

12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니, 욥을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로 티끌을 날리고

13 욥과 함께 칠일 밤낮을 땅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3 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2 욥이 말하였다.

3 "내가 태어난 날, 남자 아이를 배었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4 그 날이 캄캄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돌보시지 않고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구름이 그 날 위에 머무르며 낮의 캄캄함이 그 날을 두렵게 했더라면,

6 그 밤이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며 달들의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7 보아라,

그 밤에 잉태하지 못하며 환호의 소리가

그 밤에 나지 않았더라면,

8 낮을 저주하는 사람들, 리워야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9 새벽 별들이 빛을 잃고 빛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아 동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10 이는 그 밤이

내 노래의 문을 닫지 않았고, 고난에 내 눈앞에서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11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것을 빨았을까?

13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누워 조용히 쉬고

잠들어 평안히 쉬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황폐한 곳들을 재건했던

14 이 땅의 왕들과 조언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15 혹은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금을 가졌던 지휘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6 혹은 내가 부지중에 낙태한 아이처럼 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았겠는가?

17 거기서는 악인들이 날뛰지 않고 거기서는 피곤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며,

18 간헐 사람들이

다 함께 평안을 누리고

19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작은 자나 큰 자가 같이 있고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20 어찌하여 그분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 21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나 오지 않으니,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욱 죽음을 찾아 헤매다가  
22 무덤을 발견하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23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으시므로  
길이 숨겨진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을까?  
24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물처럼 내 신음 소리를 쏟아 내니,  
25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26 내가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찾아왔구나.”

####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인과응보

- 4 1 O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2 “누가 만일 너에게 말하려고 한다면  
네가 괴롭겠으나,  
그렇다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3 보아라,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였으며,  
4 너의 말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웠고,  
휘청거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다.  
5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니,  
네가 답답해하며,  
이 일이 너에게 닥치니,  
네가 놀라는구나.  
6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신념이 아니냐?  
너의 소망은  
너의 행위의 순전함이 아니냐?  
7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며,  
정직한 사람들이  
끊어졌던 일이 있는가?  
8 내가 보니,  
악을 잡고 재앙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9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며,  
그 곳김에 사라져 버린다.

- 10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이 뽑힐 것이며,  
11 수사자가 먹이가 없어서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흠어질 것이다.  
환상  
12 내게 한 말씀이 은은히 다가왔는데,  
내 귀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13 사람들이 깊은 잠에 떨어졌을 무렵,  
나는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는데,  
14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내 뼈들이 모두 흔들렸다.  
15 그때에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모두 곤두섰다.  
16 그가 섰으나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으며  
나는 조용한 가운데 소리를 들었다.  
17 죽을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그의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18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조차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 천사들에게도 허물이 있다 하시니,  
19 하물며 티끌로 티를 삼고  
흠집에 살면서  
좀벌레처럼 놀려 죽을  
사람들이겠느냐?  
20 그들은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이 되기 전에 부서질 것이며,  
생각해 주는 이가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21 장막 줄이 뽑히면  
그들은 아무 지혜도 없이 죽는다.

#### 사람의 책임

- 5 1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거룩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질투가 미련한 자를  
죽이기 때문이다.  
3 나는  
어리석은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가 사는 곳을 즉시 저주하였다.  
4 그의 자식들은 도움에서 멀고,  
그들이 성문에서 짓밟히나  
구할 자가 없었고,  
5 그가 추수한 것을

- 굶주린 사람들이 먹으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울무릎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삼켜 버린다.  
6 흠에서 재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고난이 싹트는 것도 아니며,  
7 다만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 오르는 것과 같다.  
8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9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10 땅 위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공급하시고  
11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  
12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들의 계략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13 지혜로운 사람들로  
제 교활함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간교한 사람들의 꾀가 실패하며  
14 그들은 낮에도 암흑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다.  
15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의 칼날 같은 입과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16 그러므로 힘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  
불의가 자기의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17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18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쌍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19 여섯 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일곱 가지 환난 중에서도라도  
제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20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 21 너는  
허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22 파멸과 굶주림을 웃어 넘기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23 이는 네가 들의 들들과  
언약을 맺으며,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 너는 네 장막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네 우리를 살펴봐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25 네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져서  
네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알 것이며,  
26 때가 되면  
곡식 단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다.  
27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이니,  
분명한 사실이다.  
너는 이것을 잘 듣고  
네 자신을 위해 명심하여라.”

#### 욥의 반박/ 정당한 탄식

- 6 1 O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2 “만일 사람들이  
내 슬픔을 정녕 알아 보고  
내 재난도 다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3 이제 그것이 참으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터이니,  
이런 까닭에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이다.  
4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게 쏘이니,  
내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황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부짖겠느냐?  
6 싱거운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7 내 자신은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내게는 마치 상한 음식과도 같다.  
8 나의 구하는 것을 누가 주며,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9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여  
그 손을 들어 나를 잘라 버리신다면,



- 10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것이니,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1 무슨 기력이 있기에  
내가 더 기다리며,  
내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내가 더 참겠느냐?
- 12 내 기력이 바위의 기력이라도 되며,  
내 몸이 놋쇠라도 되느냐?  
내게 더 이상 도움이 없지 않느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 친구들에 대한 실망**
- 14 비록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자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한데,  
나의 형제들은  
시냇물처럼 신실치 못하니,  
마치 흐르다가 말라 버리는  
급류와 같구나.
-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려지고  
눈이 녹으면 물이 불었다가도  
더워지면 마르고  
뜨거우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니,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돌아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 죽고 만다.
- 19 데마의 대상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스바의 여행자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지만,  
20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기까지 갔어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낸다.
- 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게 무엇을 줌 달라,  
너희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게 선물하여라 하였느냐?
- 23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하였느냐?
- 24 내게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하라.

- 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 26 너희가 말이나 책잡으려 하고,  
절망한 자의 말들은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느냐?
- 27 참으로 너희는  
고아라도 재물을 뿔아 넘기며,  
너희 친구들조차 팔아 넘길  
사람들이다.
- 28 이제 그만 인정하고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너희 면전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 29 제발 너희는 돌이켜서  
불의가 없도록 하여라.  
돌이켜라,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여전히 옳다.
- 30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으며,  
내 입이 어떻게 썩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 고단한 인생

- 7 1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의 평생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 2 저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과 같고,  
자기 삶을 고대하는 품꾼과 같이
- 3 내가 허무하게 여러 달을 보냈으니,  
고통스런 밤들이 내게 계속되었다.
- 4 내가 누울 때마다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동틀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 5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썩어 터진다.
- 6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흘러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을 맺게 되는구나.
- 7 내 생명은  
바람과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 8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며,

-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더라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 9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10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 이해할 수 없는 고난**
- 11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고  
내 영의 고통 때문에 말하며,  
내 혼의 쓰라림 때문에 탄식합니다.
- 12 내가 바다이거나  
혹은 괴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 13 내가 말하기를  
“내 잡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탄식을 받아 줄 것이다.”  
하였지만
- 14 주께서는  
꿈으로 나를 낙담하게 하시며,  
환상들로 나를 두렵게 만드십니다.
- 15 그러므로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하기를 원하며,  
빠단 양상한 것보다는  
죽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 16 나는 지겹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이 허무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하게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18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 19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렵니까?
- 20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는지라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 21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흠에 능게 되었으니,  
주께서 나를 찾으셔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 빌닷의 첫 번째 말/ 인과응보의 법칙

- 8 1 O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 2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네 입의 말들이 저세 바람과 같다.  
3 하나님께서 판결을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4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를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5 만일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6 만일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 선조의 지혜**
- 8 너는 옛 세대에게 묻고,  
조상들이 탐구한 것을 확인해 보아라.
- 9 우리들은 어제 태어난 사람 같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날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 10 조상들이 너를 깨우치고  
너에게 말하며  
그 마음의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겠느냐?
- 11 왕골이 늪이 아닌 곳에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크겠느냐?
- 12 갈대가 푸르려 아직 배지 않았어도  
모든 풀보다 먼저 말라 버린다.
- 13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들의 길이  
이와 같으니,  
경건치 못한 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고
- 14 그의 확신은 깨어지며  
그의 신뢰는  
거미줄에 지나지 않으니.
- 15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하더라도  
그것이 서 있지 못하고  
곧게 잡아도

16 집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햇빛을 받아 싱싱하게 자라고  
그 가지들이 동산 위에 뻗어 가며  
17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 위에 엉켜서,  
돌 사이에서 자라나더라도  
18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조차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며 모르는 체할 것이다.  
19 보아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다.  
그 후 흙에서는  
다른 것이 돌아날 것이다.  
20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들의 손을  
볼들이 주지 않으신다.  
21 주님은 여전히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즐거움 소리로 채워 주실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22 부끄러움으로 옷 입고  
악한 자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 욥의 반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9 1 O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2 “그것이 사실임을 나도 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3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려 한다면,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4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거역하고도  
온전할 수 있겠느냐?  
5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6 땅을 그 자리에서 뒤엎드셔서  
그 기둥들이 요동치게 하시고  
7 해에게 명령하셔서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인하시고  
8 홀로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고  
10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하신다.  
11 보아라,

그분이 내 결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12 보아라,  
그분이 빼앗으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13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므로,  
라합을 돕는 사람들도  
그 아래 굴복할 것이다.

### 무능한 인간

14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겠으며,  
무슨 말로  
내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  
15 내가 옳더라도  
감히 대답할 수 없으며,  
나는 다만 심판하실 그분께  
은혜를 구할 뿐이다.  
16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이 응답하셨다고 해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17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며,  
18 나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신다.  
19 힘으로 말하면  
그분은 참으로 강하시고,  
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나로 그분을  
소환하게 하겠느냐?  
20 비록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며,  
내가 순전하다 해도  
그분이 나의 악함을 선언하실 것이다.  
21 비록 내가 순전하다 하더라도  
나 역시 나 자신을 잘 모르니,  
내가 내 삶을 정명할 뿐이다.  
22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망시키신다는 것이다.  
23 갑자기 재앙이 닥쳐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죄 없는 자의 시련을  
비웃으실 것이다.  
24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고,

그분이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시겠느냐?

25 나의 날들이  
달리는 자보다 더 빨리 달아나니,  
좋은 것들을 볼 수 없으며,  
26 그 날들은 갈대 배처럼 빨리 지나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와도 같다.  
27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내 얼굴을 바꾸어  
밝은 표정을 지어 보자.’ 해도,  
28 나는 내 모든 고통이 두려우니,  
주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29 내가 어차피 죄인이 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내가  
헛되이 노력하겠습니까?  
30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젖물로 내 손을 깨끗이 하더라도,  
31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시니,  
웃들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32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답변할 수도 없으며  
함께 법정에 나아갈 수도 없고,  
33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사이에서 중재할 이가 없구나.  
34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걷어 가시고  
주님의 위엄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35 그렇게 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지만,  
나는 참으로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한다.

### 욥의 탄식

10 1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 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2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주께서 나와 쟁변하시는지  
알리소서.’  
3 무슨 유익이 있기에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악인들의 음모는

호의적으로 보십니까?  
4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주께서도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십니까?  
5 주님의 날들이  
어찌 사람의 날들과 같으며,  
주님의 연수가  
어찌 인간의 날들과 같아서  
6 주께서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십니까?  
7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까.  
8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 주께서 등을 돌리시고  
나를 삼키려 하십니까?  
9 주께서 진흙을 빚듯이  
나를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어찌 주께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10 주께서는  
우유처럼 나를 쏟아 부으시고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11 주께서는  
가죽과 살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으며,  
12 생명과 사랑을 내게 베풀었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켜 주셨습니다.  
13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4 만일 내가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나를 지켜 보셨다가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5 만일 내가 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롭더라도  
내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니,  
나는 수치로 가득 찼으며,  
내 비참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6 내가 머리를 치켜들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기이한 일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17 주께서는  
내 앞에 새 증인들을 계속 세우시고  
내게 대한 주님의 분노를 더하시며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치게 하십니다.  
18 어찌하여 주께서



- 나를 모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더라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9 내가 없었던 자처럼 되어서,  
모테에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 갔을 것입니다.  
20 내 날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치고,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하소서.  
21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소서.  
22 그 땅은 흑암처럼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질서가 없으며,  
빛도 흑암과 같습니다.”

#### 소발의 첫 번째 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 11 1 O 나이다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  
다.  
2 “말이 많은데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옳다고 하겠느냐?  
3 너의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네가 비롯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4 너는 말하기를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5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하여 입술을 여시어  
6 지혜의 비밀을  
네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멸하심이  
네 죄악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 네가 어찌 알겠느냐?  
9 그 크기는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  
10 만일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잡아 가두거나 재판을 여신다면,  
누가 만류할 수 있겠느냐?  
11 참으로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알아내시며,  
악을 보셨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12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될 것이다.

#### 사람이 할 일

- 13 만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14 네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면,  
15 참으로 네가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16 네가 고난을 다 잊을 것이고,  
마치 홀리건 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며,  
17 너의 생애가 대낮보다 밝아지고  
어둠이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되며,  
18 소망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고,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며,  
19 누워도 두렵게 할 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서 굶실거릴 것이다.  
20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쇠약해져서  
도망할 길도 찾지 못하니,  
그들의 소망은  
숨이 끊어지는 것뿐이다.”

#### 요의 반박/ 하나님의 잠잠함

- 12 1 O 요이 대답하여 말했다.  
2 “참으로 너희만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3 나에게도 너희만큼 분별력이 있으니,  
너희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4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던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 평안한 자의 생각에는  
재앙이 우스워 보이겠지만,  
실족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6 강도들의 장막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풍성히 주시기 때문이다.

####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 7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네게 말해줄 것이다.  
8 아니면, 땅에게 말해 보아라.  
그것이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도  
네게 설명해 줄 것이다.  
9 여호와와 그의 이름 행하셨음을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인들 알지 못하겠느냐?  
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  
11 귀가 말을 분별해 내지 못하며,  
입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겠느냐?  
12 늙은이에게 지혜가 있으며  
오래 산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  
13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지략과 명철도 그분의 것이다.  
14 주께서 부수시면 다시 세우지 못하며,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 놓을 수 없고,  
15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땅이 마르며  
물을 보내시면 지형이 바뀐다.  
16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으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 속한다.  
17 그분은  
조연자들을 벌거벗겨 끌어가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 왕들의 결박을 풀어,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고,  
19 제사장들을 맨발로 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고,  
20 충성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노인들의 판단력을 빼앗으시고,  
21 귀족들에게 경멸을 쏟으시며,

- 강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신다.  
22 그분은 어둠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도 빛으로 이끌어 내시며,  
23 이방 민족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며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며,  
24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충명을 빼앗아  
길이 없는 거친 들에서  
헤매게 하시고,  
25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 친구들의 무익한 말

- 13 1 보아라,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2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3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4 그러나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5 누가 참으로  
너희들을 침묵하게 해 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6 참으로 내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내 입술이 변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며,  
그분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느냐?  
8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느냐?  
9 그분이  
너희를 세밀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분을 속이려고 하느냐?  
10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은밀하게 세우려 한다면,  
주께서  
너희를 심하게 책망하실 것이다.  
11 그분의 존엄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분의 두려움이

-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12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재 같은 적연들뿐이며,  
 너희를 방어하는 것은  
 토성에 불과하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  
 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말할 것이니,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14 어찌하여 내 이로  
 내 살을 물어뜯으며,  
 내 손에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15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16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니,  
 이는 사악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17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듣고,  
 내가 진술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18 보아라,  
 내가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입을 다물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욥의 기도**  
 20 주님이시여,  
 오직 이 두 가지만  
 제게 행하지 마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21 주님의 손을  
 제게서 옮기시며,  
 주님의 위엄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22 주님이시여, 부르소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제게 응답하소서.  
 23 저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허물과 죄를  
 제게 알리소서.  
 24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며,  
 저를 주님의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25 주께서 어찌하여  
 달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 마른 지푸라기를 쫓아다니십니까?  
 26 이는 주께서  
 제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하시며,  
 제 어릴 때에 지은 죄악들까지  
 되돌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27 주께서 제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저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제 말바닥에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28 그러므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으며,  
 썩먹은 옷과도 같습니다.

### 욥의 절망

- 14** 1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2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머물지 않습니다.  
 3 이와 같은 사람을  
 주께서 눈을 열어 살피시며  
 나를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  
 심문하십니까?  
 4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5 만일 그의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가 주께 달려 있다면,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6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셔서  
 그가 품꾼같이  
 자기 날을 마치기까지 놓아 두소서.  
 7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어서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으며,  
 8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그루터기가 흙에서 죽더라도,  
 9 물 기운에 다시 움이 돋고  
 새로 심은 것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10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습니까?  
 11 물이 바다에서 사라지고  
 강물이 줄어서 마르는 것같이  
 12 사람도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 13 오, 주께서 나를 스물에 감추시고,  
 주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내게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14 사람이 죽는다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나는 내게 변화가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15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께 응답할 것이니,  
 주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에  
 애착을 가지실 것입니다.  
 16 주께서  
 지금 나의 발걸음들을 세시지만  
 더 이상 나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다.  
 17 나의 허물이 자루 속에 봉하여지고  
 주께서 내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18 참으로 산이 무너져 없어지고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 가며  
 19 물이 돌들을 깎아내리고  
 폭풍우가 땅의 흙을 쓸어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20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어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쫓아 버리실 것이니,  
 21 자기 자식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게 되어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22 오직 그의 몸은 자신의 고통만 느끼며  
 그의 영혼은  
 자신을 슬퍼할 뿐입니다.”

###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모든 사람은 죄인임

- 15** 1 O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  
 다.  
 2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며,  
 자기 배를 동풍으로 채우겠느냐?  
 3 그가 어찌 아무 쓸데없는 말과  
 아무 유익이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4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도하기를  
 그치는구나.  
 5 이는 너의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며,

- 네가  
 간교한 사람들의 혀를 택했기  
 때문이다.  
 6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이다.  
 너의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고 있다.  
 7 네가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산들보다 먼저 생겨나기라도 했느냐?  
 8 네가 하나님의 의논을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지혜를 독차지하였느냐?  
 9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우리가 모르겠느냐?  
 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기에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10 우리 중에는 백발이 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11 네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작은 것이냐?  
 네게 하시는 부드러운 말씀이  
 하찮단 말이나?  
 12 무엇이 너의 마음을 빼앗고,  
 무엇이 네 눈을 부릅뜨게 하였느냐?  
 13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너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  
 14 사람이 무엇인가에 깨끗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15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치 않으시며,  
 그분의 눈에는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거늘  
 16 허물며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역겹고 추하겠느냐?  
**악인의 소망 없음**  
 17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니,  
 내 말을 들어 보아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주겠다.  
 18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받아서  
 숨기지 않고 전해 준 것이다.  
 19 그 땅은  
 오로지 그들에게만 준 것이었으니,  
 어떤 이방인도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없었다.  
 20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폭군의 헛수는 정해져 있으며



- 21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고  
평안할 때에  
파괴자가 그에게 들이닥치니,  
22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넘겨지지만 기다리고 있구나.  
23 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말하기를  
'어디에 있는가?' 하고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을  
알고 있다.  
24 재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왕같이  
그를 퇴칠 것이니,  
25 이는  
그가 자기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하신 분에게  
힘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26 그가 목을 세우고  
두꺼운 방패를 들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달려드니,  
27 그의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허리에 살이 찢어지고  
28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집에서  
살기 때문이다.  
29 그는 부지도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의 소유가 땅에서  
번창하지 못할 것이고  
30 그는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어린 가지를  
말릴 것이며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사라질 것이다.  
31 그가 스스로 속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니,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의 가지가  
더 이상 푸르지 못할 것이며,  
33 그는 설악은 포도가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떨어지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34 경건치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며,  
불이 뇌물 받은 자의

- 장막들을 태울 것이다.  
35 그들은 불행을 잉태하여 재앙을 낳고  
그들의 마음은 거짓만 준비한다."

### 욥의 대답/ 괴로우는 위로자

- 16 1 O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2 "이런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모두 위로한다면서  
괴로우는 자들이다.  
3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격동시켰기에  
그렇게 답변하느냐?  
4 만일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으니,  
나도 너희에게 말을 늘어놓으며  
내 머리를 흔들 것이다.  
5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굳게 하며  
내 입술은  
너희를 위로하여 진정시켰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  
6 내가 말을 해도  
내 고통이 누그러지지 않는데  
내가 잠잠한들  
어찌 그것이 내게서 떠나겠습니까?  
7 참으로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고,  
주께서 내 친지들을  
모두 파멸케 하셨습니다.  
8 주께서 나를 사들게 하시므로  
그것이 증거가 되며  
나의 파리한 모습에  
나를 대항해 일어나  
내 얼굴에 증언합니다.  
9 그분의 진노가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내 원수처럼 나를 노려보시니,  
10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자기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면서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치기 위해 함께 몰려드는구나.  
11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넘기시고  
악인들의 손에 나를 맡기셨구나.  
12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스러뜨리셨고,

- 나를 세워 과녁으로 삼으시니,  
13 그분의 화살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그분이 사정없이 내 콩팥을 뚫으시고  
내 쓸개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다.  
14 그분이 나를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니,  
15 나는 맨살에  
붉은 배설을 기워 입었고  
내 뺨은 먼지 속에 더럽혀졌으며  
16 내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17 그렇지만 내 손에는 포학이 없으며  
내 기도는 순수하다.  
하늘의 증인  
18 땅이여, 나의 피를 덮지 말고  
내 부르짖음이 머물게 하지 마라.  
19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  
20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21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듯이  
그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할 것이니,  
22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조롱 받는 자의 탄식

- 17 1 내 기운이 쇠하고  
나의 날이 다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2 내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3 주께서  
나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5 재물을 위해서  
친구들을 배신하는 자는  
자기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다.  
6 하나님이나  
백성의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7 내 눈이 슬픔으로 인해 침침해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처럼 되었으니,  
8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경악하고,  
무죄한 자는  
경건치 못한 자에게 격분할 것이다.  
9 그러나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굳건히 가며,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10 이제 너희는 모두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다.

### 절망자의 탄식

- 11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도  
사라졌다.  
12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가까웠다고 말하는구나.  
13 만일 내가 바라는 것이  
스올로 내 집을 삼는 것이라면,  
흑암 속에 내 침상을 펴고  
14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이다.'  
그리고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누이다.'  
부를 것이니,  
15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 우리가 함께 흠으로 들어가 실 때  
그것은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것이다."

### 빌닷의 두 번째 말/ 빌닷의 반박

- 18 1 O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2 "너희가  
어느 때나 말을 끝내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다.  
3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이야,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최후  
5 결국 악인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며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니,  
6 빛이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질 것이며  
위에 있는 등잔이 꺼질 것이다.  
7 그의 힘찬 발걸음이 지치게 되며

제 피에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이니,  
8 그가 자기 발로 함정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걸려 들어가므로  
9 뿔이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올무가 그를 옮겨낼 것이다.  
10 그를 동여맬 밧줄이 땅에 숨겨졌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으며  
11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두렵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뒤따를 것이며  
12 그의 힘은 기근으로 쇠하고  
멸망이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다.  
13 그의 살갓이 썩어 들어갈 것이니,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파먹을 것이고,  
14 그는  
자기가 의지하던 장막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5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서 살며,  
그의 거처에 유황이 뿌려지고  
16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며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시들고  
17 그에 대한 기억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니,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이다.  
18 사람들이 그를  
빛에서 어두움으로 몰아 넣어  
세상에서 내쫓아 버릴 것이니,  
19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손이나 후손이 없고  
그가 사는 곳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20 그의 날로 인해  
서쪽 사람들이 경악하고  
동쪽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니,  
21 참으로 악한 자가 사는 곳들이  
이렇게 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와 같을 것이다.”

### 19 욥의 대답/ 비방의 말을 거부함

19 1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2 “언제까지 너희가  
내 영혼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꺾으려 하느냐?  
3 너희는 열 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나를 학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4 비록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이다.  
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해 자만하며,  
나의 수치스런 일을 증명하려 한다면  
6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7 보아라,  
내가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호소하더라도  
공의를 찾을 수 없구나.  
8 그분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으며  
9 나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시고  
내 머리의 면류관을 벗기시며  
10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분이 내 소망을 나무같이 뽑으시며  
11 그분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며  
12 그분의 군대가 다 함께 나와서  
나를 치려고 길을 만들고  
내 장막 사방에 진을 쳤구나.  
**친척과 친구도 멀리함**  
13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므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14 내 친척들은 내게서 떠났고  
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으며  
15 내 집의 손님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 눈에 이방인이 되었으며,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  
17 내 아내가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하며  
18 어린아이들조차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하고  
19 나의 가까운 동료들마저  
모두 나를 혐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돌아서는구나.  
20 내 뼈에는  
내 가족과 살이 달라붙었고  
나는 잇몸만 남았구나.  
21 내 친구들이,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22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몸이 이리한데도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욥의 소망과 믿음**  
23 나의 말들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새겨졌으면,  
24 철필과 남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26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27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28 너희가 문제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핍박할까?’  
한다면,  
29 너희는 스스로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니,  
이는 분노가  
칼의 형벌을 불러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소발의 두 번째 말/ 악인의 최후

20 1 ○나아바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2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나로 대답하게 하니,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3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4 너는 이것을 아느냐?  
옛적부터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래로,  
5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이며  
경건치 못한 자의 기쁨은

가) 히, ‘공평’

순간일 뿐이다.  
6 그의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7 배설물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묻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할 것이다.  
8 그가 꿈같이 지나가니,  
그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겨날 것이니,  
9 그를 보았던 눈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의 거처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0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며,  
그는 자기가 착취한 재산을  
제 손으로 돌려줄 것이다.  
11 그의 뼈들이  
젊음의 활력으로 넘쳤으나,  
그와 함께 흠에 능계 될 것이다.  
12 그가 비록 악을 입에 달게 여겨  
그의 혀 밑에 감추며  
13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 안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14 그의 음식이 그의 뱃속에서 변하여  
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된다.  
15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 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  
그것을 꼬집어내실 것이다.  
16 그가 뱀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17 그가 시내,  
곧 젓과 풀이 흐르는 강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18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먹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이니,  
19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내버렸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20 그는 자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욕심에 얽매어 벗어나지 못한다.



- 21 그가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어 치우나,  
그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 22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고난에 빠질 것이니,  
모든 악한 자들의 손이  
그에게 미칠 것이다.
- 23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에게 이를 것이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비처럼 내릴 것이며
- 24 그가 철 병거를 피하면  
늦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 25 그가 그 화살을 등에서 빼내어도  
번쩍이는 화살이 쏘개에서 나와서  
그에게 공포를 물고 올 것이다.
- 26 완전한 어두움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의 장막에 남아 있는 것을  
멸할 것이다.
-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치러 일어나고
- 28 그의 집의 번영은 떠나며  
재물은  
그분의 진노의 날에 흘러갈 것이니,  
이것이
- 29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 욥의 대답/ 인내의 요구

- 21 1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2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 보아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 3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용납하여라.  
내가 말한 후에는  
나를 조롱해도 좋다.
- 4 내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냐?  
내가 어찌 초조하지 않겠느냐?  
5 너희는 나를 보고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려라.
- 6 나는 생각만 해도 두렵고  
전율이 내 몸을 사로잡는구나.
- 7 ○어찌하여  
악인들이 살아서 장수하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가?

#### 악인의 결말

- 8 그들의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든든히 서고,  
든든히 서었다.
- 9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며,
- 10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되  
낙태하지 않는구나.
- 11 그들이 자기 아이들을  
양 떼처럼 내보내니,  
그 자녀들이 뛰어 놀며
- 12 소고와 수금에 맞춰 노래 부르고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며
- 13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스올로 내려가는구나.
- 14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 15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유익이 있기에  
그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는구나.
- 16 보아라,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니,  
악인들의 생각은  
내 생각과 거리가 멀다.
- 17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케 하심이 몇 번인가?
- 18 그들이 바람 앞의 지푸라기처럼,  
폭풍에 날리는 겨처럼 되었다.
- 19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셔야 하겠느냐?  
그분이 본인에게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다.
- 20 그가 자기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보며,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것이다.
- 21 그의 수명이 모두 끝난다면  
그 후에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  
헛된 위로

- 22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느냐?
- 23 어떤 사람은 기력이 정정한 채  
조용하고 평안하게 죽으니,  
24 그의 그릇들은 젖으로 가득하고  
그의 뼈들은 운택하다.
- 25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니,  
복이라고는 맞본 적이 없다.
- 26 이 둘이 다 흙 속에 누우면  
구더기가 그들 위를 덮을 것이다.
- 27 보아라,  
나는 너희의 생각,  
곧 나를 해치려는 계락을 알고 있다.
- 28 너희가 말하기를  
‘권세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 29 너희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몰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 30 악인은 멸망의 날을 위하여 보존되며,  
진노의 날에 끌려 나갈 것이다.
- 31 누가 그 앞에서 그의 행위를 폭로하며  
그가 한 일을 갚아 주겠느냐?
- 32 그가 무덤으로 옮겨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킬 것이며,  
33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를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 34 어떻게 너희가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겠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구나.”

####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욥의 잘못

- 22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2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다.
- 3 네가 의롭다 해도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너의 길이 온전하다 해도  
그분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 4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시는 것이  
너의 경외함 때문이냐?
- 5 네가 행한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잘못이 끝이 없다.
- 6 너는 까닭 없이  
형제들의 저장물을 압류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으며
- 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 8 권세 있는 사람을 땅을 소유하고  
존경받는 자는 거기에서 산다.
- 9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다.
- 10 그러므로 올무들이  
네 사방을 둘러싸고,  
공포가 갑자기 너를 두렵게 하며,  
11 흑암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넘치는 물이 너를 덮는다.
- 전지하신 하나님
- 12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별들을 보아라.
- 13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감감한 구름 속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 14 뻥뻥한 구름이 그분의 은신처이니,  
그분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궤도를 따라  
이리저리 거니실 뿐이다.’ 하는구나.
- 15 너는 악한 사람들이 다니던 옛 길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 16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가 강물에 떠내려갔다.
- 17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 18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워 주셨다.  
악인들의 계획이 나오는 거리가 멀다.
- 19 악인이 보고 즐거워하며 무죄한 자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기를
- 20 ‘참으로 우리의 대적이 멸망하였고

불이 그들의 남은 재산을 삼켰다.’  
할 것이다.

#### 회개와 겸손의 요구

-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22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라.  
23 네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24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 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25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26 그때 네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27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게 될 것이다.  
28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29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30 그분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전지실 것이니,  
내 손의 깨끗함을 통해  
그가 진전을 받을 것이다.”

#### 욥의 대답/ 하나님을 향한 외침

- 23 1 O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2 “오늘도  
내가 처절하게 탄식하고,  
내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무겁구나.  
3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아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4 내가 그분 앞에 호소하며  
항변으로 내 입에 채우므로,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을 것이다.  
6 그분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 7 저거서는  
올바른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으니,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8 보아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9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11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일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13 그분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돌이키랴?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14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 많이 있다.  
15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떨며  
생각할수록 그분이 두려워지는구나.  
16 하나님께서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나를 떨게 하시니,  
17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 죄인들의 만행

- 24 1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2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선을 옮기고  
양 때를 빼앗아 기르며,  
3 교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저당잡으며,  
4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 세상의 가난한 자가 모두 숨는구나.  
5 보아라,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일하러 나가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그와 자식을 위해  
양식을 주는 것은 풍아뿐이다.  
6 그들은 들판에서 남의 곡식을 베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은 것을 굶어 모으며,  
7 옷도 없이 벗은 채 밤을 지내며  
추위 속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8 그들은 산에서 소나기에 젖으며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 밑에 있구나.  
9 어떤 사람은  
아비 없는 자식을  
어미 품에서 빼앗아 가며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물을 잡으므로  
10 그들은 옷도 없이 벗은 채로 다니며  
굶주린 채 곡식 단을 나르고  
11 담뿍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목말라 한다.  
12 성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나,  
하나님께서  
그 흥한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 13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니,  
빛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다.  
14 살인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밥에는 도독질을 하며,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석양을 기다리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며  
얼굴을 변장한다.  
16 그는 어두울 때 집으로 침입하고  
낮에는 스스로 문을 닫고  
숨어 있으니,  
빛을 알지 못한다.  
17 그들이  
이침을 죽음의 그림자같이 여기니,  
이는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를  
잘 알기 때문이다.

#### 악인들의 종말

- 18 그들이 물에 끌려 빨리 떠내려가고  
그 산업을 세상에서 저주를 받으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19 가뭄과 무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듯이  
스올이 죄지는 사람들에게  
그같이 할 것이다.  
20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니,  
불의가 나무처럼 썩일 것이다.

- 21 그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확대하고  
과부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자이다.  
22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을  
그의 권능으로 끌어내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아무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23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호하시어  
평안하게 하시나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신다.  
24 그들은  
높아져도 금방 사라지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처럼 모여질 것이니,  
곡식 이삭처럼 잘려질 것이다.  
25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며  
내가 한 말들을 헛되다 하겠느냐?”

#### 빌닷의 세 번째 말/ 의인은 없음

- 25 1 O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2 “통치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이 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  
3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는가?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자가  
있느냐?  
4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우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5 보아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까지도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며  
별조차도 깨끗하지 못하니,  
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 욥의 대답/ 알맹이 없는 빈말



26 1 O음이 대답하여 말했다.  
2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고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3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일깨웠으며,  
넘치는 지식을  
참 잘 알려 주었구나.  
4 네가 누구를 향해 말하며  
누구의 영감이 네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5 죽은 사람들이  
큰 물과 물에 사는 것들 밑에서  
떠는구나.  
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그대로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도 가려질 수 없다.  
7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며  
8 물을 뻗뻗한 구름으로 싸시지만  
그 밑의 구름이 터지지 않는다.  
9 그분은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자기 구름으로 펼치시며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두움의 한계를 세우셨다.  
11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떨며 놀란다.  
12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리함을 쳐서 파하시며  
13 그분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14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 무죄의 주장

27 1 O음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2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3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남아 있는 한,  
4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악인들의 멸망**  
7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8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10 그가 어찌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11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12 보아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헛된 말을 하느냐?  
13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폭력을 행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유업이다.  
14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에 죽을 것이며  
그의 후손은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다.  
15 남은 사람들도 죽어서 문힐 것이며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다.  
16 그가 비록 은을 티끌처럼 쌓아 놓고  
의복을 산더미같이  
준비해 놓을지라도  
17 의로운 자가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을 입으며  
무죄한 자가 그 은을 차지할 것이다.  
18 그가 지은 집은 쯤벌레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19 부자가 되어 잠들더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20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들고

폭풍이 밤중에  
그를 휩쓸어 갈 것이며,  
21 동풍이 그를 날려 보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쓸어 갈 것이다.  
22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를 덮칠 것이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할 것이다.  
23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뼉 치며,  
아우하면서  
그를 그 살던 데서 쫓아낼 것이다.

### 지혜의 위대함

28 1 은은 캐내는 곳이 있고  
금은 제련하는 장소가 있으며  
2 철은 흙에서 취하며  
구리는 돌을 녹여 얻는다.  
3 광부는 감감한 막장까지 파고 들어가  
가침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광석을 찾아내니,  
4 사람들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갱도를 파고서  
사람에게서 떨어져  
내려가서 펴며 일한다.  
5 땅에서는 양식이 나오지만  
땅 속은 불처럼 뒤집어지고 있으며  
6 땅의 돌들 가운데  
사파이어가 나오고 사금도 있다.  
7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찾아내지 못하며  
8 맹수들도 밟지 못하였고  
사자도 지나가지 못하였다.  
9 사람이 단단한 바위에 손을 뻗쳐서는  
산들을 뿌리부터 뒤집어엎으며  
10 바위 가운데도 갱도를 파 들어가서  
각종 보물들을 눈으로 찾아내고  
11 시냇물이 스며드는 곳을 막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끌어낸다.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13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 깊은 물이  
‘내 안에 없다.’ 말하며,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말한다.  
15 순금이라도  
그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고,

은도  
그것의 값으로 달아 줄 수 없으니,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길 수 없구나.  
17 금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순금 장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18 산호와 수정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  
지혜는 홍보석보다 더 나은 것이다.  
19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순금으로도  
그 가치를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

20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21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춰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숨겨져 있으며  
22 멸망과 죽음조차도  
‘우리는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말할 뿐이다.  
23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니,  
24 이는 그분이 땅 끝까지 살피시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25 그분이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달아 보시며  
26 비 내리는 규칙과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셨을 때,  
27 그대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시험하셨으며  
28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다.”

### 찬란한 과거

29 1 O음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2 “내가 지나간 날들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던 날들처럼  
지냈으면,  
3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었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었다.  
4 내 인생의 전성기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 장막 위에 있었고  
5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6 그때는 내 발자국이 버터에 잠겼으며  
바위는 기름을 수로처럼  
내게 쏟았었다.  
7 내가 성문에 나가거나  
광장에 내 자리를 잡고 앉으면,  
8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으며  
늙은이들은 일어나서 서며,  
9 고관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들의 입을 가리며,  
10 귀인들은 소리를 감추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11 누가 귀로 듣게 되면  
나를 축복하고  
눈으로 보게 되면  
나를 위해 증거했으니,  
12 이는 내가  
울부짖는 가난한 자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13 망하게 된 자가  
나를 위해 축복하였으며,  
나는 과부의 마음도  
기뻐 노래하게 하였다.  
14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내 공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다.  
15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되었고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16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의 소송을  
처리해 주었으며  
17 불의한 자의 송곳니를 부수고  
그 이 사이에서  
악탈물들을 빼내 주었다.  
18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며,  
나의 날들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19 내 뿌리는 물을 향해 뻗어 나가고  
내 가지에는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것이며  
20 내 영예는 내게 늘 새로워지고  
내 손의 활은 새 것으로 바뀔 것이다.'  
하였다.  
21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나의 충고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22 내가 말하면,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 말이  
그들 위에 이슬같이 내렸기 때문이다.  
23 그들이 나를 단비처럼 고대했으며  
그들이 입을 벌려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였다.  
24 내가 그들을 비웃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내 얼굴빛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25 내가 그들의 길을 선택해 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군사로 둘러싸인 왕같이 살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 비참한 현실

30 1 그러나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들은  
내가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풀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2 그들의 기력이 쇠퇴하였으니,  
그들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밤이면 버려지고 황폐한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4 덩굴 속에서 쓴 나물을 캐니,  
그들의 양식은 땀짜리 뿌리구나.  
5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쫓겼으니,  
사람들은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6 그들은 음산한 골짜기와 땅굴이나  
바위틈에서 살며  
7 덩굴 숲 사이에서 울부짖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다.  
8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자기 땅에서 채찍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로구나.  
9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10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않으니,  
11 이는 하나님께서  
내 활줄을 풀어버리시고  
내게 고난을 주시므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12 오른쪽에서 무리들이 떼지어 일어나  
내 발을 밟아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13 돕는자가 없는데도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다.  
14 그들이  
파괴된 늪은 틈으로 오는 것처럼  
폐허 더미 가운데서 내게로 몰려온다.  
15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니,  
내 위엄이 바람처럼 사라지며  
내 부귀가 구름처럼 지나갔구나.

16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며,  
17 밤에는 내 뼈가 꾸시고  
나를 얹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18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옷깃처럼 나를 휘감으셨으며,  
19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갈이 되었구나.  
20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은 보고도 계십니까.  
21 주님은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박해하십니다.  
22 주님은 나를 바람 위로 드셔서  
불러가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23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며,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하신 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24 그러나 사람이  
폐허 속에서 어찌 손을 내밀지 않으며,  
재앙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지 않겠는가?  
25 내가 고생의 날들을 보내는 자를 위해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하지 않았던가?  
26 진실로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내가 빛을 고대했으나  
어둠이 찾아왔구나.

27 내 속이 끓어오르고 잠잠치 않으니,  
고난의 날들이 내게 임했구나.  
28 나는 햇빛이 없는 곳을  
침울하게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부르짖는다.  
29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친구가 되었구나.  
30 내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31 내 수금은 애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통곡하는 소리가 되었구나.

### 계속되는 무죄의 주장

31 1 내가 내 눈과 안약을 맺었으니,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겠는가?  
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몫이 무엇이며  
눈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주실 유업이 무엇이었겠는가?  
3 불의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으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4 그분이 내 길들을 감찰하지 않으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않으시겠느냐?  
5 만일 내가 헛되이 다니며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다면,  
6 그분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다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순전함을 아실 것이다.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거나  
내 손바닥에 터러운 것이 묻었다면,  
8 내가 씨를 뿌려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힐 것이다.  
9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게 미혹되거나  
내 이웃의 문 앞에서  
기회를 엿보았다면,  
10 내 아내가 타인을 위해 땀을 갈고  
타인이 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11 이는 그것이 중한 죄이고  
재판관에 의해 벌받을 악이며,  
12 멸망하도록 삼키는 불이고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뽑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할 때



- 내가 그들의 사정을 무시했다면,  
14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며,  
그분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겠느냐?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한 분이 아니시냐?
- 16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이 실망하게 하였던가?  
17 내가 혼자서만 음식을 먹고  
고아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가 나를  
아버처럼 여기고 자랐으며,  
내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다.  
19 만일 내가 옷이 없어 죽어 가는 자나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20 만일 내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여  
그의 허리가  
나에게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21 만일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음을 보고  
고아를 반대하여 내 손을 들었다면,  
22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의 뼈가 부서져 조각날 것이다.  
23 참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나를 심히 두렵게 하니,  
나는 그의 위엄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24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고  
순금에게  
'너는 나의 의뢰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면,  
25 만일 나의 재물이 풍부하고  
내 손이 얻은 것이 많으므로  
내가 기뻐했다면,  
26 만일 내가 태양이 빛나는 것과  
달이 환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27 내 마음이 가만히 윤희되어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8 그 역시 재판관에게 벌판을 약이니,  
이는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 29 참으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우쭐거렸던가?  
30 나는  
그의 영혼이 저주받기를 구하여,  
내 입이 죄 짓게 하지 않았다.  
31 참으로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욥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32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다.  
33 참으로 내가 타인처럼  
내 죄악을 감추어  
내 잘못을 품속에 숨겼던가?  
34 참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두렵거나  
족속들의 멸시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가?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  
35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나를 고발한 사람이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다면,  
36 참으로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37 내 발걸음의 수효도 그분께 고하며  
주권자처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 38 만일  
내 말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고  
그 말고랑들이 함께 애곡한다면,  
39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었거나  
그 주인으로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 밀 대신에 쟈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올 것이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그쳤다.

**엘리후의 첫 번째 말/  
자신의 소개**

- 32** 1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므로, 이 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만두었다.  
2 람 족속의 부스 사람 비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진노하였다. 그가 욥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음이  
며,  
3 또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그  
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  
였기 때문이다.  
4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으나,  
5 세 사람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  
고 분노하였다.  
6 O 부스 사람 비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  
여 말했다.  
'나는 나이가 젊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망설이면서,  
당신들에게  
내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7 내가 생각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알려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8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영이  
그들에게 총명을 주시므로,  
9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말할 것이니,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내 의견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11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합당한 말을 찾을 때까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2 내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으나  
당신들 중에는 욥에게 반박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13 당신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으니,  
그를 이길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하지 마십시오.  
14 욥이 나를 향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당신들이 말한 것같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 15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6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더 기다려야 할까?  
17 나도 나의 몫으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 드릴 것이니,  
18 이는 내게 말이 가득하여  
내 심령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19 보십시오,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처럼 터질 것 같습니다.  
20 내가 말을 해야 후련할 것이니,  
내 입을 열어 대답하겠습니다.  
21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을 것이며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2 이는 내가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반박**

- 33** 1 그러므로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 보십시오,  
내가 내 입을 열었으니,  
내 혀가 내 입 속에서 말합니다.  
3 내 말이  
내 마음의 올바른을 나타내며,  
내 입술이  
이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5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서서 말해 보십시오.  
6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으니,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7 보십시오,  
나의 위엄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며,  
내 권세가  
당신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8 참으로 당신이  
내가 듣는 데서 말씀하였으므로,  
내가 그 말소리를 들으니,  
9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나는 결백하여 내게 잘못이 없다.  
10 보아라,  
그분은 내게 책잡을 일만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시고,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습시다.  
12 보십시오,  
이 점에서 당신이 옳지 않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13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  
14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5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 위에서 졸고 있을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16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며,  
그들에게 인 치듯 호응하시니,  
17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18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19 사람이 자기 침상 위에서  
고통으로 징계받으니,  
그의 뼈마디가 늘 쭈십니다.  
20 그의 생명이 양식을 싫어하고  
그의 영혼이 좋은 음식을 싫어하므로  
21 살이 보이지 않게 여위며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고  
22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지며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집니다.  
23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중보자 천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말해 준다면  
24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실 것입니다.  
25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26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은혜롭게 받으시고,  
그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27 그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올바른 것을 왜곡했으나  
내게 유익이 없었다.'  
28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므로,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할 것입니다.  
29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두 번, 세 번,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은  
30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31 읊이여,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려 합니다.  
32 만일 할 말이 있다면,  
내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옳다고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33 만일 없으면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잠잠하면  
내가 지혜를  
당신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 34 엘리후의 두 번째 말/ 음의 건방짐

1 ○엘리후가 이어 말했다.  
2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니  
4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알아봅시다.  
5 참으로 읊이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으며,  
6 내가 옳은데도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합니다.  
7 어떤 사람이 음과 같겠습니까?  
그가 조롱하기를 몰 마시듯 하며  
8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무리 지어 다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9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에게 유익이 없구나.'  
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의로우심**  
10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11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13 누가 그분으로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습니까?  
14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과 호화를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흠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16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7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18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19 왕족을 외도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20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으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거됩니다.  
21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 보시니,  
22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여음이 없고  
사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23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24 그분은 조사하지 않고서도  
강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25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아시고  
허룻밤에 뒤엎어 파멸되게 하시며  
26 악인들을 그들의 악함 때문에  
사람이 보는 곳에서 그들을 치시니,  
27 이는 그들이 그분을 떠났으며  
그분의 모든 길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28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에게 상달되게 하므로  
그분이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시다.  
29 그분께서 잠잠하실 때  
누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으며,  
그분이 얼굴을 감추실 때에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느 민족이나 사람에게  
동일하시니,  
30 정진치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31 누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으니,



- 32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 33 당신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뜻대로 갚으시겠습니까?  
진실로 선택하는 이는 당신이고,  
내가 아니니,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 34 사려 깊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다.  
35 읊이 지식 없는 말을 하니,  
그의 말들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36 나는 읊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니,  
이는 그가  
악인들처럼 대답하기 때문이며,  
37 자기 죄에 악을 더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 엘리후의 세 번째 말/ 하나님의 높으심

- 35 1 O 엘리후가 또 대답하여 말했다.  
2 “당신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하고  
3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합니다.  
4 내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5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6 만일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겠으며  
당신의 죄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7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하여도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8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만 해할 뿐이며  
당신의 의는  
인간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 9 사람은 학대가 심해지면 부르짖으며  
권세 있는 사람들의 팔에 놀려  
소리치면서도,  
10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밤중에 찬송을 주시며  
11 땅의 침묵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며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12 거기서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는 악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13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이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14 하물며 당신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뵈울수 없고  
판결은 그분 앞에 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15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진노로 벌하지 않으시고,  
황포를 크게 유의하지 않으시므로  
16 읊이 헛되이 자기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 엘리후의 네 번째 말/ 하나님의 보응

- 36 1 O 엘리후가 계속하여 말했다.  
2 “당신이 조금만  
나를 참아 준다면  
내가 보여 드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위해  
아직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내가 멀리서  
나의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이  
의로우심을 밝힐 것입니다.  
4 참으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이 온전한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5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  
누구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크시므로  
6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시며

- 악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 주시고  
7 의인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양들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8 만일 그들이 쇠사슬에 매이거나  
고난의 줄에 묶인다면,  
9 그분은 교만하게 행한  
그들의 소행과 죄악들을  
그들에게 밝혀 주시고  
10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죄악에서 돌아오도록  
명하시겠습니다.  
11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자신들의 날을 행동하게 지나고,  
자신들의 해를 기쁨으로 지낼 것이나  
12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13 마음이 경건치 못한 자는  
분노를 발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속박하여도  
부르짖지 않으니,  
14 그들의 영혼이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이 남창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15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그의 고난 가운데서 구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귀를 여십니다.  
16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어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 하셨으며,  
당신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하셨을 것입니다.  
17 그러나 당신이  
악인이 받을 판결을 넘치게 받았고,  
심판과 공의가  
당신을 잡았습니다.  
18 분노가 당신을  
지나치게 격동시키지 않게 하고  
많은 속전이  
당신을 빚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19 당신의 부르짖음이나  
힘을 다한 모든 노력이  
고난을 겪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 20 밤,  
곧 백성들이  
자기 곳에서 사라지는 때를  
당신은 사모하지 마십시오.  
21 당신은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22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시니,  
누가 그분과 같이  
교훈을 베풀겠습니까?  
23 누가 그분을 위해  
그 갈 길을 지정하며,  
누가  
‘주께서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24 당신은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25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먼 곳의 사람도 바라볼 것입니다.  
26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수 없으며  
그분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27 그분이 물방울을 끌어 올리시며  
안개로부터 비를 만드시니,  
28 하늘이 그것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합니다.  
29 참으로 누가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그 장막에서 올리는 천둥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30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사면을  
그분의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시고  
31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32 두 손으로 번개를 감싸고  
그것을 명하여  
표적을 맞도록 하시니,  
33 그 올리는 소리가 그것을 알려 주며  
가축들도 그 다가오는 것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 37** 1 참으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계속하여 들어 보십시오.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 3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그 번개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 그 뒤로 평음이 울리니,  
그분이  
위엄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심이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분께서는 번개를  
가로막지 아니하십니다.
- 5 하나님이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  
6 그분이 눈을 명령하여  
땅에 떨어지라고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같이 하십니다.
- 7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 8 짐승들은 자기 은신처로 들어가서  
은밀한 굴에 몸을 숨기고,  
9 남방 밀실에서 폭풍이 나오며  
북쪽에서 추위가 나와서,  
10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생김  
넓은 바다가 포풍 얼어 붙습니다.
- 11 그분은  
깊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싣고  
자기의 번개 구름을 흠으십니다.
- 12 구름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을  
땅의 세상에서 행하니,  
13 징벌을 위하여  
혹은 자기 땅을 위하여  
혹은 공룡을 위하여  
그분이 구름을 불러 오게 하십니다.
- 하나님에 대한 경외**
- 14 음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15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명하셔서

- 자기 구름으로  
번개를 치게 만드시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 16 구름이 떠나니는 것과  
지식이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당신이 아십니까?
- 17 남풍이 불어서 땅이 조용할 때,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졌습니까?
- 18 부어 만든 거울처럼 견고한 하늘을  
당신이 그분과  
함께 펼칠 수 있겠습니까?
- 19 당신은  
우리가 그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할 수 없습니다.
- 20 내가 말하려는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삼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21 어떤 때는  
하늘에 있는 밝은 빛을 볼 수 없으나,  
바람이 지나가면  
하늘이 맑아지고
- 22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습니다.
- 23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측량할 수 없으니,  
그분은 권능이 크시며  
심판과 크신 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해야 하며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

- 38** 1 ○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  
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 2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 5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펼쳤는지 네가 아느냐?

- 6 땅의 토대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누가 땅의 모퉁이들을 놓았느냐?
- 7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 8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 9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며  
흑암으로 바다의 강보를 만들었고,  
10 내가 그 위에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11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네가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 되니,  
네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하였다.
- 12 네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제자리를 알게 하여  
13 땅 끝을 붙잡게 하며,  
거기서 악인들을 펼쳐 낸 적이  
있느냐?
- 14 땅은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같이 변하고  
그들은 옷처럼 서 있다.
- 15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빛이 차단되고  
높게 쳐든 팔이 꺾이게 된다.
- 16 네가 바다의 근원까지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 17 죽음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네가 사망의 그늘진 문들을  
보았었느냐?
- 18 네가 땅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다 알고 있다면, 말해 보아라.
- 19 빛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며,  
흑암이 있는 곳은 어디냐?
- 20 참으로 네가 그것을  
그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네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 21 네가 알 것이다.  
이는 네가 그때에 태어나  
너의 날수가 많기 때문이다.
- 22 네가 눈 창고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 23 내가 환난의 때와

-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것들을 간직해 두었다.  
24 빛이 나누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으며,  
땅 위의 동풍은 어디서 흠어지느냐?
- 25 누가 폭우를 위해 물길을 터주었고,  
천둥과 번개를 위해 길을 냈으며,  
26 사람 없는 땅에,  
인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으며  
27 황무지와 메마른 땅을  
흠족하게 적셔서  
풀의 새싹이 움트도록 하였느냐?
- 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 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은 것이냐?
- 30 물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깊은 물의 표면이 얼게 된다.
- 31 네가 묘성의 끈을  
서로 묶어 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 32 네가 때를 따라  
별자리들을 이끌어 내고,  
복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 33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네가 하늘의 규칙을  
땅에서도 세울 수 있겠느냐?
- 34 너는 네 목소리를 구름에 올려  
많은 물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고,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게 할 수 있느냐?
- 36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심어 두었느냐?  
마음속의 명철은 누가 주었느냐?
- 37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들을 쏟고,  
38 흠뻑지를 부어 진흙덩이를 만들고,  
흠뻑어리들이  
서로 엉기게 하겠느냐?
- 39 네가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네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 주겠느냐?
- 40 그들은 굴 속에 엎드려거나



숲 속에 앉아서 기다린다.  
41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다닐 때에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39 1 네가 산 염소들이  
새끼 낳을 때를 아느냐?  
네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 본 일이 있느냐?  
2 그것이 만삭 되는 달수를  
헤아릴 수 있느냐?  
3 그것이 새끼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서 새끼를 낳으면  
그 고통은 떠나가 버리고  
4 그 새끼들은 들판에서 강하게 자라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야생 나귀의 매인 것을  
풀어 주었느냐?  
6 내가 들을 그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의 살 곳으로 삼았다.  
7 들나귀는  
성읍의 북적대는 것을 비웃으며,  
모든 사람의 외치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8 산들을  
자기 초장으로 삼아 돌아다니며,  
모든 푸른 것을 찾아다닌다.

9 들소가 너를 즐겁게 섬기겠느냐?  
그것이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 네가 들소를 줄로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네 뒤를 따라 골짜기를 갈겠느냐?  
11 들소의 힘이 세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신뢰하여,  
그것에게 너의 할 일을 맡기겠느냐?  
12 들소가 네 곡식을 가져와서  
네 타작마당에 쌓을 것이라고  
너는 믿느냐?

13 타조들이 즐거이 날갯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황새의 깃과 털이겠느냐?  
14 그것들은 자기 알들을 땅에 두어  
흙으로 더워지게 하지만,  
15 발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과

들짐승이  
그것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16 타조는 새끼를  
자기 것이 아닌 듯 모질게 다루고,  
자기의 수고가 헛되다 하더라도  
개워치 않는다.  
17 이는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들에게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높이 퍼덕이며 뛰어갈 때면,  
말이나 말 탄 자를 비웃을 것이다.

19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 그것의 목에 갈기를 입혔느냐?  
20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풍당당한 콧소리가  
갑나게 한다.  
21 그것은 골짜기에서 발굽으로 차며  
크게 흥분하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는데  
22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으며,  
칼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는다.  
23 그 위에 화살통이 덜거덕거리며  
창과 단창이 번쩍거리고  
24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 삼키며  
나팔 소리가 울려도  
머물러 서지 않고  
25 나팔이 울릴 때마다  
‘헉헉’ 소리를 내며  
멀리서도 전쟁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함성을 듣는다.  
26 매가 날아올라  
남방을 향해 날개를 펴는 것이  
네 명철 때문이냐?  
27 독수리가 높이 떠올라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을 따른 것이냐?  
28 그것은 절벽에 거하며  
그 틈이나 험준한 곳에 머물고,  
29 거기에서 먹이를 찾으니,  
그 눈은 먼 곳까지 살핀다.  
30 그 새끼들도 피를 빠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있다.”

40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  
하셨다.

2 “비난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과 다투려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여라.”

욥의 대답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4 “보소서,  
저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5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겠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6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  
여 말씀하셨다.  
7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것이니,  
나에게 대답하여라.  
8 참으로 내가  
내 판결을 무시하겠느냐?  
내가 의로워지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9 네게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치는 소리를 낼 수 있느냐?

10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로  
몸을 장식하고  
영광과 화려함으로 옷 입을 보아라.  
11 너의 넘치는 분노를 쏟아서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그들을 낮추되  
12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그들을 굴복시키며  
악한 자를 그의 처소에서 밟아서  
13 그들을 다 함께 흙 속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써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 역시 인정할 것이다.

15 이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가축들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다.  
16 보아라,  
그의 힘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강함은 그의 배 근육에 있다.  
17 그것은 자기 꼬리를  
백향목처럼 늘어뜨리고  
허벅지의 힘줄들이 서로 얽혀 있으며  
18 그의 뼈는 구리 관 같으며  
그의 사지는 쇠 기둥 같다.  
19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이고,  
그것을 지은 자가  
그에게 자기 칼을 주었고,  
20 참으로  
산들이 그것에게 소산을 바치고,  
거기서 모든 들짐승들이 뛰어논다.  
21 그것은 연꽃잎 아래나  
갈대와 늪의 은신처 속에 었드리니,  
22 연꽃잎과 그 그늘이  
그것을 덮어 주고,  
강가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에워싸는구나.  
23 보아라,  
강물이 넘쳐흘러도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쳐도  
태연하니,  
24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잡을 수 있겠으며  
누가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41 1 네가 낚시로  
‘리워아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네가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 네가 갈대 줄기로  
그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3 그것이 네게 여러 번 애원하겠느냐?  
그것이 네게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4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5 네가 새를 조롱하듯  
그것을 조롱하거나,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묶어 둘 수 있겠느냐?  
6 어부들의 무리가  
그것의 값을 흥정하여  
장사꾼들 사이에 나누겠느냐?  
7 네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작살로  
8 네 손을 그것에 대어 보아라.  
다시는 그것과 씨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9 보아라,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되니,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10 아무도 그것을 자극할 만큼  
용감하지 못하니,  
감히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냐?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 큰 힘과 능륜한 체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3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두 겹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의 빙 둘러 있는 이가 두렵구나.  
15 견고한 비늘은 그것의 자랑인데,  
춤추며 봉한 것처럼 닫혀 있구나.  
16 하나하나가 한데 붙어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17 각각 옆의 것과 연결되어  
서로를 붙잡고 있으니,  
분리할 수 없구나.  
18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며,  
그 눈은 새벽 눈꺼풀 같고  
19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며  
불뿔들이 튀어나오고  
20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솔이 끓으며 갈대가 타는 것 같고  
21 숨이 솟불을 피우며  
입에서 화염이 나오는구나.  
22 목에는 힘이 도사리고 있으니,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23 주름 잡힌 살은 단단히 붙어 있으며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24 그 심장은 돌같이 견고하며  
땀돌 아래쪽같이 견고하다.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무서워하고  
혼비 백산하여 당황하게 된다.

26 칼을 들이대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살이나 갑옷도 소용없으니,  
27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는구나.  
28 화살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릎뎌도  
그것에게는 겨로 여겨지며  
29 막대기가 그것에게는  
지푸라기로 여겨지니,  
창 던지는 것을 비웃는구나.  
30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국을 남기는구나.  
31 그것은  
깊은 물을 술처럼 꿀게 만들고  
바다를 향 기름 단지 같게 하며  
32 지나가는 자취는 환하게 빛나니,  
깊은 바다가 백발같이 보이는구나.  
33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그것이  
두려움을 모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 욥의 회개

42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2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3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4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5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뵈옵습니다.  
6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 욥을 의롭다 하신 여호와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  
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

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중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숫양  
일곱을 취하여, 내 중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  
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중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  
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  
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  
이 내 중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  
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  
쁘게 받으셨다.

### 욥이 다시 받은 복

10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  
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  
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두 배로 더해 주  
셨다.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  
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  
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  
과 금 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12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가지  
게 되었으며,  
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었다.  
14 그가 첫째딸의 이름을 여미이라, 둘째딸의 이  
름을 겐시이라, 셋째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  
라 불렀다.  
15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  
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16 이 후에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  
자를 사 대까지 보았으며,  
17 늙어,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 제일권

## 복 있는 사람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할 것이다.
- 4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6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 왕을 세우신 여호와

- 2 1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돌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 2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3 “우리가 그 명예를 벗어 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 버리자.” 한다.
- 4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 5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6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 7 내가 여호와와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 8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네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 9 네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 10 이제 왕들이, 지혜롭게 행하여라.  
교훈을 받아라. 땅의 재판관들이.
-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 12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 둘러싼 원수들

- 3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 1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많습니다.
- 2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셀라
- 3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는 분이십니다.
-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니,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 5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 7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지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 8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 의의 하나님

- 4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 1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 2 인생들이,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셀라
- 3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 4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셀라
- 5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 6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 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큼니다.
-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 5 지휘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다윗의 시
- 1 여호와시여,

-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 3 여호와시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 4 진실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 5 오만한 자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주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십니다.
- 6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며,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 7 오직 나는 주님의 크신 인애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 8 여호와시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주님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하소서.
- 9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 속에는 파멸이 있으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아침을 합니다.
- 10 하나님, 그들에게 죄 있다 하시고  
그들이 자기의 죄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 많으니, 쫓아내소서.  
이는 그들이  
주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이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 12 여호와시여, 참으로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감싸 주십니다.

###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 6** 지휘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에 맞춘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쭈시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4 여호와시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의 인애로 나를 구원하소서.  
5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스울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 6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시니다.  
7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 8 너희 모든 행악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9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10 내 모든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황급히 몰려갈 것이다.

### 여호와께 의를 구하는 기도

- 7**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노래한 다윗의 식가온  
1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나를 쫓는 모든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소서.  
2 나를 건져낼 자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염려됩니다.
- 3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시여,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하여  
내 손에 불의가 있거나

- 4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무고히 원수를 악탈했다면  
5 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와  
붙잡게 하고  
그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며  
내 명예를  
진흙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6 여호와시여, 노여움으로 일어나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 7 민족들의 무리가  
주님을 둘러서게 하시며,  
그들 위의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 8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시니,  
여호와시여, 내 의와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결하소서.  
9 악한 자의 악은 끊으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 10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 11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 12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서는 칼을 가지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 13 주님은 살상 무기를 갖추시고,  
화살에 불을 붙이십니다.
- 14 보아라, 그는 악으로 진통하며  
제앙을 잉태하며 거짓을 낳는다.
- 15 그가 웅덩이를 파고서  
자기가 만든 구렁이에 빠진다.
- 16 그의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폭행이 자기 정수리 위에  
떨어진다.

- 17 내가 여호와께  
그분의 의로 인해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 창조주의 높으심과 사람의 존귀함

- 8** 지휘자를 따라 깃딤에 맞춘 다윗의 시  
1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 2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 3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 5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 6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양 떼와 소 떼와 들짐승과  
8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 따라 다니는 것들입니다.
- 9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

- 9** 지휘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다윗의 시  
1 내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했습니다.
- 2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 3 내 원수들이 몰려갈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이니,  
4 이는 주께서 나의 공의와 판결을  
옹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 5 주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6 원수가 멸망하여 완전히 없어졌으며,  
주께서 성읍들을 무너뜨리셨으니,  
그들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 7 여호와께서 영원히 좌정하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 8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판결하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재판하십니다.
- 9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신다.
- 10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 11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리라.
- 12 피 흘림을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 13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억울함을 보소서.
- 14 그리하시면  
찬양받으실 주님의 모든 일을  
내가 전하며,  
내가 딸 시온의 성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 15 민족들이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다.
- 16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  
히가온, 셀라
- 17 악인은 스올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그려할 것이다.



18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잊혀지는 것은 아니며,  
억울한 사람의 기도가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19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20 여호와시여,  
그들로 두려워하게 하시며,  
민족들도 자신들은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 10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

1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2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니,  
그들로 자기들이 꾸며 낸 피에  
빠지게 하소서.  
3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저주하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4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며,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5 그의 길은 언제나 험통하고  
주님의 심판은 그의 눈에 너무 높아서  
그가 자기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6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7 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폭언으로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8 그는 마을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9 그는 굴 속의 사자처럼  
그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립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덮치기 위해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그물로 가난한 사람을 끌어당겨 포획  
합니다.  
10 그가 웅크려 었드리니,  
그 폭력으로  
가련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11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자기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12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손을 들어 주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은 문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14 주께서 보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학대와 원한을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갚으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15 사악한 자와 악한 자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으소서.

16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민족들이  
주님의 땅에서 멸망합니다.  
17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18 고아와 억눌린 자를 위해  
심판하셔서  
다시는 땅에서  
사람이 위협하지 않게 하소서.

### 피난처이신 여호와

11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여라.” 하느냐?  
2 보아라, 악인이 활을 당겨서  
자기 화살을 시위에 메기고,  
어둠 속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쏘려 하는구나.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피보신다.  
5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  
6 그분은 악인들 위에 그물과  
불과 유향과 열풍을  
비처럼 내리실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다.  
7 진실로 여호와와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뵈게 될 것이다.

###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12 지휘자를 따라 스미밈에 맞춘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2 그들은 서로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니,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니,  
4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혀로 우리가 이길 것이고,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고  
궁핍한 사람이 탄식하니,  
내가 이제 일어나서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6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하니,  
흠 도가니에서 제련되어  
일곱 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7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소서.  
8 비열함이

인생들에게 높임을 받는 때에,  
사방에 악인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 탄식과 신뢰

13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2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변민하며  
날마다 마음에 근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군림해야 합니까?  
3 여호와 내 하나님이지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4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대적이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5 내가 주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 부패한 세상에서 피난처이신 여호와

14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3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 4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 5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 6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 7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아람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 15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 2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 3 그는 자기 혀로 함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 4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 5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

- 16 다윗의 미담  
1 하나님이지요,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 2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 4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 5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 6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 7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 9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기도

- 17 다윗의 기도  
1 여호와시여,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 2 나에 대한 변고가  
주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히 살피 주소서.

-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 4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 5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내 발이 실족지 않았습니다.
- 6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므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내 말을 들으소서.
- 7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분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나타내 주소서.
- 8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기소서.
- 9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나를 에워싸고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지키소서.
- 10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 11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우리를 노려보며  
땅바닥에 매어치려고 합니다.
- 12 그 모습은 먹이를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었드린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 13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그를 대항하여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 14 여호와시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애에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재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은 자녀들로 만족하며,  
남긴 것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 15 그러나 내 자신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내가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 여호와께 승리를 감사하는 왕의 노래 (삼하 22:1-51)

18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 3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 4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엄습했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다.
- 6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 7 이에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며  
산의 기초가 요동하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 8 그분의 코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태우니,  
그 불에 솟이 피었다.
- 9 그분께서  
또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니,  
그 발아래에는  
길은 구름이 깔렸다.
- 10 그분께서 그름을 타고 날아오시니,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 11 그분께서 흑암으로  
자기의 은신처를 삼으시고,  
둘러선 비구름과 짙은 먹구름으로



- 12 장막을 삼으셨다.  
그분 앞의 광채로부터 먹구름을 통해  
우박과 벼락을 내린다.
-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시며  
우박과 벼락을 쏟으신다.
- 14 그분께서 화살을 쏘아  
그들을 홀으시고,  
번개를 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 15 여호와시여,  
주님의 꾸지람과 쿡김으로  
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 16 그분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고,  
큰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 17 그분께서 나를  
강한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해 주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 18 그들이 재앙의 날에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 19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 20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답하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보상해 주셨으니,
- 21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 22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23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갚아 주셨다.
- 25 주께서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 26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 27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 28 참으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니,  
여호와와 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 주실 것이다.
- 29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리를 쳐서 부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 30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 31 진실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습니까?
- 32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피를 돌려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 33 내 발을 암시슴의 발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 34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내 팔이 낫 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 35 주께서 또 내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 36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넓게 하시며,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 37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그들을 덮치고,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 38 내가 그들을 쳐서 부수니,  
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아래 엎드릴 것입니다.
- 39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피를 돌려  
전쟁하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 40 주께서 또

- 내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로 전멸시키게 하셨습니다.
- 41 그들이 울부짖었으나  
구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 42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갈아서  
길가의 진흙처럼 쏘아 버렸습니다.
- 43 주께서 백성의 다룸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민족들의 머리로 삼아 주시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 44 그들이 귀로 듣기만 하여도  
내게 순종하고,  
이방인들도 내게 아첨합니다.
- 45 이방인들이 사기를 잃고,  
자기의 요새로부터  
떨어 나올 것입니다.
- 46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내 반석께서 찬양받으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 47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 주시고,  
이방 백성들을  
내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 48 주께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내 대적자보다 나를 더 높이셨으며,  
폭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습니다.
- 49 그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 50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의 기쁨 부음받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십니다.
- 19 **창조세계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지혜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 2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 3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며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 4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 5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
- 6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 7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다.
- 8 여호와와 올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 9 여호와와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와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 10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호와와 법도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로우니,
- 11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다.
- 12 또 주님의 종이  
이로 인하여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 13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자가  
누구입니까?  
숨겨진 잘못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 14 또 주님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지켜 주시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 15 그러면 내가 온전하여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 16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 왕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 20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네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에서 너를 불드시고,  
3 그분께서  
너의 모든 곡식 재물을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길 원한다. 셀라
- 4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한다.  
5 우리가 너의 승리에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간구를 이루시길 원한다.
- 6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 오른손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7 어떤 이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니,  
8 그들은 엎어지고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 9 여호와시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 왕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

- 21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왕이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합니다.  
2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3 참으로 주께서  
좋은 복으로 그를 맞아 주시고,

- 4 그의 머리에 순금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토록 긴 날입니다.  
5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그의 영광이 크니,  
주께서 존귀와 영화를  
그에게 입혀셨습니다.  
6 참으로 주께서  
그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가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애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8 네 손으로  
네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니,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9 네가 나타날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들며,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10 네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들 가운데서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11 비록 그들이 너를 향해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12 네가 그들을 도망가게 하며,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눌 것이다.
- 13 여호와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기도와 구원

- 22 지휘자를 따라 아셀렛사할에 맞춘 다윗의 시  
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시며 내 신을 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2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3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 4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6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웃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8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 9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10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11 내게서 멀리 계시니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 12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흰색 소들이 나를 돌렸으며,  
13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 14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 버렸습니다.  
15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 16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찢었습니다.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먹으로 바라봅니다.  
18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 19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 다하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20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들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21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 22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름다운 모든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라.  
24 이는 주께서 비천한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를 싫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신다.
- 25 주님으로 인하여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서원을 갚을 것이다.  
26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 27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  
28 나라는 여호와와 의이고,  
여호와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 29 땅에서 번영하는 모든 사람이 먹고,  
주께 경배할 것이며,  
진토로 내려가는 사람,  
곧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할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절할 것이다.  
30 자손이 그분을 섬기며,  
대대로 주님을 전할 것이니,

\*) 히 ‘응답하셨습니다.’



- 31 그들이 와서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전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행하셨다.”  
라고 할 것이다.

### 여호와와 나의 목자

## 23

- 다윗의 시  
1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 4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 5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6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 성전에 들어가신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 24

- 다윗의 시  
1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와 함께  
이제 그분께서  
바다에 기초를 놓으시고,  
강들에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3 여호와와 함께 오를 사람이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  
4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자기 생각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5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을 것이다.  
6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아름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셀라

-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8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용맹하신 여호와시니,  
전쟁에서 용맹하신 여호와시니.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니. 셀라

###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 25

-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2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3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 4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나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 6 여호와시여, 옛적부터 있어 온  
주님의 공훈과 인애를 기억하소서.

- 7 여호와시여,  
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 8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옳바르시니,  
그 길을 죄인에게 가르치시고,  
9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 10 여호와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길은 인애와 진리입니다.

- 11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이 큼니다.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14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분께서 자기의 언약을  
그에게 알리실 것이다.  
15 내 눈길이 항상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 16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7 내 마음의 고통이 크니,  
주께서 나를 곤경에서 건지소서.  
18 나의 괴로움과 비참함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 19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많고,  
나를 몹시 미워합니다.  
20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내가 주님을 바라니,  
온전함과 옳바름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 22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 억울한 자가 무죄를 호소하는 기도

## 26

-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나를 판결하소서.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습니다.  
2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3 참으로 주님의 인애가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견습니다.

- 4 나는 헛된 자와 함께 앉지 않으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5 나는 악인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6 여호와시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하겠습니다.  
8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  
9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 11 그러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걸을 것이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공훈을 베푸소서.  
12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회중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 대적자 앞에서의 신뢰와 기도의 시

## 27

- 다윗의 시  
1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 2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 3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 4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와 함께 살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7 여호와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였습니다.

9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지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10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

11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2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맡겨 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13 참으로 나는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14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

28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2 내가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 나를 악인과 함께,  
행악자와 함께 끌고 가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에게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4 주께서 그들에게 그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함대로 갚으시되,  
그 손이 행한 대로 갚으셔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돌리소서.  
5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분별치 못하니,  
주께서 그들을 파멸시키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이다.  
6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7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므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 뛰며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8 여호와와 그 백성의 힘이시며,  
그분의 기쁨 부음받은 자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다.  
9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유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이끄소서.

#### 천둥소리로 나타나시는 여호와

29 다윗의 시  
1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2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3 여호와와 음성이 물 위에 계신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큰 물 위에 계신다.  
4 여호와와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와 음성은 위엄차다.

5 여호와와 음성이 백향목을 꺾으시니,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  
6 그분께서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시몬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7 여호와와 음성이 화염을 가르신다.  
8 여호와와 음성이 광야를 흔드시니,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신다.

9 여호와와 음성이  
암사슴으로 진통을 겪게 하시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두  
‘영광’이라 외친다.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니,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으로 복 주실 것이다.

#### 죽음에서 구원 받은 사람의 감사의 노래

30 다윗의 시, 골 성전 봉헌가  
1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건지셔서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 내 하나님이지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3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4 주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라.  
5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6 내가 평안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7 여호와시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8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긍휼을 구합니다.

9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10 여호와시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돕는 자가 되소서.”

11 주께서는  
나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배움을 벗기시며,  
내게 기쁨으로 피를 돌려 주셨습니다.  
12 그러므로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 구원받은 자의 기도와 신뢰와 감사

31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지소서.  
2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나를 속히 건지소서.  
내가 피할 바위와  
나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소서.  
4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리에 쳐 놓은

가) 히 ‘신들의 자녀’ 혹은 ‘권능 있는 자들’



-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5 내가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 6 나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만 신뢰합니다.  
 7 내가 주님의 인애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니,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영혼이 환난 중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8 주께서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 9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고난이 있으니,  
 근심으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잔해졌습니다.  
 10 슬픔으로 내 생명이 다하고,  
 한숨으로 내 혀가 다 갑니다.  
 내 죄악으로 내 기력은 소진되고,  
 내 뼈들이 쇠약해졌습니다.
- 11 내가 내 모든 대적과  
 내 이웃에게까지 조롱을 당하므로,  
 내 친구가 겁에 질리고,  
 길에서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피합니다.  
 12 내가 죽은 자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13 참으로 나는  
 많은 사람의 비방을 들었으며,  
 사방으로부터 공포를 느낍니다.  
 나를 대항하려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 14 그러나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15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16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인애로 나를 구하소서.

- 17 여호와시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병어리 되게 하소서.
- 19 주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시고  
 주께 피하는 사람을 위해  
 인생들 앞에서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20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피로부터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혀의 다툼으로부터  
 그들을 장막에 숨기셨습니다.
- 21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견고한 성에서  
 내게 놀라운 인애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22 내가 다급할 때에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말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 23 너희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지켜 주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엄하게 갚으실 것이다.  
 24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 죄 사함 받는 기쁨

- 32 다윗의 마스길  
 1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2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 3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4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 5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 6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7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셀라
- 8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네게 지시하고 가르칠 것이니,  
 내가 너를 주목하며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  
 9 너희는 분별력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 10 악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애가 두를 것이다.  
 11 의인들이여,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기쁨으로 외쳐라.
- 여호와께 대한 찬양
- 33 1 너희 의인들이여,  
 여호와 안에서 기쁨으로 외쳐라.  
 찬양은 올바른 사람에게 합당하다.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그분께 찬양하여라.  
 3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 4 여호와와 말씀은 올바르며,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다.  
 5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땅은 여호와와 인애로 충만하다.
- 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김으로 만상이 만들어졌다.  
 7 그분께서 바다의 물을  
 무더기같이 모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두신다.
- 8 온 땅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9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니 확고히 서게 되었다.
- 10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시고,  
 민족들의 의도를 저지하셨다.  
 11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은  
 대대로 지속된다.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유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신다.  
 14 그분은 그 계신 곳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목하신다.  
 15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사를 헤아리신다.
- 16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용사가 없다.  
 17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그의 강한 힘으로도 구하지 못한다.
- 18 보아라, 여호와와 의인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곧 그 인애를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있다.
- 19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시고,  
 기근 때에 그들을 살려 주신다.
- 20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다.
- 21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니,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 22 여호와시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교훈

34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  
은 다윗의 시

- 1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자랑하니,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다.
- 3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칭송하여라.  
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 4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 5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6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 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 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10 젊은 사자들은 먹이가 없어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11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 12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것을 보기  
를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 13 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네 입술을 속이는 말로부터 지키라.
- 14 약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것을 따라라.
- 15 여호와와 눈은

-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 16 여호와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 17 의인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 18 여호와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해 주신다.
- 20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켜 주시니,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 21 악이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 22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목숨을  
구속해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 35 까닭 없이 송사 당하는 자의 기도

다윗의 시

- 1 여호와시여,  
나와 다투는 사람들과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소서.
- 2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려 일어나소서.
- 3 창을 빼어  
나를 뒤쫓는 사람들을 막아 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말씀하소서.
- 4 내 영혼을 노리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 5 그들을 바람 앞의 겨처럼 되게 하시고  
여호와와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 6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와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 7 이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구덩이에  
감추고, 까닭 없이 내 영혼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 놓았으니.
- 8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앙이  
그에게 닥치게 하소서.  
그가 감춰 놓은 그물에  
스스로 사로잡혀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 9 그때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 10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악탈자에게서 건져내십니다.”  
할 것이다.
- 11 포악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묻습니다.
- 12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갖고,  
내 영혼을 외롭게 하였습시다.
- 13 그러나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굶은 배움을 입고  
금식하여 내 몸을 겸손하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 14 나는 그를  
나의 친구나 형제처럼 대했고,  
어머니를 애도한 것처럼  
슬피 울며 엎드렸습니다.
- 15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그들이 기뻐하며 모여드니,  
비열한 자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대항하여 함께 모여,  
쉬지 않고 나를 찢습니다.
- 16 그들은 잔치자리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처럼  
나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 17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나의 영혼을  
그들의 횡포로부터 구하시며,  
나의 하나뿐인 생명을  
젊은 사자들로부터 건지소서.
- 18 그러면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 19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 없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 20 이는 저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고,  
땅에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해하며,  
21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려 말하기를  
“하하, 하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합니다.
- 22 여호와시여, 주께서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 23 깨어 일어나셔서 나를 판결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변호하소서.
- 2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시여,  
주님의 의를 따라 나를 판결하셔서,  
그들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소서.
- 25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 소원이 성취되었다.”  
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 버렸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 26 내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내게 우쭐대던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 27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그분은 자기 종의 평안을  
즐거워하신다.”  
항상 고백하게 하소서.
- 28 내 혀는 주님의 의를 선포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 악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크신 인애

- 36 지혜자를 따라 부르는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 1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2 이는 그가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하기 때문이다.  
3 그 입의 말들은 죄악과 속임뿐이니,  
그는 지혜롭게 처신하거나  
선을 행하기를 그만두었다.  
4 그는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니,  
선하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악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 5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구름에 이르렀습니다.  
6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판결은 깊은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시여,  
주께서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십니다.
- 7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8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기쁨진 것으로 배ભ리며,  
주께서 그들로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 9 참으로 생명 샘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 10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의 인애를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주님의 의를 계속 베푸소서.
- 11 교만한 사람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손이  
나를 내쫓지 못하게 하소서.
- 12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들이 엎어져 내뺨개쳐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의로우신 통치에 대한 가르침

- 37 다윗의 시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2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고  
푸른 채초처럼 말라 버릴 것이다.
- 3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라.  
4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 6 그분께서 너의 의를 빗처럼,  
너의 공평을  
대낮처럼 밝게 하실 것이다.
- 7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화내지 마라. 해로울 뿐이다.
- 9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10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이 끊어질 것이니,  
네가 그의 자리를 살피도  
그는 없을 것이다.
-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 12 악인이 의로운 자를 모해하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 13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주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  
다.
- 14 악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그 활의 시위를 당기며  
가난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을 죽이려 하나,  
15 그들의 칼은 자기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 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 17 참으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18 흠 없는 사람의 생애를 아시니,  
그의 유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 19 그들은 재난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배부를 것이다.
- 20 악인은 참으로 멸망할 것이니,  
여호와와 대적들은 무성한 풀발 같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 21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갇지 아니하나,  
의로운 사람은 너그럽게 배운다.
- 22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만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 24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 25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 26 그는 평생 동안 배풀고 꾸어 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영원토록 살 것이니,
- 28 이는 여호와께서 공평을 사랑하시며,  
경건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이다.
- 29 의인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 30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평을 말한다.
- 31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구나.
- 32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찾으나,
- 33 여호와와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심판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 34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켜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악인이 끊어질 때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 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  
푸른 나무같이 번성하나
- 36 지나면서 보니 그가 없어졌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 37 온전한 사람을 지켜 보고  
올바른 사람을 살펴보아라.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 38 범죄자들은 함께 파멸할 것이니,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다.
- 39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주님은 환난 때에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 40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구해내시니,  
주께서 그를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이다.

심한 병을 앓는 자의 기도

- 38 기뻐하게 하는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주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 2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 3 주님의 노여움으로 내 육체에  
성한 데가 없으며  
나의 죄 때문에  
내 뼈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 6 내가 꺾이고 구부러졌으며,  
온종일 울며 다닙니다.
- 7 참으로 내 허리는  
열기로 가득 찼으며,

내 육체에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 8 내가 기력이 쇠하여  
심하게 무너졌으니,  
내 마음이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9 주님, 내 모든 소원은  
주님 앞에 있으며,  
내 탄식 소리는  
주께 숨겨지지 아니합니다.  
10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기력이 쇠약해졌으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11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이  
나의 재앙을 외면하고  
내 친척들도 내게서 멀리 섰습니다.

- 12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텃을 놓고,  
내 불행을 찾는 자가 악담하며,  
온종일 속임수를 꾸밉니다.

- 13 내가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고,  
병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으니,  
14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 같고  
그 입에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 15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기다리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이지요.  
16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 17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18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19 내 원수들은 아주 강하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니,  
20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며,  
내가 선을 따르므로 나를 대적합니다.

- 21 여호와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22 어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허무한 인생이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

39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으로 부르는 다윗의 시  
1 내가 “나는 나의 길을 지켜서

- 내 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2 내가 잠잠하여 조용하였고,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고통만 더하였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 4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5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뿔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셀라  
6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 7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8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9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0 주님의 재앙을 내게서 거두소서.  
주님의 손이 치시므로  
내가 쇠잔해졌습니다.  
11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여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의 귀중한 것들을  
썩먹은 듯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한날 헛될 뿐입니다. 셀라

- 12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13 나를 응시하지 마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웃게 하소서.

재난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

- 40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2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3 주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 4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5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으니,  
아무도 주님과 견줄 자 없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말하려 하나,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 6 주께서는 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귀를 열어 주셨으며,  
번제나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때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8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 9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보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10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 11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공훈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로  
항상 나를 지키소서.  
12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 13 여호와시여,  
즐거이 나를 건져 주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14 내 목숨을 없애려고 노리는 자들은  
다 함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다 물러가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15 내게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 때문에  
경악하게 하소서.

- 16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와 위대하시다.”  
라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17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니,  
주님은 나의 도우시고,  
나를 건지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병들어 미움 받는 사람의 기도

- 41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복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자이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며  
생명을 주시니,  
그가 이 땅에서 복 받게 하시고,  
그를 그의 원수의 탐욕에  
넘겨주지 아니하신다.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불러들여 주시니,  
그가 병중에서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하신다.

- 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였습니다.
- 5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없어질까?” 합니다.
- 6 그가 나를 만나러 와서는  
마음으로 거뒀된 것만 말하고  
스스로 악한 일을 모아 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떠듭니다.
- 7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내게 대해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 8 “뭇쌀 병이 그에게 쏟아졌으니,  
그가 자리에 드러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 9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 10 그러나 주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 11 이것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고  
소리치지 못할 것을 내가 압니다.
- 12 주께서 나를  
온전하도록 붙들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소서.
- 13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 제이콘

### 하나님께 대한 소망

- 42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1 하나님이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 3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 4 전에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발하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 6 내 하나님이지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담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모산,  
미살 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 7 주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니,  
주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와 물결이  
모두 내 위를 덮습니다.

-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애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9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박 속에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 10 내 뼈를 찢듯듯이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 의를 간구하는 기도

- 43 1 하나님이지여, 나를 판결하소서.  
경건치 못한 민족과 싸우는

- 나의 송사에서 변호하시며,  
속이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 2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박 속에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 3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 4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곧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 이스라엘 백성이 무고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 44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1 하나님이지여,

-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곧 그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 2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족속들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 3 참으로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 4 하나님이지여,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아름다운 구원을 선포하소서.  
5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 주님을 의지하여 밀어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밟았습니다.

- 6 참으로 나는  
내 활을 신뢰하지 않으니,  
내 칼도

-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 8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셀라

- 9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 10 주께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탈하였습니다.

- 11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기시고,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흠으셨습니다.  
12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혈값에 파셨으니,

- 높은 값을 매기지 아니하셨습니다.

- 13 주께서는 우리를  
이웃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 14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로 만드시니,  
족속들이 보고 머리를 흔들 뿐입니다.

- 15 내 수치가 종일토록 내 앞에 있으며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 비난하고 모독하는 자의 소리와  
내게 보복하는 원수를 깨닫습니다.

-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

- 다.  
18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 19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소굴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 20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 신에게 뻗었다면,

- 21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 22 참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짐을 받았습니다.
- 23 주님,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 24 어찌하여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잊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티끌 속에 쓰러졌으며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 26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 왕의 혼례를 축하하는 노래

- 45 지휘자를 따라 소산님께 맞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 1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말로 넘쳐나서  
내가 왕께 노래를 지어 드리니,  
내 혀는  
능숙한 서기관들의 붓과 같습니다.
- 2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워  
그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 3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입으소서.
- 4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리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께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 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발아래 엎드리는구나.
- 6 하나님이지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흠입니다.
- 7 왕께서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낮게 하셨습니다.

- 8 왕의 모든 옷에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이 나고,  
상아궁에서 흘러 나오는  
향악기들 소리는 왕을 즐겁게 합니다.
- 9 왕이 귀하게 여기는 여자들 중에는  
열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벌의 금으로 단장하고  
왕의 오른쪽에서 있습니다.
- 10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거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거라.
- 11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원하실 것이다.  
그가 너의 주님이시니,  
너는 그에게 절하여라.
- 12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며,  
백성 중 부자들이  
네 은총을 구할 것이다.
- 13 왕의 딸은 왕궁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그 여자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구나.
- 14 수놓은 옷을 입은 그 여자는  
왕에게 인도함을 받으며,  
들러리 처녀들도 뒤를 따라  
왕께 인도될 것이다.
- 15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의 궁궐로 들어갈 것이다.
- 16 왕자들이 조상들의 뒤를 이을 것이니,  
왕이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 17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왕을 영원토록 칭송할 것이다.

####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 46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 일러뒀에 맞춘 노래
- 1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다.
- 2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 3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셀라

- 4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 5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므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 6 민족들이 소란하고  
왕국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소리를 발하시니,  
땅이 녹아내리는구나.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아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셀라
- 8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라.  
그분이 땅을 황폐케 하셨다.
- 9 그분이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로 태워 버리신다.
- 1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신다.
-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아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셀라

####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 47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
- 1 너희 모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 2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두려운 분이여,  
온 땅의 위대한 왕이시니,  
그분은 백성들을 우리 아래,  
죽속들을 우리 발아래 굴복시키셨다.
- 3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업을 택해 주셨으니,  
이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름의 영광이다. 셀라
- 5 하나님께서 환호 소리 중에 오르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신다.
- 6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 7 찬양하여라,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마스길로 찬양하여라.
- 8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 9 열방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일 것이며,  
세상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니,  
그분이 크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성

- 48 노래, 고라 자손의 시
- 1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 2 보방의 시온 산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되니,  
위대한 왕의 성이다.
- 3 하나님께서 그 성의 궁전에 계시니,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
- 4 보아라, 왕들이 모여  
함께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갔구나.
- 6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으니,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과 같구나.
-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신다.
-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의 성,  
곧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전고케 하실 것이다. 셀라
- 9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였습니다.
- 10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양함이  
세상 끝까지 들리니,  
주님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 11 시온 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니,  
주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 12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며  
그곳을 둘러보고  
그 땅대들을 세어 보아라.  
13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그것을 후세에 전하여라.  
14 참으로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니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 49** **부에 대한 지혜의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  
1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2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귀를 기울여라.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다.  
4 나는 잠언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 5 나를 속이는 자의 악이  
나를 둘러쌀 때에  
어찌 내가 재앙의 날들을  
두려워하랴?  
6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나,  
7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은,  
8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으며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 10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도  
다 같이 망하여,  
그들의 재산을 타인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것을  
그가 볼 것이다.  
11 그들이 속으로  
자기들의 집이 영원하다 하고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이라 하여

-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12 사람이 고귀해도  
계속 살 수는 없으니,  
그 또한 멸망할 짐승과 같구나.  
13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후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셀라  
14 그들이 양처럼 스올로 내려가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형상은 소멸하여  
스올이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15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  
셀라  
16 어떤 이가 부자가 되어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17 이는 저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며  
그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갈 수 없다.  
18 그가 비록  
생전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선을 행하므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19 그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 재판하러 시온에서 오시는 하나님

- 50** **아삽의 시**  
1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  
3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것이니,  
그분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분 주위에는 강풍이 있을 것이다.  
4 그분이 위에서 하들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5 “너희는 내 성도들을

- 내게로 모아라.  
그들은 나와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6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7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8 나는 네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9 내가 네 집에 있는 수소나,  
네 우리에 있는 숫염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10 이는 숲 속의 모든 동물과  
온갖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며,  
11 산에 있는 모든 새를 내가 알고  
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내 것이다.  
12 만일 내가 주린다 해도  
네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계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13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을 갚아라.  
15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 16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율례들을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고 있느냐?  
17 네가 혼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친분을 맺고,  
간음하는 자와 한 패가 되었다.  
19 너는 네 입을 악에 내어주고,  
네 혀는 속임수와 꺾혔구나.  
20 네가 앉아서는 네 형제를 비방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난하는구나.  
21 네가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네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23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

- 51**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다윗이 밧 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1 하나님이니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2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3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 내가 주께,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5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8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 기뻐 떨 것입니다.  
9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숨기시고  
내 모든 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지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1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지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 13 그러면 내가 범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14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 허가 주님의 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15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으로 전파하겠습니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 18 주님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19 그때에 주께서 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들을 주님의 단에  
드릴 것입니다.

### 인애하신 하나님

- 52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예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게 가서 “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알  
렸을 때  
1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항상 있다.  
2 네 허가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사랑한다. 셀라  
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 버릴 것이며,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네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이다. 셀라  
6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7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던 자이다.”  
할 것이다.
-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하므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 어리석은 자의 무신론적 고백

- 53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다윗의 마스길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은 부패하고,  
역겨운 악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 2 하나님께서 지각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니,  
3 그들 모두가 빛나가 함께 부패했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 4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 5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며  
너를 향하여 진을 친 자의 뼈를  
흘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다.
-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아람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 내 생명을 불드시는 하나님

- 54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마스길,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라고 말했  
을 때  
1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2 하나님이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 3 낯선 자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며,  
난폭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셀라
- 4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입니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악을 갚으실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 내가 자원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 7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니,  
내 눈이  
원수들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 55 배신당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마스길  
1 하나님이지요,  
내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 2 내가 간구할 때에 외면하지 마소서.  
나를 살펴보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불만 가운데 편지 못하여  
신음하니,  
3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게 죄악을 더하며  
분노로 나를 핍박합니다.
- 4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밀려오고  
공포가 나를 덮쳐 옵니다.  
6 내가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편히 쉴 것이다.”  
7 참으로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 머물 것이다. 셀라  
8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의 세찬 바람을 피할 것이다.”  
합니다.
- 9 주님,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이 밭낮으로  
성벽 주위를 돌아다니니,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있고  
11 파괴가 그 안에 있으며,  
광장에는 압제와 속임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 12 나를 조롱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숨었을 것이다.
- 13 그러나 그것은 바로 너,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의 동료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이다.
- 14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전에서  
푸리들과 어울려 다녔다.  
15 무덤이 그들 위에 있어  
그들을 산 채로  
스스로 내려가게 하여라.  
이는 죄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 16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18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항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나를 치는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속하실 것이다.  
19 아주 먼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니, 셀라  
그들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20 그는 손을 들어 친구를 치고,  
그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21 그의 입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우나  
그 마음은 다름으로 가득하다.  
그의 말은 기쁨보다 부드러워도  
실상은 뽀얀 칼이다.

22 네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23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 원수들의 폭력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

56 지휘자를 따라 요넳 엘렘 르호김에 맞춘  
다윗의 미담. 그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1 하나님이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온종일 나를 치며 억압합니다.  
2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짓밟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게 칩니다.  
3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4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5 그들이 종일 내 말을 트집 잡으니,  
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6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생명을 노리듯이  
내 발길을 지켜 봅니다.  
7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분노하시어  
백성들을 낮추소서.

8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9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10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 안에서  
내가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11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12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13 이는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57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다윗의  
미담.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1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할 것이니,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3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짓밟는 자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4 이 생명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불사르는 자 중에  
내가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5 하나님이지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6 그들이 내 발에 그물을 놓아서  
내 영혼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셀라

7 하나님이지요,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8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9 주님,  
내가 백성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0 참으로 주님의 인애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 이릅니다.

11 하나님이지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 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58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다윗의 미담  
1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느냐?  
2 오히려 너희가 마음에 악을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는구나.

3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결길로 갔으며,  
나면서부터 빛나가서  
거짓을 말하는구나.

4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 그것은 뱀을 부리는 사람의 소리나  
숙련된 마법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한다.

6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부러뜨리소서.  
여호와시여, 젊은 사자의 강한 이빨을  
뽑아주소서.

7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에  
꺾인 화살처럼 되게 하소서.

8 그들이 녹아내리는 달팽이처럼  
되게 하시고,  
햇빛을 보지 못한  
유산된 아이 같게 하소서.

9 가시나무의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이든 불붙은 것이든  
주께서 폭풍으로 날려버리실 것이다.

10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그는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을 것이다.

11 그때에 사람들이  
“참으로 의인에게는 보답이 있으며,  
참으로 땅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것이다.

#### 원수로부터의 구원

59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다윗의 미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1 나의 하나님, 내 원수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2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보소서,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숨어 기다리며  
흉악한 자들이 모여  
나를 대적합니다.  
여호와시여, 나는 잘못도 없으며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4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 싸우려 하오니,  
일어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살피소서.  
5 주님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서 모든 민족을 벌하소서.  
모든 간사한 악인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6 저녁만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7 보소서, 그들은 입에 거품을 뿜고  
그들의 입술에 같이 있으며  
“누가 들으랴?” 합니다.

8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주께서 온 민족을 조롱하십니다.  
9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님을 자랑 것이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10 나의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11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내 백성이 있을까 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홀으시고  
끌어내려 주소서.  
12 그들의 입의 죄와  
입술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3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14 저녁만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15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16 그러나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님의 인애를  
높이 찬양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의 요새시고,  
내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7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이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여호와

60 지휘자를 따라 수산에돗에 맞춘 노래, 교훈  
하기 위한 다윗의 믹담. 다윗이 아람 나하라  
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  
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이천 명을  
죽였을 때

1 하나님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홀으시고  
진노하셨으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 주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니,  
그 갈라진 것을 고쳐주소서.  
3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4 주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깃발을 주시고,  
화살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셀라

5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6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며,  
세겜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7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이고,  
유다는 내 지휘봉이다.  
8 모압은 내 목욕통으로 삼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크게 외쳐라.”

9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10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1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입니다.  
12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용감히 행할 것이니,  
주께서 우리 대적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61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1 하나님이지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소서.  
2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가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3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 줄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4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까. 셀라  
5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6 주께서 왕의 날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연수가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  
7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베푸셔서  
그를 지키소서.

8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내가 항상 찬송하며,  
맹세한 것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62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다윗의 시  
1 오직 하나님께  
내영혼이 잠잠히 있음이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2 오직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3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너희가 다 함께  
사람을 습격하려느냐?  
4 오직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리려 꾀하며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 셀라

5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음이며,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6 오직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견고한 반석,  
곧 피난처가 하나님이다.

8 백성아,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다. 셀라  
9 참으로 찬한 자도 헛되며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볍다.  
10 포화를 의지하지 말고,  
탈취물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11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그것을 두 번 내가 들었으니,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12 주님,  
인애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 주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

63 다윗의 시,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1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2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3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 5 내 영혼이 가장 좋고 기쁨진 것을  
먹은 것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뻐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 6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7 참으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으니,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 8 내 영혼이 주께 매달리니,  
이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지만,
- 9 나의 영혼을 멸하려 찾는 사람들은  
땅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10 그들은 칼의 힘에 내맡겨져

자칼의 발이 될 것입니다.  
11 그러나 왕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께 맹세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니  
저것을 말하는 입은 막힐 것입니다.

#### 숨겨주시는 하나님

- 64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하나님께서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생명을 원수의 위협에서  
보호하소서.
- 2 악인들이 음모할 때  
나를 숨겨 주시고,  
행악자들의 무리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 3 그들은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하며  
독한 말을 화살처럼 겨누어  
4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 5 그들은 서로 악한 일을 부추기고  
몰래 덫을 놓으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 6 그들은 불의한 일을 꾸미고는  
“우리가 꾸민 계략이 완전하다.”  
라고 하니,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 7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시니,  
그들이 순식간에 상처를 입으며  
8 그들이 자신들의 혀 때문에  
넘어지니,  
그들을 보는 자는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 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 10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께 피할 것이니,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모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 65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노래  
1 하나님께서,  
잠잠함이 주님 앞에 있고,  
찬송이 시온에 있으며,  
주께 대한 서원이 이행됩니다.
- 2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 3 악한 것들이 나를 이겼으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우리가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  
곧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 5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은 놀랍고 의로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땅 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분이십니다.
- 6 주님은 힘으로 산을 견고히 세우셨고,  
권능으로 떠를 파셨으며,  
7 거친 바다와 세찬 파도와  
백성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 8 땅 끝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 9 주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넘치게 대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내가 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해 주셨으니,  
주께서 땅을 이와 같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넘치게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어 싹이 자라도록  
복을 주십니다.
- 11 주께서 한 해를  
주님의 좋은 것으로 관 씌우시니,  
주께서 가시는 길에 기쁨이 흐릅니다.
- 12 광야의 초장에도 기쁨이 떨어지니,  
언덕도 기쁨으로 떠를 두릅니다.
- 13 목장은 양 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그들이 크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 66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크게 외치라.  
2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하여라.
- 3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일이 어찌 그리 두려운지요.  
주님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님의 원수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여라. 셀라
- 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이루신 일들이 두렵다.
- 6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니,  
그들이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 7 그분은 자기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이 민족들을 살피시니,  
반역자들은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셀라

- 8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 9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 10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은을 제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 11 주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 12 주께서  
사람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였고,  
우리가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 13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 14 그것은 내가 곤고할 때에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말했던 것입니다.
- 15 주께 기쁨진 번제를  
숫양의 향기와 함께 드리고,  
황소를 숫염소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셀라
- 16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와서 들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 17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부르며,  
내 혀로 높일 것이다.
- 18 만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 19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20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인애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 주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기도

- 67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시, 노래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2 주님의 길을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 중에 알리소서.  
3 하나님이지여,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4 족속들로 기뻐하고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땅 위의 족속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5 하나님이지여,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6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할 것이다.

#### 원수들을 홀으시는 여호와

68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노래  
1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2 연기가 흠어지듯이  
주께서 그들을 홀으소서.  
밀랍이 불 앞에서 녹듯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3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4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광야에서 타고 오시는 분을 높여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5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6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어 살게 하시며

간헐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매마른 땅에서 산다.

7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8 시내 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진동하고  
또한 하늘은 비를 쏟았습니다.  
9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흠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의 유업이 곤비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10 주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11 주께서 명을 내리시니,  
그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이다.  
12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였으니,  
집안의 여자도 전리품을 나누는구나.  
13 비록 너희가 양 우리에 누웠으나,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털을 빛나는 금빛으로 입힌  
비둘기 같았다.  
14 전능하신 분께서 그곳에서  
왕들을 홀으실 때에,  
살문에 눈이 홀날림 같았다.

15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이며,  
매우 높은 산은 바산의 산이다.  
16 너희 높은 산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곳에 영원히 계시실 것이다.  
17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고 만만이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  
마치 시내 산 성소에 계시듯 같다.  
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이끄시며,  
사람들에게 심지어 반역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시려는 것이다.

19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셀라  
20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남이  
여호와께 있다.  
21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자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  
22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이끌어 내며,  
내가 그들을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이끌어 낼 것이다.”  
23 너는 원수의 피를 너희 발로 차고  
너의 개들의 혀가 원수들로부터  
자기들의 뺨을 얻을 것이다.”

24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주님의 장엄한 행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25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뒤따르며,  
그 중간에는  
작은 복을 치는 처녀들이 있다.  
26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근원이시니,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27 작은 베냐민이 선두에 서고,  
유다 지도자들이  
저들 무리 가운데 있으며,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도  
함께 있다.

28 네 하나님께서 네게 힘을 베푸셨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로 힘을 나타내소서.  
29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30 갈대 숲에 사는 짐승들과  
황소의 무리와 백성들의  
송아지 떼를 꾸짖으시며,  
은을 조각내어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홀으소서.  
31 사신들이 이집트에서 오며  
에티오피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 손을 들 것이다.

32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여라. 셀라  
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여라.

보아라.  
주께서 그분의 음성을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이다.  
34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다.  
35 주님의 성소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니,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69 지휘자를 따라 소산년에 맞춘 다윗의 시  
1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목까지 찼습니다.  
2 내가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홍수가 나를 덮칩니다.  
3 내가 부르짖다가 기진하여  
목이 쉬었고,  
내 하나님을 바램으로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멸하려는 거짓된 원수가 강하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5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 어리석음을 아시니,  
내 죄를 주께 감추 수 없습니다.  
6 주 만군의 여호와이시여,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찾는 사람이 나 때문에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7 주님을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8 나는 내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였으며,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조차  
소외당하였습니다.

9 주님의 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목욕이  
내게 미쳤습니다.  
10 내가 참으로 금식 중에 올었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11 내가 배움을 입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 12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바웃으니,  
나는 술주정꾼의 노릇저리가 되었습니다.
- 13 그러나 여호와시여,  
내가 은혜의 때에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크신 인에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 15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 16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에는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긍휼이 크시니,  
내게로 돌이키소서.
- 17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 18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내 대적에게서 나를 속량하소서.
- 19 주께서 내가 받는  
비방과 수치와 치욕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이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 20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동정을 바랐으나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이들을 바랐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 21 그들이 음식 대신 독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 22 그들 앞에 놓인 식탁이  
울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떨어지게 하소서.
-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허리를  
항상 가누지 못하게 하소서.
- 24 주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 그들에게 이르게 하소서.
- 25 그들의 처소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 26 이는 그들이 주께서 치신 사람들을  
박해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사람들의 고통을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 27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 28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 29 나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은 곳에 있게 하소서.
-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일 것이다.
- 31 이것이 수소를 드림보다,  
꿩과 말굽을 가진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 32 겸손한 이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여,  
너희 마음이 소생할 것이다.
- 33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들으시며,  
포로 된 그분의 백성을  
멀리치 아니하신다.
- 34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찬양하여라.
- 35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 살며,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 36 그분의 종들의 자녀가  
그것을 상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 것이다.

#### 신속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 70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기념하게 하는 시
- 1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 2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치욕을 받게 하소서.
- 3 “아하, 아하,”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치 때문에 물러가게 하소서.
- 4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이시여, 어서 내게 임하소서.  
주께서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니,  
여호와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 71 소망과 신뢰가 되신 여호와
- 1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 2 주님의 의로 나를 구출하고 건지시며,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 3 주께서는 내가 언제나 가서 머물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소서.  
참으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 4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지소서.
- 5 주 여호와시여,  
참으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해 온 분이십니다.
- 6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고,  
주께서 나를 모친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 7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히 여겼으나,  
주께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 8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온종일 내 입에 가득합니다.
- 9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기력이 쇠할 때

- 나를 떠나지 마소서.
- 10 내 원수가 나에 대해 말하며,  
나의 생명을 엿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의하며
- 11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추격하여 그를 잡아라.  
그를 구출해 줄 자가 없다.”  
라고 합니다.
- 12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13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 14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 15 내가 비록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내 입이 주님의 의와 주님의 구원을  
온종일 전하겠습니다.
- 16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의 의,  
곧 주님만 선포하겠습니다.
- 17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으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 18 하나님이시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님의 힘을 이 세대에게,  
주님의 능력을 장차 올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기까지 그렇게 하소서.
- 19 하나님이시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의가 높은 곳까지 미쳤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 20 주께서 내게  
많은 고난과 재난을 겪게 하셨어도,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 속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 21 주께서 나를 더욱 위대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위로하소서.
- 22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진리 때문에

내가 비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23 내가 주께 찬송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니,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그리할 것입니다.  
24 또한 내 혀가 종일도록  
주님의 의를 말할 것이니,  
이는 나를 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 왕을 위한 기도

**72** 솔로몬의 시  
1 하나님이지여,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주소서.  
2 그가 의로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판결할 것이니,  
3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작은 산들도 의를 통하여  
그렇게 하여라.  
4 그가 백성 중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고,  
궁핍한 사람의 자녀를 구하며,  
압제자를 꺾을 것이다.  
5 해가 있는 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대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6 그가 배어 낸 풀 위에  
비같이 내려오며,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될 것이니,  
7 그의 날 동안 의가 번성하며  
달이 다하기까지  
평강이 풍성할 것이다.

8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니,  
9 광야에 사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가 티끌을 핥을 것이다.  
10 다스스와 섬의 왕들이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11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12 참으로 그가 부르짖는 궁핍한 사람을  
건지고,  
도울 사람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할 것이다.  
13 그가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궁홀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14 그가 압제와 폭력에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의 피를 귀히 여길 것이다.  
15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스바 사람이  
그에게 금을 바치며,  
백성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온종일 그를 위해 복을 빌 것이다.  
16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물결 치며,  
그 열매는 레바논 같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풀처럼 번성할 것이다.  
17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계속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18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19 영원히 그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다.

### 제 삼권

#### 힘과 분깃이 되신 여호와

**73** 아삽의 시  
1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시다.  
2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 그것은 내가 악인의 행동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이 전강하며,  
5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6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폭력이 그들의 입은 옷이며,  
7 그들의 눈꺼풀은 살쥘서 부풀었고,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다.  
8 그들은 비웃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압제하는 말을 하고,  
9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항하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10 그러므로 그 백성이 여기로 돌아와서  
많은 물을 마시고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구나.  
12 보아라, 이들은 악한 자들이나  
항상 평안하며 재산이 늘어난다.  
13 참으로 헛되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내 손을 무죄하도록  
헛되이 씻었구나.  
14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15 만일 “나도 그들처럼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들의 세대를  
배신한 것이 될 것이다.  
16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힘들었으나,  
17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18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19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20 주님,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을 무시는 것처럼,  
주께서 깨시어  
그들의 환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21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심장이 찢렸습니다.  
22 내가 우둔하고 무지하였으며,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23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24 주께서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니,

25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26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뭍입니다.  
27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28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내가 주 여호와의 내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74** 아삽의 마스길  
1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초장의 양 떼에게  
진노하십니까?  
2 주께서 엽적에 사서 구속하시고  
주님의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주께서 머무시는 시온 산을  
기억하소서.  
3 영영히 패허가 된 곳으로  
주님의 걸음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소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4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회중 가운데서 소동하였고,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습니다.  
5 그들은 나무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6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7 주님의 성소에 불지르고,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더럽혔습니다.  
8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그들을 진멸하자.”  
하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9 우리는 어떤 표적도 보지 못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 10 하나님 이시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원수가 주님의 이름을  
영영히 모독하겠습니까?  
11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님의 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을 품에서 빼어  
그들을 멸하소서.
- 12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땅에서 구원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13 주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에 있는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 14 주께서  
"리워야"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 15 주께서 샘과 강을 터뜨리시고,  
주께서 항상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 16 낮도 주님의 것이며,  
밤도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습니다.  
17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 18 여호와시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님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 19 주님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 20 주님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 땅의 어두운 곳들이  
폭행의 소굴로 가득합니다.
- 21 억눌린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 22 하나님 이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소송을 제기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온종일 주님을 비방하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 23 주님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주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소동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 75** 지휘자를 따라 일다스헷에 맞춘  
아삽의 시, 노래
- 1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 2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  
3 땅과 그 안의 모든 거민이 요동할 때,  
바로 내가 땅의 기둥을  
흔들고 세웠다. 셀라
- 4 내가 오만한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굴지 마라.' 하였으며,  
악한 사람들에게 '빨을 들지 마라.  
5 네 빨을 높이 들지 말며,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마라.' 하였다."
- 6 참으로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 나오지 않으며,  
광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7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 8 참으로 여호와와 손에 잔이 있으니,  
혼합하여 발효시킨 포도주가  
가득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부으실 것이니,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 9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며,  
아굽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 10 주께서 악인의 빨을  
모두 꺾으실 것이니,  
악인의 빨은 높이 들릴 것이다.

###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 76**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아삽의 시, 노래
- 1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다.
- 2 그분의 장막은 실렘에 있고,

- 그분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 3 거기서 그분은  
화살과 방패를 부수시고  
칼과 전쟁 무기를 부수셨다. 셀라
- 4 주께서는 영화로우시며,  
전리품의 산들보다도 존귀하십니다.
- 5 마음이 강한 사람도  
탈취를 당하고 잠을 자며,  
모든 용사도 손을 놀리지 못합니다.
- 6 아굽의 하나님 이시여,  
주님의 꾸짖으심에  
기병과 말도 잠들었습니다.
- 7 주님, 주님만이 두려운 분이시니,  
주께서 노하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 8 주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선언하시므로,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9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압박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던 때입니다. 셀라
- 10 참으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자의 분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 11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분을 에워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려라.
- 12 주께서 통치자들의 영혼을 끊으시니,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다.

###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 77**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에 맞춘 아삽의 시
- 1 내가 소리로 하나님께,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고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며  
불평하니,  
내 영이 쇠약해집니다. 셀라
- 4 주께서 내 눈꺼풀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도 채 못합니다.

- 5 내가 먼 옛날,  
곧 태고의 때를 생각합니다.
- 6 내가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되새기며,  
내 영이 찾습니다.
-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는가?
- 8 주님의 인애를 영영히 끊으시려는가?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는가?
- 9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노하시어 그분의 긍휼을  
막으셨는가? 셀라
- 10 내가 말하기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 하였다.
- 11 곧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 12 내가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겠습니다.
- 13 하나님 이시여,  
주님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누구겠습니까?
- 14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백성들 중에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 15 주께서 팔로  
주님의 백성을 구속하셨으니,  
곧 아굽과 요셉 자손을  
구속하셨습니다. 셀라
- 16 하나님이시여, 물들이 주님을 보았고  
물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깊은 바다들도 떨었습니다.
- 17 구름이 물을 쏟고,  
하늘이 소리를 내며,  
주님의 화살도 날아갔습니다.
- 18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리바람 가운데 있고,  
번개가 세상을 밝혔으며,  
땅이 떨고 진동하였습니다.
- 19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그 행로가 큰 물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발자취는 알 수 없습니다.
- 20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끄셨습니다.

## 자기 백성에게 역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 78 아삽의 마스길  
 1 내 백성이여, 나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2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할 것이다.  
 3 그것은 우리가 들어 아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것이다.  
 4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와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후손 대대로 전할 것이다.
- 5 주께서 아담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율법을 정하셨을 때에,  
 그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명령하셨다.
- 6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고,  
 7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고  
 8 그 조상과 같이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으며  
 그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여  
 그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9 에브라임 자손들은  
 활로 무장한 궁수였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섰다.  
 10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11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잊고  
 그들에게 보여 주신  
 놀라운 일을 잊었다.  
 12 주께서 그 조상 앞에서  
 이적을 행하셨으니,  
 이집트 땅, 소안 들판에서 행하셨다.  
 13 주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로 건너가게 하셨으며,  
 물을 독처럼 서게 하셨다.  
 14 그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15 주께서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어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 물을 흡족히 마시게 하셨으며,  
 16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고,  
 물이 강처럼 흘러 내리게 하셨다.
- 17 그러나 그들은  
 주께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반역하였다.  
 18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였으며,  
 19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느냐?”  
 20 보아라.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시내가 넘쳐흐르게 하였으나  
 자기 백성을 위해 빵도 주고  
 고기도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크게 노하시어, 불이 아담을 사르고,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으니,  
 22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주께서는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령하여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24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곡식을 주셨고  
 25 사람들이  
 천사들의 빵을 먹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음식을 보내어  
 배부르게 하셨다.
- 26 주께서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그 권능으로 남풍을 불게 하시어,  
 27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내리시고  
 날개 달린 새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주셨다.
- 28 주께서 그것들을 그들의 진 가운데  
 내리게 하셨으니,  
 그들이 사는 곳 주위에  
 내리게 하셨으므로  
 29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주셨기 때문이다.
- 30 그러나 그들이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31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므로,  
 그들 중 살진 사람들을 쳐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엎드러지게 하셨다.
- 32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믿지 않았다.
- 33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끝나게 하셨고,  
 그들의 헛수를 두려움 속에서  
 끝나게 하셨다.
- 34 주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주님을 찾아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고  
 35 그제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 36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주께 아첨하며,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으니,  
 37 주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 38 그러나 주께서 공허로  
 그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으며  
 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진노를 결코 다 발하지 않으셨으니,  
 39 그들이 한낱 육체이며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 40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주님을 반역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41 그들이 거들거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괴롭게 하였다.
- 42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 43 그 날에 주께서  
 이집트에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소안 들판에서 이적들을 나타내셨다.
- 44 주께서 그들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어  
 그들이 그들의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고,  
 45 파리 떼를 보내어  
 그들을 먹게 하시며,
- 개구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황폐하게 하셨다.
- 46 그들의 농작물을 황충에게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산물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 47 주께서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죽이시고,  
 서로로 그들의 시카모어 나무를  
 죽이셨으며,  
 48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양 떼를 번개에게 내어주셨다.
- 49 주께서 그들에게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통을 보내시고  
 재앙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 50 주께서 분노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의 목숨을 전염병에 내어주셨다.
- 51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를 치셨으며,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힘의 첫 열매를 치셨으나  
 52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양처럼 이끄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양 떼처럼 인도하셨으며,  
 53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므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다는 그들의 원수들을 덮었다.
- 54 주께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영토로 데려오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얻으신 산으로  
 데려오셨으며  
 55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줄로 재어  
 유업을 분배하시며,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 56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57 그들의 선조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하였으며,  
 속이는 활처럼 밧가서  
 58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 59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 60 하나님께서 실로의 거처,  
 곧 그분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 장막을 버리셨다.  
 61 자기 권능을 포로로 넘겨주시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62 자기 백성을 칼에 내어주시고  
 자기 유업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63 젊은이들은 불에 삼켜지고,  
 처녀들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었으며  
 64 제사장들은 칼에 넘어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65 그러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듯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고  
 66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셨다.
- 67 주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68 주께서 유다 지파,  
 곧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셨다.  
 69 주께서 성소를  
 하늘처럼 높게 지으시고  
 땅처럼 영원히 세우셨다.  
 70 주께서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양 우리에서 뽑으셨으니,  
 71 젖양을 따라다니던 그를 이끌어내어  
 그분의 백성 아람과 그분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72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 구원의 하나님

- 79 아삽의 시  
 1 하나님이지여,  
 민족들이 주님의 유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였습니다.  
 2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며  
 경건한 사람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3 사람들의 피가 물처럼  
 예루살렘 사면에 흘렸건만,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 사망의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5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영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6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위에 쏟아 주소서.  
 7 이는 그들이 아담을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 8 선조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매우 비천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 10 어찌하여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민족들에게 알게 하소서.
- 11 강건자의 탄식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게 된 자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소서.
- 12 주님,  
 우리 이웃이 주님을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일곱 배로 갚으소서.
- 13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목장의 양이오니,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며,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 80 지휘자를 따라 소산님에듯이 맞춘 아삽의 시  
 1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을 사이에 앉으신 주님,  
 빛을 비추소서.
- 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 3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

- 4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지여,  
 언제까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노하시렵니까?
- 5 주께서 눈물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 6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시뻐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함께 비웃습니다.
- 7 만군의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
- 8 주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를 뽑아 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 9 주께서 그 나무를 위해  
 땅을 고르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 10 산들이 그 그늘로 덮였고  
 하나님의 백향목들도  
 그 가지들로 덮였습니다.
-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그 새순이 강까지 뻗었습니다.
- 12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그 울타리를 허시고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포도송이를 따게 하십니까?
- 13 수풀의 멧돼지가 그것을 찢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 14 만군의 하나님이지여,  
 돌이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 15 그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심으신 짝이고,  
 주님을 위해 강하게 하신 가지입니다.
- 16 그것이 배어져 불에 탔고  
 주님의 꾸짖음에 그들이 멸망합니다.
- 17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곧 주님을 위해 강하게 하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 18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 19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

###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

- 81 지휘자를 따라 깃딿에 맞춘 아삽의 시  
 1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아람의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 2 찬송을 높이 부르고 소고를 치며  
 비파와 함께 아름다운 수금을  
 연주하여라.
- 3 초하룻날과 보름날,  
 우리 축제의 날에 나팔을 불어라.
- 4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이며,  
 아람의 하나님의 법도이다.
- 5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을 위해 그것을 증거로 세우셨고,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는다.
- 6 “내가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었고,  
 네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 7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건져 주었고,  
 천둥 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네게 응답하였으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셀라
- 8 내 백성이여 들어라.  
 오, 이스라엘이여,  
 만약 내가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네게 혼계할 것이다.
- 9 네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 10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 줄 것이다.
- 11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 12 내가 그들을  
 완고한 마음대로 버려두어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였다.
- 13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의 원수를 당장 굴복시키고

- 내 손이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15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앞에 순종하는 체하나  
 그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16 내가 너에게  
 기름진 밀을 먹게 하였고  
 반석에서 나온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다.”

### 신들 가운데 좌정하신 재판장, 하나님

- 82** 아삽의 시  
 1 하나님께서 신의 회중에서  
 일어나  
 “재판장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2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며,  
 약인의 낫을 세워 주겠느냐? 셀라  
 3 약한 자와 고아를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과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4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전혀 주고  
 약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5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어둠 중에 헤매니,  
 온 땅의 기초가 모두 흔들리는구나.  
 6 내가 말한다. “너희는 신들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나  
 7 너희는 인간처럼 죽으며,  
 다른 지도자들처럼 썩어질 것이다.”  
 8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여호와, 땅위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 83** 노래, 아삽의 시  
 1 “하나님이시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2 보소서,  
 주님의 원수가 소동하고 있으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를 치켜들었다.  
 3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보호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 모의하고 있습니다.  
 4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저들을 멸하여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라고 합니다.  
 5 참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의하며,  
 주님을 대적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6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과 모압과  
 하갈 사람의 장막과  
 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주민이며,  
 8 아시리아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힘이 되었습니다. 셀라  
 9 주께서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시고,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아빈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10 그들이 언돌에서 멸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11 그들의 귀족이  
 오렐과 스엠퍼처럼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고관이  
 세바와 살문처럼 되게 하소서.  
 12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였습니다.  
 13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처럼,  
 바람 앞의 쪽정이처럼 되게 하소서.  
 14 불이 숲을 사르듯이  
 불길의 산을 태우듯이  
 15 그렇게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태풍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소서.  
 16 여호와시여,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영영 당황하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18 참으로 주께서는  
 이름이 여호와이시며,  
 주께서만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소서.

### 여호와와 공전을 사모하는 영혼

- 84** 지휘자를 따라 깃딤에 맞춘 고라 자손의 시  
 1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공전을 사모하여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3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 둥지를 얻습니다.  
 4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5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뒀습니다.  
 7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입니다.  
 8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아람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소서.  
 10 주님의 궁전에서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으며,  
 약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11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12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 85**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  
 1 여호와시여,

-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가 된 아람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 주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3 주께서 모든 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노를 그치소서.  
 5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6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7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8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9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가까우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10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며  
 11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12 참으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13 의가 주님의 앞에 가며,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한다.

### 크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 86** 다윗의 기도  
 1 여호와시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님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 '신들'로도 번역할 수 있음.

가) '바가'로도 번역할 수 있음.



- 2 나는 경건하니 내 영혼을 지키소서.  
주님은 내 하나님이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소서.
- 3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 4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니,  
주님의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 5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인애가 풍성하십니다.
- 6 여호와시여, 내 기도도 귀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 7 내가 환난의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 8 주님, 신들 중에  
주님과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한  
신도 없습니다.
- 9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  
그들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 10 주님은 위대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주께서만 홀로 하나님입니다.
- 11 여호와시여,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 12 주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 13 나를 향한 주님의 인애가 크셔서  
주께서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 14 하나님이니,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공격하며  
난폭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 15 그러나 주님,  
주님은 공홀히 여기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니,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시니,  
내게로 돌아서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며,  
주님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 17 주님의 은총의 징표를  
내게 보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을

- 87 고라 자손의 시, 노래  
1 그 터가 거룩한 산에 있다.
- 2 여호와께서  
아람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구나.  
셀라
- 4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에 대하여  
나를 아는 나라로 기억할 것이다.  
보아라,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는  
이것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 5 시온에 대하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곳에서 났으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것을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 6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라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 7 노래하는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근본이 네게 있다.”  
라고 할 것이다.

### 축약에 거하는 자의 기도

- 88 노래,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안눈에 맞춘  
고라 자손의 시,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  
길
- 1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 2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 3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 찼고,  
내 생명이 스올에 이르렀습니다.
- 4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고,  
살육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 주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되었습니다.
- 6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 7 주님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누르고,  
주께서 모든 파도로  
나를 덮치십니다. 셀라
- 8 내가 아는 사람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혐오거리가 되게 하시니,  
나는 간혀서 나갈 수 없습니다.
- 9 고난으로 내 눈이 흐려졌으니,  
여호와시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주께로 뻗니다.
- 10 주께서 죽은 자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의 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셀라
- 11 주님의 인애가 무덤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됩니까?  
어둠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땅각의 땅에서  
주님의 의가 알려질니까?
- 13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 14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15 어려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님의 두려움을 겪으므로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16 주님의 진노가 나를 덮치고,

- 17 주님의 무서움이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것들이 물처럼 온종일  
나를 에워싸고  
다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 18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내가 아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 89 에스라 사람 예단의 마스길  
1 내가 여호와와 인애를  
영원히 노래하며,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대대에 알리겠습니다.
- 2 내가 말하기를  
“주님의 인애가 영원히 세워지고,  
주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 3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며,  
네 보좌를 대대로 세울 것이다.” 셀라
- 5 여호와시여, 하늘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 6 하늘에서  
누가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으며  
신들의 아들 중에  
누가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 7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매우 위엄이 있고,  
둘러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두려운 분이십니다.
- 8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니,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돌렸습니다.
- 9 주께서 바다의 거만함을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주께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 10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님의 원수를 주님의 강한 팔로  
홀으셨습니다.
- 11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니,

- 주께서 세계와 그 중의 충만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12 남과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외칩니다.  
13 주님의 팔은 능력이 있고,  
주님의 손은 강하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으십니다.  
14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인애와 진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15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그들은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닙니다.  
16 그들이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의로 높아집니다.  
17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뿔이 높아지며  
18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와 것이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속하였  
습니다.  
19 주께서 이상 중에  
주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높였다.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쁨을 그에게 부었다.  
21 내 손이 그를 굳게 붙잡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22 원수도 그를 속이지 못하며  
불의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23 내가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깨뜨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칠 것이다.  
24 나의 신실함과 인애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25 내가 그의 손을 그 바다 위에 두고,  
그의 오른손을  
그 강들 위에 둘 것이다.  
26 그가 나를 일컬어  
‘주께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다.’  
할 것이다.  
27 내가 또 그를 내 만이들로 삼고,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니,  
28 내가 그를 위하여

- 내 인애를 영원히 간직하고,  
그를 위해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29 내가 그의 후손을 영구히 잇게 하고,  
그의 보좌를  
하늘의 날들 같게 할 것이다. 셀라  
30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며,  
31 그들이 내 규례를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2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33 그러나 내 인애를  
그에게서 거두지 않고,  
내 신실함도 버리지 않으며  
34 내가 내 언약을 깨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35 내가 내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36 그의 자손은 영원히 있으며,  
그의 보좌가 내 앞에서  
해와 같을 것이다.  
37 하늘에 신실한 증인은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셀라  
38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쁨 부음받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39 주께서 주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40 주께서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하셨으므로  
41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였으며,  
그는 자기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42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가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43 주께서 그의 갈날을 무디게 하시어  
그가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44 그의 영화를 그치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으며,  
45 그의 젊음의 날들을 단축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셀라

- 46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스스로  
준근시겠습니까?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시겠습니까?  
47 내 생애가 어떠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48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으며,  
스울의 권세에서  
자기 영혼을 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셀라  
49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처음의 인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50 주님,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비방받으며  
어떻게 내가 모든 많은 민족의 비방을  
내 품에 품었는지 기억하소서.  
51 여호와시여,  
주님의 원수들이 비방하였으니,  
주님의 기쁨 부음받은 사람의 발자취를  
비방하였습니다.  
52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여라.  
아멘, 아멘.

## 제 90편

### 우리의 거처가 되신 여호와

- 90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 주님,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이여, 너희는 돌아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4 주님의 앞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습니다.  
5 주께서 그들을 쓸어 가시면  
그들이 잠들게 되니,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6 아침에 그것이 꽃을 피우며 자라다가

-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버리고 맙니다.  
7 우리가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노에 놀랍니다.  
8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9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고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람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11 누가 주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12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 여호와시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15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앙을 본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주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17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 91 1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2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3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4 주께서 너를 깃으로 덮으시고,



- 네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 5 네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6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 7 천 명이 네 곁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네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8 너는 오직 눈으로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9 참으로 네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 11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12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이다.
- 14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 15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일 것이다.”

위대하신 주님의 일

- 92 시, 안식일의 노래
- 1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2 아침에 주님의 인애를  
밤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열 줄 현악기와 비파와  
수금의 가락으로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시니,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
- 5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습니다.
- 6 지각 없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우둔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 7 악인들이 풀처럼 돌아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창하나  
그들은 영영히 멸망할 것입니다.
- 8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 9 여호와시여,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흠어질 것입니다.
- 10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값진 기름으로  
내게 부어 주셨습니다.
- 11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고,  
내 귀가 악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12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입니다.
- 13 그것들은 여호와와 집에 심기어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14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울타리고 푸르려
- 15 “여호와와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여호와

- 93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 두르셨으니,  
참으로 세상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 2 주님의 보좌는 옛적부터 견고하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 3 여호와시여, 강들이 높였으니,  
강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이고  
강들이 그들의 물결을 높였습니다.
- 4 높이 계신 여호와께는  
많은 물소리보다 강하시며,  
바다의 파도들보다 강하십니다.
- 5 여호와시여,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며  
거룩함이 주님의 집에  
길이길이 어울립니다.
- 94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 1 여호와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빛을 비추소서.
- 2 땅의 재판장이시여,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주소서.
- 3 여호와시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악인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4 그들이 거만한 말을 내뱉으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 5 여호와시여,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주님의 유업을 억누르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 7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지 않고,  
아름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 8 백성 중의 지각 없는 사람들과,  
깨달아라,  
우둔한 사람들과,  
너희가 언제쯤 지혜로워지겠느냐?  
9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10 민족들을 혼란시키시는 분이  
꾸짖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지식이 없으시겠느냐?

11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 12 여호와시여,  
주께서 혼란시키시며,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13 그분이 이런 사람을  
환난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이다.
- 14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유업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 15 참으로 판결은 의로 돌아갈 것이니,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모두  
그것을 따를 것이다.
- 16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을 대항하여 일어서며,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맞설까?
- 17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이미  
적막 속에 처하였을 것이다.
- 18 내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 19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 20 불의한 통치자가 주님과  
영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규례를 빌미삼아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 21 그들은 의인의 생명을 치려고  
함께 모이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립니다.
- 22 그러나 여호와께는 나의 요새이시고,  
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입니다.

- 23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 여호와, 모든 신들의 왕

- 95 <sup>1</sup>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자.  
2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그분께 크게 외치자.  
3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4 땅의 깊은 곳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곳들도 주님의 것이다.  
5 바다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셨고  
육지도 주님의 손이 지으셨다.

- 6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9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다.  
10 사십 년간 그 세대를  
내가 싫어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며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11 그러므로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 거룩한 영광 가운데의 경배

- 96 <sup>1</sup>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2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3 민족들 중에서 그분의 영광을 말하며,

-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말하여라.  
4 참으로 여호와께는 크시며  
매우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모든 신 위에 두려운 분이시다.  
5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6 광채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다.  
7 민족들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어라.  
8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어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9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떨어라.

- 10 민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상이 견고히 서고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이다.”

- 11 하늘은 기쁘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가득한 것들은  
크게 외치고,  
12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들이  
기쁘게 노래할 것이니,  
13 곧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오시니,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그분이 의로 세상을,  
신실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 다스리시는 여호와

- 97 <sup>1</sup>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많은 섬들은 기뻐하라.  
2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평이 그분 보좌의 기초이다.  
3 불이 그분을 앞서 가며

- 그분의 대적들을  
사방에서 불사르는구나.  
4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떠는구나.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밀랍처럼 녹는다.  
6 하늘이 주님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  
7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니,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신들아, 주께 경배하여라.

- 8 여호와시여,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관철 때문입니다.  
9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신 위에 매우 높으십니다.

- 10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그분은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11 의인에게는 빛이 비치며,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12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여라.

### 성도가 부를 새 노래

- 98 시  
<sup>1</sup>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2 여호와께서 자기 구원을 알리시며  
민족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셨다.  
3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분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며,  
온 땅의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 4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쳐라.  
소리쳐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하여라.  
5 여호와께 수금  
곧 수금과 노랫소리로 찬송하여라.  
6 나팔들과 뿔 나팔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크게 외쳐라.  
7 바다와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소리 쳐라.  
8 강들이 손뼉을 치고  
작은 산들이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니,  
9 곧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그분이 의로 세상을,  
공정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 99 <sup>1</sup>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며,  
그분이 그들을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이 요동한다.  
2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께  
모든 백성 위에 높이시라.  
3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4 왕은 강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공정함을 견고히 하시고,  
아람 중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5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 받침대를 향해 경배하여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 6 그분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7 주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님의 증거와  
그분이 주신 규례를 지켰습니다.

- 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100** 감사의 시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쳐라.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쁘게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3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 목장의 양 떼이다.

4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5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지 때문이다.

### 성도들의 온전한 삶

**101** 다윗의 시  
1 내가 인애와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2 내가 완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3 내가 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그것이 내게  
붙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4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내가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할 것입니다.

5 은밀히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6 내 눈이 땅의 진실한 사람들을 살피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7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서 살지 못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도 내 눈앞에  
전고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8 아침마다 내가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으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와 성에서  
끊어 버릴 것입니다.

###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

**102** 고난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붓는 기도

1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나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쏟불처럼 타입니다.  
4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말랐습니다.  
5 내가 크게 신음하므로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6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무지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7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8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맹세를 합니다.  
9 나는 재를 양식처럼 먹으며  
마실 것에 내 눈물을 섞었습니다.  
10 이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습니다.  
11 내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내가 풀처럼 마릅니다.  
12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며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13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온종의 때이며,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4 참으로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귀히 여기고,  
그곳의 먼지에도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15 민족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워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6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17 주께서는  
혈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18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를 기록할 것이니,  
새롭게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19 여호와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으니,  
20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 주시기 위함이며,  
21 시온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그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22 그때에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러 모일 것이다.

23 주께서 내 기력을  
중도에 쇠하게 하시고  
내 수명을 단축시키셨으므로  
24 내가 말씀드린다.  
“나의 하나님,  
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25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26 그들은 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겠고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겠으나,  
27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28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살며,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여호와

**103** 다윗의 시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3 주께서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4 구덩이에서 네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네게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들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6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7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8 여호와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9 주께서 영영히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11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12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13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14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16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 17 여호와와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18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이다.
- 19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주님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 20 주님의 모든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힘 있는 용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21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22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 104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시며,  
주께서는 매우 광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 2 주께서 옷을 입은 것같이  
빛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치시며,  
3 물 위에 주님의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을 주님의 수레로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 4 바람을 주님의 천사로 삼으시고,  
타오르는 불을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 5 주께서 그 터 위에  
땅을 든든히 놓으셔서 영원 무궁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 6 옷으로 덮듯이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셔서,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며,

- 7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하며  
주님의 천둥소리에 급히 물러나
- 8 산들은 올라가고  
물들은 골짜기  
곧 주께서 터를 놓으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 9 주께서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지 못하게 하셨으며,  
돌아와서  
땅을 덮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 10 주께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11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들나귀도 갈증을 해결하며,  
12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이고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니다.
- 13 주께서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열매로  
땅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 14 주께서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양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 15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 16 여호와와 나무들이 만족해하고  
주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 17 거기에 참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황새도 잣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 18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한 곳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입니다.
- 19 주께서 달을 지어  
때를 구분하도록 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 20 주께서 어두움을 드리우셔서  
밤이 되니,  
숲의 온갖 짐승들이 기어 다닙니다.
- 21 젊은 사자는 먹이를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다가
- 22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자기 굴에 눕고,
- 23 사람은 일하러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 24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이 주님의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 25 저 크고 넓은 바다,  
그 속에서 기어 다니는 것이 있고  
크고 작은 생물이 수없이 많으니,  
26 거기에는 배들이 오가며,  
주께서 만드신 리워야단이 노닙니다.
- 27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28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받아먹고,  
주께서 주님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 29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께서 저히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 티끌로 돌아가고 맙니다.
- 30 주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고  
지면은 새로워집니다.
- 31 여호와와 영광이 영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하신 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 32 주께서 땅을 보시니, 땅이 떨고  
산들에 닿으시니,  
산들이 연기를 뿜습니다.
- 33 내 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 34 내 목상이  
주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를 바라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 35 죄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는 악인들이 없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할렐루야.

####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 105 1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을  
백성들 중에 알리라.
- 2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라.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하여라.
- 3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구나.
- 4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 5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적들과 그 입의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 6 주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께서 택하신 아람의 자손들이,
- 7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며  
그분의 판결이 온 땅에 있다.
- 8 주께서 자신의 언약,  
곧 주께서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 9 주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 아람에게 세우신 규례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 11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가나안 땅을  
유업의 몫으로 줄 것이다.” 하셨다.
- 12 그들이 수가 매우 적고  
거기에서 나그네 되어
- 13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한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떠돌 때에도
- 14 주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 15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고  
내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셨다.
- 16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 17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요셉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 18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 19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 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 주고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 21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아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통제하며,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 23 그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아람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 24 주께서 자기 백성을



- 25 매우 번성하게 하시어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속이게 하셨다.
- 26 주께서 자기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어
- 27 그들 중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 28 주께서 어둠을 보내시어  
어둠게 하셨으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거역할 수 없었다.
- 29 주께서 그들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물고기를 죽게 하셨다.
- 30 그들의 땅이 개구리로 가득하였고,  
그들의 왕들의 침상에도 그러하였다.
- 31 주께서 말씀하시니,  
파리 떼와 아들이 와서  
그들의 영토를 덮쳐 버렸다.
- 32 주께서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
- 33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 영토의 나무들을 꺾으셨다.
- 34 주께서 말씀하시니,  
황충과 메뚜기 떼가 수없이 날아와서
- 35 그들 땅의 모든 채소를 먹고  
그들의 밭의 열매를 먹어 버렸다.
- 36 주께서 그들 땅의 모든 장자,  
곧 그들의 모든 힘의  
첫 열매를 치셨다.
- 37 주께서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들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 38 그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 39 주께서 구름을 펼쳐 덮어 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 주셨다.
- 40 그들이 요구하니,  
주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는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 41 주께서 바위를 가르셔서  
물이 솟아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셨으니,

- 42 이는 주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자기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 43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기쁨으로,  
자신이 택한 사람들이  
즐거이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 44 민족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어,  
족속들이 수고한 것을  
그들이 소유하게 하셨다.
- 45 이는 그들이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106

-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는 영원하시다.
- 2 누가 여호와와 능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 대한 찬양을  
다 들려줄 수 있겠나?
- 3 공평을 지키는 사람과  
항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 4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 5 내가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며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의 유업으로 자랑하게 하소서.
- 6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 7 이집트에 있던 우리 조상들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였고,  
주님의 풍성한 인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으나,
- 8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알리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 9 주께서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하셔서,  
그들로 깊은 바다를

- 10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습니다.
- 11 물이 그 대적을 덮으니,  
그들 중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 12 이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 13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며,
- 14 광야에서 그들은 탐욕에 빠졌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 15 주께서는 그들이 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 16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와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으므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이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 18 불이 그들 무리 가운데 타올라  
불같이 그 악한 사람들을  
살랐습니다.
- 19 그들이 호렐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었습니다.
- 21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신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으니,
- 22 주님은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과  
홍해에서 무서운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 23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택하신 자 모세가  
그들 사이에서  
주님의 분노를 돌이켜  
멸하지시 않도록 하였습니다.
- 24 그러나 그들은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 25 자기의 장막들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와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6 이에 주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며  
그들의 후손을 민족들 중에서  
쓰러지게 하고  
각지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 28 그들이 바일브올에게 속하며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습니다.
- 29 그들은 이 행위들로 주님을 격노하게 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 30 그때 비드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재앙이 그쳤으며,
- 31 이 일이 대대로 영원히 그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 32 그들이 또 므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분노하게 하여  
모세가 그들 때문에  
화를 입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명령되어 말하였기 때문이다.
- 34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고,
- 35 오히려 그 민족들과 어울려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 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것들이 그들에게 울부가 되었다.
- 37 그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을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 38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과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침으로  
그 땅이 그 피로 더럽혀졌다.
- 39 그들이 자기 행실로 부정하게 되었고  
자기 행위로 음란하게 되었다.
-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어  
자신의 유업을 역겨워하시며
- 41 그들을 민족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 42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압제하므로  
그 손아래 그들이 복종하게 되었다.
- 43 주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하셨으나,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 때문에 낮아졌다.

44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으며,  
45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인애를 따라  
마음을 돌이키시어,  
46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

47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민족들 중에서 모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여라.  
할렐루야.

## 새 오권

인생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107 1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다.  
2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그분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셔서  
3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셨다.  
4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5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6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7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8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9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

10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11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12 그러므로 주께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다.  
13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14 주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그 속박을 끊어 주셨다.  
15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16 주께서 늦 대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17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니,  
18 어떤 음식이건 먹지 못하여  
죽음의 문까지 다다랐다.  
19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20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21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22 감사 제물을 드리며 즐거운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여라.

23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대양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24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다.  
25 주께서 말씀하시어,  
폭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치솟게 하신다.  
26 그들이 하늘에 올라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니,  
27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니,  
그들의 모든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

28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  
29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30 그것들이 조용해지니,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31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32 백성의 회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장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33 주께서 강을 사막으로  
물이 나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34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바꾸셨다.  
35 또 주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꾸시고  
36 굶주린 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니,  
그들이 살 성읍을 세우며  
37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경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38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매우 번성하고  
가족도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

39 그들이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수가 줄고 비천하게 되었을 때,  
40 주께서 귀인들을 멸시하고  
길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지만,  
41 가난한 자는 곤경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 떼같이 지키신다.  
42 올바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은 모두 그 입을 닫는다.  
43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일들을 주의하고  
여호와와 인애를 깨달아라.

새벽을 깨우는 찬양

108 노래, 다윗의 시  
1 하나님이지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2 비파야, 수금야,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3 여호와시여,  
내가 백성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들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4 참으로 주님의 인애는 커서  
하늘 위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 이릅니다.  
5 하나님이지여,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6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7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며,  
세깎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8 길트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이고,  
유다는 내 지휘봉이다.  
9 모압은 내 목욕통으로 삼고,  
애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을 향하여  
내가 승전가를 부를 것이다.”

10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하셨습니까?  
11 하나님이지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12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입니다.  
13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용감히 행할 것이니,  
주께서 우리 대적들  
짓밟으실 것이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109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지여,  
잠잠하지 마소서.  
2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악한 입과 속이는 입을 열어



-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합니다.  
3 그들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에워싸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4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5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 6 악인을 그와 대항하여 서게 하시며,  
대적을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 그가 재판받을 때에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8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  
9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10 참으로 그의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 빗장이가 그의 가진 것을  
다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가  
그의 소독을 빼앗게 하소서.  
12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에게 동정하는 자도  
없게 하소서.  
13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는  
지워지게 하소서.  
14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15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계속 있게 하시고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끊어지게 하소서.
- 16 그가 인애를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박해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17 그가 저주를 좋아했으나,  
그것이 그에게 이르게 하시고,  
복을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18 그가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 속에,

- 기름같이 그 뼈속에 배어들게 하소서.  
19 그 저주가 그에게는 두른 겉옷 같고  
항상 때는 허리띠 같게 하소서.  
20 이것이 나의 대적들,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21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고  
주님의 인애는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3 나는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메뚜기같이 날려 갑니다.  
24 금식으로 내 무릎이 후들거리고  
내 몸은 기름기가 없어 수척합니다.  
25 내가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니,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니다.
- 26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여,  
나를 도와 주소서,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 이것이 주님의 손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28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님은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29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욕으로 옷 입으며  
수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소서.
- 30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31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110

다윗의 시  
1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3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옵니다.  
4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 5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고  
6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의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7 그분께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 진실하고 공평하신 여호와

111

-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2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니,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가  
탐구하는구나.  
3 주께서 하시는 일은  
영화롭고 위엄이 있으며,  
주님의 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4 주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공홀히 여기신다.  
5 주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6 주께서 민족들의 유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셔서,  
그 하신 일의 능력을 보이셨다.  
7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평하며,  
주님의 교훈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으니,  
8 영원 무궁히 확고하며  
진실하고 올바르게 행하여졌다.

- 9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속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으니,  
주님의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악인

112

-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2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3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설 것이다.  
4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니,  
그는 은혜롭고 공홀히 여기고 의롭다.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될 것이니,  
그 일을 공의로 행할 것이다.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7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의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8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그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9 그가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그 의가 영원히 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10 악인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를 갈면서 녹아 없어지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신 여호와

113

- 1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2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3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4 여호와는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며

그분의 영광도 하늘 위에 높이시라.  
 5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겠느냐?  
 주께서 보좌에 높이 앉으시나,  
 6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8 귀족들 곧 자기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9 주께서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살게 하셔서,  
 아이들로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여호와

**114** 1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아굽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2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3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뒤로 물러났으며,  
 4 산들이 솟양들같이  
 언덕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5 바다야, 네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요단야, 네가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6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솟양들같이,  
 언덕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 양들같이 뛰었느냐?  
 7 땅아, 너는 주님 앞,  
 곧 아굽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8 주께서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을 물이 나는 샘이 되게 하셨다.

### 복 주시는 여호와

**115** 1 여호와시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은 인애하시고 신실하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민족들로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3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십니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5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6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7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8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이시니,  
 10 이룬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이시니,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이시니.

12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어  
 복을 주실 것이니,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13 이룬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분은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14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란다.  
 15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16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17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에 내려간 자도  
 찬양하지 못한다.  
 18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글을이 풍성한 여호와

**116** 1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2 주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3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내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4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구하니,  
 내 생명을 구하소서.”

5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평히 여기신다.  
 6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 주시니,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7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니,  
 네 안식으로 돌아가라.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9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10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11 두려울 때에도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하였다.  
 12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14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15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16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17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8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19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곧 여호와와 집 뜰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 인애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117** 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애하심이 크고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니,  
 할렐루야.

### 인애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118** 1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시니.

2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3 이룬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5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두셨다.  
 6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7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8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9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10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12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고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13 네가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14 여호와와 나의 힘과 찬송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다.  
15 의로운 사람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16 여호와와 오른손이 높이 들리시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다.

17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와 행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18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19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20 이는 여호와와 문이니,  
의인들이 이리로 들어갈 것이다.  
21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  
22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23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24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25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변역을 주소서.

26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추복한다.  
27 여호와와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희생 제물을 줄로 제단 뿔에 매어라.

28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이다.  
29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시다.

### 금보다 귀한 여호와와 말씀

119 <sup>1</sup>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2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3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구나.  
4 주께서 주님의 교훈들을 주셔서  
우리로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5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6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살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7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는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8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케 하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10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12 송축받으실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율례를  
내가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15 내가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들을 주목하고  
16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17 주님의 종을 너그럽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18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19 나는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20 주님의 율례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21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22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게 하소서.  
23 고관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나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24 참으로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25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26 내 행위들을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27 나로 주님의 교훈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28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30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31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시니,  
내가 주님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33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35 나로 주님의 명령의 길로 견게 하소서.

내가 그 길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36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부당한 이익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37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38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39 내가 두려워하는 행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판단은 선하십니다.  
40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사모하니,  
내가 주님의 의로 생명을 얻게 하소서.

41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내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소망을  
주님의 율례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44 내가 주님의 법을 항상 지키며,  
영원 무궁히 지키겠습니다.  
45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이며,  
46 내가 왕들 앞에서  
주님의 증거들을 선포하여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47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그 명령들을 기뻐합니다.  
48 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그 명령들에 두 손을 들며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49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51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52 여호와시여,

주님의 옛날 율례들을 기억하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53 주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54 나그네로 사는 내 집에서  
주님의 규례들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55 여호와시여,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56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니,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57 여호와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58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 내가 내 길들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켰습니다.  
60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신숙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61 악인들이 줄로 나를 움아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62 한밤중에도 내가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율례들 때문에  
주께 찬양합니다.  
63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의  
친구입니다.  
64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땅에 충만하니,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65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선대하셨습니다.  
66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신뢰하니,  
바른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68 주님은 선하시므로 선을 행하시니,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 하였으나,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70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처럼 둔해졌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72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내게는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73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만드시고  
굳게 세우셨으니,  
주님의 명령들을 배우도록  
나를 깨우치소서.  
74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75 여호와시여,  
주님의 판단들이 의로운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에 따라  
나로 고난받게 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76 간구하오니,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인애가  
내 위로가 되게 하소서.  
77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  
나로 살게 하소서.  
78 주님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교만한 자가 까닭 없이  
나를 괴롭혔으니,  
그들로 수치를 당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님의 교훈들을  
묵상하겠습니다.  
79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증거들을  
알 것입니다.  
80 내 마음을 주님의 규례들에  
온전하게 하셔서,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81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여  
피곤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82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피곤하면서  
나는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실까?”  
말합니다.  
83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니다.  
84 주님의 종의 날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시겠습니까?  
85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들을 팠으니,  
그들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86 주님의 모든 명령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박해하니,  
나를 도우소서.  
87 그들이 이 땅에서  
나를 거의 죽게 만들었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88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살려 주소서.  
내가 주님의 입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89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90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미치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91 주님의 규례들대로  
그것들이 오늘까지 굳게 섰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92 만약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93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들로 인해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94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95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나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96 모든 완벽한 것도 다 끝이 있으나,  
주님의 명령은 심히 광대합니다.  
97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98 주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하므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우며  
100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므로  
내가 노인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101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급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103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담니다.  
104 주님의 교훈들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니,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105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106 내가 주님의 의로운 율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습니다.  
107 여호와시여, 내 고난이 심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08 여호와시여,  
내 입의 자원 제물들을 받으시고  
내게 주님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09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110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111 주님의 증거들로  
내 영원한 유업을 삼았으니,  
그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112 나는 주님의 규례들을  
영원히 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113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며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이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115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116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볼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117 나를 볼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구원받고  
항상 주님의 규례들을 주의하겠습니다.



- 118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 119 주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 120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의 판단들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 121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 122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 123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갈망하여  
피곤해했습니다.
- 124 주님의 인애를 따라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며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 125 나는 주님의 종이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 126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 127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님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 128 그러므로 나는 법사에  
주님의 모든 교훈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 129 주님의 증거들이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 130 주님의 말씀들을 펼치면  
우둔한 자가 깨닫습니다.
- 131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하므로  
입을 벌리고 험럽입니다.
- 132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대로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 133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 134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게 하소서.
- 135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 136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 137 여호와시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 138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아주 신실합니다.
- 139 내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 140 주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 141 나 비록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습니다.
- 142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고,  
주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 143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명령들은 내 기쁨입니다.
- 144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깨우쳐 살게 하소서.
- 145 여호와시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 146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 147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 148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 149 내가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150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을 지킵니다.
- 151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 음성들을 들으시고,  
주님의 율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 152 악을 피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저들은 주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 153 여호와시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명령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 154 예전부터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알았으니,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 155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 156 내 원한을 풀어 주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 157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규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 158 여호와시여, 주님의 긍휼이 크니,

- 주님의 율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 157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주님의 증거들에서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 158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합니다.
- 159 여호와시여,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훈들을 사랑하는지 보시고,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 160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니,  
주님의 의로운 모든 율례는  
영원할 것입니다.
- 161 고관들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나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들을  
경외합니다.
- 162 많은 탈취물을 발견한 사람같이  
나는 주님의 말씀들을 즐거워합니다.
- 163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 164 주님의 의로운 율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 165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 166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행합니다.
- 167 내 영혼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심히 사랑합니다.
- 168 내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니,  
내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 169 여호와시여,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우치소서.
- 170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 171 주께서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발할 것입니다.
- 172 주님의 모든 명령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할 것입니다.
- 173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택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 174 여호와시여,

-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 175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율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 176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니,  
주님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 환난 중의 기도

- 120** 올라가는 노래  
1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 2 여호와시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 3 너 속이는 혀여, 내게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까?
- 4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뿐이다.
- 5 내가 메세에 체류하며  
게달의 장막들에 거하므로  
나에게 화가 임하였다.
- 6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하였구나.
- 7 나는 화평하려 하지만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 121** 올라가는 노래  
1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2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 3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줄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 5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고  
6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네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 耶路撒렘에 대한 사랑

- 122**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1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와 함께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 있다.  
3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와 지파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증거들을 따라  
그곳으로 올라간다.  
5 그곳에 심판의 보좌들을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들이로구나.  
6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7 네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8 네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는 너의 행복을 기원할 것이다.

#### 여호와와 함께 올랐을 간구함

- 123** 올라가는 노래  
1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2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듯,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궁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3 여호와시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많은 멸시를

- 받으며 받고 있습니다.  
4 안일한 자들의 비웃음과  
거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칩니다.

#### 우리 편이 되신 여호와

- 124**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여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날 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3 우리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4 그대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리고,  
시내가 우리의 영혼 위로  
넘쳐흘렀을 것이며,  
5 그대에 그 성난 물결이  
우리의 영혼 위로  
넘쳐흘렀을 것이다.”  
6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7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나듯  
우리 영혼이 벗어났으며,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다.  
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다.

####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 125**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서 있는 시온 산과 같다.  
2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 주실 것이다.  
3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분깃 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의인들이 불의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4 여호와시여,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바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5 자기의 굵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 돌아키시는 여호와

- 126**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2 그대에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대에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대에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였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4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네게서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 127**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2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3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4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과 같다.  
5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 128**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2 너는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며,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 3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같을 것이다.  
4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너의 사는 모든 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녀의 자녀들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 시온을 미워하는 자

- 129** 올라가는 노래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여라.  
“그들이 나의 어릴 때부터  
나를 많이 괴롭혔다.  
2 그들이 나의 어릴 때부터  
나를 많이 괴롭혔으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3 발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깊게 만들었으나,  
4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므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5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라.  
6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지붕 위의 풀같이 되리라.  
7 이런 것은 배는 자의 손에도  
묻는 자의 품에도 차지 아니하니,  
8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와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 주님을 기다리는 내 영혼

- 130**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2 주님이시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이시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4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을 경외케 하려하시기 때문입니다.



- 5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는 인애와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 8 그분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 겸손히 여호와를 바람

- 131**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 했습니다.
- 2 오히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은 아이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은 아이 같습니다.
- 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라.

### 시온을 선택하신 여호와

- 132**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시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 2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였고  
아람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 3 “진실로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아니하겠으니,  
5 여호와의 처소  
곧 아람의 전능자가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 6 보아라, 에브라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아말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7 그분의 거처에 들어가

그분의 발 앞에 경배하자.

- 8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 9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은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 10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네 몸에서 날 후손을  
네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12 만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들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네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 13 정말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거처로 삼기를 위하여  
말씀하셨다.
- 14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내가 원하니 내가 여기에 살겠다.
- 15 내가 그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어  
가난한 자를 뺀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 16 내가 그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니,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 17 그곳에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이 자라게 하고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준비하겠다.
- 18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히겠으나,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빛날 것이다.”

### 형제들의 아름다운 연합

- 133**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1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 2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  
곧 이룬의 수염을 타고

- 3 그 예복의 옷깃까지 내려감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베푸시니,  
곧 영생이다.

### 성소를 향하여 부르는 찬송

- 134** 올라가는 노래  
1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 2 성소를 향하여 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 3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 영원한 주님의 이름

- 135**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 2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뜰에서 있는  
너희들아,  
3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이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 4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금,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 5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나는 알고 있다.
- 6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다.
- 7 그분은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천둥을 보내시며  
자기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

- 8 그분은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을,  
사람에서 짐승까지 다 치셨다.
- 9 이집트 가운데  
그분이 징조와 기사를 보내시어  
바로와 그 모든 신들을 치셨다.
- 10 그분이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 11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을 죽이시고,

- 12 그분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 13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 15 민족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16 그들은 입을 가렸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호흡도 없으니,  
18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 19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이룬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 20 레위 집이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 21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찬송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 인애가 영원하신 여호와

- 136** 1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 2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3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4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5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6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7 땅을 물 위에 떠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8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 8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0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3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4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6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17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8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1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2 주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23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5 모든 육체에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우는 이스라엘

- 137** 1 우리는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2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3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고문하던 자들이 기쁨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 4 우리가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6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 7 여호와시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에  
어둠 속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부숴라, 부숴라.  
그 기초까지 부숴라.” 하였습니다.
- 8 멸망할 바빌로니아의 딸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9 네 어린것들을 사로잡아  
바위에 매어지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 성도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 138** 다윗의 시  
1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2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의 인애와 진실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니,  
주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만물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 3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 4 여호와시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이 여호와와 도를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 6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 7 내가 환난 중에 다니더라도  
주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손을 펴서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 8 여호와께서 나와 관련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 사람을 아시는 여호와

- 139**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2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3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 4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 5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 6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 7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물에 내려라도  
거기 계십니다.
- 9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 10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 11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하더라도,  
12 어둠조차 주께는 어둠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 13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 14 내가 주님을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 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을 때에,  
곧 내가 땅의 깊은 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 16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 17 하나님시여,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 18 내가 그것을 헤아리려 하니,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 19 하나님시여, 확실히 주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에게서 떠나라.
- 20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섭니다.
- 21 여호와시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 22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내 원수입니다.



- 23 하나님이지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24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 악인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

- 140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2 그들은 마음에 악을 꾀하고  
싸우려고 매일 모이며  
3 그들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며  
독사의 독이  
그 입술 아래에 있습니다. 셀라

- 4 여호와시여,  
악인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며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5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뿔과 그물을 치며,  
내 길목에 함정을 팠습니다. 셀라

- 6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여호와시여,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셨습니다.  
7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 여호와시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8 여호와시여,  
악인의 소욕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교만할까 염려됩니다. 셀라

- 9 나를 에워쌌던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입술이 발한 그 재난으로  
뒤덮이게 하소서.  
10 타는 숯불을 그들 위에 쏟으시고  
그들이 불 가운데와 수렁에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 모함하는 자는 세상에서  
군계 서지 못하게 하시고,  
난폭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다니게 하소서.

- 12 여호와께서는 비천한 이를 도우시며,  
가난한 이에게 공의를 베푸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13 진실로 의인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님의 앞에 살 것입니다.

### 여호와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

- 141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어 주소서.  
2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 같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 3 여호와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소서.

- 5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가 나를 꾸짖어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기고  
내 머리가 거절치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전히  
나는 그들의 재앙 중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6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 던져질 때,  
그들은 내 말이 좋음을 알고  
내 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7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발을 갈아 흙을 부수듯  
우리 뼈들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  
할 것입니다.

- 8 주 여호와시여,  
내 눈을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니,  
내 영혼을 비천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9 그들이 나를 잡으려 쳐 놓은 뿔과  
악을 행하는 자의 함정에서  
나를 지키소서.  
10 악인으로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

###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 142 다윗의 마스길,  
그가 동굴에 있었을 때 드린 기도  
1 내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2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내 괴로움을 그 앞에 아뢰입니다.  
3 나의 영이 내 안에서 기진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내가 걷는 길목에 밧을 놓았습니다.  
4 내 오른쪽을 살펴 주소서,  
나를 염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 5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 자의 땅에서 내 분깃이다.”  
라고 말하였었습니다.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나는 너무나 비천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7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어  
나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입니다.

### 주님을 갈망하여 부르는 노래

- 143 다윗의 시  
1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2 주님의 종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소서.  
살아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3 원수가 나를 추격하여  
내 생명을 땅에 매어치고  
영원히 죽은 자처럼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기진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합니다.

- 5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6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바른 땅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셀라  
7 여호와시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이들과  
되지 않게 하소서.  
8 아침에 내가 주님의 인애를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듭니다.

- 9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0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11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12 주님의 인애로 내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 144 다윗의 시  
1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하게 하신다.  
2 주님은 나의 인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시고,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입니다.  
3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인가에

-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었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4 사람은 증기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 5 여호와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쳐 연기가 나게 하소서.  
6 번개를 번쩍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님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 7 위로부터 주님의 손을 펴시어  
큰 물에서 나를 건지시며,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8 그들의 입이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 9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열 줄 비파로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10 주님은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종 다윗을 해하는 칼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 11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 주소서.  
그들의 입이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 12 우리 아들들은  
청년기에 잘 기른 나무 같을 것이며  
우리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 같을 것이다.
- 13 우리의 창고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 양 떼는 들에서 수천 배,  
수만 배로 불어날 것이다.
- 14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성벽의 파손이나  
포로로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다.
- 15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

145 다윗의 찬양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 2 날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 3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 4 대대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칭송하고,  
주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 5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목상하겠습니다.
- 6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행위들의  
권능을 말하고,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 7 그들이 한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 8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공홀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다.
- 9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공화를 베푸신다.
- 10 여호와시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도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 11 그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권능을 말하여
- 12 주님의 하신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니,  
주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을  
알게 하겠습니다.
- 13 주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 14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엎드린 자를 일으키신다.
- 15 모든 눈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 16 주께서 손을 펴시어

- 모든 생물의 욕구를 충족시키신다.
- 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서 은혜로우시다.
- 18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 19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 20 여호와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니,  
악인은 모두 멸하실 것이다.
- 21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모든 육체도 그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여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호와

- 146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2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 3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 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 5 아픔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 6 여호와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 8 여호와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 9 여호와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니,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 10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시온아, 네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  
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여호와

- 147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며,  
그분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 3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찢매 주신다.
- 4 그분이 별의 수를 세시며,  
그 모두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 5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
- 6 여호와와는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니,  
악인은 땅에 던지신다.
- 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 8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에 비를 공급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 9 들짐승과 우짖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 10 주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즐거워 아니하시고
- 11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인애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 12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 13 주께서 네 문의 빗장을  
걸고게 하시고,  
네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니,
- 14 주께서 네 영토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만족케 하신다.
- 15 주께서 자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구나.



- 16 주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갈이 홀으시고  
17 우박을 땀 부스리기처럼 쏟으시니,  
누가 그 추위 앞에서 있을 수 있으랴?  
18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구나.  
19 주께서 그 말씀을 아굽에게 알리시고,  
그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20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 율례들을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

- 148**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2 주님의 모든 천사여,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의 모든 군대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3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며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4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그분을 찬양하여라.  
5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주께서 명하시니,  
그것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6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을 규칙을 주셨다.  
7 바다 괴물들과 모든 깊은 바다여,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8 불과 우박, 눈과 구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광풍아,  
9 산과 모든 언덕,  
과실나무와 백향목들아,  
10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들아,  
11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과 땅의 모든 통치자들아,  
12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 13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는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위엄이 천지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14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뿔을 높이시니,  
모든 성도, 곧 주님을 가까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 149** 1 할렐루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2 이스라엘아,  
자기를 지으신 이를 기뻐하며,  
시온의 백성아,  
자기 왕을 즐거워하여라.  
3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송하여라.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기뻐하시며,  
검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5 성도들아, 영광 중에 기뻐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들의 손에는 양날 선 칼이 있어  
7 열방에게 복수하며,  
민족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8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고,  
그들의 고관들도 쇠고랑으로 채워,  
9 기록된 판결문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니,  
그것은 주님의 성도 모두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 여호와를 찬양하라

- 150** 1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공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2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좇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3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 4 소고 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5 큰 소리 나는 심벌즈로  
그분을 찬양하며,

-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 잠언

1 10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훈계, 곧 의와 공평과 정직을 얻게 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그들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8 내 아들이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9 그것들은 네 머리의 아름다운 화관이며 네 목의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10 내 아들이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11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 우리가 그들을 스물같이 산 채로 삼키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켜 버리자. 13 우리가 온갖 보물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울 것이니, 14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자루만 두자.” 할지라도,

15 내 아들이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그들의 길에서 네 발을 멀리하여라. 16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기에 빠르기 때문이다. 17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18 그들이 없으려 기다림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이 때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19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21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말하기를 22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며 비웃는 자들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23 내 책망을 듣고 돌아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 줄 것이다. 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25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6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니. 27 그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이르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28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29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30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31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며, 32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33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지혜가 주는 유익들

2 1 0 내 아들이아, 네가 내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네게 간직하고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정녕 네가 지식을 의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4 네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같이 그것을 찾으면, 5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니, 6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7 그분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히 행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 8 그분께서는 공평의 길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9 그때에 너는 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10 그러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11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건져내며,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13 이들은 바른 길들을 버리고 어두운 길들을 다니면서 14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못된 짓만 좋아하며

15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빛나잖다.

16 그러나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 곧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건져 줄 것이다. 17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이다. 18 참으로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인도하며, 그 여자의 길은 죽은 자들의 곳으로 인도한다. 19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결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20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로 가며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지켜라. 21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온전한 자가 거기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22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불성실한 자들은 그곳에서 뽑힐 것이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3 1 0 내 아들이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2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3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어 걸며 네 마음 판에 새겨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7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체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8 그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9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10 그러면 네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네 큰 통들이  
헛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11 내 아들이야,  
여호와와 혼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12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같이 하신다.

13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14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15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16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17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18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19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20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21 내 아들이야,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22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게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23 너는 네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네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24 네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 것이다.

25 너는 갑작스런 재난이나  
사악한 자의 파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26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네 발을  
올무에서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  
27 네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28 가진 것이 있거든,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라고 말하지 마라.

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을 꾸미지 마라.

30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31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본받지 마라.

32 여호와께서는  
사악한 자를 역겹게 여기시나  
정직한 사람과는  
교제하시기 때문이다.

33 사악한 자의 집에는  
여호와와 의주가 있으나,  
의인들의 집에는 그분께서 복을 주신다.

34 진실로 그분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물려받으나,  
우둔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 지혜가 주는 복

4 1 ○아들들이야,  
너희는 아버지의 혼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2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3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  
유순한 외아들이었을 때,

4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셨다.

5 너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들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6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 줄 것이다.  
7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8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여 줄 것이다.

만일 네가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9 지혜가  
네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며,  
영화로온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10 들어라,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11 내가 네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고,  
네가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이니,  
12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네가 달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13 너는 혼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네 생명이기 때문이다.

14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15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16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17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18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19 사악한 자들의 길은 길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20 내 아들이야,  
내 말들을 청경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21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22 내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23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24 왜곡된 말은 네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25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네 시선은 네 앞만 응시하여라.

26 네 발의 길을 평탄케 하여라.  
네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27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 음행에 대한 경고

5 1 ○내 아들이야,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네가 분별력을 가지며

2 네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3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4 결국에 그 여자는 쑥처럼 쏘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5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6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7 그러므로 아들이야,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마라.

8 네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9 그렇지 않으면  
네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네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10 네 재물로 낫선 자들이 배를 불리고  
네 수고가 남의 집만 부하게 하여

11 네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네 육체와 네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네가 탄식하며

12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혼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업신여기며

- 13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14 모인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하게 될까 염려한다.
- 15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는 물만 마셔라.  
16 어찌하여  
네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넘쳐나게 하느냐?  
17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18 네 샘으로 복되게 하고  
네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19 그 여자는 사랑스런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그 여자의 풀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20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에게 빠지며  
외간 여자의 가슴을 안겠느냐?  
21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와 눈앞에 있으니,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길들을  
주목하신다.  
22 사악한 자는  
자기의 죄악에 사로잡히고  
자기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된다.  
23 그는 혼계를 받지 않아서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망하게 된다.

#### 사악한 길들에 대한 경고

- 6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네 이웃을 위하여  
답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2 네 입의 말들로 인해 얽매이고,  
네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3 내 아들이,  
너는 네 이웃의 손아귀에 빠졌으니,  
이렇게 하여 네 자신을 구하되  
가서 네 자신을 낮추고  
네 이웃에게 간청하여라.  
4 네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네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여라.  
5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 자신을 구하여라.
-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7 개미는  
무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8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9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텅굴겠느냐?  
언제나 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10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11 가난이 네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네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12 불쌍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13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14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피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15 그러므로  
줄지에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혼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를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 20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마라.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어 두어라.  
22 그것이 네가 걸을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지켜 주며  
네가 깰 때에 네게 말할 것이다.

- 23 이는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며,  
혼계의 꾸지람은  
생명 길이기 때문이다.  
24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인의 유혹하는 혀로부터  
지켜 준다.  
25 네 마음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여자의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26 이는 창녀 때문에  
너에게 뺄 한 조각만 남게 되고,  
음란한 유부녀가  
네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27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28 사람이 솥불 위를 걷고도  
그의 발들이 데지 않겠느냐?  
29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려  
들어가는 자도 이와 같으니,  
그 여자를 만지는 자는  
모두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30 사람이 만일  
꿇주려서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치는 않을 것이나,  
31 홀치다 들키면  
그는 일곱 배로 갚아야 할 것이니,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내주어야 한다.  
32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이다.  
33 그는 상처와 수치를 얻게 되고,  
그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34 이는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에  
용서치 않을 것이며,  
35 그는 어떤 보상으로 마다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음행에 대한 경고

- 7 1 ○내 아들이,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간직하여라.  
2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니,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3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매고  
그것들을 네 마음 판에 새겨라.  
4 지혜에게

- “너는 나의 누이다.”라고 말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다.” 불러라.  
5 이것들이 너를 창녀에게서,  
말로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지켜 줄 것이다.  
6 내가 내 집 창가에 서서,  
창살 문으로 내다보다가,  
7 미련한 자들 중에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각 없는 자를 보았다.  
8 그가 창녀의 골목 모퉁이를 지나서  
그 여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9 황혼녘,  
날이 저물고  
깊은 밤의 어둠이 깃들었을 때이다.
- 10 보아라.  
그때에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으러 왔다.  
11 그 여자는 말이 많고 예절이 없으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길목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13 그 여자는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럼을 모르는 얼굴로 말한다.  
14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서원을 갚았습니다.  
15 그래서 난 당신을 만나러 나왔고  
난 당신 얼굴을 뵈려고 애태우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16 내 침상에는  
요와 이집트산 화려한 이불을  
퍼 놓았고,  
17 내 침대에는  
몰약과 알로에와 제피향을  
뿌려 놓았습니다.  
18 자, 가서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취해 봅시다.  
19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20 그는 돈 가방을 가졌으니,  
보름 즈음에나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 21 그 여자가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그를 꾀므로,  
22 그 젊은이가  
그 여자를 선뜻 따라나서니,



마치 황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묶여러 가는 것과 같다.  
23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니,  
자기 목숨을 잃는 줄을 모르고  
급히 그들로 날아드는 새와 같다.

24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25 네 마음이  
음녀의 길들로 향하지 말고,  
그 여자가 가는 길들에  
빠지지도 마라.  
26 이는 그 여자가 쓰러뜨려  
상하게 한 자가 많으니,  
그 여자가 죽인 자들은 셀 수도 없다.  
27 그 여자의 집은 스올의 길이고,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다.

#### 지혜의 부르짖는 외침

8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2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3 성 어귀 성문들 곁과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생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5 너희 미련한 자들아, 슬기를 얻어라.  
너희 우둔한 자들아, 지각을 얻어라.  
6 들어라,  
이는 내가 고상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것을 말하며,  
7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8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롭고,  
그 가운데는  
9 꾀인 것이나 왜곡된 것이 없다.  
충만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옮겨 여기며,  
지식을 가진 자들도 바르게 여긴다.  
10 너희는 은 대신 내 훈계를 받으며,  
순금보다 지식을 택하여라.  
11 이는 지혜가 보석들보다 좋으니,  
네가 탐내는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 나 지혜는 슬기와 동거하며  
지식과 신중함도 가지고 있다.  
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14 내게는 지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충명과 능력도 있다.  
15 나를 통해서 왕들이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공포하며,  
16 나를 통해서 고관들과  
의롭게 판결하는 모든 귀족들이  
다스린다.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18 부와 명예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19 내 열매는 금 곧 순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순은보다 낫다.  
20 나는 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평의 길로 다니니,  
21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내가 저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줄 것이다.

22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23 영원 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24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25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26 주께서 땅과 들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27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테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28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  
29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30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31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32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33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34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 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35 이는 나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  
36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 지혜와 어리석음

9 1 ○지혜가 일곱 기둥들을 깎아  
세워서 자기 집을 짓고,  
2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 놓고  
3 그 여중들을 보내어  
상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기를  
4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였으니,  
5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로 걸어라.”  
하였다.  
7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8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된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9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그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자를 가르쳐라.  
그러하면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11 이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오래 살고,  
네 수명도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2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만 해를 당할 것이다.  
13 미련한 여자는 수다스럽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14 그 여자는 자기 집의 대문에나  
섬을 높은 곳의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들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르며,  
16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고,  
또 그 여자는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흠뻑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한다.  
18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 여자의 객이  
스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 솔로몬의 잠언들

10 1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2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3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주리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탐심은 물리치신다.  
4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5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7 의인을 기억하면 칭송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망각된다.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한다.  
9 똑바로 사는 자는 안전하게 살겠으니,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는  
곧 드러나게 된다.  
10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할 것이다.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12 미움은 다름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  
13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14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 두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멸망을 재촉한다.  
15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사람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16 의인의 품앗은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형벌이다.  
17 혼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납을 중상 모략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다.  
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기 말을 삼가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20 의인의 혀는 최상급 은이고,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21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죽을 것이다.  
22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23 우둔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24 의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25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26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27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어지지만,

악한 자의 햇수는 짧아진다.  
28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희망은 좌절된다.  
29 여호와와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성적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된다.  
30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나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32 의인의 입술은  
납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알고  
악한 자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11** 1 속이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2 교만하면 수치가 오고  
겸손하면 지혜가 온다.  
3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자신들을 인도하나  
사특한 자들의 속임수는  
자신들을 패망케 한다.  
4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쓸모가 없으나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5 흠 없는 사람의 의로움은  
그의 앞길을 바르게 하나  
사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6 정직한 자들의 의로움은  
자신들을 구원하나  
사특한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만다.  
7 사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사라지고  
불의한 자의 기대도 헛되이 끝난다.  
8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으나  
악인은 오히려 그 재난에 빠진다.  
9 경건치 못한 자는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출된다.  
10 의인이 잘되면 성읍이 기뻐하나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11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번영하나  
사악한 사람의 입 때문에  
마을이 망한다.  
12 지각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충명한 자는 침묵한다.

13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비밀을 숨겨 준다.  
14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행통한다.  
15 낮은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다.  
16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고,  
힘 있는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17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화를 자초한다.  
18 사악한 사람이 얻는 소득은 헛것이나  
의를 뿌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19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나  
악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20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행위가 흠 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21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22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 고리와 같다.  
23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뿐이다.  
24 흠이 나뉘 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25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26 곡식을 숨겨 두기만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것을 내다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27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으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2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로운 사람은  
푸른 일같이 번성할 것이다.  
29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만 상속받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

30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31 보아라.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12** 1 혼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2 선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악을 피하는 자는  
그분의 정죄함을 받는다.  
3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4 덕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뺨속을 찌게 한다.  
5 의인의 생각은 옳으나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이다.  
6 악인의 말은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7 악인은 쓰러지면 끝나 버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8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9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충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자보다 낫다.  
10 의인은 자기 가족의 생명도 돌보나  
악인은  
궁핍을 베푼다고 해도 잔인하다.  
11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넉넉하나  
방탕하는 자는 지각이 없다.  
12 악한 사람은  
악인들의 탈취물을 탐하여도,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13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밋에 걸리나  
의인은 재앙에서 벗어나나.  
14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어 만족하고  
자기 손이 수고한 만큼 받는다.  
15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충고를 듣는다.  
16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17 신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진술하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만 한다.  
 18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 준다.  
 19 신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만 통한다.  
 20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으나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21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으나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넘친다.  
 22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23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우둔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떠벌린다.  
 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것이다.  
 25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의기소침하게 되나  
 선한 말 한 마디는 그를 기쁘게 한다.  
 26 의인은 그의 친구를 바르게 인도하나  
 악한 자의 소행은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27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나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함이다.  
 28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13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지만,  
 꾀사한 자는 폭행만 당한다.  
 3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함부로 떠벌리는 자는 망한다.  
 4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된다.  
 5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나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자초한다.  
 6 의는 행위가 온전한 자를 지켜 주나  
 죄는 악한 자를 패망케 한다.

7 부유한 체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8 부자는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량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다.  
 9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10 교만은 다름난 초래하나  
 충고를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11 부정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감소하나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증가한다.  
 12 소망이 늦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성취된 소원은 생생나무이다.  
 13 말쑥을 멸시하는 자는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14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며  
 사망의 울무에서 건져 준다.  
 15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꾀사한 자의 길은 험난하다.  
 16 사려 깊은 자는 잘 알고 행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17 악한 전령은 재앙에 빠져도,  
 충직한 사신은 양약이 된다.  
 18 훈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19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즐거우나  
 우둔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20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나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21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고,  
 좋은 보상은 의인을 따른다.  
 22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쏠린다.  
 23 가난한 자가 경작함으로  
 많은 소출을 낼 수 있으나,  
 불의로 인하여 그것을 잃을 수 있다.  
 24 매를 아끼는 사람은  
 지식을 미워하는 자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25 의인은 마음이 족하도록 먹으나

악인은 배를 주린다.

14 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2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한다.  
 3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초하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4 황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나  
 황소의 힘으로 수확이 많아진다.  
 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6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쉽게 지식을 얻는다.  
 7 우둔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는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8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게 하나,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9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들 중에는 은혜가 있다.  
 10 마음속 고통은 자기 혼자 알고,  
 마음의 기쁨 역시  
 타인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11 악한 자의 집은 무너지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창한다.  
 12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13 옷이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기쁨도 끝에 가서 슬픔이 될 수 있다.  
 14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15 미련한 자는 아무 말이라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16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우둔한 자는  
 건방져서 멋대로 행동한다.  
 17 빨리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18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상속받으나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19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20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21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22 악을 피하는 자들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애와 진리를 얻는다.  
 23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으나  
 말만 하고 있으면  
 가난을 불러올 뿐이다.  
 24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자기 재물이지만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25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뿜는다.  
 26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매우 총명하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30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32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쓰러지나,  
 의로운 자는  
 사망이 임할 때에도 소망이 있다.  
 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 우둔한 자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34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35 현명한 신하는 왕의 충애를 받으나,  
수치를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산다.

## 15

- 1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할 말은 화를 일으킨다.  
2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만 토해 낸다.  
3 여호와와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모두를 살피신다.  
4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비뚤어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5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6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으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7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우둔한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  
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추구하는 자는 사랑하신다.  
10 바른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11 스물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환히 드러나는데,  
허물며 사람들의 마음이겠는가?  
12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13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밝아지나  
마음의 슬픔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4 명철한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우둔한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15 고난받는 자에게는  
모든 날이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16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하는 것보다 낫다.  
17 나물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18 분을 잘 내는 자는 다름을 일으키나  
화를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 대로 같다.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멀리한다.  
21 지각이 없는 자는  
어리석음을 즐거워하나  
명철한 사람은 걸음을 굳게 한다.  
22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23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24 현명한 자에게는  
위로 향한 생명 길이 있어서,  
내리막길에 있는 스물을  
벗어나게 한다.  
25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지만,  
과부 말의 경계선을 지켜 주신다.  
26 악인의 계획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기쁨을 주는 말은 정절하다.  
27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토해 낸다.  
29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30 빛나는 눈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31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를 가운데 거한다.  
32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멀리하는 것이나  
책망을 달게 받으면 명철을 얻는다.  
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며,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 16

- 1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2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3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4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5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덮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8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10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은  
오만하지 않는다.  
11 공정한 저울과 천칭은  
여호와와 것이며,  
주머니 속의 모든 저울추들도  
그분께서 만드셨다.  
12 왕은 악한 행동을 미워해야 하니,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다.  
13 왕은 의로운 입술들을 기뻐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좋아해야 한다.  
14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힌다.  
15 왕의 얼굴이 밝아야 생명이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17 악을 떠나는 것이

-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 길을 조심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지킨다.  
18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9 마음을 낮추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노략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20 팔꿈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 일컬으며,  
입술이 선한 자는  
교훈을 더하게 한다.  
22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며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에게 징계가 된다.  
23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 입을 슬기롭게 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한다.  
24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25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26 배가 고파야 사람이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27 불량배는 악한 일을 피하고  
그의 말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  
28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름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은 친한 벗도 갈라놓는다.  
29 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피어  
나쁜 길로 인도한다.  
30 눈짓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입술을 꼭 다문 자는  
결국 악을 행한다.  
31 백발은 영광의 만류관이니,  
의로움을 삶을 통해 얻어진다.  
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33 제비는 사람이 뿔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 17

- 1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연일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



2 슬기로운 좋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며 그 아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유업을 나눌 것이다.

3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4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쟁이는 중상 모략에 귀를 기울인다.

5 가난한 자를 비웃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비방하는 자이며,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며, 아버이는 자식들의 영광이다.

7 유창한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귀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8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은즉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9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나 허물을 계속 말하면 친구도 갈라놓는다.

10 명철한 자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우둔한 자를 백 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11 악인은 반역만 일삼으니, 마침내 그에게 잔인한 사신이 파견될 것이다.

12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우둔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빠앗인 암곰을 만나라.

13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집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4 다툼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15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16 우둔한 자는 지혜를 살 마음이 없으니, 그의 손에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17 친구는 사랑이 한결같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난 것이다.

18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해 주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19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패망을 불러들인다.

20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허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21 우둔한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근심이 있고,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22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23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굶게 한다.

24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

25 우둔한 자식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26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정직하다고 귀인을 때리는 것은 잘못이다.

27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총명한 자는 침착한 성품을 갖는다.

28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우 보인다.

**18** 1 욕망을 따라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바른 지혜를 모두 배척한다.

2 우둔한 자는 사리를 분별하려 들지 않고 자기 생각만 내세운다.

3 악을 행하면 멸시가 따르고 수치와 불명예도 같이 온다.

4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5 악한 자를 편들어서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6 우둔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7 우둔한 자의 입은 자기를 파멸시키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된다.

8 험뜯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배속 깊이 들어간다.

9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다.

10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11 부자의 재산은 그에게 요새이다. 그는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12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13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수치를 당한다.

14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게 하나 심령이 상처를 받으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는가?

15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16 사람의 선물은 주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17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해도 피고가 와서 사실을 밝힌다.

18 제비뽑기는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19 성이 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니, 다툼은 요새의 단단한 문빋장과 같다.

20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의 수확으로 만족을 얻는다.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 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22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찾은 자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23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부탁하나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한다.

24 많은 친구를 둔 사람은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19** 1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우둔한 자보다 낫다.

2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며, 너무 서두르는 사람은 발을 헛디딘다.

3 사람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길을 잘못 가고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4 재물은 많은 친구들을 더하게 하나, 가난하면 있던 친구들도 떠나 버린다.

5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 한다.

7 가난하면 자기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그의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그가 따라가며 말하려 하여도 그들은 없어졌을 것이다.

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며, 명철을 지키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9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10 우둔한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귀족들을 다스리는 것이라?

11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

13 우둔한 이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이다.

14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15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나태는 사람을 굶주리게 한다.

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킬 것이나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17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18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지식을 징계하되 그를 죽일 마음은 품지 마라.

19 크게 화내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네가 그를 건져 주면

20 또다시 그를 건져 주어야 할 것이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21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와 뜻이다.  
22 사람이 바라는 것은 인애이며,  
거짓말쟁이보다는 가난함이 낫다.  
23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니,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하게 지낼 것이다.  
24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으로 퍼 올리기를 싫어한다.  
25 거만한 자를 때리면  
미련한 자도 깨닫게 되며,  
명철한 자를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26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와 망신을 당한다.  
27 내 아들이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28 불량한 증인은 공의를 무시하고  
악한 자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29 거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우둔한 자들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20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니,  
여기에 빠진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2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화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3 다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로운 일이나  
어리석은 자마다 조급히 싸우려 든다.  
4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다.  
5 사람의 마음속 생각은  
깊은 물과 같으니,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6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실하다고 외치지만,  
진실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  
7 의인은 온전히 행하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누린다.

8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그의 눈으로 가려낸다.  
9 누가  
“나는 마음이 정결하고  
죄로부터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10 똑같이 않은 저울추와  
똑같이 않은 되  
모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11 비록 아이라도  
자신의 품행이 깨끗한지  
혹은 올바른지를 자기 행동으로 알게 된  
다.  
12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13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된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양식이 넉넉해질 것이다.  
14 물건을 살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다가  
가서는 그것을 좋다고 자랑한다.  
15 금도 있고 보석도 많으나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물이다.  
16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외인들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몸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  
17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는 듯하나  
후에는 그 입 안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18 조언을 들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하여라.  
19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니,  
입을 떠벌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20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암흑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짐 같을 것이다.  
21 처음에 빨리 모은 재산은  
필경에는 복이 되지 못한다.  
22 “내가 악을 갚겠다.”  
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23 똑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24 사람의 발걸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길을 알 수 있겠는가?

25 “이것이 거룩하다.”  
라고 성급하게 서원하고  
그 후에 생각해 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올가미가 된다.  
26 지혜로운 왕은 악한 자들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바퀴를 돌린다.  
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두 살핀다.  
28 왕은 인애와 진실로 자신을 지키며,  
그의 보좌가 인애로 견고해진다.  
29 젊은이의 영광은 그의 힘이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30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을 멀리하니,  
매질을 해야 마음속까지 들어간다.

21 1 왕의 마음은  
여호와와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2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보기에는 옳아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헤아리신다.  
3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4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의 행통은 다 죄이다.  
5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성함을 가져오니,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초래한다.  
6 속이는 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안개이다.  
7 악한 자들의 횡포는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끄니,  
이는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8 범죄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행위는 곧다.  
9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10 악한 자의 마음은 악한 것만 궁리하니,  
그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11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12 의로우신 분이 악인의 집을 살피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13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지 못한다.  
14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뇌물은  
격한 분노를 수그러들게 한다.  
15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된다.  
16 명철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17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술과 기쁨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18 악인은 의인을 위한 몸값이 되고,  
불의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하게 된다.  
19 다투며 성내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20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들과 기름이 있으나  
우둔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 버린다.  
21 의와 인애를 따라 행하면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22 지혜로운 자는  
용사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신뢰하는 요새를  
허물어뜨린다.  
23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재난에서도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  
24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의 이름은  
교만과 거만과 비웃음이다.  
25 게으른 자의 욕심이  
자신을 죽이게 되니,  
이는 그의 손이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26 어떤 사람은 온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27 악인의 제물이 역겹다면  
못된 의도로 바치는 것은  
어떻겠느냐?  
28 거짓 증인은 사라지겠지만,  
진실을 들은 자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29 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뻔뻔하게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삼간다.  
30 그 어떤 지혜와 명철과 묘안도  
여호와를 당해 내지 못한다.  
31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22

- 1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낫고,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이 낫다.
- 2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 3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하나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 4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 5 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놓여 있으나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 6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 7 가난한 자는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 8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른 막대기는 부러진다.
- 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기 때문이다.
- 10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사라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 11 깨끗한 마음을 사랑하며  
덕스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 12 여호와와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주목하시나  
불의한 자의 말은 뒤엎으신다.
- 13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 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와 진노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
- 15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나,  
혼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 16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나  
부자에게 가져다 바치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자의 아름다운 격언들

- 17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에 네 마음을 두어라.
- 18 만일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고  
네 입술에 함께 있게 한다면  
기쁨이 될 것이다.
- 19 내가 오늘 네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0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뛰어난 말쑥을  
기록해 주지 않았느냐?
- 21 이는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을  
너에게 깨닫게 하여  
너를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22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탈취하지 말고  
궁핍한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마라.
- 23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송을 변호하시며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 24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고  
격노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 25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이 울무에 걸릴까 염려된다.
- 26 너는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빚을 위한 보증을 서지 마라.
- 27 만일 네게 갚을 것이 없으면  
그는 네가 누운 침상이라도  
가져갈 것이다.
- 28 네 조상들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 29 자기 일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을 섬길 것이며  
결국  
비천한 자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23

- 1 네가 권세자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거든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아라.
- 2 만일 네가 탐식자이거나  
네 목에 칼을 두어라.
- 3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 4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 5 네가 눈으로 보는 순간

-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다.  
그것은 참으로 날개를 달고  
스스로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기 때문이다.
- 6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 7 그의 진미를 탐내지 마라.  
그런 사람은  
그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됨도 그러하니,  
그가 너에게  
“먹고 마셔라.”  
말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 8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되고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되게 될 것이다.
- 9 우둔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그가 네 지혜로운 말들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 10 땅의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마라.
- 11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다.
- 12 너는 혼계에 마음을 쏟고  
지식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라.
- 13 아이를 혼계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네가 매질하여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 14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스물에서 구해낼 것이다.
- 15 내 아들이야,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곧 나 역시 기쁘다.
- 16 네 입술이 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이 즐거울 것이다.
- 17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 18 그러면 분명히 미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 19 내 아들이야,  
너는 듣고 지혜롭게 되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 20 술을 많이 마시는 자들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 21 주정꾼과 탐식자는 가난해질 것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 22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라.
- 23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마라.  
지혜와 혼계와 명철도 그리하여라.
- 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를 낳은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자를 기쁘게 하여라.
- 26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여라.
- 27 창기는 깊은 구렁이며,  
외간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 28 그 여자는 강도같이 숨어 기다리면서  
남자들 사이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많아지게 한다.
- 29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툼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깨닫 없이 상처를 입는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 30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다.
- 31 술잔 속의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 32 결국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쏘 것이며
- 33 네 눈이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은  
허튼 소리를 하게 될 것이며,
- 34 너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으며,  
네가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으니,  
내가 언제나 깨어날까?  
깨면 또 술을 찾아야지.”  
라고 할 것이다.

24

- 1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마라.
- 2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피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을 말하기 때문이다.
- 3 집은 지혜로 인하여 세워지고

- 충명으로 인하여 견고해진다.  
4 방들은 지식을 통하여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로 채워진다.  
5 지혜로운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기운이 센 자보다 낫다.  
6 너는 지혜로운 전략으로 전쟁할 수 있으니,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7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아서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한다.  
8 악행을 꾸미는 자를 음모자라 부른다.  
9 어리석은 자가 궁리하는 것이란 죄뿐이며,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10 네가 재앙의 날에 낙담한다면 너의 힘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11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 주며 피살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라.  
12 네가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이 어찌 헤아리시지 않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13 내 아들이, 꿀은 좋은 것이니 먹어라. 송이꿀이 네 입에 달콤할 것이다.  
14 지혜가 네 영혼에 그와 같은 줄을 알라. 그것을 얻으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5 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집을 숨어 엿보지 마며 그의 거처를 헐지 마라.  
16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쓰러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18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싫어하셔서 그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실까 두렵다.

19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20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악한 자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21 내 아들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마라.  
22 반역자들에게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이니, 여호와와 왕이 보낼 재앙을 누가 알겠느냐?

#### 지혜자의 다른 잠언들

23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이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밝추는 것은 옳지 않다.  
24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고 말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25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니, 좋은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26 바른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27 바깥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 준비한 다음 네 집을 세워라.  
28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네 입술로 속이지 마라.  
29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  
31 온 땅에 가시덤불이 올라와 있고 잡초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32 그때 나는 보고 곰곰이 생각했으며, 또 관찰하고 훈계를 받았다.  
33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34 너에게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덮칠 것이다.

#### 솔로몬의 다른 잠언들

25 1 O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들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 한 것이다.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일을 밝히려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3 하늘이 높고 땅이 깊듯이 왕들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4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식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온다.  
5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여라. 그러면 그의 보좌가 이로 인하여 견고해진다.  
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고관들 자리에 끼여들지 마라.  
7 이는 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네가 보고 있는 귀인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8 너는 성급하게 소송을 하지 마라. 나중에 네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모를까 두렵다.  
9 너는 이웃과 다투지라도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10 그것을 듣는 자가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평판이 너를 떠나지 않을까 두렵다.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 사과이다.  
12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에 금 귀고리와 순금 장식이다.  
13 신실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자에게 추수 때의 열을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14 거짓으로 선물을 준다고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15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도 듣게 되니,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16 꿀을 만나면 충분한 만큼만 먹어라. 네가 그것을 과식하면 토할 것이다.  
17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네게 싫증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18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망치고 칼이며 뾰족한 화살이다.  
19 재난의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나 탈곡된 밭과 같다.  
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잿물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21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22 그리하면 너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보상하실 것이다.  
23 복풍이 비를 몰고 오듯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24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25 먼 땅에서 보내온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26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화려한 우물과 같고 더러워진 샘과 같다.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기 영예를 거듭 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  
28 마음을 자제할 수 없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26 1 우둔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으니,

여름의 눈과 같고 추수 때의 비와 같다.  
2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참새 같고 날아다니는 제비 같아서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3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어리석은 자들의 등에는 몽둥이가 있어야 한다.  
4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5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6 우둔한 자 편에 소식을 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거나  
스스로 해를 받는 것과 같다.  
7 저는 사람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으니  
우둔한 자들의 입에 있는 잠언도  
그와 같다.  
8 우둔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무릎매에 매는 것과 같다.  
9 우둔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10 우둔한 자를 고용하는 것과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궁수와 같다.  
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둔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12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런 자보다는  
우둔한 자에게 희망이 더 있다.  
13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  
라고 말한다.  
14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15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에 떠 넣기조차 귀찮아한다.  
16 게으른 자는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17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18 미친 사람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같이,  
19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내가 농담도 못하느냐?”  
하고 말하는 자가 있다.  
20 딸감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 21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이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던지듯이  
22 싸움쟁이는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험담꾼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 말들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23 악한 마음에 온유한 입술은  
은을 살짝 입힌 토기와 같다.  
24 미움을 가진 자는  
입술로는 꾸며대지만  
마음으로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25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 마음속에  
일곱 가지 역겨운 것들이 들어 있다.  
26 비록 그의 증오가  
교묘하게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의 악함이  
대중 앞에 드러날 것이다.  
27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는  
자신이 그 돌에 부딪힐 것이다.  
28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에 희생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로 이끈다.

- 27 1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자신의 입으로는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 주는 것이지  
자기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돌도 무겁고 미래도 무겁지만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겁다.  
4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홍수 같거나 질투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5 드러내 놓고 꾸짖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6 친구의 책망은 진실에서 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7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하나  
배고픈 자에게는  
온갖 쓴 것이라도 달다.  
8 자기 고향을 잃고 떠도는 자는  
등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9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진심 어린 친구의 조언이 아름답다.  
10 네 친구나 네 아버지의 친구를

- 버리지 마라.  
네 역경의 날에  
네 형제 집에 찾아가지 말 것이니,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11 내 아들이,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12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하나,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13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외간 여자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몸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  
14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처럼 들린다.  
15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16 그런 여자를 억제하는 것은  
바람을 제지하려는 것이며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려는 것이다.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꺾나게 한다.  
18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가  
영광을 얻는다.  
19 물이 얼굴을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추인다.  
20 스물과 파벌이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21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연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한다.  
22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리로 찢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벗겨지지 않는다.  
23 네 양 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네 소 떼에 마음을 두어라.  
24 재물이 영원히 있지 못하니,  
왕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25 풀을 벤 후 다시 새싹이 나며,

- 26 언덕에서는 풀을 얻을 수 있다.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고,  
27 염소는 밭을 살 만한 값이 된다.  
염소의 젖은 충분하여  
너와 네 가족의 식량이 되고  
네 여종들의 먹이 될 것이다.  
28 1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2 땅에 죄악이 있으면  
통치자들이 많아지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오래 지속된다.  
3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김없이 쓸어 가는  
폭우와 같다.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한 자를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한 자와 싸운다.  
5 악한 사람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6 가난해도 성실히 행하는 자가  
부유하지만 행위가 악한 자보다 낫다.  
7 지혜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  
8 고리 대금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격이다.  
9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10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성실한 자들은  
좋은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11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지각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안다.  
12 의인이 성공하면 큰 영광이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13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 버리는 자는  
궁핍을 얻는다.  
14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으나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는

- 15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통치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이며  
굶주린 곰이다.  
16 무지한 통치자는 억압을 일삼으나  
청렴한 통치자는  
그의 생명이 길 것이다.  
17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게 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마라.  
18 성실하게 사는 자는 구원을 얻으나  
행실이 악한 자는 함정에 떨어진다.  
19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나  
헛된 것을 좇는 자들은  
심히 궁핍해질 것이다.  
20 신실한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이나  
성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21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  
사람이 빵 한 조각으로 인해서도  
범죄하기 때문이다.  
22 불의한 눈으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한 자는  
궁핍이 자기에게 닥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  
23 사람을 책망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24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불한당과 한 께이다.  
25 탐심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부유해진다.  
26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27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으나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체하는 자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28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고  
그들이 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 29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망하게 되고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하나

- 악인이 지배하면 백성이 신음한다.  
3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기들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한다.  
4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나  
뇌물을 탐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5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자이다.  
6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울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7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나  
악인은  
그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8 거만한 사람들은  
성읍을 소란케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소요를 가라앉힌다.  
9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변론하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  
10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백한 자들을 미워하나  
정직한 자들은  
결백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한다.  
11 우둔한 자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자제한다.  
12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관리들은 모두 악해진다.  
13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고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14 왕이  
가난한 자들을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구히 견고할 것이다.  
15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해 주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부끄럽게 한다.  
16 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들은 저들의 멸망을 볼 것이다.  
17 네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네게 평안을 주며  
네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18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 19 말만으로는 종을 훈계할 수 없으니,  
이는 그가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너는 말이 앞서서 자를 보았겠지만,  
그런 자보다는 오히려 우둔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21 종을 어릴 때부터 친절하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할 것이다.  
22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땀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26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총을 입고자 하나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27 의인은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고,  
악한 자는 행위가  
바른 자를 미워한다.
- 아굴의 잡언  
30 1 O이 잡언은 아계의 아들 아굴의 말씀이  
니, 이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에게 이른 것이다.  
2 참으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리석어서  
사람의 명철을 갖지 못했다.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으며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바닥에 모으는 자가  
누구며,  
물을 그 옷자락으로 감싼 자가  
누구며,  
땅의 모든 골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5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며  
그분께서는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6 너는 그분의 말씀에 보태지 마라.

-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렵다.
- 7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간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8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9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 10 너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  
비방하지 마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네게 죄가 될까 두렵다.
- 11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12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13 자기의 눈을 거만하게 하여  
눈꺼풀을 치켜뜯 자도 있다.  
14 앞니는 검이요,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궁핍한 자를 사람들 중에서  
잡어삼키는 자들도 있다.  
15 거머리에게는  
“주세요, 주세요.”  
하며 보채는 말이 돌 있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셋이 있으며  
결코 “죽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넷이 있으니,  
16 곧 스올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결코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 17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18 내게 기이한 것들이 셋,  
내가 이해 못 하는 것이 넷이 있으니,  
19 곧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 다닌 뱀의 자취와,  
바다 위에 지나간 배의 자취와,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자취이다.

20 간음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그 여자는 먹고도 먹지 않은 듯  
입을 씻음같이  
“난 아무 잘못도 범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

21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셋,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넷이 있으니,

22 곧 종이 왕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과,  
23 꺼림받은 여인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자기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24 땅에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25 곧 힘이 없는 종류이면서도  
여름에 자기 먹을 것을 장만하는  
개미들과,

26 강하지 않은 종류이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바위틈에 만드는  
오소리들과,

27 왕이 없으면서도  
모두가 폐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들과,

28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들이다.

29 당당하게 행진하는 것이 셋,  
늠름하게 걷는 것이 넷이 있으니,

30 곧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하여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31 허리띠를 두른 사냥개와,  
숫염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32 만일 네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네 입을 손으로 막아라.

33 과연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화를 돋우면 싸움이 일어난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31 1 르무엘 왕의 말씀이니 그의 어머니가 그  
를 훈계했던 교훈이다.

2 내 아들이야,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이야,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야,  
내가 무엇을 말할까?

3 네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며,  
왕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4 르무엘아,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며  
독주를 찾는 것은

통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5 그가 술을 마시다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학대받은 모든 자들의 권리를

짓밟을까 두렵다.

6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심정이 괴로운 자에게나 주여라.

7 그가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으며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8 너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대변하여라.

9 너는 입을 열어 정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여라.

10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11 그 여자의 남편은  
마음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2 그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롭게 하지 않는다.

13 그 여자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으로 즐겨이 일하며

14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양식을 구해 오고,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에게 음식을 차려 주고  
여중들에게는 일감을 일러준다.

16 그 여자는 잘 생각한 뒤에 밭을 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가로

포도원을 가꾸며  
17 힘껏 허리를 동이고

팔로 역세게 일하며,  
18 자기의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줄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19 한 손으로 실뭉치를 잡고  
다른 손으로 물레가락을 잡으며,

20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민다.

21 그 여자의 온 가족은  
주홍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여자는  
가족을 위하여 걱정할 일이 없으며,

22 자신을 위하여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주색 옷을 지어 입으며,

23 그 여자의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을 받고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으며,

24 그 여자는 배운 지어 팔고  
피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겨 주며

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앞날을 웃음으로 맞으며,

26 지혜롭게 입을 열고  
혀에는 인애의 가르침이 있으며

27 자기 집안 일들을 두루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을  
먹는 일이 없다.

28 그 여자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사례하고  
그 여자의 남편 역시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29 “덕행 있는 여자들이 많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한다.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31 그 여자의 손의 열매는  
그 여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여자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송받게 하여라.

## 전 도 서

## 서언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 첫된 세상만사

2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3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4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5 해가 났다가 지며,  
제자리로 급히 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6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불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7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으며,  
강물은 흐르던 곳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흘러간다.

8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지 않는다.  
9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이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10 "보아라, 이것은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다.

11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13 내가 마음을 쏟고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  
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살펴보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  
신 괴로운 집이다.  
14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15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16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보아라, 나보  
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나의 지혜가 더 많이지고 커졌으며, 내 마음  
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다."  
17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  
기 위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역시 바람  
을 잡는 것임을 깨달았다.  
18 이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기 때문이다.

## 첫된 세상의 쾌락

2 1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자, 가거  
라. 내가 너를 기쁜 것으로 시험하겠으  
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아라, 이  
것도 헛되다.

2 내가 웃음에 관해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  
였고, 기쁨에 관해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

3 내 마음이 지혜로 나를 이끌어 가면서,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를 깊이  
생각했고, 또한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짧은 생애 동안 하늘 아래서 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깊이  
생각했다.

4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확장하여, 나를 위해 집  
들을 짓고 나를 위해 포도원들을 만들었으며,  
5 나를 위해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고 거  
기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다.  
6 내가 나를 위해 연못을 만들어 수목이 자라  
는 삼림에 물을 대기도 하고,  
7 나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하였고, 내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으며, 나보다 먼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며,  
8 내가 나를 위해 은과 금과 왕들의 보물과 여  
러 지방의 보배들을 모아 들었으며, 나를 위  
해 남부 기술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거느렸다.

9 ○이와 같이 내가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  
었던 그 누구보다 크게 되고 강하게 되었으  
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10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  
지 않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어떤 것도  
삼가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모  
든 수고로 얻은 나의 몫이었다.

## 첫된 세상의 지혜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13 내가 마음을 쏟고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  
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살펴보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  
신 괴로운 집이다.  
14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15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11 그 후에 내 손으로 이룩한 모든 일들과 내가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애쓴 수고를 돌아켜 보  
니,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었고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다.  
12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  
리석음이 무엇인지 숙고하니, 왕의 뒤에 오  
는 자는 이미 오래 전에 행하여진 일을 되풀  
이할 뿐이다.  
13 내가 보기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은  
빛이 어두움보다 나은 것과 같다.  
14 "지혜로운 자는 밭게 보며 어리석은 자는 어  
둠 속을 걷지만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같은 일  
이 닥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15 또 내가 마음속으로 묻기를 "어리석은 자가  
당할 것을 나도 당할 터인데,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워지려고 했는가?" 하였고 내가 마  
음속으로 대답하기를 "이것도 역시 헛되구  
나." 하였다.  
16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영원히 기억  
되지는 않을 것이니,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장차 다 잊힐 것이다. 지혜로운 자도 어  
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죽는다.  
17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해 아  
래서 행하는 일들은 내게 괴로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18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내 모든 수고를 미  
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  
것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9 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까?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의 결과를 그가 관리할 것이니, 이  
것도 역시 헛되다.  
20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에 대하여 마음에 실망하였다.  
21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수고  
하나 그 얻은 것을 아무도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주어야 하니,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22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23 평생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  
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  
은 것은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  
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25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26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  
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는 것이다.

## 때가 있는 천하만사

3 1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를 때가 있으니,  
2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현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들을 터져 버릴 때가 있고  
물을 모을 때가 있으며,  
깨안을 때가 있고  
깨안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매 때가 있으며,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9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무슨 이  
익을 얻을까?  
10 내가 보니,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서  
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1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  
음을 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12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  
았다.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  
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4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낼 수도 없고 실패 수도 없다. 하나님  
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15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  
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16 ○내가 해 아래서 또 보니, 재판하는 곳에 악  
이 있고 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었다.  
17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  
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18 내가 사람의 일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  
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도  
침승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였으니,  
19 사람에게 닥치는 일과 짐승에게 닥치는 일이



- 똑같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모두가 같은 호흡을 가졌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
- 20 모두가 한 곳으로 가니, 흠에서 나와 흠으로 돌아간다.
- 21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까?
- 22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나중에 될 일을 보며 주려고 누가 그를 데리고 올까?

#### 학대와 수고와 우정

- 4 1 O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온갖 한 대를 보았다. 보아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으나,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 2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보다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 3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온갖 악행을 보지 않은 자가 그 둘보다 더 낫다고 말하였다.
- 4 O내가 또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가 그의 이웃들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 5 O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 살을 먹는 다.
- 6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 보다 낫다.
- 7 O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 8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하면서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여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에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불행한 일이다.
- 9 O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 둘이 함께 일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10 만약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 를 일으켜 세울 것이나 넘어졌어도 자기를 일으켜 세워 줄 다른 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 11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으나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 12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대항할 수 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 13 O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은 조곤을 거절 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 14 이는 그가 비록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 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왕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또는 호흡

- 15 나는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계승자인 그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 16 모든 백성, 곧 그들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는 자 들은 아무도 그 계승자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 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 하나님 경외

- 5 1 O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 네 발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절제 하여라.
- 3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리 석은 소리가 난다.
- 4 O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 5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6 너는 네 입으로 네 육신이 죄를 짓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음성 에 화를 내시고 네 소원으로 한 일을 멸하시게 하려 하겠느냐?
- 7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리 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 헛된 부귀

- 8 O만일 네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 하고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그 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높은 자를 감시하는 더 높은 자가 있고 또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 9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 10 O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 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 11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니, 그 주인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을 얻겠는가?
- 12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배불러서 편히 자지 못한다.
- 13 O내가 해 아래 심한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 니, 곧 아끼던 재산이 그 주인에게 도리어 해 를 끼치는 것이다.
- 14 그 재물을 재난으로 잃어버리니, 그가 비록 아 들을 낳았어도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 15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니,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 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 16 이것도 심한 악이다. 사람은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것이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한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 17 그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은 것이며, 많은 울 분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 18 O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일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 19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시고, 자기 몫을 받게 하시며, 자기의 일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으 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 20 사람은 자기 생애의 날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 6 1 O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은 사람을 건디기 힘들게 한다.
- 2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람 나위가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 셧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 게 하시고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시니, 이것 역시 헛되고 병폐이다.
- 3 만일 사람이 자녀 백 명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아 서 장수하더라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제 대로 매장되지도 못한다면, 나는 말하기를 "낙 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겠다.
- 4 이는 낙태된 아기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 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 속에 떨어져서
- 5 해조차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이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이다.
- 6 비록 그 사람이 천 년의 두 배를 산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 7 O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 입을 위한 것이 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 8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 이냐?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가난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 9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는 것이다.
- 10 O이미 있는 모든 것은 오래 전부터 그 이름 이 정해져 있었으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다. 아무도 자기보 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
- 11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 12 자기의 헛된 생애를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 람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해 아래서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 가 그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있을까?

####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 7 1 O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고 주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 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이
- 3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하여라.
- 4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 5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
- 6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 7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 8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 9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 10 성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무른다.
- 11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이나?" 라고 묻지 마라. 네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12 지혜는 유언처럼 좋은 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
- 13 돈이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도 보호한다. 그러나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것을 가진 자를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 14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쉽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할 수 있겠느냐?
- 15 O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 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 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 16 O내가 내 허무한 날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보니,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

- 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16 너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마라. 네가 스스로 망할 이유가 무엇이나?  
 17 너는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마라. 너의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을 이유가 무엇이나?  
 18 네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19 ○지혜는 지혜로운 한 사람을 그 성읍 안에 있는 열 명의 통치자들보다 더 능력있게 만든다.  
 20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21 ○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마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까지 듣게 될 것이다.  
 22 너도 역시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다.

#### 소중함 지혜

- 23 ○내가 지혜를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 있었다.  
 24 지혜는 너무나 멀며 깊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25 ○내가 돌이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탐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또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다.  
 26 마음이 올라가나 그들 같고 손이 포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은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여자에게 걸려들 것이다.  
 27 전도자가 말한다. “보아라, 이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찾으려고 날일이 살피보면서,  
 28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였다. 내가 천 명 중에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29 보아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유익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많은 피를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

#### 왕에 대한 복종

- 8 1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알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여 그의 얼굴의 굳은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2 ○내가 권고하니, 너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였기 때문이다.  
 3 너는 왕 앞에서 조금하게 물러나지 말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마라. 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기 때문이다.

- 4 왕의 말은 권위가 있으니, 누가 그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할 수 있겠느냐?  
 5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방법을 알고 있다.  
 6 비록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목적에는 이를 때와 방법이 있다.  
 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누가 장래 일을 그에게 말해 줄 수 있겠느냐?  
 8 바람을 다스려 그것을 붙잡아 둘 사람이 없듯이,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모면할 사람이 없듯이 악이 행악자를 구해 주지 않는다.

####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 9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 하다가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때가 있었다.  
 10 ○또 나는 악한 사람들이 매장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왔으나 거룩한 곳에서 곧 떠나갔으며, 그들이 살던 성읍에서 이미 잊혀졌으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11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  
 12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 나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참으로 안다.  
 13 그러나 악인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도 길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을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

- 14 ○땅 위에서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니 악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날 일이 의인에게도 일어나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날 일이 악인에게도 일어나니, 내가 말하거나 이것도 역시 헛되다.  
 15 그러므로 나는 기쁨을 찬양하니, 이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사람에게 주시는 날 동안 그의 수고와 함께 기쁨이 있을 것이다.  
 16 ○내가 마음을 쏟아 지혜를 알려고 하며 땅 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깨달으려고 애쓰니,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17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찾으려고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니, 혹시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역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같은 처지의 사람

- 9 1 ○내가 마음을 쏟아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 의 손 안에 있으므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도 알지 못한다.  
 2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자나 깨끗한 자나 불결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똑같다.  
 3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 가고 만다.  
 4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이 있으니, 이는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5 살아 있는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도 없으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기 때문이다.  
 6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오래 전에 사라져 해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자기 몫을 영원히 얻을 수 없다.

#### 사랑과 함께한 즐거움

- 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이미 즐거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8 ○너는 항상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네 머리에는 향기롭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9 너의 헛된 평생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너의 헛된 평생 동안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네가 사는 동안에 해 아래서 애쓴 수고로 받은 네 몫이다.  
 10 네 손이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라. 네가 가게 될 스승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 어리석음과 지혜

- 11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여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13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았으니, 내게는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14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 와서 그 성읍을 포위하고 거대한 담을 쌓았다.  
 15 그때 그 성읍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6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하였다.  
 17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 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  
 18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파괴시킨다.

#### 10

- 1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힌다.  
 2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3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생각이 모자라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4 통치자가 네게 화를 내더라도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는 자칫함이 큰 잘못을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5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통치자가 저지른 허물과 같은 것인데,  
 6 곧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며,  
 7 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터다녔다.  
 8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9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것이며,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10 만일 철 역장이 무던해도 날을 감지 않으면 힘이 더 들지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11 만일 마술을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면 그 마술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12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망치게 한다.  
 13 그의 입은 어리석은 말들로 시작하며, 그의 입술은 광기로 끝난다.  
 14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15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고는 자신을 파괴하게 하니, 이는 그들이 성읍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16 왕은 어리고 고관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이여,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 17 왕은 고귀한 성품을 가졌고 고관들은 힘을 얻기 위하여 때를 맞춰 먹고 취하지 않는 나라이여,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 18 게으르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이 한가하면 지붕이 샌다.
- 19 잔치는 기뻐하기 위한 것이며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나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 20 너는 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네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는 궁중의 새가 그 소리를 옮기고 날 짐승이 그 말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지혜로운 삶

- 11 1 O너는 네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 2 이 땅 위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네가 알지 못하니, 너는 일곱이나 여덟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라.
- 3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 4 바람을 관측하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을 것이다.
- 5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자의 태 속에서 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한다.
- 6 O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때까지 네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7 O빛은 아름다우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 8 O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이는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 일은 모두가 헛되다.
- 9 O청년이며, 네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네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 10 O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 버리고 네 몸에서 악을 없애 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 젊을 때 기억할 창조자

- 12 1 O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 3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고 강한 자들이 구부정해지며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어 없어지고 창 밖으로 내다보던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 4 또한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질 소리가 약해지며, 새 소리에도 잠이 깨고,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해질 것이다.
- 5 또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거리에 있으며,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잠이 되며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마침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할 것이다.
- 6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향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 7 흙이 원래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여라.
- 8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 전도자의 결론

- 9 O전도자가 지혜로워 백성에게 계속하여 지식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들을 정리하였다.
- 10 전도자가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니, 기록된 것은 율바르며 진리의 말씀이다.
- 11 O지혜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고 수집한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는 한 목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 12 내 아들이아, 이런 것들을 조심하여라.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 13 O네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 14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아가

### 1 1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다.

#### 여자

- 2 그의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 3 당신의 기쁨은 향기롭고 좋으며, 당신의 이름은 솜아놓은 향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 4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렵니다. 왕께서 나를 자기 침실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당신의 사랑을 찬송하렵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5 예루살렘의 딸들이, 내가 비록 검은지라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 6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 햇볕이 나를 그을렸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화를 내어, 포도원들을 돌보게 하였으나 내가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였구나.
- 7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어디서 양 떼를 먹이며 정오에는 어디서 양 떼를 쉬게 합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친구들의 양 떼 곁에서 어찌하여 내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어야 합니까?

#### 친구들

- 8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정말 모른다면,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여라.

#### 남자

- 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교하련다.
- 10 너의 두 뺨은 땅은 머리채와 더불어, 너의 목은 구슬 목걸이와 더불어 아름답구나.
- 11 우리가 네게 은으로 장식된 금 사슬을 만들어 줄 것이다.
- 12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쁨이 향기를 내뿜었구나.
- 13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밤새 내 품 사이에 있는 몰약 주머니 같고,
- 14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언제나 포도원의 고별 꽃송이입니다.

#### 남자

- 15 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두 눈이 비둘기 같구나.

#### 여자

- 16 아,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어여쁘고 정말 사랑스러우며 우리의 침상은 참으로 푸르고,
- 17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며, 우리의 서까래는 잣나무입니다.

### 2 1 나는 사론의 수선화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 남자

- 2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 여자

- 3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는 수풀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크게 기뻐하였고, 그 과일 은 내 입에 달콤하였다.
- 4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의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 5 건포도로 내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회복시켜 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구나.

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8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이다.  
보아라, 그가 산들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 오는구나.  
9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0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한다.

남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1 보아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지나갔으며,  
12 땅에는 꽃들이 피고  
노래하는 계절이 이르러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려오는구나.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들이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4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며  
네 음성들을 듣게 하여라.  
네 음성은 감미롭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자

15 우리를 위해 여우들,  
곧 포도원을 헤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 주세요.  
우리 포도원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16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며,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고 있구나.  
17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의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세요.

3

1 나는 밤에 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

내가 그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2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에서나 광장에서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를  
찾을 것이다.” 하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3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당신들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를  
보았습니까?” 물었다.

4 내가 그들을 지나가자마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났으므로  
내가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곧 나를 잉태했던 방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였다.

5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친구들

6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내며,  
연기 기둥같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7 보아라,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서

육십 명의 용사들이 호위하였는데,  
8 모두들 칼을 가졌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며,  
밤의 두려움 때문에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찌구나.

9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으니,

10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입혔다.

11 시몬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즐거운 날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 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구나.

남자

4 1 아,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를 속에 있는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네 머리카락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2 네 이는 욕실에서 나온  
털 깎인 양무리,

곧 제각기 모두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3 너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네 입은 아름답고.

너를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4 너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천 개의 방패,  
용사들의 모든 방패를 걸어 놓는

망대 같구나.

5 네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뜯는

한 쌍의 어린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6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 산과,

유향의 언덕으로 갈 것이다.

7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8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미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모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에서,  
표범의 산에서 보아라.

9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네 눈짓 한 번으로  
네 목의 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네 기쁨의 향기는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11 나의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네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샘이로구나.

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맛 좋은 과일들과

고벨화와 나도초며

14 나도와 변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온갖 귀한 향료들이다.

15 너는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흘러오는 시냇물이다.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으로 불어와 향기를 풍겨라.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하여라.

남자

5 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으로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구나.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셔라.

한껏 마셔라.

여자

2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여자

3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혀겠습니까?



- 4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들어밀 때,  
그이로 인해 내 마음이 움직여서
- 5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어 주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내 손가락에서는 몰약의 즙이 문빛장 위로 흘러 내린다.
- 6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이미 돌아서서 가 버렸다.  
그의 떠난 일로 내가 넋을 잃었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 7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겹옷을 벗겨 취하였다.
- 8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부디 그에게 전해 주어라,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 9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여자야,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 10 나의 사랑하는 자는 피부가 희면서 혈색이 좋아,  
만인들 가운데 뛰어난다.
- 11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며 까마귀갈이 검으며 꼬불꼬불하다.
- 12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의 비둘기들 같아서 젖으로 씻은 듯하고 보기 좋게 잘 박혀 있다.
- 13 그의 두 뺨은 향기로운 꽃발,  
향내 나는 풀언덕 같고 그의 입술은 몰약 즙이 똑똑 떨어지는

- 백합화 같으며
- 14 그의 손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 팔찌 같고,  
그의 몸은 청옥을 입혀 아로새긴 상아와 같다.
- 15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외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 16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이이고,  
나의 친구이다.

## 친구들

- 6 1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여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볼 것이다.

## 여자

- 2 내 사랑하는 이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 떼를 치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구나.
- 3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치고 있구나.

## 남자

- 4 나의 사랑아,  
너는 디르시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우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구나.
- 5 네 눈이 내 마음을 동요하게 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 다오.  
네 머리카락은 길르앗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 6 네 이는 욕실에서 나온 암양 무리,  
곧 제각기 모두 쌍태를 낳은 양 같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 7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 8 왕비가 육십 명이고,  
후궁이 팔십 명이며,  
시녀가 수없이 많지만,  
9 너의 비둘기,

-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고,  
자기를 낳은 자의 귀한 딸이다.  
여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복되다고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를 칭찬하는구나.
- 10 아침 빛처럼 맑고 달처럼 어여쁘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 여자

- 11 골짜기에 돌아 나온 새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짙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내가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내 지체 높은 사람들의 수레에 오르게 하였구나.

## 친구들

- 13 돌아오라, 돌아오라,  
솔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고 싶구나.
- 14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하니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같이 솔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 친구들

- 7 1 귀한 집의 딸아,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나.  
너의 두 넓적다리 곡선미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보석 같구나.
- 2 네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충분히 차 있는 둥근 잔 같으며,  
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 3 네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 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네 코는 디마스쿠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 5 네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네 머리카락은 자줏빛 같아서 왕이 그 머리채에 사로잡혔구나.
- 6 나의 사랑, 즐거움이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냐?  
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젖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 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들을 잡아 보겠다.”  
하였다.  
너의 두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네 숨결은 사과 냄새와 같구나.
- 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내 사랑하는 이에게 부드럽게 흘러  
잠든 이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 여자

- 10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니,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 11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마을에서 밤을 지낼시다.
- 12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에 짙이 났는지 포도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거기서 그대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 13 함환채가 향기를 내뿜는데,  
우리 문 들에는 새 것, 묵은 것, 온갖 좋은 과일들이 있으니,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당신을 위해 쌓아 놓은 것입니다.

## 8

- 1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라버니 같다면,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이가 없을 것입니다.
- 2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셨던 내 어머니의 집에 가서  
당신에게 내 석류 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 3 당신의 왼팔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 4 오른팔로 나를 안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친구들**
- 5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여자**
-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겪은 곳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 6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 두세요.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스올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와 불 같습니다.
- 7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쓸어 버리지 못할 것이니,  
만일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
- 8 우리의 작은 동생에게는  
아직 젖기습이 없는데,  
누이가 청혼이라도 받는 날에  
우리가 누이를 위해

-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9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은 망대를 세워 주고,  
누이가 성문이라면,  
우리는 그 위를  
백향목 판자로 둘러 줄 것이다.  
**여자**
- 10 나는 성벽이고,  
내 젖기습은 망대 같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 11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비알하몬에 있어  
그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 과일 값으로  
각자 은 천을 바치게 하였다.
- 12 나에게도  
내게 속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며,  
천은 왕의 것이고,  
이백은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의 것입니다.  
**남자**
- 13 동산에 거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나에게 들려 다오.  
**여자**
- 14 내 사랑하는 이여, 빨리 오세요.  
당신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뛰어 오세요.

## 이 사 야

- 1 1 O 유다 왕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  
기야 시대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  
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 2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 3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 4 슬프다, 죄지는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 5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다.
- 6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명과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것들을 짜거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 7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 버렸으며,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삼켰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같이  
황무지가 되었다.
- 8 시몬의 딸이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된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 10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와 말씀해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제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 13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 14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제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게 집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 16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며,  
악행을 그치고
- 17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 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20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같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 신실하지 못한 성읍

21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그 가운데 공의가 가득 차고  
정의가 머물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다.  
22 너희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23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며  
도둑의 친구들이고,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를 구하고,  
고아를 변호하지 않으며  
과부의 소송을 받지 않는다.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선언하신다.  
“슬프다.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며,  
25 내 손을 내에게 돌려  
네 찌꺼기를 온전히 씻어 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겠으며,  
26 네 판사들을 옛날과 같이,  
네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이라 불릴 것이다.”

27 시온이 정의로 구속될 것이고,  
돌이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다.  
28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부서지며,  
여호와를 저버린 자들도  
소멸될 것이다.  
29 너희가 좋아했던 상수리나무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택한 동산들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30 너희는 잎사귀가 시들어 가는  
상수리나무같이 될 것이며,  
그 안에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니,  
31 강한 자는 삼 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여호와와 산

2 1 O 이것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2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  
3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와 산과  
아름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4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5 아름답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6 “주께서 주님의 백성  
아름 집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갈굼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7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합한다.

9 그러므로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비굴해졌으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10 너희는 여호와와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틈에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어라.  
11 그 날에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모든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질 것이니,  
13 레바논의 크고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상수리나무들과

14 우뚝 솟은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들과,  
15 모든 높은 땅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들과

16 다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에도  
이 날이 임할 것이다.

17 그 날에 교만한 자는 꺾이며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아지실 것이며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18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와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틈 동굴과 토굴에 숨을 것이다.

20 그 날에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려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21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와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을 것이다.

22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3 1 O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2 영웅과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3 전쟁이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족과 자문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란한 마술사를  
없애실 것이다.

4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린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으며  
5 백성이 서로 억압하고  
사람이 그 이웃을 억압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 것이다.”

6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너는 겹옷을 가졌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다오.  
이 폐허를 네 손아래 두어라.”

말하면  
7 그 날에 그가 소리 높여 말하기를  
“나는 치료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는 음식도 없고 옷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마라.”  
할 것이다.

8 예루살렘이 었드러지고  
유다가 넘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대항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격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9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명하며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 것이 소들과 같아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다.

10 너희는 의로운 사람에게  
그가 잘될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재앙이 있음은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  
네 인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며,  
너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 13 여호와께서 쟁론하려고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신다.
-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재판하러 들어가신다.  
“너희가 바로 그 포도밭을 삼킨 자이니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 15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땀 흘리게 하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 1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유희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셨다.
-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 18 ○ 그 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반달 장식과
- 19 귀고리와 팔찌와 목도리와
- 20 모자와 발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 21 반지와 코고리와
- 22 예복과 외투와 겹옷과 지갑과
- 23 손거울과 고운 베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 24 그 때에 향수 냄비 대신 썩은 냄새가, 허리띠 대신 밧줄이, 곱게 손질한 머리 대신 대머리가, 화려한 옷 대신 굵은 베옷이, 아름다운 대신에 수치스런 자국이 있을 것이다.
- 25 네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네 용사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 26 그 성문들이 탄식하며 애곡할 것이고, 시온은 공허하여 땅에 앉을 것이다.

4 1 ○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지

- 2 ○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딸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고, 그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며,
- 3 시온에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명단에 기록된 모든 자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다.

4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광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에게서 더러운 것을 씻어 내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닦아 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5 여호와께서 시온 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집회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빛을 내는 불꽃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게 하실 것이며,

6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피신처가 될 것이다.

#### 포도원 노래

- 5 1 ○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 2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쁨진 언덕에 있었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마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3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된 일이나?

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6 내가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복돋우지도 못하게 되어

절제와 가시만 자랄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7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살육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부르짖음이다.

#### 화를 당한 악한 자들

8 화 있을 것이다.

집에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여 빈 곳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참으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크고 좋을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 열흘같이 포도밭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않을 것이며,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11 화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있으면서

포도주로 불게 묻은 사람들아.

12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작은북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와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13 그러므로 무지함 때문에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 스올이 그 식욕을 돋우어

그 입을 한없이 벌릴 것이니,

그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가운데 환호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15 인간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낮아질 것이며

교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나,

16 만군의 여호와와

공평하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17 그 때에 양들은

자기들의 초장에서처럼 풀을 먹고,

떼도는 사람들은

살진 자들의 폐허 가운데서

먹을 것이다.

18 화 있을 것이다.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잡아당기며,

죄를 수레의 끈처럼 당기는 사람들아.

19 그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그 계획을 속히 이루셔서

우리가 보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그 뜻을 가까이 임하게 하여

우리가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

20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아.

21 화 있을 것이다.

자기 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 보기에

스스로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아.

22 화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는 으뜸이며,

독주를 혼합하는 데 빼어난 사람들아.

23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석방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구나.

24 그러므로 불의 혀가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소멸되듯이

그 뿌리가 썩을 것이며

그 꽃이 티끌처럼 흠날릴 것이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율법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펼쳐 그들을 내려치시니,

산들이 떨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쓰레기처럼 되었으니,  
이 모든 것으로도  
그분은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26 또 주께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불러  
깃발을 들고  
땅 끝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부르신다.  
보아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겠지만

27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없으며  
조는 자나 지는 자도 없으며,  
그 허리띠가 풀이지거나  
신발 끈이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그 모든 활은 당겨져 있으며  
그 말발굽은 부싯돌 같아 보이고  
그 바퀴들은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29 그들의 울부짖음은 사자 같고  
그 울부짖는 것은  
새끼 사자들 같을 것이다.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잡아  
마음 놓고 가져가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30 그 날에 그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백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어둠과 고통뿐이며  
빛도 그 구름으로 인해  
어두워질 것이다.

#### 여호와와 그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6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  
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2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  
각 여섯 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  
로는 날며  
3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4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5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6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절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  
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  
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부정이 제거되  
었고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였다.

8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소서.” 라고 하였  
다.

9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11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  
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12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13 아직 심본의 일이  
거기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 아하스왕을 만난 이사야

7 1 ○웃시야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  
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이람 왕 르신  
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  
살렘과 전쟁하려고 올라왔으나, 그곳으로 공  
격을 개시하지 못했다.  
2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  
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

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쉼  
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3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  
다. “너와 네 아들 스알이세는 ‘제택자의 발’  
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면목’의 수로 끝  
에서 아하스를 만나

4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  
람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  
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  
과하다.

5 이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를 대  
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6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  
복하고, 다브엘의 아들들 그들 가운데 세위  
왕으로 삼자.’ 하였다.

7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8 이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 임마누엘의 징조

10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11 “여호와와 네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스  
울같이 깊은 곳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12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  
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  
다.

13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  
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  
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  
겠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  
이다.

15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16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  
는 것을 알기 전에,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  
은 버림받을 것이다.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

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날  
들을 나와 네 백성들 그리고 네 조상들의 집  
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  
는 날이다.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먼 시내들에  
서 파라 페와 아시리아 땅에서 벌레들에게 신  
호시킬 것이니,

19 그것들이 물려와 가파른 골짜기와 바위틈과  
모든 가시나무 덤불과 모든 초장에 내려앉을  
것이다.

20 ○그 날에 여호와께서 강 저 너머에서 빌린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  
와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 버릴 것이  
다.

21 ○그 날에는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암소 한 마  
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지라도

22 그것들이 짚을 많이 내어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  
와 꿀을 먹을 것이다.

23 ○그 날에, 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 은 천  
개의 가치가 있던 곳마다 쥘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될 것이다.

24 그 온 땅이 쥘레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니,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  
이다.

25 꿩으로 경작하던 모든 산에도 너는 쥘레와  
가시덤불이 무서워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  
며, 그곳은 소를 풀어 놓는 곳과 양이 밟는 곳  
이 될 것이다.”

#### 아시리아 왕의 침략

8 1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서판을 가져다 그 위에 보통의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 라고 써라.

2 내가 믿을 만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  
베레기아의 아들 스기라를 불러 나를 위해 증  
언하도록 할 것이다.” 하셨다.

3 ○그 뒤에 내가 그 여선지자에게 갔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  
스바스라고 불러라.

4 이는 그 아이가 커서 ‘내 아빠, 내 엄마.’ 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  
리아의 모든 노획물들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5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6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  
리고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들 기뻐하므로

7 주께서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을 대항하도록 데려올  
것이니, 그것이 모든 수로를 덮고 그 모든 강  
둑 위로 넘칠 것이며

8 또 그것이 유다에 들어와 흘러 넘치고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임마누엘아, 그것이 그 펼친 날개로 네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 9 백성들이,  
큰소리로 외쳐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허리띠를 동여매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허리띠를 동여매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 10 함께 모의해 보아라,  
실패할 것이다.  
말을 해 보아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 11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내게 얹으시며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내게 교훈하며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 12 “이 백성이 반역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말을 따라 반역이라 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하셨다.
- 13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라. 그분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분이다.
- 14 주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넘어서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함정과 올가미가 되실 것이다.
- 15 많은 사람이 그 위에 넘어지고, 그들은 쓰러지며 부서지고, 뒷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 16 ○너는 증거를 싸매 두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인하여라.
- 17 나는 아람의 족속으로부터 자기의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랄 것이다.
- 18 보아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게 주신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징조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 19 사람들이 너희에게 “소곤거리고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영매들에게 물어 보아라.”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 20 율법과 증거를 따라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새벽이 없을 것이다.
- 21 그들이 역경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매며

굶주릴 때에, 분노하여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여 위를 쳐다보거나  
22 땅을 둘러보아도 오직 고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두움뿐일 것이니, 그들은 흑암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 장차 오실 평강의 왕

- 9 1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 2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3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마치 추수 때 즐거워하며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 4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그들 어깨의 멍둥이와 그 압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시던 날같이 부수셨고,  
5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불의 떨감으로 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 6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 7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디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와 분노
- 8 주께서 아람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하셨으나,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들이 알고 교만하여 거만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 10 “백동들이 무너져 내렸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며, 시키모어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가 배향목으로 대체할 것이다.” 한다.
- 11 그러나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실 것이니,  
12 동쪽에는 이람인들과 서쪽에는 블레셋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 13 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
-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 가지와 갈대를 자르실 것이니,  
15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 16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 17 그 모두가 불경건하며 악을 행하는 자이며 모든 입은 지각 없는 말을 하므로, 주께서 그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 18 악행이 타오르는 불같이 쪼려와 가시덤불을 삼키며 뻘뻘한 숲을 불태우니, 연기가 기둥을 이루어 올라간다.
-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로 땅을 불태우실 것이므로, 백성은 불의 떨감 같을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 20 그가 오른쪽으로 움켜쥐어 보아도 배고플 것이며 그가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각 사람마다 자기 팔의 살을 먹을 것이다.
- 21 으스스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으스스한 에브라임을 먹으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유다를 칠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 10 1 화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이,  
2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력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는구나.
- 3 징벌의 날에 그리고 파멸이 먼 곳에서 올 때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 도망하겠느냐?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겠느냐?
- 4 그들은 포로를 아래 엎드리지며 살해당한 자를 아래에 쓰러질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 아시리아를 향한 여호와와 분노
- 5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뭉둥이는 내 진노이다.
- 6 불경건한 민족에 대항하여 내가 그를 보내니,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에 맞서서 노략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도록 할 것이지만,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도 이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직 그는 마음속으로



- 허다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없애 버리려 하여 말한다.  
8 내 지휘관들은 모두 왕들이 아닌가?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은가?  
하맛이 아르밋과 같지 않은가?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않은가?  
10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새긴 우상보다  
더 뛰어난 우상의 왕국들에게  
내 손이 이미 미쳤으니,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12 그러므로 내가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내 일  
을 다 마친 후에,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  
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13 그가 말한다.  
“내가 총명하므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고  
내가 백성들의 경계를 울렸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맹스런 사람처럼  
내가 주민들을 굴복시켰으며,  
14 내 손이 새의 동지를 찾는 것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찾았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는 것같이  
내가 모든 땅을 모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었다.”  
15 도끼가 어찌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으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든 사람들  
들려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들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다.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여위게 하시며  
그의 자랑거리 아래에  
타오르는 불꽃같이  
불을 붙이실 것이다.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  
하루 사이에 그 불이  
그의 가시덤불과  
그의 켄레를 태워 삼킬 것이며  
18 그의 숲과 그의 과수원의 영화를  
영혼에서 육체까지

- 그분께서 소멸할 것이니,  
병든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19 그 숲에 남아 있는 나무가 적어서  
아이라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아람 족속  
의 도피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사람  
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  
호와를 진실로 의지할 것이며,  
21 남은 자 곧 아람의 남은 자들이 능력의 하나  
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22 이스라엘아, 비록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  
더라도 그 중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니, 넘  
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23 이미 작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24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  
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몽둥이로  
치고 막대기를 들어 너를 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25 내가 잠시 후에 너를 향한 내 진노를 그치겠  
고, 내 분노가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26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렐 바위에서 미디안을 치  
셨듯이 채찍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며 이집트  
길에서 하셋듯이 바다를 향하여 그분의 막대  
기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27 그 날에 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고, 네  
목에서 그들의 멍에가 벗겨지되 살이 찢 까  
답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28 그가 이맛에 들어와,  
미그론을 지나 므미스에  
그들의 장비를 쌓아 두며,  
29 그들이 골짜기를 지나  
“게바가 우리의 유숙지이다.”  
하고 말하면  
라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시울의 기브아 사람들이  
도망할 것이다.  
30 갈릴의 딸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샤야, 불쌍한 아나돗아,  
귀를 기울여라.  
31 밋메나 사람들이 도망하며,  
게빔 주민들은 피신한다.  
32 이 날에 그가 놈에서 쉬면서  
시온 딸의 산과  
예루살렘의 언덕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 것이다.  
33 보아라,

-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공할 능력으로  
가치들을 꺾으실 것이니,  
장대한 자들이 배임을 당하고  
높은 자들이 낮아질 것이며,  
34 도끼로 울창한 숲을 찍어  
넘어뜨리실 것이니,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에 의하여  
쓰러질 것이다.  
**이새로부터 나온 한 나뭇가지**  
11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2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3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4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공평으로 땅의 겸손한 자들을  
판결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5 공의가 그의 혀피가 되며,  
성실이 그의 열구리의  
피가 될 것이다.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지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지식의

-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  
민들의 기쁨으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  
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11 ○그 날에 주께서 그분의 손을 두번째로 펴서  
서 그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  
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  
다의 모든 섬들에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  
이다.  
12 주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기발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며  
유다의 흠어진 백성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모으실 것이니,  
13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14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어깨를 덮치며,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함께 약탈하고,  
애돔과 모압을 향해 손을 뻗치며  
임몬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15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해만을 부수시고  
그분의 손이 뜨거운 바람으로  
그 강을 흐르시고  
그것을 쳐서  
일곱 강줄기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16 주님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큰 길이 생기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을 것이다.  
**나의 힘과 노래이신 여호와**  
12 1 ○그 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2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3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올 것이다.

4 그 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5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6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

13 1 O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이다.

2 너희는 벌거벗은 산 위에  
갯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3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고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4 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많은 백성의 소리이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들썩한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신다.  
5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왔으니,  
여호와께서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다.

6 너희는 슬피 울어라.  
이는 여호와와 날이 가깝고,  
전능자로부터 파멸이 오기 때문이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이 처지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8 그들이 실망하고  
비통과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며,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의 얼굴이  
불꽃처럼 달아올를 것이다.

9 보아라, 여호와와 날이 올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날이고  
잔혹한 날이니,  
주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10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그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11 “내가 세상의 악과  
악한 자들의 죄악을 벌하며,  
거만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12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며,  
사람을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다.

13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진노하는 날에,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14 그들이 쫓기는 사슴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할 것이나,  
15 눈에 띄는 사람마다 찢릴 것이고  
불잡히는 사람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16 그들의 갓난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쳐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은 추행당할 것이다.

17 보아라,  
내가 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자국하여  
그들을 칠 것이니,

18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눈은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19 바빌로니아는  
나라들 가운데 영광이고,  
갈대아인들의 자랑이고 아름다움이나,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20 그곳은 영원히 사람이 살지도 못하며  
대대로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니,  
아르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 양을  
놓게 하지 않을 것이다.

21 들짐승들이 거기에 놓고  
그들의 집들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며,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짐승들이 거기서 뛰며,

22 그 궁궐 안에서는 여우가  
찬란하던 궁전안에서는 이리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 아굽의 회복

14 1 O여호와께서 아굽을 참으로 불쌍히 여  
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  
들을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  
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아굽의 집에 연합할 것  
이다.

2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  
들을 얻어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며,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고,  
자기를 압제했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3 O여호와께서 네 고통과 고난과 네가 수고한  
오독한 노역으로부터 너를 쉬게 하시는 날  
에,  
4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  
여라.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

5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막대기와  
통치자들의 홀을 부러뜨리셨다.

6 그들이 분을 내어  
끊임없이 여러 민족을 치고  
진노하여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자가 없었지만,

7 이제는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하니,  
사람들이 소리쳐 노래한다.

8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네가 쓰러졌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짊어 넘어뜨릴 자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9 아래의 스올이  
네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소동하며,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일어나게 하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으켜 세우니,

10 그들이 모두 네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약해졌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할 것이다.

11 네 위엄과 네 비파 소리가  
스올에 떨어지며,  
구덩이들이 네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너를 덮는다.

12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어찌 이제는 꺾혀져  
그 땅에 쓰러졌느냐?

13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산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14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라고 한다.

15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밑바닥에 빠질 것이니,  
너를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며  
16 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땅을 떼려 하고  
나라들을 뒤흔들며,  
17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을 뒤엎으며,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 사람인가?’

18 열방들의 모든 왕들은  
각기 제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지만,  
19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혐오스러운 나뭇가지와 같으며  
칼에 찢린 주검으로 둘러싸여  
것발한 시체처럼  
돌 구덩이에 내려갈 것이다.

20 네가 네 땅을 패허로 만들었으며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무덤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행악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21 너희는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 하살당하도록 준비하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을 세워  
땅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라.”
- 22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빌로니아에서  
끊어 버리겠다.”
- 23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고슴도치의 굴과 물 웅덩이로 만들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 버리겠다.”
-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 25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부수고  
내 산에서 짓밟을 것이니,  
그 때에 그 땅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 26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진 손이다.
- 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 손을  
거두어잡을 수 있겠느냐?
- 블레셋에 대한 경고**
- 28 이것은 아히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경고이다.
- 29 너희 모든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그 열매는 날아 다니는 불뱀이다.
- 30 가난한 사람의 장지도 배불리 먹고  
궁핍한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나,  
내가 너의 뿌리는  
기근으로 죽일 것이니,  
기근이 너의 남은 자도  
살육할 것이다.
- 31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부르짖어라.  
너희 모든 블레셋인들은  
녹아 버릴 것이니,  
북쪽에서 연기가 오되

그 대열에서 낙오하는 자가 없다.

- 32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 모압에 대한 경고

- 15 1 모압에 대한 경고이다.  
밤사이에  
모압의 일이 파괴되어 멸망하고  
밤사이에  
모압의 길이 파괴되어 멸망할 것이다.
- 2 그가  
성전과 디본과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 때문에 슬피 운다.  
그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모두 수염을 깎았으며,
- 3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친 베옷을 두르고,  
그 지붕과 광장에서  
모두 통곡하고 엎드려 울며
- 4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저 멀리 아히스에게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이 부르짖으며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떠난다.
- 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 도망자들이 소일과  
에글랏 슬리시야까지 도망하여,  
울면서 루히의 비탈길로 올라가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 때문에 높이 부르짖으니,  
니므림의 물이 말라 버렸고  
연한 풀들이 시들고 채소들은 말라서  
푸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아 두었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니,  
8 그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지경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곡하는 소리가  
에글라임까지 이르며,  
그들의 탄식 소리가  
브엘엘림까지 미치며
- 9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할 것이다.  
내가 디몬에

제양을 더 많이 내릴 것이며,  
모압에서 도망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 16 1 너희는 어린 양을  
이 땅의 통치자에게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내라.
- 2 아르논 여울에서  
모압의 여자들이  
보급자리에서 떠나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 3 “너는 계책을 세우고, 공의를 행하며  
대낮에 밤 같은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 주고  
도망하는 자들이 들리지 않게 하며,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이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라.  
이는 강탈자가 망하고  
파괴가 멈추며  
압제자가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5 다윗 장막에서  
보좌가 인애로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 6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무례와 분노를  
들었으니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 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할 것이니,  
모두 통곡하고,  
길하레셋의 건포도뽕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매우 괴로워할 것이니,
- 8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이다.  
민족들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짓밟아 버렸으니,  
전에 그 가지들은 야셀에까지 미쳤고  
광야에까지 뻗었으며  
그 싹은 자라서 바다를 건넜었다.  
9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운다.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야,  
너의 익은 열매들과  
추수한 곡식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멈추었으므로

- 10 내가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기진 발에서 사라지며  
포도밭에서 노래가 없을 것이며  
즐거움 소리도 없을 것이고,  
포도주 틀에는  
밝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 11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처럼 소리를 내며,  
길하레셋을 위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소리를 낸다.
- 12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  
하며 성소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다 해도 아  
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 13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셨  
던 말씀이다.
- 14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헛수  
와 같이, 삼년 안에 그 많은 모압의 영광과 그  
많은 무리 모두가 모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 매우 적어서 미약하게 될 것이다.” 하  
셨다.

###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

- 17 1 오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
- 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려져  
양 무리를 위한 곳이 될 것이니,  
양들이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마스쿠스의 왕국이 멸절될 것이고,  
아람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4 “그 날에 아람의 영광이 쇠약해지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해질 것이니,  
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모으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과 같고,  
르비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을 것이다.
- 6 그러나 그곳에 주울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두세 개 열매가 남은  
것과 같고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에는  
네다섯 개 열매가 남은 것과  
같은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쳐다보  
고 그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며,  
8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쳐다보지 않  
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곧 아세라나 분  
향 제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9 ○그 날에 너의 견고한 성읍들은 버려진 수풀  
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버린  
산꼭대기같이 황폐할 것이니,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네가 가장 좋은 나무를 심고,  
이방인의 나뭇가지로 접붙이며,  
11 네가 심는 그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네가 아침에는  
씨가 잘 자라게 하였으나,  
슬픔과 심한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다 사라질 것이다.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니,  
마치 바다가 뛰노는 것처럼 소동하며,  
열방이 요란하니,  
마치 큰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요란하구나.  
13 열방이 많은 물처럼 요란할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산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또한 폭풍 앞에 날아가는  
먼지 같을 것이다.  
14 보아라, 저녁에 공포가 닥칠 것이며  
아침 전에 그것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우리를 탈취한 자들의 분기이며,  
우리를 약탈한 자들의 몫이다.

####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

18 1 ○슬프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땅아,  
2 갈대 배를 물 위에 띄워  
바다로 사절들을 보내는 자들이,  
너희 재빠른 사신들이,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민족,

곧 원근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강들로 나누어진 땅에 사는,  
강하여 적을 짓밟는 민족에게 가라.

3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이 땅의 거민들이,  
산 위에 깃발이 올라갈 때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 때에  
너희는 들어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햇볕의 열기같이,  
수확의 열기 속에 내리는  
이슬 구름처럼  
내가 사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피보겠다.”  
라고 하셨다.  
5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낮으로 연한 손들을 치고  
피진 가지들을 찍어 버릴 것이니,  
6 그 모두가 산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버려져  
새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7 ○그때에  
강들이 나누어진 땅에 사는,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  
곧 원근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며  
강하여 적을 짓밟는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 산에 이를 것이다.

#### 이집트에 대한 경고

19 1 ○이집트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2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집트 사람들을 대항하게 할 것이니,  
각기 그의 형제를 치며  
각기 그의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며,  
3 이집트 사람들의 영이

그 속에서 공허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니,  
그들이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신성한 자들과 영매들에게  
몰을 것이다.  
4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5 물이 바다에서 마르고  
강이 찾아들어 바짝 마를 것이며,  
6 강이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 강에 물이 마르고,  
갈대와 골풀도 시들 것이며,  
7 나일 강 옆,  
나일 강 가장자리가  
벌거숭이가 될 것이며  
나일 강가에 심은 것이  
다 마르고 날아가 사라질 것이며,  
8 어부들이 슬퍼하며 탄식할 것이다.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가  
다 그러할 것이고,  
물 위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시들해질 것이며,  
9 배를 찌는 사람들과  
“무명을 찌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10 이집트의 기초들이 부서지고  
모든 품꾼들이 마음에 상심할 것이다.

11 소안의 관리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며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어리석은 모략을 주니,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나는 지혜의 아들이며  
옛 왕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12 너의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네게 말하게 하여라.  
13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메피스의 지도자들은 속았으니,  
이집트 지파들의 모퉁이들이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다.  
14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혼란의 영을 섞으셔서

그들이 모든 일에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다.

15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  
16 ○그 날에, 이집트 사람은 여자들과 같은 것  
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흔드시는 그의 손이 흔들릴 때 두려워 떨 것  
이며  
17 유다 땅이 이집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  
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기억하는 자마다 두려워 떨 것이다.  
18 ○그 날에, 이집트 땅에 가난한 말을 하는 다  
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 대  
한 충성의 맹세가 있고, 그 중 하나는 ‘멸망  
의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19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여호와를 섬기  
는 제단이 있을 것이며, 그 국경에는 여호와  
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니,  
20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  
들에게 구원할 자와 보호해 줄 자를 보내어 구  
원하실 것이다.  
21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  
실 것이며, 그 날에 이집트 사람들도 여호와  
를 알 것이니, 그들이 회색 제물과 예물로 그  
분을 예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  
것을 지킬 것이다.  
22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신 후에  
는 치료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  
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  
고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다.  
23 ○그 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대  
로가 있어,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가고 이  
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  
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함  
께 있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  
다.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  
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어  
라.” 하실 것이다.

####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

20 1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아스돗으로 군사  
령관을 보내니, 그가 가서 아스돗과 싸



- 위 그곳을 점령하던 해였다.  
 2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모츠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니, 이사야가 가서 그대로 하고 맨몸과 맨발로 다녔다.  
 3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삼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다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향한 표적과 기사가 된 것과 같이,  
 4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의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갈 때, 젊은이나 늙은이가 맨몸과 맨발인 채로 엉덩이를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니,  
 5 에티오피아에 기대를 걸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6 그 날에 이 해변의 주민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할 것이다.

#### 열국에 대한 경고

- 21 1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이다.  
 네게브에 회오리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공포의 땅에서 온다.  
 2 끔찍한 환상이 내게 보였다.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는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포위하여라.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내 허리가 고통으로 가득 찼고 마치 출산의 진통 같은 통증이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내가 고통으로 인해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였다.  
 4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내가 갈망하던 새벽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다.  
 5 그들이 상을 차려 놓고 바닥에 방석을 깔고 먹고 마셨다. 지도자들과 일이나 방패에 기름을 칠하라.  
 6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7 그가 짙을 이루어 오는 병거와 기마병을 보거나

-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이나 낙타를 타고 오는 자들을 보거든, 주의 길게 매우 조심해서 들어라고 명하라.”  
 8 파수꾼이 사자처럼 외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날마다 땅대 위에 서 있으며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밤새도록 서 있습니다.  
 9 보소서, 병거와 기마병이 짙을 이루어 이리로 옵니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빌로니아여, 그와 그 신들을 조각한 형상들을 모두 땅에 깨뜨려 버렸다.” 하였다.  
 10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 11 ○두마에 대한 경고이다.  
 누군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파수꾼아, 밤 몇시냐? 파수꾼아, 밤 몇시냐?” 하니,  
 12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아침이 오니, 밤도 올 것이다. 너희가 묻고 싶거든 돌아와서 물어보아라.” 하였다.

- 13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이다.  
 드단의 대상들이야, 너희는 아라비아의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14 오 데마 땅의 주민들이야,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빵을 가지고 피난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여라.  
 15 이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뺨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16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품꾼이 일할 기한을 일 년으로 정하듯, 일 년 안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니,  
 17 게달 자손의 용사 가운데 활 쏘는 사람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 22 1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이다.  
 너희 모두가 지붕에 올라간 것이 어찌된 일이나?  
 2 소란하고 떠들썩한 성읍, 크게 기뻐하는 성이여, 너희 중 살해된 자들은 칼에 찢린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다.  
 3 네 모든 지도자들은 활을 버리고 다 함께 도망하다가 사로잡혔고, 멀리 도망한 자도 발각되어 다 함께 사로잡혔다.  
 4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눈길을 내게서 돌려라. 내가 슬피 울 것이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했다고 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마라.” 하였다.  
 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으킨 소란과 짓밟음과 혼란의 날이니, 환상의 골짜기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비명 소리가 산에 울릴 것이다.  
 6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고 병거와 기마병이 함께하며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내릴 것이니,  
 7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들이 가득 차고 성문에는 기마병이 정렬할 것이다.  
 8 그가 유다의 뿔개를 벗겨 버렸다.

- 그 날에 너희가 숲 속 병기고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았고,  
 9 다섯 성읍에 갈라진 틈들이 많은 것을 보았다. 그때 너희가 아래 못에 물을 모았고,  
 10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어 보고 그 집들을 혈여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11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12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였으니,  
 13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1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 왕궁을 관리하는 셀나에게 가서 전하여라,  
 16 네가 여기에 웬일이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라고 하더냐? 어찌하여 네가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바위에 너를 위하여 누울 자리를 쫓아내느냐?  
 17 보아라, 힘 있는 자야, 여호와가 너를 써서 힘 차게 던져 버릴 것이다.  
 18 참으로 너를 공같이 둥글게 써서 광활한 땅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며 네 영광스러운 병거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니, 너는 네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될 것이다.  
 19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네 자리에서 너를 몰아내며  
 20 그 날에 내가 할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21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허리띠를 그에게 띠우고 네 권세를 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23 또 내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그를 굳게 할 것이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24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니,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모든 그릇, 작은 잔으로부터 항아리까지이다.”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삭을 것이다. 그것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 거기에 매달린 것들도 다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 23 1 ○두로에 대한 경고이다.  
 다시스의 배들이, 통곡하여라. 두로가 황폐하여 집이 없고 항구도 없기 때문이다.  
 “깃딤 땅으로부터

그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2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인해  
 부자가 된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여라.  
 3 너희는 시롤의 곡물들과  
 나일의 수확물을 큰물에 의하여  
 수입하였으니,  
 많은 민족들의 시장이었다.  
 4 시돈아, 부끄러워하여라.  
 바다,  
 곧 너를 품어 주던 바다가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청년들을 기르거나  
 처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다.”  
 하였기 때문이다.  
 5 그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그들이 두로에 대한 소식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해변의 주민들아, 슬피 올라라.  
 7 이것이  
 고대로부터 있었으며,  
 자기 발로 먼 곳까지 찾아가 살던,  
 너희가 자랑했던 성읍이나?  
 8 왕관들을 씌우던 자,  
 곧 그의 상인들은 귀족들이고,  
 그의 무역상들은 땅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 이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9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모든 자들을  
 낮추셨다.  
 10 다시스의 딸아,  
 나일 강처럼 너의 땅에 넘쳐라.  
 더 이상  
 너를 제지할 것이 없을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으셔서  
 나라들을 떨게 하시며,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려  
 그 요새들을 떨게 하시고  
 12 말씀하시기를  
 “화대받은 처녀, 시돈의 딸아,  
 네게 다시는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그러나 그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13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아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니, 아시리아인들이 그 땅을 들짐승  
 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땅대를  
 세우고 그 궁궐들을 헐어 폐허로 만들었다.  
 14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15 그 날에, 두로는 한 왕의 수명만큼,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칠십 년이 끝날 때, 두로  
 가 창기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16 “잊혀진 창기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라.”  
 17 칠십 년이 끝날 때,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  
 오실 것이니, 두로는 몸 파는 일로 되돌아가  
 지면에서 온 땅의 나라들과 음행할 것이다.  
 18 그러나 두로의 상품과 이익은 여호와께 거룩  
 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저축하거나 쌓아 두  
 지 못할 것이며, 두로의 상품이 여호와 앞에  
 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부한 식량과 좋은  
 의복이 될 것이다.

#### 온 땅에 대한 심판

24 1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그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흠으실 것이니,  
 2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주인이나 여종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 주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똑같은 것이다.  
 3 땅이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약탈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4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이 고통하며 시들어 가고,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들도  
 쇠약해지며,  
 5 땅이 또한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 주민들이  
 자기 죄 값을 받을 것이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소수만 남을 것이다.  
 7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는 시들게 되고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한숨 지으며,  
 8 소고의 즐거움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멈추고,  
 수금의 즐거움이 그쳤으며,  
 9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디쓸 것이다.  
 10 황폐한 성읍은 부서지고  
 모든 집이 닫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며,  
 11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온갖 기쁨은 어두워지고  
 그 땅의 즐거움은 사라졌으며  
 12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부서져 파괴되었다.  
 13 세상 민족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곧 올리브나무를 떼 것과 같고,  
 포도를 수확한 뒤에  
 남은 포도를 줍는 것과 같은 것이며,  
 14 그들은 소리를 높이 지르며  
 여호와와 위엄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외칠 것이다.  
 15 그러므로 너희는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의 심층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16 땅 끝에서부터  
 “이로워신 분께 영광을.”  
 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들으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니,  
 내게 화이다.  
 반역자들이 반역하되  
 반역자들이 심히 반역하는구나.”  
 하였다.  
 17 그 땅의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올라미가  
 네 위에 있으니,  
 18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하는 자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 올라오는 자가  
 올라미에 걸릴 것이다.

높은 곳에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19 땅이 산산이 부서지고  
 땅이 갈기갈기 갈라지며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20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린다.  
 죄가 지기에 무거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니,  
 22 죄수가 감옥에 모이는 것처럼  
 그들을 모으시고 옥에 가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23 그 때 달이 수축어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 시망을 영원히 삼키신 하나님

25 1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니,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옛적의 계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견고한 성읍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외인들의 궁성이  
 더 이상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 강한 백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4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5 마른 땅에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가리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덮인 너울을 제거하시며,

8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9 그 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10 여호와와 손이 이 산에 머무르실 것이니, 오물 속에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모압이 그 아래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며,

11 마치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기 위해 손을 펼치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손의 재능과 그 교만을 낮추실 것이다.

12 여호와께서 높고 견고한 너의 성벽을 헐어 낮추시되 땅, 곧 티끌에 닿게 하실 것이다.

**평강으로 지키시는 여호와**

26 1 O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2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3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4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5 그분이 높은 곳에 사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내치게 하신다.

6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이니, 곧 억압받은 자의 발과 가난한 자의 발걸음이다.

7 의인의 길은 바르므로 올바른 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8 여호와시여, 주님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성을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9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 이는 주님의 심판이 땅에 이를 때 세상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는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11 여호와시여, 주님의 손을 높이 드셔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게 하시며, 불이 주님의 대적을 삼키게 하소서.

12 여호와시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예비하실 것이니,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1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시여,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것입니다.

14 그들은 죽었으므로 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사망하였으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지워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5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고, 이 민족을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16 여호와시여,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으며, 주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들은 속삭이는 기도를 퍼부었습니다.

17 마치 임신한 여자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자 산고를 겪으며 울부짖듯이, 여호와시여,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18 우리는 임신하여 산통을 겪었으나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우리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으며 이 땅에서 살 주민들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19 주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므로 땅이 죽은 사람을 내어놓을 것이다.

20 내 백성아, 가라. 네 방으로 들어가서 네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21 여호와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셔서 그 땅 주민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들의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을 것이다.

#### 이스라엘의 구원

27 1 O 그 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쌔게 뱀 리위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들을 죽이실 것이다.

2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3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니,

내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4 내게는 포도원에 대한 노환이 없으므로, 찢레와 가시덤불이 나와 싸운다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태울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6 후일에 아람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어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7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이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과 같았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을 죽인 자들이 죽임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8 주께서 백성을 적절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9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아람의 죄가 용서받으며, 그의 죄가 제거된 온전한 결실이 될 것이다. 주께서 제단들의 모든 돌을 산산조각 난 석회석 같게 하실 때, 아세라 우상이나 분향 제단들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10 견고한 성읍은 적막해지며, 거주지는 황폐해지고 광야같이 버려질 것이다. 송아지가 거처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치울 것이다.

11 그 가지들이 말라 꺾여지면,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들은 지각 없는 백성이므로 그들을 만드신 분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12 O 그 날이 이를 것이니, 유프라테스의 수로에서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마치 곡식을 떠는 것같이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13 그 날에 큰 파멸 소리가 울리고,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심판

28

- 1 ○와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며,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 가는 꽃이다.
- 2 보아라, 주께 속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쏘아치는 우박과 파괴하는 폭풍처럼, 넘치는 홍수처럼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니,
- 3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밭에 짓밟힐 것이다.
- 4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시들어 가는 그 꽃은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 5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 6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 7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한 술로 인해 비틀거리니, 그들이 이상을 잘못 풀며 판결할 때 실수를 한다.
- 8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곳이 없다.

- 9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하려는가?”
- 10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하였다.
- 11 그러므로 그분께서 터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 12 이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이니, 지친 사람을 쉬게 하여라. 이것이 휴식이다.”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 13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하실 것이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밧에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 14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비웃는 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어라.
- 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약정하였으므로, 엄청난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으며, 속임수로 우리가 숨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잇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 이것을 믿는 사람은 대답해지지 않을 것이다.
- 17 내가 정의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추를 삼을 것이니, 우박이 거저의 피난처를 쓸어 버리고 물이 은신처에 넘칠 것이므로,
- 18 사망과 맺은 너희 언약은 무효가 되고, 스올과 맺은 너희 약정은 서지 못할 것이며, 큰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는 그것에 짓밟힐 것이다.
- 19 그것이 지나갈 때에 너희를 붙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밤낮으로 지나갈 것이니, 너희가 들은 이 소식을 깨닫는 일이 오직 두려움이 될 것이다.
- 20 쭉 뻗기에는 침대가 짧고 텃기에는 이불이 너무 작을 것이다.
- 21 여호와께서 브람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실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노하시며 자기 일을 하실 것이니, 그 일이 신기하며 주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 그 일이 기이할 것이다.
- 22 그러므로 너희는 비웃지 마라. 너희 차꼬가 단단해질까 염려된다.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 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하고 내 말을 들어라.
- 24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자가 온종일 밭만 갈겠느냐? 그 땅을 파서 일구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 25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면, 소회향을 심거나 대회향을 뿌리거나 밭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리를 그 밭 가장자리에 심지 않겠느냐?
- 26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지도하시며 그를 가르치셨다.
- 27 소회향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회향 위에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 대회향은 막대기로 떠다.
- 28 빵을 위해 곡식을 찧어야 하므로 그가 계속해서 타작만 하지 않고 타작 수레바퀴를 그위에 굴리더라도 그 말들은 그것을 찧지 아니한다.
- 29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니, 그분의 경역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다.

### 포위된 예루살렘

29

- 1 ○와 있을 것이다.  
아리엘이며, 아리엘이며,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며, 해마다 그 절기들은 돌아오겠으나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니, 거기에 슬픔과 통곡이 있을 것이며 그 성읍이 내게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 2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며 탐으로 너를 포위하고 너를 향해 토성을 높일 것이니,
- 4 내가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네 목소리가 티끌 속에서 낮아질 것이며, 네 목소리가 마치 신접한 자의 소리처럼 땅에서 들려오고 티끌 속에서 네 말소리가 속삭일 것이다.
- 5 그러나 네 원수의 무리들은 가는 먼지와 같고 그 포악한 무리는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니, 갑자기 순식간에
-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되,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태풍과 삼키는 불꽃을 몰고 오실 것이니, 아리엘을 치는 모든 열방의 무리들,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치며 그를 곤고하게 하는 자들은 꿈과 밤의 환상과 같을 것이다.
- 8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먹었으나 깨어나면 그 속은 비어 있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마셨으나 깨어나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시온 산을 치는 모든 민족의 무리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 9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며,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자가 되이라.  
그들이 취하지만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며  
비틀거리지만  
독한 술로 비틀거림이 아니다.  
10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너희 선지자의 눈을 감기셨고  
너희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11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봉인한  
책의 말씀과 같아서 너희가 글을 아는 자에  
게 이것을 주며 읽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  
다.” 말할 것이며,

12 너희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주며  
읽어 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나는 글을 읽  
을 줄 모른다.” 말할 것이다.  
13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14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백성을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로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며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15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라고 하는 자들이여,

16 위 아래를 뒤바꾸는 자여,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길 수 있으며,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만든 자를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혹은 그릇이 그 만든 자에게  
“그는 총명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7 또 얼마 되지 않아,  
레바논이  
과수원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그 과수원이  
술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18 그 날에 듣지 못하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갑갑함과 어둠 속에서 있던  
보지 못하는 눈들이  
보게 될 것이며,  
19 비천한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20 이는 잔인한 사람이 사라지고  
조롱하는 자도 없어지며,  
악한 일을 엿보는 모든 자들도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1 그들은 말로써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자를  
함정에 빠뜨리며,  
무고히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름 속속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더 이상  
아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23 그가 그들 가운데서 내 손으로 지은  
자신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아람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24 영이 혼미한 자도 명철하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고 하신 여호와**

30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번역하는 자식들이,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니,

2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파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3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그늘 밑의 피신처가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4 비록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느로 가더라도  
5 그들은 유익하게 못하는  
그 민족으로 인하여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 민족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을 줄 것이다.”

6 ○네게브 짐승들에 대한 경고이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의 안장에  
그들의 보물을 싣고,  
수사자와 암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을 지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갔으나,  
7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 있는 리함  
이라고 불렀다.

**복종하지 않은 백성**

8 이제 가서 그들 앞에 있는  
서판 위에 그것을 기록하여라.  
책에 기록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남겨지게 하여라.  
9 그들은 번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와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10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마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11 바른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여라.”  
한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신실여기고  
억압과 사악함을 실행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니,  
13 그러므로 이런 죄악은 너희에게  
높은 담에서  
크게 떨어진 군열 같아서  
순식간에 갑자기 파괴될 것이다.  
14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내가 파괴할 것이니,  
아낌없이 조각낼 것이며,  
그 깨어진 조각들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이궁이에서 불도 담아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물도 뜨지 못할 것이다.”

1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않고  
16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17 한 사람이 위험을 해도  
천 명이 도망하고,  
다섯 명이 위험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할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산꼭대기의 깎아내고  
언덕 위의 깎아내고  
언덕 위의 깎아내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19 ○백성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  
며, 네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네게 은혜를 베풀시고, 그

-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 20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너의 스승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네 눈이 직접 네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 21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네 귀에 들릴 것이며.
- 22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건처럼 그들을 던져 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 23 O 주께서 네가 땅에 뿌린 씨에 비를 주시므로, 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양식을 내며, 그 날에 너의 가족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며.
- 24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갈퀴로 까부른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며,
- 25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 땅대가 무너지는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뚝 솟은 언덕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 26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칠 배가 될 것이다.
- 27 보아라, 여호와와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데,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질은 연기처럼 치솟으니, 그분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으며, 그분의 호흡은 목에까지 넘쳐흐르는 강물 같아서 그분이 멸망의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고, 비옥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 29 O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날의 밤처럼 내게 노라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와 산,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나아갈 때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 30 여호와께서 자기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무서운 진노와 삼키는 불의 불꽃 화염, 그리고 폭풍, 폭우, 우박과 함께 내리치시는 그분의 팔을 사람들이 보게 하실 것이니,
- 31 여호와께서 자신의 채찍으로 치실 때 아시리아는 여호와와 목소리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 32 여호와께서 정해 놓은 모든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 소고와 수금 소리가 있을 것이

며, 전쟁에서 그분께서 팔을 들어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33 이미 오래 전에 도벳이 준비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그곳은 깊고 넓으며 불과 장작도 넉넉하고 여호와와 호흡이 마치 불타는 유향 개천 같아 그것을 사를 것이다.

###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에게 있을 화

- 31 1 O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사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 2 여호와와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들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 3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될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 4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자나 새끼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몰려왔다 하더라도 사자는 그들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하였다.
- 5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 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우실 것이며,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니, 보호하고 구출하시며

- 건너와서 구하실 것이다.
- 6 O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크게 반역했던 그분께로 돌아오나라.
- 7 그 날에, 각 사람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 들어 범죄한 그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던져 버릴 것이며,
- 8 아시리아는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쓰러지고,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 9 그의 바위는 두려워서 떨며 그냥 지나갈 것이며, 그의 관리들은 깃발을 들고 놀랄 것이다. 시온에 그분의 불을, 예루살렘에 그분의 화력을 두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 정의로 다스리실 한 왕

- 32 1 O 보아라, 장차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인데,
- 2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겠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 3 그 때에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 4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말을 더듬는 자들의 혀도 빠르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 5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을 관대하다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니,
- 6 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의 마음은 불의를 행하고 불경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그릇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 7 악당은 악한 도구를 가졌으며,

악한 계획을 공리하여 거짓말로 불쌍한 사람을 파멸시키려 하니, 가난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하여도 그렇게 한다.

8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고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9 연려 없는 여지들에 대한 경고

9 연려 없는 여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연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0 연려 없는 여지들아, 일 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니, 포도 수확은 망하고 추수할 과일도 없을 것이다.

11 연려 없는 여지들아, 떨어라. 두려워 떨어라. 연려 없는 여지들아, 두려워하여라.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허리를 동여라.

12 좋은 밭과 풍성한 포도나무 때문에 너희 기쁨을 치게 될 것이니,

13 이는 내 백성의 땅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성읍과 기쁨이 넘쳤던 모든 집들에 가시와 쯤레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14 궁전은 버린 바 되고 불비던 성읍은 텅 비게 되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동굴이 되어 들나귀의 기빠하는 곳이 되며 양 떼들의 풀밭이 될 것이다.

15 그런데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삼림이 될 것이다.

16 그 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비옥한 땅에 살 것이니,

17 정의의 역할은 평화이며, 정의의 수고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18 내 백성은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과 조용한 안식처에서 살 것이다.

19 삼림들이 우박들에 상하여 쓰러지고 성읍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르는 너희 모두는 복이 있다.

여호와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



## 33

- 1 ○화 있을 것이다.  
파괴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파괴하며,  
배반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배반하는 자야.  
네가 파괴하는 것을 그치면  
네가 파멸당하게 되며,  
네가 배반하는 일을 그치면  
그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 2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 3 우렁찬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실 때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 4 메뚜기가 모이는 것처럼  
사람이 네 전리품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 떼가 뛰여 오르는 것처럼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 5 여호와와는 존귀하시므로  
높은 곳에 계시며,  
공평과 정의로 시온을 채우실 것이다.
- 6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온의 보물이다.
- 7 보아라,  
그들의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절들이 비통하게 울며,  
대로는 황폐하고  
길에 다니는 사람이 끊어졌으며,  
언약이 깨어지고  
성읍들이 멸시당하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 9 그 땅은 슬피울고 시들이 가며  
레비논은 수치를 당하며 죽어 가고  
사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도 혼들린다.
-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높아지며  
이제 내가 들러질 것이다.  
너희는 겨를 잉태하고  
지푸라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태워 버릴 것이고,

- 12 백성들은 불에 탄 재같이 되고  
잘려 불에 태워질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 13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들어라.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말하기를  
“우리 중 누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 중 누가 영원히 타는 이 불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한다.
- 15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는 자,  
강탈하여 얻은 것을 거절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털어 버리는 자,  
피 흘리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는 자,  
16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니,  
바위의 요새가 그의 피난처가 되고,  
땀이 그에게 주어지며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17 네 눈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며,  
18 네 마음은 두려워했던 일들을  
묵상할 것이다.  
“계산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저울질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망대를 세우던 자는 어디에 있느냐?”
- 19 너는 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너희가 이해 하지 못하는  
말을 하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백성이다.
- 20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밭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 21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위엄 가운데 계시므로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과  
같은 것이니,

## 22

- 그 강으로는 노 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큰 배가 지나지 못할 것이다.
- 22 참으로 여호와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는 분이시며,  
여호와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 23 너희 밭줄이 느슨하니,  
그것들로 돛대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많은 약탈물을 나누며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까지도  
노략물을 탈취할 것이며,
- 24 어느 주민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곳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 민족들에 대한 심판

## 34

- 1 ○민족들이,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이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들어라.
- 2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학살하도록  
내어 주실 것이다.
- 3 그들의 시체가 내던져지고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그들의 피가 산에서  
흘러 내릴 것이다.
- 4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썩어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니,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듯  
이 모든 천체들이 떨어질 것이다.
- 5 “나의 칼이  
하늘에서 홀죽하게 마셨으니,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예돔 위에 내려오니,  
내가 진멸할 백성들 위에  
심판하려고 내려온다.”
- 6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예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 7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 8 이때가 여호와와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이다.
- 9 예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며  
그 흙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며,
- 10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며,  
대대로 그곳이 황무하게 되어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 11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그 위에 퍼실 것이니,  
그곳에는 왕국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모든 지도자들도 없을 것이다.
- 13 가시나무가 요새들 가운데서 자라고  
영경귀와 가시덤불은  
견고한 성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며,  
이리의 굴과 타조의 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니,
- 14 들짐승이 여우들과 만나고  
숫염소가 서로를 부를 것이며,  
울빼미들이  
거기에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 15 부엉이가 거기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들을  
자기 그늘에 모을 것이며,  
거기에 술개들도 모여  
각기 자기 짝과 함께 있을 것이다.
- 16 여호와와 책을 구하여 읽어 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와 입이 명령하셨고

-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17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뽑으시고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의 손이 그들을 위하여  
 줄자로 그것을 나누셨으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서 대대로 살 것이다.

### 구원받은 자들의 귀환

- 35 1 O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피어나되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비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위업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업을 볼 것이다.  
 3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4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 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라.
- 5 그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7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며,  
 이리가 드나들며 늪의 곳에는  
 풀들과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며,  
 8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9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10 여호와와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 유다를 침공한 신헤림 (왕하 18:13-27, 대하 32:1-19)

- 36 1 O히스기야 왕 십사 년에, 아시리아 왕 산  
 헤림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  
 들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2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  
 고, 그가 ‘세탁업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연못 수로 곁에 멈추었을 때  
 3 힐기야의 아들이며 궁을 관리하는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이며 기록관인 요  
 아가 그에게로 나아갔다.  
 4 O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께서 이  
 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무  
 었이나?’  
 5 너희가 입으로만 전쟁을 위한 전략과 힘이  
 있다고 말하나 입술에 붙은 말이다. 내가 이  
 제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6 보아라, 내가 의지하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이다. 그것에 기대는 사람은 그 손을  
 그것에 짚려 다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  
 이다.  
 7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명령하며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8 이제 내 주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해 보아라.  
 만일 내가 말을 탈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줄 것이다.  
 9 내가 내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장관 하나  
 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병  
 거와 기마병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 있다.  
 10 지금 내가 여호와와 허락 없이 이 땅에 올라  
 와서 멸망시키려고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게 이 땅에 올라가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  
 다.”  
 11 O그러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게 말하기를 “부디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  
 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아람 말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  
 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  
 12 랍사게가 말하기를 “아니다. 내 주인께서 나  
 를 보내신 것이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왕  
 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  
 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다.  
 13 O랍사게가 일어나서 또 유다 말로 크게 외쳐  
 서 말하였다. “위대한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  
 을 들어라.  
 14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  
 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15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  
 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  
 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며, 이 성읍이 아시리아 왕의 손  
 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할지라도,  
 16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로 각각 자기의 포  
 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으  
 며, 또한 각각 자기 무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17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의 본토와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  
 려가겠다.  
 18 ‘여호와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  
 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  
 라. 민족들의 신들 중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  
 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었느냐?  
 19 히맛과 아르밋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  
 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20 이 땅의 모든 신들 중 누가 그들의 땅을 내 손  
 에서 구원해 낸 일이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  
 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  
 냐?”  
 21 O그러나 그들은 잠잠하고 그에게 한마디 말  
 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이 “그에게 대  
 답하지 마라.”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22 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  
 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  
 아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  
 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

### 이사야의 도움을 구한 히스기야 (왕하 19:1-7)

- 37 1 O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  
 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갔으며,  
 2 궁을 관리하는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나  
 이 든 제사장들을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  
 아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있었  
 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  
 망과 수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4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  
 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아사 계신 하나님께를 조롱  
 하였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말  
 을 듣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  
 시오.”  
 5 O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니,  
 6 이사야가 말했다. “당신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전하십시오. ‘너희가 들  
 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7 보아라, 내가 그 속에 내 영을 넣을 것이니,  
 그가 어떤 헛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  
 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8 O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출발했다는 소식을  
 랍사게가 듣고 돌아가 립나 성을 공격하고 있  
 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다.  
 9 그 때에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  
 가가 자신과 싸우기 위해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다.  
 10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너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인 아시리아 왕의 손에 예루  
 살렘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11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들을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겠느냐?  
 12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켰던 나라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센, 그리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사람  
 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원했느냐?  
 13 도대체 히맛 왕과 아르밋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은 어디에 있  
 냐?’”  
 14 O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  
 고, 여호와와 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  
 와 앞에 펼쳐 놓고  
 15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 16 “그를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이지니,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 17 여호와시여,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주님의 눈을 열어 살피소서. 보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 18 참으로 여호와시여,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멸망시키고,
- 19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 20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 21 ○그러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일로 기도하셨으므로,
- 22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처녀 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 23 네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감히 누구를 향해 네 목소리를 높이고 네 눈을 치켜떴느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다.
- 24 너는 네 종들을 통하여 주님을 비방하며 말했다. ‘내가 나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지역까지 가서, 그곳의 가장 큰 큰 배향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 버렸고, 가장 깊숙한 산의 정상까지, 그곳의 뽕뽕한 과수원까지 갔다.’
- 25 나는 우물들을 파고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들을 마르게 했다.
- 26 산헤립이, 너는 내가 오래 전에 이 일을 청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느냐? 내가 지금 이루려는 것을 나는 옛날부터 계획하였으니,

- 27 곧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잿더미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민들이 힘을 잃고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떨었으니, 그들은 들에 있는 식물과 같고 연약한 풀과 같았으며, 지붕 위의 풀과 같았고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다.
- 28 나는 네가 왔는 것과 네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네가 내게 반역하는 것도 알고 있다.
- 29 네가 내게 격분하였고 네 거만함이 내 귀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네 입에 재갈을 물리겠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 30 ○이것이 왕께 징조가 될 것이니, 금년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겠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니, 삼번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 31 유다 집안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니,
- 32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 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 33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 오지 못하고, 화살 한 발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포위 담도 쌓지 못할 것이며
- 34 그는 왔던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35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 36 ○여호와와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다.
- 37 그때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으며,
- 38 그가 자기의 신 니스룩의 전에 제사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이리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셀하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병들었다가 낫게 된 히스기야  
(왕하 20:1-11, 대하 32:24-26)

- 38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 2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 3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과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는 슬프게 울었다.
- 4 ○그 때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
- 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여호와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네 수명에 십오 년을 더하고,
- 6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내고 이 성읍을 보호할 것이다.’
- 7 ○이것은 여호와로부터 네게 주어진 징조이니, 여호와가 말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 8 보아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를 십도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시계에서 해의 그림자가 십도 물러났다.
- 9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후에 기록한 글이다.
- 10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 11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지 못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뵈지 못하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 12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처럼 뽕이고 내게서 옮겨졌으니, 나는 베 짜는 사람처럼 내 생명을 돌돌 말았으며, 주께서는 베틀에서 나를 끊으셨고 주께서 낮과 밤 사이에 내 생명을 끝내실 것이다.
- 13 내가 아침까지 잠잠하였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들을 부수시며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끝내실 것이다.

- 14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내 눈이 위를 쳐다보기에 지쳤다. 여호와시여, 내가 압제를 당하니, 내 안전을 보증하여 주소서.
- 15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참담함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조심스럽게 행하겠습니다.
- 16 주님 이시여,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며 내 영혼의 생명도 이 모든 일에 있으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소서.
- 17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파멸의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지셨습니다.
- 18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합니다.
- 19 살아 있는 사람, 오직 살아 있는 사람이 오늘 나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 사는 날 동안 여호와와 전에 수금에 맞춰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 21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와 한 문지를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면 나을 것입니다.” 하니,
- 22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요?”라고 하였다.

바빌로니아 사람에게  
나라의 보물을 보여준 히스기야(왕하 20:12-19)

39 1 ○그 무렵에 바리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므로닥 바리단이 히스기야가 병들

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2 히스기아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아가 그의 궁궐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3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아 왕에게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왕께 온 사람들입니까?” 하니, 히스기아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먼 땅, 바빌로니아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였고

4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아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 창고에서 보여 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5 오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6 ‘보아라. 날들이 다가고 있으니, 그 날에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 둔 것들이 바빌로니아로 옮겨 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7 너에게서 태어날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8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와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생애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여호와와 백성을 위한 위로

40 1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와 손에서 두 배나 받았다.”

3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4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5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다.”

6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8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다.” 하여라.

9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 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10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땅의 먼지들을 통에 담아 보았으며 산들을 접시저울로, 언덕들을 막대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11 누가 여호와와 영을 헤아렸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주께서 아시게 하였느냐?

12 주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공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느냐?

13 보아라, 나라들이 물통 속의 물 한 방울 같고 저를 위의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올리신다. 레비논은 땀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할 것이다.

14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신다.

15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할 것이며, 그분을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세공인이 금으로 입히고 은 사물로 두른 것이다.

16 가난한 자는 자신을 위하여 예물로 써지 않을 나무를 선택하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구하여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세운다.

17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18 주께서 땅 위 창공에 앉으시니, 그 땅의 거주민들은 매뚜기를 같다. 주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주할 장막같이 펼치시며,

19 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폐하고,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니,

20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땅에 겨우 그 뿌리가 내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바람이 불게 하시니, 그들이 시들어 버리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겨같이 휩쓸어 가 버린다.

21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22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효대로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므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23 아람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와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판결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24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지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25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26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고, 달음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 함께 하시는 여호와

41 1 “O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아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 자리에 가까이 가자.

2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갈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흘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3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 보지 못했던 길을



- 4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 5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 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6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
- 7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 치는 자를 격려하여  
'땀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아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었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였다.
- 10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렀 것이다.
- 11 보아라,  
네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 12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되고  
허무한 것같이 될 것이다.

-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 14 지렁이 아람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 15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것처럼 만들 것이다.
- 16 네가 그들을 깨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 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 17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 18 내가 혈벚은 산들에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 19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돌 것이니,
- 20 여호와와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며,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이다.
- 21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여라."

- 아람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22 그것들을 가져와  
이전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지켜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 23 이후에 될 일을 말해 보아라.  
그러하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고  
함께 볼 것이다.
- 24 보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도 헛것이며,  
너희를 선택한 자는 역겨운 자이다.
- 25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해 뜨는 곳에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인데,  
그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 26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말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말하여  
우리가 "그분은 의로우시다."  
말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아무도 말한 자가 없고,  
참으로 아무도 선포한 자가 없고,  
참으로 아무도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없다.
- 27 처음으로 내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보아라." 하였다.  
예루살렘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줄 것이다.
- 28 그러나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는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조언자가 없었다.
- 29 보아라, 그것들은 모두 헛것이다.  
그것들의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부어 만든 그것들의 형상은  
바람이며, 공허이다.

## 여호와와 택한 종

- 42 1 O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 2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 4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키л 것이며  
너를 백성의 연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 7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감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낼 것이다.
- 8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 9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 여호와께 부른 새 노래
- 10 항해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주민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 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 11 광야와 그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주민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 12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라.
- 13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노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참으로 크게 외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실 것이다.
- 14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였으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숨이 차서 함께 할떡일 것이며,  
15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며  
그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 16 내가 맹인들을 이끌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어두움에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며  
굽은 곳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 17 우상을 의뢰하며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이다.’  
말하는 자들은  
뒤로 돌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이스라엘**
- 18 “귀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어라.  
맹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19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이겠느냐?  
누가 내게 현신한 사람과 같은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와 종과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 20 내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아니한다.
- 21 여호와께서  
자기 의를 위하여

- 율법을 크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22 이 백성은 악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그들이 악탈을 당하나  
구할 사람이 없으며 노략당하나  
“되돌려 주어라.”  
말하는 자가 없다.
- 23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 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
- 24 누가 야곱을 노략 몰로,  
이스라엘을 악탈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 25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쏘아 부으셨다.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 43** 1 ○아름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 3 이는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 4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 주고

-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 5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6 내가 북쪽에게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게  
“붙잡지 마라.” 말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고,  
7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 8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너라.  
9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였고  
백성들이 집결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말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하게 하여라.”
-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보다 앞서  
자음을 받은 신이 없으며,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 11 나, 곧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 12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내가 선언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 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13 또한 예로부터 내가 그이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 14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로니아에 그들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던 배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 15 나는 여호와와 너희의 거룩한 자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 왕이다.”
- 16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에 길을  
거센 물 가운데 통로를 내시며  
17 병거와 말과 군대와 전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다 함께 얹드려져  
일어날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소멸하여  
심지처럼 꺼져 가게 하신다.
- 18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 19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 20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 22 그러나 아름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고,  
23 너는 내게  
네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희생 제물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으며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나,
-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네 희생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흠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너는 네 죄들로  
나를 부담스럽게 하였으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 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들을 없애는 자이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26 너는 나와 함께 기억해 보고  
함께 판단해 보자.  
너는 내가 옳다는 것을  
말로 입증해 보아라.  
27 네 첫 조상이 죄를 지었으며  
네 선생들도 내게 반역하였다.  
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할 것이며  
아귀를 진멸 당하게 내어 주고  
이스라엘을  
비방거리로 내어 줄 것이다.”

#### 여호와께 택하신 이스라엘

- 44 1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2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아,  
3 참으로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들에게 부어 줄 것이니,  
4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5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와 의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는  
야곱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손에다  
'나는 여호와와 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할 것이다.”

####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 6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7 내가 백성을 세운 이후부터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 있다면  
장래 일과 일어날 일을 알려라.  
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을 나는 알지 못한다.”

#### 우상은 어리석은 것

- 9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  
다. 그들이 즐겨워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  
며,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10 누가 신상을 지으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  
드느냐?  
11 보아라, 그 무리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  
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이니,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 떨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12 ○대장장이는 철을 숯불에 달구어 망치로 그  
것을 치고 그의 강한 팔로 모양을 만든다. 그  
는 배고프고 힘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  
니하여 지치게 된다.  
13 목공은 줄을 늘이고 연필로 그것에 줄을 긋  
고, 대패로 밀고 걸음쇠로 그것에 줄을 긋는  
다. 그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간의 형  
상을 새겨 신전에 두며,  
14 백향목을 베거나 아니면 삼나무나 상수리나  
무를 베어 오지만, 그것은 삼림 중에서 자라  
난 것이거나 아니면 심겨진 백향목이 비를  
맞고 자란단 것이다.  
15 그 나무는 사람에게 떨감이 되니, 사람이 그  
것으로 자기 몸을 따스하게 하며, 또 불을 피  
워 빵을 굽고, 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  
것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한다.  
16 그 중 절반은 불사르고 나머지 절반은 고기  
를 구워 먹는데, 그는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만족하며,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서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고 있구나.”  
말하면서,  
17 그 나머지로 그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  
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  
에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나  
의 신이십니다.”라고 말한다.  
18 ○그들이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감겨 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9 사람이 생각도 없고 그 마음에 지식도 없으  
며 분별력도 없이 말하기를 “나는 그 중에 절  
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  
는 역겨운 것을 만들고, 나무 조각 앞에 엎드려  
절한다.” 하니,  
20 그는 재를 먹고 마음이 미혹되어 스스로를 그  
릇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면  
서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  
하지도 못한다.

####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

- 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22 내가 네 허물들을 구름같이  
네 죄악들을 안개같이 없애 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23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이여,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 24 너의 구속자이시며  
너를 태에서 지은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폐하고  
25 잠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26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자기 사신들의 계획을 이루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곳에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축될 것이며,

내가 그 폐허된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길음에 대하여는  
27 “말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시실 것이다.

#### 여호와와 도구인 고레스

- 45 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받은 자,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하고,  
그 앞에 성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높은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고  
놋쇠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쫓게고,  
3 네게 어둠 속의 보물들과  
은밀한 장소에 있는 보화를 줄 것이니,  
네 이름을 부른 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것이다.  
4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네 이름을 지었다.  
5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 있게 할 것이니,  
6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는 없다.  
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8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리게 하여라.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려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의 씨이 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9 화 있을 것이다.  
질그릇 중의 하나이면서  
그 지으신 자와 논쟁하는 자여,  
진흙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거나

네가 만든 것이 “그에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 아버지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은  
무엇을 낳으려고 진통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장래 일들을 내게 물어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여라.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13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나의 백성을 값도 없이  
보상도 없이 놓아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재물과  
에티오피아의 물품과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다 네게로 넘어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에 매여 네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다른 이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15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 지옥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17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8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 밖에 다른 이는 없다.

19 나는 어둠의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아굽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와는 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알린다.

20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여,  
너희는 모여 나아오너라.  
함께 가까이 오너라.  
그들은 무지해서  
나무 우상을 운반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21 너희는 가까이 와서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이 일을 예로부터 선포한 자가  
누구냐?  
옛날부터 이 일을 알린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22 땅 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나는 하나님이며

23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왔으니,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24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만  
의로움과 힘이 있다.  
주께 분노했던 자들은 모두  
주께로 나아가 수치를 당할 것이나,  
25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 바빌로니아 우상들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46 1 “벨은 없더졌고  
느보는 넘어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어 가니,  
너희가 메고 다니던 그들은  
무거운 짐일 뿐이며,  
지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2 그들은 넘어졌고 함께 엎드렸으니,  
그들은 그 짐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3 아굽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혀온 자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5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6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를 고용하니,

7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을 어깨로 들어 옮겨서  
그것을 돌 장소에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8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굳게 서서  
마음에 두어라.  
9 너희는 먼 옛적 이전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이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다.  
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11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12 내게서 들어라,  
너희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여,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여,  
13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져왔으니,  
그것이 멀리 있지 않으며,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다.”

#### 엎드려진 바빌로니아

47 1 “쳐녀 딸 바빌로니아야,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팔 갈대야야,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더 이상 부드럽고  
곱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2 멧돌을 잡고 가루를 뿜어라.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 네 살이 다 드러나며



- 또한 네 수치스런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니,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 4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 5 “딸 갈대아야,  
잠잠히 앉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왕국들의 여주인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 6 내가 내 백성에게 분노하여  
내가 나의 유업을 욕되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주었으니,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인에게도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 7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 8 쾌락을 좋아하며,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는 과부가 되어 살지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야,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어라.
- 9 이 두 가지 일들,  
곧 내가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가 되는 것이  
무수한 네 주술과  
많은 네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 날 한 순간에 네게 닥칠 것이다.
- 10 너는 네 악을 의지하며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말하였다.  
너의 지혜와 지식은  
너를 비뚤어지게 하였다.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 11 재앙이 네게 닥칠 것이니  
너는 막지 못할 것이며  
재난이 네게 닥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고,  
파멸이 갑자기 네게 닥칠 것이니  
네가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 12 네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여러 가지 네 주술을 가지고  
혹시 네가 유익을 얻었지  
혹시 네가 이길 수 있었지  
시험해 보아라.
- 13 네가 계략이 많은 탓에 피곤하였다.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들을 관찰하는 자들과  
초하루에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자들을 일으켜  
너를 구원하게 해 보아라.
- 14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은  
몸을 파스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며  
그 앞에 앉아 쥘 불도 아니다.
- 15 너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될 것이니,  
네가 어릴 때부터  
너와 함께 고역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48** 여호와를 위한 이스라엘의 연단  
1 O아굽의 집아, 이것을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 이름으로 불리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나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며,
- 2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이다.
- 3 내가 옛적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그것들이 내 입에서 나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들려 주었고,  
내가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다.
- 4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이고

- 네 이마는 놋쇠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내가 네게 옛적부터 알렸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네게 선언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고,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 6 네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아라.  
그래도 너희는 선언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네게 새로운 일들을 알릴 것이니,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이다.
- 7 그것들은 이제 창조되었고  
오래전 것은 아니다.  
오늘 이전에  
너는 그것들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아라,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 8 네가 결코 듣지도 못하였고,  
결코 알지도 못하였으며,  
옛적부터 네 귀는 열리지 못하였다.  
이는 네가 정말로 거짓되게  
행동하였고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범죄자로 불리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 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향해 참고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 10 보아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 11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
- 12 “아굽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내가 그이니,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 13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으니,  
내가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선다.”
- 14 너희는 다 모여서 들어라.  
누가 그들 가운데  
이 일들을 알렸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빌로니아에 행하며,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 15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그를 불러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분의 영을 보내셨다.
- 17 네 구속자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다.
- 18 만일 네가 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네 평화가 강 같았을 것이며,  
네 의로움이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며,  
네 후손들이 곡식 알갱이 같아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거나  
내 앞에서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20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나와라.  
갈대아인에게서 도망하여라.  
즐거운 소리로  
이것을 외치고 전파하여라.  
이것을 땅 끝까지 알리며  
“여호와께서  
그 종 아굽을 구원하셨다.”  
하고 말하여라.
-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지나게 하셨을 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으며,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 여호와와 종

- 49 1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2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들어  
주님의 화살 통 속에 감추셨다.  
3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셨다.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공연히 헛되게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으며  
나에 대한 보상으로 내 하나님께 있다.”  
하였다.
- 5 야곱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주께 불러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  
6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과  
이스라엘 중 보존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다.
- 7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그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멀시당하는 자,  
민족의 마음을 받는 자,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군주들이 엎드릴 것이다.  
이는 여호와와 신실하며,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 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대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으며,  
땅을 회복하게 하며  
그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9 잡혀 있는 자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도  
그들의 목초지가 있을 것이니,  
10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11 내가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나의 대로들을 돌출할 것이니,  
12 이들이 먼 곳에서 오며  
북쪽과 서쪽에서,  
시냇 땅에서 올 것이다.”
- 13 하늘아, 기뻐 노래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자기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 14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 15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호시 잇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16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17 네 건축자들은 속히 돌아오고  
네 파괴자들과  
너를 폐허로 만든 자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18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올 것이다.  
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삼손을 맹세하니,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몸에 찰 것이며  
신부처럼 그들을 두를 것이다.
- 19 분명히 너의 폐허된 곳과,  
네 버려진 곳과,  
네 황폐한 땅은  
이제 거주민 때문에  
너무 줄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20 잃었던 너의 자녀들이  
네 귀에 다시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나를 위해 넓게 만들어  
거주하게 해 주십시오.’ 할 것이며,  
21 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었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낳을 수도 없었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데  
누가 이들을 길렀느냐?  
보아라,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할 것이다.”
- 22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높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안아 데려오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네 양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할 것이며  
네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24 용사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으며  
폭군으로부터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 2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용사가 사로잡은 포로들이라도  
빼앗아 올 것이며,  
폭군의 전리품이라도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와 싸우는 자들과  
싸울 것이며,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26 나는 너를 억압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들의 피에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를 내 구원자이며,  
네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 이스라엘의 범죄와 종의 순종

- 50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혹은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아라,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2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느냐?  
아니면, 구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느냐?  
보아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광야가 되며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썩어 악취를 낼 것이다.



- 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옷 입히며  
굵은 베로 그 덮개를 만든다.”
- 4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자를  
말로 돕는 법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며  
내 귀를 열어  
학식 있는 자처럼 듣게 하신다.
- 5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뒤로 등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 6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 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 주었다.  
나는 모욕과 침 뱉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끄럼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안다.
-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 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 9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헛웃처럼  
낱아질 것이니,  
좁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 11 보아라, 불을 지피고  
햇불을 들고 나신 자들아,  
너희 불꽃의 빛으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는 것이다.

51

### 시온을 위로하신 여호와

-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때려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 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시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 3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와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 소리가  
있을 것이다.
- 4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 5 나의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 6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같이 죽을 것이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7 의를 이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 8 좁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별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 9 여호와와 팔이며, 깨어 나소서,  
깨어 나소서, 능력을 덧입으소서.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 나소서,  
리합을 토막 내시고  
괴물을 찢으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 10 바다,  
곧 큰 깊은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 11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 12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이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 13 하늘을 찢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 14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그들이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 15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 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으며,  
내가 하늘을 찢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였다.”
- 17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 너는 여호와와 손에서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으며,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다 마셔 비웠다.
- 18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기른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 19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일어났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곧 폐허와 파괴와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 20 네 아들이 기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모든 거리의 모퉁이에 누워 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하다.
- 21 그러므로 고통받는 자여,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 22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위하여  
변론하시는 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네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을 거두어들였으니,  
내 분노의 큰 잔을  
네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이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겠다.’  
하였고  
너는 네 등을 땅같이 만들어  
그들이 거리를 지나가듯  
넘어가게 하였었다.”
- 다가오는 여호와와 구원
- 52 1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네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 2 예루살렘아,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시온의 딸아,  
네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셨다.
- 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후에 아시리아인들이 이유 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하셨다.
- 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깨닫 없이 잠척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소리치고,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날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 7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 8 네 파수꾼들의 소리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 9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큰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 10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 11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와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 12 너희는 급하게 나오지 말며, 도망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 13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 받들어 높이 들리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 14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으나, 이제 그가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라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 53**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 2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 3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 4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 5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 6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 7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의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 8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 9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 10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와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갚아줄 것이다.”
- 12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 영원한 평화의 언약

- 54** 1 “인내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2 “네 장막 터를 넓히고 네 사는 곳의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 네 줄들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들은 이방 백성들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할 것이다.”
- 3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황하지 마라. 이는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네 젊은 때의 수치를 잊고, 네가 더 이상 네 과부 때의 지욕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니,
- 5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며,
- 6 버림받아 마음에 슬퍼하는 아내, 곧 젊을 때 버림받은 아내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 7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잠깐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공화로 너를 모을 것이며
- 8 내가 넘치는 분노로 잠깐 내 얼굴을 네게서 숨겼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와 네 구속자께서 말씀하셨다.
- 9 “이것이 나에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덮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하였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네게 분노하지 않으며 다시는 너를 꾸짖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 10 비록 산들이 옮기우며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인애는 네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를 공로히 여기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다.
- 11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아라,  
내가 화려하게 채색한  
네 돌들을 세우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놓을 것이다.  
12 내가 홍보석으로 네 성곽을 꾸미고  
석류석으로 네 성문들을 꾸미며  
네 지경 모두를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13 네 모든 자녀가  
여호와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안하고,  
14 내가 의로 설 것이며  
압제가 네게서 멀어질 것이니,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15 보아라, 누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너와 싸우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질 것이다.  
16 보아라, 탄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 무기를 제조하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는 파멸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17 너를 지리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며  
너를 비난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할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와 종들의 유업이며,  
그들이 내게서 받은 의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여호와와의 긍휼

55 1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4 보아라,  
내가 그를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하는 자로 삼았다.”  
5 보아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네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6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궁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8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10 비와 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씨가 돋고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11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12 참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과 언덕은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13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 여호와와의 연합한 자의 복

56 1 O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2 의를 행하며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3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자기 백성에게서  
갈라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고자라도  
“보아라, 나는 마른 나무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4 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5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6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방 사람들을  
7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든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아

그에게 더할 것이다.” 하셨다.

9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 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10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병어리 개이므로 짚지 못하고,  
꿈꾸며, 놀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12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57 1 O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2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바른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3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기의 후손아,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와라.  
4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5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웠으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를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6 골짜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소독이 있으니,  
그것, 그것들이 너의 똥이다.  
네가 그것들에게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곡식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이런 일들을 용납하겠느냐?

7 네가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네 침상을 펴고,  
또한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8 네가 문과 문설주 뒤에  
네 기념물을 두고,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혀며,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하고,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별거벗은 것을 보았고

9 네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네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네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어  
스올에까지 내려 보냈다.

10 너의 가는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너의 '소망이 없다.'  
말하지 아니했고,  
네 손의 생명을 찾으니,  
지치지도 아니했다.

11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네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12 내가 네 의와 네 행위를  
드러낼 것이니,  
그것들이 네게 무익할 것이다.

13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든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 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 위로와 평강의 약속

14 또 말씀하시기를  
“둔우고 둔우어, 길을 예비하여라.  
내 백성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라.”  
라고 하신다.

15 이는 높이 들리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한없이 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쇠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17 그의 탐심의 죄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완고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다.

18 내가 그의 행위들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 줄 것이며,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평안하라,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이라. 평강이 있이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20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21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 참 금식과 거짓 금식

58 1 ○크게 외쳐라,  
주저하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아픔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2 그들이 마치 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 하며  
내게 의로운 규례들을 묻고  
나와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3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네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4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5 이것이 내가 선택한 그런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나?  
사람이 갈대처럼 자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를 펴고 재를 뿌리는 것을  
내가 금식이라 부르겠으며,  
여호와가 기뻐 받을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 주고  
명예의 줄을 풀려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굶주린 자와 네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내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 주며,  
네 곁목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러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네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9 그때에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10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네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 댄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재건할 것이며,  
대대로 파괴되었던 기초들을  
네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 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자’ 라고 불릴 것이다.

13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와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아담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와 입이 말하였다.”

#### 악과 입제

59 1 ○보아라,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3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뿜기 때문이다.

4 정의에 따라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5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치니,  
그 알을 먹는 자가 죽을 것이며  
그 알이 밟혀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6 그들의 짝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자기를 덮을 수 없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고  
그들의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7 그들의 발은 악을 위해 달려가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다.  
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들므로  
그 길로 걷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9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광명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걸을 뿐이다.  
10 우리는 맹인같이 답을 더듬고,  
눈 없는 자처럼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며,  
원기왕성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11 우리가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다.  
12 우리의 반역이 주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니,  
이는 우리의 반역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알기 때문이다.  
13 우리가 반역하여 여호와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압제와 반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낳으니,  
14 공의가 뒤로 밀려나고  
정의를 멀리 했으니,  
진실이 광장에 넘어졌고  
정직이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15 진실이 없어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약탈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공의가 없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16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에 놀라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신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17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옷을 속옷으로 입으시며,  
열심을 갈옷으로 두르셨다.  
18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갚으실 것이니,  
그분의 적들에게는 분노하시고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실 것이다.  
19 그들이 서쪽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뜨는 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바람에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20 “구속자가 시온에 오시며,  
아름다운 자손 중에  
반역으로부터 돌이킨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2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들  
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내가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  
히 네 입과 네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  
씀하신다.

#### 영광스런 이스라엘의 미래

60 1 O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2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네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니,  
3 민족들이 너의 빛으로,  
열왕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모든 사람이 모여 네게로 나아온다.  
네 아들들이 멀리서 오며

네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5 그 때에 네가 보고 빛을 발하며,  
네 마음이 떨리고 벽차 오를 것이니,  
이는 바다의 풍요가 네게 돌아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네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6 수많은 낙타,  
곧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네 땅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7 “게달의 양 떼가 다 네게로 모이고,  
느비롯의 숫양이 네게 공급되어  
기쁘게 받은 만한 재물로  
내 제단 위에 오를 것이니,  
내가 내 아름다운 집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8 저 구름처럼,  
보금자리로 향하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냐?  
9 참으로 섬들이 나를 바라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먼 곳에서 너희 자녀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싣고 와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위하여  
드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너를 아름답게 하였기 때문이다.  
10 이방 사람들이  
네 성벽들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  
이는 내가 비록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11 네 성문이 항상 열려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고  
민족들이 네게 재물을 가져오며,  
열왕이 줄지어 네게 올 것이니,  
12 이는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며,  
그 민족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느릅나무와  
회양목이 네게 와서  
내 성소의 터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나는 내 발을 돌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14 너를 압제하던 자들의 자손이  
네게 와서 엎드리며,  
너를 경멸하던 자들이  
모두 네 발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너를 가리켜  
“여호와와 성” 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  
이라 부를 것이다.

15 네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  
네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존귀와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니,  
16 너는 민족들의 젖을 빨며  
열왕의 젖을 빨 것이며,  
내가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아름다운 전능자인 것을 알 것이다.  
17 내가 늦 대신 금을,  
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쇠를 줄 것이다.  
내가 평화로 너의 감동자가 되게 하며  
의로 너의 지배자가 되게 할 것이니,  
18 네 땅에서 다시 포악이 들리지 않고  
네 지정 안에  
더 이상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19 해가 더 이상 낮에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이 너를 위해 빛을 비추어  
밝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네 빛이 되시고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네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네 달이 다시는  
기울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네 빛이 되시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21 그 때에 네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되고,  
그들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심은 가지이며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22 가장 작은 자가 친족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 61**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간헐한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고,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어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3 시온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볼릴 것이다.  
4 그들은 옛적에 황폐해진 곳을  
건설하며,  
전에 폐허된 곳을 세울 것이니,  
황폐한 성들,  
대대로 폐허된 곳을 수리할 것이다.  
5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  
6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  
이라 말할 것이고,  
너희가 민족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7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절의 몫을 얻으며,  
굴욕 대신에  
자기 몫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갑절의 몫을 소유할 것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 8 “나 여호와와 공의를 사랑하며  
악탈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하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9 그들의 자손이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백성들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10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마치 신랑이 제사장처럼  
머리를 장식하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11 땅이 그 씨를 내며  
정원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송이 찢트게 하실 것이다.

### 시온의 회복

- 62** 1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용하지 않을 것이니,  
2 민족들이 네 공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보며,  
너는 여호와와 임이  
네게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3 너는 여호와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4 다시는 너를  
“아주바”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네 땅을  
“쉬마바”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헬시바”라 하며,  
네 땅을 “홀라”라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6 예루살렘아, 네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너희는  
그분께서 쉬지 못하게 하여라.  
8 여호와께서 자기 오른손과  
강한 팔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니,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거둔 자들이 내 성전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다.” 하셨다.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여라.  
대로를 건설하고, 건설하여라.  
돌을 치워라.  
백성들 위에 깃발을 높이려라.  
11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외치신다.  
“팔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네 구원이 이르렀다.  
보아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  
라고 하여라.”  
12 사람들이 그들이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부르며,  
너 예루살렘을 ‘찾은 자’  
‘버림받지 않는 성’  
이라 부를 것이다.”

###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

- 63** 1 ○예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 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나이니,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 2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3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4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나의 구속의 해가 이르렀으니,  
5 내가 둘러보아도 도를 자가 없었고,  
내가 놀라 당황하여도  
볼들어 주는 자 없었으므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노가 나를 볼들어 주었다.  
6 내가 나의 진노로  
백성들을 짓밟았으며,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했고,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지게 했다.”  
**여호와와의 공물**  
7 내가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실 일,  
곧 여호와와 인애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공물과  
풍성한 인애로 인하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8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9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 주셨다.  
10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으므로



- 11 그러자 그의 백성들이 오랜 옛적  
모세와 그 백성의 때를 기억하였다.  
자기 양 떼의 목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나?  
자기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신 분이 어디 계시나?  
12 자기의 영광스런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시고,  
13 그들을  
깊은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나?  
14 여호와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하시니,  
이와 같이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셨다.
- 공물을 바라는 기도**
- 15 주께서는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열심과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대한 마음과 공함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 16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분명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의 이름은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 이십니다.
- 17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 18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차지하였으나 잠시 후에  
우리 원수들이 그곳을 짓밟으므로,  
19 우리는 오랜 옛적부터  
주께서 다스리지 않은 자들처럼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 64** 1 주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고,  
2 불이 섬을 사르며  
물을 끓이는 것 같게 하여  
주님의 대적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소서.
- 3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으니,  
4 주님 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같이 하신 하나님을  
옛적부터 아무도 듣지 못하였고  
귀로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눈으로 본 자가 없습니다.
- 5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의 길을 지키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므로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었습니까?
- 6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잡니다.
- 7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자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 8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 9 여호와시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 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10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 11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지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 12 여호와시여, 일이 이러한데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잠잠하시며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 65** 1 ○나는 나를 요청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찾게 했고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발견하게 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
- 2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들을 벌였으니,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견고
- 3 정원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언제나 나를  
분노하게 하며,  
4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거나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니,  
부정한 고깃국물이  
그들의 그릇 안에 있다.
- 5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네 자리에 있고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한다.
-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이고,  
하루 종일 타는 불이다.
- 6 보아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고 보응할 것이니,  
그들의 품에 반드시 보응하되

- 7 너희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 위에서 나를 모욕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이런 행위대로 해야려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 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서 즙이 얻어지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마라.  
거기에 복이 있다.' 한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종을 위해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아니하고,  
9 내가 아람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상속자를 낼 것이니,  
나의 택한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 10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하여  
시온은 양 떼의 우리가 되고  
아름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 11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며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가게에게 상을 차려 놓으며  
'<sup>나</sup>므라에게 혼합주를  
가득 부어 바치는 너희여,  
12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이므로  
너희 모두가 살육하는 자 앞에  
앞드릴 것이니,  
이는 내가 불려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 1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주릴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 14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괴로워 울고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며,  
15 너희 이름을 나의 택한 자들에게  
저축거리로 남길 것이며,  
주 여호와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16 그러므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 새 하늘과 새 땅

- 17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20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백 세에 죽는 자는 아이이고,  
백 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21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 그들은 여호와와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고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백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66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2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와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 같고,  
기념 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같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4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위해 혹독한 대우를 택하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불라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 5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라.’  
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셨다.  
6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자기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와 소리이다.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즐거움  
7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으니,  
8 누가 이런 일을 들었으며  
누가 이런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질 수 있으며,  
민족이 한 순간에 생길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들들을 낳았다.  
9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잉태하게 하는데  
해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가 해산하게 하려다가  
태를 단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곡하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11 이는 너희가 젖을 빨고  
그 위로의 품에 안겨 만족하며,  
너희가 흡족히 젖을 빨고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며,  
민족들의 영광이  
시내처럼 넘쳐 흘러오게 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품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뛰놀 것이다.  
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므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14 너희가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가  
풀처럼 기운차게 자라날 것이다.  
여호와와 손이  
그분의 종들에게 나타나겠으며,  
그분의 진노가  
그분의 원수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와 최후 심판과 영광

- 15 보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며  
그분은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것이다.  
16 불로 심판에 들어가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므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17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한 후에  
정원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와 혐오스런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  
씀이다.  
18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들을 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  
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그들 가운  
데 살아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펠과 활을 당기는 루트와 두발과 이완과 나의 명  
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  
한 먼 해변 땅들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전할 것이다.  
20 나 여호와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  
족들에게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  
에 태워 예루살렘의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다.  
21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  
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  
22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23 항상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와의 말이다.  
매달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한다.”

24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1 1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의 말이다.  
2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통치 십삼 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3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십일 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 지 임하였다.

#### 예레미야의 소명

4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5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6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8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9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10 보아라, 내가 오늘 너를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다.”

#### 두 가지 환상

11 ○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아몬도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였더니,  
12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보았다.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 보고 있다.” 하셨다.  
13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였다.

## 예 레 미 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꿩의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솥의 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었습니다.” 하였더니,  
14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제앙이 북쪽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쏟아질 것이다.”  
15 보아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입구에 제각기 왕의 보좌를 정하고 그 사방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16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한 모든 악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 위로와 용기의 말씀

17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 앞에서 놀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도록 만들겠다.  
18 보아라, 내가 오늘날 너를 온 땅, 곧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 앞에, 너를 견고한 성과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므로,  
19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광야에서의 첫사랑

2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네 청년 시절의 신의와 네 약혼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3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으니, 그것을 먹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한 것이므로 제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과거 이스라엘의 죄

4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람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찾아내었기에  
나를 멀리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6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광야 곧 황량한 구덩이의 땅,  
메마른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인간이 거기 살 수도 없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도 아니하였다.  
7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오게 하여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며,  
관리들은 나를 반역하였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갔다.  
9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또 너희 후손들과도 다툴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10 참으로 너희는 키프로스의 해안으로  
건너가서 살피며,  
게달로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피보아라.  
11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버렸다.  
12 하늘이여  
이를 보고 놀라고 전율하며  
심히 두려워하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13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14 이스라엘이 종이나?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15 그를 향해 젊은 사자들이  
부르짖으며 오르릉거리니,  
그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의 성읍들이 불타서  
사는 이가 없어졌으며,  
16 또한 멤피스와 디베네스의 자손들도  
네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17 여호와와 네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네가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것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18 이제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기 위해  
이집트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나?  
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며  
너의 배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니,  
네가 여호와와 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괴로운 일을 알고 깨달아라.  
만군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20 참으로 내가 옛적부터  
네 땅에를 부수고  
네 결박을 끊으며  
'나는 섬기지 않겠다.' 하더니,  
오히려 네가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와  
모든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구부리고 음행을 하였다.  
21 나는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한 참 종자로 삼았는데,  
어떻게 내게 들 포도나무로  
변질되었느냐?  
22 비록 내가 잣물로 씻고  
비누를 많이 사용할지라도,  
너의 죄악은  
내 앞에 남아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23 어찌 내가 '나는 더러워지지 않았다. 나는  
비알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골짜기에서 행한 바를 살피고,  
네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암낙타와 같으며,  
24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가

성욕으로 숨을 헐떡이는 것 같으니,  
그것의 발정을  
누가 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의 암컷을 찾을 것이다.  
25 네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며,  
네 목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방 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26 도둑이 들기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27 그들은 나에게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며,  
둘에게  
'당신은 나를 낳았습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참으로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환난의 때에는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한다.  
28 그러나 너를 위해  
내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네 신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들로 일어나게 하여라.  
우다야, 이는 네 성읍의 수만관이야  
네 신들도 많기 때문이다.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29 O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너희는 모두 나를 반역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30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소용없으니,  
그들이 혼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같이 물어뜯는 사자처럼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31 너희 이 세대 사람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살피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나 암흑의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32 처녀가 자기의 장식품을,  
신부가 자기의 장신구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33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어찌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34 죄없는 가난한 자들이  
집을 떠나  
잡힌 것도 아닌데,  
심지어 네 옷깃에서  
그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35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진실로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라고 한다.  
보아라, '나는 죄가 없다.' 하는  
네 말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36 너는 어찌하여  
여기저기로 부지런히  
네 길을 바꾸느냐?  
너는 아시리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37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매고 나가게 될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여호와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응답한 이스라엘**

3 1 O'만일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보내자,  
그 여자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땅이 심히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많은 무리와  
간음하였어도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다.  
2 네 눈을 들어 벌거벗은 산을 보아라.



네가 간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처럼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니, 너의 음란과 너의 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3 그러므로 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봄비가 없어졌으니, 너는 창기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모른다.  
4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부르짖기를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어릴 때부터 친구이시니,  
5 영원히 화를 내시며 끝까지 화를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다."

#### 이스라엘보다 못한 유다

6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 위, 모든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였다.  
7 내가 말하기를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이것을 보았다.  
8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증서를 주었으니, 이를 보고도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음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9 그가 음행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혔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으니,  
10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11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반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환

12 너는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해 외쳐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은혜로운 자니,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는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13 너는 오직 내 죄를 인정하여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이방 신들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14 돌아오너라. 나를 배역한 자식들이, 여호와와 말한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성읍 중에서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15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것이다.  
16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 날에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여호와와의 언약책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17 그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와의 보좌' 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18 그 날에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동행하여, 함께 북쪽 땅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준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이스라엘의 배반

19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어,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훌륭한 유업인 아름다운 땅을 네게 주겠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게서 떠나지 마라.' 하였다.  
20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21 벌거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곡하며 간구하는 소리이다. 이는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22 "돌아오너라. 나를 배역한 자식들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 주겠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 언덕들과 산들에서 바라는 구원은 참으로 헛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참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24 ○부끄러운 그것이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으며,  
25 우리는 수치 위에 눕고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이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회개의 촉구

4 1 ○"이스라엘아, 만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네 혐오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2 여호와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면, 민족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를 찬양할 것이다."  
3 ○참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목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4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를 위해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축을 제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5 ○너희는 유다에 섰으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라. 그 땅에서 나팔을 불며 또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여라.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6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피난하여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쪽으로부터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고, 민족들을 멸하는 자가 출발하였다. 그가 자기 자리를 떠나, 네 땅을 황폐케 하려 하니,

네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8 그러므로 너희는 굶은 배움을 입고 슬퍼하며 통곡하여라. 여호와와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 날에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낙담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라서 넘어질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10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이제 같이 목에 닿았습니다."  
11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들을 것이다. "광야의 벌거벗은 산에서 뜨거운 바람이 팔 내 백성에게로 불어오니, 이 바람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며, 정결케 하려는 바람도 아니다.  
12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올 것이니, 이제 나 역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13 보아라. 그가 구름처럼 올라올 것이니, 그의 병거들은 폭풍과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이르렀으니, 우리는 멸망했다.  
14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악한 생각들이 언제까지 네 속에서 머물겠느냐?  
15 한 소리가 단에서 외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  
16 보아라. 너희는 민족들에게 상기시키며, 예루살렘에 들리게 하기를 '에워싸는 자들이 먼 땅으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 함성을 지른다.' 하여라.  
17 그들이 들을 지키는 자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 이는 그가 나에게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18 네 길과 네 행위가 이것들을 내게 불러왔으니, 이것이 네 악함이다."

그것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므로  
심히 쓰라릴 것이다.”

#### 선지자의 탄식

- 19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요동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혼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20 파멸 위에 파멸이 선포되니,  
온 땅이 유린되었다.  
갑자기 내 장막들이  
순식간에 내 휘장들이 폐허가 되었다.  
21 내가 언제까지  
깃발을 바라보며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 22 “내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으니,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할 줄은 모른다.”

- 23 내가 땅을 보니,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하늘을 보니 빛이 없고,  
24 내가 산들을 보니, 진동하며,  
모든 언덕들이 요동한다.  
25 내가 보니,  
보아라,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갔다.  
26 내가 보니,  
보아라, 여호와 앞과  
그분의 맹렬한 분노 앞에서  
비옥한 땅이 광야가 되며,  
그분의 모든 성읍들이 무너졌다.  
2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다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나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28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위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으니,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며,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 29 기마병과 활 쏘는 자들의  
함성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바위 위로 기어오르니,

- 온 성읍이 버려져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구나.  
30 너, 멸망당한 자야,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으며,  
금장식으로 치장하고,  
화장으로 네 눈을 크게 하더라도  
네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헛되어,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고  
네 목숨을 노릴 것이다.  
31 내가 해산하는 여자의 소리,  
곧 첫 출산을 하는 여자의  
고통 소리 같은 것을 들었으니,  
시몬의 딸의 소리이다.  
그 여자가 혈떡이며 손을 뻗어  
“살인자들로 인하여 내가 지쳤다.”  
고 말하였다.

####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

- 5 1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 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네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2 비록 그들이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그들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3 여호와시여,  
주님의 눈은  
진실을 찾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훈계받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디다.

- 4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우둔하여  
여호와와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와 길,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그들도 하나같이  
명예를 부추고 결박을 끊은 자들이다.  
6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광야의 이리가 그들을 해치고,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엿보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찢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 7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네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에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었으나,  
그들은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몰려갔다.  
8 그들은 살지고 건장한 말 같아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향해 부르짖는다.  
9 이 일들에 대해  
어찌 내가 벌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민족에게  
어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와 말이다.  
10 너희는 그들의 성벽에 올라가  
부수되다 부수지는 말고,  
그 가지들만 제거하라.  
그것들은 여호와와 것이 아니다.  
11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12 그들이  
여호와와에 대하여 거짓말하기를  
“그는 존재하지 않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칼이나 기근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 선지자들은 바람이니,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 일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다.  
14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네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 이스라엘의 포로됨

- 15 이스라엘 집이며, 여호와와 말이다.  
보아라,  
내가 먼 곳으로부터 너희에게로  
한 민족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강한 민족이며  
오래된 민족이니,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6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17 그들이 네 아들들과 딸들이 먹을  
네 추수 곡식과 음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겠고,  
내가 신뢰하는  
네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괴할 것이다.  
18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지는 않  
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19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 하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  
겼으므로, 너희도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  
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 하나님의 경고

- 20 너희는  
이것을 아람의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여라.  
21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22 여호와와 말이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않느냐?  
내가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되,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바다가 출렁거리도 할 수 없고,  
파도가 요란해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  
23 그러나 이 백성은 반항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떠나갔고,  
24 그들은 마음에  
‘때맞추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여호와



-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25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  
그것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였으니,  
26 내 백성 중에 악인이 나타나  
매복하여 엿보는 새 사냥꾼처럼  
사람을 잡으려고 틈을 놓기 때문이다.  
27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것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므로  
그들이 강대하고 큰 부자가 되어  
28 살이 찌고 윤기가 난다.  
심지어 그들은  
악인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송사, 곧 고아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변호하지 않았다.  
29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와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이다.
- 30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  
31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 6 1 ○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 파난하여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하게렘에서 신호를 울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쪽에서 엿보고 있다.  
2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니,  
3 목자들이 양 떼를 물고  
그 땅에 와서  
그 주위에 장막들을 치고,  
각기 자기 처소에 서 먹일 것이다.”  
4 너희는 그 땅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여라.  
일어나라.  
우리가 한낮에 올라가자.  
아하 우리에게 화로구나.

날이 저물어 저녁 그들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 5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땅의 궁궐들을 파괴하자.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 경사로를 쌓아라.  
그것은 벌판을 성읍이며,  
그 가운데는  
오직 압제가 있을 뿐이다.  
7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의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된다.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네게서 멀어지며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겠다.”
- 반역하는 백성
-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김없이 주을 것이다.  
너는 바구니에 포도 따는 사람처럼  
네 손을 자주 놀려라.”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까?  
보아라,  
그들의 귀는 할레만지 못하였으므로  
경청할 수 없고,  
보아라,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시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11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와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너는 거리의 어린이와  
청년들의 모임에  
그것을 다같이 쏟아 부어라.  
참으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장년이 노인과 함께 잡혀갈 것이다.  
12 내가 그 땅의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이니,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들이

- 다 함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15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었드러지는 자와 함께  
었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지 않겠다.’ 하였다.  
17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너희  
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였다.  
18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어라.  
회중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 두어라.  
19 땅이며, 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20 어찌하여 시냇에서 유향을,  
먼 땅에서 좋은 향료를  
내게 가져오느냐?  
나는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너희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 북방의 침략자
- 2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23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했으며  
잔인하여 인정이 없고,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으며,  
그들은 말을 타고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어  
너 시온의 딸을 칠 것이다.”  
24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손에서 맥이 빠졌고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으므로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스럽다.  
25 너희는 발으로 나가지 말며  
길로도 다니지 마라.  
이는 칼이 원수에게 있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싸였기 때문이다.  
26 딸 내 백성아,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뒹굴며,  
외아들을 잃은 자처럼  
슬픔으로 통곡하여라.  
멸망시키는 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것이다.
- 백성의 악과 헛된 제련
- 27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세워  
그들의 길을 알아보고 살피게 하였다.  
28 그들은 모두  
고집스러운 반역자들이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들이고,  
눗과 쇠이며 모두 부패한 자들이다.  
29 풀무불을 세게 하면  
납이 그 불에 녹아 없어지므로  
제련하는 일이 헛되게 되는 것처럼  
악인들도 제거되지 않는다.  
30 사람들이 그들을  
‘버려진 은’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 7 1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 2 “너는 여호와와 그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어라.’”
-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그의 성전,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 5 ○만일 너희가 진실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면, 만일 너희가 진실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스스로를 해하지 아니하면,
- 7 나는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곳 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이다.
- 8 ○보아라,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들을 믿고 있다.
- 9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비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 10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 이는 너희가 이 모든 역겨운 일을 또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 11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아라, 나 역시 보고 있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내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내가 거기서 행한 것을 살펴보아라.
- 13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또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 14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곳에, 내가 실로에 행했던 것처럼 행하겠고,
- 15 내가 너희 모든 형제들,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을 쫓아낸 것같이 너희도 내 눈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

- 16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드리지 말고, 또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네 소리를 듣지 않겠다.
- 17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 18 자식들은 나무를 잡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자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에게 드릴 과자를 만들고, 그들은 또 다른 신들에게 붓는 제물을 드려서 나를 진노하게 한다.
- 19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냐? 자기 얼굴에 수치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진노와 내 분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을 것이니, 꺼지지 않고 불탈 것이다.”
-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고기를 먹되, 너희 희생 제물에 번제물까지 더하여 먹어라.
- 22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에, 그들에게 번제물과 희생 제물에 대하여 말하거나 명령하지 아니 하였고,
- 23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 24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함을 따라 행하여,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서 향하지 않았다.
- 25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들 곧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내었으나,
- 26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을 뻗뻗하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 2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 28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혼계를 받지 않는 민족이고, 진실이 사라져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졌다.’
- 29 네 머리카락을 잘라 던져 버리고, 벌거벗은 산 위에서 슬픈 노래를 불려라.

이는 여호와께서 노하시어서 이 세대를 물리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 한놈의 아들 골짜기에서의 범죄

- 30 ○이는 유다 자손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을 두어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 31 그들은 한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짓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살랐으니, 이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다.
-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한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과 ‘한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이는 문힐 장소가 없어서 도벳에서 매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33 또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 34 그때에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할 것이니,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

- 8 1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고관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 2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고 그 뒤를 따르며 구하고 경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 아래에 뿌릴 것이니, 그 뼈가 결코 다시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땅의 거름이 될 것이다.
- 3 이 악한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모든 남은 자들, 곧 내게 쫓겨나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 5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배반하느냐?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 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 보니,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 죄악을 뉘우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말이 전쟁터로 돌진하듯이

- 그들은 모두 자기 길로 떠났다. 하늘의 황새까지도 자기에게 정해진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학과 제비도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와 그의 법도를 모른다.
- 8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우며, 여호와와 그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그 율법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 9 지혜로운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며 불쌍해 갈 것이다.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 11 그들이 팔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다.
- 12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없으러지는 자와 함께 없으러질 것이며, 그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한다.
- 백성의 죄에 대한 벌
- 13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도 말라 버릴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 14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 거짓된 백성들

- 9 1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것이다.
- 2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숙소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니,  
그들은 다 음행한 자들이며  
배신한 무리이기 때문이다.
- 3 “그들은 자기 혀를 활처럼 구부려  
거짓말을 하며,  
그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갔으며  
나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4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마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 5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
- 6 네 처소는 속임수 가운데 있으며,  
속임수 때문에  
나를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할 것이니,  
그 외에 내가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 8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며,  
거짓을 말할 뿐이라.  
그 입으로는  
자기 친구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병이 숨어 있다.
- 9 이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 핑과 성에 임하는 재앙

-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서 죽자.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다.
- 15 우리가 평안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때를 기다리나  
보아라, 두려움뿐이다.’
- 16 단으로부터  
그 말들의 콧김 소리가 들려오고,  
그 준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와서 땅과  
그 땅의 모든 것,  
성읍과 그 안의 주민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 17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술이 통하지 않는  
뱀들과 독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한 탄식
- 18 내가 슬픔 중에  
나 자신을 위로하려 하지만  
내 마음이 몹시 상하였다.
- 19 보아라,  
딸 내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시몬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곳에 왕이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들의 우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진노하게 하였는가?”
- 20 “주수가 지나고  
여름철이 끝났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 21 딸 내 백성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입었으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어찌하여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가?

- 10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초원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니,  
이는 그것들이 불타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사라졌기 때문이다.
- 11 내가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와 이리의 소굴로 만들며,  
유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어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 12 이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어찌하여 그 땅이 멸망하여  
광야처럼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는가?
- 13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내가 그  
들 앞에 두었던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  
를 듣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 자기들 고집대로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  
친 비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 16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들  
가운데 홀여 버리고,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  
지 그들 뒤에 칼을 보내겠다.” 하셨다.
-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오고,  
지혜로운 여자들도 불러오너라.
- 18 그들이 서둘러서  
우리를 위해 슬피 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여라.
- 19 통곡하는 소리가  
‘시몬에서 들리니,  
“어찌하여 우리가 망하여  
이토록 수치를 당하는가.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 20 여자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로 그 입의 말씀을 받아  
너희 딸들에게  
슬피 곡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각기 자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 21 사망이 우리 창문으로 올라오며  
우리 궁궐로 들어와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를  
광장에서는 청년들을 멸하려 한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사람의 시체가  
밭의 거름처럼 널려 있으며,  
추수 뒤에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처럼 될 것이다.”

## 여호와와의 권면

- 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  
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  
를 자랑하지 마라.
-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 곧 멸절  
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징벌
- 25 “보아라, 그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  
이다. 내가 할례받은 모든 자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벌할 것이니,
- 26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임몬 자손과 모압  
과 광야에 살면서, 옆 머리카락을 깎은 사람  
들이니,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아  
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마음의 할례  
를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 우상과 참 하나님

- 10 1 O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 3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 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 4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5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 6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위대하십니다.
- 7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 당연하니,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 8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혼계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 9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제련공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 10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에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  
 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  
 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 12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 13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 14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제련  
 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그들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 15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벌받  
 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 16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  
 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 17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임박한 재앙과 예레미야의 기도

18 땅에서 네 집 꾸러미를 모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다.

19 아,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20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니,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21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행동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 떼가 흩어졌다.

22 보아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3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니다.

24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25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아담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 언약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불순종

- 11 1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이다.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유다 사람  
 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고하여라.

- 3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씀들  
 을 듣지 않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용광로 같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너희 조상들  
 에게 명령한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  
 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 5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  
 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서약을 오늘날 이  
 루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아멘, 여호와시  
 여.”라고 대답하였다.
- 6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이 모든  
 말들을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여라.”라고 말하여라.
- 7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는 내 음성을 들  
 어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부지런히 경  
 고하였으나,
- 8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  
 하였으며, 자기의 악한 마음과 고집대로 행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였으  
 나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이 언약의 모든 말씀  
 들을 그들 위에 보낸 것이다.”
- 9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  
 과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서 반역의 음모가 발  
 견되었다.
-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던 자기들의 옛  
 조상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 11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 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은 재앙의 때에 그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 13 유다야, 네 신들의 수가 네 성읍들의 수와 같  
 으며,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그 부끄러운  
 것들의 제단들을 세웠으니, 바일에게 분향하  
 는 제단들이다.
- 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드리  
 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재앙 때문에 내  
 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 15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슨 일을 하였

느냐? 그가 많은 악을 피하였으니, 거룩한 제  
 물 고기로 네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악을 행하면서 기뻐한다.

16 나 여호와가 네 이름을 ‘허다한 과실을 많  
 이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 불렀거늘 이제  
 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이 불  
 고 그 가지들이 부러졌다.”

17 너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가 네게 재앙을 선  
 포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스스로 행한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니, 그들이 바일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 예레미야 암살 계획과 여호와와 벌

18 여호와께서 제게 알려 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소행을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19 저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유순한 어린 양 같아서,  
 그들이 저를 대적하여  
 ‘우리가 나무를 열매와 함께  
 찍어 버리고  
 그를 산 자의 땅에서 없애 버려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계획을 꾸민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20 공의로 판단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제가 저의 송사를 주께 털어놓았으니,  
 그들에 대한 주님의 복수를  
 제가 보게 하소서.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니듯 사람들에게 대  
 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와 이  
 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네가 우리 손에 죽을  
 수도 있다.’ 한다.

22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기근  
 으로 죽어

23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니듯 사람들을 벌하는 해에 그들에게 재앙  
 을 보낼 것이다.”

#### 예레미야의 질문

12 1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과 논쟁할 때마다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단지 저는 주님과 함께 공의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험통하며,  
배신한 자가 모두 평안한 것입니까?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니다.  
3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살피시니,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구별해 두소서.  
4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들의 채소가 말라야 합니까?  
거기 사는 자들의 악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5 “네가 걷는 자들과 함께 경주해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한다면,  
어떻게 네가 말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오단강이 넘칠 때는  
네가 어찌하겠느냐?  
6 참으로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소리 지르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신뢰하지 마라.”

#### 하나님이 유업을 버리신 결과

7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나의 유업을 포기하였으며,  
나는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8 내 유업이 숲 속의 사자처럼 되어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므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다.  
9 내 유업이 내게 대하여  
무늬 있는 매 같아서  
다른 매가 그것을 애워싸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들짐승들을 모아  
데려와서 뜯어먹게 하여라.  
10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으며,  
그들이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  
11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향  
무지가 나를 향해 슬퍼한다.  
온 땅이 황폐해졌으나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12 악탈자들이  
광야의 모든 벌거벗은 산에  
이르렀는데,  
이는 여호와와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휩쓸기 때문이니,  
모든 육체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13 무리가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었고 그들  
이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었다.  
내가 매우 분노하였으므로  
그들은 소산이 없어  
수치를 당할 것이다.”

#### 이스라엘의 이웃에 대한 경고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려준 유업에  
손대는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하여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 버리며,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  
서 뽑아 버리겠다.  
15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다시 그들을 불쌍  
히 여겨 그들 각 사람을 자기 유업으로, 각 사  
람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16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비알에게 맹세 하게  
한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열심히  
배워서 ‘여호와와 살아 계시다.’ 라고 내 이름  
으로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움  
을 입게 될 것이다.  
17 그러나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민  
족을 뽑아 버리되, 멸망시킬 때까지 뽑아 버  
릴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썩은 허리띠의 교훈

13 1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베 허리띠를 사서 네 허리에  
두르되, 그것을 물에 넣지 마라.” 하셨으므로,  
2 내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3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  
하시기를  
4 “내가 사서 네 허리에 두른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  
위틈에 숨겨두어라.” 하셨으므로,  
5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유프라테스에 숨겼다.  
6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  
시기를 “너는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숨겨두라고 했던 허리띠  
를 가져오너라.” 하셨다.

7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숨  
겨 두었던 허리띠를 꺼내어 보니, 그 허리띠  
가 썩어서 아무 데도 쓸모없게 되었다.  
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9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  
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  
다.  
10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  
음의 고집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며 절하니, 그들이 아무 데도 쓸  
모없는 이 허리띠처럼 될 것이다.  
11 이는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유다 온 백성이 내게 붙어  
있어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내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부식된 포도주 항아리

12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  
하신다. 모든 항아리가 포도주로 채워질 것  
이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모든 항아리가 포도주로 채워질 것을 우리  
가 정말로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13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  
민들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  
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술  
로 만취하게 하고  
14 그들끼리 서로 치고 반겨 할 것이니, 심지어  
아버지들과 자식들까지도 서로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그들을 불  
쌍히 여기거나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궁핍  
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 포로로 잡혀감

15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마라.  
16 그분께서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밭이 황혼의 산 위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소망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이 되어  
질은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7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내 심령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남 몰래 울며,  
내 눈이 여호와와 양 떼가  
사로잡혀가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18 왕과 왕비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 머리에서 떨어졌다.  
19 남쪽의 성읍들이 봉쇄되나  
열 자가 없으며,  
유다가 모두 포로로 잡혀가되  
완전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20 네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라.  
네게 주었던 양 떼,  
그 아름다운 양들이 어디 있느냐?  
21 네가 가르쳤던 친구들을  
내가 네 위의 우두머리로 세웠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이 너를 사로잡지 않았느냐?  
22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네 많은 죄악 때문에  
너의 치마가 들춰지고,  
네 발꿈치가 상하였기 때문이다.  
23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파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의 바람에 날리는 짐불같이  
흔들 것이다.  
25 이것이 너의 몫이며,  
내가 네게 정하여 준 분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다.  
26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걷어 올려  
네 수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27 내가 네 음행과 음란한 소리와  
들판 언덕 위에서 행한  
네 음행의 사악함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았도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얼마나 오랜 후에야  
네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 유다의 가뭄

14 1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와 말씀이다.  
2 “유다가 슬퍼하며,  
그 성문들이 퇴락하였다.

그들이 상복을 입고 땅에 엎드리니,  
 예루살렘의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간다.  
 3 귀족들이 물을 구하여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찾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자기 머리를 가린다.  
 4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린다.  
 5 들의 암시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6 들나귀들은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이리  
 저리 숨을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침침해진다.”

#### 백성들의 기도

7 “여호와시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소서.  
 이는 우리의 배반이 크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환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서 타국인 같고  
 허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으십니까?  
 9 어찌하여 주께서는 놀란 사람 같으며, 구원  
 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 방황하는 백성과 거짓 선지자

10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처럼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말을 삼가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하셨다.  
 11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12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  
 지 않겠으며, 그들이 번제와 곡식 제사를 바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  
 을 멸망시키겠다.”

13 ○이제 내가 말하기를 “슬픔이나, 주 여호와  
 시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거  
 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이 너  
 희에게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고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합니  
 다.” 하였다.  
 14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  
 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명령  
 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거짓 환상  
 과 점술과 허망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수  
 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  
 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이  
 같이 말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16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듣는 백성은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니,  
 그들을 장사 지낼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뿐  
 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들 위에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17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상처와 심한 구타로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18 내가 들에 나가 보면  
 칼에 죽은 자들뿐이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 보면  
 기근에 병든 자들뿐이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땅에 두루 다니니  
 그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 백성들의 기도

19 주께서 유다를 참으로 버리십니까?  
 주님의 심령이 시몬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을 때를 기다렸으나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20 여호와시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21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기하지 마소서.  
 22 이방의 허무한 우상들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 백성들을 심판하실 여호와

15 1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만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서 있다 할지  
 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하지 아니할 것  
 이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2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갈  
 까?’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굶어 죽을 자는 굶주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고 하셨다.’ 하여라.  
 3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  
 할 것이니, 곧 칼로 죽이고 개가 찢게 하고 공  
 중의 새가 먹게 하며 땅의 짐승들이 삼키게  
 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4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  
 에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5 예루살렘아,  
 참으로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으며,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겠으며,  
 누가 돌아보아  
 네게 안부를 묻겠느냐?  
 6 여호와와 말이다.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므로,  
 내가 내 손을 네게로 퍼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7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땅의 성문들에서  
 그들을 키로 까들어서  
 그 자식들을 끊고  
 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8 그들의 과부들이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며,

내가 내달에 파괴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청년들의 어머니를 처서  
 그들에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닥치게 할 것이다.  
 9 일곱 자식을 낳은 자가  
 기절하여 지칠 것이며,  
 아직 낳인 데도  
 그 여자의 태양이 지고  
 그 여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 중 남은 자를  
 그 원수들 앞에서 칼에 넘겨주겠다.  
 여호와와 말이다.”

####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답변

10 ○내게 화가 있다. 어머니, 당신은 나를 온 세  
 상과 싸우는 자로, 다투는 자로 낳으셨습니  
 다. 내가 빌려 주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  
 으나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참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여 복을 얻게 하고, 내가 참으로  
 재앙과 고난의 때에 원수가 네게 간청하게  
 할 것이다.  
 12 누가 쇠, 곧 북방의 쇠와 못을 깨뜨리겠느냐?  
 13 ○네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네 온 나라 안에서  
 네 재산과 보물들이 값없이 약탈당하게 하  
 고,  
 14 네 원수들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  
 게 할 것이니, 이는 내 진노의 불이 타올라 너  
 희를 사를 것이기 때문이다.”  
 15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시니, 저를 기억하  
 시고, 저를 살피셔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  
 에게 저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오래 참으  
 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주님 때  
 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알아 주소서.  
 16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지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7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았으나,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18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시내같습니다.



- 1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네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네가 나의 입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 20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맞서는  
견고한 듯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21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속하겠다.”

### 재앙의 날

- 16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2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며,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마라.”
- 3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과 이 땅에서 그  
들을 잉태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4 “그들이 독한 병에 걸려 죽을 것이나, 아무도  
슬퍼 울지 아니하고 묻어 주지도 아니할 것  
이니, 그들이 땅 위의 거름이 될 것이며, 갈과  
기근으로 망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  
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 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초  
상집에 들어가서 말며, 가서 슬퍼 울지도 말  
고,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마라. 이는 내  
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거두었고, 인  
애와 긍휼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6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이  
지만 묻어 주는 자가 없고, 그들을 위해 슬퍼  
울거나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가 없  
을 것이다.
- 7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 우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떡을 나누거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의 잔을 마  
시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 8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앉  
아서 먹고 마시지 마라.
- 9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하기를 ‘보아라, 내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 를 이곳 너희 눈앞에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사라지게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 10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할 때, 그  
들이 네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언하셨느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여호와 우  
리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나?’ 하면
- 11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  
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면서 나  
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 12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보아라, 너희가 각각 자신의 악한 마음의 고  
집대로 행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  
므로.
- 13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 낼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내  
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 14 ○여호와와 말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  
니, 다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와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  
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  
이다.
- 16 ○여호와와 말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  
를 보내어 그들을 낚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많  
은 사냥꾼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니,
- 17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피므로 그들  
이 내 앞에서 숨을 수도 없고, 내 눈앞에서 그  
들의 죄악을 감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 18 내가 먼저 그들의 악과 죄를 두 배로 갚을 것  
이니, 이는 그들이 섬기는 험오스러운 것들  
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것들을 내 유업에 가득하게 했기 때문이다.”
- 19 여호와와 나의 힘,  
나의 산성,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으로부터 주께 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은 것은  
오직 거짓뿐이며,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임이다.
- 20 사람이 어찌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 21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릴 것이니,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  
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 유다의 죄와 벌

- 17 1 ○“유다의 죄는 철폐로 기록되고, 그들  
의 마음 판과 너희 제단 뿔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2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결  
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  
다.
- 3 뿔에 있는 나의 산들아, 네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네 산  
당들이 악탈당하게 하겠다.
- 4 이는 내가 네게 준 유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  
며,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네 원  
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  
문이다.”
- 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 6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 7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 8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 9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 10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 11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 12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여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 14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를 것임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임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 15 보소서,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타나게 해 보아라.” 합니다.
- 16 제가 목자의 일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왔으며,  
제가 재앙의 날을 바라지 아니한 것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 17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 18 저를 박해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저는 놀라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시며  
갑절의 파멸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
- 19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  
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 20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성문들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말을 들어라.
- 21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삼  
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서 말  
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  
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 23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 도 않으며, 그들의 목을 뺏뺏이 하여 혼계를 받지도 않았다.
- 24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의 문을 통해 짐을 들며 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 25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자와 말을 타고 이 성의 문들을 들어올 것이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고관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니,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 26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쉘멜라와 산지와 네게브로부터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가져오고, 또 감사 제물을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 27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들로 들어오지 마라고 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성문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킬 것이며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 토기장이의 비유

- 18 1 ○여호와께서 토기장이에 임한 말씀이다.
- 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 그가 물레로 일을 하는데,
-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 5 ○그때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6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같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도 내 손안에 있느니라.
- 7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아 버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때에,
- 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자기 악에서 돌아선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그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 9 만일 내가 어느 때에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는다고 말하였으나
- 10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말한 그 선을 돌이킬 것이다.
- 11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

- 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 비하고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쳐라.’
- 12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겠고, 각자 자기의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하겠다.’ 할 것이다.
- 13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말이 말한다.
- 너희는 누가 이 같은 일을 들었는지 민족들에게 물어 보아라.
- 14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하였다.
-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 물줄기가 마르겠느냐?
- 15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헛된 것에게 분향하였으니, 그것들은 내 백성이 옛부터 걸어온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집, 곧 닦지 않은 길로 다니게 하여 그들의 땅이 황폐해지게 하고 영원한 조롱거리가 되게 하니,
- 16 그러로 지나가는 모든 자가 놀라서 자기 머리를 흔들 것이다.
- 17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흩어 버릴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등을 돌리고 그들을 외면할 것이다.”
- 예레미야의 넷째 고백과 예레미야 암살 음모
- 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이는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계획이 지혜자에게서, 말씀이 선지자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한다.
- 19 여호와시여, 저를 돌아보시고 저와 다루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 20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좋은 점을 말하며,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한 것을 기억하소서.
- 21 그러므로 그들의 자식을 기근에 넘기시고

-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들은 살육당해 죽으며 청년들은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소서.
- 22 주께서 그들에게 군대를 갑자기 보내셔서 그들의 집에서 울부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으며 제 발이 걸리도록 밧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 23 여호와시여, 저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음모를 주께서 다 아시니,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우지 마시며, 그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소서.
- 깨어진 질그릇
- 19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토기장이에게서 질그릇 하나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 2 하르시트 큰 입구에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며
- 3 말하여라.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아,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불러왔으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왕왕거릴 것이다.
- 4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더럽히며, 이곳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을 무죄한 자들의 피로 채웠으며,
- 5 비알의 산당을 세워 자기 아들들을 비알에게 번제로 불태워 바쳤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 6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곳을 다시는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부르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 7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

- 절시키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며,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어지게 하여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 8 내가 이 성을 황폐한 곳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으니,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자가 그들이 당한 모든 상으로 놀라고 조롱할 것이며,
- 9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포위되어 곤궁할 때에, 그들이 그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 사람이 자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겠다.’
- 10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질그릇을 깨뜨리며,
- 11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 말한다.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깨뜨릴 것이니, 그들을 더 이상 문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을 것이다.
- 12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그와 같이 하여 이 성을 도벳같이 만들 것이다.
- 13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이 도벳 장소처럼 부정하게 될 것이니, 이는 그 모든 집들이 지붕 위에서 하늘의 온갖 만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 14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어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와 그의 집 뜰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 성에 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니, 이는 그들이 목을 뺏뺏이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겠다.”

### 예레미야와 바스홀의 충돌

- 20 1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와 그의 집 관리장인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예언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
- 2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와 그의 집 베냐민 뒷문에 있는 창고에 그를 가두었다.
- 3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창고에서 놓아 주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부르지 않고, ‘마굴밋사빔’이라 하신다.
- 4 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와 네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으니, 그들이 그들



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그들을 바빌로니아로 끌어가 칼로 쳐서 죽일 것이다.

5 또 내가 이 성의 모든 부와 모든 소독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 바빌로니아로 가져갈 것이다.

6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에 이르러, 거기서 네가 죽고 거기에 네가 묻힐 것이니,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네 모든 친구가 그러할 것이다.”

### 예레미야의 불평

- 7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속았고 주께서 저보다 강하시므로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제가 종일토록 놀림거리가 되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 8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어서 ‘폭력과 파멸’이라고 외치니,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제가 종일토록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 9 그때에 제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하겠다.’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곧 내 뼈들 속에 간혀 타는 불과 같으니, 내가 그것을 억누르기에 지쳐 견딜 수 없습니다.
- 10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방에 두려움이 있었고 ‘고소하여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하면서, 저와 친한 모든 자들이 제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그를 이끌 수 있으니, 그를 붙잡아 그에게 복수하자.’ 합니다.
- 11 그러나 여호와께서 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시므로,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져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지체롭지 못하므로, 부끄러움을 크게 당하고

그 수치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12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신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제가 저의 사정을 주께 고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소서.”

- 13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께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 14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되지 아니하였더라면,
- 15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네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여 그를 크게 기쁘게 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 16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무너뜨리신 성읍들과 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낮에는 전쟁 소리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나,
- 17 그분께서 나를 모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였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고, 그 배가 항상 불려 있었을 것이다.
- 18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만 보다가 부끄러운 가운데 내 인생을 보내는가?

### 예루살렘의 멸망 예고

- 21 1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 2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니, 너는 부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하였다.
- 3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 4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

하셨다. ‘보아라, 너희가 성 밖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인들과 싸우기 위해 너희 손에 들고 있는 무기들을 내가 거두어서 이 성 가운데 모아둘 것이다.

5 내가 편 손과 강한 팔로, 분노와 진노와 큰 화로 너희와 싸우며,

6 내가 이 성에 사는 자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칠 것이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7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 그리고 이 성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적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그들을 칼날로 치며 그들을 아끼지 않고, 궁중에 여기저기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8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9 이 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는 목숨을 노획물처럼 얻게 될 것이다.

10 여호와와 말씀이다. 내가 이 성을 향해 내 얼굴을 두고 있는 것은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는 것이다. 이 성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 그가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 유다 왕실에 대한 심판

- 11 ○너희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와 말씀 을 들어라.
- 12 다윗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아침마다 공정히 판결하여, 약탈하는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 때문에 내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 사를 것이나, 끝 자가 없을 것이다.
- 13 여호와와 말씀이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자들이,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며, 누가 우리의 거처로 들어오겠느냐?’ 하지만,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 14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겠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내가 그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을 다 사를 것이다.”

### 유다왕의 집에 대한 예언

- 22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 2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아, 너와 네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와 말씀 들어라.
-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수탈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 4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함께 이 집의 문들을 통해 들어올 것이다.
- 5 그러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이 말대로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6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지만, 내가 너를 광야와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으로 만들 것이다.
- 7 내가 너를 파멸시킬 자들을 구별해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각기 무기를 가지고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베어 불에 던질 것이다.
- 8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을 이같이 하셨을까?’ 하면,
- 9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긴 까닭이다.’ 라고 할 것이다.”
- 10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잡혀가는 자를 위해 슬피 울어라. 이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
- 1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잡혀간 실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 12 그가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 13 “불의로 자기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라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 14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라방을 지을 것이다.’ 하며,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내고, 백향목으로 덮고 붉은 색으로 칠한다.
- 15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왕이 되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며, 공평과 정의를 행할 때에 행동하지 않았느냐?
- 16 참으로 그가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위해 판결할 때에 행동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와의 말이다.
- 17 그러나 네 눈과 네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무제한하고 빼앗는 일에만 가있다.”
- 18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자매여.” 하면서 슬피 울지 않을 것이며,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면서 슬피 울지도 않을 것이다.
- 19 그는 끌려나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다.”
- 20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이비림에서 외쳐라. 이는 네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 21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고, 네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이것은 네 어렸을 때부터

- 네 습관이다. 네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네 사랑하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그때에 내가 너의 모든 사악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 23 레바논에 거주하며 백향목에 깃들여 사는 자여, 해산하는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네게 찾아올 때에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겠느냐?
- 24 ○ 여호와와의 말이다. 나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고니아가 내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 25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 26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네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쫓아 버릴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 27 “너희가 돌아오기를 갈망하던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 28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 쓸모 없는 항아리인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내던져졌느냐?
- 29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어라.
- 30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사람에 대하여 자식이 없으며 평생 동안 행동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여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행동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23 미래에 나타날 다윗의 의로운 가지

- 1 ○ “내 초원의 양 떼를 죽이고 흩어 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2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어서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

- 다. 보아라, 내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3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모으겠고, 내 양 떼를 흩었던 모든 나라로부터 모아 들여서 자기 목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며,
- 4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우고, 그들은 양들을 먹일 것이므로 양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은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5 ○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하고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릴 것이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 7 ○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와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 8 이스라엘 집의 후손을 북쪽 땅과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나라로부터 이끌어 올리고 인도한 여호와와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할 것이니,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 거짓 선지자

- 9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내 속에서 심장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술 취한 사람같이 되며 포도주에 빠진 사람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 때문이다.
- 10 참으로 간음하는 자가 땅에 가득하고,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마르니, 그들의 행위는 악하고 그들이 힘쓰는 것도 정직하지 않다.
- 11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부패하였으며, 내가 내 집에서조차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어, 그들이 떠밀려 거기에서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는 해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 여호와와의 말이다.
- 13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척음을 보았으니,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였다.
- 14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무서운 일을 보았으니, 그들이 음행하며 거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 악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소돔과 같고, 그 주민은 고모리와 같았다.
-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와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썩을 먹이고 독물을 마시게 할 것이니, 불경함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온 땅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 16 ○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상을 말하니,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17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며,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 18 누가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 19 보아라, 여호와와 폭풍이 진노 중에 일어나니, 회오리 치는 폭풍이 악인의 머리에 휘몰아칠 것이다.
- 20 여호와와의 진노가 그 마음의 계획들을 이룰 때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훗날에 너희가 그것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다.
- 21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달려 나가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예언한다.
- 22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 떠나게 하였을 것이다.
- 23 ○내가 가까운 곳만의 하나님이고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니나? 여호와의 말이다.
- 24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중만하지 않나? 여호와의 말이다.
- 25 내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한다.
- 26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나? 그들은 자기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다.
- 27 그들이 각자 이웃에게 자기 꿈을 말하니, 마치 자기 조상들이 바빌 때문에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 28 꿈을 꾸는 선지자가 그 꿈을 설명하더라도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진실히 말하여라. 쪽정과 알곡이 어찌 같겠나? 여호와의 말이다.
- 29 내 말이 불 같지 않나?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지 않나? 여호와의 말이다.
- 30 그러므로 보아라, 서로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 31 보아라, 자기 혀를 놀려 '본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 32 보아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설명하며, 내 백성을 거짓말과 허풍으로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명령한 적도 없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 여호와와 경고**
- 33 ○만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나 내게 '여호와와 경고가 무엇인가?'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와 경고를 무엇인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여라.
- 34 여호와와 경고라고 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함께 멸할 것이다.
- 35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 36 여호와와 경고라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경고가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 37 너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여라.

38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와 경고'라고 말하므로 여호와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와 경고'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와 경고'라는 말을 하였다.

39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를 아주 잊어버리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과 함께 너희를 내 앞에서 내버려서

40 너희가 잊지 못할 영원한 모욕과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 무화과 두 광주리

- 24 1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간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여 주셨다.
- 2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매우 좋은 무화과들이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다.
- 3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매우 좋고 나쁜 것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였다.
-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5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같이 여길 것이다.
- 6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 7 내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 8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이 땅에서 살아남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버릴 것이다.
- 9 내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 흩어서 재앙을 받게 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곳에서 그들이 모욕당하며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 10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땅 위에서 그들이 멸절되기까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 유다의 멸망과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 25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사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에 모든 유다 백성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다.
- 3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통치 십삼 년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계속 부지런히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 4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모든 중, 선지자들을 계속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 5 선지자들이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 6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 7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화나게 하여 화를 자초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8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 9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데려다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겨서, 이 땅과 그 주민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진멸하여, 황폐한 곳이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히 패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10 내가 그들에게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돌 소리와 들불 빛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 11 이 온 땅이 패허와 황폐한 곳이 되고, 이 나라들이 바빌로니아 왕을 칠십 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 12 여호와와 말씀이다. 칠십 년이 다 차게 될 때,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하여 그 땅을 영원히 패허로 만들 것이다.
- 13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포한 나의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여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 14 그들도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와 그들

의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 만군에 대한 심판

- 15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마시게 하여라.
- 16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쳐 날뛰는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내는 칼 때문이다."
- 17 내가 여호와와 손에서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고,
- 18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이 마시게 하니, 그들이 패허와 황폐한 곳이 되고 조롱과 저주가 되었음이 오늘날과 같다.
- 19 또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 20 혼합된 족속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에 남아 있는 자와,
- 21 에돔과 모압과 아몬 자손과,
- 22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쪽 해변 지방의 왕들과,
- 23 단단과 데마와 부스와, 옆 머리카락을 깎은 사람들과,
- 24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들과,
- 25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 26 북방 원군의 모든 왕과,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마시게 하였다. 세삭 왕은 그들 뒤에 마시게 될 것이다.
- 27 ○"너는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 때문이다.'
- 28 ○만일 그들이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하여라.
- 29 보아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너희가 형벌을 면할 수 있겠나? 면할 수 없다. 이는 내가 땅의 모든 주민들 위에 칼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 30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예언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부르짖으시며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고,

- 그분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시며 포도를 밟는 자처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외치시므로,
- 31 아우성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문하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3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로 번지며, 큰 폭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 33 ○그 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할 것이니,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을 것이며, 모아가 묻어 주지도 않을 것이니, 그들이 땅 위에 거름이 될 것이다.
- 34 너희 목자들이, 통곡하고 부르짖어라. 양 떼의 인도자들이,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살육당하고 흠여질 때가 되었으니,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어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 35 그 목자들에게는 도망할 곳이 없고 그 양 떼의 인도자들에게는 도주할 곳이 없을 것이다.
- 36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장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37 평화로운 초장들이 여호와와의 맹렬한 진노로 적막하게 된다.
- 38 그분께서 젊은 사자처럼 자신의 굴에서 떠나셨으니, 그들의 땅이 압제자의 분노와 여호와와의 격렬한 진노로 폐허가 되었다.

####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 26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다.
- 2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여호와와의 성

- 전 뜰에 서서 여호와와의 성전에 경배하러 온 유다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하고 한 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 3 혹시 그들이 듣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둘 것이다.
- 4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 5 내가 너희에게 계속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던 내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 6 내가 이 집을 실로와 같이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나라들의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 7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 8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여 온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모든 말을 마치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 9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고, 이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하느냐?"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들었다.
- 10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들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와의 성전 '새 문' 입구에 앉았다.
- 11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가 이 성읍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귀로 들은 대로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 12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그 모든 말로 예언하게 하셨다.
- 13 이제 너희는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 음성을 청종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 14 보아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옳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여라.
- 15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주민들 위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다."

- 16 ○그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하였더니,
- 17 그 땅의 장로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했다.
- 18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셋 사람 미가야가 온 백성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며, 성전의 산은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19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가 정녕 그를 죽였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청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한 재앙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큰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 우리아의 예언과 죽음

- 20 ○또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가 이 성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가 한 말과 같이 예언하니,
- 21 여호와감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므로,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 22 여호와감 왕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냈는데, 악물의 아들 엘리단과 몇 사람을 함께 보냈다.
- 23 그들이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호와 감 왕에게 데리고 오자, 왕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 버렸다.
- 24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하므로, 그가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 27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들을 만들어 내 목에 메고, 그것들을 애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도 보내되,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 들려 보내고,
- 4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군주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

- 하였다고 말하게 하여라. '너희는 너희 군주들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 5 내가 내 큰 능력과 내 뼉은 팔로 땅과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땅을 주었다.
- 6 이제 나는 이 모든 땅들을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으며,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다.
- 7 그 땅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는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니, 그 후에는 많은 민족과 큰 왕들이 그를 종으로 부릴 것이다.
- 8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자기 목에 메지 않는 민족이나 왕국이 있으면, 그들이 그의 손에 전멸하기까지 내가 그 민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9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여도 듣지 마라.
- 10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너희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니,
- 11 그러나 자기 목에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들을 자기 땅에 머물게 하여 그 땅을 정착하며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12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였다. "여러분은 목에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 13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아니할 나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시니까?
- 14 왕과 백성에게 '당신들은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다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할 뿐입니다.
- 1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셨습니다."
- 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너희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여호와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바빌로니아



- 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마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 17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어찌하여 이 성읍이 폐허가 되게 하겠느냐?
- 18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며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와 성전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들이 바빌로니아로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여라.
-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바다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나머지 기구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 20 이것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갈 때에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 21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성전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들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 22 "그것들은 바빌로니아로 옮겨져 내가 그것들을 찾는 날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라고 하셨다.

####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그의 종말

- 28 1 O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 사년 오월에 기브온 사람인 선지자 잇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였다.
-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땅에를 꺾어 버렸다.'
- 3 이년 안에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이곳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며
- 4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니, 이는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땅에를 꺾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5 O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 6 "이년, 여호와께서 그같이 행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들을 이루셔서 여호와와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

- 란다.
- 7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을 들어라.
- 8 나와 너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 예언하였다.
- 9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 10 O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땅에를 빼앗아 꺾고
- 11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땅에를 모든 나라들의 목에서 꺾어 버리겠다.' "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 12 O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땅에를 꺾은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13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나무 땅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나는 쇠 땅에를 만들었다.'
-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쇠 땅에를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 15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야, 이제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으니, 너는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맡게 한다.
- 1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없애버릴 것이니,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반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셨다."
- 17 O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칠월에 죽었다.

####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 29 1 O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 포로가 된 장로들 중 살아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다.
- 2 여고니야 왕과 그의 어머니와 궁중관리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후에,
-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미랴의 손을 통해 전한 것이다.
- 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 포로들에게 이같이 전한다.
- 5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여라.
- 6 아내를 얻어 아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보내며, 너희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낳아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 7 너희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 8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 하게 하고, 너희가 꾸는 꿈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 9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와 말이다.
- 10 O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 1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12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 13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며
- 14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가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15 O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세워 주셨다.' 하므로,
- 16 참으로 여호와와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 17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 중에 갈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 18 내가 갈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고,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놀람과 조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니,
- 19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고 또 보냈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와 말이다.

20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와 말을 들어라.

#### 아함과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

-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함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 앞에서 죽일 것이다.
- 22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빌로니아 왕이 붙여 태운 시드기야와 아함처럼 만드실 것이다.' 할 것이다.
- 23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행위를 아는 자이며 증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스미아에 대한 경고

- 24 O "느헬람 사람 스미아에게 너는 말하여라.
-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 26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아다 대신 너를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와 성전 관리인으로 세우는 것은 선지자 노릇 하는 모든 미친 자들 때문이니, 내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칼을 씌워야 한다.'
- 27 그런데 이제 너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선지자 노릇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 28 그가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멸었으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였다.'
- 29 O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선지자 예레미야의 귀에 읽어 줄 때에
- 30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31 "너는 모든 포로들에게 보내어 말하여라. 여호와와 느헬람 사람 스미아에 대하여 이같이 말한다. 나는 스미아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여 너희가 거짓을 믿게 하였으므로
- 32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미아와 그의 후손을 멸할 것이니, 그에게는 이 백성 가운데서 살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할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스미아가 여호와에게 반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30** 1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2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3 여호와와의 말이다. 보아라, 참으로 그 날이 올 것이니, 내가 내 백성들, 곧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가 그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한다.” 하셨다.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은 이러하다.

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두려움만 있고 평화가 없었다.

6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낳는지 물어 보아라. 모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자기 손을 허리에 짚고 낫빛이 모두 변하여 창백해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일이나? 슬프다. 그 날은

7 큰 날이 될 것이니, 그와 같은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람이 환난을 당하는 때이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8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고, 네 결박들을 끊을 것이니, 다시는 이방인이 너를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며,

9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과, 내가 너를 위해 세울 너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10 그러므로 내 종 아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가 된 땅에서 구할 것이다.

아람이 돌아와 편안히 살며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11 여호와와의 말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홀렸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오직 너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니,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 상처의 치유

12 참으로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네 상처는 치유될 수 없으며,

네 부상은 심각하다.

13 네 송사를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으며,

네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다.

14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모두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인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기 때문이다.

15 네가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네게 이 일들을 하였으니,

네 고통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16 그러나 너를 먹는 모든 자들이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니,

너를 약탈한 자들을 모두

내가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17 여호와와의 말이다.

진실로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네 상처를 치유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 라고 부르며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 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 아람의 회복

18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아람의 장막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내가 그의 거처에

궁핍을 배설 것이니,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성이 건축되고,

궁궐이 제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19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므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므로

그들이 무시당하지 아니 할 것이며,

20 그의 자손들은 이전처럼 되고,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니,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21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로부터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로 다가올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감히 누가 담대하게

내게 가까이 오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다.

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3 보아라,

여호와와 폭풍이 분노 중에 일어나니,

거센 폭풍이

악인의 머리에 휘몰아칠 것이다.

24 여호와와 맹렬한 진노가

그 마음의 계획대로 이를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니,

훗날에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이스라엘의 회복

**31** 1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곧 내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려 할 때이다.”

3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애로 너를 인도하였다.

4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네가 설 것이며,

네가 다시 작은복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5 네가 다시 사디르야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니,

심는 자들이 심어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6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니,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 것이다.”

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아람에게 즐거이 환호하며,

민족들의 머리 된 자에게 환호하고

선포하며 찬양하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여라.

8 보아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으며,

땅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중에는 눈먼 자와

다리를 저는 자와

임신한 여자와

해산하는 여자도 함께 있을 것이니,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9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니,

그들의 간구에 따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으며,

내가 그들을 물 있는 시냇가의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10 민족들아,

여호와와 말을 들어라.

너희는 멀리 있는 섬들에

전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치듯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하여라.

11 이는 여호와와

아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와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들과 소 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물 댄 동산 같을 것이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13 그때에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에서 벗어나 즐겁게 하며,  
14 제사장들의 심령을  
기쁨진 것으로 흡족하게 하고,  
내 백성들을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여호와와 위로

1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리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며 애절하게 우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울며,  
자식들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소리 내어 울지 말고,  
네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네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17 네 장래에 희망이 있으니,  
네 자녀들이  
자기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18 예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므로,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계를 받았습시다.  
주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돌아서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19 참으로 내가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깨달  
은 후 불기를 청습시다.  
이는 내가 젊었을 때의 허물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끄럽고도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20 예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그를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21 너는 너를 위해 이정표를 세우며  
너를 위해 표지판을 세워라.  
큰 길, 곧 네가 전에 걸어갔던  
그 길을 네 마음에 두어라.  
돌아오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22 신실하지 못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돌러쌀 것이다.”

#### 여호와와 복 주신

2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  
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니,  
‘의의 처소,  
거룩한 산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24 유다와 그 모든 성읍들의 농부와 양 떼를 인  
도하는 자들이 거기서 다 함께 살 것이니,  
25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  
든 쇠약해진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26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다.  
27 ○여호와와 말이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  
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28 내가 그들을 지켜 보면서 그들을 뽑고 무너  
뜨리며 파괴하고 멸망시키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지켜 보면서 그들을 세  
우고 심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29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자식들의 이가 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30 신 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시린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 새 언약

31 ○여호와와 말이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내  
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32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던 때에 그들과 맺  
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

려 버렸다. 여호와와 말이다.”

33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  
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  
와와 말이다.”

34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  
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  
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  
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3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으며,  
바다를 뒤덮어  
그 파도가 소리치게 하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36 여호와와 말이다.  
만일 이 규정들이  
내 앞에서 폐기된다면,  
이스라엘의 후손도 끊어져  
내 앞에서 영원히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3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만일 위로 하늘을 깨고,  
밀로 땅의 기초를 조사할 수 있다면  
나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이 행한  
모든 일 때문에  
그들 모두를 버릴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38 ○여호와와 말한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이  
성이 하나넬 땅대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  
기까지 여호와를 위해 건축될 것이다.”

39 측량줄이 기원 언덕까지 똑바로 뻗어나가서  
고아 방향으로 꺾일 것이며,

40 시체들과 잿더미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골  
짜기에서 동쪽 말 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이 다 여호와와 것으로 거룩하게 되  
어,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아  
니할 것이다.”

#### 아나돗의 발을 산 예레미야

32 1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십년, 곧 느부  
갓네살 통치 십팔 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2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궁에 있는 경비대 뜰에 갇혀 있었다.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어 놓고 말하  
기를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예언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  
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그가 성을 점령할 것이다.’”

4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손  
에 넘겨질 것이니, 입과 입을 마주하여 말하  
고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5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  
니, 내가 시드기야를 돌아볼 때까지 그가 거  
기서 머물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너  
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6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  
게 임하였다.”

7 보아라, 내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넬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유업을 무를 권리가 내게 있다.’ 할 것이다.”

8 여호와와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 하나넬이  
경비대 뜰로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베냐  
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상  
속하고 무를 권리가 내게 있고, 내가 사라.’  
하였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9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넬에게서 아나돗  
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십칠 세겔을 지  
불하였다.

10 그때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며 증인들을  
세우고, 저울에 은을 달아 주며,

11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된 매매 증서와 봉인  
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받았다.

12 그 매매 증서를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넬과  
경비대 뜰에 앉은 모든 유다 사람들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 앞에서 마세야의 손자  
이고,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며,

13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했다.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  
져다가 질그릇에 넣어 오랫동안 보존하여  
라.’”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  
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  
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하셨다.”

16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준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17 “오, 나의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퍼신 팔로 하늘  
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주께는 불가능한 일  
이 없습니다.”

18 주께서는 천만인에게 사랑을 베푸시나, 아버  
지의 죄악을 반드시 후손의 품에 갇으시는 위  
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니시니, 그 이름이 만

- 군의 여호와와입니다.
- 19 주께서는 그 계획이 위대하시고 이를 실행하시는 데도 능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을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갚으십니다.
- 20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인간들에게 표적들과 기적들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알리셨습니다.
- 21 주께서는 표적들과 기적들과 강한 손과 퍼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시고,
- 22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 23 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 24 보소서,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 경사가로가 이 성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성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갈대아인의 손에 공격을 당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 25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너는 돈을 주고 밭을 사고, 증인을 세워라.' 말씀하셨으나,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 26 ○이때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7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 28 그러므로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 29 이 성을 치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그 지붕에서 비탈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붓는 제사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하였던 그 집들도 함께 태울 것이다.
- 30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릴 때부터 내 앞에서 악한 일만 행할 뿐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31 참으로 이 성이 세워진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진노와 분노만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 32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 그러하였다.

- 33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으나,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였고,
- 34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두어 그 집을 더럽혔으며,
- 35 한놈의 아들 골짜기에 비알의 산당을 짓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락에게 바쳤다. 그들이 이 역겨운 것을 행하여 유다가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며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 36 ○그러나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졌다고 말하는 이 성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 37 보아라,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와 큰 노여움 속에 쫓아내었던 그들을 모두 다시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 38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될 것이다.
- 3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니, 그들과 그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할 것이다.
- 40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 41 나는 그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니, 내가 진실로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 42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 43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는 황폐하여 사람과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니,
- 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성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쉼엘라의 성읍들과 네게브의 성읍들에서 돈을 주고 밭을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 33 1 ○예레미야가 아직 경배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
- 2 "땅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

- 한다.
- 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알려 주겠다.
- 4 공격 경사로와 칼 때문에 무너진 이 성읍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 5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왔으나, 나는 내 분노와 격노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의 모든 악 때문에 이 성읍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회복시키며 치료하여 낫게 하고, 그들에게 평화와 진리를 풍성히 베풀 것이다.
- 7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며,
- 8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나를 기억하여 내게 범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할 것이다.
- 9 이 성읍이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관해 듣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 10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폐허가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는 이곳,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니,
- 11 곧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여호와와의 집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며
-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그 인애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말하는 소리이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처럼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12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폐허가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조차 없는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양 떼를 쉬게 할 목자들의 거처가 다시 생길 것이다.
- 13 산지의 성읍들과 쉼엘라의 성읍들과 네게브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갈 것이다. 여호와와 말한다.
- 14 ○여호와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 날이 올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약속했던 복된 말을 이룰 것이다.
- 15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 16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사는 곳이 될 것이니, 그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 라고 불릴 것이다.
- 17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18 내 앞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고, 곡식 제물을 태워 드리며, 희생 제사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19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0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밤낮이 제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 21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져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그에게서 없어질 수 있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2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 23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4 "너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경멸하므로 다시는 그들을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5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만일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없었고, 내가 천지의 규정을 세우지 않았다면,
- 26 내가 아홉과 내 종 다윗의 자손도 버리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들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 시드기야의 종말

- 34 1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에 속한 모든 성읍과 싸우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 2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하여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 성을 불로 태울 것이다.
- 3 너는 그의 손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반드시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바빌로니아 왕과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보고, 입과 입을 마주하여 말하게 될 것이며 바빌로니아로 갈 것이다.



- 4 유다 왕 시디기야야,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한다. 네가 칼에 죽지 않고  
5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들은 너보다 앞서 있었던 선왕들 곧 네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같이 네게 분향하면서 '슬롭니다, 주여.' 하고 너를 위해 슬피 울 것이다. 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다."  
6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왕 시디기야에게 전하였다.  
7 그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남이 있던 유다의 모든 성읍들, 즉 라기스와 아세가에서 싸웠는데, 유다의 성들 중에서 견고한 이 성읍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 노비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

- 8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언약을 그들과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9 그 언약은 각 사람이 자기의 히브리인 남종과 여종을 놓아 자유롭게 하여, 누구든지 자기 형제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10 이 언약에 참여한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을 듣고 순종하여 종들을 놓아 주었으나,  
11 그 후에 그들이 자유롭게 놓아 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강제로 다시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으므로  
12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13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중노릇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14 '칠년이 되면 너희는 각각 네게 팔려온 히브리인 형제를 놓아 주어라. 그가 너를 육년 동안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15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보기에 바르게 행하여, 각기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16 너희가 뒤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자의 소원대로 자유롭게 놓아 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강제로 너희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다.  
17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너희를 칼과 전염병

- 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 때문에 모든 왕국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18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날 때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어진 사람들을 내가 내어줄 것이니,  
19 곧 조간난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궁중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라.  
20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 또 내가 유다 왕 시디기야와 그의 고관들을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로부터 떠나간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22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명령하여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 것이다."

#### 레갑 자손의 순종

- 35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2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3 이에 내가 히브리인의 손자이고,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사사나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의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4 여호와와 성전으로 가서, 이집트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인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고 고관들의 방 옆에 있었다.  
5 내가 레갑의 집안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대접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자  
6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는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 9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아니하였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10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며 행하였다.  
11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이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여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12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1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훈계를 받고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이다.  
14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말들은 시행되었나. 그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속하여 말하였음에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 하였다.  
15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계속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를 선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다.  
16 참으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시행하였으나, 이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7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레갑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

- 18 ○예레미야가 레갑 집 사람들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였다.  
1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 바룩이 기록한 첫 번째 두루마리

- 36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 이 말씀이 임하였다.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에 대해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여라.  
3 혹시 유다 집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모든 재앙들에 대해 듣고서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할 것이다."  
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고 바룩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 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간척 있으므로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6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입으로 불러 준 대로 네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와 말씀들을 금식일에 여호와와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해 주고, 여러 성읍들에서 찾아온 모든 유다 사람의 귀에도 낭독해 주어라.  
7 그러면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진노와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8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여, 여호와와 성전에서 책에 기록된 여호와와 말씀들을 낭독하였다.  
9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오년 구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  
10 바룩이 여호와와 성전, 곧 여호와와 집 '새문' 입구의 위 뜰에 있는,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모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11 ○사반의 손자이고,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와 말씀을 다 듣고  
12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내려가서 보니, 모든 고관들 즉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리아와 악블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라와 하나님의 아들 시디기야와 다른 모든 고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13 미가야가 바룩이 그 책을 백성들의 귀에 낭독할 때 들었던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니,  
14 이에 모든 고관들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가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하므로,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 갔다.
- 15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앉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낭독하여라.” 하니,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해 주었다.
- 16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서로 바라보다가 바룩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말을 반드시 왕께 고하여야 한다.” 하고
- 17 바룩에게 물었다. “그가 입으로 불러 준 이 모든 말을 내가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해 다오.”
- 18 이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제게 이 모든 말씀을 입으로 불러 주었으므로, 제가 먹물로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니,
- 19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 두루마리를 태운 여호야김

- 20 ○그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정원에 있는 왕에게 가서 왕의 귀에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 오게 하니, 그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였다.
- 22 그때는 구월이라서 왕이 겨울 궁에 머물고 있었으며, 불 피운 화로가 왕 앞에 놓여 있었다.
- 23 여후디가 서너 쪽을 읽을 때마다, 왕이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잘라서 화로에 있는 불에 던졌으므로, 그 두루마리가 모두 화로의 불에 타 버렸다.
- 24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거나 하지 않고
- 25 또한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으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 26 왕이 왕자 여라뮈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리아와 입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 바룩이 기록한 두 번째 두루마리

- 27 ○왕이 두루마리와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 준 대로 바룩이 기록한 말씀들을 태워 버린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 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하여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 29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바빌로니아 왕이 반드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했느냐고 하였다.

- 30 그러므로 여호와와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같이 전한다.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없을 것이며, 그의 시체는 버려져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당할 것이다.
- 31 또 내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을 벌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 32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하여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더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 주는 대로 거기에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들을 그 위에 많이 더하였다.

#### 왕이 된 시드기야

- 37 1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 3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사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였다.
- 4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이 때, 백성 가운데서 왕래하고 있었다.
- 5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정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 6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7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내어 물어보게 한 유다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를 돕기 위해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고,
- 8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 9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는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0 만일 너희가 너희와 싸우는 갈대아 사람의 모

든 군대를 쳐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들만 남게 된다고 해도, 그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태울 것이다.”

#### 토굴에 갇힌 예레미야

- 11 ○갈대아 사람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 12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냐민 땅으로 가, 거기 백성 중에서 자기 분깃을 받으려 하였다.
- 13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자이고, 셀레마의 아들이며 이름이 이리야인 수문장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당신은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려는 것이오.” 하니,
- 14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거짓말이요, 나는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요.” 하였으나, 이리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데려가자,
- 15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면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옥에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6 ○예레미야가 토굴 감옥 좁은 방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힌 후에,
- 17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꺼내고 왕이 자기 궁에서 은밀히 그에게 물기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말하였다.
- 18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 19 바빌로니아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께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 20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이시여, 부디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원을 받아 주시고,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어 내가 거기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 21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경비대 뜰에 맡겨 두고, 성에서 빵이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빵 하나씩 그에게 주게 하니, 예레미야가 경비대 뜰에 머물게 되었다.

#### 진창에 던져진 예레미야

- 38 1 ○맛단의 아들 스바디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었다.
- 2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 성에 머무는 자

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갈대아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 것이니, 그는 자기 목숨을 노획물처럼 얻어 살게 될 것이다.

- 3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 성이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 그가 성을 점령할 것이다.”
- 4 이에 고관들이 왕께 말하기를 “이 사람을 꼭 죽이십시오. 그가 백성에게 이런 말들을 하여 이 성에 남아 싸우고 있는 사람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또 이 사람은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앙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니,
- 5 시드기야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왕은 너희를 거스르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였다.
- 6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경비대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구덩이에 넣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밭줄에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단지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에 빠졌다.

#### 예레미야를 구한 에벳멜렉

- 7 ○왕궁에 있는 환관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는데,
- 8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에게 한 일들이 전부 악합니다. 이제 성읍에 빵이 없으니, 그가 저 밑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므로
- 10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직접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라.” 하였으므로
- 11 에벳멜렉이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 밑으로 가서, 형견과 낡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줄에 달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 보았다.
- 12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형견과 낡은 옷들을 당신의 겨드랑이 아래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십시오.” 하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였고,
- 13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들어올려 구덩이에서 끌어내니, 예레미야가 경비대 뜰에 머물렀다.

####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비밀 대화

- 14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와 성전 뜰에 보내어 있는 자에게로 데려오게 하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볼 것이니,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마라.” 하였다.
- 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제가 왕



- 께 알려준다 하더라도 결코 저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왕께 권한다 하더라도 왕께서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니,
- 16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기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거나 너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 17 ○이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참으로 항복하면, 네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이 도시가 불타지 않을 것이고 너와 네 집이 살아 남게 될 것이다.
- 18 그러나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성읍을 불태울 것이며, 내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이 두렵다.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하지 않겠느냐?” 하니,
- 20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들이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께 전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부디 들으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잘되고 목숨을 구하실 것입니다.
- 21 그러나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보여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 22 ‘보아라,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네 가까운 친구들이  
너를 피어내며  
네 말이 진창에 빠지는 것을 보고  
떠나가 버렸다.’  
라고 할 것이다.
- 23 네 아내들과 자녀는 모두 갈대아인에게 끌려갈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힐 것이며 이 성은 불타 버릴 것이다.”
- 24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아무도 이 말을 알지 못하는 하이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 25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한 사실을 듣게 되면, 그들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도 알리고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할 것이니,
- 26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저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어, 거기서 죽지 않게

- 하여 주시기를 왕께 간청하였다.’ 라고 하여라.”
- 27 그 후에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에게 물으므로, 그가 왕이 명령한 이 모든 말대로 그들에게 일러주어 그 일이 탄로나지 않았고 그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 28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비대 뜰에서 머물렀다.

#### 예루살렘의 함락 (왕하 25:1-2, 렬 52:4-16)

- 39 1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구년 시월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포위했고,
- 2 시드기야 통치 십일 년 사월 구일에 그 성벽이 뚫렸다.
- 3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고관이 와서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갓사세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 점술장관인 네르갓사세셀과 바빌로니아 왕의 나머지 고관들이었다.
- 4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여 밤에 왕의 정원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 아라바 길로 나아갔다.
- 5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여기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고, 그를 붙잡아 히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데려오니, 왕이 시드기야를 심문하였다.
- 6 바빌로니아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으며,
- 7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 8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 9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은 그 성에 남아 있는 나머지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아갔고
- 10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을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유다 땅에 남겨 두었으며,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

#### 예레미야의 석방

- 11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에게 예레미야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였다.
- 12 “그를 데려다가 보살피 주어라. 조금이라도 해치지 말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 13 이에 경호대장 느부사리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점술장관 네르갓사세셀과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장관이

- 14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경비대 뜰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이고,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라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니, 그가 백성과 함께 살게 되었다.
- 15 ○예레미야가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 16 “너는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레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내 말을 이룰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 일이 네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 17 그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호와와 말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니,
- 18 이는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므로,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네 목숨을 노획물처럼 얻을 것이니,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그달라에게 간 예레미야

- 40 1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던 중 예레미야도 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다가 라미에서 예레미야를 놓아 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 2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말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 3 여호와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셨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죄를지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 4 이제 보아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주겠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가자. 내가 너를 보살피 주겠다.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면, 그만두어라. 보아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 5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 하지 않자, 그가 다시 말하기를, “너는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성읍들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사반의 손자이고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든지 혹은 내가 좋다고 여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니,
- 6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았다.
- 7 ○들에 있던 모든 군대 장군들과 그들의 부하

- 들이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를 임명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남녀와 아이들과 그 땅의 빈민들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 8 그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라에게 나아가니,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래아의 두 아들 요한,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라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 9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에게 맹세하였다. “당신들은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이 잘될 것입니다.
- 10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겠으니, 당신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당신들의 그릇에 저장하고, 당신들이 차지한 성읍들에 거하십시오.”
- 11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다른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를 그들 위에 세웠다는 말을 듣고,
- 12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곳으로부터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있는 그달라에게 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매우 많이 모았다.
- 13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들에 있던 모든 군대 장군들이 미스바의 그달라에게 와서
- 14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확실하십니까?” 하였으니,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가 그들을 믿지 않았다.
- 15 가래아의 아들 요한이 미스바에서 그달라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내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아 하여 당신에게 모인 유다인들이 모두 다시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하도록 하겠습니까?” 하였으니,
- 16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가 가래아의 아들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 살해된 그달라

- 41 1 ○일곱째 달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이고 느다냐의 아들이며,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열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가서 거기 미스바에서 함께 빵을 먹다가,

- 2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를 칼로 죽였고,
- 3 또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달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쳐서 죽였다.
- 4 O 그가 그달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 5 마침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팔십 명의 사람들이 곡식 채물과 우향을 가져 와서 여호와와 성전에 드리려 하니,
- 6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면서 계속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말하기를,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가자." 하였다.
- 7 그들이 성 가운데 이르렀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 안에 던졌다.
- 8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던 열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밭에 감춰 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마라." 하므로 그가 멈추고 그들을 그 형제들과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다.
- 9 O 이스마엘이 그달라의 편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놓았는데, 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거기에 죽은 시체들로 채우고
- 10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있던 모든 남은 백성들 즉 왕의 딸들과,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맡긴, 미스바에 남은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넘어가려고 떠났다.
- 11 O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장군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 12 부하를 모두 이끌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에 있는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니,
- 13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은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장군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 14 이에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사로잡아 끌고 가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서서 가래아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 15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갔다.
- 16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장군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를 죽인 후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들, 곧 기브온에서 되찾은 군사와 여자와 아이와 환관을 데리고

17 이집트로 들어가기 위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토김함에 가서 머물렀다.

18 이는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한 백성

- 42 1 O 모든 장군들과,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나아와
- 2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부디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와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수 가운데서 조금만 남았으니,
- 3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 4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보아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너희 말대로 기도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 주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
- 5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시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 6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여호와의 경고

- 7 O 열흘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8 예레미야가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장군과,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부르고
- 9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보내 너희 간구를 그 앞에 드리게 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 10 만일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마음 아파하기 때문이다.
- 11 너희는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로니아

-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 12 내가 너희에게 공물을 베풀 것이니,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 13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 14 전경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양식으로 굶주리지도 않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거기 살겠다고 말한다면,
- 15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말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고 고집한다면,
- 16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거기 이집트 땅까지 이르러 너희에게 미치고, 너희가 걱정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도 너희 뒤에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 17 그러므로 이집트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 18 O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 진노와 분노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는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질 것이니, 너희는 욕설과 놀람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어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할 것이다."
- 19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가지 마라.' 하였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라.
- 20 너희가 나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21 하지만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신 모든 것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렸으니,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
- 22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가서 거기 머물기를 원하는 그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 이집트로 끌려간 예레미야

- 43 1 O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전한

-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 2 그때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모든 거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머물지 마라.'고 말하도록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 3 이는 네리아의 아들 비록이 당신을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 4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모든 장군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라는 여호와와 음성을 따르지 않았다.
- 5 가래아의 아들 요한과 모든 장군들이 쫓겨났던 나라들로부터 유다 땅에 머물기 위해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 자,
- 6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공주들과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사반의 손자이고,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라에게 맡긴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비록을 데리고
- 7 이집트 땅에 들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비네스까지 가게 되었다.
- 8 O 다비네스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9 "너는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의 눈 앞에서 다비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 벽돌 깔린 곳 진흙 속에 감추고
- 10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와서 내가 감춘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가 그것들 위에 왕의 장막을 펼칠 것이다.'
- 11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니, 죽을 자는 죽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가 되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 12 또 내가 이집트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이니,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르듯 그가 이집트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나서 그곳을 평안히 떠날 것이며,
- 13 또 그가 이집트 땅 벡시메스의 기둥우상들을 깨뜨리고, 이집트 신들의 집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 이집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 44 1 O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민족들과 다비네스와 멤피스와 바드로스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다. 보아라, 그것들이 오늘날 황무지가 되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 3 이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너희나 혹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분향하고 섬기면서 나를 노하게 만든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 4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계속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역겨운 일을 행하지 마라.’ 하였으니.
- 5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 6 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져 유다의 성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태웠으니, 그것들이 오늘 날처럼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 7 이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를 멸절시켜 너희에게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 8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행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키며, 너희가 머물려고 온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고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려 하느냐?
- 9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 자신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잊었느냐?
- 10 그들이 오늘날까지 뉘우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둔 내 율법과 내 규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
- 11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려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 12 또 이집트 땅에 와서 여기 머무르기로 고집했던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잡을 것이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모두 멸망하여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죽어 옥설과 놀람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 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
- 14 이집트 땅으로 와 이곳에 사는 유다의 남은 자

들 중에는 결코 살아남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도피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러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 곁에서 있는 모든 여자들, 곧 이집트 땅 바르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

16 “당신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 준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17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대로 행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대로 하는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에게 붓는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그 때에는 우리가 양식이 풍부하고 복을 누렸으며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까.

18 하지만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에게 붓는 제사를 그만두었을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궁핍하며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19 또 여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붓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하늘 여왕을 위해 그것을 닦은 과자를 만들고 그에게 붓는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였다.

20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 곧 자기에게 것처럼 대답한 남자와 여자와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21 “너희 조상들과 왕들과 고관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태운 향을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마음에 떠올리시지 않겠느냐?

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한 행위와 역겨운 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와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었으니.

23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증거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날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24 ○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대답하라.”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한 것을 너희 손으로 실천하려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에게 붓는 제사를 드렸다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였으니, 너희는 그 서원을 받

시 지키고 너희 서원을 반드시 실천하여라.’

26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와 이름을 들어라.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자기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유다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27 보아라, 내가 그들이 복이 아니라 재앙을 받도록 그들을 지켜 볼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으로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

28 단지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이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모두 내 말과 그들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성취되는지 알 것이다.

29 여호와와 이름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징표가 될 것이니, 곧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여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한 나의 말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30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원수, 곧 그의 목숨을 찾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같이,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 곧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 바룩에 대한 위로의 말

45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 통치 사년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 주는 대로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2 “바룩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3 내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으로 기진하고 심을 얻지 못한다.’ 하였다.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기도 하니, 온 땅에서 그러할 것이다.

5 내가 너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으나 그것을 찾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와 이름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목숨을 노획물처럼 네게 줄 것이다.’”

#### 이집트에 대한 심판

46 1 ○여러 민족들을 향해 주시는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2 ○이는 이집트에 관한 말씀으로,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사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3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4 기마병들이여, 말에 안장을 얹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사라, 창을 잡고 갑옷을 입어라.

5 어찌하여 그들이 놀라 후퇴하고 그들의 용사들도 패하여 도망하며,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내가 보지 되었느냐?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여호와와 이름이다.

6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한 자도 피하지 못하니, 그들이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넘어지며 쓰러진다.

7 저 니일 강처럼 흘러넘치며 강물처럼 출렁이는 자가 누구냐? 이집트가 니일 강처럼 흘러넘치며 강물처럼 출렁인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땅을 덮으며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한다.

9 말들이 달려라. 병기들이 돌격하여라. 용사들이 전진하여라. 에티오피아 사람과

봇 사람은 방패를 잡고, 루딤 사람은 활시위를 당기며 전진하여라.

10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의 날이니, 그분의 대적들에게 보복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르며 그들의 피를 가득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11 처녀, 이집트의 딸아, 길르앗으로 올라가 영향을 가져와라. 네가 많은 악을 써도 헛될 것이며

12 민족들이

- 네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들었고,  
네 울부짖는 소리가 땅에 가득하니,  
이는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넘어지고,  
그들이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 13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  
을 칠 일에 관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에게 하신 말씀이다.
- 14 “너희는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둘에서 공포하며,  
멤피스와 다비네스에서 공포하여  
말하기를  
‘너는 곧게 서서 준비하여라.  
이는 칼이 네 사방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 15 여찌하여 네 장사들이 거꾸러지느냐? 그  
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들을  
밀어뜨렸기 때문이다.
- 16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니,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백성,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며,
- 17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바로는 큰소리치니  
그가 기회를 놓쳤다.’ 라고 할 것이다.
- 18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  
나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한다.  
다불이 산들 가운데 있는 것같이,  
갈멜이 해변에 있는 것같이  
그가 반드시 올 것이다.
- 19 딸 이집트의 주민아,  
너는 포로 될 때  
가져갈 짐을 꾸려라.  
멤피스는 폐허가 되고 불에 타서  
아무도 거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 20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하더라도  
북쪽에서 쇠파리가 오고 또 온다.
- 21 심지어 그 중에 있는 용병들도  
외양간의 송아지와 같아서,  
그들도 버티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다 도망할 것이니,  
재난의 날.  
곧 형벌받을 때가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 22 이집트가 뱀처럼  
소리 내며 달아날 것이니,  
이는 적군이 몰려오며  
벌목하는 자들처럼  
도끼를 들고 오기 때문이다.
- 23 여호와와 말이다.  
비록 이집트의 숲이 뿔뿔하고,  
그 수가 매뚜기보다 많으며  
헤아릴 수 없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찍어 낼 것이다.
- 24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하  
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아몬과, 바로와 이집  
트와 이집트의 신들과 왕들과, 바로뿐만 아니  
라 그를 의지하는 자들까지도 멸할 것이다.
- 26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  
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후에야 이집  
트에 이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여호  
와의 말이다.”

####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 27 “그러나 내 종 아람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네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니,  
아람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 28 여호와와 말이다.  
내 종 아람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더라도  
너는 멸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를 공로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 블레셋에 대한 심판

- 47 1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  
들에 대하여 하신 여호와와 말씀이 선  
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아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되어  
평과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읍과 그 주민을 덮칠 것이니,

-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 3 힘센 말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의  
요란한 소리 때문에  
아비들은 손에 땀이 흘러  
자식들을 돌보지 못할 것이니,
- 4 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진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마저도  
모두 끊어 버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 5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 남은 골짜기가  
파멸되었으니,  
언제까지 네가 네 몸을 베겠느냐?  
‘오, 여호와와 칼아,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 잠잠히 있어라.’
- 6 여호와와 칼에게 명령하였으니,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도록  
여호와와가 지시한 것이다.”

#### 모압에 대한 심판

- 48 1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  
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느보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곳이 황폐하게 되었다.  
기라다임이 점령되어  
수치를 당하였으며,  
미스갑이 파괴되어  
수치를 당하였으니,
- 2 이제 모압의 영화가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여  
모압에 대해 악한 일을 도모하며  
‘오너라, 우리가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한다.  
맛넌아,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니,  
칼이 네 뒤통을 찌를 것이다.
- 3 호로니임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니, 황폐  
와 큰 파멸이 있다.
- 4 모압이 파멸당하니,  
그 어린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 5 그들이 루히의 오르막길을  
울고 울며 올라가고,  
또한 호로니임의 내리막길에서

-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들린다.
- 6 너희는 도망하여  
너희 목숨을 건져라.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되어라.
- 7 네가 네 업적과 보물들을 의지하므로 너  
또한 사로잡힐 것이며,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 8 파멸시키는 자가  
모든 성읍마다 이를 것이니,  
한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무너지고  
평지가 파괴될 것이니,  
여호와와의 말과 같을 것이다.
- 9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도망하게 하여라.  
그 성들이 황폐하여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 10 ○여호와와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  
으며, 자기 칼을 쓰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  
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1 모압은 어릴 때부터 평안하였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찌꺼기 위에 맑게 뜬 포도주처럼  
가만히 있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므로  
그 맛이 그대로 있으며  
그 향기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 12 ○여호와와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  
이 오면 내가 그에게 그 술 항아리들을 기울  
일 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기울여 비우고 그  
병들을 부수게 할 것이니.
- 13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하므로 수치를 당  
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 14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용사이고  
전쟁의 용감한 병사들이다.’  
말하겠느냐?
- 15 모압이 황폐하게 되며  
그 성읍들이 침략을 당하고,  
모압에서 뿔뿔한 청년들이 내려가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 16 모압의 패망이 가까이 왔고,  
그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다.
- 17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아,  
그를 위해 슬퍼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 강한 지팡이,  
영화로운 막대기가 부러졌는가?’  
하리라.

- 18 디본 딸의 주민아,  
네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곳에 앉아라.  
모압을 파멸시키는 자가 올라와서  
네 요새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 19 아로엘의 주민들아,  
너는 길에 서서 지켜 보고  
도망하며 피신하는 남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 보아라.
- 20 모압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니,  
너희는 슬피 울고 부르짖으며,  
아르논에 가서  
모압이 파멸하였다고 알려라.
- 21 ○심판이 평지에 닦였으니, 곧 홀론과 아사와  
메바앗과
- 22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23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트온과  
24 그라옷과 보스라와 원근에 있는 모압 땅의 모  
든 성읍들에 닦졌다.
- 25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여  
호와의 말이다.
- 26 ○너희는 모압을 취하게 만들어라. 그가 여호  
와를 거스르고 자만하였다. 모압이 자기의 토  
한 것 위에 텅굴므로 그가 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 27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스라엘이 도독질하다가 발각되었느냐? 네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든다.
- 28 모압의 주민들아,  
너희는 성을 떠나  
바위틈에서 살아라.  
깊은 골짜기 어귀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같이 되어서라.
- 29 우리가 모압의 교만에 대해 들었다.  
그는 심히 교만하니,  
그의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마음의 거만함이다.
- 30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무례함을 아니,  
그의 자랑도 거짓이며  
행위도 거짓이다.
-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며  
모압의 모든 사람을 위해  
부르짖으며,  
길헤레스 사람들 때문에

- 슬퍼할 것이다.
- 32 심마의 포도나무야,  
내가 아셀을 위해 우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 울 것이다.  
네 텅굴이 바다를 넘어  
아셀의 바다까지 뻗었더니,  
파괴자가 네 여름 과일들과  
포도 수확물 위에 덮었다.
- 33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사라져 버렸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그치게 하였으니,  
환호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환호는  
기쁨의 환호가 되지 못할 것이다.
- 34 ○헤스본의 외침이 엘르일레를 지나 아하스  
까지 이르고,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  
글랏셀리시아까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이  
어지니, 이는 니르밧의 물조차 말랐기 때문  
이다.
- 35 여호와의 말이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모압에서 내가 끊을  
것이다.
- 36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처럼 슬  
픈 소리를 내며, 또 내 마음이 길헤레스의 사  
람들을 위해 피리처럼 슬픈 소리를 내니, 이  
는 그가 모았던 재산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다.
- 37 ○모든 사람이 머리털을 밀며 수염을 깎고 손  
을 베며 허리에 굵은 베를 둘렀고,  
38 모압의 모든 지붕 위와 모든 광장에 통곡 소  
리가 있으니, 이는 내가 모압을 아무도 좋아  
하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  
호와의 말이다.
- 39 어찌하여 이렇게 부서졌는가. 그들이 통곡한  
다. 어찌하여 모압이 등을 돌리고 수치를 당  
하는가. 모압이 사방의 모든 자에게 조롱거리  
와 두려움이 되었다.
- 40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 위에 자기 날개를 펼칠 것이다.
- 41 성읍들이 점령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니,  
그 날에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의 마음 같을 것이다.
- 42 모압이 멸망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거스려  
스스로 높였기 때문이다.
- 43 모압의 주민아,

- 두려움과 함정과 올라미가  
네 위에 있다.  
여호와와 말이다.
- 44 무서워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니,  
이는 내가 모압에게 형벌의 해가  
오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45 도망하던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속에 쉰다 하여도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길기 시온에서 나와,  
모압의 이마와  
소란스러운 자들의 정수리를  
불사를 것이다.
- 46 모압아, 네게 화가 있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다.  
네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네 딸들이 포로가 되었다.
- 47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와 말이다.”  
여기까지가 모압에 대한 심판이다.

#### 암몬 자손들에 대한 심판

- 49 1 ○암몬 자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 이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밀골이 그들을 차지하고  
그 백성이 그 성들에 사느냐?
- 2 그러므로 보아라,  
여호와와 말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니,  
내가 암몬 자손이 사는 랍바에서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할 것이다.  
그곳은 폐허의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기를 소유했던 자들을  
소유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한다.
- 3 헤스본아,  
슬피 울어라.  
아이가 황폐해졌다.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어라.  
굵은 베를 걸치고 애통하며

- 담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라.  
이는 ”밀골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이다.
- 4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너는 네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재물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느냐?’ 하느냐?
- 5 만군의 주 여호와와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네 사방 모든 곳에서  
두려움이 네게 닥치게 할 것이니,  
너희 각 사람이 흩어질 것이며,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 6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포로들  
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에돔에 대한 재앙

- 7 에돔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에돔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자들에게서  
조언이 끊어지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 8 드단의 주민들아,  
돌아서서 도망하고 깊이 숨어라.  
이는 내가 그를 벌할 때에  
에서의 제난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 9 만일 포도를 거두어 가는 자들이  
네게 온다고 하여도  
그들이 열매를  
조금은 남겨놓지 않겠으며,  
도둑들이 밤에 들더라도  
원하는 것들만 가져가지 않겠느냐?
- 10 그러나 나는 에서를 말갯빛이고  
그의 피신처를 드러내어  
숨을 수 없게 할 것이다.  
그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다 멸망하고  
그도 없어질 것이다.
- 11 네 고아들을 남겨 두어서라.  
내가 그들은 살릴 것이며  
네 과부들도 나를 의지할 것이다.
- 12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그 잔을  
마시도록 선고받지 않은 자들도 만드시 마시  
야 하는데, 네가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네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만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1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스라가 놀라움과 모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가 되며, 그 모든 성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14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으니, 민족들에게 한 사신을 보내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여서 그곳을 치러 오너라. 일어나서 싸워라.

15 보아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고 사람들 중에서 멸시당하게 하였다.

16 바위틈에서 살며 언덕 높은 곳을 차지한 자들아, 네 두려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등지를 틀었는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17 ○에돔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놀라며 그의 모든 재난 때문에 비웃을 것이다.

18 여호와가 말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아무도 거기 살지 않고 그 안에 사람이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19 보아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늘 푸른 초장으로 올라가듯 내가 갑자기 그들을 거기서 도망하게 하고 내가 선택한 자를 그곳에 세울 것이니, 나와 같은 이가 누구이며 나를 소환할 자가 누구이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20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데만의 주민에 대한 여호와의 뜻을 들어라. 그들이 반드시 양 떼의 새끼조차 끌어갈 것이며, 여호와가 반드시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겠으니,

21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도 들릴 것이다.

22 보아라, 그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날며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펼칠 것이니, 그 날에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의 마음 같을 것이다.”

#### 다마스쿠스에 대한 재앙

23 다마스쿠스에 대한 말씀이다. “히맛과 아르밋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 공포의 바다 가운데 떠돌고 있으므로,

진정할 수가 없다.

24 다마스쿠스가 무기력하여 돌아서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붙잡고 환난과 고통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25 한때 찬송의 성읍, 내 즐거움의 도시였을지라도 어찌 버림받지 않겠느냐?

26 그러므로 그곳의 청년들이 광장에서 쓰러지고 모든 병사들이 그 날에 전멸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27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 게달과 하술에 대한 재앙

28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술의 왕국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의 자손을 멸망시켜라.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과 양 떼를 취하고

29 자기들의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들을 가져가면서, 서로에게 ‘사방에 두려움뿐이다.’라고 외칠 것이다.

30 여호와와 말이다. 하술 주민아, 도망하여라.

멀리 가서 깊이 숨어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치려고 계획하였으며, 너희를 치려고 결심하였다.

31 여호와와 말이다. 너희는 일어나 평안하고 근심 없이 사는 민족에게 올라가라.

그들은 문이나 빗장도 없이 홀로 살고 있다.

32 그들의 낙타들은 전리품이 되고, 많은 기축이 약탈될 것이다. 내가 옆 머리카락을 깎은 자들을

바람 부는 대로 흩으며, 사방에서 재난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33 하술은 이리의 소굴이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니,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않고 그 안에 사람이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다.”

#### 엘람에 대한 재앙

34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와 말씀이다.

35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엘람의 가장 강한 무기인 그들의 활을 꺾겠다.

36 내가 하늘의 사방에서 엘람을 향해 사방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을 바람이 부는 대로 흩어,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37 내가 엘람이 그들의 대적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낙담하게 하고, 그들에게 재앙, 곧 나의 진노를 내리며,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을 뒤따르게 하겠다. 여호와와 말이다.

38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놓고 거기서 왕과 고관들을 진멸하겠다. 여호와와 말이다.

39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와 말이다.”

####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

50 1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갈대아인의 땅 바빌로니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2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듣게 하여라. 선발을 세워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빌로니아가 함락되었으며 벨이 수치를 당하고

3 그로닥이 파괴되며,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파괴되었다.

4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에게 올라와 그의 땅을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고 사람이나 짐승이 도망하여 떠나갈 것이다.

5 ○여호와와 말이다. 그날 그때에 그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울며 걸어오면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6 그들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곳으로 돌리며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할 것이다.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이다.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을 헤매며,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다가 자기들의 실 곳을 잊었다.

7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의 기초이며 자기 조상들의 소망인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나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할 것이다.

8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도망하여라. 갈대아인들의 땅에서 나와 양 떼 앞에 가는 솜염소 같이 되어라.

9 보아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연합군을 일으켜 바빌로니아를 치러 올라오게 하겠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함락시킬 것이니, 그들의 화살은 능숙한 용사와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0 갈대아가 약탈을 당하고, 그를 약탈하는 자들은 모두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11 내 산업을 약탈하는 자들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탈곡하는 송아지같이 뛰고 힘센 말같이 운다.

12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그게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여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그가 열방 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이며 광야와 건조한 땅과 사막이 될 것이다.

13 여호와와 분노로 인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완전한 폐허가 되고,

바빌로니아를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놀라며 그의 모든 재난 때문에 비웃을 것이다.

14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포위하여 진을 쳐라. 활을 잡은 모든 자들아, 그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5 사면에서 그에게 함성을 질러라. 그가 항복하고

그 기초가 무너지며 성벽들이 파괴되었으니,



- 이는 여호와가 복수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 16 너희는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빌로니아에서 끊어 버려라.  
사람들이 그 잡세의 칼 앞에서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자기 땅으로 도망할 것이다.
- 17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진 양이니, 사자들  
이 그를 쫓는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  
를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이 그의 뼈를 꺾었다.
- 18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  
을 벌한 것같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땅을 벌  
하고,
- 19 이스라엘을 자기의 초장으로 돌아오게 하겠  
으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  
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만족할 것이다.
- 20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 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며,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니, 이  
는 내가 남긴 자를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  
이다.
- 21 너는 므르다임 땅으로 올라가  
그 땅과 브곳의 주민들을 치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  
완전히 멸망시켜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라.
- 22 그 땅에 전쟁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 23 어찌하여 온 땅을 치던  
망치가 쪼개져 부서졌는가?  
어찌하여 바빌로니아가  
열방 중에서 폐허가 되었는가?
- 24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밋을 놓았더니,  
네가 정말 잡혔으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  
걸리고 말았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 25 여호와가 무기고를 열어  
진노의 병기를 꺼낸 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 26 너희는 먼 데서부터

- 바빌로니아로 와서  
그의 창고를 열어  
그것을 무더기처럼 쌓고,  
그것을 완전히 파멸시켜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 27 그의 황소들을 다 죽여라.  
도살장으로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날,  
곧 형벌의 때가 임했기 때문이다.
- 28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피난하는 자들  
이 소리치며, 시온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 곧 그분의 성전을 위한 복수가 선포되  
었다고 전한다.
- 29 ○활 쏘는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불러라. 활을  
당기는 모든 자들이, 너희는 그 사방을 둘러  
진 치고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가 행한 대로  
모두 그에게 행하여라. 이는 그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거만하였기  
때문이다.
- 30 그러므로 그 날에 바빌로니아의 청년들이 광  
장에서 쓰러지며, 모든 병사들이 전멸당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31 보아라,  
내가 거만한 너를 대적하겠으니,  
이는 너의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다.
- 32 거만한 자가 걸려 넘어져도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불이 그의 주변을  
모두 삼킬 것이다.
- 33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이 모두 그들을 붙  
잡고 놓아 주기를 거부하나
- 34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듣고 싸워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하겠으나, 바  
빌로니아 주민들은 불안하게 할 것이다.
- 35 여호와와의 말이다.  
칼이 갈대아인과  
바빌로니아 주민과  
그 고관과 지체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위에 임하므로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칼이 그의 용사들 위에 임하므로

-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37 칼이 그의 말들과 병거들,  
그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치므로  
그들이 여자같이 되고  
칼이 그의 보물 창고들을 치므로  
그것들이 약탈당하며,
- 38 가뭄이 그 물들 위에 내리므로  
그 물이 마를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의 땅이고,  
그들이 조각한 우상에  
미쳤기 때문이다.
- 39 ○그러므로 들짐승이 여우와 함께 바빌로니아  
에 살며 그 안에 타조가 살 것이니, 영원히 사  
람이 살지 않고 머무는 자가 대대로 없을 것  
이다.
- 40 여호와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소들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들을 멸망시킨 것같이, 아무도 거  
기 살지 않고 사람이 그 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 41 보아라,  
북쪽에서 한 백성이 오고  
큰 민족과 많은 왕들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공황이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요란하다.  
바빌로니아의 딸아,  
그들이 말을 타고  
너를 치려고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었다.
- 43 바빌로니아 왕이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손에서 맥이 빠졌으며,  
고통이 그를 사로잡아,  
그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괴로워한다.
- 44 ○보아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늘 푸른 초  
장으로 올라가듯 내가 갑자기 그들을 거기서  
도망하게 하고 내가 선택한 자를 그곳에 세  
울 것이니, 나와 같은 이가 누구이며 나를 소  
환할 자가 누구이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  
냐?
- 45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에 대한 여호와와의 계획  
과 갈대아 땅에 대한 여호와와의 뜻을 들어라.  
그들이 반드시 양 떼의 새끼조차 끌어갈 것  
이며, 여호와가 반드시 초장을 황폐하게 하  
겠으니,
- 46 바빌로니아가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  
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열방 중에서 들

\*) 히브리어 레브 카마이는 갈대아, 곧 바빌로니아를 가리킴

릴 것이다.”

#### 바빌로니아의 멸망

- 51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치고  
또 레브 카마이의 주민들을  
칠 것이다.”
- 2 내가 타국인을  
바빌로니아에 보내어  
그를 기질하여  
그 땅이 비게 하겠으니,  
그들이 재앙의 날에  
그를 사방에서 칠 것이다.
- 3 활을 당기는 자에게  
당기지 못하게 하며  
갑옷을 입고 방아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고  
그 모든 군대를 전멸시켜라.
- 4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어 쓰러질 것이고,  
그 거리에서  
창에 찔려 쓰러질 것이다.”
- 5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억하여  
비록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여도  
자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바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 6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도망하여  
각자 자기 목숨을 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지 마라.  
이는 여호와와 복수의 때이니,  
바빌로니아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 7 바빌로니아는  
여호와와 손에 들린 금 잔으로서  
온 세계를 취하게 하였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다.
- 8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  
파멸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울부짖어라.  
혹시 그가 나올지도 모르니,  
그의 상체를 위하여  
유향을 가져오너라.
- 9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 하였으나  
그가 낫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  
그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 닿았고  
구름에까지 이르렀다.  
10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너라, 우리가 시온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11 화살을 갈고 방패를 굳게 잡아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 바  
빌로니아를 멸하려고 계획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와 복수, 곧 그분의 성전을 위한 복수  
이다.

12 바빌로니아 성벽을 향해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며,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예비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주민에게  
경고하신 것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실 것이다.

13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네 종말,  
곧 네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를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우겠으니,  
그들이 너를 치려고  
고함을 지를 것이다.” 하셨다.

15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충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16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17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제련  
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되고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18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별받  
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19 아꿈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  
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다.

20 “너는 나의 철퇴이며 병기이니,  
내가 너를 시켜  
열방을 부수며,  
왕국들을 멸망시키겠다.

21 내가 너를 시켜  
말과 그 말 탄 자를 부수며  
병거와 그 병거 탄 자를 부수고

22 너를 시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어른과 아이를 부수고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23 너를 시켜  
목자와 그의 양 떼를 부수고  
농부와 그의 땅에를 부수며  
총독과 장관을 부술 것이다.

24 ○바빌로니아와 갈대아의 모든 주민이 너의  
눈앞, 곧 시온에서 행했던 모든 악을 내가 그  
들에게 갚을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25 온 땅을 멸망시킨 멸망의 산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내가 내 손을 네게 뻗어  
너를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네가 불타 버린 산이 되게 할 것이다.

26 사람이 네게서  
모든것들이나 주춧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네가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27 그 땅에 깃발을 세우며,  
민족들을 향해 나팔을 불어라.  
민족들을 준비시켜  
그를 치고,  
아리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왕국들을 소집하고,  
대장을 임명하여  
그를 치고,  
사나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여라.

28 민족들,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총독들과 모든 장관들과  
그가 통치하는  
온 땅을 준비시켜  
그를 쳐라.

29 땅이 진동하며 고통할 것이니,  
이는 바빌로니아 땅을 황폐케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려는,  
바빌로니아에 대한  
여호와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30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이  
싸움을 그치고  
요새 안에 머무르지만,  
그들의 힘이 쇠하여  
여자가같이 되니  
그 처소들은 불타고  
그 빗장들은 부서졌으며,

31 보발꾼이 다른 보발꾼을  
만나기위해 달리고,  
전령이 다른 전령을  
만나기 위해 달려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고하기를  
‘왕의 성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32 나루들이 점령당했고,  
갈대밭이 불탔으며  
병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할 것이다.”

3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같이 말씀하신다.  
“바빌로니아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과 같으니,  
머지않아 그것을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34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짓밟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과물처럼 나를 삼키고,  
내 좋은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며  
나를 쫓아내었으니,

35 시온의 주민이 말하기를  
‘나와 내 육체가 당한 폭행이  
바빌로니아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내 피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할 것이다.”

3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네 탄원을 듣고  
너를 위하여 복수할 것이니,  
내가 그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의 샘을 말려 버릴 것이다.

37 바빌로니아가 폐허 더미,  
이리의 소굴이 되고  
놀라움과 조소거리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38 그들이 다 함께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사자 새끼처럼 으르렁거린다.

39 그들이 흥분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들이 취하도록 할 것이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한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40 내가 그들을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려가게 할 것이다.

41 어찌하여 세상이 함락되었으며,  
온 세상의 칭찬을 받는 성읍을  
빼앗겼느냐?  
어찌하여 열방 가운데 바빌로니아가  
황폐하게 되었느냐?

42 바다가 바빌로니아에 넘치니,  
그가 많은 파도에 덮였다.

43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마른 땅과 사막이 되었으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다.

44 내가 바빌로니아에서  
벨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끄집어낼 것이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바빌로니아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45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안에서 나와  
여호와와 진노의 불길에서  
각자 자기 생명을 구하고,  
46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금년에 한 소문이 들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소문이 올 것이니,  
땅에는 폭력이 있어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 47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내가 바빌로니아의 우상들을  
벌하겠으니,  
그 온 땅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육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 것이다.
- 48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기뻐할 것이니,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49 온 땅의 살육당한 자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쓰러진 것처럼,  
바빌로니아도  
살육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 50 칼을 피한 자들이,  
서 있지 말고 가거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 51 우리가 책망을 들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성전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므로  
수치가 우리 얼굴을 덮었다.
- 52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내가 그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니,  
그 온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 53 바빌로니아가 하늘까지 오르며  
그 높은 요새를 강화한다 해도  
내가 파멸시키는 자들을 보낼 것이니,  
그 자들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54 바빌로니아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갈대아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 55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 바빌로니아를 황폐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큰 소리를 끊으실 것이다.  
그들의 대적이  
많은 물처럼 요동하며  
요란한 파도 같은 소리를 내니,  
56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바빌로니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였다.  
여호와와 복수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 57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배자들과 총독들과  
장관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한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의 말이다.
- 58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의 두꺼운 성벽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타며,  
백성들이 헛되이 수고하고,  
여러 민족들이  
갯터미 속에서 지치게 될 것이다.”

#### 바빌로니아에 대한 예언

- 59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에 즉위한 지 사년에  
마세야의 손자이고,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  
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 선  
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그때 스라야는 숙소 책임자였다.
- 60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입할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에 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 61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네가 바빌  
로니아에 가거든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읽고  
62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  
하시기를 이곳을 멸하여 사람으로부터 짐승  
까지 아무것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 63 네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그것에 돌을 매달  
아 유프라테스 강 속에 던져 넣고  
64 말하기를 ‘바빌로니아가 이같이 가라앉을 것  
이니, 내가 바빌로니아에 내릴 재앙 때문에 떠  
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여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 잡혀간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함락 (왕하 24:18-25:7)

- 52 1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 나이는 스물한  
살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립나 사람 예  
레미야의 딸 하루달이었다.
- 2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 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  
하셔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에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  
키니,
- 4 시드기야의 통치 구년 시월 십일에 바빌로니  
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  
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을 향해 진 치고 그 사  
면에 포위망을 쌓았다.
- 5 그리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십일 년까지 포  
위되니,
- 6 사월 구일에 그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
- 7 마침내 성이 풀리자 모든 병사들이 도망하  
여, 밤에 왕의 정원 근처, 곧 두 성벽 사이  
문으로 난 길로 빠져나갔으나, 갈대아인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으므로 아라바 길로 도망  
하였다.
- 8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러고 평  
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  
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고,
- 9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어들여, 그가 시드기야  
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 10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죽이고, 유다의 고관들도 리블라에  
서 죽였으며,
- 11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  
하여,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  
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

- 12 ○바빌로니아 왕, 곧 느부갓네살 왕 통치 십구  
년 오월 십일에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던 경호  
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 13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과 모든 큰 집을 불살랐으며,
- 14 경호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다.
- 15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에 남아 있는 나머지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  
에게 투항한 자와 나머지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나,
- 16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 일부는 포도원 관리자와 농부로 남겨 두  
었다.
- 17 ○갈대아인이 여호와와 성전의 두 낫 기둥과  
여호와와 성전의 받침대와 낫 바다를 부수어

- 그 낫을 모두 바빌로니아로 가져 가고,  
18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계들과 주발들과  
향 접시와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낫 기구들  
을 가져갔다.
- 19 또 경호대장이 잔과 화로와 대접과 술과 등  
잔대와 향 접시와 잔들, 곧 순금과 은으로 만  
든 것들을 가져갔다.
- 20 솔로몬이 여호와와 성전을 위해 만든 기둥 둘  
과 대아 하나와, 그 받침대 아래에 있는 낫 소  
열두 개, 곧 이 모든 기구들에 사용된 낫의 무  
게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 21 그 기둥들은 한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  
었고, 십이 규빗의 띠로 둘렀으며, 그 두께  
는 손가락 네 개의 두께인데, 그 속은 비어  
있었다.
- 22 그 위에는 낫으로 만든 머리가 있었고, 머리  
하나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었으며, 그 머리  
둘레에 그물과 석류 장식이 있었는데, 그 모  
두가 낫으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 기둥에도  
이런 것들과 석류 장식이 있었다.
- 23 측면에 있는 석류 장식은 구십육 개였고, 그  
기둥에 둘러 있는 그물 위의 석류 장식은 모  
두 백 개였다.
- 24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문지기를 체포하였으며,
- 25 또 그가 성에서 병사들을 통솔하는 장관 하  
나와 성 안에서 만난 왕의 시종 일곱 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는 군대장관인 서기관  
과, 그 성 안에서 만난 그 땅의 백성 육십 명  
을 잡았다.
- 26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그들을 잡아, 리블라  
의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가니,
- 27 바빌로니아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다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포  
로로 잡혀갔다.
- 28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백성은 이러하  
니, 제 칠년에는 유대인 삼천이십삼 명을 잡  
아갔고,
- 29 느부갓네살 통치 십팔 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팔백삼십이 명을 잡아갔으며,
- 30 느부갓네살 통치 이십삼 년에는 경호대장 느  
부사리단이 유대인 칠백사십오 명을 포로로  
잡아갔으니, 모두 합하면 사천육백 명이었  
다.

#### 여호야킨의 사면

- 31 ○유다 왕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간 지 삼십  
칠 년, 곧 바빌로니아 왕 에일 므르닥의 통치  
원년 십이월 이십오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  
킨의 머리를 들게 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  
다.
- 32 에일 므르닥이 그에게 친절히 말하며, 그의 자

리를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 주고,  
33 그가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벗겨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니,

34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매일 정해진 양을 바빌로니아 왕으로부터 공급 받았다.

## 예레미야 애가

### 예루살렘의 통곡

- 1 슬프다. 이 성읍이여,  
백성으로 가득하더니,  
어찌하여 그리 외롭게 앉았는가.  
민족들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열국 중의 공주였던 자가  
노예같이 되었구나.
- 2 밤중에 슬피 통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 없으며  
친구들도 모두 배신하여  
그의 원수가 되었다.
- 3 유다는 고통과 심한 노역 이후  
포로로 잡혀가  
열방 중에 거하며  
쉬 곳을 찾지 못하였고,  
그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이  
곤경에 처한 그를 뒤흔쳤다.
- 4 시온을 향한 길들이 슬퍼하니,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시온의 모든 성문이 황폐하고  
그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그 처녀들은 괴로워하니,  
시온의 고통이 심하였다.
- 5 시온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며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많은 범죄로 인하여  
그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어린 자녀들이  
대적 앞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 6 딸 시온에게서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그의 지도자들은  
풀을 찾지 못한 사슴들같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 7 예루살렘이 그 환난과 방황의 날에  
옛적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니,  
그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빼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으며,

대적들이 그를 보고  
그 멸망을 조롱한다.

- 8 예루살렘이 큰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그를 높이던 모든 자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고 멸시하니,  
참으로 그가 탄식하며 물러갔다.
- 9 그의 더러운 것이  
자기 치마 속에 있으나  
그는 자기의 훗날을 생각지 아니하니,  
그가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시여,  
원수가 잘난 채하고 있으나,  
나의 환난을 돌아보소서.
- 10 대적이 손을 뻗어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하신 민족들이  
그 성소에 들어온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 11 그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며  
음식을 구하고  
영혼을 소생시킬 양식을 위해  
자기 보물들을 내주었습니다.  
여호와시여, 돌아보소서,  
내가 멸시를 당하오니, 살피소서.”
- 12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더냐?  
내게 임한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때문이다.
- 13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불을 보내어  
내 땃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펴서  
나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황폐하게 하시고  
온종일 쇠약하게 하셨다.



14 주께서 손으로  
내 죄악의 땅에를 묶고 얹어  
내 목에 얹어서  
내 힘이 빠지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

15 주께서 내 모든 용사들을  
내 땅에서 몰리치시고,  
나를 대항하는 회중을 모으셔서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또 주께서 유다의 처녀 딸들을  
술들에서 밟으셨다.

16 이로 인하여 내가 울고,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니,  
이는 내 영을 소생시켜 위로할 자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이기니,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17 시온이 두 손을 내밀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 사방에 있는 자들을 명하여  
아급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것이 되었다.

18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나 나는 그분 입의 말씀  
을 거역하였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아라.  
나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19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양식을 찾다가 성 안에서 죽었다.

20 “여호와시여, 돌아보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으니,  
이는 내가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으며  
집 안은 죽음과 같습니다.

21 그들이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원수가  
내가 당한 재앙에 대해 들었으니,  
그들은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면  
그들이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22 그들의 모든 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내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쇠약합니다.”

## 2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1 슬프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님의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땅을 덮으셨는가.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부터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의 날에  
그 발받침대를 기억지 아니하셨다.

2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급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으며,  
주님의 분노로  
유다의 땅의 견고한 성들을  
파괴하여 땅에 엷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3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분의 오른손을 거두시고  
사방을 삼키며  
타오르는 불처럼 아급을 사르셨다.

4 주께서 원수같이  
자기의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자들을 죽이시고  
시온의 딸의 장막에  
그분의 분노를 불같이 쏟으셨다.

5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그 모든 궁전을 삼키시며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유다의 딸에게 비탄과 애통을  
더하셨다.

6 주께서 자기 성막을  
동산같이 헐어 버리시고,  
집회 장소를 파괴하셨으며,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진노로  
왕과 제사장을 경멸하셨다.

7 주께서 자신의 제단을 버리시며,  
자신의 성소를 싫어하시고,  
그 궁전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와 집에서  
소리 지르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다.

8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혈기로  
결심하여 측량줄을 띠시고,  
무너뜨릴 때까지  
그분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방어벽과 성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므로  
그것들이 다 함께 쇠하였다.

9 그 성문이 땅에 묻히며  
그 빔장이 부서지고 꺾였으니,  
왕과 지도자들이  
민족들 가운데 있으며,  
울법이 없고,  
선지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를 찾지 못한다.

10 시온의 딸 장로들이  
땅에 앉아 할 말을 잃고,  
티끌을 그 머리에 털어쓰고  
굵은 베를 허리에 둘렀으니,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땅에 머리를 숙였다.

11 내 눈은 눈물로 상하였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간에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패망하였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읍의 거리에서  
졸도하였기 때문이다.

12 그들이 성읍의 거리에서  
부상당한 자처럼  
생기를 잃고,

어미의 품 속에서  
숨이 꺼져가는 자같이 되어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묻는다.

13 예루살렘의 딸아,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겠느냐?  
시온의 처녀 딸아,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하겠느냐?  
네가 파괴된 것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치료하겠느냐?

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거짓되고  
속이는 이상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네 죄악을 드러내어  
너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네게 대하여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15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땅을 향해  
머리를 흔들면서 야유하기를  
“이것이 완전한 아름다움이며,  
온 땅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그 성이냐?”  
하였다.

16 네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해 입을 벌려 야유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 날이 분명 우리가 바라던 날이다.  
우리가 찾았고, 우리가 보았다.”  
한다.

17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 너를 파괴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원수가  
너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네 대적의 뿔이 높이 들리게 하셨다.

18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네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네 자신을 쉬게 하지 말고,  
네 눈동자를 멈추게 하지 마라.

- 19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 놓아라.  
길 어귀마다 굶주려 실신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네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라.
- 20 “여호와시여,  
보시고 살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어찌 여자들이 자기들의 열매,  
곧 자기의 귀여운  
아이들을 먹어야 하며,  
어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님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해야 합니까?”

- 21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거리의 먼지속에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습니다.

- 22 절기 날에 무리를 부르는 것처럼  
주께서  
사방에서 두려움을 부르셨으니,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던 자들을  
내 원수가 모두 멸하였습니다.”

- 3 1 나는 여호와와  
본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이다.  
2 그분께서 나를 내몰아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걷게 하셨으며,  
3 참으로 그분께서  
나를 종일토록 거둬 거둬  
그분의 손으로 치셨다.

- 4 그분께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 고통과 고난으로 나를 포위하고 에워싸셨  
으며,  
6 죽은 지 오래 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 7 그분께서 담으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8 비록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여도  
그분은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9 다름은 돌을 쏘아  
내 길들을 막으시고  
내 행로들을 굽게 하셨다.
- 10 그분은 내게 숨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시니,  
11 내 길들을 굽게 하시며  
나를 갈래갈래 찢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12 그분께서 자기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셨다.

- 13 그 화살통의 화살로  
내 신장을 맞추셨다.  
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15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썩으로 취하게 하셨다.

- 16 자갈로 내 이를 부수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17 그분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말리 옮기시니,  
나는 행보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18 그러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내가 바닥나고, 소망이  
여호와에게서 끊어졌다.”  
라고 하였다.

- 19 내 고통과 방황,  
곧 쑥과 쓸개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혼이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므로  
내 안에서 가라앉았습니다.  
21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회상하므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 22 여호와와 인애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의 공훈이 무궁하십니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24 내 영혼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의 몫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랍니다.”  
하였다.

- 25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26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27 사람이 젊었을 때  
명예를 메는 것이 좋다.
- 28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이다.  
29 그 입을 티끌에 대어라.  
혹시 소망이 있을 지 모른다.  
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밀며,  
그가 모욕으로 배부르게 하여라.

- 31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32 비록 그를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분의 풍성한 인애로  
공훈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34 세상의 모든 간한 사람을  
발아래 짓밟는 것이나,  
35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왜곡하는 것이나,  
36 소송에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다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 37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말하여  
이렇게 하겠느냐?  
38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39 살아 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벌 받는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

- 40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하였으며,  
주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 43 주께서 진노하시므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쫓으며 살육하시되  
공훈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어  
기도가 주께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45 주께서 우리를 백성들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습니다.

- 46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47 두려움과 함정과 황폐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48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므로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 49 내 눈의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니,  
50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51 내 성읍의 모든 딸들 때문에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 52 나의 원수들이 까닭 없이  
나를 새처럼 심히 쫓았다.  
53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내게 돌을 던졌다.  
54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다.”  
하였다.

- 55 “여호와시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 주께서 내 음성들을 들으셨으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마소서.  
57 내가 주께 부르짖은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 58 주님,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59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내 송사를 판결하소서.  
 60 주께서 그들의 모든 보복과  
 나에 대한 모든 음모를 보셨습니다.  
 61 여호와시여,  
 주께서 그들의 비난과  
 나에 대한 모든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62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과  
 생각이 종일도록 나를 대적합니다.  
 63 그들이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릇거리로 삼는 것을  
 주께서 살피소서.

64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희 손이 행한 대로  
 저희에게 갚으소서.  
 65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66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쫓으시며  
 여호와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멸하소서.”

- 4 1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거룩한 돌들이  
 길 어귀마다 쏟아져 있는가.
- 2 순금과 비교할 만큼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처럼 여겨지는가.
- 3 들개들도 젖을 내어  
 그 새끼들을 먹이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구나.
- 4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나  
 그들에게 줄 사람이 없다.
- 5 좋은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처량하게 되며,  
 자주빛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 더미를 안고 있다.
- 6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어도  
 순식간에 무너졌던 소돔의 죄보다도  
 내 백성의 딸의 죄악이 더 크다.
- 7 그 존귀한 자들은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모양이 청옥과 같다.

8 이제 그들의 얼굴이 솟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9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은  
 들의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칼에 찔린 것처럼  
 점점 쇠잔해졌기 때문이다.

10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자애로운 여자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를 살아  
 음식으로 삼았다.

11 여호와께서 노하시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니,  
 시온에 불을 질러 그 기초를 사르셨다.

12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주민들도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쳐들어 가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13 이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14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들같이 방황하나  
 피로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다.

15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치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마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더 이상 여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 16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흠으시고  
 다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제사장들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장로들에게 호의도  
 갖지 아니하였다.
- 17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쇠약해졌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 18 사람들이 우리의 발자국을  
 미행하므로  
 우리가 거리에 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끝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 19 우리를 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므로  
 산 위에서 우리를 바짝 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 20 우리 생명의 호흡,  
 곧 여호와께서 기를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민족들 가운데서 살 것이다.”  
 하였다.
- 21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돔의 딸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잔이 네게도 이를 것이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 22 시온의 딸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더 이상 너를  
 포로로 붙잡아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에돔의 딸아,  
 그분께서 네 죄악은 벌하시며  
 네 죄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 5 1 “여호와시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보시며 살피소서.  
 2 우리의 유업이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3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습니다.  
 4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옵니다.  
 5 우리를 쫓는 자가 우리 목을 누르므로  
 우리가 힘이 들어  
 우리에게 평온이 없습니다.  
 6 우리가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7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그들은 이제 없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8 종들이 우리를 다스리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9 광야에 같이 있으므로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10 기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가마처럼 뜨겁습니다.  
 11 시온에서 여자들이 겁탈 당하고,  
 유다의 성들에서  
 처녀들이 겁탈 당했습니다.  
 12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어달리며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13 청년들이 뺨들을 맞으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고,  
 14 노인들이 성문을 떠났으며  
 청년들이 그들의 노래를 그쳤습니다.  
 15 우리 마음에 기쁨이 그쳤으며  
 우리의 춤이 변하여  
 애통이 되었습니다.  
 16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고  
 우리에게 화가 임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침침하며,  
 18 시온 산은 황폐하여  
 거기에 여우들이 돌아다닙니다.  
 19 여호와시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로 이를 것입니다.  
 20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21 여호와시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22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으며,  
우리에게 매우 분노하십니다.”

## 에 스 겔

### 에스겔이 본 하나님 영광의 환상

- 1 1 ○제 삼십 년 넷째 달 오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내가 보았다.
- 2 여호아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오년째 되는 그 달 오일에
- 3 여호와와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으니, 여호와와 손이 그곳에서 그의 위에 임하셨다.
- 4 ○내가 보니, 폭풍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큰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데, 불이 계속 번쩍이고 사방에 광채가 나며, 그 불 가운데는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 5 그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 모양이었고
- 6 그들 각자에게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
- 7 그들의 다리는 곧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으며, 빛나는 놋쇠 같이 번쩍였고
- 8 그들의 사방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으며, 그들 넷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 9 그들의 날개는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각기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 10 그들 넷의 얼굴 모양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며,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 11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였으며,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펴서 둘은 서로 맞닿았고 둘은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
- 12 그들이 각자 앞으로 곧장 나아가, 그 영이 나아가려는 곳으로 나아가되, 나아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 13 그 생물들의 형상, 곧 그들의 모습은 타는 숯불과도 같고 햇불과도 같은데, 그 불이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그 불에 광채가 있었고, 또 그 불에서 번개가 나왔으며,
- 14 그 생물들이 빠르게 왔다갔다하여, 마치 번갯불과도 같았다.
- 15 ○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의 땅 위에 바퀴가 있었는데, 네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 16 그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는 황우 같았으며, 그들 넷은 같은 형상이었다. 그들의 모습과

- 구조는 바퀴가 바퀴 안에 있는 것 같았다.
- 17 그들이 진행할 때 사방 어디로든 나아갔는데,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 18 그 바퀴에는 높고 보기에 두려웠으며, 그 바퀴에는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눈이 가득했다.
  - 19 그 생물들이 나아갈 때 그들 옆에서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같이 들렸다.
  - 20 그 영이 나아가려는 곳으로 그 생물들도 나아가고 바퀴들이 그들과 함께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 21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그들이 서면 바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 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창공과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수정 같은 광채가 나서 보기에 두려우며 그것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 23 그 창공 밑에 그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하여 펼쳐져 있었는데, 이 생물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 24 그들이 나아갈 때, 내가 듣기에 힘센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은 날개 소리가 났는데, 마치 군대의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였다. 그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늘어뜨렸다.
  - 25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늘어뜨렸다.
  - 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사파이어로 보이는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로 저 높이 사람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 27 내가 보니, 그의 허리 위는 보석의 광채처럼 번쩍였고 불 같은 것이 주위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허리 아래는 불과 같은 모습이었고 주위에 광채가 있었다.
  - 28 그 둘러싼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았는데, 그것은 여호와와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다.

### 두루마리 환상

- 2 1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하셨다.
- 2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



- 와서 내 발로 나를 서게 하였으며,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 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 4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해라.
- 5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6 너 인자야, 비록 찢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천갈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 7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 8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 9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었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 10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 3 1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시므로
- 2 내가 입을 벌려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 3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고,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 4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 5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어려운 말을 쓰는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 6 언어가 다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여러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참으로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 7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 8 보아라, 내가 그들의 얼굴과 맞설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와 맞설 수 있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다.
- 9 네 이마를 부딪듯보다 굳은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었으니,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 10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 11 포로가 된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셨다.
- 12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진동하는 소리를 들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그분의 처소에서 송축하여라.” 하였고
- 13 또 생물의 날개들이 서로 맞닿는 소리와 생물 곁에 있는 바퀴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진동하였다.
- 14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에 내가 괴롭고 심령이 분하였으나, 여호와와 손이 내게 강하게 임하였다.

#### 파수꾼의 사명 (겔 33:1~9)

- 15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델아빔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칠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 16 ○칠일 만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 18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 19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악행이나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네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 20 또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를 죽게 하겠다. 만일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도 또한 기억되지 아니하겠으나,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 21 그러나 네가 의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여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가 보상을 받아들였으므로 진정 살 것이며, 너는 네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 방언이 된 에스겔**
- 22 ○여호와와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였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골짜기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시므로
- 23 이에 내가 일어나 골짜기로 나가니, 거기에 여호와와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영광과 같았다.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라
- 24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 25 너 인자야, 보아라. 무리가 줄을 가지고 너를 동여둘 것이니, 네가 그들 중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26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도록 하여 내가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어 주겠으니,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여라.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 예루살렘 포위의 예언

- 4 1 ○“너 인자야, 흙벽돌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세기며,
- 2 그 성읍을 포위하고 담을 세우며 공격 경사로를 쌓고 진을 치며 돌레에 성 부수는 무기를 놓아라.
- 3 또 너는 첩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첩벽으로 삼고 네 얼굴을 그 성읍을 향하며 고정시켜라. 그러면 성읍이 포위될 것이니, 이제 내가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 4 ○너는 네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 위에 두어라. 네가 그쪽으로 누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 5 그들이 죄를 지은 햇수만큼 네 날수를 정했으니, 곧 삼백구십 일이다.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 6 이 기간이 끝나면, 너는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여라. 내가 네게 일 년을 하루로 정해 주었다.”
- 7 “너는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네 얼굴을

- 고정하고 또 팔을 권어올리고 그곳을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 8 보아라, 내가 줄로 너를 묶어 네가 포위되어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몸을 이쪽저쪽으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 9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서 네가 옆으로 누는 날수, 곧 삼백구십 일 동안 먹어라.
- 10 네가 먹을 음식은 무게가 하루에 이십 세겔이니, 때를 맞추어 그것을 먹고,
- 11 네가 마실 물은 부피가 육분의 일 힌이니, 때를 맞추어 마셔라.
- 12 네가 그것을 보리빵처럼 먹되, 그들의 눈앞에서 인분으로 구워라.”
- 13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쫓아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다른 민족들의 땅에서 부정한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 14 내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고기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 15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인본 대신 쇠뿔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니, 네가 그것으로 네 빵을 만들어라.” 하시고,
- 16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버려, 백성들이 근심 가운데 빵을 달아 먹고 놀란 가운데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다.”
- 17 그리하여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경악하며,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쇠뿔할 것이다.”

- 5 1 ○“너 인자야, 네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사용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서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달아 나누어라.
- 2 포위 기간이 차면, 너는 그 털의 삼분의 일을 성읍 가운데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을 가져다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날려라. 내가 그들의 뒤를 쫓으며 칼을 찌렀다.
- 3 너는 거기서 얼마를 가져다가 네 옷자락에 싸고,
- 4 그것들 중에서 또 얼마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져 불살라라. 거기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나갈 것이다.”
-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게 하였으나,

- 6 그가 내 법도를 거역하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돌려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하였으니, 그들이 내 법도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의 소란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하여,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도대로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 8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 9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이는 너의 모든 역겨움 때문이다.
- 10 그러므로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요, 내가 네게 벌을 내려 너에게 남은 모든 자를 사망 바람에 흠을 것이다.
- 11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주 여호와와 말이다. 참으로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역겨운 것들로 너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으며,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 12 너희 가운데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거 나 기근으로 소멸할 것이고, 삼분의 일은 나의 사망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사망 바람에 내가 흠어 버리고 칼을 빼어 들고 쫓을 것이다.
- 13 ○그러면 내 진노가 끝나고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가라앉아 내 마음이 후련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내 분노가 그칠 때에, 그들은 나 여호와와 질투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줄 알게 될 것이다.
- 14 ○내 주께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눈앞에서 너를 폐허와 치욕거리로 만들겠으며,
- 15 내 진노와 분노와 맹렬한 책망으로 내게 심판을 행할 때에,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치욕과 조롱과 경고와 공포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하였다.
- 16 내가 그들에게 기근의 악독한 화살들을 보낼 때, 그것들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보내어 너희를 파멸시키고,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버리겠다.
- 17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을 빼앗아 가고, 전염병과 피

가 너희 곁으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에게 칼이 닥치도록 하겠다. 나 여호와와 말하였다.”

####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 6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고 그것들에게 예언하여라.
- 3 너는 말하여라. 이스라엘 산들이, 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 산당들을 멸하겠다.
- 4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너희 분향단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너희 중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던지겠다.
- 5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들의 우상들 앞에 놓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 주변에 흠을 것이다.
- 6 너희가 어디에 살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우상들은 부서져 끊어지며, 너희 분향단들은 쪼개어져, 너희가 만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 7 살해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거꾸러질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8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들로 흠어질 때 내가 얼마를 남겨 두겠으니, 너희들 중에 칼을 피하여 민족들 가운데 남아 있는 자가 있을 것이며,
- 9 너희 중 피한 자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민족들 중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 나를 상심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도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 곧 모든 역겨운 일들을 몹시 싫어할 것이며,
- 10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것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 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아, 이스라엘 족속의 악독한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질 것이다.
- 12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살아남아 포위된 자는 기근에 죽을 것이다. 이같이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그들에게 행하겠다.
- 13 그들 중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 제단들 주변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

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에, 곧 그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던 곳에 널려 있을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4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손을 빼어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으니, 그들이 사는 온 땅이 디블라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되어,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종말이 다가옴을 고함

- 7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 2 “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끝이다. 이 땅 사방 구석에 끝이 왔다.
- 3 이제 내게 끝이 왔으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보내어,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네 모든 역겨운 것들을 내게 갚겠다.
- 4 내 눈이 너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모든 역겨운 것들이 네 가운데 닥치도록 하겠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다시 없을 재앙이다. 보아라, 임박했다.
- 6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네게 왔으니, 보아라, 임박했다.
- 7 파멸의 날이 네게 닥쳤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가 왔고 그 날이 가까웠으니, 산에는 환호성이 아니라 소란스러움이 있을 뿐이다.
- 8 이제 속히 내가 나의 분노를 네게 쏟아 붓고 너에 대한 나의 진노를 끝내며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네 모든 역겨운 것들을 네게 갚을 것이다.
- 9 내 눈이 너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역겨운 것들이 네 가운데 닥치도록 하겠으니, 너희는 나 여호와와 치는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10 ○보아라, 그 날이다. 보아라, 임박했다. 파멸의 날이 왔으니, 그 막대기가 꽃을 피우고 교만이 씌이났다.
- 11 폭력이 일어나 악인을 치는 동등이가 되었으니, 그들 중에 아무도 없고, 그들의 무리 중에 아무도 없으며, 그들의 재물 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 12 그때가 이르렀고, 그 날이 가까웠다. 사는 자도 슬퍼워하지 말고, 파는 자도 슬퍼하지 마라.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내릴 것이기 때

문이다.

13 그들의 생명이 아직 유지된다 할지라도, 판자가 그 판 것을 되찾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모든 무리에 관한 환상을 들이킬 수 없기 때 문이다. 적과 때문에 아무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14 ○그들이 이팔을 붙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을 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내리기 때 문이다.

15 밖에는 칼이 있고 집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16 그들 중 생존자들은 산으로 피하여 가겠으며 그들 모두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17 모든 손들이 축 쳐지고, 모든 무릎들이 물처럼 약할 것이다.

18 그들이 굶은 배로 허리를 묶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하고, 그들의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19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대할 것이니,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 짓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 그들의 화려한 장식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 그들이 그것으로 역겨운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21 내가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전리품으로 넘겨 주고, 세상 악인에게 약탈물로 넘겨주어,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22 내가 네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릴 것이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약탈자가 거기 들어와 더럽힐 것이다.

23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이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24 내가 아주 악한 민족들을 데려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고 강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으니,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25 멸망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이 없을 것이다.

26 재난에 재난이 잇따르고 소문에 소문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 장



로에게서는 계약이 사라질 것이다.  
**27** 왕은 슬피 울고, 높은 관리는 절망을 옷 입으며, 그 땅 백성의 손은 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겠으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예루살렘의 죄악들

**8** **1** ○제 육년 율월 오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와 그의 손이 거기에서 내게 임하였다.  
**2** 내가 보니, “인자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았으며,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번쩍이는 보석과 같았다.”  
**3** 그분께서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움큼 잡으셨다. 영이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북쪽의 안뜰 문 입구에 이르시니,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4** 보아라,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골짜기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5**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하시므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6**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심히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 내가 다시 심히 역겨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였다.  
**7**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뜰 문에 이르셨는데, 내가 보니, 벽에 한 구멍이 있었다.  
**8**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벽을 뚫어라.” 하시므로 내가 그 벽을 뚫으니, 한 문이 있었다.  
**9**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어가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하시므로  
**10** 내가 들어가 보니, 온갖 기는 것들과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면 벽에 그려져 있었다.  
**11** 거기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사반의 아들 아야사 나도 서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 연기가 구름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12**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한다.”  
**1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그들이 행하는 심히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였다.  
**14** ○그분께서 또 나를 북쪽으로 향한 여호와와 집 문 입구로 데려가시니, 보아라, 그곳에 여자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었다.  
**15**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심히 역겨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였다.  
**16** ○그분께서 또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에 데리고 가시니, 보아라, 여호와와 성전 문, 곧 환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와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다.  
**17**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역겨운 것들을 어찌 가버을 일이라 하겠느냐? 그들이 이 땅을 폭력으로 채우며, 다시 나를 격노하게 하였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다.”  
**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갇아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 예루살렘의 심판

**9** **1** ○그분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시기를 “이 성읍의 관리자들아, 각각 살육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너라.” 하셨다.  
**2** 보아라,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빛문 길로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의 무기를 잡았고,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벼을 입고 그 허리에 서기관의 맥 그릇을 차고 있었으며, 그들이 들어와서 늦 제단 곁에 섰다.  
**3** ○그들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가는 벼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맥 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4**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시니  
**5** 내가 들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읍을 돌아다니며 처서 죽여라.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6**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처서 죽이되 피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였다.  
**7**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고 나서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사람을 처서 죽였다.  
**8** 그들이 처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 얼굴을 대고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하였다.  
**9**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지극히 커서 이 땅에 피가 가득하고, 이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나 역시 내 눈이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  
**11** ○보아라, 가는 벼을 입고 허리에 맥 그릇을 찬 사람이 보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 성전을 떠나는 주님의 영광

**10** **1** ○이에 내가 보니,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 사피이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좌의 모양 같았고 그들 위에 있었다.  
**2** 하나님께서 가는 벼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 아래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타는 쏜을 두 손바닥에 가득 움켜져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였다.  
이에 그가 내 눈앞에서 갔다.  
**3** 그 사람이 가니, 그들들은 그 성전 오른쪽에서 있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으며  
**4**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 위로 떠올라 그 성전 문지방 위로 오르니, 그 전이 구름으로 충만하였고 뜰도 여호와와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였다.  
**5** 그들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

다.  
**6** ○하나님께서 가는 벼을 입은 자에게 “바퀴 사이, 곧 그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명령하시니, 그가 가서 그 바퀴 옆에 섰고,  
**7** 그들들 사이에서 한 그룹이 손을 내밀어 그들들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가는 벼을 입은 자의 손에 놓으니,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8**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났다.  
**9** ○내가 보니, 그들들 옆에는 네 바퀴가 있었는데, 각 그룹 옆마다 바퀴 하나씩이 있었고,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 같아 보였다.  
**10** 그들의 모습은 네 개가 같은 형상이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1** 그들이 나아갈 때 사방 어디로도 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머리가 향한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나아갈 때 돌지 않아도 되었다.  
**12**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들과 바퀴들, 곧 그들의 네 바퀴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다.  
**13**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하였다.  
**14** 각자에게는 네 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첫째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15** ○그들이 떠올랐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 강에서 보았던 생물들이었다.  
**16** 그들이 나아갈 때는 그들 옆에 있는 바퀴도 나아갔고, 그들들이 땅에서 오르기 위해 날개를 들 때는 그 바퀴들 또한 그들 옆에서 돌지 아니하였다.  
**17** 그들이 서면 바퀴들이 섰고, 그들이 오르면 바퀴들이 그들과 함께 올랐으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18**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들들 위에 머물렀다.  
**19** 그들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으로부터 떠올랐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이 여호와 성전의 동문 입구에 섰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높이 머물렀다.  
**20** ○그들은 그발 강에 계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서 내가 본 생물들이었으며, 나는 그들이 그들인 것을 알았다.  
**21** 넷은 각자 네 얼굴이 있었고, 또 각자 네 날개가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 형상 같은 것이 있었고,  
**22** 그들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으며, 동일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얼굴 앞쪽으로 나아갔다.

가) 칠십인역에는 ‘인자 같은’ 혹 다른 사본에는 ‘불 같은’

## 예루살렘의 심판

- 11** 1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동쪽으로 향 한 여호와와 성전의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보아라, 그 문 입구에 스물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백성의 고관들인 앗술의 아들 아사야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다.
- 2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들은 이 성에서 불의를 도모하고 악한 계략을 궁리하는 사람들이며,
- 3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이다.’ 라고 말하는 자이다.
- 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고, 예언하여라.”
- 5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을 안다.
- 6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은 사람을 살육하여 시체로 그 거리들을 채웠다.’
- 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성읍 가운데 너희가 놓아둔 시체들, 그들은 고기이고,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 8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을 너희 위로 가져오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 9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 10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1 성읍이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고, 너희도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겠으나,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 12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내 율례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내 법도를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를 둘러싼 민족들의 법도대로 행하였다.”
- 13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이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아, 주 여호와시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십니까?” 하였다.
- 포로들의 회복**
- 14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였다.
- 15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네 형제들, 곧 네 형제들과 네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 하였으므로

- 16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보내어,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고
- 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방 백성에게서 모으고 너희를 흠어진 나라들에서 모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라.
- 18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 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 20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 21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으로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갓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 22 ○그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드니, 바퀴도 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니,
- 23 여호와와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편에 있는 산에 멈춰 섰다.
- 24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 갈대아에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나를 데려가셨으며,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이 내게서 떠났다.
- 25 나는 그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 말하였다.

## 포로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

- 12** 1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불 논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 3 너, 인자야, 너는 스스로 포로의 짐을 꾸리고, 낮에 네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되,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처럼 떠나라. 비록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 4 너는 포로의 짐 같은 네 짐을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끄집어내고, 저녁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나가라.
- 5 그들의 눈앞에서 네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곳으로 짐을 내어 가라.
- 6 그들의 눈앞에서 네가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 나가라. 너는 땅을 보지 못하도록 네

## 속담과 예언

- 얼굴을 가려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 7 ○내가 명령을 받은 그대로 하여, 내 짐을 포로의 짐처럼 낮에 끄집어내고, 저녁에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었으며 캄캄할 때 내가 짐을 내어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어깨에 메고 갔다.
- 8 ○아침에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였다.
- 9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의 족속이 ‘네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 10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말하기를 이 경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그 성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 11 너는 또 말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표징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추방당할 것이다.’
- 12 그들 중에 있는 지도자가 캄캄할 때 어깨에 짐을 메고 나갈 것이며, 짐을 내가기 위해 성벽에 구멍을 뚫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 13 내가 그에게 내 그물을 칠 것이니, 그가 내 밧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니, 그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 14 내가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곧 그를 돕는 자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사방 바람에 흩어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뽑을 것이다.
- 15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 버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헤쳐 버릴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6 그러나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가 있는 민족들에게 그들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말하게 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7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였다.
- 18 “인자야, 네가 떨며 네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네 물을 마시라.
- 19 그리고 내가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자기 빵을 먹고 놀람으로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니, 그 땅 모든 주민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 사람이 사는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21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기를 ‘세월은 지속되고,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너희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
- 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것을 속담으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그들에게 그 날들과 모든 환상의 사건이 가까웠다고 말하여라.
- 24 다시는 어떤 헛된 환상이나 아침하는 복소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 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는 말이 성취되고,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반역의 족속아,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생전에 그대로 이룰 것이다. 주 여호와와 영의 말이다.”
- 26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였다.
- 27 ○“인자야, 보아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보는 환상은 훗날에 대한 것이며, 그는 먼 훗날에 대하여 예언한다.’ 라고 말한다.
- 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 말은 하나라도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 영의 말이다.”

##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 13** 1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나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와 영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 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 4 이스라엘아, 네 선지자들은 패허 터미에 있는 자칼들 같다.
- 5 너희들은 성벽이 허물어진 데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와 영의 날에 있을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아니하였다.
- 6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보며 ‘여호와와 영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7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와 영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 8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니, 내가



- 너희를 치겠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9 헛된 환상을 보며 속이는 점괘를 내는 선지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 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0 이는 그들이 평안이 없으나 '평안하다.' 라고 말하며,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그들은 백성이 벽을 쌓으면 그것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 11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여라. 폭우가 오고 돌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고 폭풍이 일어날 것이니,
- 12 보아라,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칠한 그 회가 다 어디 있느냐?' 라고 하지 않겠느냐?"
- 13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로 폭우가 오게 하며, 분노 가운데 돌 같은 우박들로 망하게 하겠다.
- 14 너희가 회칠한 벽을 내가 무너뜨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5 내가 내 분노를 벽과 그 벽에 회칠한 자들에게 다 쏟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벽도 없고, 그것에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고 할 것이다.
- 16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평안이 없으나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거짓 예언자들에게 대한 경고

- 17 "너 인자야,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팔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 18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모든 팔목에 부적 띠를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쓸 두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은 살리라 하느냐?
- 19 너희는 보리 몇 움큼과 빵 몇 조각을 위해 나를 내 백성 중에서 욕되게 하고, 거짓을 듣는 내 백성을 속여, 죽여서는 안 될 영혼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은 살린다.
-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부적 띠를 너희 팔에서 찢어 버리고, 너희가

-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 21 내가 너희 두건들을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22 이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의 손은 강건하게 하므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삶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23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헛것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우상을 섬기는 자들

- 14 1 ○이שראל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오더니, 내 앞에 앉았다.
- 2 그런데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와,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으니,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 4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자는, 나 여호와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친히 응답하겠다.
- 5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으므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돌아서되,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 7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방인 가운데 누구든지 내게서 떠나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고, 또 선지자에게 나아와 나에 대해 묻는 자는 나 여호와와 친히 그에게 응답하겠다.
- 8 내가 내 얼굴을 그런 사람에게 두어, 그를 표징과 이아기것거리로 만들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9 그러나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말을 내면, 나 여호와와 그 선지자를 유혹한 것이니, 내가 그에게 내 손을 뻗어 그를 내 백성 이스

- 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 10 그들이 모두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묻는 자의 죄악이나 선지자의 죄악이 같기 때문이다.
- 11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또 다시는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용서 받지 못할 도시

- 12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13 "인자야, 만약 어떤 나라가 신실하지 못하여 내게 죄를 지어,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어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버리고 그에게 기근을 보내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린다면,
- 14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15 ○혹은 내가 사나운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여, 그 땅이 황폐해져 아무도 그 짐승들 때문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 16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17 ○혹은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와 칼아, 그 땅을 지나가거라. 라고 말하여,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린다면,
- 18 이 세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19 ○혹은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내 분노로 그 위에 피를 쏟아,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린다면,
- 20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21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반드시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요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 버릴 것이니,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 22 그러나 보아라, 그 안에 피한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갔으니, 곧 아들들과 딸들이다. 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니,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볼 것이다. 내

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 위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23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행한 모든 것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무익한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 15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으며,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 3 거기에서 무엇인가 만들 재목을 취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어떤 기구를 걸 나무 못을 취할 수 있겠느냐?
- 4 보아라, 그것은 불에 던져 태워져서 그 양 끝이 타 버렸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것이 무슨 일에 쓰일 수 있겠느냐?
- 5 보아라, 그것이 온전한 때에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는데, 불에 타고 그슬렸으니, 더 이상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 6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숲의 나무들 중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태운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불에 던질 것이다.
- 7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니, 그들이 불에서 살아 나와도 또 다시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8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부정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 16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역겨운 것들을 알려 주어라.
- 3 주 여호와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한다. 네 근본과 네 태생은 가나안 땅이니,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 4 네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났을 때 네 태를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싸이지도 아니하였다.
- 5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않았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여 네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버렸다.
- 6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투성인 채 버둥대는 것을 보고 피투성인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인 내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7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네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네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8 ○내가 네 결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네 옷을 펼쳐 네 벌거벗음을  
 가려 주고, 네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9 내가 너를 물로 씻기고 피를 닦아 내고 기름을  
 발라 주었으며,  
 10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겼으며 가는  
 베로 너를 감싸고 비단으로 덮어 주었다.  
 11 내가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여 네 손목에 팔찌를  
 끼우고 네 목에 목걸이를 두르며,  
 12 코고리를 네 코에, 귀고리를 네 귀에 달고,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씌워 주었다.  
 13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였고, 네가 매우 아름다워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14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명성이 여러 민족들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네게 베푼 내 영광  
 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15 ○그러나 네가 네 아름다움만 믿고, 네 명성을  
 이용하여 음행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  
 16 내가 네 의복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런 일은 전에  
 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17 내가 네게 준 내 금과 내 은의 화려한 장신구  
 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18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  
 19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나의 음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들 앞에 향기  
 로운 냄새로 바쳤으니, 참으로 그러하였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20 내게 낳아 준 네 아들들과 딸들을 붙잡아  
 다 우상들이 먹도록 내가 희생 제물로 바쳤  
 으니, 네 음행이 작은 일이나?  
 21 내가 내 아들들을 죽여 우상들에게 바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22 내가 네 모든 역겨운 일들과 네 음란 가운  
 데서, 네가 벌거벗은 맨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버둥댔던 네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23 ○네 모든 악행을 따라 네게 화, 화가 있을 것  
 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24 내가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를 위해 모  
 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었다.  
 25 내가 길모퉁이마다 네 음행의 산당을 만들  
 고, 네 아름다움을 역겹게 만들어, 지나가는  
 자들에게 네 다리를 벌려 음행을 더하였다.  
 26 내가 하체가 큰 네 이웃, 이집트 자손들과 음  
 행을 하였고 나를 격노케 하려고 네 음행을  
 더하였다.  
 27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뻗어, 네  
 정해진 음식 몫을 감하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여자들, 곧 네 음란한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블  
 레셋 딸들에게 너를 넘겨주었으니,  
 28 내가 만족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음  
 행하였고 네가 그들과 음행을 하기도 만족하  
 지 못하여,  
 29 장사꾼의 땅 갈대아에까지 가서 음행을 하였  
 으나 이번에도 여전히 너는 만족하지 못하였  
 다.  
 30 ○네가 이 모든 일, 곧 방자한 창기의 일을 행  
 하니,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하나? 주 여호  
 와의 말이다.  
 31 내가 모든 길모퉁이에 음행의 제단을 쌓고,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고도 몸값은  
 싫어하니, 너는 창기 같지도 않다.  
 32 너는 자기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받는 간  
 음하는 아내다.  
 33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지만, 너  
 는 네 모든 연애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었고,  
 너는 사방에서 음행을 위해 네게 오도록 그  
 들에게 선물을 하였다.  
 34 네 음행이 다른 여자들과 달라 사람들이 음  
 행하려고 너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몸값  
 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몸값을 지불하였으니,  
 너는 다른 여자와 달랐다.  
 35 ○그러므로 너 창기야, 여호와와의 말을 들어  
 라.  
 36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네 연인들,  
 곧 역겨운 우상들과 음행을 저지른 때에 수  
 치를 쏟고,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  
 게 네 아이들의 피를 바쳤으므로,  
 37 보아라, 내가 좋아하던 네 모든 연인들과 내가  
 사랑하던 모든 자를 내가 미워하던 모든 자와  
 함께 내가 모으겠다. 내가 사방에서 너를 대적  
 하는 그들을 네게 모아, 그들에게 네 벌거벗음  
 을 드러내어, 그들이 네 모든 벌거벗음을 볼  
 것이다.  
 38 내가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너를 심판하여, 분노와 질  
 투의 피를 네게 돌리겠다.

39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어, 그들이 네 음  
 행의 제단을 헐고 네 음행의 산당을 부술 것  
 이며 그들이 네게서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  
 신구들을 빼앗아, 너를 벌거벗겨 맨몸으로  
 내버려 둘 것이다.  
 40 그들이 너를 치러 무리를 데리고 올라와서는  
 돌로 너를 치고 자기들의 칼로 너를 조각낼  
 것이다.  
 41 그들이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많은 여자  
 들의 눈앞에서 네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  
 가 너로 음행을 그치게 하겠으니, 네가 다시  
 는 몸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것이다.  
 42 그 때 너에 대한 분노를 그칠 것이니, 내 질투  
 가 네게서 떠날 것이며 내가 편안하여 다시  
 는 격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43 내가 네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보아라, 나 또  
 한 네 행위를 네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네 모든 역겨운 일들과 함께 이 음란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44 ○보아라, 네 경우에 해당하는 속담을 말하고  
 자 하는 자들이 모두 속담을 말할 것이다.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렇다.' 고,  
 45 너는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혐오한 네 어머  
 니의 딸이고, 또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혐오  
 한 네 언니들의 자매다. 너희 어머니는 헛  
 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  
 다.  
 46 네 언니는 사마리아이니, 네 언니와 그 딸들  
 은 네 왼쪽에 살고 네 여동생은 네 오른쪽에  
 사는데, 소돔과 그 딸들이다.  
 47 내가 그들의 길을 따라 걷거나 그들의 역겨  
 운 것들을 따라 실행할 뿐 아니라, 그것도 모  
 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욱 부패하  
 였다.  
 48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  
 하니, 참으로 네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  
 와 네 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는 아니하  
 였다.  
 49 보아라, 이것이 네 여동생 소돔의 죄악이니,  
 그 여자와 그 딸들에게 거만함과 양식의 풍  
 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나,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50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역겨운 일을 행  
 하였으므로, 내가 보았을 때 그 여자들을 쫓  
 아 버렸다.  
 51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너  
 는 그 여자들보다 더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내가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네 자매들  
 을 의롭게 보이게 했다.  
 52 내가 네 자매들보다 더 역겹게 행한 죄악으

로 네 자매들이 유리한 판단을 받게 했으니,  
 네 자신이 네 수치를 담당하여라. 네가 네 자  
 매들을 의롭게 보이게 했으므로 그 여자들  
 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다. 네 자신이 부끄러  
 워하며 네 수치를 담당하여라.  
 53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  
 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  
 잡힘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사로잡힘과 함  
 께 너의 사로잡힘도 회복시키겠다.  
 54 그러면 네가 네 수치를 담당하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고, 네가 그들에게 위  
 로가 될 것이다.  
 55 네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이 그 옛 상태로 회  
 복되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 옛 상태로  
 회복되며, 너와 네 딸들도 그 옛 상태로 회복  
 될 것이다.  
 56 네가 교만하던 때에는 네 여동생 소돔이 네  
 입에서 언급되지도 않았다.  
 57 그것은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네가 지  
 금은 아람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들과 블레셋  
 의 딸들, 곧 너를 멸시하는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이다.  
 58 내가 네 음란과 역겨운 것들을 담당해야 한  
 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59 ○참으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네가  
 내 언약을 파기하여 내 맹세를 멸시하였으  
 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겠다.  
 60 그러나 네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61 내가 네 자매들, 곧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  
 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겠으나 너와의 언약  
 때문이 아니다.  
 62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으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63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덮어 줄 때, 네가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하고 네 수치  
 때문에 다시는 네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17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  
 끼와 비유를 들어  
 3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깃, 형형색색의 깃털로 가득 찬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그가 백향목 꼭  
 대기를 잡고  
 4 그 꼭대기의 어린 가지를 꺾어 장사꾼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  
 5 그가 그 땅의 씨 알마를 가져다가 옥토에 뿌  
 리고, 마치 버드나무 심듯 그것을 풍성한 물



- 가로 가져가 심었더니,  
6 그것이 자라나 포도나무가 되어 높지 않게 뻗어 나갔으며,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로 뻗었다. 그래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들을 내고 덩굴들을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7 ○큰 날개와 보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으니,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그를 향하여 뿌리를 뺀치고, 가지를 그에게 뻗어 물을 얻고자 하였다.  
8 그것이 비옥한 들판, 곧 풍성한 물가에 심긴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9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그것이 번성하겠느냐? 그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 버려 그 모든 어린 가지의 잎사귀들이 마르면, 포도나무가 마르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기 위해 서라하면 강한 팔이나 많은 백성이 필요 없을 것이다.  
10 보아라, 그것이 심졌다고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닥치면 그것이 완전히 마르지 않겠느냐? 그 어린 가지가 자라는 이땅에서 말라 버릴 것이다.'  
1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12 "너는 반역의 족속에게 묻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과 귀족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어가고  
13 왕손 중 하나를 택하여 그와 조약을 맺어 맹세하게 하였다. 그가 그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갔으니,  
14 그 왕국이 낮아져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와의 조약을 지킬 때만 명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15 그러나 그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 집단에 사신들을 보내어 자기에게 말들과 큰 군대를 보내 주도록 청하였으니, 그가 행동하겠느냐? 그가 이런 일을 하고도 살아남겠느냐? 그가 조약을 파기하고도 살아남겠느냐?  
16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그 왕과의 조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땅, 곧 바빌로니아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17 공격 경사로를 쌓고 포위 담을 쌓아 많은 목숨을 빼앗을 때, 바로가 그 전쟁에서 큰 군대

- 와 많은 무리로도 그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18 그가 맹세를 무시하여 조약을 파기하였다. 보아라,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맹세하고도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9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무서한 맹세와 그가 파기한 조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반드시 돌리겠다.  
20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퍼 그와 내 그물에 걸릴 것이며, 내가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겠다.  
21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모든 자가 칼에 쓰러지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흩어질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할 것을 알 것이다.  
22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서 어린 가지를 취하여 심되, 꼭대기에서 그 어린 어린 가지를 꺾어 높이 치솟은 높은 산 위에 심겠다.  
23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니, 그러면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모든 날개 가진 새들이 그 아래 깃들고 그 가지들의 그늘에 깃들 것이다.  
24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크게 높이겠다. 싱싱한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겠으니,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 신포도 속담

- 18**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2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사용하느냐?  
3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4 보아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모두 내게 속하였으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5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6 산에서 제물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생리 중인 여

- 자를 가까이하지도 아니하며  
7 누구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담보물을 되돌려 주고 강도질도 하지 않으며 굶주리는 자에게는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 주며  
8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거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악에서 멀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며  
9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로우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10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난폭하고 피 흘리는 자로 이것들 중 하나를 형제에게 행하고,  
11 그가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며, 산에서 제물을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강도질을 하며, 담보물을 되돌려 주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어 역겨운 일을 하며,  
13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런 모든 역겨운 것들을 하였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14 ○보아라,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한 모든 죄악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15 그가 산에서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으며,  
16 누구를 압제하거나 담보물을 잡거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는 자기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덮어 주며,  
17 죄악에서 자기 손을 멀리하여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내 법도대로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른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18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심히 압제하고 형제를 강탈하며 자기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 보아라, 그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19 ○그러나 너희는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아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20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 21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행한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22 그가 행한 어떤 범죄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는 자기가 행한 때 때문에 살 것이다.  
23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24 그러나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역겨운 일대로 행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 어떤 의로움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행한 자기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자기 죄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25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길들이 아니냐?  
26 의인이 자기 의로움에서 돌이켜 죄악을 행하면, 그것들 때문에 죽을 것이니, 그는 자기가 행한 범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27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행한 죄악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28 그가 스스로 살피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켰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29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주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길들이 아니냐?  
30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31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 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32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

- 19** 1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2 말하여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나?

암사자라.  
젊은 사자 가운데 누워  
자기 새끼들을 길렀다.  
3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들 중  
하나를 키웠더니,  
그가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켰으며,  
4 민족들이 그에 대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서  
갈고리로 꿰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5 어미 사자가 기다리다가  
자기 소망이 끊어져  
사라진 것을 알고,  
자기 새끼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젊은 사자로 길렀다.  
6 그가 사자들 중에서 왕래하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키고,  
7 그가 자기의 과부들을 알며,  
그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니,  
그 땅과 거기 중만한 것들이  
그 포호 소리에 경악하였다.  
8 적들이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를 잡으려 하여  
그에게 그물을 던지니,  
그가 그들의 구렁이에서 사로잡혔다.  
9 그리고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 철장에 가두고,  
그물에 묶어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다시는 이스라엘 산들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10 네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풍성하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  
11 포도나무는  
강한 줄기를 가졌으므로,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기에  
합당하였다.  
줄기는 덩굴들 속에서도 높이 솟아,  
그 높이와 그 무성한 가지들이  
두드러졌다.  
12 그러나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져졌다.

동풍이 마르게 하니,  
그 열매들이 떨어지고  
그것의 강한 줄기도 말라  
불이 그것을 삼켰다.  
13 이제 그것은 광야,  
가뭄과 목마름의 땅에 심겨졌으니,  
14 불이 그 줄기에서 나와  
그 어린 가지와 열매를 삼켰으므로  
통치자의 막대기가 될 만한  
강한 줄기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이 애가이니, 계속 애가로 사용될 것이  
다.”

####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반함

20 1 ○제 칠년 오월 십일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여쭙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2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3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  
으려고 왔느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4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  
이 자기 조상들의 역겨운 일들을 알게 하여  
라.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스  
라엘을 택하던 날에 아람 족속의 후손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게 나를 알렸으며 나는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  
였다.  
6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들어, 이집트  
땅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며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영광  
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맹세하였다.  
7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너희  
가 주목하는 혐오스러운 것들을 던져 버리  
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  
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였으  
나,  
8 그들은 내게 반역하며 순종하려 하지 않았  
다. 그들 중 누구도 자기 눈이 주목하는 그 혐  
오스러운 것들을 던져 버리지 아니하였고, 이  
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어,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진노  
를 다 쏟겠다고 말하였다.  
9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과 함께 지내던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  
다. 곧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  
어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 자  
신을 알렸다.  
10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  
로 인도하였고,  
11 내가 그들에게 내 율례를 주어 내 법도를 그  
들에게 알렸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 때문에 살 것이다.  
12 나는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도록 내가 그들  
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는 것이었다.  
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를 배반  
하여,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면 살게 될 내 율  
례를 행하지 않고, 내 법도를 무시하고 내 안  
식일들을 크게 모독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였으  
나,  
14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이는 내  
가 그들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본 여러 민족들  
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  
려는 것이었다.  
15 내가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 이는 그들이 내 법도를 무시하고 내 율례 가  
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모욕하  
고, 그들의 마음이 자기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17 그럼에도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멸망  
시키지 않았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다 없애  
지도 아니하였다.  
18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 조상의 율례 가운데 행하지 말고, 그들  
의 법도를 지키지도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도 마라.  
19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율례 가운데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여  
라.  
20 내 안식일들을 거룩히 하여라. 그것들이 나  
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니, 이는 내  
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  
이다.  
21 그러나 그 자손들은 나를 배반하여, 사람들  
이 그대로 행하면 살게 될 내 율례를 따르지  
않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았으며, 내 안

식일을 모독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부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진노를 다 이루  
겠다고 말하였다.  
22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돌이켜 내 이름을 위하  
여 행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내  
는 것을 본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더  
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23 또 내가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홀로, 여러 나  
라들 중에 그들을 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  
나,  
24 이는 그들이 내 법도를 행하지 않고, 내 율례  
를 무시하고 내 안식일들을 모독하며, 그들  
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  
이다.  
25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그들을 살리지 못할 법도를 주었다.  
26 내가 그들을 예물들, 곧 모든 만이들을 불 가  
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더럽다고 선언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  
려는 것이었다.  
27 ○그러므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  
들이 여전히 나에게 이같이 반항하고 나를  
배반함으로 나를 모독하였다.  
28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  
하였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그  
들은 높은 산이나 깊이 무성한 모든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를 격  
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치며 거기서 향을 피  
우고 거기서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29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 고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바미라”고 불린다.  
30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너  
희 조상이 행한 길에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라 음행하겠  
느냐?  
31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  
운데로 지나가게 하므로, 너희 모든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오늘날까지 더럽게 되었다. 이  
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로 내게 문도록 할  
것 같으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내가 내게 문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32 ○너희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

가) 혹은 ‘궁실들을 헐고’

가) ‘산당’이라는 뜻



들이나 세상 족속같이 되어 나무나 돌을 섬길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3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반드시 강한 손과 편 팔과 퍼붓는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34 내가 강한 손과 편 팔과 퍼붓는 분노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이끌어 내고, 너희를 흠여진 그 나라들에서 모아 오겠으며,

35 너희를 백성들의 광야로 인도하여,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36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심판했듯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37 내가 너희를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띠 안으로 인도하겠으니,

38 너희 중에서 나를 배척하고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겠다. 내가 그들이 머무는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39 ○주 여호와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각자 가서 자기 우상들을 섬겨라.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정녕 내게 순종할 것이니, 너희 예물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모독하지 않을 것이다.

40 ○이는 온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고 너희 헌물들과 최상의 예물들을 모든 성물들과 함께 요구하겠다.

41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에게서 이끌어 내고 흠여진 그 나라들에서 모아 올 때, 너희를 받들어 시원하게 하는 향기로 기쁘게 받겠다. 내가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42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43 너희는 거기서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힌 너희 행위와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행한 너희 모든 악 때문에 스스로를 싫어할 것이다.

44 내가 너희 악한 행위와 부패한 행동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45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46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을 향해 외치며 네게브 들의 숲을 향해

예언하여라.

47 네가 네게브 숲을 향해 말하여라. ‘여호와와 말씀 들려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네게 불을 놓아, 그 불이 네게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다. 타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불에 태워질 것이다.’

48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와 그 불을 일으킨 것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9 내가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시여,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 하나님의 칼

21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들을 향해 외치며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3 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 말하여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네게서 의인이나 악인을 끌어 버리겠다.

4 내가 네게서 의인이나 악인을 끌어 버리겠으니, 내 칼이 그 칼집에서 나와서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겠다.

5 그러면 모든 육체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겠으니, 그것이 도로 칼집에 꽂히지 않을 것이다.

6 ○너 인자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되, 그들 눈앞에서 슬피 탄식하여라.

7 그들이 ‘무엇 때문에 네가 탄식하느냐?’ 라고 네게 물으면, 너는 대답하기를 ‘다가오는 소식 때문이니, 모든 심장이 녹고, 모든 손들이 약해지며 모든 영이 기진하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보아라, 재앙이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하여라.”

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9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10 칼이 잔인한 살육을 위해 날카롭게 되었고 번쩍이도록 갈렸다. 내 아들의 지팡이가 모든 나무를 멸시하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11 그 칼이 손에 잡아 쓸 만하도록 갈렸고, 그 칼이 날카롭게 갈렸으니, 내가 그것을 살육자의 손에 쥐어 주려는 것이다.

12 인자야,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이는 칼이 내 백성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던져졌으니, 그러므로 너는 네 넓적다리를 쳐라.

13 그것이 시련이다. 만일 칼이 홀도 무시하면 어찌하겠느냐? 그것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14 ○너 인자야, 예언하며 손바닥을 마주쳐라. 칼이 두 번, 세 번 휘둘리게 하여라. 그것은 찢어 죽이는 칼, 곧 사람들 주위를 돌면서, 큰 무리를 찢어 죽이는 칼이다.

15 그리하여 마음이 흔들리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모든 성문에서 칼로 살육하게 하였다. 아, 그것이 마치 번개처럼 살육을 위해 뽑혔다.

16 칼아, 스스로 날카로움을 보여라. 네 칼날이 향하는 곳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또 왼쪽으로 향하여라.

17 나 또한 내 손바닥을 마주치며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하였다.”

1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19 “너 인자야, 너는 스스로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하여라. 그 둘이 다 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네가 이정표를 두되, 성읍 길머리에 이정표를 두어라.

20 너는 칼이 암몬 자손들의 랍바로 오거나 견고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로 오도록 길을 정하여라.

21 바빌로니아 왕이 갈림길, 곧 두 길머리에서 점을 칠 것이니, 그가 화살들을 흔들어 드라빔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필 것이다.

22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이란 점괘가 나와 그가 성을 부수는 무기를 놓고, 큰 소리로 입을 벌려 함성으로 소리를 높이며, 성문들을 향해 성 부수는 무기를 놓고, 공격 경사로를 쌓고, 포위 담을 세울 것이다.

23 그들과 맹세한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 점같이 보일 것이니, 바빌로니아 왕이 그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24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 허물들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너희 죄악을 기억할 것이니, 너희 모든 행위 가운데서 반역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억함으로써 그 손에 사로잡힐 것이다.

25 네 죽임당한 악인, 이스라엘의 높은 자야, 그 날이 이르렀으니, 마지막 형벌의 때이다.

26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니, 그대로 두지 마라.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질 것

이다.

27 내가 그것을 폐허, 폐허,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니, 의로운 자가 올 때 내가 그에게 주겠다.

28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받은 치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할 하였다.’ 하고 내가 말하기를 ‘칼이 살육을 위해 뽑히고, 멸절하기 위하여 번개처럼 번쩍이게 되었다.’ 하라.

29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헛된 환상을 보며 네게 거짓 점을 쳐서, 너를 죽임당한 악인들의 목 위에 둘 것이니, 이는 그의 날이 올 것이며, 곧 죄의 마지막 때이다.

30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아라. 네가 창조된 곳, 곧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31 내가 내 진노를 네게 쏟고 내 격노의 불을 네게 불 것이며, 너를 짐승 같은 사람들, 곧 파괴하기에 능한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32 내가 불의 뿔감이 되고 네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의 피흘림

22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너 인자야, 네가 그 피의 성읍을 심판하고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너는 그 성읍에 계 자기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알게 하여라.

3 내가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그 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러서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 더럽게 된 성읍아.

4 내가 흘린 피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네가 만든 우상들 때문에 네가 더러워졌다. 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며 네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들의 치욕과 온 땅의 조롱이 되게 하였다.

5 네게서 가까운 자들이나 먼 자들이나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니, 네 이름이 더러워졌고 소란이 크기 때문이다.

6 ○보아라, 각자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네 가운데 있다.

7 사람들이 네 가운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네 가운데서 나그네에게 폭력을 쓰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였다.

8 내가 내 성물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으며

9 비방자들이 피를 흘리려고 네 안에 있었으며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산에서 먹고 네가

- 온데서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였다.
- 10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리 중인 여자를 욕보였다.
- 11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하고, 어떤 자는 자기 머리를 음란한 행위로 더럽혔으며, 또 어떤 자는 네 가운데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욕보였다.
- 12 사람들이 네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았으며, 너는 이자와 옷돈을 받고 이웃을 폭력으로 끌어 내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13 오보아라, 네가 취한 부당한 이익과 네 가운데 있는 네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손바닥을 쳤다.
- 14 내가 네게 행동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뎌 내고, 네 손이 강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와 말하였으니, 내가 행하겠다.
- 15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홀고 너를 각 나라에 흩어, 너에게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겠다.
- 16 내가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네 자신을 더럽히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7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18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가운데서 구리나 놋이나 철이나 납이나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 19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라. 너희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겠다.
- 20 사람들이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납이나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것에 불을 붙여 넣어 녹이듯이, 내가 너희를 내 진노와 분노 속에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겠다.
- 21 내가 너희를 한 데 모아 내 격노의 불을 너희에게 뿜으므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 22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듯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을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와 내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을 알 것이다.”
- 23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4 “인자야, 내가 그 땅에게 말하기를 ‘너는 정결하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하라.
- 25 그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음모는 먹이를 쫓으며 포획하는 사자 같다. 그들이 영혼을 삼켰으며, 보물과 귀중품들을 빼앗으며, 그 가운데 과부들이 많게 하였다.
- 26 그 땅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성

- 물들을 모독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눈을 가리고 내 안식일을 보지 못하므로 그들 중에서 모욕을 당하였다.
- 27 그 땅 가운데 있는 고관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 같아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려 영혼을 멸망시키며,
- 28 그 땅의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해 회 칠을 하니, 헛것을 보고 그들에게 거짓 점을 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어도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였다.
- 29 그 땅 백성은 억압하여 억지로 빼앗았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압하였다.
- 30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 31 그러므로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고 내 격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돌렸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오홀라와 오홀리바

- 23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두 여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었다.
- 3 그들이 이집트에서 유행하였으니, 어릴 때 이미 유행하였다. 거기서 그들의 유방이 놀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처녀의 가슴을 만졌다.
- 4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오홀라이고 동생이 오홀리바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 중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 5 ○내게 속한 오홀라가 유행하였으니, 자신의 연인, 곧 그 이웃 아시리아 사람을 사랑하였으니,
- 6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준수한 젊은이들로 말 타는 기마병들이다.
- 7 그 여자가 아시리아 사람들 중 뽑힌 모든 자들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니, 누구를 연애하던지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 더럽혀졌다.
- 8 그 여자가 이집트에서부터 자기의 음란함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어렸을 때, 이미 사람들이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 처녀의 가슴을 만지며 그들의 음란함을 그 여자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 9 그러므로 내가 그 여자를 그 연인들의 손에,

- 곧 그 여자가 연애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 10 그들이 그 여자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여자의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고, 그 여자를 칼로 죽였으므로 여자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여자에게 심판을 행한 것이다.
- 11 ○그 여자의 동생 오홀리바는 그것을 보고도 음욕 때문에 언니보다 더 타락하고 언니보다 더 음행하였다.
- 12 그 여자가 아시리아 아들들에게 음욕을 품었으니, 그들은 싸움에 능하고 화려하게 옷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로서 모두 말 타는 기마병들이며 준수한 젊은이들이었다.
- 13 그 여자가 부정하게 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두 자매가 다 같은 길을 갔으나
- 14 동생이 자기 음란함을 더하였다. 그 여자가 벽에 새긴 남자들, 곧 붉은 색으로 새긴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을 보았는데,
- 15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머리는 수건으로 썼으며, 용모는 모두 존귀한 자들로 갈대아 땅에서 태어난 바빌로니아의 아들들의 모양이었다.
- 16 그 여자가 눈으로 보고 그들을 연애하여 갈대아의 그들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 17 바빌로니아의 아들들이 그 여자에게 가서, 곧 연애하는 침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음행으로 그 여자를 더럽히니, 그 여자가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후에 그 여자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 18 그 여자가 자기의 음행을 드러내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어서 내 마음이 그 여자의 언니에게서 떨어진 것처럼 그 여자에게서도 떨어졌다.
- 19 그러나 그가 이집트 땅에서 유행하였던 자기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는 자기의 음란함을 더하였다.
- 20 그 여자가 그 정부들에게 음욕을 품었으니, 그들의 체제는 나귀들의 육체 같고 그들의 정액은 말의 정액 같았다.
- 21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음란한 행위, 곧 네 어린 유방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네 가슴을 어루만지던 때를 그리워하였다.
- 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네 마음이 멀어졌던 네 연인들을 내가 깨워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 쳐들어오게 하겠다.
- 23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아들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 곧 브룩과 소이와 고아 사람들이며,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리아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모두 준수한 젊은이들로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유명한 자들로 모두 말을

- 타는 자들이다.
- 24 그들이 병기와 병자와 수레와 긴 방패와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투구를 쓴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너를 치러와서 너를 둘러싸겠고, 내가 그들에게 재판을 맡겨, 그들이 자기의 판결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 25 내가 너를 질투하니, 그들이 분노 가운데 네게 행하여, 네 코와 귀를 자르고 남은 자를 칼로 넘어뜨릴 것이며, 네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를 것이다.
- 26 그들이 네 옷들을 벗기고, 네 장식품들을 빼앗을 것이다.
- 27 내가 네 음란한 행위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네 음행을 네게서 그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눈을 들지 못하고,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 28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가 미워하는 자의 손, 곧 네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 29 그들이 너를 미워하여,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맨몸으로 버려둘 것이니, 네 음행의 벌거벗음과 네 음란한 행위와 네 음행이 드러날 것이다.
- 30 내가 이와 같이 당할 것이니, 내가 여러 민족들을 따라 유행하며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혀기 때문이다.
- 31 내가 네 언니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니, 내가 네 언니의 잔을 네 손에 주겠다.
- 32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 “내가 네 언니의 깊고 넓은 잔에 가득히 담긴, 잔을 마실 것이니, 내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 33 네가 술취함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 공포와 패허의 잔이고, 네 언니, 곧 사마리아의 잔이다.
- 34 내가 그 잔을 마셔 다 비우고 그 조각들을 씹으며 네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니, 이는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35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네 등 뒤로 버렸으니, 너 역시 내 음란한 행위와 네 음란함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36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 하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그 역겨운 일들을 알려라.
- 37 그들이 간음하고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자기 우상들과 간음하고 그들이 내게 낳아 준



그들의 자식들조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우상들이 삼키게 하였다.  
 38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더 행하여 그 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모독하였다.  
 39 그들이 우상들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도살  
 했던 바로 그 날,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  
 으니 보아라, 그들이 이같이 내 성전 가운데  
 서 행하였으며,  
 40 심지어 멀리 사신들을 보내 사람들을 오게  
 하였고 보아라, 그들이 오자, 그들을 위해 목  
 육하고 눈을 화장하며 장신구를 달고  
 41 화려한 의자에 앉아 앞에 놓인 탁자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차려 놓았다.  
 42 편안한 무리들의 소리가 그 여자들과 함께  
 하고, 부랑자들과 술 취한 자들이 광야에서  
 초청받아 와서, 그 여자들의 손에 팔찌를  
 끼우고, 그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웠  
 다.  
 43 ○이에 내가 음행으로 늙어 추해진 여자에 대  
 해 말하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여자와 음  
 란한 행위를 계속하느냐?' 고 하였다.  
 44 그들이 창기에게 가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인  
 오흐라와 오흐리바에게 갔으니,  
 45 의로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법과  
 피를 흘린 여자에 대한 법으로 그들을 심판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간음한 여자들이며,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46 ○참으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무리들  
 이 올라와 그들을 치게 하여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며 약탈당하게 하겠다.  
 47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쪼갤 것이며,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로 사를 것이다.  
 48 내가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그치게 할 것  
 이니, 모든 여자들이 후계를 받아 너희의 음  
 란한 행위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49 사람들이 너희 음란한 행위를 너희에게 돌림  
 으로 너희가 너희 우상들로 말미암은 죄를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  
 을 알게 될 것이다."

**24** 1 ○여호와와 말씀이 제 구년 시월 십일  
 에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너는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  
 하여라. 비빌로니아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  
 려에 들어닥쳤다.  
 3 네가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  
 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는 가마술을 설치하여 놓고  
 그 안에 물을 부어라.'

4 너는 거기에 고깃덩어리들,  
 곧 좋은 고깃덩어리들을  
 모두 모아 넣고  
 넓적다리들과 어깨 고기와  
 잘 고른 뼈들로 채워라.  
 5 너는 양 떼들 중에  
 좋은 것을 잡아 넣고,  
 뿔감들을 그것 아래 쌓아  
 뼈들이 그 가운데서 물러지도록  
 그것을 펄펄 끓여라.  
 6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화  
 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읍, 곧 녹이 슬었  
 으나 그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술아,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덩어리를 차례대로 다 꺼내  
 어라.  
 7 성읍의 피가 그 가운데 있으니, 성읍이 피를  
 벌거숭이 바위 위에 두고 땅 위에 쏟지 않아,  
 흙이 덮이지 않게 하였다.  
 8 내가 분노를 일으켜 보복하려고 그의 피를  
 벌거숭이 바위 위에 두어 덮이지 않게 하였  
 다.  
 9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읍아. 내가 또 장작더  
 미를 크게 쌓겠다.  
 10 너는 나무를 많이 쌓아 불을 피우고, 고기를  
 삶아 국물을 졸이고 그 뼈들은 타게 하고,  
 11 그 빈 가마술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놈  
 이 뜨겁게 달궈지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더러  
 운 것이 녹게 하여서 그 녹이 완전히 없어지  
 게 하여라.  
 12 성읍이 수고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거기  
 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그 녹이 없  
 어지지 않는다.  
 13 네 더러움 속에 음란이 있다. 내가 너를 정결  
 하게 하려 했으나 네가 정결하게 되지 않았  
 다. 내가 너를 향한 내 분노를 가라앉힐 때까  
 지 다시는 내가 네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  
 지 아니할 것이다.  
 14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하되, 소홀히 여기거나 좌주  
 거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겠다. "내가 네 길  
 과 네 행위로 너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  
 의 말이다."  
 15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16 "인자야, 보아라. 내가 네 눈에 소중한 것을  
 한 번 쳐서 네게서 빼앗을 것이니, 너는 통곡  
 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17 너는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들을 애도하  
 지 말며 네 두건을 두르고, 네 발에 신을 신으  
 며, 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음식도 먹

지 마라."  
 18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다음날 아침에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  
 19 ○이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러  
 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 주지 않겠소?" 하므로  
 20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너희 권세의 자랑이  
 그 너희 눈에 소중한 것이며 너희 마음의 기  
 쁨인 내 성소를 내가 모독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남겨 둔 너희 아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22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할 것이다. 너희가  
 수염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다.  
 23 너희 두건을 너희 머리에 두르고 너희 신을  
 너희 발에 신은 채 너희가 통곡하거나 울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너희 죄악 때문에 쇠하  
 고, 서로 바라보며 탄식할 것이다.  
 24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 것이다. 이 일이 이  
 루어지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25 ○"너 인자야, 내가 그 날에 그들의 피난처와  
 그 기뻐하는 영광과 그들의 눈에 기쁜 것과  
 그들의 마음을 둔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가는 날.  
 26 그 날에 한 도망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들려  
 줄 것이다.  
 27 그 날에 네 입이 열려 네가 도망자에게 말하  
 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  
 들에게 표징이 되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25**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자손들에게  
 향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연언하여라.  
 3 내가 암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와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 성소가 더러워졌을 때 네가 그  
 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  
 네가 그것을 향하여, 또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네가 그것을 향하여 '아하, 잘됐  
 다.' 라고 말하였다.  
 4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를 동방 자손들의  
 소유로 내어 줄 것이니, 그들이 네 안에 그들  
 의 진을 치고, 네 안에 그들의 거처를 둘 것이  
 다. 그들이 네 실과를 먹고 그들이 네 젖을 마  
 실 것이다."

5 내가 랍바를 낙타들의 초장으로, 암몬 자손들  
 을 양 떼의 우리로 만들겠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6 참으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손  
 뻗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스라엘 땅에 대해  
 온전히 멸시하며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7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여러 민족들에게 노략물로 주겠다. 그  
 리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끊고 내  
 가 너를 멸하여 땅에서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  
 다."  
 8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모압과 세일  
 이 말하기를 보아라. 유다 족속도 모든 다른  
 민족들과 같다고 한다.  
 9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모압의 한편에 있는  
 성읍들, 곧 변방의 성읍들로부터 아름다운  
 땅 벳어시돔과 비알모온과 기라디임까지 열  
 고,  
 10 암몬 자손들과 함께 동방 자손들에게 넘겨주  
 어, 암몬 자손들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더 이  
 상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11 내가 모압을 심판하겠으니, 그들은 내가 여호  
 와인 것을 알 것이다.'  
 12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보복하러 원수를 갚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크게 범죄하였다.  
 13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에돔에게 내 손을 뻗어 거기서 사람이나 짐승  
 이나 할 것 없이 다 끊어 버리고 내가 데만에  
 서부터 드단까지 폐허로 만들겠으니, 그들이  
 칼에 없들러질 것이다.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맡겨 에돔에 대  
 한 내 보복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노와 내  
 분노대로 에돔에게 행할 것이니, 그들이 나의  
 보복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  
 다."  
 15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  
 들이 복수심을 가지고 행하였고, 그들이 영  
 원한 적개심으로 멸망시키고자 경멸하는 마  
 음으로 철저히 보복하였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  
 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손을 뻗어, 그  
 렛 사람들을 끌어 버리고, 바닷가에 남은 자  
 들을 진멸하겠다.  
 17 내가 그들에게 분노의 징벌로 큰 보복을 행하  
 겠으나,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26** 1 ○제 십일 년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잘됐

다. 백성들의 문이 부서져 내게로 넘어왔다.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3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두로야, 내가 너를 치겠으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킬같이 내가 너를 치기 위해 수많은 민족들을 올라오게 하겠다.

4 그들이 두로의 성벽들을 파괴하고 그 망대들을 헐 것이며 나도 거기서 티끌을 쓸어 버리고 그것을 별자성이 바위로 만들겠다.

5 그것이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마른 곳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다. '그것이 여러 민족들에게 노략물이 될 것이다.

6 그리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7 O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왕들의 왕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마병과 무리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로를 치러 오도록 하겠다.

8 그가 들에 있는 네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포위 담을 쌓고, 공격 경사로를 만들고, 너를 대적하여 긴 방패를 세울 것이다.

9 그가 성 부수는 무기로 네 성벽에 타격을 주고 네 망대를 쇠막대로 부술 것이다.

10 그의 딸들이 많아서 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며 성의 무너진 곳으로 들어오듯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올 때, 기마병과 수레와 병거 소리들로 네 성벽들이 진동할 것이다.

11 그가 그의 말발굽들로 네 모든 거리를 짓밟고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튼튼한 돌 기둥들이 땅에 무너질 것이다.

12 그들이 네 재물을 약탈하고, 네 물품을 빼앗으며, 네 성벽을 허물고, 네 소중한 집들을 무너뜨리며, 네 석재와 네 재목과 네 흙을 물 가운데 던져 버릴 것이다.

13 그리고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고, 네 수금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14 내가 너를 별자성이 바위로 만들겠으니, 네가 그물 피는 마른 곳이 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15 O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게 말씀하신다. '중상을 입은 사람이 신음하고, 너희 중에 살육이 일어날 때, 네 무너지는 소리로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16 바다의 모든 높은 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오며 그들의 걸음을 벗고, 그들의 수놓은 옷들을 벗으며, 그들이 두려움으로 옷 입

고 땅 위에 앉아 수시로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17 그들이 너에 대해 얘가를 부르며 말할 것이다.

바다의 거주자, 유명한 성아, 어찌 네가 멸망하였느냐? 그 성이 주민들과 함께 있어 바다에서 견고하므로, 그들이 육지의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18 네가 무너지는 날에 그 섬들이 진동하며, 네 종말 때문에 바다의 섬들이 놀랄 것이다.'

19 O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람들이 살지 못할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물을 네 위로 올라오게 하여 많은 물이 너를 덮어 버리게 할 때,

20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날 백성들에게 내려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깊은 곳 곧, 옛날의 폐허와 같은 곳에 살게 하여, 네게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산 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두겠다.

21 내가 너를 멸망시켜, 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네가 영원히 발견되지 아니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두로에 대한 애가**

27 1 O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너 인자야, 너는 두로에 대해 얘가를 불러라.  
3 네가 바다 어귀에 살면서 많은 해안의 백성들과 무역하는 자에게 네가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두로야, 네가 '나는 완벽하게 아름답다.' 라고 스스로 말한다.

4 네 영토가 바다의 중심에 있으며, 너를 세운 건축자들이 네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하였다.

5 그들이 스닐의 전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네 돛대를 만들었다.

6 그들은 바산의 참나무로 네 노를 만들고 상아와 키프로스 섬의 회향목으로 네 갑판을 만들었다.

7 이집트의 수놓은 아마포가 네 돛이며,

그것이 네 깃발이 되었고, 엘티사 섬들의 자주색, 홍색 천이 네 덮개였다.

8 시돈과 아르뵿 주민들이 네 사공이었으며, 두로야, 네게 있는 숙련된 자들이 네 선원들이다.

9 그발의 노인들과 숙련된 자들이 네게 있어서 틸을 막고, 바다의 모든 배와 뱃사람들이 네게 있어서 네 물품을 교역할 수 있었다.

10 O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 사람들이 네 군대에서 전사들이 되었고, 방패와 투구를 네게 걸어 주어 네 영광을 나타냈다.

11 아르뵿 자손들과 네 군대가 너의 사방 성벽 위에 있었고, 기마 사람들은 네 망대들 안에 있었다. 그들이 너의 사방 성벽에 그들의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하였다.

12 O네게 온갖 보화가 풍부하여 다시스가 너와 교역하였으니, 그들이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네 물품들을 샀다.

13 아란과 두발과 메섹이 너와 무역하였으니, 그들이 노예와 돛 기물을 주고 네 상품들을 샀다.

14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네 물품들을 샀다.

15 드단 자손들이 너와 무역하였다. 많은 해안 지방들이 너와 통상하였으니, 그들이 상아와 흑단나무로 네게 값을 지불하였다.

16 네 생산품이 풍부하여 이람이 너와 교역하였으니, 그들이 녹옥과 홍색 배와 오색 천과 고운 배와 산호와 홍옥을 주고 네 물품들을 샀다.

17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너와 무역하였으니, 그들이 민넛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주고 네 상품들을 샀다.

18 네 생산품이 풍부하고 네게 온갖 보화가 풍부하여 다마스쿠스가 너와 교역하였으니, 그들이 헬보 포도주와 자랄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하였다.

19 워단과 아란은 길쌈하는 실을 주고 네 물품들을 샀다. 가공한 철과 계피와 창포가 네 상품들 중에 있었다.

20 드단은 말을 탈 때 안장에 끼는 천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하였다.

21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높은 자들이 너의 고객들이었으니,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로 너와 교역하였다.

가) 헬 '용서할'

22 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이 너와 무역하였으니, 모든 향신료 중 최상급과 각종 보석과 금을 주고 네 물품들을 샀다.

23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의 무역상들과 아시리아와 길앗이 너와 무역하였다.

24 그들이 너와 무역하였으니, 화려한 옷들과 청색 옷과 수놓은 천들과 두 가지 색실로 짠 양탄자와 견고하게 꼰 밧줄로 너와 무역하였다.

25 다시스의 배들이 네 교역 물건들을 싣고 항해하였으며, 너는 물품들을 가득히 무겁게 싣고 바다 가운데로 갔다.

26 네 사공들이 너를 많은 물 가운데로 인도하였으나, 동풍이 너를 바다 가운데서 파선시켰다.

27 네가 없던지는 날에 네 보화와 네 물품들과 네 교역 물건들과 네 뱃사람들과 네 선원들과 틸을 메우는 자들과 네 교역 물건들을 교역하는 자들과 네게 있는 모든 병사들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다.

28 네 선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흔들릴 것이다.

29 노를 젓는 모든 자들과 뱃사람들과 바다의 모든 선원들이 자기 배에서 내려와 땅에 서서,

30 네게 크게 소리치며 비통하게 울부짖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재 가운데서 뒹굴 것이다.

31 그들이 너를 위해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두르며, 머슴이 아파, 비통하게 탄식하며 너를 위해 울 것이다.

32 그들이 너를 위해 비탄에 잠겨 얘가를 부를 것이니, 너를 위해 슬퍼 할 것이다.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멸망한 자가 누구냐?'

33 네 물품들이 바다에서 올라올 때, 네가 많은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네 많은 보화와 네 물건들로 세상의 왕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34 이제 네가 바다에서 파선하여,



네 교역 물건들과 네 모든 무리가  
 너와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빠졌다.  
 35 섬의 모든 주민들이  
 너 때문에 놀라고,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날 것이다.  
 36 백성들 중 상인들이  
 네게 아유를 보낼 것이다.  
 멸망이 네게 임하였으니,  
 네가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 두로 주권자의 운명 선포

28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너는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  
 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신  
 들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며, 네 마음이 신들의 마음과 같다고 여  
 길지라도, 너는 사람이니 신이 아니다.  
 3 보아라, 네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  
 떤 비밀이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고,  
 4 네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스스로 재물을  
 얻어 금과 은을 네 보물 창고에 두었다.  
 5 네가 무역할 때, 네 풍부한 지혜로 재물을  
 불렀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  
 만하게 되었다.  
 6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네  
 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다.  
 7 보아라, 내가 네게 이방인, 곧 가장 포악한  
 민족을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칼을 뽑아  
 네 탁월한 지혜를 치고 네 영화를 더럽히  
 며  
 8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네가 바다 가운데  
 서 살육당한 자처럼 죽게 될 것이다.  
 9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신이  
 다.’라고 참모로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를 살육하는 자들의 손 안에 있는 사람  
 이지 신이 아니다.  
 10 네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같이 이방  
 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는 네  
 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  
 다.”

### 두로 왕에 대한 애가

1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1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며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  
 다.  
 ‘너는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으며, 지혜  
 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13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곧 홍옥과 황수정과 다이아몬드와 녹  
 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터키옥과  
 녹옥과 금으로 단장하였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해 작은복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서 살게  
 하여, 네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  
 었다.  
 15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6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폭력이  
 가득하였으니, 네가 죄를 지었다. 지키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 불타는 돌 사이에서 멸망시  
 켜졌다.  
 17 네 이름다운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영화로움 때문에 네 지혜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너를 구  
 경거리로 만들겠다.  
 18 너는 죄악이 많고 불의한 방법으로 무역하  
 여 네가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므  
 로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  
 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를 땅 위의  
 재로 만들었다.  
 19 민족들 중에 너를 아는 자들이 너 때문에  
 다 놀라며, 네가 멸망한 자가 되어, 네가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 민족들에 대한 여호와와 일성포

20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1 “인자야, 네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 성을  
 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22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시돈아, 내가 너를 쳐서 네 가운데  
 서 영광을 받겠다. 내가 그에게 심판을 행  
 하여 내 거룩함을 그에게 나타낼 때, 그들  
 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23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그의 거리  
 에 피가 흐르게 하겠으며 사방에서 물려  
 오는 칼에 다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  
 이다.  
 24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들을 멸시하던 모  
 든 주변 나라의 찌르는 찔레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니,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25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갔던 여러 나라에서  
 모아 오고,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  
 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그들은 내  
 가 내 종 아람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26 그들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만들 것이다. 내가 주변 나라들  
 가운데 그들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  
 면,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  
 다.”

### 이집트에 대한 예언

29 1 ○제 십년 시월 십이일에 여호와와 말  
 씬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네 얼굴을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3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네가 말하기를  
 ‘내 니일 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한다.  
 4 내가 네 아가미를 갈고리들로 꿰고,  
 네 강들의 고기를  
 네 비늘들에 달라붙게 하고,  
 네 비늘들에 붙은  
 강 모든 고기와 함께  
 네 강 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겠다.  
 5 내가 너와 네 강들의 모든 고기를  
 광야로 던지겠으니,  
 네가 들판 위에 떨어져  
 다시는 너를 거두거나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너를 먹이로 주었다.  
 6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  
 팡이었기 때문이다.  
 7 이스라엘이 네 손을 잡을 때, 네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으며, 그  
 들이 네게 기밀 때, 네가 부러져 오히려 그  
 들의 모든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였다.  
 8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  
 라, 내가 네게 칼을 가져와 네게서 사람과 짐  
 승을 끊어 버리겠다.  
 9 이집트 땅이 황무지와 황폐한 곳이 될 것이  
 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가 ‘니일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  
 다.’라고 말한다.  
 10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이집트 땅을 밀목에서 수에네, 곧 에티오피아

지경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겠다.  
 11 사람의 발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짐  
 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여, 사십 년 동안  
 아무것도 살지 못할 것이다.  
 12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해진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하여,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이집트의 성읍들이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들에게 흩어 버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 헤치  
 겠다.  
 13 ○참모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사십 년  
 이 끝나면 내가 이집트를 그들이 흩어져 갔던  
 백성들 중에서 다시 모으겠다.  
 14 내가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  
 로스 땅, 곧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  
 여,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왕국이 될 것이  
 다.’  
 15 그 왕국들 중에서 가장 미약하여,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  
 16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항할  
 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어 그들은 내  
 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느부갓네살을 위로는 상급인 이집트

17 ○제 이십칠 년 일월 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18 “인자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기 위해 자기 군대에게 힘든 노동을 시켜,  
 모두 머리털이 벗겨지고 모두 어깨가 벗겨졌  
 으나, 그와 그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  
 고에도 불구하고 두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19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  
 라,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  
 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가져  
 고 그를 약탈하고 노략할 것이며 그의 군  
 대가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20 그가 두로 때문에 수고한 보상으로 내가 그  
 에게 이집트 땅을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 말  
 이다.  
 21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겠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  
 다.”

### 이집트에 임한 여호와와 날

가) 이집트어, ‘남방’이란 뜻으로 상류 이집트를 가리킨다.

- 30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통곡하여라.  
그 날에 화가 있을 것이다.  
3 날이 가까우니,  
곧 여호와와 날이 가깝다.  
그것은 구름의 날,  
곧 민족들의 때이다.  
4 칼이 이집트에 임하고  
에티오피아에 공포가 있을 것이니,  
이집트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이다.  
이집트가 재물을 빼앗기며  
그 기반들이 헐릴 것이다.  
5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모든 여러 민족들과 굶과 동맹한 나라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6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의 지지자들도 쓰러지고 그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그들이 미들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7 ‘그들이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더욱 황폐할 것이며, 그 성읍들도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8 내가 이집트에 불을 보내고 그를 돕는 모든 자를 부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9 ○그 날에는 내가 보낸 사신들이 배를 타고 나아가 편안한 에티오피아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제왕의 날에 에티오피아 사람들 에게 공포가 있을 것이니, 보아라, 그 일이 닥쳐올 것이다.  
10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내가 이집트의 무리를 끊어 버리겠다.  
11 그가 민족들 중에 가장 잔인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진멸시킬 때에,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대적하여 그 땅을 살육당한 자로 채울 것이다.  
12 내가 그 강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악인들의 손에 팔며, 그 땅과 그 땅에 충만한 것들을 타국인들의 손으로 황폐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와 말한다.  
13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방 신들을 멤피스에서 끊어 버리고 다시는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주겠다.  
14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에 불을 놓고 테베를 심판하겠으며,

- 15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인 신에 쏟고 또 테베의 무리를 끊어 버리겠다.  
16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을 것이니, 신이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테베가 찢겨지며 멤피스가 낮에 대적을 만날 것이다.  
17 이웬과 비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18 내가 거기서 이집트 땅에들을 꺾으며, 그의 교만한 권세를 그곳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헤스에서는 낮도 어두울 것이고 구름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19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겠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바로의 팔을 꺾을

- 20 ○제 십일 년 일월 칠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21 “인자야,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으니, 보아라, 그 팔이 치료받지 못하고 붕대를 감아 싸매지도 못하여, 칼을 잡을 수 있도록 성하게 회복되지 못했다.  
22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의 성한 팔과 함께 이미 부러진 팔도 부러뜨려 그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겠다.  
23 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 버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 헤칠 것이며,  
24 바빌로니아 왕의 팔들을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 손에 주겠으나 바로의 팔들은 부러뜨리겠으니, 바로가 그 앞에서 상처 입은 자처럼 신음할 것이다.  
25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들은 강하게 하고, 바로의 팔들은 떨어뜨리겠다. 내가 내 칼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주어, 그가 그 칼을 이집트 땅에 찌를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26 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 헤치겠으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레바논의 백향목

- 31 1 ○제 십일 년 삼월 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네가 네 위대함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3 보아라, 아시리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아름다운 가지와 숲의 그들과 높은 키로 그 꼭대기가

- 큰 가지 사이에 높이 솟아 있다.  
4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깊은 물이 그 키를 높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고, 그 물길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뻗었다.  
5 그 나무가 뻗을 때, 많은 물 가운데 있어 그 키가 들의 모든 다른 나무들보다 크며, 그 큰 가지들은 번성하고 가는 가지는 길게 자랐다.  
6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았으니, 많은 민족들이 모두 그 그늘에서 지냈다.  
7 그 가지가 크고 길이 모양이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물이 풍부한 물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를 가릴 수 없고, 잣나무도 그 작은 가지만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동산 어떤 나무도 그와 비길 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9 내가 그 가지의 무성함으로 그를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1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키가 높이 솟고 그 꼭대기가 큰 가지 사이에 놓여 있으므로, 높은 키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11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 민족들 중 가장 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의 사악함대로 그에게 반드시 갚겠으니, 이는 내가 그를 쫓아내었기 때문이다.  
12 이방인 곧 여러 민족들 중 가장 잔인한 자들이 그를 잘라 내버렸으니, 그 작은 가지들은 산들과 모든 골짜기들에 떨어졌고, 그 큰 가지들은 부러져 그 땅 모든 계곡에 있으며, 그 땅 모든 민족들은 그 그늘을 떠나 그를 버려두었다.  
13 그 쓰러진 나무에 공중의 모든 새가 머물고, 그 가지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살 것이다.  
14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자기의 키

- 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 꼭대기가 큰 가지들 사이로 뻗지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들 모두가 지하 세계, 곧 구렁이로 내려가는 인간들과 함께 죽음에 넘겼기 때문이다.  
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가 스올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로 인하여 슬피 울고, 그를 위해 깊은 땅을 덮으며 큰 물을 막아 그 강줄기들을 멈추게 하였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들의 모든 나무들이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도록 만들었다.  
16 내가 그를 구렁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내려가게 할 때, 그 쓰러지는 나무의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니, 물을 대어 레바논에서 가장 빼어나게 자란 나무와 에덴의 모든 좋은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 를 받았다.  
17 그러나 그들도 함께, 스올로 내려가 칼에 살육을 당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으며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그늘에서 살았다.  
18 ○네 영화와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 어떤 것과 비교되었느냐?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져,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 모든 무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바로와 이집트에 대한 애가

- 32 1 ○제 십일 년 십이월 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인자야,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 애가를 부르며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여러 민족들 중 젊은 사자와 견주지만, 너는 바다 가운데 있는 괴물과 같다. 너의 강들에서 물기둥을 일으키고, 너의 발들로 물을 휘저으며, 그 강들을 더럽혔다.  
3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들과 함께 네 그물을 네 위에 펼칠 것이니, 그들이 네 그물로 너를 끌어올릴 것이며,  
4 너를 땅에 내버리고, 너를 들만에 내던져서, 공중의 모든 새들로 네 위에 깃들게 하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다.  
5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들에 널어 두어 네 시체로 골짜기들을 채울 것이며,  
6 네 흘러 나온 피를 산들에 이르기까지 땅



- 에 적시게 할 것이니, 계곡들이 네 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 7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서 그 별들을 어둡게 하며, 내가 구름으로 해를 가리고 달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 8 하늘의 모든 빛나는 광채들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며 흑암을 네 땅에 베풀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9 ○내가 열국, 곧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들에게 네 멸망의 소식을 전하여, 내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케 할 것이다.
- 10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을 경악케 하며,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둘러 때, 그들의 왕들이 너 때문에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쓰러지는 날에 그들 각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 계속 쉴 것이다.
- 11 ○참으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내게 닥칠 것이다.
- 12 내가 네 무리를 용사들의 칼로 쓰러뜨릴 것이니, 그들 모두는 민족들 중 가장 잔인한 자들이다.
- 그들이 이집트의 교만을 멸할 것이니, 그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다.
- 13 내가 그 모든 짐승을 많은 물가에서 죽일 것이니, 사람의 발이 다니는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며, 들짐승의 굶음이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 14 그 때 내가 그들의 물을 맑게 하고, 그들의 강들이 기쁨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15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그 땅에 가득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하고, 내가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칠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6 이것은 슬피 부를 애가이니, 여러 민족들의 딸들이 그 노래를 슬피 부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애가를 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이집트가 스올로 내려감**
- 17 ○제 십이 년 그 달 십오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18 “인자야, 이집트의 무리에 대해 슬피 울며, 이집트와 여호로온 민족들의 딸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며,
- 19 내가 누구보다 아름다우나, 내려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 20 그들은 칼에 살육당한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이집트가 칼에 넘겨졌으니, 이집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어가거라.
- 21 가장 강한 용사들이 스올 가운데서 그와 그를 돕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할례 받지

- 못한 자들,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 누웠다. 할 것이다.
- 22 ○아시리아와 그의 모든 무리가 거기 있고, 그 사방에 그의 무덤들이 있다. 그들 모두 살육당하고 칼에 쓰러진 자들이다.
- 23 그의 무덤들은 가장 깊은 구덩이에 마련되었고, 그의 무리는 그의 무덤들 주변에 있으니, 그들 모두 살육을 당하고, 칼에 쓰러진 자들이고, 산 자의 땅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들이다.
- 24 ○엘람과 그 모든 무리가 거기, 곧 그의 무덤들 주변에 있으니, 그들 모두 살육을 당하고, 칼에 쓰러져, 할례 받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들은 산 자의 땅에서 공포를 주었으니, 구덩이에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했다.
- 25 그들은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해 살육당한 자들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무덤들이 주변에 있으니, 그들 모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고,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산 자의 땅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구덩이에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했고, 침상은 살육당한 자들 가운데 놓였다.
- 26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거기 곧 그 무덤들 주변에 있으니, 그들 모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고,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산 자의 땅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 27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쓰러진 용사들과 함께 눕지 않고, 자기들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 자기들의 칼들을 자기들의 머리 아래 두었으니, 그들의 죄가 그들의 뼈위에 있었으니, 그 용사들의 공포가 산 자의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 28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부서질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 29 ○에돔과 그의 왕들과 그의 모든 통치자들이 거기 있으니, 그들이 용맹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 30 북방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모든 시돈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 그들이 본래 용맹하여 남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에는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가 수치를 당하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누우며, 구덩이에 내려간 자들과 함께 치욕을 당할 것이다.
- 31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 곧 칼로 살육당한 바로의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

의 말이다.

32 내가 산 자의 땅에 공포를 줄 것이니,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마지막 소환 (겔 3:16~21)

- 33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땅에 같이 임하게 했을 때, 그 땅 백성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면,
- 3 그가 그 땅에 같이 임한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 4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같이 다쳐 그를 친다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 5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니,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 6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그 같이 임한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같이 임하여 그들 중에 한 목숨을 죽게 한다면, 그 죽은 자는 자기 죄악으로 죽은 것이니 그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 7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 8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만약 네가 악인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 9 그러나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으나, 그가 자기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너는 네 목숨을 건질 것이다.
- 10 ○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쇠하게 되니, 어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였다.
- 11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니, 돌이켜라. 너희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 12 ○너 인자야,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이 죄를 범하는 날에는 그의 의가 그를 건지지 못하고, 악인이 자기 사악함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자신의 사악함으로 말

미암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는 못할 것이다.

13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어도, 그가 자기 의를 믿고 불의를 행하면, 자기 모든 의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행한 자기 불의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14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15 그가 전당잡은 물건을 돌려주며, 빼앗은 물건을 보상하고, 생명의 올레 가운데 행하여 다시는 불의를 행치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16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은 그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17 ○네 백성의 자손들은 말하기를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 사실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다.

18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며,

19 악인이 자기 사악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20 너희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라고 말하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 예루살렘의 함락

21 ○우리가 포로 된 지 십이 년째 되는 시월 오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생존자가 내게 나아와 ‘그 성이 함락되었다.’ 라고 전했다.

22 그 생존자가 나아오기 전날 저녁, 여호와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고,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오기 전에 내 입은 열렸으므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유다에 남은 자들**

23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4 “인자야, 이스라엘 피폐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도 이 땅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

25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피째로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쏟으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26 너희가 너희 칼을 의지하여 역겨운 일을 하며 각자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27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

- 니, 폐허에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들판에 있는 자는 내가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 28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고 그 교만한 권력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여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 29 그들이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30 “너 인자야, 네 백성의 자손들이 담 결이나 집 문에서 너에 대해 서로 자기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 보자.’ 하고
- 31 백성이 모여들듯 그들이 네게 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네 앞에 앉아 네 말을 듣고 그 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 32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 33 보아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한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목자들이 양

- 34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 떼를 먹어야 하지 않느냐?
- 3 너희가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 입고 살진 양을 잡으나 너희가 양 떼는 먹이지 않는다.
-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는 폭력과 잔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 5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 6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내 양 떼가 온 땅에 흩어졌으나 찾고 찾는 자가 없다.
- 7 그러므로 목자들이야, 여호와와 말을 들어라.
- 8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 양 떼가 노략물이 되고, 내 양 떼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 떼를 찾지 않으며, 자기만 먹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 9 ○그러므로 목자들이야, 여호와와 말을 들어라.
- 10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양 떼를 먹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니, 내 양이 다시는 그들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이다.
- 11 ○참으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필 것이다.
- 12 자기 양 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그 양 떼를 돌보는 것같이, 나 역시 내 양 떼를 돌보아 호리고 감감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 13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끌어 내며,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을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들과 골짜기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일 것이다.
- 14 내가 좋은 풀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초장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둘 것이다. 그들이 거기 좋은 초장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풀을 먹을 것이다.
- 15 내가 내 양 떼를 치며 내가 그들을 놓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16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 흩어진 것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며, 병든 것을 강하게 할 것이니, 살진 것과 강한 것은 내가 멸하며 공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 17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 양 떼 너희여, 보아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를 심판한다.
- 18 너희가 가장 좋은 초장에서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너희 남은 초장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뒤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혔느냐?
- 19 나의 양 떼는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마른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 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밖으로 흩어지게 하니,
- 22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략물이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 23 내가 그들을 먹이는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는 그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 24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와 말이다.
- 25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 속에서 잠들 것이다.
- 26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 27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애를 부수고 종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28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들의 노략물이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 29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농토를 주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30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31 너희는 내 양 떼 곧 내 초장의 양 떼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에돔에 대한 예언

- 35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 3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 세일 산아, 내가 너를 칠 것이니, 내 손을 네게 뻗어 너를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 4 내가 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네가 황무지가 되며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5 너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한을 품고, 그들의 재앙의 때 곧 마지막 형벌의 때에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었다.
- 6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로 피를 흘리게 하므로, 피가 너를 뒤따를 것이다. 내가 피를 싫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가 너를 뒤따를 것이나.

가) 혹은 ‘지도자’

- 7 내가 세일 산을 황무지와 공포의 장소로 만들어 그곳에 왕래하는 자를 끊어 버릴 것이다.
- 8 내가 그 산을 살육당한 자들로 채우리니, 내 언덕과 내 골짜기와 내 모든 계곡에는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쓰러져 있을 것이다.
- 9 내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할 것이나.
-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0 ○내가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게 속했으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한다.
-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미움과 분노와 질투를 품고 그들에게 행했던 대로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에게 나를 알릴 것이다.
- 12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내가 이스라엘 산들에게 ‘그것들이 황폐하였으니,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 라고 말하는 내 모든 비방을 내가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13 너희가 너희 입으로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고 나를 대적하여 많이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 14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케 할 것이다.
- 15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유업이 황폐하게 되어 즐거워한 것같이, 내가 네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세일 산과 온 에돔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이스라엘이 받을 복

- 36 1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이스라엘 산들이야,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어라.
- 2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원수가 너희에게 ‘아하, 잘됐다.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유업이 되었다.’ 고 말하였다.
- 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서 너희가 다른 민족들의 소유가 되고,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다.
- 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이야, 주 여호와와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산들과 언덕들과 계곡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폐허들과, 그리고 사방 다른 민족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채 버려진 성읍들에게 말한다.



- 5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내 불 같은 질투로 나머지 민족들과 에돔 모두에게 말한다. 그들이 전적으로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혼으로, 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 목초지를 노략물로 삼았다.
-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 예언하여, 그 산들과 언덕들과 계곡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으므로, 내가 내 질투와 분노 가운데 말한다.
- 7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니, 너희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같은 모욕을 당할 것이다.
- 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가 가지를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과일을 맺을 것이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기 때문이다.
- 9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돌이킬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 10 내가 너희 뒤에 사람을 많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다. 그들이 성읍에 살며 황폐한 곳들이 재건될 것이다.
- 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이나 짐승이 많아지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위에 이전처럼 사람이 살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12 내가 사람들,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며 그들이 너를 소유하고 너는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니, 그들이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 13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삼킨 자이고, 네 민족에게서 자식을 빼앗는 자다.' 라고 말한다.
- 14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네 민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 15 내가 너로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게서 모욕의 말을 듣지 않게 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들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니, 내가 네 민족을 다시는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 16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땅에 살 때, 그들의 길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으니, 내 앞에서 그들의 행위는 생리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 같았다.
- 18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흘리고, 자기 우상들

- 로 그 땅을 부정케 했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내 분노를 쏟아
- 19 내가 그들의 길과 행위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흠뻑 여러 민족에 헤했다.
- 20 그들이 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와 땅에서 내보낸 자라.' 고 하였기 때문이다.
- 21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민족들 중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졌다.
-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 23 너희가 더럽혔으므로, 민족들 중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 24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 25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 26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 27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 28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 29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 30 그리고 내가 나무의 과일과 밭의 소산이 많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 31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 죄악들과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 32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닌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너희 행위들을 수치스럽게 여겨라.

- 33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그 날에, 내가 성읍에 사람이 살게 하고 황폐한 곳들을 재건할 것이다.
- 34 황무지가 경작될 것이니, 지나는 모든 자의 눈에 더 이상 황무지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 35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황무지가 예전 동산같이 되었고, 삭막하고 황폐하여 무너진 성읍들이 견고해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할 것이다.
- 36 그러면 너희 사방의 다른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내가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황폐한 곳을 경작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실행할 것이다.
- 37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양 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 38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 절기의 양 떼같이, 황량한 성읍들이 사람으로 가득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 마른 뼈들이 살아남

- 37 1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와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 2 그가 나를 뼈들 주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였는데 보아라, 뼈들이 골짜기에 매우 많이 있었고 매우 말라 있었다.
- 3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시심." 하였더니,
- 4 그가 내게 말씀하였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이라.' 하여라."
- 5 주 여호와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 6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이 올라오게 하며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7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니,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보아라, 요란한 소리였다. 뼈들이 함께 모여 뼈가 그의 뼈에 이어졌다.
- 8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겼는데,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
- 9 그가 내게 말씀하였다.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인자야, 너는 그 생기에게 예언하여

-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생기가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 10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 11 ○그러나 내게 말씀하였다.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보아라, 그들이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멸망하였다.' 라고 말한다."
- 12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 13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 14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실행할 것이다.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 15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 이라고 써라. 그리고 너는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 곧 에브라임의 나무와 그의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라고 쓰고
- 17 그들을 서로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 18 네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거든
- 19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친구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들을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 20 그리고 내가 글을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 앞에서 네 손에 잡고,
- 21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갓던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 22 내가 그들을 그 땅, 곧 이스라엘 산들에서 한 나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않

- 을 것이다.
- 23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우상들과 자기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자기의 모든 죄악들로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범죄한 모든 장소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될 것이다.
- 24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 가운데 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 25 내가 내 종 아람에게 준 땅 곧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니,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거기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며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고,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 27 내 처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 28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열국이 알 것이다.”

- 38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로스 곧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 3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인 너 곡을 대적할 것이다.
- 4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고 네 턱에 갈고리를 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네 모든 군대, 곧 말들과 화려하게 옷 입은 모든 기마병들과 긴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고 칼로 중무장한 큰 무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 5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 6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최북단의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곧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 7 ○너는 스스로 준비하여라. 너와 너를 위해 모인 네 모든 무리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네가 그들의 대장이 되어라.
- 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소집 명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폐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 쳐들어갈 것이니, 그 땅에는 칼에서 회복되어 많은 민족들에게서 돌아온 사람들

가) 혹은 ‘로스’

- 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 9 너와 네게 있는 모든 군대와 많은 백성들이 올라갈 것이니, 내가 폭풍같이 쳐들어와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 10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그 날에 네 마음에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니, 내가 악한 계 획을 고안하고,
- 11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로 올라가겠다. 편안히 조용하게 살며, 그들 모두 담과 빗장과 문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로 쳐 들어가.
- 12 노략질을 하고 약탈을 할 것이다.’ 내가 폐허였다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곳들과 여러 나라들에서 돌아온 백성, 곧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 중앙에 사는 자들에게 네 손을 들어 칠 때에
- 13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권력자들이 네게 말하기를 ‘네가 노략질하러 왔느냐? 네가 약탈하여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크게 노략질하려고 네 무리를 소집했느냐?’ 할 것이다.
- 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사는 그 날을 어찌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 15 너와 네게 있는 많은 백성들이 네 처소, 곧 최북단에서 쳐들어올 것이니, 그들은 모두 말타는 자들이며, 큰 무리의 군대들이다.
- 16 너는 땅을 덮는 구름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데려와 네 땅을 지게 할 것이니, 곡아, 내가 여러 민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네게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 17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그 당시에 오랫동안 내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 18 이 일이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 날에, 내 분노와 내 진노가 함께 치솟을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19 내 질투와 내 불타는 진노로 내가 말하였으니, 그 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 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서 기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멸 것이다. 산들이 부서지고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들이 땅에 무너질 것이다.

- 21 주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곡을 치도록 내 모든 산에 칼을 부를 것이니, 각 사람이 서로에게 칼을 겨눌 것이며,
- 22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장대비와 폭우와 돌 같은 우박과 불과 유향을 그와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에게 퍼부을 것이며,
- 23 내가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많은 민족들의 눈에 알릴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심략자 곡의 멸망

- 39 1 “인자야, 너는 곡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인 너 곡을 칠 것이다.
- 2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고, 너를 천천히 몰아 최북단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산들로 데려갈 것이다.
- 3 내가 네 왼손의 활을 치고, 네 오른손의 화살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 4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쓰러질 것이니,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줄 것이다.
- 5 내가 말하였으므로 네가 들판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6 내가 마곡과 여러 섬들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7 ○내가 너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니, 여러 민족들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한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 8 보아라, 그것이 임하여 이루어질 것이니, 그 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9 ○이스라엘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 불을 피우고, 병기, 곧 긴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곤봉과 창을 태울 것이니, 그들이 칠 년 동안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 10 그들이 들어서 땀감을 가져오거나, 숲에서 벌목하지 않을 것이니, 병기로 불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를 노략하는 자들을 노략하며, 자기를 약탈하는 자들을 약탈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11 ○그 날에 내가 곡에게 한 장소, 곧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다 동편 행인들의 골짜기를 무덤으로 줄 것이니, 행인들의 길이 막힐 것이

가) 히 ‘무리’

- 며, 거기서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하몬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 12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 13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할 것이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날에 그 백성이 이름을 얻을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다.
- 14 그들이 그 땅에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 땅을 돌아다니며 땅 위에 남아 있는 시체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며 일곱째 달 끝에도 그들이 조사할 것이다.
- 15 행인들이 그 땅을 지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표지판을 세워 매장꾼들이 ‘하몬 골짜기’에 그것을 매장하게 할 것이다.
- 16 이같이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 17 ○너 인자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날개를 가진 각종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너희는 사방에서 함께 몰려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도살한 내 희생 제물,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 제물에게로 모여 그 살을 뜯고 피를 마셔라.’ 라고 말하여라.
- 18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셔라. 그들 모두는 숫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와 바산의 살진 짐승들이다.
- 19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도살한 내 희생 제물 중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피를 마셔라.
- 20 너희는 내 상에서 말과 기마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로 배를 불러라. 주 여호와와 말이다.
- 21 ○내가 내 영광을 민족들 중에 둘 것이니, 모든 민족들이 내가 시행한 심판과 그들에게 나타낸 내 권능을 볼 것이다.
- 22 그 날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 23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 신실치 못하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 24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죄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겼다.

### 이스라엘의 회복

- 25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제 내가 아람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 온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



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할 것이다.  
 26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며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을 때, 그들은 자기 수치와 내게 행했던 모든 죄를 뉘우칠 것이니,  
 27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모아들이,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이다.  
 28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나,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그곳에 남겨 놓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 위에 부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 말이 다.”

### 이상 중에 본 새 성전

40 1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이십오 년 곧 그 성이 함락된 후 십사 년째 되던 해의 첫째 달 십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2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두셨는데 산 위 남쪽에 성읍의 건축물 같은 것이 있었다.  
 3 그분이 나를 데리고 저기에 가시더니, 보아라, 모양이 듯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으로 만든 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4 그 사람이 내게 말씀하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들으며 네 마음에 두어라. 내가 네게 보여 주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셨다.  
 5 ○보아라, 그 성전 바깥을 담이 둘러 있고, 그 사람의 손에 재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가 한 규빗에 한 뼘을 더한 규빗으로 여섯 규빗인데 그 담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기도 한 장대였다.  
 6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서, 계단에 올라가 그 문지방을 재니, 폭이 한 장대였으며, 다른 문지방의 폭이 한 장대였고,  
 7 문간방은 길이가 한 장대이고, 너비가 한 장대이며, 그 문간방들 사이는 다섯 규빗이었다. 그리고 안쪽 문 현관의 문지방은 한 장대였다.  
 8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재니, 한 장대였고,  
 9 그 문의 현관을 재니, 여덟 규빗이었으며 그

기둥들은 두 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10 동쪽 문의 문간방들은 이쪽에 세 개, 저쪽에 세 개가 있었는데, 그들 셋은 같은 치수이고, 이쪽과 저쪽의 기둥들도 같은 치수였다.  
 11 그가 문의 입구를 재니, 너비가 열 규빗인데, 그 문의 너비는 십삼 규빗이었다.  
 12 문간방들 앞에는 경계가 있었는데, 두께가 한 규빗이고, 저쪽 경계도 한 규빗이었다. 그 문간방은 이쪽이 여섯 규빗이고, 저쪽도 여섯 규빗이었다.  
 13 그가 그 문을 재니, 문간방의 이 방 지붕 끝에서 저 방 지붕 끝까지 재니, 너비가 이십오 규빗이었었는데, 방문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14 그가 기둥들을 재니, 육십 규빗이고, 그 사면에 돌이 있어 기둥까지 이르렀고,  
 15 바깥 문 앞에서부터 안쪽 문의 현관 앞까지 오십 규빗이었다.  
 16 그 문간방들과 그 문 안쪽 사방으로 기둥들 사이에는 닫힌 창문들이 있었고, 이같이 현관에도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 창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17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가니, 보아라, 작은 방들과 사방에 포석이 깔린 돌이 있었는데, 그 포석이 깔린 땅에는 삼십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다.  
 18 그 포석은 문들 측면에 깔려 있는데, 그 길이 기둥들을 연결한 길이와 같았다. 이것이 아래쪽 포석 깔린 땅이었다.  
 19 그가 아래 문 앞에서부터 안쪽 바깥 문 앞까지 재니, 너비가 백 규빗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20 ○그가 바깥들의 북을 향한 문 길이와 너비를 재니,  
 21 길이가 오십 규빗이고 너비가 이십오 규빗이며 문지방이 이쪽에도 셋이고 저쪽에도 셋, 그 벽과 현관도 먼저 재문과 같으며,  
 22 그 창과 현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과 치수가 같고, 그 문으로 올라가는 일곱 계단이 있으며 그 안에 현관이 있고  
 23 안뜰에도 북쪽 문과 동쪽 문과 마주 대한 문들이 있는데 그가 그 문에서 맞은편 문까지 재니, 백 규빗이었다.  
 24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갔는데, 보아라, 남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재니, 먼저 재 것과 같고,  
 25 그 문과 그 현관 좌우에 창문들이 있었는데, 창도 전에 말한 창과 같으며 그 문의 길이가 오십 규빗이고, 너비가 이십오 규빗이며  
 26 또 그리로 들어가는 일곱 계단이 있고, 그 안

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기둥들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27 안뜰에도 남향 문이 있는데, 그가 남향 문에서 맞은편 문까지 재니, 백 규빗이었다.  
 28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을 재니, 그 크기가 이러하였다.  
 29 곧 길이가 오십 규빗이고 너비가 이십오 규빗이며 그 문지방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재 것과 같고, 그 문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었으며  
 30 그 사면 현관의 길이는 이십오 규빗이고 너비는 다섯 규빗이었다.  
 31 현관은 바깥들로 향했고, 그 기둥들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문으로 올라가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32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의 치수를 재니,  
 33 그 길이가 오십 규빗이고 너비가 이십오 규빗이었으며 그 문지방 방과 기둥들과 현관이 먼저 재 것들과 같고 그 문과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었으며  
 34 그것의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기둥들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으로 올라가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35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치수를 재니, 이전 문들의 치수들과 같았는데,  
 36 길이가 오십 규빗이고 너비가 이십오 규빗이며 저기에 문지방 방과 기둥들과 그 사면에 창들이 있고  
 37 현관은 바깥들로 향했는데, 그 기둥 이쪽과 저쪽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올라가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38 ○그 문지방들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찌는 곳이며  
 39 그 문의 현관 이쪽에는 상이 두 개 있고, 저쪽에도 상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위에서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진 제물을 잡았다.  
 40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에 상들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들이 있으니,  
 41 문의 측면 벽 이쪽에 상이 네 개, 저쪽에 상이 네 개, 모두 여덟 개의 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서 제물을 잡았다.  
 42 그 번제에 쓰는 다듬은 돌로 만든 상 넷이 있는데 각 길이가 한 규빗 반이고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높이가 한 규빗 반인데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

었다.  
 44 ○안뜰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동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다.  
 45 그가 내게 말씀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46 그리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의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레위의 자손 중 사독의 자손들로, 여호와께 나아가 섬기는 자들이다.  
 47 그가 그 뜰을 재니, 정사각형이었는데, 길이가 백 규빗이고 너비가 백 규빗이었다. 그리고 제단이 그 성전 앞에 있었다.  
 48 ○그가 나를 그 성전의 현관으로 데려가 현관의 기둥 사이를 재니, 이쪽이 다섯 규빗이고 저쪽이 다섯 규빗이며 그 문 입구의 너비는 십삼 규빗이었으며, 그 문 측면 벽의 두께는 이 편이 세 규빗, 문 저편이 세 규빗이었다.  
 49 그 현관의 길이는 이십 규빗이고 너비는 열두 규빗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에 있었다.”

###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들

41 1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기둥들 사이를 재니, 이쪽 너비가 여섯 규빗이고 저쪽 너비도 여섯 규빗이었다. 성막의 너비며,  
 2 그 입구의 너비는 열 규빗이고 그 입구의 측면 벽들은 이쪽이 다섯 규빗, 저쪽이 다섯 규빗이었다. 그가 성소의 길이를 재니 사십 규빗이었으며, 너비는 이십 규빗이었다.  
 3 그가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입구의 기둥들 사이를 재니, 두 규빗이었으며, 그 입구는 여섯 규빗이며 그 입구의 측면 벽들은 일곱 규빗이었다.  
 4 그가 성소 맞은편 길이를 측량하니, 이십 규빗이고 너비가 이십 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이것이 지성소이다.” 라고 말했다.  
 5 ○그가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여섯 규빗이고 그 성전 둘러 사방에 있는 골방의 너비는 네 규빗이었다.  
 6 골방들은 삼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층마다 삼십 개의 결방이 있었다. 그 성전의 벽 사방 둘레에는 결방들의 지지대들이 성전 벽에 박혀 그 벽에 의지하였고 성전 안 벽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그 성전의 벽은 지지대가 되지 않으며  
 7 그 둘러 있는 결방들은 층이 올라갈수록 넓

- 어졌으므로 결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며 결방들은 돌아서 올라가되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위층으로 올라갔다.
- 8 내가 보니, 그 성전을 사방으로 둘러서 높은 기초가 있었는데, 그 기초의 높이는 한 장대 길이인 여섯 규빗이었다.
- 9 결방 외벽의 두께는 다섯 규빗이고 그 성전에 속한 결방들과
- 10 바깥 방울 사이의 공간은 폭이 이십 규빗으로 그 성전 사방을 빙 둘러 있었다.
- 11 그 결방 입구는 공간 쪽으로 트였는데,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다른 입구는 남쪽을 향했다. 그 둘러 있는 공간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었다.
- 12 O서쪽 뒷마당에 있는 그 건물은 너비가 칠십 규빗이요, 그 건물의 사면 벽은 두께가 다섯 규빗이었고, 그 길이는 구십 규빗이었다.
- 13 O그가 그 천을 재니, 길이가 백 규빗이고 또 서쪽 뜰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가 백 규빗이며
- 14 그 성전의 앞, 곧 동쪽 앞마당의 너비는 백 규빗이었다.
- 15 O그가 성전 뒤의 뒷마당에 있는 그 건물의 길이를 재니, 이쪽과 저쪽 다락들은 모두 백 규빗이었다.
- O성전의 안쪽과 그 뜰의 현관들과
- 16 문지방들과 살창문들과 세 면으로 둘러 있는 다락들과 문지방 맞은편은 바다에서 창문까지 사방을 나무로 입혔다. 닫힌 창문들에서
- 17 입구 위와 성전의 내부와 외부까지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사방 벽은 다 자로 재어 본 그대로였다.
- 18 입힌 나무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겨 놓았으니,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 있었으며 그룹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 19 사람의 얼굴이 이쪽 종려나무를 향했고, 사자의 얼굴이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었으며, 성전 사면이 다 그러하였다.
- 20 바닥에서 입구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성소의 벽에 새겨졌다.
- 21 O외전 기둥들은 정사각형이었고 전면의 모양도 그러하니,
- 22 곧 나무 제단의 높이가 세 규빗,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두 규빗이며 그 모퉁이들과 그 받침과 벽들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 앞에 놓는 상이다." 라고 하였다.
- 23 성전과 성소에는 각각 두 개의 문이 있었다.

- 24 그 두 개의 문은 각각 접히는 문짝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에 두 짝 저 문에 두 짝이 있었다.
- 25 그 성전의 문들에는 벽에 새겨진 것처럼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바깥쪽 현관 앞에는 나무로 된 디딤판이 있었다.
- 26 그 현관 측벽 이쪽과 저쪽에는 닫힌 창문들과 종려나무 장식이 있었는데, 이 장식들은 성전의 골방들과 디딤판들에도 있었다.

### 안들의 방들

- 42 1 O그가 또 나를 데리고 바깥쪽 북쪽 길로 가다가 한 방에 이르니, 이는 따로 떨어져 북쪽 건물 앞에 있었다.
- 2 북쪽 입구 쪽으로 그 길이가 백 규빗이고 너비가 오십 규빗이었다.
- 3 이십 규빗 되는 안들의 맞은편과 바깥쪽의 포석 깔린 곳 맞은편에는 다락들이 삼층으로 연이어 있었다.
- 4 그 방들 앞에는 너비가 십 규빗 되는 통로가 있었는데, 안쪽으로 거리가 백 규빗 되는 길이었다. 그 입구들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 5 위층의 방들은 그 건물의 아래층이나 중간층의 방들보다 좁았으니, 다락들이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 6 그것들은 삼층이었는데, 바깥 마당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이나 중간층보다 좁았다.
- 7 그 방들의 바깥 담, 곧 바깥쪽의 담과 마주하여 길이가 오십 규빗 되는 담이 있었고
- 8 바깥쪽에 있는 방들의 길이가 오십 규빗이었으며, 보아라,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규빗이었다.
- 9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니, 곧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였다.
- 10 O"동쪽쪽 맞은편과 서쪽 뜰 건물 맞은편에도 방들이 있는데,
- 11 그 방들 앞에는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들과 같고 그 길이나 너비가 같으며 모든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고
- 12 이 남쪽 방에도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앞으로 통하는 길 어귀에 있었다.
- 13 O그가 내게 말하였다. "좌우 결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다. 거기서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 14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바깥쪽으로 바로 나가지 말고, 직무를 행할 때 입힌 옷들을 거기에 벗어 두어야 한다.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성전의 외벽들

- 15 O그가 성전 내부를 재는 것을 마치자, 동쪽을 향해 난 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 사면의 담을 재는데,
- 16 그가 재는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재는 장대로 둘레가 오백 규빗이었으며,
- 17 북쪽 담을 재니, 재는 장대로 둘레가 오백 규빗이었고,
- 18 남쪽 담을 재니, 재는 장대로 오백 규빗이었으며,
- 19 그가 돌이켜 서쪽 담을 재니, 재는 장대로 오백 규빗이었다.
- 20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재니, 그 사방의 담 안마당의 길이와 너비가 오백 장대씩이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와 영광

- 43 1 O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었다.
- 2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 3 내가 본 그 환상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여호와께서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고, 그날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으므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4 여호와와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그 성전으로 들어왔다.
- 5 여호와와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데리고 가셨으므로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 6 O나는 그 성전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내 곁에서 있었다.
- 7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곧 내 발을 두는 처소이므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다시는 음란이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왕들의 시체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 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을 두고 행하는 역적음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그들을 멸하였다.

- 9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음행과 자기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 10 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하여 주어야. 그들이 그들의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겨 그 모형을 측량할 것이다.
- 11 만일 그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성전의 설계와 모형과, 그 출입구와 그 모든 설계, 곧 그 모든 규정과 그 모든 설계와 지시들을 알게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들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설계와 규정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 12 이것이 그 성전의 법이다. 그 산꼭대기 위의 모든 지역은 지극히 거룩하니, 보아라, 이것이 그 성전의 법이다."

### 번제단

- 13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인데, 제단 밑받침의 높이가 한 규빗이고 그 사면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고
- 14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가 두 규빗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층의 높이가 네 규빗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이며
- 15 그 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규빗이고, 그 제단에서 솟는 뿔 넷이 있으며
- 16 그 제단의 바닥의 길이가 열두 규빗이고, 너비가 열두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 17 그 아래층의 길이가 십사 규빗이며 너비가 십사 규빗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가 한 규빗이며, 그 바닥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규빗이다. 그 제단은 동을 향하게 하여라.
- 18 O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같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들이 완성되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릴 제단에 대한 규례들이다.
- 19 너는 사독 자손 중 나를 섬기기 위해 나아오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주어야. 주 여호와와 영의 말이다.
- 20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 위와 아래층의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그것으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 21 너는 속죄제로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성소 바깥, 곧 성전의 정해진 곳에서 그것을 태우게 하여라.
- 22 둘째 날에 너는 흙 없는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



- 려서 사람들이 어린 황소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제단을 정결케 하여라.
- 23 내가 속죄하기를 마치면, 너는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 떼 중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려라.
- 24 너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되, 제사장들이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게 하여라.
- 25 칠일 동안 너는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사람들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 떼 중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로 하여라.
- 26 칠일 동안 사람들이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 27 그 날들이 끝난 후, 제 팔일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 번제물들과 화목 제물들을 제단 위에 바칠 것이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 44 1 ○그가 나를 동쪽으로 향한 성소의 바깥문 쪽으로 데려갔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다.
- 2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힌 채로 다시 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닫힌 채로 있을 것이다.”
- 3 오직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 문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빵을 먹을 수 있다. 그가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 4 ○그리고 복문을 통해 그가 나를 그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와의 영광이 여호와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5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 마음에 두고, 네 눈으로 보아라.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들에 대해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라.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성소에서 나가는 모든 것을 네 마음에 두어라.”
- 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이 너희에게 족하다.’
- 7 너희는 이방인들, 곧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내 성소에 들어오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치면서도, 너희는 너희 모든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내 언약을 파

- 기하였다.
- 8 너희는 내 성물들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너희 대신 내 성소에서 내 직무를 수행할 자들을 세웠다.
- 9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모든 이방인들, 곧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라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 10 이스라엘이 내게서 떠나 그릇 행했을 때, 자기 우상들을 따라 내게서 떠나 그릇 행한 레위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 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시종들과, 성전의 문들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시종들에게 될 것이니, 백성을 위해 번제와 희생 제물을 잡고, 또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시종들에게 될 것이다.
- 12 그들이 자기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겨, 그것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죄의 기회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죄악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13 그들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내 어떤 성물이나 지성물에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니, 자기들이 행한 수치와 역겨운 일들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는 일과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
- 15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그릇 행했을 때에도, 내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독 자손들이 레위 제사장들은 내게 나아와 나를 섬기며,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16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가고,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며, 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 17 안뜰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문들이나 그 안쪽에서 섬길 때, 양털 옷은 걸치지 말아야 한다.
- 18 그들은 베로 만든 관을 자기 머리 위에 쓰고, 베로 만든 속옷을 허리에 둘러야 하며, 띠나 끈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두르지 말아야 한다.
- 19 그들이 바깥쪽, 곧 백성이 있는 바깥쪽으로 나갈 때, 그들은 입고 섬기던 자기 옷을 벗어 거룩한 방들에 두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자기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 20 그들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자기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늘 자기 머리털을 다듬어야 한다.

- 21 어떤 제사장이라도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 22 그들은 과부나 이혼녀를 아내로 삼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이전에 제사장과 결혼했던 과부를 선택해야 한다.
- 23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한다.
- 24 송사가 있으면 그들은 재판관이 되어 내 율례대로 그것을 판결하고, 내 모든 회중 가운데서 내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며,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 25 그들은 죽은 자 곁에 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더럽게 할 수 있다.
- 26 그는 정결케 된 후에도 칠일을 더 지내야 한다.
- 27 그가 성소에서 섬기려고 성소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그는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28 ○그들에게 유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의 유업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소유다.
- 29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 30 모든 종류의 처음 난 것 중 최상품과, 무슨 종류든지 내 헌물 중의 모든 예물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첫 밀가루를 드려서 그들이 내 집을 축복하도록 하여라.
- 31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이나 무문하고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진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 성전 제사장들의 땅

- 45 1 ○너희가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유업으로 삼을 때, 그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거룩한 예물로 드려라. 그 길이는 이만 오천이고 너비는 이만 장대이다. 그 사방 모든 땅은 거룩할 것이다.
- 2 이 중에서 사방 오백 규빗씩 네모 반듯한 땅이 성소가 될 것이며, 그 사방으로는 오십 규빗 너비의 빈 터가 있어야 한다.
- 3 이 구역 중에서 길이 이만 오천과 너비 일만 장대의 구역을 세어라. 그것이 성소이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 4 성소는 그 땅 중에서 거룩하니, 이는 성소에서 시종들과 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집을

-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 5 길이 이만 오천과 너비 일만 장대 구역은 그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소유로서, 이는 그들이 살 이십 개의 방들이 될 것이다.
- 6 ○너희는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 옆에 너비 오천과 길이 이만 오천 장대의 구역을 정하여 그 성읍의 소유가 되게 하여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 7 ○이는 곧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 맞은편과 그 성읍의 소유 맞은편이니, 왕을 위해 한 구역을 정하여라. 그것은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이며,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이다.
- 8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나머지 땅은 지파별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눠 줄 것이다.
- 9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아, 그것으로 너희는 족하다. 폭력과 악행을 없애고,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라. 너희가 내 백성 착취하기를 중단하여라.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10 ○너희는 공평한 저울들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바트를 사용하여라.
- 11 에바와 바트는 같은 크기가 되게 하여 바티 한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도록 하고, 에바도 한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도록 하여라. 그 계량은 호멜을 따를 것이다.
- 12 한 세겔이 이십 게라가 되게 하고, 이십 세겔, 이십오 세겔, 심오 세겔을 합하면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 제물들

- 13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물이니, 밀은 한 호멜 당 육분의 일 에바와, 보리는 한 호멜 당 육분의 일 에바를 드려야 한다.
- 14 기름에 대한 규정은, 한 코르 당 십분의 일 바트를 드려야 한다. 열 바트는 한 호멜이니, 한 호멜은 열 바티기 때문이다.
- 15 양떼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율택한 목장에서 이백 마리마다 한 마리 양을 골라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 곡식 제물과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16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줄 것이다.
- 17 왕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절기에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를 드릴 책임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릴

- 것이다.
- 18 오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정월 첫날에 너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골라서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 19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기둥들 위와, 제단 아래층 네 모서리와, 안뜰 문기둥들 위에 바를 것이다.
- 20 너는 그 달 칠일에도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 그같이 행하여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 21 O정월 십사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며,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 22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 23 그 명절의 칠일 동안 그는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드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매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 24 그는 곡식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와 숫양 한 마리에 한 에바를 드리고, 곡식 제물 한 에바에 기름 한 힌을 드려야 한다.
- 25 칠월 십요일은 명절이니, 그는 이와 같이 칠일 동안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드려야 한다.

- 46 1 O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동쪽으로 난 안뜰 문은 일하는 육일 동안은 닫을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 것이며, 초하루에도 열 것이다.
- 2 왕은 그 문의 환관을 통해 밖에서 들어와 그 문기둥에 서고,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왕은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다.
- 3 그 땅의 백성은 그 문 입구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여호와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
- 4 왕이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이다.
- 5 숫양 한 마리에 한 에바의 곡식 제물을, 어린 양들의 경우는 자기 힘닿는 대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하며, 한 에바에는 한 힌의 기름을 더해야 한다.
- 6 초하루에 그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 7 수송아지에는 한 에바를, 숫양에도 한 에바를 곡식 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들의 경우는 자기 힘닿는 대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하며, 한 에바에 한 힌의 기름을 더할 것이다.
- 8 왕이 들어갈 때에는, 그 문의 환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갈 때에는 같은 길로 나가야 한다.

- 9 O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경배하기 위해 복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복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나 자기가 들어온 그 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곧 장 앞으로 나가야 한다.
- 10 왕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야 한다.
- 11 O명절과 절기 때에 드리는 곡식 제물은 수송아지에는 한 에바와 숫양에도 한 에바를 드리고, 어린 양들의 경우는 자기 힘닿는 대로 곡식 제사로 드려야 하며, 에바에 한 힌의 기름을 더할 것이다.
- 12 왕이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자원제, 곧 여호와께 자원제를 드릴 때에 그는 동쪽 문을 열 것이며, 자기의 번제나 화목제를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나가고, 그가 나간 후에는 그 문을 닫을 것이다.
- 13 O너는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매일 드려야 하니, 아침마다 그것을 드려야 한다.
- 14 너는 그 외에도 아침마다 고운 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곡식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이다.
- 15 사람들은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매일 아침 항상 드리는 제물로 드릴 것이다.
- 16 O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만약 왕이 자기 아들 중 누구에게 자기 유업을 선물할지 묻는다면, 그것이 자기 아들들에게 속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소유로 유업이 될 것이다.
- 17 만약 그가 자기 종들 중 하나에게 자기 유업에서 선물한다면, 그것은 회년까지 그 종에게 속할 것이다. 그 후에는 그것이 그 왕에게 돌아갈 것이니, 반드시 그의 아들들이 그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 18 왕은 백성의 유업을 빼앗아 백성들을 그들의 소유에서 몰아내지 말 것이다. 내 백성 중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잃고 흠어져 헤매지 않도록,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줄 유업을 자기 소유 가운데서 줄 것이다.”

#### 성전 부속들

- 19 O그 후에 그가 문 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 제사장들이 있는 북쪽을 향한 거룩한 방들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보아라, 그 서쪽 끝에 한 장소가 있었다.
- 20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바깥쪽으로 가져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도록 속죄제물과 속건 제물을 끓이고 곡식 제사 제물을 부는 곳이다.”

- 21 O그가 나를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가 그 들의 네 모퉁이로 지나가게 하셨다. 보아라, 그 들의 사방 각 모퉁이에 또 다른 물이 있었다.
- 22 그 들의 사방 모퉁이에 작은 물이 있는데, 길이가 사십 규빗, 너비가 삼십 규빗이었다. 이 네 모퉁이의 물들은 같은 크기였다.
- 23 사방에 있는 네 물 각각에는 사방을 둘러 돌담이 있었고, 사방을 두른 돌담 아래에는 아궁이가 있었다.
- 24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아궁이다.”라고 하였다.

####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

- 47 1 O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 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 2 그가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나가, 바깥을 돌아 동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쪽 문으로 데리고 가니, 보아라, 물이 남쪽에서 흘러 나왔다.
- 3 O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 규빗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그 물은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이 되었다.
- 4 또 그가 천 규빗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무릎 높이의 물이 되었다. 그가 또 천 규빗을 재어, 나에게 건너가게 하시니, 허리 높이의 물이 되었다.
- 5 그리고 그가 천 규빗을 재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는 물이 수영해야 할 만큼 불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다.
- 6 그가 내게 “인자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 O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둑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 7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아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다.
- 8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될 것이다.”
- 9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되리니, 물고기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는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10 엔게디에서 에네글리암까지 어부들이 강가에 설 것이다. 그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각 종류대로 매우 많을 것이다.

11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12 그 강 이쪽과 저쪽 동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 그 땅의 경계들

- 13 O“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눌 경계선이다. 요셉은 두 몫이다.
- 14 너희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줄 것이라고 맹세한 그것을 유업으로 분배하게 될 것이니, 이 땅이 너희 유업이 될 것이다.
- 15 O이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북쪽으로는 지중해로부터 헤들론을 거쳐 스닷 입구까지니,
- 16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하맛과 브로다와 시브리암과, 그리고 하우란의 경계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다.
- 17 곧 그 경계는 그 바다로부터 하살 에논까지니,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가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다.
- 18 O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동쪽 바다의 다말까지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동쪽 경계다.
- 19 O남쪽은 다말에서 드르브 가데스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 큰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 20 O서쪽 경계는 대해이며, 르보 하맛 입구 맞은 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 21 O너희는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 분배하여라.
- 22 너희는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며 자식을 낳은 이방인들을 위해 그것을 제비 뽑아 유업이 되게 하여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인과 같을 것이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제비 뽑아 유업을 가질 것이다.”
- 23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파에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어야.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한다.”

#### 그 땅의 분배

- 48 1 O“지파들의 이름들은 이와 같다. 가장 북쪽에서 시작하여 하맛에 이르는 헤들론으로 난 길을 따라 다마스쿠스 옆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즉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



- 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의 몫이고  
 2 단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며  
 3 아셀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고  
 4 납달리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며  
 5 므낫세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고  
 6 에브라임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เบน의 몫이며  
 7 르우เบน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다.  
 8 유다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이다. 그 너희가 이만 오천 규빗이고,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각 지파의 몫 중 하나와 같을 것이니,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9 너희가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길이가 이만 오천이고 너비가 7) 일만 규빗이다.  
 10 거룩한 예물로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이고, 서쪽으로 너비가 일만이며, 동쪽으로 너비가 일만이고,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규빗이니, 여호와와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11 그것은 사독의 자손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행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과는 달리 잘못 행하지 않고, 내게 대한 직무를 지켰다.  
 12 예물로 드린 땅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의 경계에 인접한 땅, 곧 지극히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이 그들에게 속할 것이다.  
 13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경계를 따라 받을 땅은 길이가 이만 오천이고, 너비는 일만이니, 곧 그 전체 길이가 이만 오천이며 너비가 일만 규빗이다.  
 14 사람들은 그 땅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며, 또한 그 땅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15 남은 구역은 너비가 오천이고 길이가 이만 오천 규빗이니, 그것은 속된 땅으로서 성읍의 거주지와 목초지가 될 것이며 성읍은 그 가운데 자리할 것이다.  
 16 그 치수는 이와 같다. 북쪽이 사천오백이고, 남쪽이 사천오백이며, 동쪽이 사천오백이고, 서쪽이 사천오백 규빗이다.  
 17 그 성읍의 목초지는 북쪽으로 이백오십이고,

7) 헬 '이만' 비, 451

- 남쪽으로 이백오십이며, 동쪽으로 이백오십이고, 서쪽으로 이백오십 규빗이다.  
 18 남은 곳은 거룩한 예물과 인접하여 있는데 동쪽으로 일만이고, 서쪽으로 일만 규빗이다. 그곳은 거룩한 예물과 연결하며, 그 소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19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뽑혀 와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할 것이다.  
 20 전체 예물은 길이 이만 오천에, 너비 이만 오천 규빗이니, 너희는 정사각형의 그 거룩한 예물을 성읍의 소유지와 함께 드릴 것이다.  
 21 그 남은 것은 왕에게 속할 것이다. 거룩한 예물과 성읍 소유지의 이쪽과 저쪽, 곧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 이만 오천 규빗,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이만 오천 규빗의 땅이 다른 지파의 몫들과 인접해 있는데, 이 땅이 왕에게 속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예물과 그 성전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자리할 것이다.  
 22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성읍의 소유지가 왕에게 속한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니, 곧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가 왕에게 속할 것이다.  
 23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이와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고  
 24 베냐민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며  
 25 시므온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잇사갈의 몫이고  
 26 잇사갈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며  
 27 스불론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고  
 28 갓의 경계 다음으로 남쪽으로 그 경계는 다말로부터 므리바 가데스 샘과, 큰 바다로 흐르는 이집트 시내에까지 이를 것이다.  
 29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을 유업으로 제비 뽑을 땅이니,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
- 성읍의 성문들**
- 30 “그 성읍의 출구들은 이와 같다. 북쪽은 그 너비가 사천오백 규빗이다.  
 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랐다. 북쪽으로 세 문이 있으니, 곧 르우เบน 문, 유다 문, 레위 문이고  
 32 동쪽도 사천오백 규빗이며, 세 문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 문, 하나는 베냐민 문, 하나는 단 문이고,

- 33 남쪽도 사천오백 규빗이며, 세 문이 있으니, 하나는 시므온 문, 하나는 잇사갈 문,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34 서쪽도 사천오백 규빗이며, 세 문이 있으니,

- 하나는 갓 문, 하나는 아셀 문, 하나는 납달리 문이고  
 35 그 둘레는 만 팔천 규빗이며, 그 성읍의 이름은 그 날로부터 7)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7)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라는 뜻

# 다 니 엘

##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 1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 삼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 3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 5 또 왕이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정해 주고, 삼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 6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 7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트사살, 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네고라 하였다.
- 8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 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 9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인애와 공휼을 얻도록 해주셨다.
-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포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나?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대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11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 12 “부디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주십시오.
- 13 그런 다음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 14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 보았는데,
- 15 열흘이 다 된 후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에
- 16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야채를 주었다.
- 17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 18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 19 왕이 그들과 말해 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 20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 보니, 그들이 전국의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 느부갓네살의 꿈

- 2 1 ○느부갓네살 통치 제 이년에 그가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 2 왕이 그 꿈에 대해 자기에게 말하게 하려고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술가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명령하니,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다.
- 3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니,
- 4 갈대아 사람들이 이람 말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 무강을 빕니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 5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토막 낼 것이며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 6 그러나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여 주면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 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니,
- 8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아는 데, 너희가 내 명령이 확고한 것을 보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 9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한다면 너희를 다스릴 법은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말과 잘못된 말을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내게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 10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어떤 왕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주술가나 갈대아인에게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 11 왕께서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니,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 그것을 왕께 보여 줄 사람은 없습니다.”
- 12 ○이 일로 왕이 진노하고 매우 분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 13 법이 공포되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 14 그때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오므로, 다니엘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답하여,
- 15 “왕께서 공포하신 법이 어찌 그리 급한니까?” 하고 아리옥에게 물으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었다.
-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다고 하였다.
- 17 ○그 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 주고,
- 18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다른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공휼을 구하게 하였다.
- 19 바로 그 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20 다니엘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 21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 22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 23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을 내게 알려 주셨으니,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 다니엘의 해몽**
- 24 ○그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도록 지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 25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들 중에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 26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 줄 수 있겠느냐?” 하니,
  - 27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 28 오직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장래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 29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래 일을 왕께 알려 주셨습니다.
  - 30 이 은밀한 것이 제게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왕께서 아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31 ○왕이시여, 왕께서 큰 형상 하나를 보셨습니까. 왕 앞에서 있는 그 형상은 거대하고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두려웠습니다.
  - 32 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들은 동이었으며,
  - 33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 34 왕께서 보시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나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



- 없습니다.
- 35 그때에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를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 36 ○꿈은 이러하니,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37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영광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 38 또 사립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그 모두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가십니다.
- 39 왕의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며, 또 왕으로 된 셋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 40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산산조각 냅니다. 모든 것을 부수는 철과 같이 그 왕국이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 41 그리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을 보셨는데,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철이었으므로, 그 왕국은 나뉠 것입니다. 그 왕국이 철같이 단단하나 왕께서 보신 대로 그 철은 진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 42 또한 그 발들의 발가락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듯이 그 왕국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 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대로 그들이 다른 종족들과 섞이겠으나,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그들이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 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 45 왕께서 보신 대로 손대지 않은 채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 나와 그 돌이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참되며 그 해석도 틀림없습니다.
-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들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 하였고
- 47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른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의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 48 이에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가 바빌로니아 모든 지방을 통치하게 하고 그를 바빌로니아 모든 지체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 49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 바빌로니아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했으며, 자신은 왕의 궁정에 머물렀다.

### 느부갓네살 왕의 금 형상

- 3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육십 규빗이고 너비가 여섯 규빗이었다. 그가 그것을 바빌로니아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웠다.
- 2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오게 하였다.
- 3 그래서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섰다.
- 4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니,
- 5 너희들이 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 6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 7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했다.
- 왕명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 8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여
- 9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 무강을 빕니다.
- 10 왕이시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는 자는 누구나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였고
- 11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12 그런데, 왕이시여,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께서 바빌로니아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운 그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 13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매우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그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나?”
- 15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나?”
-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17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 18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 용광로에 던져진 세 친구들

- 19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 20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 21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불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 24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

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25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 구출된 세 친구들

- 26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 27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칼과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겹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 29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 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도막 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 30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 주었다.

###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 4 1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 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선포하려 한다.
- 3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의 기사들이,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쉬며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릴 때에,
- 5 내가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으니, 내 침상

- 에서 상상하는 것들과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 6 그러므로 내가 직령을 내려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체자들을 내게 데려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 7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였으니, 그들은 내게 그 해석을 알려 주지 못하였다.
- 8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내 앞에 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하였으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 9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비밀이라도 네게 어려움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본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말해 보아라.
- 10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들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 가운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매우 높았다.
- 11 그 나무가 크게 자라 튼튼해지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온 땅에서도 보였다.
- 12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많아 모두에게 양식이 되었다.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거르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동물이 거기서 먹이를 얻었다.
- 13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들 가운데, 또 보니, 하늘에서 거룩한 파수꾼이 내려와서
- 14 크게 외치며 말하였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는 자르며 잎사귀는 떨어 버리고 열매는 흩어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새들도 그 가지에서 도망하게 하여라.’
-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동으로 된 줄로 묶어 들꽃 속에 있게 하여,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그의 분깃을 얻게 하여라.
- 16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게 하여라.
- 17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고,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 18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니,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그 해석을 말해 보아라. 내 왕국의 모든 지체자들은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니,

-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 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벨드사살아,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해석은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 20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 튼튼해지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온 땅에서 보이고,
- 21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그 열매가 많아 모두에게 양식이 되며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거르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었으니,
- 22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께서 크게 자라 강대해지고, 왕의 위대하심이 점점 더하여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 23 또 왕께서 보신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버리되,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동으로 된 줄로 묶어 일곱 때가 지날 때까지 들꽃 속에 남겨 두어서,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그의 분깃을 얻게 하여라.’ 하였으니,
- 24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으로, 내 주 왕께 임할 것입니다.
- 25 왕께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일곱 때를 지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왕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 26 또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실 때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 27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의 변영이 길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 꿈의 실현**
- 28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 29 열두 달이 지날 무렵에 그가 바빌로니아 왕궁을 거닐다가
- 30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

- 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 31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선언한다. 왕권이 네게서 떠났으니,
- 32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일곱 때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33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니 찬양**
- 34 ○“그 날들이 지나가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내 총명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 35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 36 이렇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온 바로 그때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한 내 위엄과 광채가 내게 돌아왔고, 나의 고문관들과 귀족들이 내게 문안했으며, 나는 내 왕위에 세움을 받았으니, 지극한 위엄이 내게 더했다.
- 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 벨사살 왕의 잔치

- 5 1 ○벨사살 왕이 귀족들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 2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그릇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했기 때문이었다.
- 3 이에 성전,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그릇들을 가져오니,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 4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 5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의 등잔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 왕이 글자 쓰는 손을 보았고
- 6 왕의 안색이 변하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넓적다리 관철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
- 7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여 바빌로니아의 지체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 주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겠으니, 그가 이 왕국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8 그리하여 왕의 모든 지체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주지도 못했다.
- 9 그러자 벨사살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안색이 변하고, 귀족들도 두려워하였다.
- 10 ○태후가 왕과 귀족들의 말 때문에 연회장으로 들어와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 무강을 빕니다. 왕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하시오.
- 11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부친 때부터 있었으며,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친히 세우셨습니다.
-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였으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과 지식과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
- 13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불러 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네가 내 부왕께서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냐?”
- 14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어 명철과 총명과 특별한 지혜가 네게 있다고 하더라.
- 15 지금 내가 지체자들과 주술가들을 내 앞에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보여 주지 못했다.
- 16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만일 네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내가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네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줄 것이니, 네가 이 왕국에서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의 선물들은 왕 스스로 가지시고, 상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글자는 제가 왕께 읽어 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18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습니다.
- 19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분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죽이거나 살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높이거나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 20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완고해져서 거만하게 행할 때에, 그분께서 왕좌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빼앗겼으며,
- 21 그분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고 거처는 들나귀와 함께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그때에야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2 그분의 아들인 벨사살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 23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님을 거역하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출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 25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켈 바르스’입니다.
- 26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 27 ‘데켈’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 28 ‘바르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고 그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고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였다.
- 30 ○그 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살해되었고,
- 31 메대 사람 다리오스가 그 왕국을 얻으니, 그의

나이 육십이 세였다.

###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

- 6 1 ○다리우스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왕국에 백이십 명의 총독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 2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는 총독들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총리들에게 보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 3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
- 4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 5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된 어떤 구실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 6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만수 무강을 빕니다.
- 7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장관들, 총독들, 고문관들, 도지사들 서로 의논한 결과 한 가지 법안을 세우고 금지령을 집행할 것을 왕께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삼십 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 8 이제 왕이시여, 금지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9 이에 다리오스 왕이 그 조서와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 10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 11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 12 왕에게 나아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삼십 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사자 굴에 던지기로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명령은 확고하니,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된 것이다.”
- 13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 포로로 잡혀 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지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라고 하였다.
- 14 ○왕이 말을 듣고 크게 근심했으며, 다니엘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해가 지도록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 15 그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께서 아시는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왕께서 도장을 찍은 금지령이나 칙령은 절대 변경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16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다.”라고 하였다.
- 17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굴 입구를 막았고, 왕이 자기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것을 봉하여 다니엘에 관한 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였다.
- 18 왕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그 밤에 금식하며, 자기 앞에서 어떤 유희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 19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 굴로 급히 가서
- 20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 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하니,
- 21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 무강을 빕니다.
- 22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분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시여, 나는 왕 앞에서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니,
- 23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에게 아무 상처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 24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끌어 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지게 하니, 그들이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 모든 뼈를 부수뜨렸다.
- 25 ○그때에 다리오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 26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

- 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 27 그들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 28 ○이 다니엘은 다리오스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통치하는 동안 형통하였다.

### 네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 7 1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털속으로 환상들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실상에 대해 말했다.
- 2 다니엘이 말하였다. “밤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 3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 4 그 첫째는 사자 같았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며 내가 보니, 그 날개들이 뽑히고 땅에서 들리더니,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 5 또 보아라, 다른 둘째 짐승은 곰 같았는데, 몸 한편이 드러났고 그 입의 이빨들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비뼈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더 많은 고기를 삼켜라.’ 하였다.
- 6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있는데 표범 같았으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 달려 있었고, 또 그 짐승은 네 개의 머리를 가졌으며 권세를 받았다.
- 7 그 후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계속 보니, 넷째 짐승이 있는데, 두렵고 무섭고 매우 강하였다. 그 짐승이 철로 된 큰 이들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고,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았다. 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으며 열 개의 뿔을 가졌다.
- 8 내가 그 뿔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처음 뿔들 중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다. 보아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었다.
- 영원하신 분
- 9 내가 보니,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였으며 그의 보좌는 타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 10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 나오는데, 그를 시종드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 서있는

- 자가 만만이었으며,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 11 ○그 뿔이 말하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그 때에 내가 유심히 보니,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
-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박탈 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정해진 때까지 연장되었다.
- 13 밤중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 환상에 대한 해석**
- 15 ○나 다니엘의 몸 안에 있는 내 영이 근심하였고,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놀라게 했다.
- 16 내가 내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으니, 그가 내게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 주었다.
- 17 “이 네 마리 큰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 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히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 19 ○그때 나는 넷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짐승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달리 매우 무섭고, 철 이와 낯빛 발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며, 남은 것은 무엇이냐 발로 짓밟아 버렸다.
- 20 또 그 머리에 있던 열 뿔들과 또 새로 나온 한 뿔 앞에서 세 뿔들이 빠져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과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으니, 그 모양이 동류의 뿔보다 더 컸다.
- 21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는데,
- 22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해 판결하셨고,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받았다.
- 23 ○그가 넷째 짐승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다. “땅에 넷째 왕국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다른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부수되리라.”
- 24 열 뿔들은 이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들인데, 그들 후에 이전 왕들과는 다른 한 왕이 일어나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 25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압제하고, 정

- 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 동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 26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 27 그대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 28 ○이렇게 그 일이 끝났다. 이 생각들이 나 다니엘을 놀라게 하여 내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나는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 8 1 ○처음 환상이 내게 나타난 후, 벨사살 왕 통치 제 삼년에 나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다시 나타났다.
- 2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보았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 성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볼 때, 내가 들레 강가에 있었다.
- 3 내가 두 눈을 들어 보니, 한 마리 숫양이 강둑에 쏘는 듯 두 뿔을 가졌고, 두 뿔이 다 길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나온 것이다.
- 4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들어받으니 어떤 짐승도 그 앞에 맞서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구해 낼 자도 없었으므로, 숫양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강대하게 되었다.
- 5 ○내가 주목하는 중에 보이라,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두 드리진 뿔이 나 있었다.
- 6 그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전에 강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숫양에게 다가가는데, 엄청난 분노로 돌진해 갔다.
- 7 내가 보니, 숫양에게 다가가서 매우 분노하여 숫양을 치고 그 두 뿔을 부러뜨렸으나 숫양에게는 대항할 힘이 없으므로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쓰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었다.
- 8 그 숫염소가 극히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개의 두드리진 뿔이 하늘의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
- 9 ○그 중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 크게 자라났다.
- 10 그 뿔이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지더니, 군대의 별들 중에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 11 그것이 군대를 주관하는 분에게까지 자신을 높이,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리고 그 성소도 무너뜨렸다.
- 12 반역으로 인하여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다 그에게 넘겨졌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행동하였다.
- 13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이에게 물기를, “환상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반역으로 황폐케 되고,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
- 14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천삼백 주야이니, 그 때에 이르러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 설명**
- 15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습을 한 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 16 내가 들레 강둑 사이에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외쳐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여라.” 하였다.
- 17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니, 그가 올 때에 나는 두려워 땅에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라.” 하였다.
- 18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우며
- 19 내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 네게 알려 주겠으니, 마지막의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 20 내가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며,
- 21 그 숫염소는 헬라 왕으로,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다.
- 22 그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에 뿔 넷이 났으니 네 왕국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나 힘은 그보다 못할 것이다.
- 23 그들 왕국의 마지막 때에 곧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곧은 얼굴을 하고 지략에 능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 24 그의 힘이 강대하니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행동할 것이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 25 그는 간교하므로 자기 손으로 거짓을 능란하게 행하고 그스 마음은 스스로 높이며, 많은 자들을 경고 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설 것이나, 결국 손대지 않아도 부서질 것이다.
- 26 내게 말한 주야의 환상이 참되므로 너는 그

환상을 봉해 두어야 할 것이니, 이는 먼 훗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27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가 그 환상 때문에 놀랐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 다니엘의 기도

- 9 1 ○메대 후손이며,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 된 첫째,
- 2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해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칠십 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이다.
- 3 ○이에 나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다.
- 4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하였다. “오, 주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 5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 6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이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 7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원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주께 행한 신실치 못한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쫓아 버리신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오늘처럼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8 여호와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니,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였으며,
- 10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1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기에 서 떠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여 맹세하신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 12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 예루살렘에서 내리신 것과 같



- 은 재앙은 온 하늘 아래에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 14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 15 주님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시다.
- 16 ○주님, 주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따라 주님의 성을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온 주변에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 17 이제 우리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얼굴을 폐하가 된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소서,
- 18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여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던 저 폐허된 성읍을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긍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 19 주님, 들어 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마소서, 이는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가브리엘의 환상 설명**
- 20 ○내가 아직 말하여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
- 21 곧 내가 아직 기도를 아뢰는 동안, 내가 처음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재빠르게 날아와, 저녁 제사 때 내게 이르러
- 22 나를 가르치며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습니다.
- 23 내가 간구를 시작할 때에 응답이 있었으므로 내가 네게 알려 주려고 왔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니, 그 말씀에 주목하여 그 환상을 깨달아라.
- 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읍에 칠십 이레가

정해졌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확증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쁨 부음을 받을 것이다.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보원하여 세우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기쁨 부음을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결할 때에 환난의 때에 광장과 거리가 재건될 것이다.

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쁨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앞으로 올 통치자의 군대가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니, 그 마지막은 홍수에 덮일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하게 될 일이 작정되었다.

27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며, 그 이레의 절반에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중지시킬 것이다. 작정된 것이 황폐케 하는 자 위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성전 모퉁이에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을 것이다.”

#### 티그리스 강변에서의 환상

- 10 1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삼년에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참되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며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았고 환상도 알았다.
- 2 ○그때에 나 다니엘이 삼주 동안 슬퍼하며,
- 3 삼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 4 정월 이십사 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 5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가는 배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 6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횡볼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옷을 보는 듯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
- 7 그러나 나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두려움에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므로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 8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 9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 10 ○보아라,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아무런 지름 무릎과 손을 일으켰다.
-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네 자리에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내가 떨며 일어서니,
- 12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네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온 것이다.
- 13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 이십일 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가 페르시아 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령관 중 하나인 미기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 14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다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려고 내가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다.”
- 15 ○그가 내게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니,
- 16 인자의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자 내가 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내 앞에서 있는 이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그 환상으로부터 인하여 고통이 나를 덮었으므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 17 어떻게 내 주님의 종이 주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기력이 쇠하여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하였다.
- 18 ○그러자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져서 내게 힘을 주며
- 19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하였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힘이 나서 말하기를 “내 주님,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하니,
- 20 그가 말하였다. “내가 왜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다음에 헬리의 사령관이 올 것이다.
- 21 진실로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 줄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의 사령관 미기엘밖에 없다.

11 1 내가 매대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일어나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했었다.”

#### 이집트 왕과 시리아 왕

- 2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진실을 알려 주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서 또 다른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부요할 것이다.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할 것

- 이며,
- 3 그 후에 한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를 행사하며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 4 그가 일어설 때에 그의 왕국이 깨어져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며,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누리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의 왕국이 뿌리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 5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장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되어 다스릴 것이니, 그의 권세는 큰 권세가 될 것이다.
- 6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연합할 것이며,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고, 왕도 또한 그의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와 수행원들과 그 여자를 낳은 자와 그 당시 돕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 7 ○그러나 그 여자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사람이 그의 자리에 설 것이니, 그가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 8 그가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과 온 금으로 만든 값진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고, 그 후 몇 해 동안은 북방 왕을 치지 않을 것이다.
- 9 그 다음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영토로 되돌아갈 것이다.
- 10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매우 많은 군대를 모아들이 범람하는 것처럼 쳐들어와서, 또 다시 남방 왕의 요새를 칠 것이니,
- 11 남방 왕이 격분하여 나아가 북방 왕과 맞서 싸울 것이다. 이때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방 왕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 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아 옮길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릴 것이나 이기지지는 못할 것이다.
- 13 북방 왕이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몇 년 후에는 큰 군대와 많은 물자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 14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남방 왕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네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그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 높이겠으니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 15 이에 북방 왕이 쳐들어와 공격 경사로를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니, 남방의 군대들은 맞설 수 없고, 그들의 정예 병사들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 16 북방 침략자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니, 아무도 그에게 맞설 수 없겠고, 그가 그 영광스러운 땅에 주둔하여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 17 그가 자기 온 왕국의 힘을 동원하여 와서 남방 왕과 화친을 맺을 것이며, 여자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왕국을 파멸시키려고 할 것이나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며, 그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 18 그 후에 그가 해안 지방으로 방향을 돌려 많은 곳을 함락시키겠으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모욕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 모욕이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 19 그리하여 그가 자기 땅의 요새로 방향을 돌릴 것이나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악한 북방 왕

- 20 ○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왕국의 영화를 위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자를 두루 파견하지만, 그는 싸움이나 전쟁 없이 며칠 내에 파멸할 것이다.
- 21 또 그의 자리에 어떤 비열한 사람이 앉을 것이니,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아도 그는 평온한 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장악할 것이다.
- 22 범람하는 물 같은 군대들도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할 것이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 23 그는 동맹을 맺은 후 속일 것이며, 올라와서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도 강하게 될 것이다.
- 24 그가 가장 평온할 때 비옥한 지방에 들어가 그의 조상이나 자기 조상의 조상들이 행하지 않던 일들을 행하고, 악랄한 것과 전리품과 재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계약을 세워 요새들을 치겠으나 잠시뿐일 것이다.
- 25 그가 남방 왕을 대적하여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힘과 용맹을 발휘할 것이며, 남방 왕도 큰 군대로 더 용맹하게 싸울 것이나 당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를 대항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 26 왕의 진미를 먹던 자들이 그를 쳐부수어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며,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질 것이다.
- 27 그 두 왕들의 마음이 서로 해하려고 한 실타에서 거짓을 말하겠으나 형통치 못할 것이니, 이는 끝이 그 정한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 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가 마을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슬러 임의로 행하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 29 ○그 작정한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방으로 들어가겠으나 이번에는 지난번 같지 않을 것이니,
- 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그를 치려하므로 그가 두

- 려워서 돌아갈 것이며,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노하여 행하다가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 31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서 서서 견고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타락시키겠으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확고하게 서서 행동할 것이다.
- 33 백성의 지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다가 칼이나 화염이나 포로나 노략질에 의해 한동안 없들릴 것이고,
- 34 그들이 없들릴 때에 도움을 조금 받겠으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 35 그 지혜자들 중 일부는 없들려져 마지막 때까지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며 순화 될 것이니, 이는 아직도 그 정한 때가 남았기 때문이다.
- 36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놀라운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나 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니,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37 그는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이나 다른 어떤 신들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를 모든 신보다 높일 것이다.
- 38 그 대신 그는 견고한 성의 신을 공경할 것이니,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을 바치면서 그를 공경할 것이다.
- 39 그는 이방 신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강한 견고한 성을 공격할 것이며,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영예를 더하여 그들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대가를 받고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 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자기를 찌를 것이니, 북방 왕이 병자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가지고 그를 대항하여 폭풍처럼 휩쓸며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마치 물 밀듯이 지나갈 것이다.
- 41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자들을 넘어뜨리겠으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 42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도 손을 뻗칠 것이니, 이집트 땅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43 그가 금과 은의 보물 창고들과 이집트의 모든 보화들을 관장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그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 44 동방과 북방에서 오는 소문은 그를 놀라게 하여 그가 크게 화를 내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진멸하여 멸망시키고 나아갈 것이며,

- 45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 마지막 때

- 12 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올 것이나, 그런 때에라도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 2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 3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 4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터할 것이다.
- 5 ○그 후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서 있었다.
- 6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배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

-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하였다.
- 7 내가 들으니, 가는 배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께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 8 내가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 9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다.
- 10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 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 11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 이 지나갈 것이고,
- 12 천삼백삼십오 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 13 너는 마지막까지 네 길을 가거라. 네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네 유업을 누릴 것이다.”



# 호 세 아

1 1 ○유다의 왕들인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 호세아의 아내와 자녀

2 ○여호와와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므로

3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4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파를 여후의 집에 갇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5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6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 그러나 내가 유다 집을 긍휼히 여겨,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할 것이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 떼 후에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의 회복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것이다.

11 그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1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임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들을 ‘로루하마라’ 불러라.

## 음란한 아내에 대한 징계

2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해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해 하여라.

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난 때처럼 만들고, 그를 광아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4 내가 그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그 말은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내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7 그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비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었던 것임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9 그러므로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포도주 철에는 내 새 포도주를 돌려받을 것이며, 또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 주었던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을 것이다.

10 이제 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내 손에서 그 여자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1 내가 그의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할 것이니, 곧 그의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들이다.

12 그가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었던 값이다.’ 라고 말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케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13 그 여자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비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비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음란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와의 사랑

14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15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이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16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 날에 너는 나를 ‘이슈라’ 부르며 다시는 나를 ‘비알리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17 내가 그의 입에서 비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8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

하여 그들을 평안히 놓게 할 것이다.

19 내가 네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며,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니, 네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21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 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며,

22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 아내를 다시 데려온 호세아

3 1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 빵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간음한 여자를 사랑하여라.” 하시므로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고,

3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간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마라. 나도 네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4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예복과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아올 것이다.

##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여호와

4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나) 내 백성이 아닌 사람 다) 내 백성 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가) ‘내 남편’이라는 의미. 나) ‘내 주인’ 또는 ‘내 남편’이라는 의미.

-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횡행하며  
피가 피를 뒤잇는다.  
3 그러므로 땅이 신음하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더불어  
쇠약해지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 4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마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5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 7 그들이 변성할수록  
내게 더욱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꿀 것이다.  
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죄악에 둔다.  
9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똑같이 될 것이니,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10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간음하여도 숫자가 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11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12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저희에게 알려 주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기 때문이다.  
13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덕들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미루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 이는 그 그들이 좋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14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성전 창기와 함께 제사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 15 이스라엘아,  
비록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 16 이스라엘이  
고집 센 암소처럼 완고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넓은 초장의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17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  
18 그들의 술자리가 끝나면  
음행에 탐닉하고,  
통치자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기뻐한다.  
19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들을 휩쓰니,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 이스라엘과 유다에 내린 형벌

- 5 1 제사장들이,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텃이 되며  
디불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2 반역자들이 살육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모두 징계할 것이다.
- 3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을 수 없으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5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 드러났으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6 그들이 자기 양 떼와 소 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으며 기다려도  
그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 7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이제 초하루 절기가  
그들과 그들의 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라고 하여라.
- 9 질책의 날에 에브라임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확정된 일을 알게 하였다.
- 10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물같이 쏟아 부을 것이다.
- 11 에브라임이 압제당하고  
심판을 받아 짓밟히니,  
이는 그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줄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게 하는 것 같다.
-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이 아시리아로 가며,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치료할 수 없으며,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 14 이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나, 곧 내가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그들을 찢고 떠날 것이므로  
내가 빼앗더라도  
그들을 구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 15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또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

- 6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 3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옴은  
새벽 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빛처럼 나갈 것이다.
-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 7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며  
피로 물들었다.
- 9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니,  
참으로 그들이 악을 행한다.
-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 11 또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 때를 정해 놓았다.
- 7**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안으로 침입하고  
강도들이  
바깥에서 약탈하기 때문이다.
- 2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 3 그들이 자기의 악으로 왕을,  
자기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 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니,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과 같아서  
반죽이 발효될 동안만  
불 지피기를 쉬고 있다.
- 5 우리 왕의 잔치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열기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는다.
- 6 그들은 화덕 같은 마음으로  
음모를 꾸며 접근하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 7 그들이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자기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쓰러지게 하나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 8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 9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키나  
에브라임 자신은 알지 못하고,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그가 알지 못한다.
- 10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고  
아시리아로 간다.
-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들 위에 펼쳐서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 무리가 들었던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 13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 주려 하나  
그들은 내게 대항하여 거짓을 말한다.
- 14 그들이 침대에서 올부짖을 때에도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들지만  
내게는 거역한다.
- 15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 16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종거리가 될 것이다.

### 8 광풍을 거두게 될 이스라엘

- 1 너는 나팔을 네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와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지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할 것이다.
- 3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 4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찍혀 나갈 뿐이다.
- 5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가 버려졌다.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니,  
어느 때까지 그들이  
무죄하겠느냐?
- 6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낳으며  
장인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며,
- 7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에 이삭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알곡을 내지 못할 것이고,  
혹시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 8 이스라엘이 먹고 말았으니,  
솔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
- 9 그들이 홀로 떠도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갔고,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값을 주고 고용하였다.
- 10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값을 주고 고용하였더라  
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왕이 지워 준 짐 때문에  
쇠약하기 시작할 것이다.
- 11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 12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 13 내게 드리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기로 제사 드리고  
그것을 먹으니,  
여호와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이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건축했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으나,  
나는 그들의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 9 이스라엘을 벌하려는 여호와

- 1 O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 2 타작마당과 술통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바닥날 것이다.
- 3 그들이 여호와와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 4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도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제물은  
애도하는 자의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음식이  
자기를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여호와와 집에 들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5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와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 6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며,  
메미스가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다.  
영정취가 그들의 은 보물을 덮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 7 이스라엘아, 알라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네 죄악이 많고  
네 미움이 크기 때문이다.
- 8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나,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9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10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들이 비알브올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드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12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13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옷에 심겨졌으나,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14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그들에게 주소서.

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16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랐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그들의 태의 사랑스런 열매를  
죽일 것이다.

17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10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한다.  
2 그들의 마음이 신실치 못하니,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깨뜨리시며,  
그들의 우상들을 부수실 것이다.

3 참으로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으나,  
왕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할 것이다.  
4 그들은 말만 할 뿐이고,  
공허한 맹세로 언약을 맺으니,  
재판이 밭이랑의 독초 같다.  
5 사마리아의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또 그것과 그 영화를 즐거워한  
그 우상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니,  
이는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6 그 송아지는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아웬 왕에게 예물로 드려질 것이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락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7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이 파괴되어  
가시와 엉성취가  
그들의 제단들 위로 자라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덮어라.” 하고,  
언덕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로 무너져라.”  
할 것이다.

9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의 불의한 자들을  
덮치지 않겠느냐?  
10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그들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할 때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11 에브라임은 길든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므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명예를 매우며,  
에브라임으로 끌게 할 것이니,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아굽은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12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의 목은 땅을 갈아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13 너희가 밭을 갈아 악을 심고  
불의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네 용사의 수가 많은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네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며  
네 모든 일새가 파괴될 것이니,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과 같고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15 베델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여호와

11 1 O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 내었다.  
2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고,  
비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3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명예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었다.  
5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자기 왕이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6 같이 그들의 성을 들을 휩쓸며  
그 빗장들을 깨뜨려 삼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7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하니,  
그들이 높이 있는 자에게  
다같이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높이지 않는다.

8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10 그들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와 뒤를 따르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다.  
11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니,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같이이다.

### 에브라임의 죄와 형벌

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며,  
우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하였다.

**12**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을 더하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로 기를을 보낸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고발하시는 여호와**

2 여호와께서 유다를 고발하시며,  
아굽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3 아굽은 모테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4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5 여호와와 만군의 하나님이지고,  
여호와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6 그러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7 장사꾼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부자다.  
내가 재산을 모았으나,  
나의 모든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자가 없다.”  
하였으나,

9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10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환상을 많이 보여 주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말하였다.

11 길르앗이 불의하나?  
그들이 참으로 헛되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들의 제단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12 아굽이 이람 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일했으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양 떼를 쳤다.

13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를 통해 보호를 받았다.

14 그러나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매우 격노케 하였으니,  
주께서 그 피 흘린 죄를  
그에게 몰으시고,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여호와**  
13 1 O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떨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졌으나,  
비알 때문에 죄를 지어 망하였다.

2 지금도 그들은 더욱 죄를 지어  
자신을 위해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드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한다.

3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이다.

4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5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6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잊었다.

7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8 내가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심장을 찢고,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며,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

9 이스라엘아,  
네가 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돕는 자, 곧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10 네가 말하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으나,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네 왕과  
네 재판관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11 내가 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었고  
분노하므로 왕을 폐하였다.

12 에브라임의 죄악이 봉합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다.

13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어서  
때가 되었어도  
태를 열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

14 스울의 권세에서  
내가 그들을 속량하며,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궁핍함이 내 눈앞에서 감춰졌다.

15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변성하더라도  
동풍,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와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그의 물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말라붙고,  
창고의 모든 보배가 약탈될 것이다.

16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니,  
그들이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부서뜨려지고,  
아이 뱀 여자는 배가 갈라질 것이다.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여호와**  
14 1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2 너는 말쑥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서원을 갚겠습니다.  
3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

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기 뿌리를 내릴 것이다.

6 그의 가지들이 뻗어나가며,  
그의 이름다운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7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며,  
그들이 곡식같이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어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  
내가 네게 대답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9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1 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재앙을 만난 농민들의 탄식

2 늙은 자들이,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이,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 있었느냐?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손은 그들의 자손에게,  
또 그들의 자손은  
그 다음 세대에 말하여라.

4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5 깨어라, 술 취한 자들이,  
너희는 통곡하여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울부짖어라.  
이는 새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6 참으로 한 민족이  
내 땅으로 올라왔는데,  
강하고 그 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나무 꺾질을 벗겼다.  
그들이 그것을 벗겨서 내버리니,  
그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8 너희는  
처녀가 젊을 때 약혼한 남자 때문에  
베옷을 입고 애곡함같이 하여라.  
9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끊어지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10 땅이 황폐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다하였다.

11 부끄러워하여라, 농부들이.  
울부짖어라, 너희 포도원의 일꾼들이.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니,  
들판의 수확이 다 없어져 버렸다.

12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시들며,  
석류나무와  
심지어 종려나무와 사과나무,  
곧 들의 모든 나무들이 말랐으니,  
참으로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 버렸다.

13 띠를 두르고 슬피 울어라,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울부짖어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베옷을 두르고 밤을 지새워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14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으니,  
진능자가 보내신 파멸처럼  
그 날이 올 것이다.  
16 음식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17 씨앗들이 그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들은 폐허가 되며  
곳간들이 무너졌으니,  
참으로 곡식이 말라 버렸다.

18 가축은 얼마나 신음하며,  
소 떼는 얼마나 방황하는가.  
이는 그들에게  
먹을 풀밭이 없기 때문이며,  
또 양 떼도 고통을 당한다.

19 주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키고,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이다.  
20 또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으니,  
이는 물 흐르는 계곡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켰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날을 경고한 메뚜기 떼

2 1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와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2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3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4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5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6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7 그들이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행진하며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8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각기 곧바로 행진하며,  
병기로 돌진할 때  
대열은 흩어지지 않는다.

9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며  
창문을 통해 도둑같이 침투한다.

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11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와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회개를 촉구함

12 여호와와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여호와와 응답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14 그분이  
뜻을 돌키시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를 소집하여라.

16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케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아라.  
신랑은 자기 신방에서,  
신부는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하며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유업을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어찌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 18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19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니,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며,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 20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옮겨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니,  
그 앞선 부대는 동쪽 바다로,  
뒤에 있는 부대는 서쪽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악취가 일어나고  
상한 냄새가 올라올 것이니,  
이는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 21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 22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광야의 풀들이 싹을 내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 23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분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알맞게 주실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 24 타작마당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큰 통들은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날 것이다.
- 25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폴무치가 먹었던 햇수만큼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 26 너희는 풍족히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 27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는 없으니,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만민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영
-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 29 그 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줄 것이다.
- 30 ○내가 하늘과 땅에 짐승들, 곧 피와 불과 연  
기 기둥들을 베풀 것이다.
- 31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  
니, 크고 두려운 여호와와 날이 오기 전에 그  
렇게 될 것이다.
- 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는 피하여 살아남  
은 사람이 있을 것이며, 남은 사람들 중에 여  
호와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 3 1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  
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2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  
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  
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  
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3 내 백성을 제비 뽑아, 소년은 창녀와 바꾸고,  
소녀는 자기들이 마시는 술값을 위해 팔았  
다.  
4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방들이, 너희  
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  
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  
가 즉시 너희 행위를 너희 머리에 되돌릴 것  
이다.  
5 너희는 내 은과 금을 취했고, 나의 귀한 보물  
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6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  
들에게 팔아, 그들의 지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7 보아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 넘긴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너희 행한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8 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며, 그들을 스바 사람들, 곧 멀리 있는  
민족에게 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 9 “너희는 민족들에게  
이것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여라.  
용사들을 격려하여  
모든 병사를 집결시키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여라.  
10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게 하여라.
- 11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신속히 와서 그곳에 모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 12 “민족들로 분발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여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 14 매우 많은 무리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 15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심
- 1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
- 17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 18 그 날에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고,  
언덕들은 젖을 흘릴 것이다.  
유다의 모든 계곡에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  
싹 틔워 골짜기에 물을 공급할 것이다.
- 19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애돔은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여  
자기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 20 유다는 영원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21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 아 모 스

### 책의 제목과 주제

1 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이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이 일어나기 이년 전에, 드고아 출신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말씀들이다.

2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슬퍼하며,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다마스쿠스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쇠 타작기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벤하닷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5 또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부셔뜨리고,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을,  
벧에덴에서 왕권 잡은 자를  
끊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람 백성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가사에 대한 심판

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가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

7 그러므로 내가  
가사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8 또 내가 아스돗에서 주민과,  
아스클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끊어 버리고  
내가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칠 것이니,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두로에 대한 심판

9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에돔에 넘기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내가  
두로의 성벽들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 에돔에 대한 심판

1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추격하였고  
자기의 궁핍을 버리고  
또 그의 분노가 항상 터져 나와,  
화를 끊임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12 그러므로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보스라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 암몬에 대한 심판

1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암몬 자손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임신부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내가  
랍바의 성벽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전쟁의 날에 함성과  
폭풍의 날에 거센 바람으로  
그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15 그들의 왕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모압에 대한 심판

2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ㄱ) 어떤 사본에는 ‘에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리옷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모압이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죽을 것이며,  
3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끊어 버리고,  
그와 함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유다에 대한 심판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우상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의인을 은을 받고 팔며,  
궁핍한 자를 신 한 켤레에 팔았고,  
7 또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 위에 짓밟고,  
억압받은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아비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8 또한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잡힌 옷들 위에 누우며,  
저희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셨다.”  
9 그러나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으니,  
저들의 키가 백향목같이 크고,  
그들의 힘이

상수리나무처럼 세더라도  
내가 위로는 그의 열매를,  
아래로는 그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10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너희를 사십 년 동안  
광야 길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11 내가 너희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너희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들을 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12 “그러나 너희는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명령하였다.”

13 보아라,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누르듯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니,  
14 민첩한 자도 도망가지 못하고,  
힘센 자도 자기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15 활 쏘는 자도 건지지 못하며  
발 빠른 자도 도피하지 못하고  
말 탄 자도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16 심지어 용사들 중에  
가장 용맹한 자도,  
그 날에 벌거벗은 채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여호와와의 말씀

#### 이스라엘의 선택과 심판

3 1 O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  
를 향해 이르는 이 말씀을 들어라.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지파들을 향해 말한다.  
2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선지자의 시명  
3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4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으면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 땅에 뒹굴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는데,  
뚝이 어찌 땅에서 뿔겠느냐?  
6 성읍 안에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면,  
어찌 백성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8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마리아의 죄악과 심판  
9 너희는 아스돗의 궁전들과,  
이집트 땅의 궁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서  
그 가운데 있는 저 큰 소요와  
그 속에 있는 압제들을 보아라.  
10 그들이 자기 궁전에  
폭력과 화대를 쌓고 있으니,  
올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대적이 이 땅을 포위하여  
네게서 네 성벽을 무너뜨리고  
네 궁전들을 약탈할 것이다.”  
12 O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마치 목  
자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을 건  
져내듯이, 사마리아에서 침대 모서리에나 긴  
의자의 비단 방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자손  
들이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13 “너희는 듣고,  
아람의 집에 증거하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14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벌하는 날에,  
내가 또한  
베델의 제단들을 벌할 것이니,

그 제단의 뿔들이 잘려  
땅에 떨어질 것이다.  
15 내가 겨울 집과  
여름 집을 부술 것이니,  
상아로 장식한 집들이 무너지고,  
큰 집들이 파괴될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4

1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며  
자기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시오,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2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보아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남은 자들은  
낙시로 그리 할 것이다.”  
3 너희는 각자 성벽 무너진 데로  
곧바로 끌려나가  
하르모스로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4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범죄를 더하여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사흘마다 너희 십일조를 바쳐라.”  
5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치아를 깨끗하게 하였고  
너희 모든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7 “또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어떤 들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 버렸다.
- 8 이에 두세 성읍 사람이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9 “내가 너희들을  
임마림병과 감부기로 치고,  
메뚜기가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들을  
값아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10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같이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게 하였으며  
너희 말들이 사로잡히게 하였고  
너희 진영의 악취가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11 “나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뒤엎었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중에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여라.”
- 13 보아라,  
산들을 만드신 분,  
바람을 창조하신 분,

자기 뜻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  
새벽을 어둡게 하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다.

- 5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 1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 대해  
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어라.
- 2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 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천 명이 출전하던 성에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출전하던 성에  
열 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하면 살 것이다.
- 5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6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사를 것이니,  
베델을 위해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 7 너희는 공의를 쓴 속으로 바꾸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 8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 9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가져오는 분이시니,  
패망이 요새에 임할 것이다.

- 10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 11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한 세로 취하여  
다들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 12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죄가 셀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곤경에 빠뜨려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 13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함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 14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마라.  
그러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궁휼히 여기실 것이다.
-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고  
사람들이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다.
- 17 모든 포도원에 울부짖음이 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라**
- 18 화 있을 것이다,  
여호와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왜 너희가

여호와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다.  
사람이 사자 앞에서 도망하다  
꿈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20 여호와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며,  
캄캄하여 밝음이 없는 날이 아니다.

- 21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거부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너희 곡물 제사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살진 짐승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 23 네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네 비파 곡조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 25 ○“이스라엘 집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희생과 곡식 제사를 내게 드렸느냐?
- 26 너희는 너희 왕 식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  
희 자신을 위해 만든 별 형상의 신들을 짊어  
지고 갔다.
- 27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편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애가

- 6** 1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며,  
으뜸가는 민족으로 유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집들이 따르는 자들아.
- 2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 3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한다.
- 4 너희는 상아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 양 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5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6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7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 중  
첫째로 사로잡혀 갈 것이며,  
기지가 켜는 자들의 잔치가  
그칠 것이다.”  
8 주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굽의 교만을 혐오하며  
그의 궁전들을 미워하므로  
그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 대적에게 넘길 것이다.” 하셨다.  
9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을지라도, 그들이 죽  
게 될 것이다.  
10 죽은 사람의 삼촌이나 그를 화장할 자가 집  
에서 시체들을 내가려고 들어올리면서 그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누  
가 더 있습니까?” 하면, 그가 “아무도 없습니  
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잠잠하십시오. 여호와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11 보아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큰 집은 헐파되고  
작은 집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12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의를 독약으로,  
정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13 너희는 로다바르의 정복을 기뻐하는 자들  
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르나  
임을 정복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자  
들이다.  
14 “보아라, 이스라엘 집들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너희  
를 괴롭힐 것이다.”

#### 첫째 환상 : 메뚜기의 재앙

- 7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보여 주셨  
다. 보아라, 왕이 풀을 깎게 한 뒤에 새싹  
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보아라, 그분이 메  
뚜기 떼를 만들고 계셨다.

- 2 메뚜기가 땅의 식물들을 다 먹어 치웠을 때에  
내가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시여, 용서하소서. 아굽이 미약  
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니,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말  
씀하시기를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 둘째 환상 : 불

- 4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여 주셨다.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외쳐 불로 심판하게  
하시니, 불이 큰 심연을 삼키고 육지까지 삼  
키려 하였다.  
5 이에 내가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시여, 제발 그치소서, 아굽이 미  
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였더니,  
6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 셋째 환상 : 다림줄

- 7 ○그분이 내게 이같이 보여 주셨다. 보아라,  
주께서 다림줄로 쌓은 성벽 위에 서셨는데,  
그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  
8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  
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그때 주께서 말  
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예언을 금함

- 10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  
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모스가 이  
스라엘 족속 중에서 당신에게 음모를 꾀하니,  
이 나라가 그의 모든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  
다.  
11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끌려갈 것이다.’라  
고 합니다.”  
하고,

- 12 아마사가 아모스에게도 말했다. “선전자야, 유  
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며  
13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기 때문이다.”  
14 ○이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  
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이고, 시키모어 나무를 가  
꾸는 자였는데,  
15 여호와께서 양 떼를 몰던 나를 데려다가, 내  
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말씀하셨소.  
16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며, 이삭  
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마라.’  
하니,  
1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기가 되고,  
네 자녀들은 칼에 쓰러지고,  
네 토지는 측량되어 나누어지며,  
너는 부정한 나라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소.”

#### 넷째 환상 : 여름 과일 한 광주리

- 8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보여 주  
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  
었다.  
2 그분이 물으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므로 이에 내가 대답했다. “여  
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종말이 임했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3 그 날에는 왕궁의 노래가 통곡으로 변할  
것이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모든 곳에  
시체가 많아 사람들이 잠잠히 내어버릴 것  
이다.”  
4 궁핍한 자를 짓밟고  
이 땅의 억압받은 자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5 너희는 말하기를

“초하루가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말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고,  
6 가난한 자를 은으로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밀 찌꺼기도 팔아먹자.” 하였다.

- 7 여호와께서 아굽의 영예를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8 이로 인해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거민이 모두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나일 강같이 솟구치다가,  
이집트의 나일 강같이  
가라앉지 않겠느냐?

- 9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 날에 내가  
한낮에 태양이 지게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할 것이다.  
10 내가 너희 절기들을 통곡으로,  
너희 모든 노래들을  
애가로 바꿀 것이다.  
내가 모든 허리에  
베로 띠를 두르게 하고,  
모든 머리로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이  
외양골을 잃고 통곡하듯 하게 하며,  
그 마지막이  
쓰러린 날이 되게 할 것이다.

- 11 주 여호와와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니,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물의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12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에서 동까지 돌아다니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나,

-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목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14 사미리아의 신 <sup>가</sup>아슈마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단아 너의 신의, 사심과  
 브엘세바의 신의 <sup>나</sup>데렉의 사심으로,  
 라고 말하니,  
 그들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 다섯째 환상 : 이스라엘의 심판

- 9 1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에서 말씀하  
 셧다.  
 “기둥머리들을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  
 저들의 모든 머리를 치게 하여라.  
 그들의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니,  
 그들 중 아무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 2 그들이 스올로 파고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올릴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3 그들이 갈멜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며,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4 그들이 자기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 5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땅을 만지면 그것이 <sup>다</sup>녹아  
 그 모든 거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마치 니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니일 강처럼 가라앉는다.

- 6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땅 위에 창공의 기초를 놓으신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7 여호와와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자손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 8 보아라,  
 주 여호와와 눈이  
 범죄한 왕국을 주목하시니,  
 내가 그 왕국을  
 땅 위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나 아람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9 “보아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제질하도록 하되,  
 체로 흔들듯 할 것이니,  
 돌맹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 10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거나,  
 우리에게 미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 이스라엘의 회복
-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서,  
 그것들의 갈라진 틈들을 보수하며,  
 그 폐허를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재건하여,  
 12 그들로 예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다.
- 13 여호와와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에 밭 가는 자가

-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오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오며,  
 산들이 단 포도즙을 흘려  
 모든 언덕들이 녹을 것이다.  
 14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황무한 성읍을  
 재건하여 살고,  
 포도원을 가꾸

-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15 내가 그들을  
 자기들 땅에 심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 1 오바다의 계시다. 에돔을 심판하신 여호와

- 2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니,  
사신이 모든 나라에 파송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  
그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 3 “보아라.  
내가 너를 모든 나라 가운데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니,  
네가 매우 멸시를 당할 것이다.
- 4 너는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마음에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하니,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 5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네 동지를 별들 사이에 돌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 6 “만약 도둑들이 네게 이르고,  
강도들이 밤중에 네게 이룬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따는 사람들이 네게 이룬다면,  
그들이 약간의 포도는  
남겨 두지 않겠느냐?  
너는 어찌 그렇게 망하였느냐?
- 7 에서가 어찌 그렇게 살살이  
조사당하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가?  
네 모든 동맹자들이  
너를 변방으로 몰아내었고,  
너와 화목하던 사람들이  
너를 속여 이기고  
너와 함께 먹던 사람들이  
‘그에게는 충명이 없다.’ 하며,  
네 아래에 밋을 놓을 것이다.”
- 8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에서의 산에서

- 9 총명한 사람을 멸하지 않겠느냐?  
데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  
에서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육되어 없어질 것이다.  
아람에 대한 에돔의 폭력
- 10 네 형제 아람에 대한 폭력 때문에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니,  
네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 11 네가 따로 서 있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던 날에,  
외국인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을 때에,  
너 또한 그들 중 하나같이 하였다.
- 12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의 재앙의 날에 쳐다보지 말고,  
유다 자손의 멸망의 날에  
기뻐하지 말며,  
고통의 날에  
네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 13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한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대지 마라.
- 14 너는 길목에 서서  
그들의 피난민들을 죽이지 말고,  
그 생존자들을  
그들의 재앙의 날에  
팔아넘기지 마라.
- 15 이는 모든 열국에 대한  
여호와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해질 것이니,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 16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계속 마실 것이니,  
그들이 마시며 삼켜서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 17 그러나 시온 산에는  
피난한 자들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아람의 집이  
자기의 소유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 18 아람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나,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불태울 것이니,  
에서의 집에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19 네게브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  
며, 쉘렐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  
아의 들을 차지하며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  
지할 것이다.

- 20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고,  
스바랏에 있는 사로잡힌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게브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 21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니,  
그 왕국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간 요나

- 1 1 ○여호와와 말씀이 이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옴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
- 4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니, 그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게 되었다.
- 5 선원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 6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만약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소.” 하였고,
- 7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 8 그들이 요나에게 물기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당신의 나라는 어디이며, 당신은 어느 민족 사람이오?” 하니,
- 9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 10 자신이 여호와와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중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하였다.
- 11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 앞에서 잔잔해지겠소?” 하

니,

- 12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 13 그 사람들이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14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 15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성난 바다가 멈추었다.
- 16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 17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 2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 2 아뢰었다.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 3 주께서 바다 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었습니다.
- 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하였습니
- 5 물이 나를 영혼까지 에워싸고,

- 깊음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다물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 6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 그 빗장들로 나를 영영 가두었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 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 8 헛되고 공허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인애를 버렸지만
- 9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었다.

##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 3 1 ○여호와와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 3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사흘이나 걸어야 하는 매우 큰 성읍이었다.
- 4 요나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외치기를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니,
-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굶은 배움을 입었다.
- 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이 그의 왕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굶은 배옷을 걸치고 재 위에 앉았다.
- 7 왕이 니느웨에 공포하여 말했다. “왕과 대신들이 칙령을 따라 명령한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되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여라.
- 8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굶은 배움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각기 자기의 악

- 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돌아오게 하여라.
- 9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면 우리가 멸망치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 10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악한 길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 여호와께 불평한 요나

- 4 1 ○그러나 이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불쾌하였고, 그를 화나게 하였다.
- 2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 3 여호와시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 4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다.
- 5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였다.
- 6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박 넉줄을 준비하여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만드셔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뜻이었다. 요나는 이 박 넉줄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 7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여 기어오르게 하였고, 그 벌레가 박 넉줄을 갉아먹으니, 시들어 버렸다.
- 8 해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쬘자 요나는 기진하여 간절히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9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박 넉줄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낳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 넝쿨을 아꼈는데

11 하물며 죄우를 가릴 줄 모르는 십이만여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 미가

1 1 O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와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다.

###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2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인이 되시되,  
주께서 그의 거룩한 전에서부터  
그렇게 되실 것이다.

3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셔서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니  
그분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며,  
불 앞의 밀랍처럼,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될 것이다.

5 이는 모두 아굽의 반역 때문이고,  
이스라엘 집의 죄 때문이다.  
아굽의 반역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6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폐허같이  
포도 심을 밭들로 만들 것이며,  
또 그곳의 물들을  
골짜기로 굴러 떨어뜨리고,  
그곳의 기초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7 그곳에 있는 새긴 우상들이  
모조리 부숴지고,  
모든 음행의 값이 불 태워지며,  
내가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곳이 창기의 몸값으로  
재물을 모았으므로,  
그것들이  
창기의 몸값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 예루살렘의 멸망

8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고,  
내가 맨발로

벌거벗고 돌아다닐 것이다.  
내가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의 새끼처럼 슬피 울 것이다.

9 이는 그 성의 상자들이  
치유될 수 없고,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10 가드에 알리지 말며  
절대로 통곡하지 마라.

“베들레아브라에서  
타끌에 땀굴어라.

11 너 사빌 주민아,  
수치스런 벌거숭이로 지나가거라.  
시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벧에셀이 슬피 울며  
너희에게서 그 설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12 마롯 주민은 좋은 것을 간절히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내렸기 때문이다.

13 라기스 주민들아,  
너희는 군마에 병거를 매어라.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네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에게  
작별의 <sup>1)</sup>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속일 것이다.

15 마레사 주민아,  
내가 다시 너를 차지할 자를  
네게 오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들람까지 이를 것이다.

16 너는 네 기뻐하는 자녀로 말미암아  
네 머리를 깎아 대머리 되게 하라.  
네 벗겨진 곳을  
독수리처럼 넓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네게서 떠나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이다.

### 가난한 자를 억압한 자들의 운명

2 1 화 있을 것이다.  
자기의 잠자리에서

가) 히, ‘먼지의 집’ 나) 혹은 ‘지침금’

사악한 일을 공리하고  
악을 피하는 자들이야.  
아침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니,  
이는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2 그들은 밭들을 탐내어 빼앗고,  
집들도 제 것으로 만드니,  
그들은 장정과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유업도 강탈한다.

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 족속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니,  
너희의 목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거만하게 걷지도 못할 것이니,  
이는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4 그 날에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속담을 지으며,  
슬픈 노래로 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분이 어찌하여  
내 백성의 분깃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반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가.”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줄로 측량할 자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6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닌데 욕하는 말을 그  
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7 아굽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영이  
조급하시다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그분의 행위가  
이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 여호와와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8 요즈음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안심하고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겉옷을 벗긴다.

9 너희가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10 이곳은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니,  
너희는 일어나 가거라.  
이곳이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며,  
그 멸망이 심할 것이다.

11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 영으로 행하며  
거짓으로 예언하기를  
“내가 네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라고 하면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12 아굽아,  
내가 너희 모두를  
반드시 모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반드시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 떼같이  
그 초장 가운데 있는 양 무리같이  
함께 돌 것이니,  
사람들이 많이 몹시 시끄러울 것이다.

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면,  
그들은 헤치고  
문에서 뛰쳐나갈 것이니,  
그들의 왕께서  
그들 앞서 통과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 3

##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1 내가 또 말한다.  
“들어라,  
너희 아굽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이야,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에게서 가족을,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3 그들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족을 벗기며  
그들의 뼈들을 부수고 잘게 다지기를  
마치 뱀비와 술 안에 있는  
고기 다루듯 한다.”

4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에  
그들이 악한 행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5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로 씹을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니,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6 그러므로 밭이 울 것이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어두움이 올 것이니,  
너희가 잠도 치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들에게서 해가 질 것이니,  
그들에게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7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점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입술을 가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8 그러나 진실로 나는  
여호와와 영에 의해  
능력과 공의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아굽에게 그의 죄악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알릴 것이다.

9 자,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아굽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이야,  
너희는 정의를 멸시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왜곡한다.  
10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의로 세운다.  
11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샅 때문에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12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같이엿은 들판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의 산은  
잡목이 우거진 곳이 될 것이다.

4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룩된 평화**  
1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이지며,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니,  
2 많은 민족들이 가며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와 산과  
아굽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3 주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4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 영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5 참으로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행할 것이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6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 날에 내가 밭을 저는 자를 모으며  
또 쫓겨난 사람  
즉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니,  
7 밭을 저는 자로  
남은 자 되게 하며,  
또 쫓겨났던 사람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온 산에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 8 너, 양 떼의 망루이고,  
시온의 딸 요새야,  
네게 이전의 통치권이 회복되어  
왕권이 딸 예루살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 9 이제 네가 어찌하여 소리치느냐?  
네게 왕이 없어졌느냐?  
네 조연자가 죽었느냐?  
어찌하여 너는  
해산하는 여자같이 진통하느냐?
- 10 시온의 딸아,  
해산하는 여자같이  
몸부림치며 신음하니,  
이제 너는 성읍을 떠나서  
들판에 거주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까지 갈 것이나  
거기서 너는 구출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 11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모여서 말하기를  
“시온이 더러워지며,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 12 그들은 여호와와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같이  
모을 것이기 때문이다.
- 13 시온의 딸아,  
너는 일어나서 타작하여라.  
이는 내가 네 뿔을 철로 만들고  
네 굽을 숫으로 만들어  
많은 백성들을 쳐부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거둔 전리품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드릴 것이다.
- 5 <sup>가</sup> 군대의 딸아,  
이제 너는 모여라,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뿔을 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를 통치자
- 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 3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 4 그가 여호와와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뿔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 5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일곱 목자,  
여덟 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 6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다스릴 것이며,  
니므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다스릴 것이니,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 7 아람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 8 아람의 남은 자는 민족들,  
곧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숲 속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 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가며 밟고 찢을 것이니,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 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질 것이니,  
네 모든 원수들이 끊어질 것이다.

- 10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너의 말들을  
네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고  
네 병거들을 파괴할 것이며,  
내가 네 땅의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네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 12 내가 네 손에서  
무당들을 끊을 것이니,  
다시는 네게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네 새긴 우상들과  
네 기둥 우상들을  
네 가운데서 파괴할 것이니,  
내가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 14 내가 네 아세라들을  
너희 가운데서 뽑아 버릴 것이고  
네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며,  
내가 분노와 진노로  
순종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 6 <sup>나</sup>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여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발하고  
언덕들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 2 산들과 땅의 견고한 기초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고발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논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3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를 무엇으로  
피곤케 하였느냐?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 4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너희 앞서 내가  
모세와 이룬과 미리암을 보냈었다.
- 5 내 백성아,

- 모압 왕 발락이 모의한 것과,  
브올의 아들 빌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과,  
싯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와의 의로움을  
알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요구
-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일 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 7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 8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네게 보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 9 여호와와의 음성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다.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 10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들이 있느냐?  
저주받을 줄여버린 애바가 있느냐?
- 11 내가 불의한 저울들과  
속이는 저울추들의 주머니를 가지고도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 12 성읍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 찢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입은  
그들의 혀로 속이는 말만 한다.
- 13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쳐서 상하게 하고  
너희 죄악들로 말미암아

가) 히브리어 성경은 4장 14절임.

가) 히, ‘볼 것이다.’

- 너희를 황폐케 할 것이다.  
 14 너희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너희가 가져가도 보존하지는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존한 것이라도 내가 칼에 넘겨줄 것이다.  
 15 너희가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하지 못하고, 너희가 올리브 열매를 밟을지라도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하며, 너희가 포도를 밟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들을 지키고 그들이 행하니, 내가 너희로 황폐케 하고 그 주민들은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 이스라엘의 부패상

- 7 1 ○슬프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거두어들이고 포도를 주운 후와 같아서 먹을 만한 포도송이도, 내가 갈망하던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2 경건한 자가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바른 자가 없다. 그들은 모두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의 형제를 잡으려 하고,  
 3 양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니, 지휘관과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며 권력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였다.  
 4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쥘레 같고 가장 바른 자도 가시 올타리 같다. 네 파수꾼의 날, 곧 네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다.  
 5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신뢰하지 마라. 네 품에 누워 있는 여자에게도 네 입의 문을 지켜라.  
 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며, 머느리가 자기의 시어미에게 대항하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일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  
 7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 8 나의 원수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서도 일어날 것이며 어둠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실 것이다.  
 9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이 나의 소송을 변호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여호와와 진노하심을 견딜 것이다. 그분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다.  
 10 그때에 내 원수는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니,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던 자이다. 이제 그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히게 될 것이니, 내 눈이 그를 볼 것이다.

- 11 네 성벽들이 건축되는 날, 곧 그 날에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12 그 날에 그가 올 것이니, 아시리아에서 이집트 성읍들에게까지, 이집트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이 산에서 저 산에 이르기까지이다.  
 13 그러나 그 땅은 그곳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이다.

## 기도와 찬양

- 14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갈멜의 한가운데 있는 삼림 속에서 홀로 사는 주님의 유업인 양 떼를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게 하소서.  
 15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처럼 내가 그들에게

- 기적들을 보여 줄 것이다.”  
 16 민족들이 보고 자기들의 모든 세력을 부끄러워할 것이니, 그들은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고, 그들의 귀는 막힐 것이며,  
 17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고, 땅에 기는 벌레들 같으며 그들의 구멍에서 떨면서 나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두려워하며 돌아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입니다.  
 18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유업에 남은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인애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므로 주님의 분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19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로 밟으시고, 그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실 것입니다.  
 20 주께서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입니다.



## 니느웨에 대한 심판 경고

- 1 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흠의 계시의 책이다.
- 2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시며,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호와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 3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능력이 크시니, 여호와와는 결코 형벌을 면해 주지는 아니하신다. 여호와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 있으며, 구름은 그의 발에 이르는 먼지이다.
- 4 그분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들도 메마르게 하시니, 바산과 갈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꽃봉오리도 시든다.
- 5 산들이 그로 말미암아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땅이 그분 앞에서 솟아오르니, 세상과 그 모든 거민들도 그러하다.

- 6 그분의 저주 앞에 누가 서겠으며,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 누가 맞설 것인가?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쏘아지니, 바위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서진다.
- 7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요새이시니,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 8 그분은 법랍하는 물로 그곳을 멸망시키시고, 원수들을 호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 환난이 끝난 유다

- 9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피하려 하느냐? 그분이 멸망시키실 것이니, 환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10 그들이 가시덤불처럼 엉키고 술 마신 자처럼 취하여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게 될 것이다.
- 11 여호와와는 거슬러 악을 피하는 자가

네게서 나오니,  
그는 불량한 조언자이다.

-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이 안전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잘려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 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 13 이제 내가 네게서 그의 멍에를 부수고, 내가 네 굴레를 벗길 것이다.”
- 14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네 이름으로는 더 이상 후손이 없을 것이다. 네 신들의 전에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내가 찍어 버리고, 내가 쓸모없으니, 내가 네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 15 보아라, 산들 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발이여,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이행하여라. 불량한 자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 멸망당한 니느웨

- 1 1 뿔뿔히 흩어버리는 자가 올라와 너를 대적하니, 너는 요새를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강하게 하고 힘을 매우 강하게 하여라.

- 2 2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아람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악탈자들이 그들을 악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없앴기 때문이다.

- 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으며, 전사들은 진홍색 옷을 입었다. 그가 예비한 날에 병거는 쇠에 불꽃이 일어나며 잣나무 창들이 사방에서 물결친다.
- 4 병거는 길거리에서 질주하며, 광장에서 이리저리 돌진하니, 그 모습이 뿔뿔이 갈고, 번개같이 달린다.
- 5 그가 지휘관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넘어지며 달려서 방어벽이 놓여진 성벽에 급히 이르렀다.
- 6 강들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녹아 내린다.
- 7 이는 정해진 것이니, 그 왕후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그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 8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았으나, 이제 그들은 도망치게 되었으니, ‘멈춰라, 멈춰라. 하여도 뒤돌아보는 자가 없다.
- 9 너희는 은을 노략하고 금을 노략하라. 보물과 모든 값진 물건들이 무한히 많다.
- 10 그 성은 텅 비고 비어 황폐하게 된다. 마음이 녹고 양 무릎은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떨리며 모든 낮이 창백하게 된다.
- 11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새끼 사자들을 먹이던 그곳, 수사자, 암사자, 어린 사자가 다녀도, 아무 위협이 없던 그곳이 어디 있느냐?
- 12 수사자가 자기 어린 사자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찢으며,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를 목졸라 자기 굴을 채우고, 찢은 고기로 자기 거처를 채웠다.
- 13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니, 내가 그 성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로 만들고, 내 칼은 네 어린 사자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네 먹이를 끊을 것이니, 더 이상 네 사신들의 보고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 니느웨에 심판이 임한 이유

- 3 1 화 있을 것이다. 피의 성읍이여, 온 성에 거짓과 강탈이 가득하니, 악탈이 그치지 않는다.
- 2 채찍 소리와 수레바퀴의 덜컹대는 소리, 말발굽과 요동하는 병거, 들적하는 기마병, 번쩍이는 칼과 번쩍이는 창, 살육당한 무리와 시체더미, 주검이 끝없이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 4 이는 미술에 능한 매혹적인 창기가 많은 음행을 행하기 때문이다. 창기는 자기 음행으로 민족들을, 자기 미술로 족속들을 판다.
- 5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내가 네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 열방에 네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일 것이며 혐오스러운 것들을 네게 던지고 너를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 7 너를 보는 모든 자는 네게서 뒷걸음을 치면서 말하기를 ‘니느웨가 황폐케 되었으니, 누가 그것을 위해 애도할 것인가?’ 할 것이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들을 찾을 것인가?
- 8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나일 강 곁에 자리잡아 그 주위에 물이 있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으며,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 9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강하고 끝이 없으며, 북과 리비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으나,
- 10 그러나 그들조차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아이들은 모든 길목통에서 매어침을 당하며 그 존귀한 자들은

-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위인들은 사슬에 묶였으니,  
11 너도 취해 숨을 것이며,  
너도 원수를 피해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12 네 모든 요새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무화과나무 같아서  
사람들이 흔드니,  
그것들이 삼키는 자의 입에 떨어진다.  
13 보아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너의 원수들에게 활짝 열렸으니,  
불이 네 빗장들을 삼킨다.  
14 너는  
포위당할 것을 대비하여 물을 길고,  
네 요새들을 강화하며,  
진흙에 들어가 밭아 반죽을 만들고,  
벽돌을 찍어라.  
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어 버리되,  
느치같이 너를 먹을 것이다.

- 느치같이 스스로 망게 하며,  
메뚜기같이 스스로 망게 하여라.  
16 너는 네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망게 하였으나,  
느치가 잡아먹고 날아감 같다.  
17 네 신하들은 메뚜기 같고,  
네 관리들은 큰 메뚜기 떼와 같구나.  
그들은 추운 날 돌담에 진 치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니,  
아무도 그의 자리를 알지 못한다.  
18 아시리아 왕이여,  
네 목자들은 잠들고,  
네 귀족들은 정착해 있으니,  
네 백성이 산들에 흩어지나  
모을 자가 없다.  
19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으니,  
네 부상이 심하다.  
네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를 향해  
손뼉을 칠 것이니,  
계속되는 네 악행을 받지 않고  
지나간 자가 있었느냐?

## 하 박 국

- 1 1 ○선지자 하박국이 본 경고이다.  
향의하는 하박국  
2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주께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신 여호와  
5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주목하여라.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정녕 그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6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들은 사납고 급한 백성이며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하는  
자들이다.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8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며  
밤의 늑대보다 사납고,  
그 기마병들은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썹에 날아온다.  
9 그들은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가  
포로를 모래처럼 많이 모을 것이다.  
10 왕들을 멸시하고  
통치자를 비웃으며  
모든 요새도 우습게 여기고  
흙을 쌓아 올려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11 그때에 그들은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겠으나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았으므로  
죄책을 당할 것이다.”

다시 향의한 하박국

- 12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까?  
반석이시여,  
주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배역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14 주께서는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는 것 같게 만드셔서,  
15 그들이  
낚시로 모든 백성을 낚아 올리며  
그물로 사람을 끌어내고  
투망으로 모아 놓고  
기빠하고 즐겨워합니다.  
16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향하니,  
이는 그것들 때문에  
‘소독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7 그들이 그물을 털어 내고는 계속하여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2

1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향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

-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3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 4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 5 술은 거만한 자를 배신하게 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스올처럼 넓히게 한다.  
또 그는 죽을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끌어들이다.
- 6 ○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를 대하여 속담을 지으며 풍자로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말한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저당물로 치부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7 너의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깨어나 너를 떨게 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겠느냐?”
- 8 참으로 네가 많은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모든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 9 화 있을 것이다.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데에 등지를 틀며 자기 집을 위하여

-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아, 네가 많은 백성들을 파멸시킨 것이 네 집에 수치를 불러오고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11 참으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목재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12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세우는 사람들아,  
13 보아라, 백성들이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스스로 피곤케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 15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먹이되 술 부대를 들이대어 만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아, 네가 영광보다 수치로 배부를 것이며,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며, 치욕이 네 영광을 가릴 것이다.
- 17 네가 레바논에서 행한 포악이 너를 덮을 것이며, 네가 짐승들을 살육하던 그 공포가 너를 덮칠 것이니, 이는 네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 18 우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니, 이는 우상을 만든 자가 말 못하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 19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사람들아, 그것이 너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 생기가 전혀 없다.  
20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 하박국의 기도

- 3 1 시기오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 2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 3 하나님께서 대안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 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 4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서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 5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 발에서 나옵니다.  
6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떨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합니다.
- 7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 8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히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 9 주께서 정녕 활을 꺼내시고, 화살 일곱 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11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 12 주께서 격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십니다.
- 13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말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 14 그들이 나를 홀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 15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 16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뺨속이 찢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송이다.

ㄱ) 지파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1 1 O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이디랴의 증손이고  
그달리야의 손자며, 구시의 아들인 스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와 날

2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 버릴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쓸어 버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과,  
그 방해물들을  
악인들과 함께 쓸어 버리고  
지면에서 사람을 끊어 버릴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내 손을 펴서,  
그곳에서 비알의 남은 것들과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함께 끊어 버릴 것이니,

5 또한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면서  
말갈에게도 맹세하는 자들과,

6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그분께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끊어 버릴 것이다.”

7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있어라.  
이는 여호와와 날이 다가왔으니,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8 “여호와와 희생 제사의 날에  
내가 고관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며,

9 그 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할 것이다.

10 여호와와 말이다.  
그 날에 ‘물고기의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돌짜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언덕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있을 것이다.  
11 막대스 주민들이,  
너희는 울부짖어라.  
장사하는 백성이 다 땅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12 그때에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은 무릇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자들이다.  
13 그들의 재물이 약탈당하며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자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4 여호와와 큰 날이 가까우니,  
가깝고도 매우 빠르다.  
여호와와 날의 소리가 비통하니,  
용사가 거기서  
부르짖을 것이다.

15 그 날은 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멸망의 날이고  
감감하고 암울한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16 견고한 성들과 높은 홍벽들을 향한  
나팔과 함성의 날이다.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이 맹인처럼 걸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가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이  
배설물같이 될 것이다.

18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며  
온 땅이 그분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잡자기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회개의 요청

2 1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모여라.  
함께 모여라.

2 법령이 시행되고  
그 날이 저처럼 달려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와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3 그분의 법도를 행하는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의를 찾고 겸손을 찾아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받을 형벌

4 가사가 버림받을 것이며,  
이스글론이 황폐하게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뽀빠 버릴 것이다.

5 해변 주민들인 그렛 민족에게  
화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6 해변은 초장,  
곧 목자들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될 것이며,

7 그 바닷가 지역은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위에 방목할 것이며,  
저녁에는  
이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니,  
이는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8 “내가 모압의 조롱과  
암몬 자손의 비방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며  
스스로를 높였다.”  
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되어,  
잡초 땅과 소금 구덩이와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  
내 백성 중 남은 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민족의 생존자가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10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만군의 여호와와 백성을 조롱하고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다.  
11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며,  
그분께서 땅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  
곧 민족들의 모든 섬들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12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 역시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 그가 북쪽으로 자기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실 것이니,  
14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떼를 지어  
그 가운데 누우며,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머리에 유숙하며,  
새들이 창문에서 노래하고,  
삼나무로 지은 것이 벗겨져  
문지방이 황폐할 것이다.  
15 이는 편안히 살던 기쁨의 성읍이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으로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더니,  
어찌하여 황폐하게 되었으며,  
집승의 소굴이 되었는가?  
그 곳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그 손을 흔들 것이다.

예루살렘과 열방의 심판과 회복

3 1 화 있을 것이다.  
반역하고 더러운 곳,  
억압을 일삼는 그 성읍이며,  
2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 3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고,  
그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뺨도 남기지 않는  
저녁 늑대들이며,  
4 그 선지자들은 경박하고  
배신하는 자들이며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5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아침마다 그의 공의를 밝히 나타내며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 6 “내가 못 나라들을 끊어 버려  
그들의 흉벽이 황폐하게 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황량하게 하여  
지나다니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성읍에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7 내가 말하기를 ‘너는 다만  
나를 경외하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지만  
그 거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
- 8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노획물을 잡으려고 일어서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이는 나의 격분,  
나의 맹렬한 분노를 쏟으려고  
열방을 모으며  
왕국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 9 그때에 내가 여러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니,  
그들이 모두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를 섬길 것이고,  
10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에서  
나를 경배하는 자들,

- 곧 나의 흠어진 자들의 딸이  
내게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11 그 날에 내가 나를 거역한  
네 모든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며 자랑하던 자를 제거하므로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12 내가 네 가운데  
가난하고 천한 백성을  
남겨 둘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불의를 행치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 속이는 혀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으며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 기쁨에 겨워 부르는 이스라엘의 노래
- 14 시온의 딸아, 크게 외쳐라.  
이스라엘아, 소리쳐라.  
예루살렘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 15 여호와께서  
네게 대한 판결들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16 그 날에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 17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 18 “내가 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은 네게서 나온 자들이며,  
수치가 그에게 짐이 되었다.
- 19 보아라,

-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저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 20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사로잡혔던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 학 개

## 성전 건축

- 1 1 O다리우스 왕 이년 유월 일일에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 하셨다.
- 2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와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 3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 하셨다.
- 4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 6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삷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 7 O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한다.'
-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날려 버렸다. 그것이 무슨 까닭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내 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기 자기 집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 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출을 그쳤다.
- 11 내가 이 땅과 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밭의 모든 소산에, 사람과 가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 12 O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복종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 13 여호와와 사자 학개는 여호와와 명령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였다.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셨다.”
- 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

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다.

15 때는 다리우스 왕 이년 유월 이십사일이었다.

## 성전의 영광스러운 미래

- 2 1 O그 해 칠월 이십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 하셨다.
-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 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
- 3 ‘너희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 전의 처음 영광을 보았느냐? 이제 이 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 4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여호와와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여호와와 말이다. 어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
- 5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 6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한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며,
- 7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민족의 보화가 모여들 것이니, 내가 이 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 8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 9 처음 전의 영광보다 이 나중 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 여호와와 약속

- 10 O다리우스 왕 이년 구월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 하셨다.
- 11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법을 물어보아라.
- 12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학개가 물어

보니 제사장들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13 또 학개가 말하기를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이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하였다.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바치는 것도 부정하다.

15 자,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여호와와 성전에 서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아라.

16 그때에는 곡식 스무 터미를 기대하였으나 열 더미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는 선 그릇을 기대하였으나 스무 그릇뿐이었다.

17 내가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쳤으나 너희 중 아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와 말이다.

18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돌이켜 보아라. 구월 이십사일, 곧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가 놓

이던 날로부터 돌이켜 보아라.

19 공간에 아직도 씨앗이 남아 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 스룹바벨에 대한 여호와와 약속

- 20 O여호와와 말씀이 그 달 이십사일에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 하셨다.
-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 22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뒤흔들어엿으며, 내가 각 민족들이 세운 왕국의 권력을 멸망시키고, 내가 병거들과 병거에 탄 사람들을 뒤흔들어엿을 것이니, 말들과 말을 탄 사람들이 각 각 동료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 23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와 말이다. 그 날에 내가 너를 뽑아 인장으로 삼겠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



##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 1 ○다리우스 왕 이년 팔월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였다.
- 2 “여호와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노하였으니
-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씀하였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다.’
- 4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5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 6 참으로 내가 나의 종, 그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과 나의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과 행동을 위하여 우리에게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셨다.’ 라고 하였다.”

##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선 여호와와 천사

- 7 ○다리우스 왕 이년 십일월 곧 스باط 월 이십 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였다.
- 8 내가 밤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으며,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자주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 9 내가 물기를 “네 주여,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겠다.” 하고,
- 10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하니,
- 11 그들이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와 천사에게 대답했다. “우리들이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십시오,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

했습니다.”

- 12 여호와와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진노하신 지가 칠십 년이 되었습니다.” 하니,
- 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좋은 말씀, 곧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 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 15 편안한 이방 민족들에게 크게 분노하니, 내가 조금 분노했으나 그들은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이다.’
- 16 그러므로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그 가운데 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질 것이다.”
- 17 너는 다시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읍들이 다시 좋은 것으로 넘칠 것이다. 여호와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네 뿔과 네 대장장이

- 18 ○내가 눈을 들어 네 개의 뿔을 보았고
- 19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기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여 버린 뿔들이다.”
- 20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네 명의 장인들을 보여 주셨으므로
- 21 내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왔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흠여지게 하여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뿔들이다. 그러나 이 장인들은, 유다 나라를 자기들의 뿔로 들어받아 그 백성들이 흠여지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자들이다.”

##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 2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 2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 3 보아라, 그 때에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 4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청년에게 달려가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 5 여호와와 말씀이다. 나는 그 성 사면의 불성벽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 6 ○아, 너희는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하여라. 여호와와의 말이다.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흠여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7 ‘아,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이여, 너희는 피하여라.’
- 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 영광 후에 그분이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치는 자는 곧 그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니,’
- 9 보아라, 내가 그들 위에 나의 손을 흔들면 그들은 자기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 10 ‘시온의 딸아, 크게 외치고 기뻐하여라. 보아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11 그 날에 많은 이방 민족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분은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그때에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 12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다.
- 13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처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 3 1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 앞에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게 보여 주셨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다.
-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 “사탄아, 여호와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토막이 아니냐?” 라고 하실 때,
- 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서 있었다.
-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 주겠다.” 라고 하셨다.
- 5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와의 천사는 곁에서 있었다.
- 6 ○여호와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다.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나의 뜻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색을 보내겠다.
- 9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 하겠다.
- 10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한다. 그 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 대할 것이다.”

##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 4 1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 2 그가 내게 물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고, 그 등잔대에는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데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각 등잔들로 연결되는 일곱 관이 있으며
- 3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주발 왼쪽에 있습니다.”
- 4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

- 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5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사람들이 온충, 은충이 그 돌에 있다고 외칠 것이다.’”  
 8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9 “스룹바벨의 두 손이 이 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두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10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11 내가 그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12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이 흘러 내리는 두 금 대롱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 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 저는 모릅니다.” 하니,  
 14 그가 말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다.”

#### 날아가는 두루마리

- 5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다.  
 2 그 천사가 내게 물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는 이십 규빗이고 넓이는 십 규빗입니다.” 하였다.  
 3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내릴 저주이니, 모든 도독질하는 자들은 이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고,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 저주를 내보낼 것이니, 저주가 도독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안에 머물며 그 집을 그 집의 나무와 돌과 함께 파괴해 버릴 것이다.”

#### 에바 속의 여자

- 5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을 들어, 나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하므로  
 6 내가 물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오는 이것은 ”에바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모양이다.” 라고 하였다.  
 7 그런데 남 뚜껑이 들리자, 에바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8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죄악이다.” 하고 그 여자를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남 조각을 에바 아귀 위로 던져 덮었다.  
 9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두 여자가 날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날개에서 바람이 일었으며,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10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기를 “저 여자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니,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니, 집이 지어지면 그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네 병거

- 6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두 산 사이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산들은 눈 산이었다.  
 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건장하고 얼룩진 말들이 끌고 있었다.  
 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기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5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네 영들이네,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서 있다가

- 떠나가는 것들이다.  
 6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떠난다.”  
 7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려고 할 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떠나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하니, 그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8 그 천사가 나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나의 영혼을 쉬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의 왕관  
 9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였다.  
 10 “너는 사로잡힌 자 중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 그 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져라.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와 그곳에 있다.  
 11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새씨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13 그가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좌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니, 그 둘 사이에 평화를 의논할 것이다.’  
 14 그 왕관은 헬렐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와의 성전에 둘 것이다.”  
 15 ○몇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니, 그때에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7 1 ○다리우스 왕 사년 구월, 곧 기슬르 월 사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였다.  
 2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그 하인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3 만군의 여호와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기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지켜온 것처럼 오월에 울며 절제해야 합니까?” 하니,  
 4 ○이때에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

하였다.  
 5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오월과 칠월에 금식하고 애통하기를 하였으니, 진정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7 예루살렘과 주위의 성읍에 백성이 거주하며 번성하였고, 네게브와 쉘렐라에도 사람이 거주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신 말씀들이 아니냐?”

#### 사로잡혀간 이유

- 8 ○여호와와의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였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진실하게 재판을 하며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에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지 마라.”  
 11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고 완고하게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12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굳어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율법과 말씀들을 듣지 않았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13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듯이 그들이 불려도 내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14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 폭풍으로 흩었으므로 그들이 떠난 뒤에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아름다운 땅을 그들이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다.”

####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 8 1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진노함으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3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할 것이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고, 만군의 여호와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앉을



- 것이니, 그들은 나이가 많으므로 자기를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 5 그 성읍의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은 그 거리들에서 뛰놀 것이다.
-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일이 그 날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는 놀라울 것이나, 그것이 어찌 내 눈에 놀라운 일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
- 8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진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 이 될 것이다.”
- 9 O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와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 말씀들을 들었으니,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 10 그 날들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품삯이 없었고 짐승을 위한 사도 없었으며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없었으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 11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 12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니, 이 백성의 남아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 13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여, 전에는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여라.”
- 14 O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선조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15 이제 내가 돌이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선을 베풀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 16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너희는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실과 평화의 판결을 내려라. 17 너희는 이웃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 금식에 관한 답변

- 18 O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월의 금식과 오월의 금식과 칠월의 금식과 시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 20 O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다.
- 21 한 성읍 주민이 다른 성읍 주민에게 가서 ‘우리가 어서 가서 여호와를 찾아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라고 말하면, ‘나도 가겠다.’ 라고 할 것이며
- 22 많은 백성과 강한 민족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 23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사람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라고 할 것이다.”

####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 9 1 여호와와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마스쿠스에 임할 것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온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이다.
- 2 그 가까이 있는 히맛에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다.
- 3 두로가 자신을 위하여 요새를 짓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쌓을 것이나
- 4 보아라, 주께서 두로를 쫓아내실 것이다. 그 분께서 그의 세력을 바다에서 치실 것이나,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 5 이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가시도 몹시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에그론도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그러할 것이다. 가시에는 왕이 끊어지고, 이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 6 아스돗에는 잡족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을 것이나
- 7 내가 그의 입에서 피를 닦아 내고, 이 사이에서 혐오스러운 것을 제거할 것이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유다의 한 종족같이 될 것이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압제자가 다시는 그들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친히 지켜 보았기 때문이다.

#### 구원을 베푸실 왕

-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쳐라. 보아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며,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니, 그분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 11 너에 대해서는 네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너의 강한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냈다.
- 12 소망을 품고 간헐던 자들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도 말하니, 네게 두 배로 갚아 주겠다.
- 13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고, 에브라임은 내가 메긴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격동시켜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니,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 14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 회오리바람을 타고 진군하실 것이다.

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실 것이니, 그들이 원수를 멸하며 무릿맷돌로 짓밟고,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소리치고, 제단 모퉁이의 동이같이 넘칠 것이다.

- 16 그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 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니, 그들은 참으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와 땅에서 빛날 것이다.
- 17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튼튼해질 것이다.

####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

- 10 1 봄내 내리는 계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라. 여호와와는 번개와 소나기를 내려 그들 각 사람에게 밭의 농작물을 주실 것이다.
- 2 드라빔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쟁이들은 거짓된 것을 보고 그들은 헛된 꿈을 말하며, 무익한 말로 위로하므로 백성들이 양 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 3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겠고, 내가 수염소에게 밭을 내리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양 떼 유다의 집을 돌보시고, 그들을 전쟁터에서 자기 준마 같게 하실 것이다.
- 4 그에게서 모퉁잇돌이 나오고, 그에게서 말뚝이 나오며,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나오고, 그에게서 모든 권세자가 일제히 나와서
- 5 그들이 싸울 때에 용사같이

## 형제해진 요단

- 11** 1 레바논아,  
네 문들을 열어  
불이 네 백향목을 삼키게 하여라.  
2 잣나무여,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화려한 나무들이 훼손되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넘어졌다.  
3 목자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며,  
어린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것은  
요단의 자랑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 두 목자**
- 4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  
신다. “너는 도살할 양 떼를 먹여라.  
5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 죽여도 죄가 없  
다 하고 그것들을 팔아 버린 자들은 말하  
기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는 내가 부자가 되  
었다.’ 하며 목자들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  
지 않는다.  
6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보아라,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질  
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  
다.”  
7 ○내가 도살할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  
한 양들을 먹었다. 나는 막대기 두 개를 가  
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  
나는 ‘연합’이라고 불렀으며, 양 떼를 먹었  
다.  
8 나는 한 달 동안 세 명의 목자를 제거하였으  
니,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도 마  
음으로 나를 미워하였다.  
9 그때 내가 양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않겠으니,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하며, 남은 것들은 서로 살을 먹여라.” 하  
고  
10 내가 ‘은총’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잘라서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다.  
11 그 언약은 그 날로 파기되었으며, 나를 지켜  
보고 있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와  
말인 것을 깨달았다.  
12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

- 면 나의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  
만두여라.” 하니, 그들이 나의 품삯으로 은  
삼십 개를 달아 주었다.  
13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  
장이에게 던져 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값이라고 쳐준 것이었다.” 하였으며,  
나는 여호와와 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그것  
을 던져 버렸고  
14 ‘연합’이라 부르는 두 번째 막대기를 잘라 유  
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가 끊어지게  
하였다.  
15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  
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다시 잡아라.  
16 보아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으니,  
그가 없어진 양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홀  
어진 양들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난 양들을  
고쳐 주지 않고 건강한 양을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진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들을  
찢을 것이다.  
17 화 있을 것이다.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치므로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은  
이주 멀게 될 것이다.”

## 경고의 말씀

- 12**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경고의 말  
씀이다. 하늘을 찌르고 땅의 기초를 세  
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와 말  
씀이다.  
2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주변의 모든 백성  
을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  
이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에 유다도 역  
시 그렇게 될 것이다.  
3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이방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니, 그것을  
옮기려는 자들은 모두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  
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4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놀라게 하며 말을 탄  
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니, 나의 눈으로 유다  
의 집은 지켜보겠지만, 내가 이방 백성의 모  
든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5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말하  
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 6 ○그 날에 내가 유다지파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의 햇불같이  
만들 것이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백  
성을 불사를 것이나 예루살렘 사람은 그 본  
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될 것이  
다.  
7 ○여호와께서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해 주  
시므로,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  
는 주민들의 영광이 유다의 것보다 더 크  
지 않을 것이다.  
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을 보호하실 것이므로, 그들 중에 연약한 자  
도 그 날에는 다윗같이 되고, 다윗 집은 하나  
님같이, 그들 앞에 있는 여호와와 천사처럼  
될 것이다.  
9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10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총과 애원하는 영을 부어 줄 것이다. 그들  
이 나, 곧 그들이 찢은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  
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마치 외아들을 잃고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만아들을 잃고 통곡  
하듯이 그를 위해 통곡할 것이다.  
11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통곡이 있을 것이  
니, 그지도 골짜기의 하디드림몬에 있었던 통  
곡과 같을 것이다.  
12 온 땅의 각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이니,  
다윗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나단 집의 가족들도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13 레위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시므이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14 모든 남은 가족들이 각기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다.

- 13**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샘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  
하여 열릴 것이다.  
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이  
이를 것이니,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  
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  
게 할 것이다.  
3 어떤 사람이 또 예언을 하면, 그를 낳은 부모  
가 그에게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거짓말  
을 하였으니, 너는 더 살지 못할 것이다.’라



- 고 말하고,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찌를 것이다.
- 4 ○그 날에 이를 것이니, 예언자들은 예언할 때에 각기 자신의 이상을 부끄러워하겠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며
- 5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땅을 경작하는 자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으로 팔렸다.' 라고 할 것이며,
- 6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나?'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 7 "칼아,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 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 8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끊어져 멸망하게 되고,  
삼분의 일만 거기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에 던져  
은을 제련하듯이 연단하며  
금을 정제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 14 1 ○보아라,  
여호와와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당하고, 네 가운데서 그것이 나 날 것이다.
- 2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니,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3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에 싸우 시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 4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

- 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 5 그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 6 ○그 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 7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 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 8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 9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 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 10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리바같이 변할 것이니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히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11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 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 13 ○그 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 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 15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 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 17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 18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 19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발이 그러할 것이다.
- 20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

이라 새겨지고, 여호와와 전에 있는 모든 술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처럼 될 것이며,

21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술은 만군의 여호와와 거룩한 물건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술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은 것이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 말라기

##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 1 O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 말씀의 경고이다.
- 2 O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니,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아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아곱은 사랑하고,
- 3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유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 4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 버릴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악한 나라, 곧 여호와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 5너희가 두 눈으로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 제사장들의 죄

- 6 O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한다.
- 7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상이 멸시를 받았다.”
- 8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절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 9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하였는데, 주께서 너희 중 하나라도 받아 주시겠느냐?”

##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

- 10 O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누가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할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

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 11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 크게 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2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더럽혀도 좋고, 그 상 위의 음식은 멸시를 받았다.’ 하면서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 13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다. 너희가 훔친 것이나 절거나 병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14 “자기의 가족 때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바치기로 서원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내게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 2 O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 2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 3보아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고 내가 너희 얼굴에 배설물, 곧 너희 멸절에 드린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뿌릴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그것과 함께 치워 버릴 것이다.”
- 4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도록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 5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내가 그와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은 나를 경외하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었다.
- 6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없었다. 그는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함께 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 7참으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여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이기 때문이다.
- 8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9 “너희가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호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 신실하지 못한 유다

- 10 O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형제에게 배신하며,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하느냐?
- 11 유다가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이는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와 거룩함을 모독하였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니,
- 12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깨어 대답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를 아곱의 장막에서 끌어 버리실 것이다.
- 13 O 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곧 여호와께서 다시는 제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시며 너희의 손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와 제단을 가리우며
- 14 오호러 너희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라고 하니, 이는 너와 내가 젊어서 얻은 네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가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이며 적인데 너는 그 여자를 배신하였다.
- 15 여호와께서는 영의 여유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지으신 것이 아니냐? 어찌 하나님을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심으로 자기 심령을 지켜서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 16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기 옷으로 포악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자신의 심령을 지켜서 배신하지 마라.
- 17 O너희가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좋게 보시며 오호러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며 말하기를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한다.”

##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 17 O너희가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좋게 보시며 오호러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며 말하기를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한다.”

- 3 1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돌연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 2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그 날을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빨래하는 사람의 겹물과 같을 것이다.
- 3 그가 제련하는 사람이 앉아서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같이,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금과 은을 제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께 공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 4 그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지난 시절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 5 O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복술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박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증인으로 즉시 나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온전한 심일조

- 6 O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아곱의 자손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한다.
- 8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심일조와 헌물이 아니냐?’
- 9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 10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심일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 12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 회복의 날

- 13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까?’ 라고 한다.
-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 15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면한다.’ 라고 한다.”
- 16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 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 다가오는 여호와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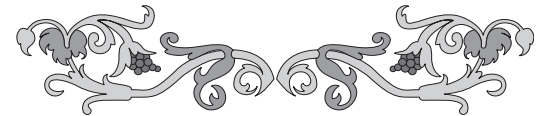
- 4 1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 2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 3 너희가 악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니, 내가 정하는 그 날에, 그들은 마치 너희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 4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이다.
- 5 ○보아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 신약성경

The New Testament



## 신약 성경 차례

마태복음(마-28장) .....	1
마가복음(막-16장) .....	52
누가복음(눅-24장) .....	85
요한복음(요-21장) .....	139
사도행전(행-28장) .....	181
로마서(롬-16장) .....	228
고린도전서(고전-16장) .....	249
고린도후서(고후-13장) .....	269
갈라디아서(갈-6장) .....	282
에베소서(엡-6장) .....	289
빌립보서(빌-4장) .....	296
골로새서(골-4장) .....	301
데살로니가전서(살전-5장) ...	306
데살로니가후서(살후-3장) ...	310
디모테전서(딤후-6장) .....	313
디모데후서(딤후-4장) .....	318
디도서(딤후-3장) .....	322
빌레몬서(몬-1장) .....	325
히브리서(히-13장) .....	327
야고보서(약-5장) .....	342
베드로전서(벧전-5장) .....	347
베드로후서(벧후-3장) .....	353
요한일서(요일-5장) .....	357
요한이서(요이-1장) .....	363
요한삼서(요삼-1장) .....	364
유다서(유-1장) .....	365
요한계시록(계-22장) .....	367



# 마태복음

##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눅 3:23-38)

- 1 <sup>1</sup>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 2 <sup>2</sup>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sup>가</sup>아삽을 낳고,
- 8 <sup>가</sup>아삽은 여호시밧을 낳고, 여호시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아를 낳고,
- 9 웃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sup>나</sup>아모스를 낳고, <sup>나</sup>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 11 요시아는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무렵에 예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 12 <sup>2</sup>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후에 예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קים을 낳고, 엘리아קים은 아소르를 낳고,
-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웃을 낳고,
-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 17 <sup>3</sup> 그러므로 모든 대의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십사 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로니아로 잡혀 갈 때까지 십사 대이고, 바빌로니아로 잡혀 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십사 대이다.

## 예수님의 탄생 (눅 2:1-7)

- 18 <sup>4</sup>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 19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끌고자 하여,
- 20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 21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 23 <sup>5</sup>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 25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 마

##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

- 2 <sup>1</sup>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에 동방에서 <sup>6</sup>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 2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 4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 5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헬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 6 <sup>7</sup>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7 <sup>8</sup> 그때에 헤롯이 <sup>8</sup>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사’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몬’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 예수’

라) 사 7:14 모) 헬 ‘마고스’ 바) 미 5:2 삼하 5:2 사) 또는 ‘보살필 것이기’

- 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묵고  
8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11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집트로 피신한 예수님의 가족**  
13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14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나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라고 하였다.

####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 16 ○그때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아이들을 두 살로부터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17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18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들

- 19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20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니,  
21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 22 ○그러나 아벨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를 받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23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 (막 1:1-8; 눅 3:1-9; 요 1:19-20)

- 3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2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3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하였다.  
4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6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닥쳐 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 주었느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10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막 1:9-11; 눅 3:21-22)

- 13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가 오시니,  
14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15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에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에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으시는 것을 보셨다."  
17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였다.

####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막 1:12-13; 눅 4:1-13)

- 4 1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2 예수께서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작하셨는데,  
3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4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5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시험하지 마라.'" 하였다.  
8 또 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며

- 9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겠다." 하니,  
1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11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종들었다.

#### 복음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막 1:14-15; 눅 4:14-15)

-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길로,  
16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다." 라고 하였다.  
17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였다.

####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막 1:16-20; 눅 5:1-11)

- 18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20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22 그들이 즉시 배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 큰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막 3:7-13; 눅 6:17-19)

-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4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25 그리하여 갈릴리와 <sup>1</sup>디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 산상의 복음 (눅 6:20-23)

5 1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2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4 <sup>2</sup>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7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8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9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1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sup>3</sup>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 소금과 빛 (막 9:50; 눅 14:34-35)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다.

15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아들에게 비치게 된다.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 예수님과 율법

가) 열 도시로 구성된 지역) 나) 또는 '영'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절과 5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거짓으로'가 없음. 미) 헬 '이오타' 베헤 20:13 신 5:17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유 없이'가 있음. 오) '머리가 빈 사람', '멍청이'라는 뜻의 아람어 욱살 지) 헬 '계한나' 차) 헬 '코드란테스'(1 코드란테스는 64분의 1 데나리온) 쿨) 출 20:14 신 5:18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살인에 대한 교훈 (눅 12:57-59)

21 “옛 사람들에게 <sup>4</sup>“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sup>5</sup>“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sup>6</sup>“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sup>7</sup>“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네 예물을 드려라.

25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네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주어 결국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26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네가 마지막 한 <sup>8</sup>“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간음에 대한 교훈

27 “<sup>9</sup>“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29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져 버려라. 네 지체 중

의 하나를 잃고 네 몸 전체가 <sup>10</sup>“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 버려라. 네 지체 중의 하나를 잃고 네 몸 전체가 <sup>11</sup>“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이혼에 대한 교훈

(마 19:3-9; 막 10:11-12; 눅 16:18)

31 “그리고 <sup>12</sup>“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어야.” 라고 말해진 것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 맹세에 대한 교훈

33 “또 옛 사람들에게 <sup>13</sup>“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한 너의 맹세들을 지켜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위대함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 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sup>14</sup>“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 보복에 대한 교훈 (눅 6:29-30)

38 “<sup>15</sup>“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 대어라.

40 너를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걸옷까지도 주어야.

41 또 누가 네게 강제로 천 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이천 걸음을 가 주어야.

42 네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러고 하는 자를 물리지 마라.”

### 사랑에 대한 교훈 (눅 6:27-28, 32-36)

43 “<sup>16</sup>“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자신의 해를 펴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이다.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 구제에 대한 교훈

6 1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2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3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 지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4 그렇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 기도에 대한 교훈 (눅 11:2-4)

5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가) 신 24:1 나) 레 19:12 민 30:2 신 23:21 다) 또는 ‘악한 자에게’ 라) 출 21:24 레 24:20; 신 19:21 미) 레 19:18 베헤 원문에는 ‘당신’

-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14 ○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 15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 금식에 대한 교훈

- 16 ○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 17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어라.
- 18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 하늘에 쌓은 보화 (눅 12:33-34)

- 19 ○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 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 간다.
- 20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 두어라. 그곳에서는 좀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 가지도 않는다.
- 21 네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 몸의 등불 (눅 11:34-36)

- 22 ○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좋으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 23 그러나 네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 하나님과 재물 (눅 16:13)

- 24 ○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걱정에 대한 교훈 (눅 12:22-34)

- 25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

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 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곳에 모여들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치킨을 한 "구bit이라도 늘일 수 있느냐?"

- 28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 32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 33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 판단에 대한 교훈 (눅 6:37-38, 41-42)

- 7 1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 2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 3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 4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네 형제에게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네가 밝히 보게 되어 네 형제의 눈

가) 또는 '내일', '생존을 위한' 나) 또는 '빛' 다) 또는 '빛을' 라) 또는 '악한 자에게서' 모)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안의 내용이 없음.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람들의 잘못' 가) 행 '참모나스' (돈이나 부를 뜻하는 아랍어, 맘몬)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무엇을 마실까'가 없음. 자) 또는 '수령을' 차) 구약은 약 45센티미터. 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 없음. 테) 원문에는 '내일은 그 스스로에 관하여 염려할 것이다.'

- 에서 티를 빼내 줄 수 있을 것이다."
- 6 ○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라."

####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눅 11:9-13)

- 7 ○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8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 9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 10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 11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 12 ○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 좁은 문과 넓은 문 (눅 13:24)

- 13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혀져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니,

-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 나무와 그 열매 (눅 6:43-44)

- 15 ○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악탈하는 이리들이다.

- 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성귀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 17 이처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눅 13:25-27)

- 21 ○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 22 그 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 반석위에 집을 지어라 (눅 6:47-49)

- 24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고, 그 집이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 28 ○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 29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분답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1:29-34; 눅 4:38-41)

- 8 1 ○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 2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아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 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였다.

####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

(눅 7:1-10; 요 4:43-54)

- 5 ○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 6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겠다.' 하시니,

- 8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

가) 또는 '고쳐 주어야겠느냐?'



- 면 제 종이 나를 것입니다.  
9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 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 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12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13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왔다.

####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

(막 1:29-34; 눅 4:38-41)

-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누워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15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자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16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악령이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눅 9:57-62)

- 18 ○예수께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물러가자고 말씀하셨다.  
19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2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동자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21 또 제자들 중 다른 하나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십시오." 하자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 두어라."

####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눅 8:22-25)

-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마침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다가가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구해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27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하고 하였다.

#### 악령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막 5:1-20; 눅 8:26-39)

- 28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악령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단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29 그때에 그들이 외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30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목하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으므로  
31 악령들이 예수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여보내소서." 하므로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 온 돼지 떼가 비탈길을 따라 바다 속으로 내리달아 물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 곧 악령 들렸던 자들의 일을 전하니,  
34 그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그분을 보고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눅 5:17-26)

- 9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가 자신의 성읍으로 가셨다.  
2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가 용서되었다."

- 하셨다.  
3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라고 하니,  
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5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막 2:13-17; 눅 5:27-32)  
9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마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12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13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공물을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려 왔기 때문이다."  
금식에 관한 질문 (막 2:18-22; 눅 5:33-39)  
14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16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다 대고 집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17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웃을 만진 여자

(막 5:21-43; 눅 8:40-56)

-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 때에 마침 한 관리가 와서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에게 안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므로  
19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20 ○그런데 마침 십이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21 그 여자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왔다."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다.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년의 손을 붙잡으시니, 그 소년과 일어났으며  
26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나갔다.

####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 27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어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28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맹인들이 그분께 다가오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주님."  
29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여라." 하시니,  
30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여라." 하셨으니,  
31 그들이 나가서 그분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 병어리를 고치신 예수님 (눅 11:14-15)

- 32 ○그들이 떠나간 후에 마침 사람들이 악령 들린 병어리 한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으며,  
33 악령이 쫓겨나고 그 병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하였으나,  
34 “바리새인들은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였다.”

###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 35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36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37 그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여라.”라고 하셨다.

###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

(막 3:13-19; 눅 6:12-16)

- 10 1 예수께서 자신의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2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일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롯 사 람 유다이다.

### 열두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막 6:7-13; 눅 9:1-6)

- 5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7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8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9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34절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레바이오스’ 또는 ‘다대오라고 불리는 레바이오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에제셀’

- 10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 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11 어느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누가 마땅한지 살펴보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 12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어라.  
13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 예언된 박해 (막 13:9-13; 눅 21:12-17)

- 16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9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의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22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3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24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25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 만큼 되면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 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 두려워할 분 (눅 12:2-7)

- 26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꾀속 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28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칼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31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눅 12:8-9)

-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34 핍박이 아니라 검 (눅 12:51-53; 14:26-27)  
34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35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36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38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39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상 (막 9:41)

-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41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 42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 11 1 예수께서 자신의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그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셨다.

###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낸 요한 (눅 7:18-35)

-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3 그분께 말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니,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 맹인들이 보고, 앉은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 깨닫게 되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7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땅아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10 이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  
1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12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13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 너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바로 그가 오히려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15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가) 헬. ‘게헨나’ 나) 로마 동전의 명칭 (4코드란테스, 16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함) 다) 미 7:6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두 제자들’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니면 왜 나갔더냐? ...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니면 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 사) 말 3:1; 잠 3:1; 출 23:20 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들을 귀’



16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17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므로 그들이 “보아라, 탐식자이고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들로 옳다고 입증된다.”

#### 회개하지 않은 도사들 (눅 10:13-15)

20 ○그때에 예수께서 자신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성읍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21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한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벳옷을 입고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 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하데스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에게 행한 권능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눅 10:21-22)

25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석아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막 2:23-28; 눅 6:1-5)

12 1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2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 놓은 빵을 그와 그의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7 너희가 “나는 제사가 아니라 공회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막 3:1-6; 눅 6:6-11)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0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멍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13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14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15 ○그러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 주시고

16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

취하시려는 것이었다.

18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19 그가 다윗도 앓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20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여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21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 성령을 거역하는 자

(막 3:20-30; 눅 11:14-23; 12:10)

22 ○그때에 사람들이 악령 들린 눈먼 벳어리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 벳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23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였으나,

24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치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저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가 스스로 분열된 것이니,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

다.

29 사람이 먼저 헐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헐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를 묶어 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30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이다.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2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나무와 그 열매 (눅 6:43-45)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34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35 선한 사람은 그 쌓아 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 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니,

37 네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네 말들로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요나의 표적 (막 8:11-12; 눅 11:29-32)

38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않을 것이다.

40 “요나가 ‘삼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삼일을 밤낮으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막 3:31-35; 눅 8:19-21)

43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쉼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44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45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일곱을 데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를 위하여 가 있음.’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ㄷ) 헬. ‘음부’ ㄹ) 호 6:6 ㅁ)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무리들이’가 없음.

ㄱ) 사 42:1-4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에제불’ ㄷ) 원문에는 ‘용서받을 것이다.’ ㄹ) 욥 1:7 ㅁ) 원문에는 ‘세 낮과 세 밤’ ㅂ) 원문에는 ‘심장부’

- 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 46 ○예수께서 아직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마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분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있었다.
- 47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계십니다.”)
- 48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 49 자신의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다.”

**13 씨 뿌리는 자 비유 (막 4:1-9; 눅 8:4-8)**  
1 ○그 날에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시니,

- 2 큰 무리들이 그분께 모여들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
- 4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고
- 5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 6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다.
- 7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 8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를 맺었다.
- 9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 비유의 목적 (막 4:10-12; 눅 8:9-10)**  
10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쭙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2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 13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만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 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 14 이스라엘의 예언이 저들에게서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15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으며, 그들의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라고 한 것이다.
- 16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 1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설명 (막 4:13-20; 눅 8:11-15)**

- 18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 보아라.
- 19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 20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 22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백 배, 어떤 이는 육십 배, 어떤 이는 삼십 배를 맺는다.”

- 말과 가리지 비유**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 25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사이에 가리지를 덧뿌리고 갔다.
- 26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리지도 드러나므로,

- 27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리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 28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 29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리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밭도 뽑아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리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밭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 겨자씨와 누룩 비유 (막 4:30-32; 눅 13:18-19)**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 32 그것은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으나, 자라게 되면 어떤 풀들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인다.”
-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막 4:33-34)**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으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 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여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겠다.’”  
라고 하였다.
- 말과 가리지 비유 설명**  
36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밭의 가리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
- 37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 38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가리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 39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

- 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 40 가리지들이 함께 모여져 불로 태워지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 41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어
- 42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 43 그때에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44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 45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 46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 47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 48 그물에 가득 차면, 어부들이 그것을 바닷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아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 49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 50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 새것과 옛것**  
51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예.”라고 말하였다.
- 5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것들과 옛것들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 (막 6:1-6; 4:16-30)**  
53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떠나
- 54 자신의 고향에 가서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 55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 56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고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7절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들을 귀” 다) 사 69-10(참실인역) 리) 또는 ‘속임수’

가) 참조, 겔 31:6 나) 헬, ‘사톤’(사톤은 약 13리터) 다) 시 78:2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세상의’가 없음.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들을 귀”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요한’ 또는 ‘요세’



- 57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가 아니면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 58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 세례자 요한의 죽음 (막 6:14-29; 눅 9:7-9)

- 14 **1**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 2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니, 그가 죽은 자들에서 살아났으므로 그 안에서 능력이 활동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전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서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5 헤롯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 6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식 가운데서 춤을 주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 7 헤롯이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 8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기를 "여기 쟁반 위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9 왕은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들과 연회석에 앉아 있던 자들 때문에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였으며,
- 10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 11 그의 머리가 쟁반에 들려 그 소녀에게 넘겨지자,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를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알려 드렸다.

####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막 6:30-44; 눅 9:10-17; 요 6:1-14)

-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가시니,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읍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 14 예수께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 중에서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다.

-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셔서 마을들로 흩어져서 그들 스스로 음식을 사게 하십시오." 하니,
- 1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 17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여기에 저희가 가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하니,
-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여기 나에게 가져오너라."
- 19 또 예수께서 무리들을 풀밭에 앉도록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하기를 드린 후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들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 20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남은 조각들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모았다.
- 21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들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오천 명쯤 되었다.
- 22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막 6:45-52; 요 6:15-21)**
- 22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자기보다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다.
- 23 무리들을 흩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홀로 그곳에 계셨다.
- 24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 25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 26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치므로,
-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28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 29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 30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 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십시오." 하니,
-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가) 또는 '그분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빌립'이 없음. 다) 원문에는 '때도 이미 지났습니다.' 라) 원문에는 '밤제사장'(로마식 밤 시간 구분으로, 새벽 3-6시에 해당함)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강한'이 없음.

- 32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 33 배 안에 있던 자들이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였다.
- 34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6:53-56)**
- 34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갔더니,
- 35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자들을 그분께 데려와,
- 36 예수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자들은 모두 나았다.

####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막 7:1-23)

- 15 **1**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 2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그들의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니,
-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 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하셨으니,
- 5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 6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나.
- 7 위선자들이야, 이사가야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말하기를
-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 9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들을 교훈으로 가르치는구나." 라고 하였다.
- 10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셨다.
- 12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질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하므로,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식물은, 뽑힐 것이다.

-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하니,
-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마다 배속으로 들어가서 뒤통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 19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 20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 만민이 큰 여자 (막 7:24-30)

- 2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 22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공중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하였으니,
- 23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요청하여 말하기를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니,
-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 25 그러자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니,
-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이 옳지 않다."
- 27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하므로,
- 28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가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

- 29 ○예수께서 그곳에서 떠나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 30 큰 무리들이 앉은뱅이, 맹인, 다리저는 자, 병어리, 그리고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 31 그리하여 병어리가 말하고 다리저는 자가 온

가) 출 20:12 신 5:16 나) 출 21:7 레 20:9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율법을' 또는 '계명'을 마) 사 29:13(칠십인역)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인도자들은 맹인들의 맹인들이다.'

전해지고 앞은백이가 걸어 다니고 뱀이 보는 것을 지켜 보고서, 무리가 놀라워하며 이 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사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막 8:1-10)

32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벌써 삼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지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 보내지 않겠다.” 하시므로

33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의 많은 빵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 위에 앉도록 명령하시고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르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7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일곱 광주리에 가득 모았다.

38 먹은 자들이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사천 명이었다.

39 ○예수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 표적을 구하는 자들 (막 8:11-13; 눅 12:54-56)

16 1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니,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번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3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오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막 8:14-21)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하시므로

7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

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니,

8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0 또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고 너희가 몇 광주리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12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 베드로의 신앙고백 (막 8:27-30; 눅 9:18-21)

13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4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하데스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20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막 8:31-9:1; 눅 9:22-27)

21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제 삼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며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23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24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값이 줄 것이다.

2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몇몇은 인자가 그의 나라 가운데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 변화하신 예수님 (막 9:2-13; 눅 9:28-36)

17 1 육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2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으니,

3 그런데 마침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4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였다.

5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 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6 제자들이 듣고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몹시 두려워하는데,

7 예수께서 다가가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고,

8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시니,

10 제자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였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니,

13 그때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 악령 들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

(막 9:14-29; 눅 9:37-43장)

14 ○그들이 무리에게 가서,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15 말하기를 “주님, 제 아들을 구하소서. 그가 간질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주 불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물 속에 빠지기도 하여

16 제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나에게 데려와라.”

18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니, 그 악령이 그에게서 나갔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19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다가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에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가라.’ 하였고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1)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신 예수님

(막 9:30-32; 눅 9:43하-45)

22 ○그들이 갈릴리에 ‘다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23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 삼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몹시 슬퍼하였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막달라’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다) 원문에는 ‘살과 피’ 라) 헬 ‘페트로스’ 미) 헬 ‘페트라’ 바) 원문에는 ‘하데스의 문들’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오) 또는 ‘꾸짖으며’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불신앙’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 있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거주하고’



##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 24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에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하니
- 25 베드로가 “네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은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서냐?”
- 26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들에게서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리면 네가 한 “스타테르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 누가 가장 큼니까? (막 9:33-37; 눅 9:46-48)

- 18 1 그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큼니까?” 하니,
-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 3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 5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 6 “**죄를 짓게 하는 유혹** (막 9:42-48; 눅 17:1-2)
-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맏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 7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네게서 던져 버려라. 손 불구자나 다리저는 자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가) 헬 ‘디드라크마’(골, 두 드라크마)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드로’가 없음. 다) 헬라 동전의 명칭 두 디드라크마 또는 네 드라크마. 라) 또는 ‘죄짓나’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1월’ ‘인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이 있음. 시)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에게’가 없음. 자) 원문에는 ‘너와 그 사이에서만’ 차) 신 19:15 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진정으로’가 없음.

9 또한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져 버려라. 한 눈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 잃은 양 비유 (눅 15:3-7)

- 10 ○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고 있다.
- 11 “**잃은 양 비유** (눅 15:3-7)
- 12 ○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것을 찾지 않았느냐?
- 1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 형제가 죄를 지은 경우 (눅 17:3)

- 15 ○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 16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도록 하여라.”
- 17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져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 19 ○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 21 ○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 용서하지 않는 종 비유

- 말한다.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해 주어라.
- 23 ○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 24 그가 결산을 시작할 때에 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 25 그가 그를 찾지 않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값이라고 명령하였다.
-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에 대하여 참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하니,
- 27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 28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니,
- 29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 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 30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
- 31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여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니,
- 32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 33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로 긍휼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 34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다.
- 35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 이혼에 관한 교훈 (막 10:1-12)

- 19 1 ○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시니,
- 2 큰 무리들이 따랐으며,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교제 주셨다.
- 3 ○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 5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 6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 7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니,
-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 10 ○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니,
-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며, 오직 주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
-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일 수도 하여라.”

## 어린이들과 하늘나라

(막 10:13-16; 눅 18:15-17)

- 13 ○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므로,
- 14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신 후 그곳에서 떠나셨다.
- 16 ○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니,
-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 18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가) 또는 ‘일흔일곱 번까지’ 나)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골, 노동자의 약 20년간 품삯) 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라) 창 22:4 바) 신 24:1 사) 원문에는 ‘그 여자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여자들’이 없음.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9절 끝에 ‘또한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가 있음. 자) 출 20:12-16 신 5:16-20

- 로 증언하지 마라.  
 1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라는 계명들이다.  
 20 그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니,  
 2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비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25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26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7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였다.  
 2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9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백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30 그러나 많은 으뜸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 포도원의 일꾼들

- 20 1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2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3 그가 "오전 아홉 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

- 4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 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 겠소.' 하니,  
 5 그들이 갔다. 그가 다시 "정오쯤과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하였다.  
 6 그가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 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서 있소?' 하니,  
 7 그들이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라고 하였다.  
 8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 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9 "오후 다섯 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1 그들이 받은 후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12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13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요?  
 16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신 예수님

- (막 10:32-34; 눅 18:31-34)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열두 제자들을 따로 곁에 데리고 가시면서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8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 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형을 내릴 것이며,  
 19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 삼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막 10:35-45)

- 20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하였다.  
 2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말씀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24 ○열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들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25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26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27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28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막 10:46-52; 눅 18:35-43)

- 29 ○그들이 예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30 그런데 마침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31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다.  
 32 그러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33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하소서."  
 34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 21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곧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 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 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 줄 것이다."  
 4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5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이다." 라고 하셨다.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7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걸옷을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8 큰 무리가 자신들의 걸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9 그분을 앞서 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10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였다.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성읍이 소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  
 12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였다.

####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막 11:15-19; 눅 19:45-48; 요 2:13-22)

-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13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4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셨다.

가) 레 19:18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소년 시절부터'가 있음. 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내나'가 있음.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 배' 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바) 원문에는 '제삼시쯤' 사) 원문에는 '제육시쯤' 오) 원문에는 '제구시쯤' 지) 원문에는 '제십일시쯤' 차) 원문에는 '제십일시쯤' 카) 원문에는 '하루의 짐과 더위를 견디면' 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가 있음. 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제자들'이 없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또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가 있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렇지 않다.' 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 리) 눅 99 모) 시 118:25-26 바)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로서, 여기에서는 천왕의 감탄사로 사용됨.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성전' 오) 사 56:7 자) 렘 7:11



14 ○성전에 있던 맹인들과 앉은뱅이들이 예수께 다가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소리쳐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16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무어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도무지 잊지 못하였느냐?”

17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막 11:12-14, 20-24)

18 ○아침 일찍 예수께서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19 마침 길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이처럼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 하니.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22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 권위를 도전한 예수님 (막 11:27-33; 눅 20:1-8)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또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소?” 하니.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다면 물어 보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사람들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에서요.’”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요.

26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요.’라고 말하

자니, 무리가 무섭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27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 두 아들 비유

28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하였다.”

29 “‘그러자 그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30 아버지께서 다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다.”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맏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32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보여 주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니,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 포도원 농부 비유 (막 12:1-12; 눅 20:9-19)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그 돌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송이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34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니.

35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물로 쳤다.

36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였다.

37 마침내 주인이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니.

38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은 열매를 제 때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하니.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

경에서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46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들을 두려워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결혼 잔치 비유 (눅 14:15-24)

22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2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 잔치를 베풀어 어떤 왕과 같다.”

3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왕수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였으니.

5 그들은 이마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 버렸다.

7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8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9 너희가 네거리에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 잔치에 초대하여라.’ 하였다.”

10 그 종들이 거리들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 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11 왕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왔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13 그러자 왕이 시종들은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져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갚 것이다.’ 14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막 12:13-17; 눅 20:20-26)

15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울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니 참입니다. 선생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니, 저희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이여, 왜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왔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 드려라.”

22 그들이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갔다.

부활에 관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이  
(막 12:18-27; 눅 20:27-40)

23 ○바로 그 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질문하였다.

24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까.”

25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까. 첫째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까.

26 둘째와 셋째도 그러하였고, 일곱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27 그리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 그러면 이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고 있다.”

30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

가) 시 118:22-23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다) 원문에는 ‘조용하였다.’    라) 또는 ‘얼굴을’    마)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분께 와서’    사) 신 25:5    오) 창 38:8    자) 원문에는 ‘여자’, ‘아내’    차) 원문에는 ‘씨를 세우 주어야 한다.’

- 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 31 너희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 33 무리들이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 제1 큰 계명 (막 12:28-34; 눅 10:25-28)**
- 3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다.
- 35 그들 중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큼니까?” 하니,
-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 40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막 12:35-37; 눅 20:41-44)
-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니,
- 4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어찌 성령 안에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 44 말하기를
-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이라.”
- 라고 하였다.
- 45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 46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그 날부터는 감히 그분께 질문하는 사람이 더는 없었다.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막 12:38-40; 눅 11:37-52; 20:45-47)
- 23 1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가 있음. 나) 출 36 등. 다) 신 65. 라) 레 19:18. 마) 시 110:1. 바) 원문에는 ‘그의’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여지기 힘’이 없음. 오) 유대인들이 그들의 선생을 부를 때 사용하는 칭호. 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4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13절 앞에는 ‘유에 첨가되어 있음. ㄱ) 원문에는 ‘만들려고’ ㅋ) 헬 ‘계한나’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맹인들’

- 니면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 20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 21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 22 또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 23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공훈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 24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 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 25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 26 맹인된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 27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28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 29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들을 장식하며,
- 30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 31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 32 그러니 너희 조상의 분량을 너희가 채워라.
- 33 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 34 ○그러므로 보라라.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너희 회당들 가운데서 채찍질하거나 이 성읍 저 성읍에서 박해할 것이다.
-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리새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

- 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 36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눅 13:34-35)**
-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람이 자기 갈리리들을 그 날에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 38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 3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 (막 13:1-2; 눅 21:5-6)

- 24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 드리려고 나아오니,
-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 재난의 징조 (막 13:3-13; 눅 21:7-19)**
- 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시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 5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 6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 7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 8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
- 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 10 그때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잔과 접시’ 다) 원문에는 ‘날들이 있었다면’ 라) 원문에는 ‘가담하는 자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미) 헬 ‘계한나’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버림 받을 것이다.’ 사) 원문에는 ‘무너지지 않은 채로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아)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모두’가 있음. 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 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11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12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14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 큰 재난 (막 13:14-23; 눅 21:20-24)

-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18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겹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19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2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26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마라.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28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 인자의 오심

(막 13:24-27; 눅 21:25-28)

- 29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혼

들릴 것이다.

- 30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에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에서 끌어올릴 것이다.”

#### 무화과나무의 교훈

(막 13:28-31; 눅 21:29-33)

- 32 “무화과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 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3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5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막 13:32-37; 눅 17:26-30, 34-36)

- 36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37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다가,  
 39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3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의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풀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눅 12:41-48)

- 45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느냐?  
 46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

- 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49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50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 열 처녀 비유

- 25 1 “그때에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2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4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5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7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였다.  
 8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 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니,  
 9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10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하였으나,  
 12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달란트 비유 (눅 19:11-27)

- 14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15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창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으니,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19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한 하였다.  
 20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22 그러자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24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얕한 분으로서 심지어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26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27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해야 하였다.’  
 28 그러므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30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 최후의 심판

- 31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32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줄 것이다.  
 33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가) 단 9:27; 11:31; 12:11    나) 원문에는 ‘모든 육체가’    다) 창 1:10; 3:44; 겔 32:7 등    라) 단 7:13-14    마) 또는 ‘그 일’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들도’가 없음.    사) 다른 사본들에는 ‘때에’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인자가 올 그 날짜와 그 시각을’    나)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권, 노동자의 약 20년간 품삷

-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 35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 36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 37 그 때에 의로운 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작하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 드렸습니까?'
- 38 저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 39 저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 40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 41 그 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 42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 43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 44 그 때에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작하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주님을 돌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 45 그 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할 것이다.
- 46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막 14:1-2; 눅 22:1-2; 요 11:45-53)

- 26 1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 2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 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다.
- 3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아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 4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 5 그러나 그들이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자 (막 14:3-9; 요 12:1-8)
- 6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실 때에
- 7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으시니,
-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 9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 1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 유다의 배반 (막 14:10-11; 눅 22:3-6)

- 14 ○그 때에 가롯 사람 유다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 15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은전 삼십 개를 세어 주었다.
- 16 그 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

(막 14:12-21; 눅 22:7-14, 21-23; 요 13:21-30)

-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을 안에 들어가 아무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내가 네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 19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 20 ○저녁때가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과

-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 21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 22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각 그분께 "주님, 저 입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 24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 25 그러자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말하기를 "랍비님, 저 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였다."
-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  
(막 14:22-26; 눅 22:15-20; 고전 11:23-25)
-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기도를 드린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 27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 28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 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 30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 산으로 갔다.
-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  
(막 14:27-31; 눅 22:31-34; 요 13:36-38)
- 31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 32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 33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 3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 35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

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막 14:32-42; 눅 22:39-46)

- 36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 38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 39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 40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 41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 42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시고,
- 43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 44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 45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워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 46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 붙잡히신 예수님

(막 14:43-50; 눅 22:47-53; 요 18:3-12)

-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실 때에 마침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 48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였고,
- 49 그가 곧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랍비님?" 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 5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

가) 원문에는 '그 잔으로부터'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새 언약의' 다) 또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 눅 13:7 모) 또는 '아직도 자며 쉬고 있느냐?' 바) 또는 '네가 이것을 위해 왔구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제자들'이 없음.



- 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므로,  
 51 마침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겹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랐다.  
 52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겹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겹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겹으로 망할 것이다.”  
 53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열두 군단 보다 많은 천사들을 당장 나에게 보내 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령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55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겹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56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 가이바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막 14:53-65; 눅 22:54-55, 63-71; 요 18:13-14, 19-24)

- 57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그런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예수님을 떨칠이 뒤따라가서, 결말을 지켜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으니,  
 60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61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삼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물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저술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63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6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나, 너희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65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보아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67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68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 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다.

####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막 14:66-72; 눅 22:56-62; 요 18:15-18, 25-27)

- 69 ○그때에 베드로는 재판정 바깥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길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니,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71 정문으로 나갈 때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시다.” 하니,  
 72 베드로가 맹세하며 다시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였다.  
 73 잠시 후에 곁에서 있던 자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다. 당신의 말씨를 들어 보니 확실하다.” 하니,  
 74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자, 곧 답이 올었다.  
 75 ○베드로가 “답이 올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예수님

(막 15:1; 눅 23:1-2; 요 18:28-32)

- 27 1 새벽이 되었을 때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였다.  
 2 그리고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3 ○그때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온전 삼십 개를 도로 갖다 주며

- 4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하여라.”  
 5 그러자 유다가 그 온전들을 성전에 던져 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6 대제사장들이 그 온전들을 주우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것들은 피 값이기 때문이다.” 하고,  
 7 그들이 서로 의논한 후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쓰기 위하여 토기장이의 발을 샀다.  
 8 이런 이유로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 밭’이라고 불린다.  
 9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값이 매겨진 자의 몸값인 온전 삼십 개를 취하여  
 10 토기장이의 발을 사기 위하여 돈을 그들이 ‘주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이다.’”라고 하였다.

####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신 예수님

(막 15:2-5; 눅 23:3-5; 요 18:33-38)

-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옳다.”  
 12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13 그때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14 예수께서 그에게 단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놀랐다.

####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막 15:6-15; 눅 23:13-15; 요 18:39-19:16)

-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

- 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시다.” 하였다.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죽이게 하였다.  
 21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요.”라고 말하였다.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23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것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더욱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24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므로, 너희가 당하라.” 하니,  
 25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26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 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 회롱 당하신 예수님

(막 1:16-20; 요 19:2-3)

- 27 ○그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그분 앞에 모았다.  
 28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29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회롱하였다.  
 30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그들이 그분을 회롱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막 15:21-32; 눅 23:26-43; 요 19:17-27)

- 33 ○그들이 헤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34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

- 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 35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들을 나누고, 36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 37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 라고 쓴 죄목을 붙였다.
- 38 ○그때에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 3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 40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삼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 41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와 같이 모욕하며 말하였다.
- 42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 44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욕하였다.
- 숨을 거두신 예수님**  
(막 15:33-41; 눅 23:44-49; 요 19:28-30)
- 45 ○이제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sup>1)</sup>오 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 46 <sup>2)</sup>“오 후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sup>3)</sup>“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 47 거기에서 있던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 48 그들 중 하나가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sup>4)</sup>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 49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sup>5)</sup>
-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sup>6)</sup>숨을 거두셨다.
- 51 ○마침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

- 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 52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 53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 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하였다.
- 55 ○거기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도 있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자들이었다.
-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 57 ○저녁때가 되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리마대 사람 부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 59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고운 삼베로 싸고
- 60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놓고, 거기 무덤 막은편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

- 62 ○이튿날, 곧 <sup>1)</sup>예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비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각하, 저 기만하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삼일 후에 살리심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 64 그러니 삼일 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 내고서, 백성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sup>2)</sup>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라.” 하니,
- 66 그들이 가서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 부활하신 예수님

(막 16:1-8; 눅 24:1-12; 요 20:1-10)

- 28 1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

- 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 2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러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 3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 7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뵈실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 8 ○그분은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려고 달려갔다.
- 9 “그러나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 10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 부활 소문을 차단하려는 대제사장들

- 11 ○그 여자들이 갈 때에 마침 경비병들 중 몇 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 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
- 12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 주면서,
- 13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라.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 14 이 말이 충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 주겠다.” 하니,
- 15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막 16:14-18;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 16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산에 이르러,
- 17 예수님을 뵈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 18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 참조, 시 22:18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왕이라면’ 다) 원문에는 ‘제육시’ 라) 원문에는 ‘제구시’ 마) 시 22:1 또는 ‘식초’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창을 취하여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 나왔다.’ 가 있음(요 19:34). 오) 원문에는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 자) 예비일 다음날’은 안식일을 가리킴 차) 또는 ‘경비병들을 취하여’



# 마가복음

##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

(마 3:1-12; 눅 3:1-9; 요 1:19-20)

- 1 <sup>1</sup>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 2 <sup>2</sup>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
- 3 <sup>3</sup>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 4 <sup>4</sup> 환과 같이.
- 5 <sup>5</sup>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 6 <sup>6</sup>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 7 <sup>7</sup>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지냈다.
- 8 <sup>8</sup>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구부러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 9 <sup>9</sup>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마 3:13-17; 눅 3:21-22)

- 9 <sup>9</sup> 그가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 10 <sup>10</sup> 물에서 막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으며
- 11 <sup>11</sup>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였다.

##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마 4:1-11; 눅 4:1-13)

- 12 <sup>12</sup>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 13 <sup>13</sup>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종들었다.

##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마 4:12-17; 눅 4:14-15)

- 14 <sup>14</sup>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 15 <sup>15</sup>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

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다.

## 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 4:18-22; 눅 5:1-11)

- 16 <sup>16</sup> ○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 17 <sup>17</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 18 <sup>18</sup>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 19 <sup>19</sup> 조금 더 가시다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 20 <sup>20</sup>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눅 4:31-37)

- 21 <sup>21</sup> ○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 22 <sup>22</sup>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으셨기 때문이다.
- 23 <sup>23</sup> ○ 바로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외쳐
- 24 <sup>24</sup>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니,
- 25 <sup>25</sup>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 26 <sup>26</sup>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 27 <sup>27</sup> 모두가 놀라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라고 하였다.
- 28 <sup>28</sup>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갔다.

##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마 8:14-17; 눅 4:38-41)

29 ○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30 <sup>30</sup>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31 <sup>31</sup>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종들었다.

32 <sup>32</sup> ○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33 <sup>33</sup>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sup>34</sup>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전도 여행 (눅 4:42-44)

35 <sup>35</sup> ○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36 <sup>36</sup>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37 <sup>37</sup>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38 <sup>38</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신 예수님

(마 8:1-4; 눅 5:12-16)

39 <sup>39</sup> ○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40 <sup>40</sup>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41 <sup>41</sup>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42 <sup>42</sup>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43 <sup>43</sup>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44 <sup>44</sup>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러라." 하셨다.

45 <sup>45</sup>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일을 널리 퍼뜨렸으므로, 곧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다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왔다.

##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 9:1-8; 눅 5:17-26)

2 <sup>2</sup> 1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2 <sup>2</sup>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3 <sup>3</sup> 그 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니,

4 <sup>4</sup>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 내리니,

5 <sup>5</sup>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6 <sup>6</sup> 서기관들 중의 어떤 이들이 저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7 <sup>7</sup>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8 <sup>8</sup>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9 <sup>9</sup>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10 <sup>10</sup>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고도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1 <sup>11</sup>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셨다.

12 <sup>12</sup>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마 9:9-13; 눅 5:27-32)

13 <sup>13</sup> ○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온 무리가 그분께 나왔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sup>14</sup> 또 지나가시다가 일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15 <sup>15</sup> ○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선지자들의 글에' 다) 말 31 라) 사 40:3 마) 원문에는 '영'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 원문에는 '사람들의 어부' 삼겠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무릎을 꿇고'가 없음. 나) 또는 '떠나가시다' 다) 원문에는 '기대어 누우셨을 때에'

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으니, 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하니,

17 예수께서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금식에 관한 질문 (마 9:14-17; 눅 5:33-39)**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할 수 없나

20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21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다 대고 감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대고 기운 새 조각이 그 헌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22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 12:1-8; 눅 6:1-5)**

23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이삭들을 자르기 시작하니,

24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이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합니까?" 하니,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에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26 대제사장 아비야달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차려 놓는 빵을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27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가) 원문에는 '함께 기대어 누워 있었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당신들의 선생은'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먹고 마십니까?' 모)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따르고 가' 없음.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28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셨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 12:9-14; 눅 6:6-11)

3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2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시는지 지켜 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4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5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6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예수님을 따른 큰 군중**

(마 4:23-25; 눅 6:17-19)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하,

8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아왔다.

9 예수께서는는 무리가 에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10 이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11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12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열두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마 10:1-4; 눅 6:12-16)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14 예수께서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

도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일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15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6 "열둘을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오,

17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였으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18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19 가롯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 준 자이다.

**예수님과 바알세불**

(마 12:22-32; 눅 11:14-23; 12:10)

20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아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25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으며,

26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27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탈취하지 못하고 그를 묶어 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2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것이다."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들렸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마 12:46-50; 눅 8:19-21)

31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나) 원문에는 '용서받을 것이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심판'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누이들'이 없음. 마) 사 69-10

32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34 자신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고 어머니이다."라고 하셨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마 13:1-9; 눅 8:4-8)**

4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주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드니, 예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모두 바다를 가까이하여 육지에 있었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3 ○"잘 들어라.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4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렸고,

5 다른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썩어 나갔나

6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 버리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다.

7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삼십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백 배를 맺었다."

9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비유의 목적 (마 13:10-17; 눅 8:9-10)**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주위에 있는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에 관하여 그분께 물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들로 주어진다.

12 이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설명**  
(마 13:18-23; 눅 8:11-15)

- 1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 14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 15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 16 돌밭 위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 17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절려 넘어진다.
- 18 또 다른 이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 20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이는 삼십 배, 어떤 이는 육십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등잔대 위의 등불 비유 (눅 8:16-18)**

-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 22 숨겨진 것은 예의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23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 25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지라는 씨의 비유**

-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 27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되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다.
- 29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겨자씨 비유 (마 13:31-32; 눅 13:18-19)**

-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 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땅 위의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으니,
- 32 일단 뿌려지면 자라서 모든 풀들보다 더 커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된다.”
-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마 13:34-35)**
-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 34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마 8:23-27; 눅 8:22-25)

- 35 ○그 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 37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 38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 39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 41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거라사의 악령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 8:28-34; 눅 8:26-39)

- 5 1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다.
- 2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 3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 4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으나,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었으므로 아무도 그

를 제할할 수 없었다.

- 5 그는 밤낮 언제나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곤 하였다.
- 6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분께 절하며,
- 7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 간청하니,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 8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9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 10 그가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 11 ○그곳 산 곁에 방목하는 큰 돼지 떼가 있었는데,
- 12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 13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므로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한 이천 마리쯤 되는 그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을 따라 돌진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다.
- 14 ○그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성읍과 마을들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도 왔다.
- 15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악령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사로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 16 그 악령 들렸던 자와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
- 17 그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악령 들렸던 자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니,
- 19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으로 가서 ‘네 가족에게 주께서 네게 행하시고 너를 구원하리’ 여진 모든 일들을 전하여라.” 하시니,
- 20 그가 떠나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카폴리스에서 선포하므로 모두가 놀랐다.

**여자와 아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마 9:18-26; 눅 8:40-56)

-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

-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다.
- 22 회당장 중 하나인 아이로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 23 많이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하니,
- 24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에워싸 밀었다.
- 25 ○그 중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 26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 27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 28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29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묵으로 ‘느꼈다.
- 30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 31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였으니,
- 32 예수께서 이것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 33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아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 34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하셨다.
- 35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파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케 하십니까?” 하니,
- 36 예수께서 이 말 하는 것을 “결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 38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서 소란과 우는 것과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 39 들어가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40 그들이 비웃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41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쿨.”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42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 다녔으니, 그 소녀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경탄하였다.”  
43 예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

(마 13:53-58; 눅 4:16-30)

- 6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이 사람에게 주어던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3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하시고  
5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으며,  
6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마 10:1, 5-15; 눅 9:1-6)  
그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7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둘씩 파송하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8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양식이 나 자루나 전대에 넣을 동전도 지니지 말고,  
9 다만 신발은 신되, 겹옷은 두 벌도 입지 마

- 라.”  
10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서 뉘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라.  
11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에 너희 발아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12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13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쁨을 발라 병을 고쳤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마 14:1-12; 눅 9:7-9)  
14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 헤롯 왕이 이를 들었고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았다. 그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활동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15 다른 이들은 그를 열리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16 그러나 헤롯은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베고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였다.  
17 ○전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헤롯이 그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18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19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20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21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에서 고관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지도자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22 “바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네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23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24 이에 그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

- 여라.” 하였다.  
25 그 소녀가 즉시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26 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연회석에 앉아 있던 자들 때문에 그 소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27 왕이 즉시 시위병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시위병이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28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오전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마 14:13-21; 눅 9:10-17; 요 6:1-14)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하니,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으니, 이는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32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34 ○예수께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5 ○“날이 이미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36 그들을 보내서서 주변 촌과 마을들로 흩어져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하니,  
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기를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 40 그들이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41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기도를 드린 후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42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43 그들이 빵과 물고기 남은 것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히 모았다.  
44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오천 명이였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 14:22-33; 요 6:15-21)  
45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뱃새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흠어 보내셨다.  
46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47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48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시므로,  
49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명한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50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니,  
51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52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  
게네사렛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 14:34-36)  
53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배를 타고,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55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오기 시작하였다.  
56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고침을 받았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곧’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요세’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가 말하는 것’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도’ 마) 원문에는 ‘날이’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딸 헤로디아’가

가) 원문에는 ‘때가 이미 늦어지자’ 나) 원문에는 ‘때도 이미 늦었습니다.’ 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빵을’이 없음.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미’가 있음. 바) 원문에는 ‘밤 제사경에’ (로마식 밤 시간 구분으로, 새벽 3-6시에 해당함)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놀라고 경탄하였다.’ 오) 원문에는 ‘구원받았다.’



## 장로들의 유전과 계명 (마 15:1-20)

- 7 1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께 모였다.
- 2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주의해서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 4 또 "시장에서 돌아와 몸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지켜 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곧 잔과 항아리와 닦고릇과 "침대를 씻는 것 등이었다.)
- 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하니,
-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사가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으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7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 8 그들이 나를 헐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들을 교훈으로 가르치는구나."
- 9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다."
- 10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새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 11 모세는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여라." 하였으니,
- 12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 13 그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 14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
- 15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 16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가) 또는 '시장에서 새은 것은 무엇이든지 씻지 않으면'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물에 물을 뿌리지 않으면'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침대'가 없음. 라) 사 29:13(침입인)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키기' 벡) 출 20:12 신 5:16 사 56:2 출 21:17 레 20:9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6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가 있음. 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두로와 시몬' 차)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카) '열 도시'로 구성된 지역

16<sup>가)</sup>

- 17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물었다.
-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19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 20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21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 22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 23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 24 수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 (마 15:21-28)
- 25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서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자신을 숨기실 수 없었다.
- 26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바로 와서 그분의 발아래 엎드렸으니,
- 27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으며 수로페니키아 족에 속하였다. 그 여자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 28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 29 그 여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식탁 밑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들은 먹습니다." 하므로,
- 3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 31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니, 악령이 이미 나가고 없었다.
- 32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창조 마 15:29-31)
- 33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거쳐 "대카폴리스 지역 가운뎃길을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 34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 35 예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 36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려라."라는 뜻이다.
- 37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
- 38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알렸다.
- 39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께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셨다. 귀머거리들이 듣게 하시고 벼어리들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였다.

## 사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마 15:32-39)

- 8 1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 "내가 저 무리를 볼쌍히 여긴다. 그들이 벌써 삼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 3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다."
- 4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일곱 개입니다."라고 하였다.
- 6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 위에 앉도록 명령하시고 빵 일곱 개를 가지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 7 또 작은 물고기와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이것들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 8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일곱 광 주리나 모였으며,
- 9 사람들은 사천 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 10 ○그리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나다 지방으로 가셨다.

## 표적을 구한 지들 (마 16:1-4)

- 11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느님로부터

- 오느 표적을 구하였다.
- 12 예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 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 14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마 16:5-12)
- 15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 16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니,
- 17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 18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 19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 20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열둘입니다." 하니,
- 21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일곱입니다."라고 하였다.
-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다.
- 23 뱃새들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 24 ○그들이 뱃새대로 갔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다.
- 25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니,
- 26 그가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을 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서 다니는 것을 봅니다." 하므로,
- 27 예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 28 예수께서 그들을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를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 베드로의 신앙고백 (마 16:13-20; 눅 9:18-21)

- 29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곧'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달마나다', '막달라'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또한 마을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마라.'가 있음.

라고 하느냐?” 하시니,  
28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  
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  
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의 하  
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29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  
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  
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  
니다.” 라고 하였다.

30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

(마 16:21-28; 눅 9:22-27)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  
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  
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삼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  
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  
다.

33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  
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  
러가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34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목을 때  
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  
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37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  
느냐?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  
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 1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  
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서 있는 자  
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  
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 변모하신 예수님 (마 17:1-13; 눅 9:28-36)

2 ○옥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서 그  
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3 그분의 옷이 땅 위의 빨래하는 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나고 희게 되었다.

4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5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랍비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랍비님을 위하  
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으니.

6 이는 그가 매우 무서워하여 무엇이랴 대답해  
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7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으며,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  
라.” 하였다.

8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더 이상 아무  
도 보이지 않고 단지 예수님만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  
에게 명령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10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  
하여 서로 논쟁하였다.

11 ○그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  
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  
합니까?” 하니,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  
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어  
찌하여 인자에 관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  
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 더러운 영 들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

(마 17:14-20; 눅 9:37-43장)

14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  
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  
께 논쟁하고 있었다.

15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하니,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  
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므로

17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병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께 데려  
왔습니다.

18 어디서든지 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뺨뺨해집니다. 그  
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  
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

했습니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  
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  
와라.” 하시니,

20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영이 예수님  
을 보자 그 아이에게 곧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땀굴었다.

21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  
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  
시므로 그가 말하였다. “어려서부터입니다.

22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  
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  
우소서.”

2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  
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24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  
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  
우소서.”

25 예수께서 무리가 물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네게 명령하니, 아이에게  
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26 그 영이 부르짖으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그가 죽은 것같이 되고,  
많은 이들은 “아이가 죽었다.” 라고 하였다.

27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  
실 때 그가 일어섰다.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  
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신 예수님

(마 17:22-23; 눅 9:43-45)

30 ○그들이 거기서 떠나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  
나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  
을 원치 않으셨다.

31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  
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  
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임을 당한 지 삼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32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 가장 큰 자

(마 18:1-5; 눅 9:46-48)

33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  
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니,

34 그들은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35 예수께서 앉으셔서 열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  
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36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  
고 그를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 우리를 위하는 자 (눅 9:49-50)

38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  
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를 따르지 않으  
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  
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4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너  
희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 죄를 짓게 하는 유혹 (마 18:6-9; 눅 17:1-2)

42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  
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  
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바다에 던  
져지는 편이 낫다.

43 만일 네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  
것을 잘라 버려라. 손 불구자로 생명이 들어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  
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44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  
것을 잘라 버려라. 다리저는 자로 생명이 들  
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  
는 것보다 낫다.

45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  
것을 빼내 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

가) 또는 ‘꾸짖기 시작하였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믿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를’ 이 없음. 리) 또는 ‘죄짓게’ 미) 헬 ‘게헨나’ 비)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4절 ‘자기에서는 그들의 발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있음. 시)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6절 ‘자기에서는 그들의 발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있음.



- 지는 것보다 낫다.  
 48 거기에서는 "별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50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 이후에 대한 가르침 (마 19:1-12)

- 10** 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오시자, 무리들이 다시 모여오니, 예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바리새인들이 다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물기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4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 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하니,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계명을 기록해 주었다.  
 6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작부터 <sup>\*)</sup>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 이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sup>\*)</sup>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꼭지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여라."  
 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관하여 그분께 물으니,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자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12 또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로 간음하는 것이다."

###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마 19:13-15; 눅 18:15-17)

- 13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 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 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16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부자 청년 (마 19:16-30; 눅 18:18-30)**  
 17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물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므로,  
 1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네가 계명들을 알고 있으니, <sup>\*)</sup>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이다."  
 20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21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다.  
 22 그가 이 말씀에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라고 하셨으므로,  
 26 제자들이 더욱 놀라 <sup>\*)</sup>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27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니, <sup>\*)</sup>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사 66:24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또한 모든 제물들은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가 있음.    ㄷ)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또는 '요단강 건너편을 통하여 유대 지방으로' 리 신 24:1, 3    ㄹ)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서' 가 생략되어 있음.    ㅁ) 창 12:7; 52    ㅎ) 원문에는 '그들을';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이' 이 없음.    ㅑ) 창 22:4    ㅒ)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가 없음.    ㅓ) 출 20:12-16 신 5:16-20    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돈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있음.    ㅕ)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런'    ㅖ) 창 18:14; 욥 42:2

다." 라고 하셨다.

- 28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30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뎌야 받을 것이고, <sup>\*)</sup>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31 그러나 많은 으뜸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예수님 (마 20:17-19; 눅 18:31-34)**  
 32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둘을 불러 놓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33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 뱉을 것이며,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삼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 20:20-28)**  
 35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저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37 그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광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하니,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39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구나,  
 40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41 ○열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42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

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나,  
 43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44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 맹인 바디매오를 고치신 예수님 (마 20:29-34; 눅 18:35-43)

- 46 ○그들이 예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맹인 거지인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48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50 그가 자기 겹옷을 벗어 던지고 별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51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랍비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5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마 21:1-11; 눅 19:28-40; 요 12:12-19)

- 11** 1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 산 근처에 있는 벳벤테와 벳다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을 여기로 보내 줄 것이다."

\*) 또는 '세상에서는'

- 4 그들이 가서 길 가 문 바깥에 매여 있는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풀고 있었는데,  
5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6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7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겹옷을 그 위에 덮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8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9 앞서 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쳐 말하기를  
“<sup>가)</sup>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10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sup>나)</sup>호산나.” 하였다.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마 21:18-19)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13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 (마 21:12-17; 눅 19:45-48; 요 2:13-22)  
15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16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7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sup>나)</sup>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sup>다)</sup>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

가) 시 118:25-26 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로서, 여기에서는 찬양의 감탄어로 사용됨. 다) 사 56:7 라) 렘 7:11 모)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가 있음.

- 시니,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 본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19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무화과나무가 마름** (마 21:20-22)  
20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랍비님, 보소서, 랍비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6<sup>나)</sup>  
**권세를 도전 받는 예수님** (마 21:23-27; 눅 20:1-8)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28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할 권세를 주었소?” 하니,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 보겠으니,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라.”  
31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부터이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요,  
32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이다.’라고 말할 것은가?” 하였으나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요한을 선지자라고

-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33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원 농부 비유** (마 21:33-46; 눅 20:9-19)  
12<sup>나)</sup>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줄 짜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2 때가 되자, 그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니,  
3 그들이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다.  
5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이 그 종도 죽였으며 그가 다른 많은 종들도 보냈으나 그들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6 아직 그에게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 종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나,  
7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 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8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9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10 너희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sup>나)</sup>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11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며,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12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 22:15-22; 눅 20:20-26)  
13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니,  
14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니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

가) 시 118:22-23 나) 또는 ‘열굴’ 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라) 창 38:8 신 25:5 마) 창 38:8 바) 원문에는 ‘여인’, ‘아내’ 사) 원문에는 ‘씨를 세워 주어야 한다.’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이 부활하여 거 있음. 자) 출 36:6 등

- 되게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15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내게 <sup>나)</sup>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라.” 하시니,  
16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크게 놀랐다.  
**부활에 관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 (마 22:23-33; 눅 20:27-40)  
18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말하였다.  
19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sup>나)</sup> ‘만일 어떤 이의 형이 죽어 아내를 남기고 자식이 없으면, <sup>다)</sup> 그 동생이 그 <sup>나)</sup>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까?  
20 형제 일곱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후손이 없이 죽고,  
21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셋째도 그러하고,  
22 그렇게 일곱이 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3 <sup>나)</sup>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가는 때에는 일곱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25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26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열거에 관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sup>나)</sup>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였으니,  
27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제일 큰 계명** (마 22:34-40; 눅 10:25-28)  
28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와서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묻기를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니,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sup>가</sup> ‘들  
 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  
 신 주님이시니,  
 30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  
 랑하여라.’  
 31 또 둘째는 이것이니 <sup>나</sup> ‘네 이웃을 네 자신처  
 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  
 은 없다.”

32 서기관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  
 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  
 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올바르게 말씀하였  
 습니다.

33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  
 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법제와 제사보다 낫습  
 니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마 22:41-46; 눅 20:41-44)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  
 여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  
 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36 다윗 자신이 성령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기를

<sup>다</sup>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  
 들을 네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이라.’  
 고 하였다.

37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마 23:1-36; 눅 20:45-47)

38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39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고 잔치에서 높은 자리  
 에 앉는 것을 원한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  
 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가난한 과부의 헌금 (눅 21:1-4)

41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는  
 데,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넣고 있었다.

42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sup>코</sup>렌트, 곧  
 한 <sup>코</sup>드란테스를 넣었다.

43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  
 씌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  
 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이  
 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그들 모두는 풍부한 가운데서 넣었으나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셨다.

####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마 24:1-2; 눅 21:5-6)

13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알  
 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  
 입니까?” 하니,

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거대  
 한 건물들을 보느냐?” <sup>여</sup> ‘여기에 <sup>사</sup>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  
 다.”

#### 재난의 징조 (마 24:3-14; 눅 21:7-19)

3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  
 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와서 묻기를

4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  
 라.

6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  
 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7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  
 직 끝은 아니다.

8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  
 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들  
 이 있을 것이며 <sup>기</sup> ‘기근들이 있을 것이니, 이것  
 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9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  
 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고

10 또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  
 가 무엇을 말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오직  
 그 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말하여

라.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시다.

12 형제라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  
 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  
 을 받게 되나,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큰 재난 (마 24:15-28; 눅 21:20-24)

14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지 못  
 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  
 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  
 망하고,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자기 집  
 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 말며,

16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겹옷을 가지러 뒤로 돌  
 아서지도 마라.

17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  
 들에게 화가 있다.

18 ○너희는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  
 도하여라.

19 그 날들에 환난이 있을 것이니, 그와 같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부  
 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해 주지 않으셨  
 다면, <sup>아</sup>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러나 주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을 단축하셨다.

21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저기에 있다.’ 라고 말  
 하여도 믿지 마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여라. 내가 모든 것  
 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 인자의 오실 (마 24:29-31; 눅 21:25-28)

24 ○“그 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  
 으며,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들이 <sup>인</sup> ‘인자가 큰 권능과 권세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7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  
 는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 24:32-35; 눅 21:29-33)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  
 운 줄을 안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sup>인</sup>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

30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

31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마 24:36-44; 눅 17:26-30, 34-36)

32 ○“그러나 그 날짜나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  
 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  
 들도 모으며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33 ○주의하고 <sup>깨</sup>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4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멀리 갈  
 때에, 그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  
 하는 것과 같다.

35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  
 지, 저녁 늦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 울 때에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  
 이다.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  
 도록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깨어 있어라.”

####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마 26:1-5; 눅 22:1-2; 요 11:45-53)

14 1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  
 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  
 수님을 간계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2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

예수께 향유를 부음 (마 26:6-13; 요 12:1-8)  
 3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  
 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  
 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  
 으니,

4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  
 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5 이 향유를 삼백 <sup>데</sup>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

가) 신 6:4-5; 수 22:5 나) 레 19:18 다) 시 110:1 라)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모) 1코드란테스는 64분의 1 데나리온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기에’가 없음 사) 원문에는 ‘무너지지 않은 채로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근들과 난리들이’

가) 단 9:27; 11:31; 12:11 나) 원문에는 ‘모든 육체가’ 다) 참조, 사 13:10; 34:4 겔 32:7 등 라) 단 7:13-14 모) 또 는 ‘그 일이’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깨어 기도하여라.’ 사)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 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 6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 8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 9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마 26:14-16; 눅 22:3-6)**
- 10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니,
- 11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 (마 26:17-25; 눅 22:7-14, 21-23; 요 13:21-30)**
- 12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하니,
- 13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 14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라.
- 15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친히 보여 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 16 제자들이 나가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 17 저녁때가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았다.
- 18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므로,
- 19 그들이 슬피하며 하나씩 그분께 “저입니까?”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가) 원문에는 ‘그 잔으로부터’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더 이상’이 없음. 다) 또는 ‘걸려 넘어짐’ 리) 속 137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두 번’이 있음.

-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두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 21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좋을 것이다.” 하셨다.
-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 (마 26:26-30; 눅 22:15-20; 고전 11:23-25)**
- 22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반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 23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모두가 “그 잔을 마셨다.”
-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 2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새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 (마 26:31-35; 눅 22:31-34; 요 13:36-38)**
- 26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 산으로 갔다.
-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 29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를 “모두가 배반할 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하니,
- 3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 31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마 26:36-46; 눅 22:39-46)**
- 32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 34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

- 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 35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 36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라고 하셨다.
- 37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 38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 39 예수께서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 40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 41 예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시각이 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 42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 붙잡히신 예수님 (마 26:47-56; 눅 22:47-53; 요 18:3-12)**
- 43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곧 열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 44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하였으므로,
- 45 그가 와서,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 ‘랍비님.’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 46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으니,
- 47 겺에서 일한 자들 중 하나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잘랐다.
- 48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하였느냐?”
- 49 내가 낱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 50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 51 한 청년이 맨몸에 천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 오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자,

가)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 나) 또는 ‘아직도 자며 쉬고 있느냐?’ 다) 또는 ‘끝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 시각이 왔다.’ 리) 시 110:1, 단 7:13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에게 가 있음.’

52 베 홀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마 26:57-68; 눅 22:54-55, 63-71; 요 18:13-14, 19-24)**

- 53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들었다.
- 54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까지 예수님을 떨쳐이 뒤따라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피고 있었다.
-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 56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다.
- 57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 58 “우리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삼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으니,
- 59 이 점에 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 60 그러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
- 61 예수께서는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
- 6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 64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은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정죄하였다.
- 65 어떤 이들은 그분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해 보아라.” 하였고, 하인들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다.
-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마 26:69-75; 눅 22:56-62; 요 18:15-18, 25-27)**
- 66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들 중 하나가 와서,
- 67 베드로가 불을 쪼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하기를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니,



- 68 그가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 앞뜰로 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 69 ○그 여종이 그를 보며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니,
- 70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에 곁에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시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라고 하였다.
- 71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 72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었드려 울었다.

####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예수님

(마 27:1-2, 11-14; 눅 23:1-5; 요 18:28-38)

- 15 1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아침 회의를 연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 2 ○빌라도가 그에게 물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 3 대제사장들이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하였다.
- 4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보아라, 그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가?” 하였다.
- 5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마 27:15-26; 눅 23:13-25; 요 18:39-19:16)

- 6 ○명절이 되면 죄수를 가운데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그들에게 풀어 주곤 하였다.
- 7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폭도들과 함께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는 폭동 중에 살인한 자였다.
- 8 무리가 “올라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 9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 주기 원하느냐?”라고 하였으니,

- 10 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11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 12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하니,
- 13 그들이 다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
- 14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신 예수님

(마 27:27-31; 요 19:2-3)

- 16 ○군인들이 예수님을 뜰, 곧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부대를 소집하고,
- 17 자주색 옷을 입히며,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 18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 19 그들이 또한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 20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혔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마 27:32-44; 눅 23:26-43; 요 19:17-27)

-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나갔다.
- 21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 22 ○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이다.
- 23 무리가 그에게 물약을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
- 24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는데, “누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
- 25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아홉 시였다.’
- 26 그리고 죄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분의 죄목이 쓰여 있었다.

- 27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 28 “
- 29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삼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 30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였고,
- 31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그와 같이 서로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다.

#### 숨을 거두신 예수님

(마 27:45-56; 눅 23:44-49; 요 19:28-30)

- 33 ○“정오가 되었을 때에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 34 “오후 세 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리마 사바다니.”  
라고 부르짖으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35 옆에서 서 있던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 36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싹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 주는지 두고 봅시다.” 라고 하였다.
-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 38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 39 예수님을 따주 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 40 ○또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다.
- 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시 때에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며 그 밖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마 27:57-61; 눅 23:50-56; 요 19:38-42)

- 42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그 날은 안식일 전날, 곧 준비일이었다.
- 43 존경받던 공회 의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 44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그에게 물었다.
- 45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주었다.
- 46 요셉이 삼베를 구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베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놓았다.
- 47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디에 눕혀지는지 지켜 보았다.

#### 부활하신 예수님

(마 28:1-8; 눅 24:1-12; 요 20:1-10)

- 16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기름을 바르려고 향료를 구입하였다.
-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에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 3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어귀에서 그 돌을 굴러 주겠는가?”라고 하였다.
- 4 그런데 그 여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는데, 그 돌은 매우 큰 것이었다.
- 5 ○그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다.
- 6 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시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그분을 두었던 곳이다.
- 7 너희는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분을 뵈실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하였다.
- 8 ○그 여자들이 떨며 심히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외쳐’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유대인의 왕을’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바라느냐?’ 가 없음. 마) 헬 ‘프라이토리온’ 바) 참조, 시 22:18 사) 원문에는 ‘제사장’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8절 ‘그래서 “그가 불법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한 성경이 성취되었다.’가 있음. 나) 원문에는 ‘제육시’ 다) 원문에는 ‘제구시’ 라) 시 22:1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소리를 지르며’ 가 있음. 바) 다른 고대 사본들은 여기에서 종결됨.

##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마 28:9-10; 요 20:11-18)

- 9 ○<sup>가</sup>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일곱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 10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 11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눅 24:13-35)

- 12 ○이 일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 13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 만민에게 복음 선포를 명령하신 예수님

(마 28:16-20;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을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 16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sup>가</sup> 새 방언을 말하며
- 18<sup>나</sup>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를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 승천하신 예수님 (눅 24:50-53; 행 1:9-11)

- 19 ○주<sup>나</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 20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sup>나</sup>

## 누가복음

## 데오빌로 각하게

- 1 1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 2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 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대로,
- 3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게 차례대로 써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4 이는 각하게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천사

- 5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이비야 조에 속한 사가라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시벳이었다.
- 6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 없이 잘 지켰다.
- 7 그런데 엘리시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 8 ○사가라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 9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라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 10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 11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서 있었다.
- 12 사가라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 13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시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 14 그 아들이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 15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 16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 17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 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 18 사가라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늙은 자이

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니,

- 19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 20 보아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21 ○그때에 사람들이 사가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22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므로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 말을 못하였고,

23 자신의 직무 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4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시벳이 임신하였고 다섯 달 동안 은거하여 지내며 말하기를

25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여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

-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 28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29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31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3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34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한편 어떤 사본들에는 [ ] 안의 긴 결말 대신 훨씬 짧은 결말을 포함하고 있음.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것들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간주려서 말해 주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통하여,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거룩하고 불멸하는 선포를 퍼져 나가게 하셨다. [아멘]’)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새’가 없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손으로’가 없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께서’가 없음.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멘’이 있음.



- 35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시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  
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불릴 것이다.”
- 36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  
들을 배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  
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여  
섯 달이 되었다.
- 37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 38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  
갔다.
-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 39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  
대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  
니,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 여  
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42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가 여자를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시다.”
-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  
이 어찌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그대가 문안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  
놀았습시다.
-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  
자는 복됩니다.”
- 마리아의 찬양**
-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47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  
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48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  
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9 능력 있는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51 주께서 자신의 팔로 능력을 행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  
다.  
52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  
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53 굶주린 자들을

-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54 주께서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 56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서 달쯤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세례자 요한의 출생**
- 57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  
았다.  
58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 59 아기가 태어난 지 팔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  
에게 할례를 행하려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  
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코자 하였으  
나,  
60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  
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니,  
61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62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  
려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63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 64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65 이 때문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  
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 66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  
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 사가랴의 예언**
- 67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  
셔서 구속하시고,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  
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1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72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 73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  
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 74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서  
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75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 76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  
라고 불릴 것이다. 네가 주님보다 앞서 가  
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77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 줄 것이다.
-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  
정에서 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 80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  
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  
냈다.

### 예수님의 탄생 (마 1:18-25)

- 2** 1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  
였으니,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  
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3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4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  
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5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  
을 하러 갔는데, 그때에 그 여자는 임신 중이  
었다.  
6 그들이 저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  
가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  
었기 때문이다.
-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 8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  
록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9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  
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  
워하였다.
-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  
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  
뻐할 복음을 전한다.
-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 12 너희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  
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  
이다.”
- 13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  
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들 중에 평화이다.”
- 15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  
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일이 일어  
난 것을 봅시다.” 하고,  
16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  
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17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  
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 주니,  
18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  
게 전해 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  
며 새겼다.
- 20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  
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 21 ○팔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인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 아기 예수님을 주께 드리는 부모**
- 22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 의식의 날이  
차자, 그들이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  
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23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  
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24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짐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 25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  
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 26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  
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 28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  
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 29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3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1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 것이고  
32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33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34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5 그 때에 같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36 그 때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칠년을 살다가,  
37 과부가 되어 여든네 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39 “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40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성전 선생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41 “오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42 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43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지 시작하였다.  
45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려니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46 삼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47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충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48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4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

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50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51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52 “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충애를 받으셨다.”

###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

(마 3:1-12; 막 1:1-8; 요 1:19-28)

- 3 “1 O 헤로디아스 황제가 다스린 지 십오 년 되던 해에, 본디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 안나스와 가이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3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4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 다.”  
7 “O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 주었느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9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10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11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두 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13 그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14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여라.”  
15 “O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그 마음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니,  
16 요한이 모든 이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도 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자신의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18 “O 요한이 그 밖에도 많은 것으로 백성을 권하며 복음을 전하였으니,  
19 분봉왕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20 더구나 그가 그 모든 일에 악행을 더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마 3:13-17; 막 1:9-11)

- 21 “O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계보 (마 1:1-17)**  
23 “O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삼십 세쯤 되셨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인데,  
24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맏아이고 그 위는 레위이며, 그 위는 멜기이고 그 위는 안나이며, 그 위는 요셉이고 그 위는  
25 맏다디아, 야모스, 나훔, 에셀리, 낙개,  
26 맏앗, 맏다디아, 서마인, 요엘, 요다,  
27 요아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28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29 예수, 엘리에서, 요림, 맏앗, 레위,  
30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31 멜레야, 멘나, 맏다다, 단단, 다윗,  
32 이새, 오벧, 보아스, 살라, 나손,

- 33 아마나담, 아드민,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34 아람,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훔,  
35 스록, 르우, 벨렉, 헤버, 살라,  
36 가이난, 아박삼, 셈이고, 그 위는 노아, 라멕,  
37 므두셀라, 에녹, 아뮈, 마할랄렐, 가이난,  
38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이다.”

###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마 4:1-11; 막 1:12-13)

- 4 “1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서,  
2 사십 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작하셨다.  
3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4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 라고 하셨다.”  
5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6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하니,  
8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라고 하셨다.”  
9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10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 라고 기록되어 있고,  
11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 하고 말씀하셨다. 하니,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요셉과 그 아기의 어머니’ 나) 사 40:3-5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살몬’ 나) 신 8:3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오허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다.’ 가 있음. 리) 신 6:13 미) 시 9:11 비) 시 9:12 사) 신 6:16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막 4:12-17; 막 1:14-15)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15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

(막 13:53-58; 막 6:1-6)

16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17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18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21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니,

22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하시고

24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25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삼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니,

26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타의 한 과부에게만 보탬을 받았다.

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이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28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29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벵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30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 가셨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 (막 1:21-28)**

31 ○예수께서 갈릴리의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32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33 ○그 회당에 더러운 악령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34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하였다.

3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악령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갔는데,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36 모두가 놀라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에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가.”라고 하였다.

37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소문이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갔다.

**시몬의 장모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막 8:14-17; 막 1:29-34)

38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39 예수께서 그 여자의 걸로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중들었다.

40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41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많은 이들에게서 나가면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들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막 1:35-39)**

42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43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44 유대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막 4:18-22; 막 1:16-20)

5 1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2 호숫가에 대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4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5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6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7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9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10 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신 예수님**

(막 8:1-4; 막 1:40-45)

12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시는 때에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14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러라.” 하셨더니,

15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 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평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9:1-8; 막 2:1-12)**

17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때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18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어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19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 내렸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니,

21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22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23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25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6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막 9:9-13; 막 2:13-17)**

27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28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29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30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32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금식에 관한 질문 (마 9:14-17; 막 2:18-22)**

33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36 ○예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 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떼어 낸 조각은 헌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37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38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39 묵은 것을 마신 이는 아무도 새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 라고 한다.”

###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 12:1-8; 막 2:23-28)

6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이삭들을 꺾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2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합니까?” 하니.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디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가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차려 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고.

5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 12:9-14; 막 3:1-6)

6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

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 보고 있었는데,

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그라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10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에게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11 그러자 그들은 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였다.

### 열두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

(마 10:1-4; 막 3:13-19)

12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13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였으니,

14 베드로라고도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롯 사람 유다였다.

###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

(마 4:23-25; 막 3:7-13)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18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19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 복과 화 (마 5:1-12)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21 너희 지금 주리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고 고 저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23 그 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24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25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26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 원수 사랑 (마 5:38-48; 7:12-13)

27 “그러나 네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라.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 대고,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30 네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지 마라.

31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 주라.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 주는 자들에게만 잘해 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34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빌려 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빌려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 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 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 판단에 대한 교훈 (마 7:1-5)

36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인애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인애로운 자가 되어라.”

37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되

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아니하지만 온전한 자는 누구든지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41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42 네 자신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허락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아 보게 되어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수 있을 것이다.”

### 나무와 그 열매 (마 7:17-20; 12:34-35)

43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려지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 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 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어 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 집 짓는 자의 비유 (마 7:24-27)

46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47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이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48 그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급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49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다.”

###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

(마 8:5-13; 요 4:43-54)

7 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2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었는데, 그는 그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였다.

3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가 있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도’가 있음.



- 해 달라고 그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 4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청하여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이렇게 배부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6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 7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sup>가)</sup> 낮게 하소서.
- 8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다.
- 10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종이 나온 것을 보았다.
- 나인성 과부의 이들을 살리신 예수님**
- 11 ○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 12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읍의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 13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 14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므로,
- 15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 16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 17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대와 그 모든 주

변 지역에 퍼져 나갔다.

#### 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자들 (마 11:2-19)

- 18 ○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 19 주께 보내어 묻게 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 20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쭙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 21 그 무렵에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 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 주셨으므로,
-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앉은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 23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 24 ○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25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 26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 27 이것이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sup>나)</sup>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 29 ○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워시키고 하였으나,
- 30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 31 ○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

느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 32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sup>나)</sup> ‘에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 33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악령이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 34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탐식가고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니,
- 35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
-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
- 36 ○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 37 마침 그 마을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 38 그 여자가 그분의 등 뒤쪽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발랐다.
- 39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곧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다.’라고 하니,
- 4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시므로 그가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41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 42 그런데 그들이 값을 수가 없었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 43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 44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 47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 48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시니,
- 49 함께 식사하던 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데 죄도 용서해 주는가?” 하였으나,
- 5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셨다.

#### 예수님을 따르며 심긴 여자들

- 8 1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열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 2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일곱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 3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들로 “그들을 섬겼다.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13:1-9; 막 4:1-9)**
- 4 ○ 큰 무리가 모여들고 각 성읍에서 온 자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 5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밭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 6 또 다른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니, 썩어 닳아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 7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다.
- 8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썩어 나사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셨다.
- 비유의 목적 (마 13:10-17; 막 4:10-12)**
- 9 ○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으니,
-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말한다. 이는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 것입니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병든 종이’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많은 제자들’ 라) 말 3:1 참조, 출 23:20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세례자’가 있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를 위하여’가 있음 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라) 사 6:9

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  
(마 13:18-23; 막 4:13-20)

11 ○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13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14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15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등잔대 위의 등불 비유 (막 4:21-25)**

16 ○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 놓아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17 숨겨진 것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18 ○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 하여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마 12:46-50; 막 3:31-35)

19 ○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다.

20 누군가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니,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마 8:23-27; 막 4:35-41)

22 ○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23 그들이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었다.

24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25 ○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 라고 하였다.

**거라사의 악령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 8:28-34; 막 5:1-20)

26 ○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다다랐다.

27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에 그 성읍에 사는 악령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다.

28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였으니,

29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들을 끊고 악령에게 물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30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니,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31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지개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32 마침 그곳 산에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그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33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 떼가 비탈길을 따라 호수 속으로 내리달아 빠져 죽었다.

34 ○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농촌들에 전하니,

35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 예수께 와서, 악령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6 그 악령 들렸던 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본 자들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니,

37 "거라사 지방의 모든 군중이 큰 두려움에 사

로잡혀, 예수께 자신들을 떠나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다.

38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39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전하여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읍에 선포하였다.

**아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웃을 만진 여자**  
(마 9:18-26; 막 5:21-43)

40 ○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41 그런데 마침 아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니,

42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시는 중에 무리들이 그분께 밀려들었다.

43 그 중에 십이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써 버렸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44 그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 여자의 출혈이 즉시 멈추었다.

45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므로 모두가 부인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46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니,

47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다.

49 ○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파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소서." 라고 하였다.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딸이 '나'를 것이다."

51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

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자신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52 모든 이들이 울면서 그 소녀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53 그들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을 비웃었다.

54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크게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분부하시므로,

56 그 소녀의 부모가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열두 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신 예수님**  
(마 10:5-15; 막 6:7-13)

9 1 ○ 예수께서 "열두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하셨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칙은 가지지 마라.'

4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거서 떠나라.

5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6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격정하는 헤롯 (마 14:1-12; 막 6:14-29)**

7 ○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몹시 당황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 부터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8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의 하나가 일어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다.

9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다.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마 14:13-21; 막 6:30-44; 요 6:1-14)

10 ○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 있음. 라) 또는 '구원 받을' 미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열두 사도들'은' 비)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두 벌'은'



- 예수께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뱃새다라고 하는 마을로 따로 물러가셨다.
- 11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 주셨다.
-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사도가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주변 마을들과 촌에 가서 묵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니,
- 1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이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겐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였다.
- 14 거기에는 남자만 해도 오천 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대략 오십 명씩 무리 지어 앉게 하여라.”
- 15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든 이들을 앉게 하였다.
- 16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기도하신 후에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니,
- 17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열두 바구니나 모았다.
- 베드로의 신앙고백 (마 16:13-19; 막 8:27-29)
- 18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 19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의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 22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세 삼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셨다.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 (마 16:20-28; 막 8:30-9:1)
- 23 ○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랑한’

-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 24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 27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 변모하신 예수님 (마 17:1-8; 막 9:2-8)
- 28 ○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팔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 29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양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 30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31 그들은 영광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 32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던 자를 보았다.
- 33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 34 그가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35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백함 받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였다.
- 36 그 소리가 낡을 때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 때에는 잠잠하여 아무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악령 들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 (마 17:14-18; 막 9:14-27)
- 37 ○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 38 그런데 마침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을

- 좀 보소서, 그는 제 외아들입니다.
- 39 보소서,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팔작을 일으키고 그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않으며 그를 상하게 합니다.
- 40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시니,
- 42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므로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낮게 하셔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 43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 자신의 죽음을 다시 예고하신 예수님 (마 17:22-23; 막 9:30-32)
-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모두들 경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 44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니,
- 45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 가장 큰 자 (마 18:1-5; 막 9:33-37)
- 46 ○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가운데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 47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일어난 논쟁을 ”이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곁에 세우시며,
- 48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 너희를 위하는 자 (막 9:38-40)
- 49 ○ 요한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 5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보시고’    나) 원문에는 ‘당산의’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엘리아도 했던 것처럼’ 이 있음.    라) 원문에는 ‘손을 쟁기에 두고’

###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마을

- 51 ○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 52 사자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태워 버리기 원하십니까?” 하니,
- 55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 56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마 8:19-22)

- 57 ○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 5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 59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 6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셨다.
- 61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 6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하셨다.

### 칠십이 명을 보내신 예수님

- 10 1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칠십(이) 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하여라.
- 3 자, 떠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 4 천대도, 자루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을

- 됩니다.' 라고 말하여라.
- 6 거기에 화평의 아들이 있다면 너희의 화평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 7 너희는 같은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 8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들을 먹어라.
- 9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여라.
- 10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 11 '너희 성읍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여라.
-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가버나움(마 11:20-24)**
- 13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진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벌써 배움을 입고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14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5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하네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칠십이 명**
- 17 ○칠십이(이) 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니,
-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 19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 20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 기뻐하시는 예수님(마 11:25-27: 13:16-17)**
-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

가) '음부' L)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으로'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가 있음. R)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 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시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 23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다.
-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 25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 2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 27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 2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 29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셨다.
- 30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 버렸다.
- 31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니,
- 33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 34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피 주었다.
- 35 그 다음날 그가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피 주십시오. 당신이 더 큰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36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 37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 마르다와 마리아**
- 38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을 "영접하였다.
- 39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으므로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니,
- 41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 이렇게 기도하라(마 6:9-15; 7:7-11)**
- 11 1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 2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sup>가)</sup>
- 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sup>나)</sup>
-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한 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세 덩어리만 꾸어 주게.
-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기 집으로' 가 있음. L) 원문에는 '그 여자'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R)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 있음. M) 또는 '내일', '생존을 위한' B) 또는 '빛' S)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하소서' 가 있음. O)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열린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둘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R) 원문에는 '손가락으로'

- 놓을 것이 없네.' 하면
- 7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 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라고 말하겠느냐?
-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10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 11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 12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 예수님과 바알세불

(마 10:32-34; 12:22-30; 막 3:20-27)

- 14 ○예수께서 한 병어리 악령을 쫓아내셨는데, 악령이 나가고 병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랐다.
- 15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 라고 하였다.
- 16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요구하였다.
- 17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 18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 20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 21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22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23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홀어 버리는 자이다."

**되돌아온 더러운 영(마 12:43-45)**

24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설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25 그가 와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26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 참된 복

27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28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요나의 표적(마 12:38-42; 막 8:12)**

29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몸의 동물(마 5:15; 6:22-23)**

33 ○"아무도 등불을 켜서 밀실이나 통 밑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한다.  
34 ○내 눈은 몸의 동물이니, 네 눈이 좋으면 네 온몸도 밝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면 네 온몸도 어둡다.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36 네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불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마 23:1-36; 막 12:38-40; 눅 20:45-47)

37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여 예수께서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더니,  
38 식사 전에 먼저 손 씻지 않으시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으므로,  
39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착취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40 어리석은 자들이야,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41 그러나 속에 있는 것들로 자신을 베풀어라. 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42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박화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43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44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갈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알지 못한다.  
45 ○율법학자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니,  
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으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힘든 짐들을 지우면서도, 너희 자신들은 그 짐들에 너희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기 때문이다.  
47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48 너희가 증인이 되어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 가운데 밟밋을 죽이고 또한 박해할 것이다.'  
50 세상의 창조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니,  
51 이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시가랴의 피까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가로막았다."  
53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대적하여 여러 가지를 따져 묻기를 시작하였고,  
54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 노리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심**

12 1 그 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물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2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3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드러날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마 10:28-31)**

4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어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5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 줄 것이니, 죽은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시리온에 팔리지 않는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7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마 10:32-33; 12:32; 10:19-20)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

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12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13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하니,  
1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본배인으로 세웠느냐?"  
15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 하셨다.  
16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17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18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곳간들을 헐어 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19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걱정하지 마라(마 6:25-34, 19-21)**

2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24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는 창고도 없고 곳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한가?  
25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일 수 있느냐?  
26 이처럼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면 왜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냐?  
27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버어 있고'가 있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통 밑에'가 없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의 무덤들'이 없음.

가) 헬 '게헨나' 나) 로마 동전의 명칭(4코드란테스, 16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함) 다) 원문에는 '용서 받을 것이니,' 리) 원문에는 '그들이' 미) 또는 '수명'을 비) 1규빗은 약 45센티미터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웃감도 짜지 않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들 중 하나만큼 화려하지 못하였다.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신하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신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29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마라.

30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1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2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33 ○너희 소유들을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하늘에 있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하지 못하고 썩도 먹지 못한다.

34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 깨어 있는 종 (마 24:42-51)

35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36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 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여라.

37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시종들 것이다.

38 그가 "제이경에나 제삼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39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자기 집이 풀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42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세울 신실하

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43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랄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47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48 알지 못하고 때맞을 것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 화평이 아니라 분열 (마 10:34-36)

49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50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51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 한 집에서 다섯 식구가 갈라져서, 셋이 둘에 대항하고 둘이 셋에 대항할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 대항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항하여 갈라지고, 어머니가 딸에 대항하고 딸이 어머니에 대항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항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항하여 갈라질 것이다."

#### 때를 분별할 것을 요청하심 (마 16:2-3)

54 ○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소나기가 오겠구나.'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

55 또 남풍이 불 때에는 '무척 덥겠구나.'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

56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 고소하는 자와 화해를 요청하심 (마 5:25-26)

57 ○"왜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58 네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행정관에게 갈 때에 너는 길에서 그와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

고 가서, 그 재판관이 너를 교도관에게 넘겨 주고, 그 교도관이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59 내가 네게 말하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회개하지 않으면

13 1 바로 그 때에 몇몇이 예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고 하니,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과 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열여덟 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

6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7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삼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8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 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하였다."

####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게,

11 마침 열여덟 해 동안 병마에 눌려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12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야, 네가 네 병에서 풀려났다고 하시오."

13 예수께서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개하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해야 하는 날들이 육일이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하니,

15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귀를 외양간에 붙여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 보아라, 열여덟 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하지 않겠느냐?"

17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니, 그분을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마 13:31-33; 막 4:30-32)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며,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까?"

19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이 가지들에 깃들었다.'

20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21 그것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속에 감추어 넣었더니, 온통 부풀었다."

#### 종은 문(마 7:13-14; 21-23)

22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가르치시면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지나가셨다.

23 ○그러면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말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면,

27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야,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할 것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나) 로마식 밤 시간 구분으로 제 이 경은 밤 9-12시에 해당함. 다) 로마식 밤 시간 구분으로, 제 삼경은 밤 12-3시에 해당함.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깨어'가 있음.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가) 헬 '렘돈'(렘돈은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나) 원문에는 '올해에도'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큰 나무' 리) 헬 '사론'(사론은 약 13리터)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가 있음.



- 이다.
- 2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밤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에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 29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앉을 것이다.
- 30 보아라, 으뜸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자들도 있다.”

#### 예루살렘에 대하여 탄식하신 예수님

(마 23:37-39)

- 31 ○바로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말하기를 “나가서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
-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여라. 골라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 삼일에는 내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 33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길을 가야 할 것이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 35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 14 1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집에 빵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 보고 있었다.
- 2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 3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나?” 하셨으니,
- 4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시며,
- 5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렁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 초대받고 초대할 때

- 7 ○예수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라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 8 “네가 어떤 이에게서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자가 그에게 초대받았을 경우에
- 9 너와 그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네게 ‘이분께 자리를 내드리시오.’ 라고 말하면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하며 말석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 10 차라리 네가 초대받았을 때에 말석에 가서 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네게 와서 ‘친구여, 더 높이 올라가시오.’ 라고 말할 것이니, 그때에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이들 앞에서 네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 11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 12 ○또 예수께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네게 되갚지 않도록 하라.
-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하여라.
- 14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 15 함께 식사를 하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예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하였다.
- 16 강권하여 집을 채울 것을 요구함 (마 22:1-10)
- 1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 17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였으니,
- 18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 19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다섯 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였으며,
- 20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 라고 하였다.
- 21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였고,
- 22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므로,
- 23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 제자가 되는 대가 (마 10:37-38)

- 25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 26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몸속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7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8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 29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 30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 31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 32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전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34 ○“소금은 좋은 것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 맛을 잃은 소금 (마 5:13; 막 9:50)

#### 잃은 양의 비유 (마 18:12-14)

- 15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 2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라고 하였다.
-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4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 5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 6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말할 것이다.
- 7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 8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 9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말할 것이다.
- 10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 잃은 아들의 비유

- 1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 12 그들 중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13 며칠이 못 되어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 14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 15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가) 또는 ‘완전히 이를 것이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다) 시 118:26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귀’ 또는 ‘양’

가)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 17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 18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 19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 20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 21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 22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거기 시작하였다.
- 25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 26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묻자.
- 27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 28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랐다.
- 29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 30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 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 31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다.'
- 32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 16 <sup>1</su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 2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니,
- 3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 4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에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 5 그리하여 그가 자기 주인의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리고 그 첫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 6 그가 '기름 백' <sup>㉠</sup> '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문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였고,
- 7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밀 백' <sup>㉡</sup> '십입니다.' 하므로 그 청지기가 그에게 '당신의 문서를 가지고 팔십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 8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가 슬기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 10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 11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가 한

가) 원문에는 '하늘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가 있음. 다) 헬. '바투스'(100 바투스는 약 3킬로리터) 라) 헬. '코루스'(100 코루스는 약 40킬로리터)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율법과 하나님 나라 (마 11:12-13)

- 14 ○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비웃으니,
-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험오스러운 것이다.
- 16 ○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다.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한다.
- 17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 18 ○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 부자와 나사로

- 19 ○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 20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 투성이인 채로 누워서,
- 21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 22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 23 그 부자가 "하테스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 24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 저를 공중으로 올려 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 25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네가 살았을 때에 너는 네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 26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 27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의 집에 보내 주십시오.'
- 28 제게 다섯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 30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저,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 용서에 대한 가르침 (마 18:6-7, 21-22; 막 9:42)

- 17 <sup>1</sup>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up>㉠</sup>」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 2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맺고 돌을 대달고 바다 속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 4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 거저씨만한 믿음 (마 17:20; 21:21)

- 5 ○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 6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저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카모어나무에게 "뽕혀서 바다에 싣기어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 증의 도리
- 7 ○ "너희 가운데 누가 발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어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 8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 9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사례하겠느냐? <sup>㉡</sup>

가) 헬. '맘모나스'(돈이나 부를 뜻하는 아람어(맘몬)) 나) '음부' 다) 또는 '죄짓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있음.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14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15 그들은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16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19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하나님 나라의 오심 (마 24:23-28, 37-41)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21 또한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지 못 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22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갈망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다.

23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24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한다.

26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이다.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홍수

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28 롯의 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교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31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마창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33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36<sup>가)</sup>

37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18<sup>1</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2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3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줄곧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였으나,

4 그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5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 다."

6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 보아라.

7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9 ○또 예수께서 자신들에 대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멸시하는 어떤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11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 하였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12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13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마 19:13-15; 막 10:13-16)

15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만져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이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16 예수께서 그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1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 19:16-30; 막 10:17-31)

18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하니,

1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택하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행자가 없다.

20 네가 계명들을 알고 있으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21 그가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지켜 왔습니다." 하니,

22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너에게 하나가 부족하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3 그가 이것들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으니, 그는 아주 부유했기 때문이다."

24 ○예수께서 "큰 슬픔에 빠진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매우 어려우니,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26 듣고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2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30 이 세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sup>디</sup>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언하신 예수님 (마 20:17-19; 막 10:32-34)

31 ○예수께서 열둘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전지자들을 통해 인자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32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 뱉을 당할 것이다.

33 그들이 그를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나, 그가 제 삼일에 부활할 것이다."

34 그들은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 맹인 거지를 고치신 예수님

(마 20:29-34; 막 10:46-52)

35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36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37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 주었으므로,

38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기 날에'가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구원하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36절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가 있음.

가) 출 20:12-16; 신 5:16-20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큰 슬픔에 빠진'이 없음. 다) 또는 '세상에서'

- 저를 공화히 여기소서.” 하니,  
 39 앞서 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공화히 여기소서.”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다.  
 41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4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43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 19 1 예수께서 여기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2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3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카모어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예수께서 막 그곳으로 지나가시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5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올라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6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7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때문이다.”  
 10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11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열 므나의 비유 (마 25:14-30)

- 1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13 자기 종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므나’를 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절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5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16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습니다.’ 하니,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네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18 둘째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겼습니다.’ 하니,  
 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다섯 성읍들을 차지하여라.’  
 20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므나’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전에 써서 보관하였는데,  
 21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말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22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느냐?’  
 23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24 주인이 결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다가 열 ‘므나’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니,  
 25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그는 열 ‘므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자 모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마 21:1-11; 막 11:1-11; 요 12:12-19)  
 28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앞서 걸으시

- 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9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벳다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30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1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푸느냐?’ 라고 물으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하여라.”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발견하고,  
 33 새끼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새끼 나귀를 푸느냐?’ 하니,  
 34 그들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5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걸음을 새끼 나귀 위에 얹어 놓고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걸음을 길에 펼쳐 놓았다.  
 37 예수께서 이미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들이 본 모든 기적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38 말하기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라 하니,  
 39 무리 가운데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하셨다.  
 41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42 말씀하셨다. ‘너도 이 날에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네 눈에 감춰져 있구나.’  
 43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

(마 21:12-17; 막 11:15-19; 요 2:13-22)

- 45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48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으니, 백성이 모두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 권세를 도전받는 예수님

(마 21:23-37; 막 11:27-33)

- 20 1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다가와서,  
 2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세를 당신에게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하니,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서 온 것이냐?’  
 5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6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서다.’ 라고 말하면, 백성이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7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8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

###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 21:33-46; 막 12:1-12)

- 9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10 때가 되자, 주인이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에서 얼마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였으니,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린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1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이 그



- 종도 때리고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12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 13 포도원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그는 존경할 것이다.'
-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자.' 하고,
- 15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 16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백성이 듣고서 "형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 1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 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나?
-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스러질 것이며, 또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을 것이다."
- 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자신들에 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즉시 그분께 손을 대어 잡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마 22:15-22; 막 12:13-17)
- 20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 보다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분의 말씀을 책잡도록 하여 예수님을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넘기려고 하였다.
- 21 그들이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 22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 23 예수께서 그들의 제약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것에 누구의 초상과 글이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 드려라."
- 26 그러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답변에 놀라서 잠잠하였다.
-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  
(마 22:23-33; 막 12:18-27)
-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어
- 28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까.
- 29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 30 둘째와 또 셋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고,
- 31 일곱이 다 그와 같이 하였으나,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 32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 33 그 일곱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 35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 36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 37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모세도 가시뎀불 이야기에서 보여 주었는데,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 38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 39 ○그러자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 40 그들이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아무것도 질문하지 못하였다.
- 다윗의 자손에 관한 질문**  
(마 22:41-46; 막 12:35-37)
-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 42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 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 43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이라.'라고 하였다.
- 44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마 23:1-36; 막 12:38-40; 눅 11:37-54)
- 45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46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고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 47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과부의 헌금 (막 12:41-44)**
- 21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두 '렘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 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 4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함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 성전 파괴가 예언됨 (마 24:1-2; 막 13:1-2)**
- 5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민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6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겠다."
- 징조들과 박해 (마 24:3-14; 막 13:3-13)**
- 7 ○그들이 예수께 여쭙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 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 9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에

-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 10 ○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 11 또한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 12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 13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 15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 16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 17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 18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  
(마 24:15-21; 막 13:14-19)
-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 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자 마라.
-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 23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4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 구름타고 오실 인자**  
(마 24:29-31; 막 13:24-27)
- 25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

가) 시 118:22 나) 또는 '얼굴을' 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라) 창 38:8 신 25:5 마) 원문에는 '여인', '아내' 바) 원문에는 '씨를 세워 주어야 한다.' 사) 출 36

가) 시 110:1 나)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가 있음 라) 원문에는 '무너지지 않은 채로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 있지 않을'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얻을 것이다.'

졌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26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28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 24:32-35; 막 13:28-31)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30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32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3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깨어 있을 것에 대한 교훈

34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 날이 너희에게 뿔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35 그 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36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37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나가서 지내셨다.

38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계시는 그분께 나아왔다.

####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종교 지도자들

(마 26:1-5, 14-16; 막 14:1-2, 10-11; 요 11:45-53)

22 1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법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3 ○그때에 가롯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였는데,

4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법을 의논하니,

5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기로 약속하므로,

6 그가 약속하였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 유월절 준비

(마 26:17-25; 막 14:12-21; 요 13:21-30)

7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자,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하시니,

9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1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11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12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거기에서 준비하여라."

13 그들이 나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고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

(마 26:26-30; 막 14:22-26; 고전 11:23-35)

14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17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18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19 또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20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21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22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23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지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 더 큰 자에 대한 가르침

24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니,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도록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27 식탁에 앉아 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28 ○너희는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29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

(마 26:31-35; 막 14:27-31; 요 13:36-38)

31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니,

32 나는 네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아서게 될 때 네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33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할 것이다."

#### 무법자로 취급받으실 예수님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겹이 없는 자는 자기 겹옷을 팔아서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sup>ㄴ</sup> '그는 무법자들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게 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38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소서, 여기에 겹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 26:36-46; 막 14:32-42)

39 ○예수께서 나가서서 슬관을 따라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40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41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땅을 만만 거러로 물려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지소서."

43 <sup>ㄴ</sup>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게 해 드렸다.'

44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46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 불잡하신 예수님

(마 26:47-56; 막 14:43-50; 요 18:3-11)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한 무리가 왔다. 또한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하시니,

49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되어 가는 상황을 보고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겹으로 칠까요?" 하고,

50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다.

51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그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다.'가 있음. ㄴ) 사 53:12 ㄷ)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3-44절이 없음.



- 를 낮게 하셨다.  
 52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겁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이다.”

####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마 26:57-58, 69-75; 막 14:53-54, 66-72; 요 18:12-18, 25-27)

- 54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갔다.  
 55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 놓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56 그런데 불빛을 향해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여종이 그에게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니,  
 57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58 조금 후에 다른 이가 그를 보고 말하기를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요.”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아니오.” 라고 하였다.  
 59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이가 확신하며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오.” 라고 하였다.  
 60 베드로가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면서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었다.  
 61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62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 조롱당하신 예수님(마 26:67-68; 막 14:65)

- 63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64 그분의 눈을 가리고 질문하여 말하기를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 보아라.” 하고,  
 65 다른 많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마 26:59-66; 막 14:55-64; 요 18:19-24)

- 66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 67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68 또 내가 물어 보아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70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이다.” 라고 하시자,  
 71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라고 하였다.

####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마 27:1-2, 11-14; 막 15:1-5; 요 18:28-38)

- 23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니,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니,  
 5 그들은 더욱 강경하게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고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 6 ○빌라도가 듣고서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고,  
 7 그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8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으니,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 왔으므로 오래 전부터 그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9 그가 여러 말로 예수께 질문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곁에 서서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하였다.

- 11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2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그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마 27:15-26; 막 15:6-15; 요 18:39-19:16)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 대해 고소한 죄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보아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으니,  
 16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 주겠다.”

- 17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없애고 우리에게 바리새를 놓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19 그는 그 성읍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였다.  
 20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21 그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였다.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죄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 주겠다.” 하니,  
 23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큰 소리로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였는데,  
 “그들의 소리가 우세하였다.”  
 24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하고,  
 25 그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님

(마 27:32-44; 막 15:21-32; 요 19:17-27)

- 26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중에 시골에서 오는 길이던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에

서 따라가게 하였다.

- 27 ○백성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그분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따라가니,  
 28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29 보아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과 해산하지 않은 배와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날들이 올 것이다.  
 30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고 말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31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32 ○다른 두 죄수들도 처형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33 ○그들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34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셨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었다.  
 35 ○백성은 바라보며 서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였다.  
 36 군인들도 조롱하며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께 “신 포도주를 가져다 주며  
 37 말하기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였다.”  
 38 예수님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죄패가 있었다.  
 39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으나,  
 40 다른 이가 그를 꾸짖으며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도, 풀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 시 110:1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7절 ‘명절에 그는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 주어야 했다.’이 있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과 대제사장들의’ 다) 호 10:8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마) 또는 ‘식초’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쓴’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 42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숨을 거두신 예수님

(마 27:45-56; 막 15:33-41; 요 19:28-30)

- 44 “<sup>가</sup>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에 업습하여 <sup>나</sup>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sup>나</sup>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47 ○ 그 일어난 일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하였다.  
48 또 이 광경을 보려고 함께 모인 모든 무리들도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49 ○ 예수님을 아는 모든 이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았다.

####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마 27:57-61; 막 15:42-47; 요 19:38-42)

- 50 ○ 그런데 마침 공회 의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51 이 사람은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유대인의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53 그 시신을 내려서 삼베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였으니,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다.  
54 그 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거의 시작되고 있었다.  
55 ○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도 뒤 따라와서 무덤을 살펴보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가를 지켜 보았다.  
56 그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 부활하신 예수님

(마 28:1-10; 막 16:1-8; 요 20:1-10)

- 24 1 ○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3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4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서 있었다.  
5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7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8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9 ○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11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문을 곁에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베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신 예수님

(막 16:12-13)

- 13 ○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육십 <sup>나</sup> 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16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이나?” 하시니,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추어 섰다.

- 18 그중 하나인 클로바라고 하는 이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슨 일이나?”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1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삼일이 지났습니다.  
22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23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25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27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서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28 ○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하였으므로,  
29 그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32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

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 33 ○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35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 제자들에게 나타났신 예수님

(마 28:16-20; 막 16:14-18; 요 20:19-23; 행 1:6-8)

- 36 ○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40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으나,  
41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므로,  
42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셨다.  
45 ○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 삼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47 또 그분의 이름으로 <sup>나</sup>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가) 원문에는 ‘제육시’ 나) 원문에는 ‘제구시’ 다) 시 31:5 라) 1 스타디온은 약 185미터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안에서’가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가 있음.

다) 다른 사본들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밥집을’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회개와 죄 용서’가



48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49 <sup>ㄱ</sup>“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승천하신 예수님 (막 16:19-20; 행 1:9-11)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서

서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51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sup>ㄴ</sup>하늘로 올려지셨다.  
52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3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sup>ㄷ</sup>

## 요한복음

### 육신이 되신 말씀

- 1 1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sup>ㄴ</sup>창조되었으며, <sup>ㄴ</sup>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sup>ㄴ</sup>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sup>ㄴ</sup>깨닫지 못하였다.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2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17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18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sup>ㄴ</sup>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요한

(막 3:1-12; 막 1:2-8; 눅 3:15-17)

-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20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21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22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sup>ㄴ</sup>‘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24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25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27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도 없다.”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어린양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 분이시다.  
31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32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보아라.’가 없음.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로 올려지셨다.’가 없음. ㄷ)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멘’이 있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34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35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둘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37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님(랍비는 선생님이로 번역된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십시쯤이었다.

40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41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를 만났다." 하고

42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라고 부를 것이다."

####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벳새다 사람이었다.

45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

46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였다.

47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시니,

48 나다니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므로

49 나다니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므로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51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2 1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2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3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5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6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한아레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9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리

10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놓았다." 라고 하였다.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12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였다.

#### 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

(마 21:12-13; 막 11:15-17; 눅 19:45-46)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4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엮으시고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17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18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 주겠는가?" 하므로,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삼일 만에 세울 것이다."

20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삼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다.

21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믿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25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 위로부터 태어남

3 1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7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아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9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2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택하신 분' 나) '로마시간' 다) 다른 고대 사본에는 '요나' 라)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 마) '바위'라는 뜻의 헬라어 '페트라'의 남성형 이름 바) 원문에는 '도시' 사) 헬. '메테레테스' (메테레테스는 약 40리터)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신의 제자들'이 없음. 나) 시 69:9 다) 또는 '거듭 나지 않으면' 라) 원문에는 '영'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 바) 다른 고대 사본에는 '멸망하지 않고'가 있음.



- 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 17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18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19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 20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들
- 22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 24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25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 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 27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 28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 29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분하다.
- 30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 31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 32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 4 1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아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 2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 3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 4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으므로,
- 5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 성읍은 아람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 6 거기에 아람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오후”시쯤이었다.
-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다.
- 8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 9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시니,
- 11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데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 12 당신이 저희 조상 아람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아람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도 이곳에

- 서 마셨습니까.”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겪이나,
-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니,
- 15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 17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 18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게 말하였다.”
- 19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가,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본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 24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 25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야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니,
- 2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 27 ○이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라고 묻지 않았다.
- 28 그때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 29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라고 하므로,
-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왔다.
-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하여 말하기를 “랍비님, 잡수소서.”라고 하니,
-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 33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라고 하므로,
-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 35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 36 추수하는 자가 풀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니,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 37 이처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는 말이 옳다.
- 38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 39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 40 그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요청하므로 예수께서 거기에 이들을 머무셨다.
- 41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마 8:5-13; 눅 7:1-10)
- 43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 44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 45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멸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멸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

- 이다.
-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 47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 49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 5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 51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 52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나은 때를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제 ‘칠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니다.”
- 53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 못 가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 5 1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 2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었다.
- 3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 4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 5 그런데 거기에 삼십팔 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 6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
- 7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 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 그 날은 안식일이였다.
- 10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 11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2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니,
- 13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시니,
-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 16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 17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다.
- 18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 아들의 권세

-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 대로 하기 때문이다.
-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 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 주셔서 너희를 놀라

- 게 하실 것이다.
-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 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 23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 25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 26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 27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 28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 29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 예수님에 대한 증언

- 31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한다.
- 32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
- 34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 35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 36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

- 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 37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 38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 39 너희가 성령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령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 40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
- 42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는 영접할 것이다.
-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이다.
-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 6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 2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 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 4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 6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아들’ 또는 ‘당신의 아이’ 나) 로마시간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드자다’, 또는 ‘베다시아다’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 없음.



- 이었다.
- 7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이백<sup>가</sup> 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8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 9 “여기 한 아이가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오천 명이었다.
- 11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 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 13 제자들이 보리 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 14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라고 하였다.
- 15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마 14:22-27; 막 6:45-52)**
-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 18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 19 그들이 노를 저어<sup>가</sup> 십오 리 남짓 갔을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시니,
- 21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모셔 들었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 보았다.
- 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 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 25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랍비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였다.
-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 치셨기 때문이다.”
- 28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 30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랍비님을 믿을 수 있도록 랍비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 31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 라고 기록된 것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 32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 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 34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

- 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 38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 39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 40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 41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 42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 4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들이요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 45 선지자들의 글에<sup>가</sup>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 46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 47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 48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니,
- 50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 51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 52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므로,
-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 57 살이게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 59 ○이것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 영생의 말씀**
- 60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 61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 62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 63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이다.
-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65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셨다.
- 66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 67 그러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시니,
-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 69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 7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라고 하셨는데,
- 71 예수께서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

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나) 원문에는 ‘남자들’ 다) 원문에는 ‘바다가’ 리) 원문에는 ‘이십오 내지 삼십 스타디온쯤’(1스타디온은 약 185미터) 모) 시 78:24; 창조, 출 16:4, 15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이 있음.

가) 원문에는 ‘것’ 나) 사 54:13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기’가 없음. 리) 원문에는 ‘들’을 수 있겠는가? 모)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믿는 자들이 누구이고’ 바) 다른 고대사본들에는 ‘살이게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 있음.

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다.

### 초막절의 예수님

- 7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 2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 3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 4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무엇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 5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 7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 9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님

- 10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 11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려 하니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 12 무리를 가운데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으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요.”라고 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아니오, 그는 무리를 미혹하고 있소.”라고 말하였다.
- 13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 14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 15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문을 아느냐?” 하니,
-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 17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 20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악행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요?” 하니,
-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다.
- 22 이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다.
- 23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써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 25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 26 보아라, 그가 드러내 놓고 말하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관리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 28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 29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 30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으니,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
- 31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라고 하였다.

### 예수님을 잡으려한 종교 지도자들

- 32 ○무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내니,
- 3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 34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 35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가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 36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였다.

### 생수의 강

- 37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 39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 무리 가운데 일어난 분열

- 40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고,
- 41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다.”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은가?”
- 42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여,
- 43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 44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 45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니,
- 46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47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 48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 49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였다.
-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 51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
- 52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더이상 죄를 짓지 마라고 명하신 예수님

- 53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 8 1 예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 4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5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였으니,
- 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 7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 8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 9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있었다.
- 10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게로’가 없음. ㄴ) 다른 고대 사본에는 ‘믿는’ ㄷ) 원문에는 ‘영’ ㄹ) 삼하 7:12 시 89:3-4 ㅁ) 미 5:2 ㅂ)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이 있음. ㅅ) 참조, 신 1:16 ㅅ)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의 내용이 없음. ㅈ) 레 20:10; 신 22:22



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11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  
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  
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12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13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  
은 참되지 못하오.”라고 했다.

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15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6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옳으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  
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18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19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  
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  
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  
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20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에 현금함 결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너희는 올 수 없는 내가 가는 곳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시므로,

22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  
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23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  
지 않았다.

24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  
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임  
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  
을 것이다.”

25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요?”라고 하였  
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26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므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27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관하여 그들  
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28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  
자가 들리어 올릴 때에야 내가 그분인 것을 너  
희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  
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  
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  
기 때문이다.”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0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므로 많은 이  
들이 그분을 믿었다.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  
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로

32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33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  
고 말합니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  
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35 좋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  
원히 거한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  
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 너희 아버지는 마귀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  
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  
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38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  
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39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  
지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  
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40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  
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  
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  
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지요.”라고 하니,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  
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  
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43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  
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44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버  
지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  
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45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  
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  
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47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  
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  
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  
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  
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4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  
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  
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5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  
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52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악령이 들린 것을 알았소. 아  
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  
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니,

53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  
하다는 말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  
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요?”라고 물

으니,  
5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  
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니, 너  
희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지요.’라고 말하  
는 그분이지다.

55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  
다.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  
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  
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  
다.

56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겨  
위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57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오  
십 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하니,

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  
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  
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59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 내가 세상의 빛이다

9 1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2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  
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  
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  
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4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  
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6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  
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  
고,

7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라.” 하시니(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  
아왔다.

8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절인이  
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앞  
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9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가 있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여라.’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브라함이 당  
신을 보았다는 말이요?’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나를’ 또는 ‘우리가...우리를’

- 이오.”라고 말하였다.
- 10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눈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 11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 12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 보게 된 맹인을 내쫓은 바리새인들

- 13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 14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였다.
-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16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므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 17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네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어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였다.
- 18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보게 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 19 그들에게 물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 21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 23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 24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 25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 26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
- 27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으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 28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 2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 31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 32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까?”
- 33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 34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 우리로 맹인이란 말이요?

- 35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 36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 38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 39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 40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라고 하니,
-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 목자와 양의 비유

- 10 <sup>1</sup>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다.
- 3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 낸다.
- 4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목자이다.
- 8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 9 내가 곧 목자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 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 서 풀을 얻을 것이다.
- 10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 11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
- 12 삳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 버린다.
- 13 이는 그가 삳꾼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 없기 때문이다.
- 14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 15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
- 16 나에게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 놓기 때문이다.
- 18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 19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 20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악령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 21 또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 말은 악령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 악령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22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 23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 24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니,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 26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나를 따른다.
-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 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께 절하였다가 있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가 없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보다 먼저’가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준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준다.’ 라) 원문에는 ‘것들을’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빼앗지 못하였으니,’ 바) 다른 고대 사본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가 있음.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보다 더 크다.’



- 빼앗을 수 없다.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31**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다시 돌을 드니,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오. 이는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이오.” 하니,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으며,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으니,  
**36**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여쭙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라고 하느냐?  
**37**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38**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39**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손을 벗어나 나가셨다.  
**40**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시니,  
**41**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 라고 하였다.  
**42**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11** 1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2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3 그러므로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

- 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5**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6**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라고 하셨다.  
**8**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10**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11**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하시니,  
**12**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낮깍습니다.’”  
**13**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14**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15**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 디두모라고 하는 도미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17**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십오 <sup>리</sup> 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19**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 것입니다.  
**22**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23**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24**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25**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28**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32**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33**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34**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였다.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36**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37**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뺨의 눈물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 말이나?” 라고 하였다.
-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38**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39**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

- 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뽕새가 납니다.” 하니,  
**4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2**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므로,  
**44**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  
 (마 26:1-5; 막 14:1-2; 눅 22:1-2)  
**45**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46**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47**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8**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49** 그들 중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이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하였는데,  
**51**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52** 그 민족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53** 그들은 그 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 55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56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였다.
- 5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 두었다.

###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마 26:6-13; 막 14:3-9)

- 12 유월절 육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 2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의 시중을 듣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 3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 4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 5 “왜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 7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할 것이다.
- 8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 9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 10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 11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마 21:1-11; 막 11:1-11; 눅 19:28-40)

- 12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 13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 14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네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 16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 17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 18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 19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라고 하였다.

### 밀알 교훈

-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뵈고자 합니다.” 하니,

- 22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로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 인자의 들림

-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아버지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

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 28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하니,

-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 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 33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 34 ○그러자 무리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니,

-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 36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 37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 38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 라고 하였으므로,

-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41 이사야가 “이것을 행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

이 그분을 믿었으니,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 43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

-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47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48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 49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 13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 2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 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 4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5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 6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 7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 8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가) 리트라는 약 340그램. 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다) 시 118:25-26. 라) 눅 9:9.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가 그분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증언하였다.’. 바) 또는 ‘영’.

가) 다른 고대 사본에는 ‘모든 것을’. 나) 창 1, 36:110:4; 사 9:7; 단 7:14. 다) 사 53:1. 라) 사 6:10. 마) 다른 고대사본들에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것을 말하였다.’. 바) 또는 ‘최대한’.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이 없다.”

9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하므로,

1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11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2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14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주었다.

16 내가 진정으로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18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19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 인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20 내가 진정으로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배반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

(마 26:20-25; 막 14:17-21; 눅 22:21-23)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하시며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22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23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발밖에’가 없음. 나) 시 41:9.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와 함께 빵을’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 없음.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쭙어 보라고 하니,

25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므로,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빵 조각을 적서 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서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 그가 빵 조각을 받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셨다.

28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30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새 계명**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32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고 말할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 다.

34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

(마 26:31-35; 막 14:27-31; 눅 22:31-34)

36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37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니,

3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어 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야**

14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8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까?” 하니,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라고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12 ○내가 진정으로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니.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알 것이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 믿어라.’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가 없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켜라.’ 리) 또는 ‘변호자’, ‘조력자’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계시기’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16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18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21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22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물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2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26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 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알 것이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 믿어라.’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가 없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켜라.’ 리) 또는 ‘변호자’, ‘조력자’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계시기’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알 것이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 믿어라.’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가 없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켜라.’ 리) 또는 ‘변호자’, ‘조력자’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계시기’

- 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28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29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30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31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 내가 곧 참포도나무이다

- 15 1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2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꺾어내게 하신다.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꺾어내게 되었으니,  
 4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

- 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15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

-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 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24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있고 또 미워하였다.  
 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

할 것이다."

### 성령의 일

- 16 1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절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3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그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5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6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8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9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10 '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11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 너희는 애도하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17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18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른다." 하니,  
 19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20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애도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21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22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23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25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니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 줄 때가 올 것이다.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가) 또는 '손질하신다.' 나) 시 35:19; 69:4 다) 또는 '변호자', '조력자'

가) 또는 '죄짓지'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안에서'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버지께로부터'



- 28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 29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 30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 32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 33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 예수님의 기도

- 17 **1**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모든 이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 3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인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 5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 6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 7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참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고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

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 11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13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15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 19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0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 21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

- 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 26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배반당하여 잡하신 예수님

(마 26:47-56; 막 14:43-50; 눅 22:47-53)

- 18 **1**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 2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 3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 4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 5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
- 7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10 시몬 베드로가 지내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 11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

(마 26:57-58; 막 14:53-54; 눅 22:34)

- 12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장인이었다.
- 14 가이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마 26:69-70; 막 14:66-68; 눅 22:55-57)

-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가고,
- 16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 17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 18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쪼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

#### 예수님을 심문하는 대제사장

(마 26:59-66; 막 14:55-64; 눅 22:66-71)

- 19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 2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명백히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 21 너는 어찌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 22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결에 서 있던 하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 2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여라.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때리느냐?”
- 24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보냈다.

#### 예수님을 다시 부인한 베드로

(마 26:71-75; 막 14:69-72; 눅 22:58-62)

-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나는 아니다.”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당신의 아들’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게 주신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ㄷ)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26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기를 “네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하니,

27 베드로가 다시 부인할 때 곧 답이 올었다.

####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마 27:1-2, 11-14; 막 15:1-5; 눅 23:1-5)

28 ○그들이 예수님을 가이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물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30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31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32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33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나?”

35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므로,

3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37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38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였다.

####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마 27:15-31; 막 15:6-20; 눅 23:13-25)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39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바라느냐?”

40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 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19 1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2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겹옷을 입히고,

3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4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5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겹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6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7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9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10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 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11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네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12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 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

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표석이 깔린 곳의 재판석에 앉았다.

14 그 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sup>1</sup>유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니,

15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말이나?”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16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마 27:32-44; 막 15:21-32; 눅 23:26-43)

○그들이 예수님을 ‘<sup>2</sup>넘겨받았다.

17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으니, 그곳은 ‘<sup>3</sup>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18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다.

19 빌라도가 ‘<sup>4</sup>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20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sup>5</sup>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이라 쓰지 말고, ‘<sup>6</sup>자칭 유대인의 왕’ 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22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쓸 것을 썼다.”

23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겹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군인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24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든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sup>7</sup>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

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26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였고,

27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네 어머니이다.” 하시니,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 숨을 거두신 예수님

(마 27:45-56; 막 15:33-41; 눅 23:44-49)

28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였다.

29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들킵 적신 ‘<sup>8</sup>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sup>9</sup>숨을 거두셨다.

#### 옆구리를 찔린 예수님

31 ○그 날은 준비일이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 달라고 요청하니,

32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5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니, 그의 증언을 너희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sup>10</sup>“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37 또 다른 성경에 다시 말하기를 ‘<sup>11</sup>“그들은 자기가 찢은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물하신 예수님

(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6)

38 ○이 일들 후에 이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

가) 원문에는 ‘친구’

가) 헬 리도스트로두스. 히가바다.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나) ‘로마시간’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넘겨받아’라고 있다. 라) ‘아람어’를 뜻함. 마) 원문에는 ‘호칭’ 바) 원문에는 ‘그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였다. 시 22:18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말한’이 없음. 자) 또는 ‘갓숨’ 차) 원문에는 ‘영을 넘겨주셨다.’ 키) 출 12:46; 민 9:12; 시 34:20 티) 출 12:10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 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39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백<sup>가</sup> 큰줄 가지고 와서,

40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썼다.

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42 그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또한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 부활하신 예수님

(마 28:1-10; 막 16:1-8; 눅 24:1-12)

20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3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4 돌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6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찢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8 그때에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9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0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에게 나타하신 예수님 (막 16:9-11)

11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13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14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15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부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18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 제자들에게 나타하신 예수님

(마 28:16-20; 막 16:14-18; 눅 24:36-49)

19 ○그 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20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22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

24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26 팔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27 그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28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2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된다.”라고 하셨다.

### 이 책의 목적

30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31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인 예수님

21 1 ○이 일을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로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4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니,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

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었다.

7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걸음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들었다.

8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이백<sup>1)</sup> 규빗 정도 떨어져 멀리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9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1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백오십삼 마리나 들어 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13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내신 것이었다.

### 사랑에 대한 질문

15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sup>2)</sup>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어라.” 하셨다.

16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sup>3)</sup>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 하셨다.

17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sup>4)</sup>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가) 헬 ‘리트라’(리트라는 약 340그램) 나) 아람어를 뜻함.

가) ‘쌍둥이’라는 뜻의 헬라어 나) 1규빗은 약 45센티미터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요나’

-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 1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피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네게 피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하셨다.
- 19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 베드로의 질문

- 20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던 자이다.

- 21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으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 24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 25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알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사도행전

###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 1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 2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 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 3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 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 4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 6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 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 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 승천하신 예수님

- 9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 10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 11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 유다 대신 맛디아를 뽑은 제자들

- 12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 13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 14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 15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백이십 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 16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 17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 18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받을 삯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 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말을 자기를 말로 아겔다미라 하고 있으니, 이는 ‘피 발’이라는 뜻이다.
- 20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 21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임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 22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23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맛디아를 내세우고,
- 24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 주셔서,
- 25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 26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맛디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 성령 강림

- 2 1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 2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4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5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 머물고 있었는데,  
6 이런 소리가 나자 큰 군중이 모여들어 소동하였으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신들의 본국 말로 들었기 때문이다.  
7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9 우리는 바대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서 온 방언자들,  
11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자신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12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였고,  
13 다른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14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14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이,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5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아홉 시이기 때문이다.  
16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17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유대’가 없음. 나) 원문에는 ‘제삼시’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요일’이 없음. 라) 욥 22:8-32 마) 시 16:8-11 바) 음부 사) 원문에는 ‘씩씩을 경험하지 않게’ 오) 시 16:10

- 도 내 영을 부어 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지옥한 연기이다.  
20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21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시다.  
23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 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24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5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뵈었으니, 이는 나를 혼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27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하데스에 버리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8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찬만하게 하실 것이다.”  
29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30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31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하데스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33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

- 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그 자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35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밑처럼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이라.” 하였다.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37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찢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40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 날에 약 삼천 명이 늘어났다.  
42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43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었다.  
44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45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 앓은뱅이를 치유한 베드로

- 3 1 ○“오호 세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 태어날 때부터 앓은뱅이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가) 원문에는 ‘성령의 약속’ 나) 시 110:1 다) 원문에는 ‘더하여졌다.’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다. 또한 큰 두려움이 모든 이들 위에 있었다.’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교회에’ 바) 원문에는 ‘제구시’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일어나’가 없음.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 메고 왔다. 그들은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날마다 앉혀 놓았다.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니,  
4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아라.” 하니,  
5 그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6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7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8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9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10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

- 11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12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절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15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16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17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들처럼

- 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 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 19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 20 그러면 유효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 21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한다.
- 22 모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 23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였고,
- 24 또 사두마와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도 그들이 말할 때마다 이 날들을 말하였다.
- 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 26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종을 일으켜 세워서서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를 각각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 4 1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 2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하여,
- 3 그들을 붙잡았으나,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 4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 5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

- 였다.
- 7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 8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 9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심문을 받는 것이라면,
- 10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 11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 이시다.
- 12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 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 14 또 병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 15 그러자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 16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다가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7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 18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 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21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 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 22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는 마흔 살이 넘었다.

가) 원문에는 '주님의 면전에서부터'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조상들에게' 가 있음. 다) 신 18:15-16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모) 신 18:19; 레 23:29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들' 사) 창 22:18; 26:4 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대제사장' 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스라엘의' 가 있음. 차) 시 118:22

#### 담대함을 구한 신자들의 기도

- 23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들을 다 전하였다.
- 24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대주재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 25 우리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 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 26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하였으니,
- 27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를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해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이다.
- 28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29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 30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31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 함께 나누는 삶

- 32 ○민은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 33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 34 그들 중에는 구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 36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 37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 아나니아와 삽비라

- 5 1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 3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 4 땅이 네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니,
-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 6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 7 ○제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 8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니, 그 여자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 9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아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므로,
- 10 그 여자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 11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 많은 표적과 기사들
-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 13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 14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 15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 16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종교 지도자들
-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사두개

가) 시 21:2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원문에는 '있었다.'



- 과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 사도들을 잡아가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1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 낸 후에 말하기를  
 20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하니,  
 2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22 도착한 하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여,  
 23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에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24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사도들 때문에 당황하였다.  
 25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26 성전 경비대장이 하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27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가운데 세우자, 대제사장이 심문하여,  
 28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0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3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32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다.  
 33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34 율법 교사로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명령

- 하고,  
 35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선전하니, 사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37 이 일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지겠으나,  
 39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의 말을 옮기며 여겨,  
 40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풀어 주었다.  
 41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42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 십사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

- 6 1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2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분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그러므로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일곱 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라고 하였다.  
 5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뽑아,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와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나.

#### 체포된 스테반

- 8 ○스테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나.  
 9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다.  
 10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 낼 수 없으므로  
 11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12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물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가서,  
 13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14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관례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니,  
 15 공회에 앉아 있던 모든 자들이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 스테반의 설교

- 7 1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하므로,  
 2 스테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3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시므로,  
 4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니,  
 5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불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6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 7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시고,  
 8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아람에게, 아람은 열두 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9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 에다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10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11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흉년과 큰 환난이 임하여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나.  
 12 아람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13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었고, 또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14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아람과 친족 일흔다섯 명을 모두 초청하므로,  
 15 아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나.  
 16 그들의 유해는 세겔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겔 땅 하물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이 일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18 마침내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19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20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21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22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23 “그가 사십 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나.  
 24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려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도들’이 없음. 나) 원문에는 ‘그 사람들에게.’ 다) 곧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라) 곧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모) 원문에는 ‘남자’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

가) 헬 ‘리베르티노스’ (‘자유롭게 된 자’라는 뜻의 라틴어) 나) 창 12:1 다) 또는 ‘씨에게’ 라) 창 15:13-14 모) 또는 ‘씨가’ 바) 출 3:12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집트에’가 없음.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없음.

- 25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 26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 27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 28 당신이 어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 29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그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 30 "사십 년이 찼을 때에 시내 산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 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 33 그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 34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라고 하셨다."
- 35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
- 36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어 내고,
- 37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한 모세이다.
- 38 그가 시내 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 39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며,
- 40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

- 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 41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다.
- 42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 43 "이스라엘 집이여,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 44 너희가 물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 신의 별 레판을 세웠으니, 곧 너희가 그것들을 예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겠다."
- 45 "라고 한 것과 같다."
- 46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었다.
- 47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 다윗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 48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아람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간 구하였으니,
- 49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 50 그러나 지금이 높으신 분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 51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겠느냐?"
- 52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 53 "라고 하였다."
- 54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 55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 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가 되었다.
- 56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 57 "둘에 맞아 순교한 스테판
- 5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스테반에

- 게 이를 갈았다.
- 59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 60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 61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 62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 63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 64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침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 8 1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 교회에 박해한 사울
-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 2 경건한 남자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 3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다.
- 4 그러나 그 날에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 5 경건한 남자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 6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다.
- 7 그러나 그 날에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 8 경건한 남자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 9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다.
- 10 그러나 그 날에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 11 경건한 남자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 12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다.

- 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 13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 15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 16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 17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 18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 19 말하기를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니,
- 20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21 이 일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못하기 때문이다.
- 22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찌하면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 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술에 얽매어 있다."
- 24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 25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 26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 27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케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관제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 28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 29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 30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가) 출 2:13 나) 신 18:15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에게' 라) 출 32:1, 23 모) 또는 '군대에게' 바) 암 5:25-27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 오) 사 66:1-2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 나) 원문에는 '영'



- 이해하느냐?”
- 31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 32 그가 잃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의 어린양 같이 잠잠하였다. 이 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 33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 34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물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 36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 37<sup>1)</sup>
- 38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 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sup>2)</sup>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 40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

- 9 1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 2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며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 3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 4 그가 땅에 엎드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 5 그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 6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 7 그와 함께 길을 가던<sup>3)</sup>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 9 그가 삼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 10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 11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스 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 12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니,
- 13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 14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습시다.”
- 15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시므로,
- 17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네게 나타났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네가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니,
- 18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으며,
- 19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가) 사 53:7-8(참살인역)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37절(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시다.”(이 있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이’ 대신 ‘성령께서 내시 위에 내려오셨고, 천사가’ 그 원문에는 ‘남자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환상 중에’가 없음.

####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한 사울

-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
- 20 그가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 21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멸하던 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 22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 유대인들에게서 도망친 사울

- 23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는데,
- 24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니,
-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태워 성벽으로 달아 내렸다.

####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사울

-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 27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 28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 29 그가 “헬라과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 30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스로 보냈다.
- 31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 애니아를 치유한 베드로

- 32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 33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팔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 34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 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

가) 곧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나) ‘사슴’이라는 뜻의 헬라어 다) 원문에는 ‘제구시’

#### 살아난 도르가

- 36 ○옴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과 구제 활동이 매우 많았다.
- 37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어 다락방에 두고,
- 38 룻다가 옴바에서 가가우르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간청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들과 겹옷들을 보여 주었다.
- 40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돌아와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 여자가 산 것을 보여 주었다.
- 42 옴바 온 지역에 이 일이 알려지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 43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옴바에서 시몬이라는 피혁공의 집에 머물렀다.

####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

- 10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로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 2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 3 어느 날<sup>1)</sup> 오후 세 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 4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 5 지금 사람들을 옴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 6 이 사람이 피혁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 7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들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 8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옴바로

- 보았다.
- 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 10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였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 11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 12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 13 그때 그에게 음성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하니,
- 14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 15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였다.
- 16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곧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 17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여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 18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물었다.
- 19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 20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 21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 하니,
- 22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로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다."
- 23 그러자 그가 그들을 안으로 청하여 머물게 하였다.
-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음비에 있던 형제 몇 명도 그와 함께 갔다.
- 24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로

- 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 25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 26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 27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 2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였다."
- 29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 30 고넬료가 말하였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세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서
- 31 말하기를 '고넬로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 32 음비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의 피혁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 33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 고넬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한 베드로
-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 35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이다.
- 3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 37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 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 39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가) 원문에는 '제육시'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곧' 이 없거나 '다시' 다) 원문에는 '영'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세' 가 없거나 '두'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이' 바) 다른 사본들에는 '금식하며' 가 있음. 사) 원문에는 '제구시'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가 와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가 있음.

- 40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 삼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나 보여 주셨다."
- 41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 42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 이심을 증언하게 하였고,
- 43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
- 44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 45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여된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 46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 47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 48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하였다."

-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베드로
- 1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 3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 4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 5 "내가 음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렀다.
- 6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 7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베

- 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하기에,
- 8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였더니,
- 9 하늘에서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 10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 11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 앞에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 12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여섯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 13 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 14 그가 나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나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 15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리셨다.
- 16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 17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인디옥 교회
- 19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 20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 21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 22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 23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삼일 후에'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 가 있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라) 원문에는 '영'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가 있음.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서' 가 없음.



- 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 24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sup>㉑</sup>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 25 그가 시울을 찾으러 다스로 가서,
- 26 그를 만나 인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일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인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 27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인디옥에 내려왔다.
- 28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클리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 29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갇힘

- 12 1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 2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 4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네 명으로 구성된 네 조에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풀어내기 위해서였다.
- 5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 6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sup>㉒</sup>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 7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 8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허리를 매고 네 신을 신어라." 하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네 겹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였다.
- 9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10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읍으로

-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 11 그 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 12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 13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다.
- 14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서 있다고 전하였다.
- 15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니,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라고 하였다.
- 16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 17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는지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말하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 18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 19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을 심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 헤롯의 죽음

-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몹시 노여워하였으므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왕의 침소 담당자인 블라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이는 그들의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 21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 22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 23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치므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2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 25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 13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과, 구레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 2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 3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 바나바와 바울의 키프로스 사역

- 4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 5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 6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파포스에 이르러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선지자였다.
- 7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 8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 9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 10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님의 곧은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 11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터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 12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 바울과 바나바의 파시디아 안디옥 사역

- 13 ○바울의 일행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 14 그들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 15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

- 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 곳에서 이끌어 내셨다.
- 18 그분께서 약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 19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사백오십 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 20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거까지 사자들을 주시고,
- 21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 동안 주셨다가
- 22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23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 24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회개에 이르러서 선포하였다.
- 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다." 라고 하였다.
- 2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 28 그들은 그분께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29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 30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 31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다.
-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㉑)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 안에' ㉒) 원문에는 '남자' ㉓) 원문에는 '그 날 밤에'(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넘어갈 때 시작되므로) 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루살렘으로'

㉕)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돌보시고' ㉖)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에게'가 있음. ㉗) 삼상 13:14 시 89:20 사 44:28 ㉘) 원문에는 '남자' ㉙)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무엇이라고' ㉚)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에게'

- 너희에게 전하니,  
 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34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씩으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고,  
 35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36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37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39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40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41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42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43 회중이 흠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권하였다.  
 44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46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47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49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50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51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사역

- 14 1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2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3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므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4 그 성읍의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5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6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7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 바울과 바나바의 루스드라 사역

- 8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래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 본 적이 없었다.  
 9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11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

- 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 오셨다." 라고 하였다.  
 12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13 성읍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드리려고 하였다.  
 14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쳐,  
 15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므로,  
 16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17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18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나바와 바울

- 19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고 갔다.  
 20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갔다.  
 21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22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 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24 그들이 비시디아를 두루 다닌 후에 밤빌리아에 이르렀고,  
 25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갔다."  
 26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으니, 이곳은 전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던 곳인데 그 일을 이루었다.  
 27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

- 나남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28 그들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 예루살렘 회의

- 15 1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므로,  
 2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중 다른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4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하였다.  
 5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은 자들 중 몇몇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6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려고 모였다.  
 7 많은 논란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10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11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12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13 그들이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14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일치한다. 기록되기를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나) 시 27 다) 사 553 라) 시 1610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에게' 가 있음. 바) 합 15 사) 사 496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의' 가 있음.



- 16 <sup>가</sup>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의 파괴된 것들을 다시 지어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 17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sup>나</sup>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 18 테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한 것과 같다.
- 19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 20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규정

- 22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함께 자신들 중에서 <sup>나</sup>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선택된 자들은 바나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이들은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었다.
- 23 그들의 손을 통해 써 보낸 편지는 이와 같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 24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sup>나</sup>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하므로,
- 25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한마음으로 결정하였다.
- 26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 27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 28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 29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 30 ○그들이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 무리를 모아 놓고 편지를 전했다.
- 31 무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 32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건히 하였다.
- 33 그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 34 <sup>나</sup>
-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 길라서는 바울과 바나바

-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 라고 하였다.
- 37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자신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 39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 40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인사를 받고 떠나,
- 41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다.

####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바울

- 16 <sup>나</sup>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 2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은 자였다.
- 3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 5 그리하여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

- 6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 막으시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길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 7 무시가 가까이 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sup>나</sup>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 8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 9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 10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

- 11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이폴리스로 갔다가,
- 12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 13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 14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하셨다.
- 15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 16 ○그 후에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 17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 18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참다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 19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 20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치안관리들에게 데리고

-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 21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 하였다.
- 22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 23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 26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 27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 28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 29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 30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 31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 32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 33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 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 34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 35 날이 새자, 치안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 주어라." 하니,
- 36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풀어 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시오."
- 37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 38 부하들이 치안관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가) 암 9:11-12 나) 또는 '내 이름을 부르는' 다) 원문에는 '남자들'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가서'가 없음. 마) 원문에는 '남자들' 바) 다른 사본들에는 34절 '그러나 실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겼고, 유다만 떠났다.'가 있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하였다.  
 39 처인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니,  
 40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17 1 그들이 암볼로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2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했었다.  
 3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였다.  
 4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5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아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6 그들이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아손과 몇몇 형제들을 성읍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기를 “제사를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7 아손이 그들을 찾아냈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을 거슬러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8 무리와 성읍 관원들이 이 말들을 듣고 소동하였으며,  
 9 아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서야 그들을 풀어 주었다.

###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

10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11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12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13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경건한 자들과 헬라인들의’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선동하였다’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한 혈통으로부터’

14 그대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15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 바울의 아테네 사역

16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18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19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21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24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25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26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였고,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27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

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28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로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29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31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32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들겠다.”라고 하였다.  
 33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34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회원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 바울의 고린도 사역

18 1 이 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2 거기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3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4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5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다.  
 6 그들이 반대하고 모독하므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하고  
 7 그곳을 떠나 “디도 유소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 옆이었다.  
 8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었고, 고린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9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네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11 바울이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2 ○갈리요가 아가이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 자리로 끌고 가서,  
 13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자,  
 14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요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야,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 주겠으나,  
 15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16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내쫓았다.  
 17 “모두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렸으니, 갈리요가 이 일들에 대해 아무 상판도 하지 않았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  
 18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19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 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했다.  
 20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21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22 ○그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23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아볼로  
 24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디도’가 없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모든 헬라인들이’



- 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 25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 26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 27 그가 이기아로 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온례로 인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 28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 바울의 에베소 사역

- 19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 2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나." 하고 대답하였다.
- 3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 라고 말하였다.
- 4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다.
-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경에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 7 그 사람들은 모두 열두 명쯤 되었다.
-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하였다.
- 9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므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 10 그가 이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 11 오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회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 12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

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 스게와의 아들들

- 13 ○그러면 떠돌아다니며 미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였다.
- 14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 15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 16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기므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 17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
- 18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 19 미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오만 개나 되었다.
- 20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 로마에 대한 바울의 비전

- 21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 22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

###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 23 ○그 무렵에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 24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의 신당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해주었다.
- 25 그가 자신의 직공들과 또 같은 업종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번영이 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 26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많은 무리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므로,

한 후에 헬라로 가서,

- 3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 4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였다.
- 5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이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오일 만에 트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칠일을 머물렀다.

### 바울의 고별 강론과 유두고 사건

- 7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 8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 9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였다.
- 11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났다.
- 12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 트로이에서 밀레도로 향해할

- 13 ○우리가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스로 갔는데, 이는 거기에서 바울을 배에 태우려는 것이니, 이는 바울이 자신은 육로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청한 것이었다.
- 14 그가 트로이에서 우리를 만났고,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밀레도로 갔다.
- 15 우리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 이튿날 기묘한편에 이르니, 그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 16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가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바울

-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 18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 27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그 여신의 큰 위엄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
- 28 그들이 듣고 분이 가득하여 소리 질러 말하기를 "크드나,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하였다.
- 29 이에 온 성읍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 30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고,
- 31 아시아의 고관들 중 바울의 친구들 몇몇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 32 한편 극장 안에서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쳐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 33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며 군중에게 변론하려 하였으나,
- 34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두 시간가량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라고 외쳤다.
- 35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하였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읍이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상의 신전 봉사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 36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 너희가 자제하고 아무것도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 37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끌고 왔으니,
- 38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도록 하여라.
- 39 만일 너희가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40 오늘 이 소동에 대해 우리가 고소당할 위험도 있고 우리가 이 불법 모임에 대해 보고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가 이렇게 말하여 모임을 해산시켰다.

###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여행한 바울

- 20 1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 2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

가) 또는 '높은'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제 오시부터 제 십시까지' 가 있음. 다) 원문에는 '영'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의'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시아까지' 가 있음.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19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련들을 겪으며,

20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21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22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다.

23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24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25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26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27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28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 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 가운데 감동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29 내가 떠난 후에 양 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30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피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삼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32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33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34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35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준 대로 이제

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다'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36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37 모두가 많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임을 맞추었다.

38 그들은 특별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으며,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바울

21 우리는 그들과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에 이르렀고, 이튿날 로드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2 우리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나,

3 키프로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배가 거기에서 짐을 부리기 위해서였다.

4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칠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하였다.

5 이 여러 날이 차차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들 모두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행하여 성읍 밖에서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으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6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7 ○우리가 두로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마치며 프톨레마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8 이튿날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9 그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10 우리가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11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자신의 발과 손을 묶으며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였다.

12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권하였다.

13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하였다.

14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15 ○며칠 후에 우리가 여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6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중 몇몇이 우리와 함께 가서, 오래 전부터 제자였던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인도하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였다.

### 야고보를 방문한 바울

18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19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말로 설명하니,

20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 있는 데, 다 율법에 열성적인 자들이다.

21 그들이 그대에 대해 듣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22 그러니 어떻게 하였느냐? 그대가 온 것을 그들이 분명 들을 것이다."

23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우리가 온데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24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도록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25 이방인들 중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하여' '편지하였다.'

26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 정결 의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다.

### 성전에서 체포된 바울

27 ○칠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으려

28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

람은 어디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거슬러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심지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하니,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성읍에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0 온 성읍이 소란해지고 백성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들이 닫혔다.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군대의 천부장에게 올라가므로,

32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33 그때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그를 체포하여 쇠사슬 둘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으니,

34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른 이들은 다르게 부르짖었다. 천부장이 소요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35 그가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의 폭력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 들러서 나갔니,

36 백성의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쳤다.

### 자신을 변호한 바울

37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도 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네가 헬라인을 아느냐?"

38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자객 사천 명을 광야로 이끌어 갔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였다.

39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작지 않은 성읍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다. 당신에게 부탁하니, 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고

40 그가 허락하므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니, 아주 조용해지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였다.

### 자신의 화심에 대하여 말한 바울

(행 9:1-19; 26:12-18)

22 1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 원문에는 '남자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바다라와 무라'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대답하여 말하였다.'

가) 또는 '수천 명'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반드시 모일 것이다.' 가 있음.(이는 그대가 온 것을 그들이 분명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피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람을 보냈다.' 마) 아마도 '아름다'를 가리키는 듯함.



는 것을 듣고서 더욱 존용하였으므로 그가 말하였다.

-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자라면서 가릴리엘 문회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고 나도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으며,
-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 5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게 대하여 중인이 된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갔으니, 이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와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 6 내가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으며,
- 7 내가 땅에 엎드려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기에
- 8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라고 하셨다.
- 9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 10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서 네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네게 말할 것이다.’
- 11 내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다.
- 12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며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 13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다시 보아라.’ 하기에 내가 그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 14 그가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로 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 15 이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한 중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6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라.’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빛을 보고 공포에 차게 되었으니’

### 이방인들에게 보내질 바울

- 17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가운데
- 18 보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 중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각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렸으며,
- 20 또 주님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닌 것을 그들이 압니다.’ 하니,
- 21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바울

- 22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 버려라. 그는 살려 둘 자가 아니다.” 하고,
- 23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 24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또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였다.
- 25 그들이 바울을 가족 끈으로 묶을 때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으냐?” 하니,
- 26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 27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인가?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라고 하였다.
- 28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 29 그러자 그를 신문하려면 자들이 그에게서 즉시 물려서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결박되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 공회 앞에 선 바울

- 30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풀어 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 23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 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

- 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 3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 칠한답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 4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라고 말하였다.
- 5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 라고 하였다.
- 6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들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심문을 받는다.”
- 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어졌으니,
- 8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 9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이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했느냐?” 하고,
- 10 다툼이 더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거나 앓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를 가운데서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 11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다.
-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
- 12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 13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사십 명이 넘었다.
- 14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 15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들에게 끌어 내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 놓았다.” 라고 하였다.
-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 듣고 와서

-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 17 바울이 백부장들 중의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 18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19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려가서 은밀히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
- 20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끌고 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라고 하였으니,
- 21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 사십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22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하기를 “네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 벨릭스에게 보내진 바울
- 23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아홉 시에 가이사라로 떠나도록 보병 이백 명과 마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여라.’
- 24 그리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 보내도록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하고,
-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 26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 27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 내었으며,
- 28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는데,
- 29 그가 고소당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들에 관한 것일 뿐이며,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30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 주어서, 내가 이 사람을 즉시 각하께 보내며 고소인들에게도 그에 대하여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31 ○보병들은 그들이 받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로 갔다.
- 32 이튿날 마병들에게 그와 함께 떠나도록 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다.
- 33 마병들이 가이사라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

가) 출 22:28 나) 또는 ‘그 날 밤에’ 다) 원문에는 ‘제삼시’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안병히 계십시오.’가 있음.

에게 전달하고 비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읽고 비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묻  
 어 길리기가 출신인 것을 알고  
**35** 말하기를 “너의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 볼 것이다.” 하고 그를 헤롯  
 궁전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 벨릭스 앞에서 고소당한 비울

**24** **1** 오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  
 로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어떤 변론가  
 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비울을 고소하였  
 다.  
**2** 총독이 비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선전지명 덕분  
 에 이 나라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3**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어느 면으로나 어느 곳  
 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습  
 니다.  
**4** 제가 각하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저희의 고소 요지를 각하의 너그러우  
 심으로 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5**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고, 온 세계  
 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통을 일  
 으키는 자이고, 니시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  
 이며  
**6**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저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7** ”  
**8**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심문해 보시면 저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시  
 게 될 것입니다.”  
**9** 유대인들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고소하였다.

#### 벨릭스 앞에서 변론한 비울

**10** 총독이 비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떡이  
 자 비울이 대답하였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  
 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  
 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  
 하러 올라간 지 십이 일밖에 안 되었으며,  
**12**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  
 나 성을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  
 이 보지 못하였으며,  
**13**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  
 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  
 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

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에게 저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  
 달하고 헌물을 드리려고 와서,  
**18**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무리를 모으거나 소  
 요도 없이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어  
 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19**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 있었다  
 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  
 입니다.  
**20**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sup>나</sup>무  
 슌 잘못을 보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  
 해 보라고 하십시오.  
**21**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  
 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 라고 외친 이 한 마디가 있을 뿐입니  
 다.”  
**22**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  
 고 있었으므로 심문을 연기하며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들  
 을 판결하겠다.” 하고,  
**23**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  
 를 주고 또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  
 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 감옥에 갇혀 지내는 비울

**24** ○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비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25** 비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으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하였다.  
**26** 그는 비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비울  
 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27** ○ 이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비울을 가  
 두어 두고 있었다.

#### 가이사에게 상소한 비울

**25** **1**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삼일 후  
 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고 저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7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가 저희 손  
 에서 강제로 빼앗아 데려갔습니다. 8 그리고 그의 고소인들을 각하 앞에 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가 있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게서’가 있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이 있음.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비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3** 비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비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4** 그러나 베스도는 비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려 한다  
 고 대답하고,  
**5**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  
 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  
 으면 고소하라.”라고 하였다.  
**6** ○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길어야 팔일이나 십  
 일쯤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비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  
 였다.  
**7**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이 그를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죄목들로 고  
 발하였으나,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못하  
 였다.  
**8** 비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  
 지 않았습니다.” 하니,  
**9**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비  
 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  
 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  
 서 재판을 받겠느냐?”  
**10** 그러자 비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랴의 재  
 판 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  
 야 합니다. 당신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  
 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  
 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  
 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  
 에서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  
 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  
 사께 상소합니다.”  
**12**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협의한 후에 대  
 답하기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  
 사께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앞에 선 비울

**13** ○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14**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  
 도가 왕에게 비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  
 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  
 았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  
 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  
 을 요청하였으나  
**16**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가) 헬’주’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 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7** 그러자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 자리  
 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18**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나열하  
 였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죄목은 하  
 나도 없었으며,  
**19**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  
 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  
 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비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 보았더  
 니,  
**21** 비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 달  
 라고 호소하여 그를 가이사랴에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 베스도가 말하기  
 를 “내일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라고 하  
 였다.  
**23** ○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심문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  
 여 비울을 끌어내었다.  
**24**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립바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  
 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  
 치기를, 더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25**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므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6**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심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  
 니다.  
**27** 이는 죄목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명한 비울

**26** **1** ○ 아그립바가 비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  
 신에 대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니,  
 비울이 손을 내밀며 변명하였다.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들을 잘 아시니, 내 말을 참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저의 생활 방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5 그들이 오래 전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6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8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9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10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11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외국 성읍들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말한 바울

(행 9:1-19; 22:6-16)

- 12 “이런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13 정오쯤 되어 길에서 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14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히브리 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서 골앗의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하시기에,  
 15 내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16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네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가) 아마도 ‘아람어’를 가리키는 듯함.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이 없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라) 원문에는 ‘그러므로’

- 17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전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18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심문자들에게 증언한 바울

- 19 “그러므로, 아그리바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인 것을 거역하지 않고,  
 20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21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  
 22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이니,  
 23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아그리바에게 믿을 것을 권하는 바울

- 24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므로,  
 25 바울이 말하였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 왕께서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씀드리니,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니,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 아그리바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28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니,  
 29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빌니.”라고 하였다.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31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하니,  
 32 아그리바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였다.

#### 배를 타고 로마로 여행하는 바울

- 27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비올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의 올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2 우리가 아시아 해안의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데토 배에 승선하여 떠나갈 때에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3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올리오가 비올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4 또 거기에서 우리가 출항할 때에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키프로스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6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우매,  
 7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도네 옆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8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새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9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급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10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11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12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이는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보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으니, 보닉스는 크레타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13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불어서 항해하였다.  
 14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15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하다가,  
 16 “기우라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

- 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17 그것을 끌어 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다.”  
 18 그들이 폭풍에 몰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집을 바다에 버렸으며,  
 19 삼일째에는 배의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렸다.  
 20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21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22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23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 서서,  
 24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네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26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27 ○십사 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선원들은 자신들이 한밤중에 어떤 육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28 그들이 수심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었으며,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 보니, “열다섯 길이었다.”  
 29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배꼬리에 닻 네 개를 내리고 닻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30 그런데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밧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체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못할 것이다.” 하니,  
 32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들을 끊어 버렸다.  
 33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리며 기다린 지 오늘까지 십사일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글라우다’ 나) 헬 ‘수르티스’(리비아 부근에 있는 모래톱) 다) 약 40미터 라) 약 30미터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35 그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36 그들 모두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었으니,  
 37 배에 있는 우리가 모두 <sup>1)</sup>이백칠십육 명이었다.  
 38 그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 안전하게 실룩한 바울 일행

39 ○날이 새자, 그들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해변이 있는 어떤 항만을 발견하고 그곳에 배를 들어 뱃수 있을지 의논하였다.  
 40 그들이 뱃들을 묶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의 밧줄을 늦추고, 앞 돛을 바람에 맞추어 올리고 해변으로 들어갔다.  
 41 그러나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으로 밀려들어 가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니, 뱃머리는 단단히 박혀서 꼼짝하지 않고 배꼬리는 거친 파도 때문에 깨어졌다.  
 42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니,  
 43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결정을 거절하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44 다른 이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들 위에 타게 하여 모두 다 육지 위로 구출되었다.

#### 몰타 섬의 바울

28 <sup>1)</sup>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2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였다.  
 3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 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4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5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 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6 그들은 그의 몸이 붓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

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7 ○그곳 가까이에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삼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8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인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9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10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 로마에 도착한 바울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거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났는데, <sup>2)</sup>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12 시라쿠스에 이르러 삼일을 머물고,  
 13 거기에서 <sup>3)</sup>뱃을 올려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가 이를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14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칠일을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15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한 소식을 듣고 압비오 시장과 <sup>4)</sup>세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16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 셋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바울

17 ○삼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백성을 거스르거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18 그들이 나를 심문한 후에 내게 사형에 처할 죄목이 하나도 없으므로 풀어 주려고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내가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며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20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였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죄사슬에 매여 있다.”  
 21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 무슨 악한 것을 고하거나 말한 적도 없으니,  
 22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당신에게서 듣기를 원하니,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3 ○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그의 숙소로 많이 오니,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권하였다.  
 24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믿었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아,  
 25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헤어질 때에 바울이 이 한 마디 말을 하였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sup>5)</sup>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는데,  
 26 말씀하시기를

<sup>6)</sup>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27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으며, 그들이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8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알아라. 그들도 들을 것이다.”  
 29 <sup>7)</sup>  
 30 ○바울이 이년 내내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여,  
 31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칠십육’ 또는 ‘약 칠십육’ 나)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둘러 항해하여’ 리) 헬, ‘트레이스 타베르나이’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나) 사 69-70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9절 ‘이것들을 말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많이 논쟁하면서 떠나갔다.’가 있음.



# 로마서

## 인사

- 1 <sup>1</sup> O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 3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5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 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 7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 로마 방문을 갈망한 바울

- 8 O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 9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 12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 13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 14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 15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 16 O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sup>18</sup>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 18 O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 주셨다.
- 20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 21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 23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 24 O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 2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 28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 2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변명할 수 없음을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2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 3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 4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 5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니,
- 7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니,
- 8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 9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 10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 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 12 O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 14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있다.
- 15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백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 준다.
- 16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있을 것이다.
- 17 O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 18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 19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 20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네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1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 22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 24 기록된 바와 같이 <sup>25</sup>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 25 O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 26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 27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 28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 29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율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 하나님의 의

- 3 1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나?  
 2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4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다.  
 5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나?  
 6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7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8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9 O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10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 모두가 탈선하여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16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19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유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 21 O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22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25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26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의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27 O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범으로이다.  
 28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29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30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 4 1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는 없다.  
 3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5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6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7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9 O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10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나?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12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으로 행하여 실현된 약속  
 13 O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16 O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17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

- 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19 그는 백 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는 것과 같고, 사리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23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까지도 위한 것이다.  
 25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줄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 5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다.”  
 2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3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5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7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9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 시 51:4 나) 시 141:3 53:1-3 전 7:20 다) 시 59 라) 시 140:3 모) 시 107 바) 사 59:7, 8 사) 시 36:1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얻었다고’가 없음 자) 창 15:6

가) 시 32:1, 2 나) 창 15:6 다) 창 17:5 라) 창 15:5 모)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미’가 없음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화평을 누리자.’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믿음으로’가 없음.



-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 아담 안에서 사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3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6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릴 것이다.  
 18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다.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از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21 이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삶

가) 또는 '왕노릇'

- 6 1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3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6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7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9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10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하라.

#### 의의 종

-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6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

- 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17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니,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18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21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22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23 죄의 삯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 율법으로부터 해방

- 7 1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3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4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얹어매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낚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 율법과 죄

-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답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

- 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8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10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11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12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3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 되게 하려는 것이다.  
 14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15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17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18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22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본다.  
 24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가) 출 20:17; 신 5:21

## 성령 안에서

- 8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 3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 4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 5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 6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 7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 8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 9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 10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 11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 13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 14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 15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 장차 나타날 영광

- 18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 20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23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 24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 29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 30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 31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 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 34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 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 36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시다." 하였다.
- 37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 38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 34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 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 36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시다." 하였다.
- 37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 38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 9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 2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 3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만,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 5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아멘.
-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 7 이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아사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 9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 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 11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기를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 12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다.
- 13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아람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였다.
- 14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셨으니,
-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17 성경이 바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 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 19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라고 할 것이니,
- 20 사람이,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말하겠느냐?
- 21 토기장이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었느냐?
- 22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 23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 24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 25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 L) 원문에는 '생령' C)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 R)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다라겠느냐?' M)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이 없음. L) 시 44:22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언약과' R) 창 21:12 M) 창 18:10, 14 B) 창 25:23 S) 말 12-3 O) 출 33:19 X) 출 9:16 Z) 호 2:23 K) 호 1:10



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28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 주교 속히 끝내실 것이다.”  
29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들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 이스라엘의 불신

- 30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31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32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33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만민을 위한 구원

- 10 1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2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5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6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

리려는 것이다.

- 7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8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가까이 있으니,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9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11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15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다.  
16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18 그러면 내가 물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19 내가 또 물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으니,  
20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다.

- 21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씀하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라고 하였다.

#### 이스라엘의 남은 자

- 11 1 그러면 내가 물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2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3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라고 하였다.  
5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7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8 기록된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라고 하였고,  
9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울무와 덩굴과 같아져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물이 되게 하고,  
10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 절붙임을 받게 된 이방인들

- 11 ○그러므로 내가 물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총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14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15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16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17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절붙임을 받아 참울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19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절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할 것이다.  
20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23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24 내가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울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

- 25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

가) 사 10:22-23 나) 사 19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율법’이 있음. 라) 사 28:16 마) 레 18:5 바) 신 30:12 사) 신 30:13 이) 신 30:14 자) 사 28:16 차) 욥 23:23 카) 사 52:7 테) 또는 복음 파) 사 53:1 히) 시 19:4 기) 신 32:21 니) 사 65:1

가) 사 65:2(참심인 역) 나) 왕상 19:10, 14 다) 왕상 19:18 리) 신 29:4 사 29:10 마) 시 69:22-23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뿌리와 진액’

기록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이,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아람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27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 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28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함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취소될 수 없다.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공물을 입었다.

31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공물로 이제 그들도 공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2 하나님께서 모든 이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공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33 O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지 못할 수 없다.

34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주께 되돌려 받았느냐?”

36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 기록한 산 제물

12 **1** O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함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록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은혜로 받은 은사

3 O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진전한 생각을 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6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7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9 O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12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13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움 척하지 마라.

17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18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19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여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4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감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5 그러므로 복종해야 하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6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7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 사랑을 통한 율법의 성취

8 O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9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잡에서 쫓겨 나갈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12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 비판에 대한 경고

14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2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다. 주께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5 어떤 이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7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10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는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11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리가 내게 꿀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2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 형제 실족에 대한 경고

13 O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자.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라.

14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실한데,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으나, 다만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15 만일 음식 때문에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신 그 사람을 너의 음식으로

가) 사 59:20, 21: 279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제’가 없음. 다) 사 40:13 렘 23:18(칠십인역) 라) 욥 41:11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들’이 없음. 바) 신 32:35 사) 잠 25:21-22

가) 출 20:13-15, 17: 신 5:17-19, 21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거지 중언하지 마라’가 있음. 다) 레 19:18 라) 또는 ‘성취’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바) 사 45:23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서’가 없음.



- 로 망하게 하지 마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18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sup>가</sup>힘쓰자.  
 20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에는 악하다.  
 21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네 형제를 <sup>나</sup>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2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23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 그리스도의 모범

- 15** 1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2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신 한다.  
 3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되기를 <sup>나</sup>“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라고 하였다.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 유대인과 이방인의 소망 그리스도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8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9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이.

<sup>나</sup>“이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였고,

10 또 <sup>나</sup>“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였으며,

11 또 <sup>나</sup>“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찬송하여라.” 하였다.

12 그리고 아시아가 말하기를

<sup>나</sup>“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였다.

13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 바울의 이방인 사역

14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므로 능히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1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매우 담대히 썼다.

16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나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말과 일이며,

19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과 <sup>나</sup>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으니.

20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을 전하기를 힘썼으니,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21 기록된 것과 같이.  
<sup>나</sup>“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22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니.

23 이제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24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 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5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26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27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 진 것을 나뉘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28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31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32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

#### 개인적인 인사

**16**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뱌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4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5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이다.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라.

7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한 여임을 받는 자들이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다.

8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임블리아에게 문안하여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라. 아리스도볼로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 있는 나그수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12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바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바시에게 문안하여라.

13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히메와 바드로바와 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라.

15 빌롤로그와 올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16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 마지막 권면과 인사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며, 그럴 듯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이에게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선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힘쓰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죄 짓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병들게 하느니라.’ 다) 시 69:9 라) 시 18:49; 삼하 22:50 모) 신 32:43 바) 시 117:1 사) 사 11:10 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영’

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아래에서 짓밟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1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인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22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23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24 ㉑

## 찬양

25 ○<sup>㉑</sup>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26 그러나 지금은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27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 고린도전서

## 인사와 감사

1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sup>㉒</sup>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5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6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sup>㉓</sup>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9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 교회 안에서의 분열

10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11 나의 형제들아, 내가 클레오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에 대한 말, 곧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12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이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13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14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sup>㉔</sup>하나님께 감사드리니,

15 이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6 내가 또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17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18 ○십자가의 <sup>㉕</sup>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9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하였다.

20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24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25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

㉑)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4절이 있음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㉒)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5-27절이 14:23이나 15:33 뒤에 나타난다.

㉓)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가 없음. ㉕)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가 없음. ㉖) 헬 ‘말씀’ ㉗) 사 29:14



- 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28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29 이는 아무 유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라고 하였다.

###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전함

- 2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2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3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4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한 것이니.  
 5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 성령을 통한 지혜

-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8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9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라고 하였다.  
 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

- 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11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13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15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16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의 동역자

- 3 1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2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4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이다."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나?  
 5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이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7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8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

- 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11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12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들을 세우면,  
 13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그 것을 밝히 보여 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14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15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은 것이다.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20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하였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23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 사도들의 사역

- 4 1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2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3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 4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 이시다.  
 5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6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8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9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11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12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13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14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 훈계하려는 것이다.  
 15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가정 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17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가) 렘 9:24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증거'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혜의 설득력으로' 라) 사 64:4 마) 사 40:13(철십인역)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의'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툼과 분열'

가) 욥 5:13 나) 시 94:11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 이 없음.

- 생활 방식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하여졌으나,
-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 20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 21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 교회를 더럽히는 음행

- 5 1 ○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 2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 3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 4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광과 함께 모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7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회생을 당하셨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 9 나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너희에게 썼다.
- 10 그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11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 는 것이다.
- 12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 13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내 쫓아라.

### 믿는 자를 고소하는 문제

- 6 1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하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 2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 3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일들은 어떻겠느냐?
- 4 그러나,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 5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 6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 7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 8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 9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 10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 11 너희 가운데 이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 음행에 대한 경고

- 12 ○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 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릴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 14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 15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 16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 17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 19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 20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결혼의 원리들

- 7 1 ○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였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 2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 3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라.
- 4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 5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므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6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 7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 8 ○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

- 게 말한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 9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 10 ○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 11 - 만일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라. -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 12 ○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 13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 14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 15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 16 아내 된 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 된 이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 부르심을 받은 삶

- 17 ○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
- 18 누가 할례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 19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하여라.
-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 예수님의' 나) 신 17:7, 19:19; 22:21, 24: 247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주 예수'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시 살리신다' 또는 '다시 살리셨다.' 나) 창 2:24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 23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 미혼자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 25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으니, 주님의 공훈로 신실한 자가 되어 의견을 제시한다.
- 26 내 생각으로는 “임박한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 27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찾지 마라. 네가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찾지 마라.
- 28 그러나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므로, 나는 너희를 아끼고자 이 말을 한다.
- 29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지 않은 자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같이 하고
- 31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 32 나는 너희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라.
- 33 결혼한 남자는 세상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 34 마음이 나뉘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 35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 너희에게 올라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 36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혼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 37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기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

- 에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 38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보내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 39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 40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우상에게 바친 제물

- 8 1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 4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 5 비록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 6 우리에게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 7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 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 9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10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 11 그러면 그 약한 자는 너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 주신 형제이다.
-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

- 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 13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바울

- 9 1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뵈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 2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주님 안에 있는 너희는 나의 사도직의 표시이다.
- 3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이다.
- 4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 5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 6 또는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 7 누가 자신의 비용을 쓰며 군인으로 봉사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면서 그 양 떼의 것을 먹지 않겠느냐?
- 8 내가 사람의 관례를 따라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 9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땅을 씌우지 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이냐?
- 10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타작하는 자는 함께 나누어 가질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다.
- 11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뿔었다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느냐?
-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참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 13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맡아 보는 자들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 15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

- 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 달라라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쓰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 16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랄 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 17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을 것이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 18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나?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 19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워면서도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 21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인 것처럼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에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을 인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 24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 25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씌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 26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 27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 10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 2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4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5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땅에서 멸망당하였다.  
 6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거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7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뉘엿뉘었다.” 하였다.  
 8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9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10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11 너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13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1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라.  
 15 내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때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이나?  
 20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

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 21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 22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

- 23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 25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 26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의 것” 이기 때문이다.

- 27 불신자들이 가운데서 어떤 이가 너희를 초대하므로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 28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 하고 말한다면, 알려 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 29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 30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왜 감사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 31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 32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 33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11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 머리에 쓸 것을 요청함

-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 4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 5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자기 머리를 밀어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 6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도록 하여라.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쓰도록 하여라.

-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 9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 11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또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 13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보아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느냐?

- 14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 자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 15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 16 만일 어떤 이가 논쟁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관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 도 없는 것이다.

#### 성만찬

- 17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 18 첫째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 19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 20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 21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

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 22 너희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 23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

- 어

- 24 감사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 25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 26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 29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 30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 31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렸다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 32 그러나 우리가 주께 판단을 받으며 혼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 33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먹기 위해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 34 누구든지 시장하거나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잡겠다.

#### 성령의 은사

- 12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2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 다녔다.

-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



- 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4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6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일을 가운  
 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  
 다.  
 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8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  
 을,  
 10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11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  
 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  
 누어 주신다.

#### 한 몸과 많은 지체들

- 12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  
 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같이 그  
 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13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  
 다.  
 15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6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7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  
 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  
 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19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  
 에 있느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21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  
 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  
 22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23 우리가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고, 우  
 리의 불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

- 게 된다.  
 24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  
 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25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  
 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26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지  
 체이다.  
 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  
 는 사도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셋째는 교사  
 이고, 그 다음은 기적이고, 그 다음은 병 고치  
 는 은사이고, 돕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29 여러 가지 방언이다.  
 30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  
 는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기적 행하  
 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  
 주겠다.

#### 사랑의 길

- 13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  
 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이  
 나 올리는 쟁과리가 될 뿐이다.  
 2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  
 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  
 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  
 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  
 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  
 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  
 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5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  
 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  
 지 않으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  
 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  
 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

- 다.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  
 나.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  
 질 것이다.  
 11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  
 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  
 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  
 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12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  
 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13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  
 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  
 이다.

#### 예언과 방언

- 14 1 사랑을 추구하여라. 영적인 것들을 사  
 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2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므로 아무도 그 것  
 을 알아듣지 못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  
 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4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예언하  
 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지  
 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한다. 방언  
 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낫다.  
 6 ○형제들이여,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만일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  
 나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  
 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7 심지어 피리나 수금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  
 리를 낼 때에도 각각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  
 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  
 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8 또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  
 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9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 분명한 말을 하지 않  
 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  
 는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격이 될 것이다.  
 10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으나, 뜻  
 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11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  
 하면, 나는 그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 그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12 이와 같이 너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풍  
 성해지기를 구하여라.  
 13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도  
 록 기도하여라.  
 14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  
 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  
 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  
 다.  
 16 그렇지 않고 네가 영으로만 찬양하면, 무식  
 한 처지에 있는 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의 감사에 “아  
 멘” 할 수 있겠느냐?  
 17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다른 이는 덕 세움  
 을 받지 못한다.  
 18 나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  
 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19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 마디 말  
 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20 ○형제들이여, 깨닫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21 율법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  
 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  
 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23 온 교회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  
 어와서 너희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24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  
 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듣고, 모든 이  
 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이에게 판단을 받  
 아서  
 25 그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엿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26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모일 때에는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

\*)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불태워 지도록’

\*) 사 28:11, 12

- 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라.
- 27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여야.
- 28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여라.
-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도록 하여라.
- 30 알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도록 하여라.
- 31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이가 배우고, 모든 이가 권면을 받게 된다.
-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같이
- 34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sup>ㄴ</sup>을 법이 말한 것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여라.
- 35 무엇을 배우기 원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 보아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 3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 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혹은 영적인 자로 생각하면,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38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sup>ㄴ</sup>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 39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 40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여라.

#### 고린도도의 부활

- 15 <sup>1</sup>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있다.
- 2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 4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 삼일에 살리심을 받아

- 5 계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 6 그 후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 9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sup>ㄴ</sup>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 죽은 자의 부활

-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 14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sup>ㄴ</sup> 너희의 믿음도 헛되이.
- 15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 16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 18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 19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 23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 24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 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 25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 26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 27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 28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 29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 30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 32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 33 속지 마라.
-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 34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 몸의 부활

- 35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옹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 36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 37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나,

- 38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 39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 40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 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 42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 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 44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 45 "첫 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 46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 48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sup>ㄴ</sup> 입게 될 것이다.

#### 비밀과 승리

- 50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 51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 52 마지막 나팔에 순간간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 53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 54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ㄴ) 다른 고대 사본들은 34-35절을 40절 뒤에 놓았음. 못하도록 하여라'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 위한'

ㄴ) 참조 창 3:16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인정받지'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ㄴ) 시 86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형제들아'가 없음. ㄴ) 사 22:13 ㄴ) 창 2:7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입읍시다.'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가 없음.



-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58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 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성도를 위한 헌금

- 16 1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2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3 내가 도착할 때에 너희가 인정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4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 여행 계획

- 5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6 어쩌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게 될 것 같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 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7 지금은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8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다.  
 9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10 디모데가 가져든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도록 하여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다.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고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것이다.

### 마지막 지시들

- 13 ○개여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14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15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스테바나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니,  
 16 이런 이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 바란다.  
 17 나는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교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18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이들을 인정해 주어라.

### 인사

-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20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21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  
 22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23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sup>ㄷ</sup>

## 고린도후서

### 인사

- 1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모든 위로의 하나님

- 3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분이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6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7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9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0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sup>ㄱ</sup>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11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이 <sup>ㄴ</sup>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12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다. 곧 우리 양심의 증언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

- 고,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다.  
 13 너희가 알고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sup>ㄷ</sup> 자랑이듯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두 번 <sup>ㄴ</sup> 은혜를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16 나는 너희를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17 내가 이것을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겠느냐? 또 내가 그것을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예, 예,’ 하고 ‘아니오, 아니오,’ 하려고 계획하였겠느냐?  
 18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너희에게 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 금방 ‘아니오,’ 한 것이 아니다.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시다가 ‘아니오,’ 라고 하시지 않는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 만 있을 뿐이다.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예,’ 가 된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1 너희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2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23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24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에서 있기 때문이다.

- 2 1 내가 다시는 근심하며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 때문에 근심하는 너희를 제외하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3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나를 기쁘

게 할 자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니, 나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

5 ○만일 누가 근심하게 하였으면, 그것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어느 정도'라 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6 그러한 자에게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벌로 충분하다.

7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라.

8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한다.

9 또한 내가 이를 위하여 편지를 썼으니, 곧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10 너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어 용서하였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11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책략을 모르지 않는다.

####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이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려 있었으나,

13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영이 편하지 않아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16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팔아 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물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 새 언약의 일꾼

3 1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과

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또는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2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3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 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 판에 쓴 것이다.

4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5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7 돌에 새겨져 사방에 이르게 하는 의식법의 문자의 직분에게도 영광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8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9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10 이런 점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12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동한다.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영광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자기 얼굴 위에 쓴 것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오늘날 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것이다.

15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17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

4 1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2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의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4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6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8 우리는 사방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10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11 우리 산 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12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13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한다.

14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15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18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5 1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3 우리가 그것을 덧입음으로 벗은 자들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4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5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9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10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 희복의 직분

11 ○우리가 주님의 두려움심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으며, 너희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

12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는 마음으로는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 15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는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 21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 6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 2 맡으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 3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 4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 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 5 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굶주림과,
-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로
- 8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 되고,

- 9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 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 11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 안에서 좋아진 것이다.
-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마음을 넓혀라.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

-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땅을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 수 있겠느냐?
-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묶을 나눌 수 있겠느냐?
-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 18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 7 1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 바울의 기쁨

-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 3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서

-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 4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서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 5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 6 그러나 닳고 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 7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뻐했다.
-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 9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랑을 가져온다.
- 11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1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 13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모두로부터 새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 14 내가 그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 15 그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16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 8 1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 2 그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헌금을 넘치게 하였다.
- 3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 4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애원하며 간청하였다.
- 5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었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한 것은, 이미 시작한 대로 너희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잘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 7 오직 너희는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있어서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도록 하여라.
- 8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열심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 9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로서 "너희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 10 이 일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일은 너희가 행하려고 하였던 뿐 아니라, 너희가 원하여 일 년 전부터 이미 시작하였던 일이니,
- 11 이제 그 일을 잘 이행하여라. 너희가 마음에 원하던 것을 기꺼이 이행하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라.
- 12 만일 너희가 자원하여 바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 그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 13 내가 다른 이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고통이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평을 이루려는 것이다.
- 14 지금 너희의 풍족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 주게 되면, 후에 그들의 풍족한 것이 너희의 궁핍한 것을 채워 형평을 이루게

가) 또는 '창조물' 나) 사 498 다) 악령의 이름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는' 마) 레 26:12 바) 출 6:7, 렘 31:33, 32:38; 겔 11:20 등. 사) 사 52:11; 겔 20:34, 41 오) 삼하 7:8, 14; 사 43:6 렘 31:9; 호 1:10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하려는 것이다.  
15 기록된 것과 같으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 나의 동료 디도

- 16 ○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7 그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18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이다.  
19 그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가 뽑아 세워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자이다.  
20 우리는 이 거액의 헌금을 관리하면서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21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22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우리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이 있음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지금 그가 너희를 크게 신뢰하므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  
23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이며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이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24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 주기 바란다.

### 성도를 위한 헌금

- 9 1 ○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2 내가 너희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여서는 일 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였으므로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3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4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만된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 5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야야 참 헌금답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  
6 ○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7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8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9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흠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다.  
10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심을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11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많은 것을 너그럽게 드리므로, 저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한다.  
13 이 봉사가 증거가 되어,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대로 복종한 것과, 또한 모든 이들에 대한 너희의 너그러운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14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할 것이다.  
15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그의 사역을 변호하는 바울

- 10 1 ○ 너희 면전에서 겸손하나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2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강경하게 대하려는 것같이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3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행하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4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 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5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6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7 ○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확신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8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9 나는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10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  
11 이런 이는,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 ○ 우리는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이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에 두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13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 안에서 자랑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14 우리는 너희에게 가지 못할 자가 아니며, 한계를 벗어나 나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15 우리는 다른 이의 수고를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고, 다만 너희의 믿음이 자라남을 따라 우리의 한계가 너희 가운데서 더욱 넓어져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16 이는 너희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남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17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야.’**”  
18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다.

### 바울과 거짓 사도들

- 11 1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기 바란다. 참으로 나를 용납해 주기

- 바란다.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하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3 뱀이 그의 간계로 회의를 속인 것같이 혹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4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너희는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5 ○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6 비록 내가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7 ○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지은 것이냐?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서 받은 비용은 그 교회들에서 빼앗은 것이다.  
9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가난하였으나,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11 왜 그리하였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12 ○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도 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와 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자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버리려는 것이다.  
13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4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15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 사도로서 당하는 바울의 고난

- 16 ○ 내가 다시 말하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여라.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같이 확신을 가지고 자



- 랑하는 것이다.  
 18 많은 이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또한 자랑하겠다.  
 1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있다.  
 20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알보거나, 누가 너희의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  
 21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지만 나도 감히 자랑하겠다.  
 22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갇힌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으며, 세 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26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27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28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았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어타지 않았느냐?  
 30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31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줄 아신다.  
 32 다마스쿠스에서 이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33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 바울의 환상과 계시

- 12** 1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나,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3 내가 이런 이를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곧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5 내가 이런 이를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6 내가 만일 자랑한다고 해도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았으니, 이는 누가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7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8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세 번 간구하였으나,  
 9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10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나에게 강요한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이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12 사도의 표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나타났다.  
 13 나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라.  
 14 ○보아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를 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이 마땅하다.  
 15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 기쁘게 쓰고 나 자신도 회생하겠다.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더 적게 사랑을 받아야 하겠느냐?  
 16 어쨌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가 고향하여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았다고 말한다.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너희를 착취한 일이 있는가?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를 착취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동일한 영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느냐?  
 19 ○너희는 우리가 여전히 변명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다.  
 20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갈 때에 너희가 혹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너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이고, 또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시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아 내가 슬퍼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 마지막 경고와 인사

- 13** 1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2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한다.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말한 것같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3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 본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4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5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6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7 우리는 너희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11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 지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가 없음.

# 갈라디아서

## 인사

- 1 <sup>1</sup> O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나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3 O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5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 다른 복음은 없음

- 6 <sup>6</sup> O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7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8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9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 10 O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11 O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13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므로 파괴하려고 하였다.  
14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15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 16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17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리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18 그리고 삼년 후에 나는 <sup>18</sup>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십오 일을 지냈으니,  
19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20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21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가아 지역으로 갔다.  
22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23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바울

- 2 <sup>2</sup> 1 그리고 십사 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담음질하는 것이냐 담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4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엮되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5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6 그 유명한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없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 그 유명한 자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7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

- 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8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9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10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 게바를 책망한 바울

- 11 O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12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라고 하였다.

## 믿음으로 의롭게 됨

-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16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나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17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8 내가 혈이 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 믿음으로나 율법의 행위로나?

- 3 <sup>3</sup> 1 O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2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3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나?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6 O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7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니 것을 알아라.  
8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 믿음으로 사는 의인

- 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11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12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가 없음. 나) 베드로의 이름이 이름.

가) 또는 ‘야고보가 보낸’ 나) 또는 ‘고난받았던 말이나?’  
24 사) 레 185 이) 신 21:23

다) 창 15:6 라) 창 12:3 22:18 모) 신 27:26 바) 합



14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율법과 약속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해지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네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17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18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19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나?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20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1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살릴 능력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22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23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24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25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가 아래 있지 않다.

26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도 옷 입었다.

28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 아들과 상속자

4 1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2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 노릇 하였다.

4 그러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5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6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7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 비율의 염려와 호소

8 ○그러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 하였으나,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13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4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 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15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16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

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아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이다.

18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좋은 일이다.

19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20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어조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하갈과 사라

21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 보아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서 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23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24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서 종 노릇 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 노릇 하나.

26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이다.

27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인태하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29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30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 그리스도인의 자유

5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2 ○보아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3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하니,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5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6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8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한다.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12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잘라 버렸으면 좋겠다.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여라.

14 이는 온 율법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 성령을 따라 행함

16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17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가) 원문에는 '성령의 약속' 나) 창 12:7; 13:15; 17:7; 24:7 문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미)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가 없음. 라) 원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갈'이 없음. 나) 사 54:1 19:18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는' 라) 창 21:10 미) 레

- 못하게 한다.  
 18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올բ만 아래 있지 않다.  
 19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20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과 분노와 당 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21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24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26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 서로 짐을 주저기

- 6 1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신을 살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2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3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4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5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6 〇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 7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9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10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 마지막 경고와 축도

- 11 〇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12 육체에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13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15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6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〇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예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18 〇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 에베소서

것이다.

### 감사와 기도

- 1 1 〇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 3 〇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4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5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으니,  
 6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7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8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10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11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3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다.  
 14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 15 〇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배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2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22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23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 은혜의 선물

- 2 1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3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6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살인파'가 있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가 없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고...완성하여라'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 안의 내용이 없음. 나) 원문에는 '그'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랑을 나도 듣고'가 없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의'가 없음. 마) 원문에는 '그것은'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 계시된 복음의 비밀

- 3** 1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 2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 3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 4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5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 6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 7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 8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 11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 12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 1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 영적 능력을 위한 기도**
- 14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 15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 16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
- 18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 19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 20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길 소망하는 본분
-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됨

- 4**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 3 화평의 때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4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 5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이시니.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시니.
- 7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 8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라고 하셨다.
- 9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 10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11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 12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 13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 14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간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 15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 16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 옛 사람과 새 사람

- 17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 18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 19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 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 20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 21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 22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23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 24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 25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 26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 28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 29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 30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 31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 32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모두에게'가 없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가 있음.

가) 시 68:16 나) 속 8:16 다) 시 44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신의'가 없음.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서로 용서하여라.

### 사랑 가운데 행할

- 5** 1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4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5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6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10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14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15 "자는 자여, 깨어서  
 16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17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15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피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16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7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18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 되여라.  
 19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20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아내와 남편  
 21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22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23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같이 하여라.  
 26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27 교회를 자기 안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9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유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이 한다.  
 30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31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32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 자녀와 부모

- 6** 1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4 또한 아버지들,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 종과 주인

- 5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8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9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전신갑주

- 10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14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 동이고,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19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20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마지막 인사

- 21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진실한 일꾼인 두기오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22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를' 나) 참조 사 26:19; 60:1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형제들'이 있음.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적인'이 없음. 미) 창 22:4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 안에서'가 없음. 시) 출 20:12 오) 신 5:16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의' 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사

- 1 1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동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

-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 4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 5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 6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 7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목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 8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 9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충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 10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복음의 진보

- 12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 13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 14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므로 더욱 겁 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 15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름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 17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 18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 19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 22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 23 내가 둘 사이에 끼여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 24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 25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 26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 28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함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30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 2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 2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 3 아무것도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 4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 5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 6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 7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 8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 10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 11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세상의 빛

-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을 행하게 하신다.
- 14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 15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리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 16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 17 너희의 믿음의 회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 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디모데의 연단과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 19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 20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21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 22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 23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 24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 25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한 너희의 "사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26 그가 너희 모두를 "를 사모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늘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27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 28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는 것이다.
- 29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 30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 3 1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 2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 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여라.
- 3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 4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

가) 또는 '관저'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가 있음.

가) 참조 사 45:23 나) 원문에는 '그의' 다) 원문에는 '사도'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보기를'이 있음.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의'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 시) 또는 '예배하고'

- 는 흠이 없는 자이다.  
 7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 꽃대를 향한 전진

- 12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간다.  
 13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1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꽃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15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16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같은 길을 좇아가도록 하자.

#### 바울의 모범

-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18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19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20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21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4 1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 권면, 격려, 그리고 기도

- 2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7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8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9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 10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11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13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4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16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17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18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 마지막 인사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19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 21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22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 골로새서

## 인사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 감사와 기도

3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4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5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6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7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준 자이다."  
9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10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11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12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13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14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15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16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18 또 그분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 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19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21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22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

24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25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26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27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는 것이다.  
29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2 1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2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에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3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4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5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6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라.  
7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8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9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10 그러나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11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12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13 또 너희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1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 버리셨다.

15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 세상의 초보적 원리

16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17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18 아무도 거저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서  
19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20 ○너희는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의식법에 복종하느냐?  
21 곧 "불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손대지도 마라." 하는 것이니,  
22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으로,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에 따른 것이다.  
23 이런 규정들은 자의적 경건과 거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의 모양을 가지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에는 무의하다.

## 새 사람을 입음

3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2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3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4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5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6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7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8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 있음.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가 있음.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가 없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 ]의 내용이 없음.

- 러운 말을 내버려라.  
 9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11 저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13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sup>가)</sup>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14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15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17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 기독교 가정생활의 규칙들

- 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24 이는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 또는 '때를' 다) 다른 고대 사본에는 '너희가 너희의' 또는 '그가 너희의'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이 없음.

- 있다.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4** 1 주인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여라. 이는 너희에게도 하물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기도와 행위에 대한 권면

- 2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3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깨어 있다.  
 4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5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고 <sup>나)</sup>세월을 아껴라.  
 6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 마지막 인사

- 7 ○나에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이 된 자이다.  
 8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니, 곧 <sup>나)</sup>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9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10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져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11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문안한다. 할례당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 자들이다.  
 12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sup>나)</sup>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13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

- 고하는 것을 증언한다.  
 14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sup>나)</sup>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라.  
 16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여라. 또한 너희

- 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어라.  
 17 그리고 아킴보에게 "주님 안에서 네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하고 말하여라.  
 18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눔바와 그들의'



# 데살로니가전서

## 인사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모범

2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3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5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8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9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창자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 바울의 데살로니가의 사역

2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2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3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불순함에서 나온 것

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4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5 너희도 아는 것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다.

6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7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같이 하였다.

8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9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10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1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12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너희에게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13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데,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14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15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16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 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 다시 방문하고자 열망하는 바울

17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니,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18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너희가 아니나?

20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3 1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2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여,

3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우실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당할 것을 너희에게 예고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다.

5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보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6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항상 좋게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다.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8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산다.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10 우리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

11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바로 인도하시고,

12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

성하고 넘치게 하셔서

13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4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라.

2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4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6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7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9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10 또 너희는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11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 주님의 오심

13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있는 다른 이들과 달리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

가) 원문에는 '우상들로부터' 나) 원문에는 '권위 가운데 있을 수도'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어린이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멘'이 없음. 나) 또는 '몸을 제어할 줄' 다) 원문에는 '이것들'

- 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 15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17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 18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 주님의 날

- 5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 2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 4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 5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 9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는지 자는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 11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 마지막 권면과 인사

- 12 ○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 13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 14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 15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 16 항상 기뻐하고,
- 17 쉬지 말고 기도하며,
- 18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 21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 23 ○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 24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 25 ○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 26 ○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여라.
- 27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 주어라.
- 28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데살로니가후서

### 인사

- 1 1 ○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를 편지를 쓴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그리스도 재림 때의 심판

- 3 ○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 5 ○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 6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 7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 8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 9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 10 그 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 11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 불법자

- 2 1 ○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 2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 3 ○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는 신이나 혹은 승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 6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 8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 9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 10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 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 12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믿음으로 굳게 섰

- 13 ○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 14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없음. 나) 원문에는 ‘그분께서’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죄의’ 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께서’가 없음.



-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 17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 기도 요점

- 3 1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 2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소서.” 하여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실 것이다.
- 4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 5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란다.

### 게으름에 대한 경고

- 6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 7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으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 8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
- 9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마라.”라고 하였다.
- 11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한다.
- 12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 13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 14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지시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라.
- 15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여라.
-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 문안과 축복기도

- 17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쓴다.
-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 디모데전서

### 인사

- 1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 2 믿음을 통하여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 3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 5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 6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
- 7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8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 9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 10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애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 11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 12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 13 내가 전에는 휘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 14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

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

- 다.
- 15 이 말씀은 믿을 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죄수이다.
-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 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 17 영원하신 왕, 곧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 20 그들 가운데 후매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 2 1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이를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 2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 3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고맙고 실한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 5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 6 그분께서는 모든 이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 7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다.
- 8 ○그러므로 나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 9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땅은 머리카락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11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12 나이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13 이는 이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 감독의 자격

- 3 1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라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6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7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집사의 자격

-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꾼이 언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10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11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 13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 경건의 비밀

- 14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15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16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를 가운데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 4 1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하시니,  
2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3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

- 6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주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7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8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9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11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12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13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14 네 속에 있는 온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16 네 자신과 네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 교회에 주는 교훈

- 5 1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2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4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6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이다.  
7 나이는 또한 이것들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여라.  
8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나이 육십이 될 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어야 하며,  
10 또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니, 곧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또는 나그네를 후대했든지,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었든지,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이어야 한다.  
11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3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다.

- 14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15 이는 어떤 이들은 이미 사탄에게 갔기 때문이다.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는 것이다."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18 성경에 말하기를 "꼭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땅을 씹으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19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20 죄를 짓는 자들을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22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같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25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 6 1 명에 아래 있는 종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 가정 교훈과 참 만족

-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4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

\*가) 또는 "그들의 아내들", "여자 집사들"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비난을 받고"가 있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에게"

나) 신 25:4    다) 참조 록 10:7



- 이 생기며,  
5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  
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  
이 일어난다.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  
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  
으로 만족할 것이다.  
9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희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  
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  
게 한다.  
10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었다.

#### 믿음의 선한 싸움

- 11 하나님의 사랍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를 따라라.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  
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  
로 고백하였다.  
13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분디오 빌  
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14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을 지켜라.

15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  
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오  
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  
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16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  
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7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  
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  
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18 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아  
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19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장래에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20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  
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여라.

21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벗  
어났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 디모데후서

#### 인사

- 1 O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님 안  
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  
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  
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  
다.

####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

3 O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심  
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하  
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  
이다.

5 나는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  
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디게 안에 있던 것인데, 네 안에  
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6 O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  
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8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간헐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  
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  
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  
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10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  
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폐  
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 주셨다.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  
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12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  
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 날  
까지 능히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다.

13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14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  
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15 O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  
게네가 있다.

16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죄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17 로마에 있을 때에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  
났다.

18 그 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

2 1 O그러므로 내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2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  
실한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또 다른 이  
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  
께 고난을 받아라.

4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 생활  
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5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6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  
땅하다.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8 O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  
리스도를 기억하여라.

9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  
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12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에게'가 없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히방인을 위한'이 있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13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 14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sup>가</sup>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16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매나오와 빌레도가 있다.  
18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 치심이 있어<sup>나</sup>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22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  
24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25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26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좇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함이다.

#### 마지막 때의 타락상

- 3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3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6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돌리고,  
7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8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  
9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저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

- 10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11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박해를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12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14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15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 말씀을 전파하여라

- 4 1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2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3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 모을 것이다.  
4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니,  
5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6 ○내가 벌써 부어 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 개인적인 부탁

- 9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12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13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이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너라.  
14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실 것이다.  
15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하였다.  
16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 마지막 인사

- 19 ○브리사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  
21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22 ○"주께서 너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인사

- 1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가 된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며,
- 2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 3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 4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로의 자격

- 5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 둔 것은, 내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 6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을 일이 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 7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책망 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 8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 9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10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레당 중에 그러하니,
- 11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엎어 놓는다.
- 12 그들 가운데 어떤 이, 곧 그들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는 것만 탐내는 게으름쟁이들이다."  
라고 하였는데,
- 13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

전하게 되고,

- 14 유대인들의 허황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
- 16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 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바른 교훈

- 2 1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 2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 3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비방하지 않으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 4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 5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신중한 자가 되게 하여라.
- 7 너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일들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않음과 존엄함과
- 8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약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9 ○종들을 가르치되,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하여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 10 흠치지 말고, 오직 모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는 것이다.
-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 12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 13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 14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 15 ○너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모든 선한 일의 준비

- 3 1 ○너는 그들로 생각나게 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 2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라.
-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 하였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였다.
-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으니,
- 7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 8 ○이 말씀은 신실하다. 나는 네가 이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 9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들을 피하여라. 이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 10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여라.
  - 11 네가 아는 대로, 이런 이는 타락하여 죄를 지으며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
- 개인적 부락과 인사
- 12 ○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거든 너는 속히 니코폴리에 있는 내게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 13 너는 율법학자 세나와 아블로를 속히 먼저 보내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라.
  - 14 또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 선한 일들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여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가 너에게 문안한다. 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 빌레몬서

## 인사

- 1 <sup>1</sup> O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 2 자매 입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립보와 너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 4 O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 5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 6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 7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

- 8 O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 9 오히려 사랑으로 인하여 간청한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 10 갇힌 중에서 나는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 11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 12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sup>1</sup> 그는 내 심복이다.
- 13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니,

- 14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 15 O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 16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이다. 내게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 17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게 하듯이 그를 받아 주여라.
- 18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 19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 20 형제여,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라.
- 21 O내가 너의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너에게 썼으니,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있다.
- 22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여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바란다.

## 마지막 인사

- 23 O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 24 또한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한다.
- 25 O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 히브리서

## 하나님 아들의 탁월성

- 1 <sup>1</sup> O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 2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 3 O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 4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아들

- 5 O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sup>1</sup> "나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다시 <sup>2</sup>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 6 그런데 그 만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sup>3</sup>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 라고 말씀하셨다.
- 7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sup>4</sup>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 라고 말씀하셨으니,
- 8 아들에 관해서는 <sup>5</sup>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sup>6</sup>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온 홀입니다."
-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 라고 하셨다.
- 10 또 <sup>7</sup> "주님,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

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니,

-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 12 주께서 그것들을 <sup>8</sup> 겉옷처럼 말아 버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께서는 한결같이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 라고 말씀하셨다.
- 13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sup>9</sup>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 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 구원을 무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

- 2 <sup>1</sup>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러가지 않도록 더욱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 3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 4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 주신 것들로 증언해 주셨다.
- 5 O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 6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이렇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sup>10</sup>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분을 돌보십니까?"
- 7 주께서 그분을 <sup>11</sup>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받아주어라' 가 있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자신을 통하여' 가 있음. 나) 시 27 다) 삼하 7:14 리) 시 32:43(창립인역) 시 97:7 마) 시 104:4 바) 시 45:6-7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이) 시 102:25-27 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겉옷처럼' 이 없음. 차) 시 110:1 카) 시 84:6(창립인 역) 테) 또는 '조금' 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7절 끝에' 또한 주님의 만드신 것을 위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가 있음.



- 8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분께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만물이 아직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10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12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셨으며,  
13 다시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하시며, 또 다시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다.  
14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15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때려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16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애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18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 3 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

- 하여라.  
2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3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으니,  
4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5 또한 모세는 창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6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써 신실하셨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지팡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  
7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격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9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사십 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향해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고,  
11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2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13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라.  
14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15 성령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셨으니,  
16 이 말씀을 듣고도 격노케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 또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 18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  
19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 4 1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 라고 하셨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4 어디에선가 제 칠일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셨다.”  
5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6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7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9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다.  
10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2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념 선 검토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  
13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

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대제사장 예수님

-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고백을 굳게 붙잡자.  
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16 그러므로 궁핍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 5 1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2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4 누구나 이 존귀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그분께 말씀하시는 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으며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7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8 그분은 아들이시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10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불신에 대한 경고**  
11 오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분께’가 없음. 나) 시 22:22 다) 사 8:17(칠십인 역) 리) 사 8:18 모) 또는 ‘자신’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온’이 없음.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으면’ 이) 시 95:7-11 자) 시 95:7-8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가 없음. 나) 시 95:11 다) 창 22 리) 시 95:11 모) 시 95:7-8 바) 또는 ‘예수’ 사) 시 27 오) 시 110:4 자) 원문에는 ‘육체의 날들에’

- 하기 때문이다.  
 12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13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14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 6**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하게 된 자가 나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2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4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6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정착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8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10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므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 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11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12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분발케 하려는 것이다.

####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 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이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14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 15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17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18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19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닻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20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멜기세덱의 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

- 7**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은 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2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3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서 있다.  
 4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바쳤다.  
 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7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8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십분의 일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 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십분의 일을 받은 것이다.  
 9 말하자면, 십분의 일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십분의 일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10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11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12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13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길 적이 없었다.  
 14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 것도 말할 것이 없다.  
 15 ○그리고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16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17 이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 라고 확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지되었는데,  
 19 이는 율법이 아무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20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21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 22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23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을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4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25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26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27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이

루셨기 때문이다.

- 28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

- 8** 1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2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3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4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5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6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7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 볼여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9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였고,  
 10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 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 11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



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 13 새 언약<sup>가</sup>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남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 지상의 성소

- 9 1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2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 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3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4 거기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니, 그 궤 안에는 만사를 담은 금 향아리와 이룬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5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6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7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8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 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지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러진 헌물과 희생 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라된 것이다.

###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

-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12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13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 15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6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17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18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20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21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22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그 흘림이 없으면 정 용서도 없다.  
23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야 한다.  
24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25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26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 10 1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

- 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2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3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4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 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6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7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내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8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러지는 것들이나,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10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13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14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15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16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 주겠다.’

하시고,

- 17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18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확신

-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20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 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21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22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24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25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26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만焰이 있을 뿐이다.  
28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없이 죽었는데,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30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32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날들을 생각하라.  
33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34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35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 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가) 또는 ‘사은죄’, ‘은혜의 자리’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장래의’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의’ 라) 헬 ‘디아테케’ 모) 헬 ‘디아테케’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염소의’가 없음. 사) 출 248

- 36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 37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 38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 39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 믿음으로

- 11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 2 선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 3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중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 9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 10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 함 23-4(칠십인역)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또는 ‘의인은 믿음으로’ 다) 창 5:24  
라) 또는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되었는데도 잉태할 능력을 얻었다.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 미) 창 21:12  
바) 창 47:3(칠십인역) 사) 또는 ‘메시아’

-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12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 13 그는 이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인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 14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 15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 16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 17 오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 18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 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 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였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 22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 23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 24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 26 “이집트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 27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 28 믿음으로 그가 율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29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 30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칠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 32 내가 무엇을 더 말할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이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 33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일을 막기도 하며,
- 34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 35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옥까지 당하였다.
- 37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 38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 39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 4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

- 12 1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중인들이 구름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열매지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 2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

- 여 수치를 개의치 않고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 3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 4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 5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편면을 있었다.
- 다) “나의 아들이아,  
주님의 혼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 6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혼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 7 혼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혼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 8 모든 아들이 받는 혼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 9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혼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혼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혼계하신다.
- 11 모든 혼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 12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 13 너희 발을 위하여 끈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 14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 15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 뿌리가 돌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 16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 17 너희가 이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 흔들리지 않는 나라

- 18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

가) 또는 ‘창기’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험을 받았고’가 있음. 다) 잠 31:12



- 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20 이는 “<sup>가)</sup>“집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다.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25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만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26 그때에는 그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sup>나)</sup>“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라고 하셨다.  
 27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은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아 있게 하시려고 진동하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옮기실 것을 뜻한다.  
 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 13 <sup>1</sup>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3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4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sup>비)</sup>“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가) 출 19:12-13 나) 학 26 다) 신 31:6 수 15 라) 시 118:6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러므로’가 없음. 비) 원문에는 ‘이 일을 행하시기를’

-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sup>라)</sup>“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9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11 그 집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12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13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14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sup>미)</sup>“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16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하고 탄식하면서 하게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인한다.  
 19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sup>기)</sup>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축도와 마지막 인사  
 20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분께서  
 21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

- 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 보게 될 것이다.

- 24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25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 야고보서

## 인사

1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 믿음의 시험

- 2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4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5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일에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6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7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8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 가난한 자와 부한 자

-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10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 12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14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15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16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18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 들음과 행함

- 19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노하기도 더디 하여라.  
20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24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 지 잊어버리지만,  
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26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 차별하는 죄

- 2 1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2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3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시오.” 한다면,  
4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5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

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 6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7 그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8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11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12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라.  
13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 14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벙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라.” 하고 말만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할 것이다.  
19 하나님이나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행들도 믿고 편다.  
20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의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22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

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23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었다.  
24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25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자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2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 혀를 제어함

- 3 1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3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4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5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6 그 혀는 불이며, 불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 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7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8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9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11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낼 수 없다.

## 위에서 오는 지혜

13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유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회전하는 그림자의 변화가’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기’가 있음.

가) 레 19:18 나) 출 20:14 신 5:18 다) 출 20:13 신 5:17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죽은’ 마) 창 15:6 바) 또는 ‘출생의 바퀴’ 사) 헬 ‘개헌나’



- 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 14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 15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 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 18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 세상과 벗됨

- 4 1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 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 4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 5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 6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셨다.
-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 8 하나님을 가까이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 9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 10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 형제 비방

- 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

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12 입법자와 재판관을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누구이기며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 자랑에 대한 경고

- 13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 14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 15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 16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 부자에 대한 경고

- 5 1 부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다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고,
- 3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 4 보아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 6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 고난 가운데 인내

-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 8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 9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 10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 11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

- 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하시다.
- 12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 13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 14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 15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

- 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 16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 17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삼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 19 ○나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 20 그가 알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다.

# 베드로전서

## 인사

1 1 O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 산 소망을 갖도록 거듭남

3 O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4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두신 씨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5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6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7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8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9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10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11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2 그들이 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자들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고를 원하는 것들이다.

##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음

13 O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14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지 말고  
15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16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17 O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이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오직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20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21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22 O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 산들과 거룩한 백성

2 1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아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

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3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6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잇돌을 시몬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8 또한 "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우림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11 O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12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 권위에 대한 복종

13 O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14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15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16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라. 그러나 그 자유

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17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여라.

## 고난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18 O 중들이,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여라. 선하고 느그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19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20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21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22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23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24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마음을 얻었다.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 아내와 남편

3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2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3 너희는 머리를 땅저나, 금 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4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의 씨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5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가'가 없음. ㄴ) 레 11:44-45; 19:20; 20:7 ㄷ)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정결한'이 없음. ㄹ) 또는 '변함없이', '깊게' ㅁ) 사 40:6-8

ㄱ) 사 28:16 ㄴ) 시 118:22 ㄷ) 사 8:14 ㄹ) 사 43:20-21 칠십만역: 출 19:5-6 ㅁ) 사 53:9 ㅂ)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 스로를 치장하였다.  
6 시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의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의를 위한 고난

- 8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9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급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12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서 기울어지시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3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누가 너희를 해지겠느냐?  
14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16 은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17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18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당하시므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19 주께서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가) 시 34:12-16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죄들에는 ‘우리를’

- 20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여덟 명뿐이다.  
21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22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 선한 정치기

- 4 1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2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회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4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6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8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 주기 때문이다.  
9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10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치기같이 서로 섬겨라.  
11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죽음’ 라) 다른 고대 사본

-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15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16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7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 하나님의 양 무리

- 5 1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하지 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3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어서라.

-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5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7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9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11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 마지막 인사

-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는 편에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너희를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다.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13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14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 잠 11:31(칠십인 역) 나) 원문에는 ‘어디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앞에 ‘감동하며’ 있음. 라) 잠 3:34(칠십인 역) 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님이 없음.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강하게 하시고’ 또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가 없음.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광과’가 있음.

# 베드로후서

## 인사

1 1 O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2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

3 O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4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여라.  
8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게으르게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9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11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12 O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서 있으니,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13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15 내가 떠난 후에다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의 말씀

16 O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17 지극히 큰 영광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시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18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20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1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2 1 O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2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3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4 O 하나님께서 죄지는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5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여덟 식구만 지켜 주셨다.  
6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

하시되, “<sup>가</sup> 멸망 받아 재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7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8 이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9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 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  
10 특별히 유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11 O 그들은 대답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12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13 O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14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이며, 대가로 연회로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도 자신들의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오점과 흠이다.  
15 그들은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으며, 군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16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17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18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에게는 감감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19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하며  
20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21 “<sup>나</sup> 우리의 주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

것들에 얽매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22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23 참된 속담에 “<sup>다</sup>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 주님의 날

3 1 O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2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3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4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5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6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7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8 O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10 O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러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sup>바</sup> 드러날 것이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질 것이니, “<sup>사</sup>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13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멸망 받아’가 없음. 나) 또는 ‘천사들’ 원문에는 ‘영광들’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 앞에서’가 없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가 없음. 미) 잠 26:11. 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타 버릴’ 사)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는’



-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 15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 16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18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sup>19</sup>아멘.

## 요한일서

### 생명의 말씀

- 1 1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 보았다.
- 2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 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랑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 4 <sup>20</sup>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 빛 가운데 행하는 삶

- 5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 6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 8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 우리의 변호자 그리스도

- 2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2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 3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4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

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5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sup>21</sup>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6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 새 계명

-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 8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 9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안에 있다.
- 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 11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가) 여러 고대 사본들에 '아멘'이 없음.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에게' 나) 혹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렇게'가 없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 사랑에 대한 경고

- 15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 17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 18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날인 줄 안다.
-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20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쁨 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22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 23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 25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생이다.
- 26 ○나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 27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쁨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쁨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 하나님의 자녀

- 28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언제나 그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29 만일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낳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

- 3 1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 5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는 죄가 없다.
- 6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 7 ○자녀들이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같이 의롭고,
- 8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이다.
- 10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 서로 사랑하는 권면

- 11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 12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 13 ○형제들이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

게 여기지 마라.

- 14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 15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 16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 17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 18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 19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 20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 21 사랑하는 자들이여,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 22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3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 24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 영을 시험하라는 명령

- 4 1 ○사랑하는 자들이여,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 2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 3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 4 ○자녀들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 5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 사랑이신 하나님

- 7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안다.
- 8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이다.
- 11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 13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 17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

가) 혹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없음.



- 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21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 세상을 이긴 믿음

- 5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아 주신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4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

-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6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 이시기 때문이다.  
 7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8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지한다.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11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12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

-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14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15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16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17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시므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19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20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극 위상을 멀리하여라.

## 요한이서

### 인사

- 1 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니,  
 2 이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함  
 4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5 부녀여 이제 내가 네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네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6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7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

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이다.

- 8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모시고 있다.  
 10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 가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 마지막 인사

-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게 되기를 희망하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3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 요한삼서

# 유다서

## 인사

- 1 1 O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 2 O사랑하는 자여, 나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 3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너의 진실함에 대해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뻐했다.
- 4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 5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 5 O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 곧 나그네를 위하여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하고 있으니,
-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에 대해 증언하였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을 전송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니,
- 7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으며 이방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8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 9 O내가 교회에 몇 자 써 보냈으나, 그들 가운

- 데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그의 일들을 드러내겠다.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자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
- 11 O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 12 데메드리오는 모든 이들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고 우리도 인정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마지막 인사
- 13 O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먹과 붓으로 너에게 쓰기를 원하지 않고
- 14 너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 15 O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친구들에게 일일이 문안하여라.

## 인사

- 1 1 O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아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 2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 (벧후 2:1-17)
- 3 O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 4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 5 O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 6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 8 O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 9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 10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이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 11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고, 품삯을 위하여 빌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 12 이들은 거리낌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너희 애찬의 암초이며, 바람에 밀려

- 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며,
- 13 자기 수지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감감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었다.
- 14 O이들의 칠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 15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16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 육에 속한 자들

- 17 O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19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 20 O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 22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 23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가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라.

## 축복 기도

- 24 O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 25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 인사

- 1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 3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쓴다.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 5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 6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 7 <sup>1</sup>“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sup>2</sup>“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찢었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sup>3</sup>“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 8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파와 오매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라고 하셨다.

## 인사의 계시

- 9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밧도라는 섬에 있었다.
- 10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 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 11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로 보내라.” 하고 하셨다.
- 12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 13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같았고,
- 15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제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 16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 17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 18 또한 살아 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sup>19</sup>“데스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 19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 20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라고 하였다.

##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 2 **1**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 2 나는 네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 3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 4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 5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 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

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 8 ○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 10 나는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 12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 “양날 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 14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 15 이와 같이 네게도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 16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 18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 “눈이 불꽃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

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 19 내가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 20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네 종들을 가르치고 회여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 21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 22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며,
- 23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 주겠다.
- 24 그러나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았다.
- 25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 26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 27 <sup>1</sup>“그가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 28 이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사데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 3 **1** 너는 사데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 2 너는 깨어 있어, 남아 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는 네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네게 올 것인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 4 그러나 사데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7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8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네게 줄 것인데, 그들은 차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네게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11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14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이편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자”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15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바란다.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다.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18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20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4 1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 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2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3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에 에메랄드 같았다.

4 또 보좌를 둘러 이십사 장로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6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새 생물이 있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룩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11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 두루마리와 어린양

5 1 또 내가 보좌에 앉아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일곱 인으로 봉해진 것이었다.

2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였으니,

3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4 그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 것이다.”라고 하였다.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다.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7 어린 양께서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으셨다.

8 ○그분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각기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9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11 ○또 내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하고, 천천이었다.

12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

14 네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 일곱 봉인을 떼시

6 1 ○어린 양께서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2 내가 보니, 흰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3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4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5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6 그때 네 생물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하였

다.

7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8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마이었으며, “데데스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9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중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ㄱ)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일곱’이 없음. 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와서 보아라’ ㄷ)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보니’가 있음 ㄹ)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ㅁ) ‘음부’



- 10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 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11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잘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12 오편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베처럼 검게 되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15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17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 7 1 0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2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3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4 0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었다.  
5 유다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만 이천 명이고,  
6 르우벤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7 갓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8 아셀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9 납달리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10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11 시므온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레위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12 잇사갈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13 스불론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요셉

지파 가운데 만 이천 명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가 만 이천 명이었다.

#### 각 민족으로부터 온 큰 무리

- 9 0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11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였다.  
13 0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고 하므로,  
14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16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운 것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 8 1 0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2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4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 5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일곱 천사의 나팔**  
6 0그 때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7 0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렸고 나무의 삼분의 일도 타 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 버렸다.  
8 0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로 변하고,  
9 바다에서 생물을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다.  
10 0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빛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생물에 위에 떨어졌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삼분의 일이 이썩어 되고 그 물들이 쓰므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12 0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의 삼분의 일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13 0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 9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었다.”  
2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3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4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과 고통과 같았다.  
6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8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9 그것들은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소리 같았다.  
10 그것들은 전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11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블루온”이다.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13 0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 주어라.” 하였다.  
15 정해진 연월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16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이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17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향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고 있었다.  
18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다.  
19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하였다.  
20 0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행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거나 다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21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 천사와 작은 책

- 10 1 또 내가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

- 은 해 갑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2 그의 손에는 펴 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3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4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5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6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 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8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9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네 배에는 쓰겠으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라고 하였다.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11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두 증인들

- 11 1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4 그들은 이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

- 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6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면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7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침입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8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이곳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다.  
9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삼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10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11 삼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 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12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13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읍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칠천 명이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셋째 화가 곧 올 것이다.

### 일곱 번째 나팔

-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 사 장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7 말하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나,  
18 나라들이 분개하였으나,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

- 으며,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19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다.

### 여자와 용

- 12 1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2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3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일곱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5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6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 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천이백육십 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7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자들도 싸웠으나,  
8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9 그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10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밟았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11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 씬으로 그들을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

- 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14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15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 버렸다.  
17 용이 갈매기에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18 바다 모래 위에 섰다.

### 두 짐승

- 13 1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었고 그의 열 뿔에는 열 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였는데,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3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4 그 짐승의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5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이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6 또 짐승에게 큰소리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주어지니,  
7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8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9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1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일곱’이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말한 것을 내가...’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가) 시 29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름’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 있는 그분의 장막을 모독하였다.’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로잡혀’가 없음.



갈 것이고, 누구든지 겁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겁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 두번째 짐승

- 11 ○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 12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자였다.
- 13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 14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였다.
- 15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 16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 17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 18 ○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sup>가)</sup> 육백육십육이다.

#### 어린이와 십사만사천 명

- 14 <sup>가)</sup> 1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 2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라고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거문고소리 같았다.
-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 4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러진 자들이다.
- 5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 세 천사의 메시지

- 6 ○ 또 내가 보니, <sup>나)</sup>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

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 7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 8 ○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빛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 9 ○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 11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쉬를 얻지 못할 것이다.
-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 13 ○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 땅의 추수

- 14 ○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았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 15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 16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 17 ○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 18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 19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 20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 육백 <sup>가)</sup>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다.

####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 15 <sup>가)</sup> 1 ○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 2 ○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서 있었다.

- 3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sup>나)</sup>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 4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5 ○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있었다.

- 7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 8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 16 <sup>가)</sup> 1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

아라.”

라고 하였다.

- 2 ○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 3 ○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 4 ○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 5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

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 6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 8 ○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 9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 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 10 ○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 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 11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 12 ○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 13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 14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 15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찢어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무릎로 땅을 밟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 16 그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말렉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 일곱째 대접

- 17 ○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육백십육’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른’이 없음. 다) 원문에는 ‘포도주로부터’ 라) 단 7:13

가) 1 스타디온은 약 185미터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원하신 왕이시여’ 다) 원문에는 ‘물의 천사’

- 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18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  
 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19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국  
 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하  
 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  
 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빌론에 내리셨다.  
 20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21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  
 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 큰 음녀와 짐승

- 17 1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을 네게 보여 주겠다.”  
 2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  
 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  
 주로 인해 취하였다.”  
 라고 하였다.  
 3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자  
 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  
 4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여겨운 것들과  
 “음행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찬 금잔을 가지  
 고 있었으며,  
 5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빌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6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라고 놀랐다.  
 7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네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  
 는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말하겠다.”  
 8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9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일  
 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다.

- 10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  
 으로 들어갈 것이다.  
 12 또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잠깐 동안 그 짐승  
 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  
 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14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  
 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  
 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16 내가 본 이 열 뿔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  
 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며 그 여  
 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17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할 마음  
 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  
 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실 것이  
 다.  
 18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이다.”

### 바빌론의 멸망

- 18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  
 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  
 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2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3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  
 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화화로온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  
 문이다.”  
 라고 하였다.  
 4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저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

- 려는 것이다.  
 5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  
 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  
 셧기 때문이다.  
 6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  
 주고 그 행위대로 두 배로 갚아 주며 그 여  
 자가 섞은 잔에 두 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7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  
 아 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거  
 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  
 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  
 이 다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  
 고, 또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9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10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  
 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라고 할 것이다.  
 11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  
 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베  
 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  
 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  
 건이고,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14 “네 영혼의 탐하던 열매가 네게서 떠나가  
 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네게  
 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15 ○바빌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  
 하며,  
 16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고운 베옷과 자주색과 붉  
 은 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  
 답게 꾸민 큰 성읍아,  
 17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모든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 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읍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19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바다에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던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  
 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  
 다.”  
 21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다.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읍 바빌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22 또 거문고 타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  
 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  
 리가 네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  
 고, 어떤 종류의 세공업자도 네 안에서 다  
 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소리도 네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23 네 안에서 다시는 등불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네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 상인  
 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네 절술에 미혹되었으니까.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하늘의 찬양

- 19 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  
 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  
 나님께 있으니,  
 2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  
 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  
 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3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라고 하였다.  
 4 그리고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  
 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오멘, 할렐루야.”  
 5 이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

가) 1달란트는 약 30~50킬로그램.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땅의’가 있음. 다) 원문에는 ‘한 시간 동안’ 리) 다  
 른 고대 사본들에는 ‘짐승들’ 미)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포도주’가 없음.



- 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다.
- 6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우레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 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일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 8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 9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이다.” 라고 하였다.
- 10 이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 흰 말을 탄 자**
-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 13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 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 15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 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

- 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으라.”
- 19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 20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 채로 유향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 21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 천년

- 20 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 2 천사가 용,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 3 무저갱에 던져 잡히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잘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
- 5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잘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 사탄의 패배

-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 7 ○천년이 잘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 8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 9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고
- 10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향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 흰 보좌위에 앉으신 분의 심판

- 11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 13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 14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 새 하늘과 새 땅

- 21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 2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 3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라 되실 것이다.”
-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 라고 하였다.
- 5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였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 6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향이 타는 못 안에 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 새 예루살렘

- 9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찬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라고 하였다.
- 10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 12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열두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다.”
-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고
- 14 또 그 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었다.
- 15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 16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 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 같았다.”
- 17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 18 그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었고 그 성은 청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 19 그 성벽의 기초 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 20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다.
- 21 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청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 22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 23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하나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없음. 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피가 뿌려진’ 다) 헬 ‘아비소스’

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 나) ‘음부’ 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가 없음. 라)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름’이 없음. 마) 1 스타디온은 약 185미터 바) 1 규빗은 약 45센티미터

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24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25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저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26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27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 생명의 강

22 **1**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와서,  
 2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3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4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5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

6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7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8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이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10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12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찢는 자들은 복이 있다.  
 15 개들과 절술하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17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하였다.  
 18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19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sup>ㄴ</sup>아멘.

##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 2008년 9월 10일 초판  
 · 2009년 4월 10일 2판

판 권  
 한국성경공회  
 소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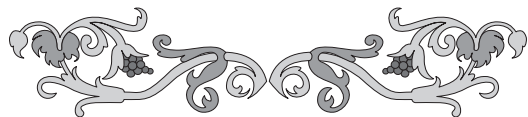
편집 :: 한국성경공회 출판위원회  
 발행처 :: 한국성경공회  
 발행인 :: 김 태 윤  
 등록일 :: 1996년 11월 19일  
 등록번호 :: 제 13-738호  
 전화 :: (02) 376-9123~4

ISBN

978-89-960865-8-1-03230 (색인, 브라운)  
 978-89-960865-7-4-03230 (색인, 자주)  
 978-89-960865-6-7-03230 (색인, 검정)



# 바른 성경 교 독 문



## 교독문 차례

1 시편 1편	27 시편 121편	53 요한계시록 21장
2 시편 2편	28 시편 127편	54 성례식
3 시편 4편	29 시편 130편	55 대림절 (1)
4 시편 8편	30 시편 139편	56 대림절 (2)
5 시편 13편	31 시편 142편	57 성탄절
6 시편 15편	32 시편 143편	58 종려주일
7 시편 16편	33 시편 150편	59 고난주간 (1)
8 시편 19편	34 잠언 3장	60 고난주간 (2)
9 시편 23편	35 이사야 35장	61 수난일
10 시편 27편	36 이사야 40장 (1)	62 부활절
11 시편 28편	37 이사야 40장 (2)	63 성령강림절
12 시편 32편	38 이사야 42장	64 감사절 (1)
13 시편 34편	39 이사야 55장	65 감사절 (2)
14 시편 46편	40 이사야 58장	66 현당 예배
15 시편 51편	41 이사야 65장	67 신년 예배
16 시편 63편	42 마태복음 5장	68 국가 기념일주일
17 시편 65편	43 마태복음 6장	69 3.1절
18 시편 67편	44 요한복음 1장	70 광복절
19 시편 84편	45 요한복음 3장	71 어린이주일
20 시편 91편	46 요한복음 14장	72 어버이주일
21 시편 95편	47 요한복음 15장	73 종교개혁주일
22 시편 96편	48 고린도전서 13장	74 선교주일
23 시편 98편	49 빌립보서 2장	75 성경주일
24 시편 100편	50 빌립보서 4장	76 임직식
25 시편 103편	51 히브리서 11장	
26 시편 104편	52 요한일서 4장	

## 교독문

### 1.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다같이)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1-6)

### 2. 시편 2편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 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 버리자.” 한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네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1-8)

### 3. 시편 4편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이,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 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큼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8)

## 4.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 떼와 소 떼와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 따라 다니는  
 것들입니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9)

## 5. 시편 13편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날마다 마음에 근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군림해야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대적이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6)

## 6. 시편 15편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5)

## 7. 시편 16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다.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1-8)

## 8.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며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1-4상)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와 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호와와 의 법도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다. (7-10)

## 9.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와 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1-6)

## 10. 시편 27편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와 의 집에 살며

여호와와 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1-6)

## 11. 시편 28편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악인과 함께, 행악자와 함께 끌고 가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에게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1-3)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분별치 못하니,  
 주께서 그들을 파멸시키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므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다같이) 여호와와 는 그 백성의 힘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다. (8)

## 12. 시편 32편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1-4)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5하-7)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기쁨으로 외쳐라. (11)

### 13.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칭송하여라. 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1-4)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같이) 젊은 사자들은 먹이가 없어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6-10)

### 14.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므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1-5)

그분이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로 태워 버리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9-11)

### 15.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1-5)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7)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10)

### 16. 시편 63편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내 영혼이 가장 좋고 기쁜 것을 먹은 것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뻐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으니,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1-7)

### 17. 시편 65편

하나님이시여, 잠잠함이 주님 앞에 있고, 찬송이 시온에 있으며,

주께 대한 서원이 이행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이겼으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 곧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1-4)  
 주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넘치게 대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내가 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해 주었으니, 주께서 땅을 이와 같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9)  
 목장은 양 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그들이 크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13)

## 18. 시편 67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길을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지여,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족속들로 기뻐하고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땅 위의 족속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지여,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할 것이다. (1-7)

## 19.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지여,  
 주님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동지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1-6)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10)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2)

## 20.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깃으로 덮으시고, 네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1-4)  
 천 명이 네 곁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네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7)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11)  
 (다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14)

## 21.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그분께 크게 외치자.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지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곳들도 주님의 것이다.  
 바다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셨고  
 육지도 주님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지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이기  
 때문이다. (1-7상)

## 22.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민족들 중에서 그분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말하여라. (1-3)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광채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다. (5-6)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떨어라. (9)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가득한 것들은 크게 외치고,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들이 기쁘게 노래할 것이니,

곧 여호와 앞에서다. 그분이 오시니,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다같이) 그분이 의로 세상을, 신실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11-13)

## 23.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구원을 알리시며

민족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분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며,

온 땅의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쳐라.

소리쳐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하여라.

여호와께 수금,

곧 수금과 노랫소리로 찬송하여라.

나팔들과 뿔 나팔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크게 외쳐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소리 쳐라.

강들이 손뼉을 치고 작은 산들이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니, (1-8)

## 24.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쳐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쁘게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 목장의 양 떼이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다. (1-5)

## 25.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주께서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네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네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1-5)

여호와께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히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다같이)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8-14)

## 26.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매우 광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것같이 빛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치시며,

물 위에 주님의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을 주님의 수레로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주님의 천사로 삼으시고, 타오르는 불을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주께서 그 터 위에 땅을 든든히 놓으셔서 영원 무궁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1-5)

주께서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지 못하게 하셨으며,

돌아와서 땅을 덮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들나귀도 갈증을 해결하며,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고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지저킵니다.  
주께서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열매로 땅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9-13)

## 27. 시편 121편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네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1-8)

## 28.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과 같다.  
화살 통이 화살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다같이) 그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1-5)

## 29. 시편 130편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이시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을 경외케 하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는 인애와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다같이) 그분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1-8)

## 30. 시편 139편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1-4)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서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7-10)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알아 주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3-24)

## 31. 시편 142편

내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내 괴로움을 그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영이 내 안에서 기진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내가 걷는 길목에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 주소서. 나를 염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 자의 땅에서 내 분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나는 너무나 비천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어 나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입니다. (1-7)



## 32. 시편 143편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종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소서.

살아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원수가 나를 추격하여 내 생명을 땅에 메어치고 영원히 죽은 자처럼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기진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시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 (1-7상)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주님의 인애로 내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11-12)

## 33.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공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좇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 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큰 소리 나는 심벌즈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1-6)

## 34. 잠언 3장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13-21)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네 발을 올무에서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 (26)

## 35. 이사야 35 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피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1-2)

그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5-6)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브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8)

여호와와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10)

## 36. 이사야 40장(1)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3-8)

### 37. 이사야 40장(2)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효대로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므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판결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같이) 달음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26-31)

### 38. 이사야 42장

“내가 볼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꼬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1-4)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낼 것이다. (6-7)

### 39. 이사야 55장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1-3)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6-7)

### 40. 이사야 58장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 주고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네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네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 주며,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네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네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다같이) 네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 댄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6-11)

### 41. 이사야 65장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17-19)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25)

## 42.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3-12)

## 43.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일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25-28)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1-33)

## 44.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1-5)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9-14)

## 45.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16-21)

## 46.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1-6)

## 47. 요한복음 15장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5-11)

## 48. 고린도전서 13 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이나 팽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1-8)  
 (다같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13)

## 49.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5-11)

## 50. 빌립보서 4장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다같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4-9)

## 51.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  
고 인정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1-6)

## 52.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7-12)

## 53.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1-5상)

## 54. 성례식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때까지 기다립니다.

(시 123:1, 2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롬 5:8-9)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롬 6:4하)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골 2:6-7)

## 55. 대림절 (1)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여라.

대로를 건설하고 건설하여라. 돌을 치워라. 백성들 위에 깃발을 높이려.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외치신다. “딸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네 구원이 이르렀다.

보아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부르며

너 예루살렘을 ‘찾은 자’ ‘버림받지 않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 62:10-12)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굳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눅 3:4-6)

## 56. 대림절 (2)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집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대로

주께서는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눅 1:68-75)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눅 1:78-79)

(다같이)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사 7:14)

## 57. 성탄절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다.” (사 40:5)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미 5:2)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사 9:6-7상)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눅 2:10-11)

## 58. 종려주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쳐라.

보아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며,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니, 그분이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스 9:9-10)

그분을 앞서 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마 21:9)



## 59. 고난주간(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요 1:29)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샘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슥 13:1)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시 16:9-11)

(다같이)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하였다.

(계 5:12)

## 60. 고난주간(2)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사 53:1-3상)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사 53:4-6)

## 61. 수난일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마 16:24)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로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벧전 2:21-25)

## 62. 부활절

하나님께서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행 2:24)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고전 15:57-58상)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눅 24:36-39)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전 15:2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요 11:25-27)

## 63. 성령강림주일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사 11:2)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고전 2:10)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 14:16-17상)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 14:26)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행 1:8)

## 64. 감사절(1)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다. (시 107:1)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을 백성들 중에 알려라. (시 105:1)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해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 (시 107:4-9)

## 65. 감사절(2)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위에 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시 136:1-12)

## 66. 헌당예배

여호와와 집, 우리 하나님의 집 뜰에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와 선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 135:2-3)  
 제가 주께서 계실 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건축하였습니다.” 하고 (대하 6:2)  
 그의 거처에 들어가 그 발 앞에 경배하자. (시 132: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시 24:7)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소서. (대하 6:19)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사 56:7)  
 (다같이)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합 2:20)

## 67. 신년예배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겠고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뀔것으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시 102:25-27)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사 43:18-19상)  
 너희가 거저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엡 4:22-24)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고후 5:17)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 13:34)



## 68. 국가기념일 주일

온 땅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시 33:8)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시고, 민족들의 의도를 저지하셨다.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은 대대로 지속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유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신다.

그분은 그 계신 곳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목하신다. (시 33:10-14)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용사가 없다. (시 33:16)

보아라, 여호와와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곧 그 인애를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있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시고, 기근 때에 그들을 살려 주신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우시며, 우리의 방패시다 (시 33:18-20)

여호와시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 33:22)

## 69. 3.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 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영원히 진실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시 146:1-9)

## 70. 광복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출 15:1하-2상)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출 15:6)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때에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시 126:1-3)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다같이)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어라.” 하실 것이다. (사 9:2-3상, 19:25하)

## 71. 어린이주일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시 127:3-5상)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 18:3-5)

또한 아버지야,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엡 6:4)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다같이)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 22:6)

## 72. 아버지주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출 20:12)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들은 네 머리의 아름다운 화관이며 네 목의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잠 1:8-9)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라. (잠 23:22)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자를 기쁘게 하여라. (잠 23:25)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엡 6:1-3)

## 73. 종교개혁주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시 18:1-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눅 11:28)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롬 1:16-17)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요 8:31하-3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같이)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고전 15:57-58상)

## 74. 선교주일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여라.

그분의 영광을 민족들 중에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여호와께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하여라. (대상 16:23-25)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요 20:2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 28:19-20)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다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행 1:8)

## 75. 성령주일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시 119:33-34)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교훈들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니,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율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습니다. (시 119:103-106)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 5:39)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딤후 3:16-17)

## 76. 임직식

그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여라.”

라고 하셨다. (마 9:37-3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후 3:6)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  
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딤후 1:12,14)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마 25:23)

(다같이)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고전 4:2)



